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6 호

8 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6 호 (230)
1963년 8월 (하)

차 례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과 혁명 전통 교양

당원은 부단한 수양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맑스-레닌주의 사상 의식 수준을 높이며, 불요 불굴의 혁명적 투지를 배양하고, 인민적 작풍을 확립함으로써 점차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맑스-레닌주의자로 준비되여 간다.

이러한 혁명적 수양은 모든 당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과업이다.

당원은 누구나 다 처음부터 모든 면에서 준비되고 완성된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락후한 사상 잔재를 가지고 있으며 혁명적 실천을 통한 단련이 부족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당원들은 당 조직에 소속되여 당 생활을 진행하며 당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적지 않은 당원들은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준비되여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은 부단한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약점과 부족점을 극복함으로써 점차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 가야 한다.

당원이 혁명적 수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특히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당원들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높아지는 것과 또한 관련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당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과 도덕 품성은 그에 상응하게 계속 높아져야 한다.

사회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자체를 부단히 수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조만간에 현실에서 뒤떨어지고 쓸모 없는 당원으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의 혁명적 수양은 그가 당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수양은 봉건 사상가들의 수양과는 구별된다.

봉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소위 수양이란 거의 모두가 유심론적이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사회적 실천으로부터 유리된 것이였다.

그들은 수양을 위하여 흔히 인간 생활과 떨어진 심산 절간을 찾아 가 《경》을 읽었으며 그리하여 《선량한 마음》만 가지면 사회와 자신을 개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물론 허황한 것이다.

우리의 수양은 이와 같이 될 수 없다.

우리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은 대중의 혁명 실천 속에서, 실지 사업과 생활 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원은 혁명적 실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자신을 단련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주체적 노력에 의한 수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원은 당 규약 상 의무에 비추어 항상 자기를 검토하며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총화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당원은 혁명 실천 과정에서 자기의 사상과 품성에서의 부족점을 알아내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고쳐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천을 떠난 수양이란 아무러한 의의도 가지지 못 하며 또 필요하지도 않다.

때문에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은 우리 나라의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런 때에만 당원들은 바로 우리 혁명 수행에 필요한 혁명적 정신과 기풍으로 무장된 일'군으로 되며 조선 혁명에 실천적 리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현 시기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당원들이 계급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원들의 수양에서 기본 문제로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혁명의 장기성, 간고성과 관련하여 절실한 문제로 된다.

지구 상에는 아직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사회주의는 일부 나라에서만 승리하였으며 이리하여 국제적 범위에서의 치렬한 계급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였지만 전국적 범위에서는 아직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지 못 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장구한 기간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오직 이 투쟁을 통해서만이 혁명의 최후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원들은 계급 투쟁에서 적아를 명백히 구분하고 계급적 원쑤를 증오할 줄 알며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견결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우기 혁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직 적대 계급의 본성과 그의 착취상, 교활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 한 새로운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점차 교체되며 또한 우리 당 대렬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보충되는 조건 하에서 당원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은 극히 중요한 사업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현 시기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혁명적 기풍을 회립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매우 간고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 조국이 분렬된 조건 하에서, 특히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국제 반동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로골적인 파괴 책동, 온갖 비방 중상이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당은 이러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 빨리, 더

성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이리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앞당기려고 한다.

이 과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부닥치는 곤난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하며 부과된 혁명 과업을 어김 없이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에게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강의한 사업 태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어떤 곤난이든지 이겨 나가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누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 한다.》

현실은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나라의 혁명을 우리 인민의 힘으로 수행한다는 정신,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은 자기 힘으로 다하겠다는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있을 때에야만 우리는 무한한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전진 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성과 있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민의 힘,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과 얼굴만 쳐다 보는 낡은 의뢰 사상, 이것은 혁명을 하려는 사람의 립장이 아니며 자력 갱생의 정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오늘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인민적 작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에의 대중의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참가를 보장함에 있어서, 또한 전체 군중을 당의 주위에 집결하여 공화국 북반부를 붉은 일색으로 더욱 튼튼히 꾸릴 데 대한 우리 당의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작풍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데로부터 설명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대중의 역할은 그 의의가 더욱더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중요한 과업은 대중이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옳게 조직 지도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군중이 항상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떠한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더라도 동요 없이 당을 지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중요하게 우리 당원들의 군중 관점과 사업 작풍에 달려 있다.

아무리 우리 당 정책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의 집행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사업한다면 군중은 당의 정당한 방침을 옳게 리해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관철에 자각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 당원들과 간부들이 군중을 교양하고 설복할 대신에 명령과 호령으로 대하거나 군중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내려 먹이며, 일상 사업과 생활

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군중 속에서 당의 위신을 저락시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군중을 아량 있게 포섭할 줄 모르고 무원칙하게 경원하며, 군중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 제기한다면 그들은 당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할 것이며 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원들의 사업 작풍은 군중을 당의 주위에 결속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속에서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는 것은 오늘 그들의 수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이 쌓아야 할 혁명적 수양의 기본 내용은 이상과 같다.

* *

우리 당원들은 이상과 같은 기본 내용에 기초하여 철저히 수양함으로써만 오늘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항상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들의 수양을 위하여서는 당 생활, 학습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형식과 방법을 충분히 리용함으로써 자신을 꾸준히 단련하고 수양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혁명 전통 학습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항일 빨찌산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에는 우리 당원들이 쌓아야 할 수양의 전체 내용이 포괄되여 있기 때문이다.

항일 빨찌산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풍모, 인민적 사업 작풍은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의 훌륭한 구감으로 되고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공산주의자의 전형이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살며 행동하며 싸워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산 모범으로 보여 주었다.

실로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마디 한 마디는 오늘 우리 당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행동 규범으로, 산 지침으로 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 사적은 우리를 무한히 격동시키며 그들을 따라 배우려는 정열로 불타게 한다.

우리 당원들은 항일 투사들의 훌륭한 모범적 사실을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의 부족점을 발견하고 명백한 시정 방도를 찾아 내게 되며 이리하여 자신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부단히 준비시킨다.

또한 혁명 전통 교양이 당원들의 수양에서 거대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은 혁명 전통이 사람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거대한 감화력을 가진다는 데 있다.

혁명 전통으로의 교양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행동, 품성을 어떤 개념만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생동한 사실로서 보여 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게 접수될 수 있고 위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그것

이 보통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를 위한 류례 없이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 전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감화력은 각별히 크다.

항일 유격대들은 말할 수 없는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명을 가장 영웅적이며 락천적으로 용감하게 자기희생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통은 모든 사람들을 그처럼 무한히 감동시키며 우리들에게 백배 천배의 힘과 용기를 준다.

항일 유격대의 간고한 투쟁 사적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눈'시울을 붉히며 흥분하며 격동되는 것은 바로 항일 빨찌산들의 고결한 사상, 품성이 우리의 심장을 틀어 쥐기 때문이다.

실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그의 거대한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데 더 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원들의 혁명적 수양에서 혁명 전통 교양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혁명 전통이 우리 당의 뿌리이며, 또 이 전통이 바로 오늘 우리 혁명을 령도하는 당의 령도 핵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 이것은 우리 당의 뿌리이다. 이 뿌리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간고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였으며 또 승리하고 있다.

혁명 전통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자기 당의 뿌리, 혁명의 뿌리를 옳게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수 있게 한다.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결코 먼 과거의 단순한 력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의 령도 핵심과 그 전우들이 조국의 광복과 조선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전개한 간고한 투쟁이다. 바로 이 투쟁 속에서, 이 분들에 의하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성과는 전적으로 항일 투사들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령에 대한 전체 근로자들의 충성은 비할 바 없이 높으며 모두가 그이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에 노력하며 그이를 따라 배우는 것을 가장 숭고한 영예로,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은 우리 인민의 자신의 것으로, 전체 인민의 고귀한 정신적 량식으로 무조건 접수될 수 있는 것이다.

혁명 전통 교양은 우리 당원들을 혁명 투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못 다한 혁명 위업을 계승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높은 자각성으로 무장시킨다.

우리의 수 많은 혁명 선렬들은 혁명 투쟁을 계속할 동지들과 후대들을 믿으며, 혁명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면서 최후를 마치였다.

혁명 선렬들의 후대들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그들이 못다한 혁명 위업을

이어 찬란한 공산주의 미래를 위하여 그들처럼 살며 싸우겠다는 투쟁 정신으로 자신이 무장하게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가 선렬들을 잊지 않고 회상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단순하게 기억에서 되살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이들에게서 애국주의 사상과 혁명적 지조를 배우기 때문이다. 선렬들은 혁명에서 우리의 스승이며 거울이다. 우리는 항상 그이들을 따르고 배우며 존경하여야 한다…선렬들에게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그 고결한 지조를 물려 받으며 조선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다지자는 데 있다…》라고 가르치였다.

우리 전체 당원들은 혁명 선렬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말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자기 맡은 초소를 철벽 같이 지킴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혁명 선렬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이 더욱 활짝 꽃피게 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원들은 혁명 전통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투쟁과 생활의 모범을 본받아 자체의 수양을 더욱 높여야 한다.

항일 투사들의 위업의 훌륭한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상기를 몇 번 읽거나 항일 투사들의 투쟁과 생활의 어떤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그들의 전 생활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고귀한 사상과 도덕 품성의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혁명 전통 학습을 당 생활, 사상 생활,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혁명 전통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하는 등 부단히 반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은 우리들의 생활과 정신 세계를 확고히 지배하게 되며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력한 정신적 밑천으로, 원동력으로 될 수 있다.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에서 작업반의 위치와 역할

림　필　수

최근 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는 작업반 조직을 개편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양 뜨락또르 공장에서도, 본궁 화학 공업 경영국 산하 공장들에서도, 평양 혼방직 모체 공장에서도 자기 공장의 실정에 적응하게 작업반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옳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생산 장성의 막대한 예비를 찾아내고 있다.

오늘 이 문제가 그렇게도 사람들의 주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작업반의 역할이 더욱더 제고되기 때문이며 당 정책의 관철 여부가 바로 거기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작업반은 군중 속에서 직접 사업을 조직하는 제일 밑바닥의 사업 단위이다…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결국 작업반에서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에 달려 있다.》(김 일성,《당 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경제 생활에서 작업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조성된 새 조건에서 어떻게 작업반을 조직할 것이며 또 운영할 것인가.

1

사회주의적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작업반은 생산의 기층 단위이다. 작업반에서 인민 경제 계획들이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생산 활동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경제 생활에서 작업반의 위치는 결코 단순히 생산 단위라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심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더우기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 대안의 사업 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작업반은 근로자들을 대중적으로 경제 운영에 인입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였다.

자각된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훌륭한 방법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는 형식들이 보다 발전되고 더욱 합리적인 새로운 형태들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게 되였다. 그 과정에서 생산 협의회가 작업반의 범위에서 조직되여 활발히 운영되게 되였고 내부 채산제가 직장에서 작업반에까지 심화되여 반원들 자신이 수지를 타산하고 생산을 통제하게 되였으며 전체 반원들이 모두

가 문번으로 작업반장의 리장에서 책임적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지도하게 하는 직일 작업반장제가 창조되고 제품 검사와 기준량 제정 사업 등이 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과정에서 창조 발전된 이러한 형식들은 대안 사업 체계의 확립에 의하여 더욱 제도화되였고 물질적으로 공고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바로 작업반이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함에 있어서 기본 단위로 되고 있고 벌써 계산, 통계, 로동 행정, 자재 공급, 제품의 검사 등과 같은 공장 관리의 중요한 측면들이 바로 작업반원들 자신에 의하여 담당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기 이와 같이 작업반이 근로자들을 대중적으로 기업 관리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기본 단위로 된 것은 생산력이 가일층 발전하고 생산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이 전면적으로 제고되였으며 관리 조직이 더욱 째워지게 된 데 기인된다.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이 더욱 제고됨으로써 모든 작업반 성원들이 공장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되였으며 실제로 작업반에서 공장 관리의 한 측면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관리 조직이 더욱더 째워지고 사업에서의 복잡성이 제거되여 경제 운영 사업 자체가 일층 명백하여졌으며 이에 따라 로동자들이 자기 작업반 사업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가지는 공장 관리에 직접 참가하여 그 일부 측면들을 담당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였다. 더우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대안의 사업 체계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그러한 조건은 더욱더 증대되였다. 새로운 관리 기구 자체에 따라 모든 지도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작업반 사업을 도와 주게 되였고 특히 당 위원회가 모든 당 조직들을 잘 움직이게 되고 당 조직은 당원들을, 당원들은 전체 대중을 발동시키게 되여 작업반의 전체 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이끌며 모든 사업에 주인답게 전신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이 바로 우리 나라에서 단순히 생산 단위에 불과하였던 작업반을 근로자들의 대중적 경제 운영의 기본 거점으로 되게 하였으며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 놓게 하였다.

작업반은 로동자들이 생산을 하면서 경제 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가장 합리적인 단위이다.

그것은 우선 생산에서 리탈됨이 없이 누구나 다 자각적으로 경제 운영에 군중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들의 관리 지식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한다.

작업반은 기업소의 생산 경제 활동에 있어서 다른 단위들에 비하여 성원들이 적고 그의 사업도 비교적 단순하다. 공장이나 직장에서와 같이 경제 운영에서 타산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복잡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공장에서 집행되는

기본적인 사업들 이를테면 계획 작성, 생산 조직, 로동 행정, 설비 관리, 자재의 보장(자재의 입출고), 제품 검사, 계산, 통계 등이 다 진행된다. 그러므로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서는 로동자들이 누구나 경제 운영 사업에 쉽게 참가할 수 있고 관리의 한 측면을 직접 담당 수행하면서 공장의 전반적인 기업 관리 사업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군중 속에서의 사상 사업의 거점인 작업반에서는 또한 근로자들의 대중적 기업 관리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고 이는 물질적 자극에 의하여 안받침되게 된다. 이로부터 로동자들은 작업반에서 높은 적극성과 창발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집단적인 지혜와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광범한 대중이 기업 관리 운영에 참가하게 될 때 또한 기업 관리를 개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작업반마다에서 더욱 구체화되게 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 시기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작업반은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작업반 사업의 강화는 새로운 관리 체계의 위력을 남김 없이 발양시키는 주요한 담보로 된다.

2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의 작업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로력 조직을 개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매우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의 작업반은 로동 과정에서 생산자들의 협업 형태이다. 작업반 성원들은 일정한 생산 과제를 맡아서 그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로동을 진행한다.

생산에서 이러한 협업은 가장 단순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별적 생산자들의 로동에 비해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즉 《…로동의 기계적 힘이 제고되며 혹은 로동의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확대되며 혹은 생산의 공간적 범위가 생산의 규모에 비하여 축소되며 혹은 결정적 순간에 다량의 로동이 짧은 기간 내에 적용되며 혹은 개별적 사람들의 경쟁심이 고취되어 그들의 혈기가 왕성하게 되며 혹은 다수인의 동일 종류의 작업에 련속성과 다방면성의 각인이 찍히며 혹은 각이한 작업들이 동시적으로 수행되며 혹은 생산 수단이 그 공동적 사용에 의하여 절약》(칼 맑스, 《자본론》 제 1 권 1 분책, 473 페지)되는 것이다.

협업과 분업이 자본가들의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주요한 방법으로 되는 데로부터 자본주의 하에 있어서도 그것은 자본가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의 발전이 다만 잉여 가치 생산을 증내시키는 한에 있어서만 가능하며 사회적 규모에서 협업과 분업을 효과 있게 조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사회주의 하에 있어서만 인간은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분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키며 그의 유용성을 전면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작업반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결국 생산 행정에서 협업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실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을 자기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조직한다면 로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방대한 로력 예비를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평양 혼방직 모범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 과거의 3 교대제를 2 교대제로 고치고 작업반의 규모를 공장의 실정에 적응하게 개편하는 것만으로써도 적지 않은 생산 장성의 예비를 얻어 냈다. 즉 그것으로써 로동자들로 하여금 작업 전이나 혹은 그 후 시간들을 리용하여 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보수를 철저히 진행하여 설비 리용률을 훨씬 제고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다음 작업에 들어 설 수 있게 하여 480 분 로동 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리용하게 한 것이다.

교대 조직과 함께 작업반 조직을 개편한 이후의 생산 장성 동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로동자 1 인당 생산량	종업원 1 인당 생산량
개편 전의 4월	100	100
개편 후의 6월	125	119

(실제 가격 의원에 의하여 계산한 것임)

보는 바와 같이 개편 직전인 4월에 비하여 그 이후인 6월에는 로동 생산 능률이 무려 20% 정도 제고되였다. 이것은 교대제와 함께 작업반의 옳은 조직이 현 시기 당이 강조하고 있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작업반 조직에서 주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형태와 규모를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협업을 하여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가 하는 것은 주로 그 형태와 그에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의 수에 의하여 규정되게 된다.

인민 경제의 매개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은 기술 발전 수준, 생산 조직의 특성, 생산의 규모, 작업 제도 등 객관적 조건과 작업반장의 지휘 능력이 각이한 만큼 작업반의 형태와 규모도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작업반은 일반적으로 단일 직종의 로동자들로써 구성된 전문 작업반과 여러 직종으로 구성된 종합 작업반이 있으며 또한 교대별 작업반과 주야간 작업반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종합 작업반은 작업 수행 상한 각업에 로력을 집중하며 각이한 직종의 로동자들 간에 련계를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든지 생산 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직종별로나 조작별로는 정확히 평가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 그 자체를 로동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자연적 조건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탄광, 광산, 림업, 농업, 건설의 기본 생산 부문들을 들 수 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발파가 진행된 직후에는 천공 작업을 할 수 없다. 우선 버력을 운반해야 하며 착암 로력들까지도 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이 없이는 천공 작업도 지연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착암공들이나 운반공들을 각각 따로 작업반을 조직한다면 그들의 협조를 강화할 수 없으며 운반 작업에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로력 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곤난하며 운반 작업이 지연되여 착암공의 로력은 더욱더 랑비되게 된다. 또 그들 간에 협조를 강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생산 결과에 따르는 옳은 분배를 줄 수 없게 된다. 오직 종합 작업반을 조직하여야 생산 공정별 작업량에는 관계 없이 모든 로동자들에게 완전한 작업 부하를 보장해 주어 로동일을 충분히 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작업반 전체의 실적에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모든 로동자들이 서로 방조하면서 작업반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할 수 있다.

주야간 작업반은 생산의 련속성을 띠였거나 교대별 작업 실적의 평가가 곤난한 때에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 상 련계와 직종 간 련계가 극히 밀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련대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리유》로 관리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종합 작업반을 무리하게 조직하거나 생산이 련속성을 띠지 않는 부문에서 주야간 작업반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유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작업반이 그러하듯이 종합 작업반도 실정에 부합될 때에만 그 우월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무리하게 종합 작업반을 조직하는 것은 작업반의 규모만 확대시키고 작업반장들이 각이한 직종의 작업에 대하여 원만한 지도를 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견지로 봐서도 작업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주야간 작업반을 무원칙하게 조직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케 된다.

공정이나 직종 간 련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은 부문에서는 가능한한 전문 작업반을 조직하며 또 될수록이면 교대별 작업반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전문 작업반은 우선 말 그대로 일정한 작업 수행에 대한 전문화를 보장케 한다. 즉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다루고 있는 기계 설비, 기술 공정, 로동 대상을 더욱 심오히 연구하여 이에 정통케 하며, 한 작업으로부터 다른 작업에로 이동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기본 작업 시간의 비중을 증대시키며, 기능공들을 부차적인 작업에서 면제시켜 주며, 설비를 집약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작업반장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작업 조직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하며, 동일한 직종의 로동자들 간에 경쟁을 강화하고 선진 경험을 신속히 보급시킴으로써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더욱 빨리 높일 수 있게 한다.

작업반의 규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산 기술 공정이 복잡한 부문일수록 작업반장들의 지휘 능력에 맞게 작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 농장의 작업반을 약 50 명 정도, 공업 가공 부문 작업반을 약 15 명 정도로 조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생산을 지도하고 생산 조직을

옳게 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많은 문제들을 타산하여야 하며 작업반장들은 현대적 기계 설비들에도 정통하여야 한다. 따라서 작업반에 망라되는 성원들이 적고 규모가 작아야 작업반장들이 생산에 참가하면서도 모든 사정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작업 조직을 정확히 할 수 있다. 일'군들에게 정치 도덕적 자극과 함께 물질적 자극을 정확히 주는 면에서도 작업반의 규모가 작아야 효과적일 것이다.

작업반의 성원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의 규모와 제반 생산 기술적 특성들을 잘 타산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 작업반에서는 기본 직종 로동자들의 능력에 기준하여 기타 직종 로동자들과의 정확한 비례 등을 타산하여야 한다.

3

협업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도록 작업반을 잘 조직한 다음에 문제로 되는 것은 작업반 사업에 대한 지도와 그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업반 조직이 잘 되여 있고 그것이 대중을 경제 관리에 인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위로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자들이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경제 관리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들을 실제적으로 경제 관리에 참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작업반이 자기의 역할을 놀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대중을 조직해야 하며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은 작업반에 대한 지도와 그 운영에서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작업반 지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성원들을 반드시 고착시키는 문제이다.

그들을 부단히 류동시킨다든가 혹은 여러 작업에 빈번히 분산시킨다면 그들이 안착되여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 없을뿐더러 기업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도 없으며 사상 사업의 거점으로서의 작업반의 역할도 높일 수 없게 된다.

지도 일'군들은 작업반을 일단 조직한 다음에는 작업반 성원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에게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며 그들로 하여금 목적 지향성 있게 그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반 관리 운영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또한 사회적 분공을 잘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 관리가 생산자들에게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며 그들의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공간의 하나로 된다.

작업반 성원들에게 주는 사회적 분공은 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여야 하며 그 실행 정형에 대한 총화에 편리하도록 되여야 한다. 여러 공장들의 경험은 작업반 사업의 여러 측면 중에서 로동자들에게는 당 조직과 직맹, 민청 등에서 통일적으로 한 가지만을 분공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로동자들에게 부담으로 되지 않게 하면서 한 가지 사업에 속히 정통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분공 조직을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든가 그것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그 실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지도하는 데 불편할 것이다. 룡성 기계 공장의 경험에 의하면 분공이 대개 6 개

체계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봉성 기계 공장 1 조의 직장에서는 《여섯 가지 분공 체계》에 의하여 매주 월요일에는 로동 행정, 화요일에는 절약과 내부 채산제 등 요일별로 총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동자들은 맡은 바 분공 실행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게 되였으며 직장에서는 기업•관리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되였다.

분공이 조직된 다음에는 그 실행을 도와 주기 위한 공장으로부터의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공장의 해당 전문 관리 부서들과 직맹 단체들의 역할을 특히 높여야 한다.

작업반 사업에서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로동자들이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데 대하여 물질적 자극을 잘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에 있어서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와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반 점수제에서 비생산적인 사회적 분공 수행에 필요 이상 많은 점수를 할당하거나 그에 대한 자극에 치중하면서 개인 도급제를 약화시키는 것은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 의무 수행에 대한 물질적 자극은 계획 초과분에 따르는 임금을 점수로써 평가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써나 또는 내부 채산제 상금에서 일정하게 평가 분배하여 주는 방법으로써 할 수 있다.

작업반 운영에서 특히 작업반장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작업반장은 직접 로동에 참가하면서 작업반에 맡겨진 생산 계획과 로동 기준량을 초과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동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리용하며 로동 규율을 강화할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적 분공을 조직함과 함께 직일 반장제, 내부 채산제 등 대중적 기업 관리의 형식과 방법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에서 작업반을 잘 조직하고 대중을 작업반 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 기업 관리 사업 개선에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강구할 때 대안 사업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 남김 없이 발양될 것이며 생산 및 로력 조직에서 방대한 예비들이 샘솟듯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 하에서의 안주 탄광

장 동 윤

김 일성 동지는 1961년 12월, 우리 안주 탄광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하여 탄광 관리 운영에서와 석탄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주시였다.

그 후 지난 1 년 반 남짓한 기간에 우리 탄광 사업 전반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관리 운영 사업과 생산 활동에 남아 있던 결함들이 퇴치되고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가 전면적으로 수립되였다.

특히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새로운 생산 지도 체계가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우의 일'군들이 생산 단위와 막장에 내려 가서 생산을 직접 조직해 주고 도와 주는 대안 체계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계획화 사업을 비롯한 관리 운영 사업의 모든 고리들이 새로운 조건에 맞게 개선되게 되였다.

탄광의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체계가 확립되고 그 우월성이 생활에서 구현되게 됨에 따라 석탄 생산에서는 전환이 일어 났다.

금년 1.4 분기를 전년 동기와 대비한다면 일 석탄 생산량은 112.4%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113.2%로 제고되였다. 금년 상반년 석탄 생산 계획도 6월 19일 현재로 이미 지표별로 초과 수행되였다.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은 고도로 발양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 생활에서도 거대한 전변이 일어 나고 있다.

우리 탄광에서 일어 난 이 모든 성과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의 산물이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지침으로 탄광에서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며 그 우월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체득하게 되였다.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생산 지도 체계

탄광에서의 생산 활동은 지하 수천메터의 깊은 막장에서 분산되여 진행된다. 그것은 바로 수시로 정황이 변동되는 자연과의 일대 전투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 활동의 진행정은 갱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며 진행된다.

갱은 지상 공장, 기업소들의 직장과는 달리 생산 활동에서 한 개 공장과도 같은 독립성과 큰 사업 범위를 가지며 군대로 말한다면 련대와 같은 전투 단위이며 지휘 단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광에서의 관리 운영 체계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탄광에서는 지도 일'군들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과 질서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며 갱을 중심으로 생산 조직 사업과 관리 운영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갱을 전투 단위로 하는 새로운 생산 지도 체계의 확립은 바로 이러한 탄광의 특성에 알맞게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는 열'쇠로 된다.

우리는 우선 탄광의 전투 단위인 갱을 튼튼히 꾸리며 갱을 중심으로 군대와 같은 규률과 질서를 가진 생산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 데 선차적 주목을 돌렸다.

갱을 전투 단위로 하고 갱 참모부를 튼튼히 꾸렸다. 갱 참모부에는 갱 기사장을 참모장으로 하고 탄광에서 유능한 일'군들로 설비 부기사장, 채탄 기사, 기계 기사 등을 비롯한 기술 진영을 꾸려 주었다.

이와 같이 갱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갱은 계획화 사업으로부터 생산 조직과 지도 및 기술적 지도에 이르는 생산의 전체 행정을 튼튼히 틀어 쥐고 유일한 지령 체계에 따라 전투를 지휘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 규모와 기술 장비,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등의 급격한 장성에 지도를 따라 세울 수 없었던 종전의 낡은 체계의 부족점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 갱에는 갱장을 비롯하여 구역장, 로동 지도원, 통계원 등 불과 몇 명의 관리 일'군들만이 있었고 기술자라면 오직 채탄 기사가 있었을 뿐이였다. 이런 조건에서는 갱의 지도 일'군들이 계획, 생산, 기술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할 수 없었고 잡다한 통계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과 전투 단위로 되여야 할 갱에서는 일정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강구할 수도 없었고 전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탄광 참모부의 유일적 지도 밑에 매개 갱 참모부들이 능동적으로 생산 행정을 지도하며 특히 부단히 변화되는 생산 조건에 맞게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질서 정연한 지령 체계의 확립은 새로운 기구 체계의 우월성을 실지 전투 행정에서까지 발휘시키며 탄광의 실정에 맞게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 지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새로운 기구 체계는 엄격한 규률에 의한 지령 체계가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우리는 탄광 참모부의 직속으로 중앙 지령대를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작전 지휘처와 같은 임무를 수행케 하였으며 갱에는 갱 참모부에 갱 지령대를 설치하고 중앙 지령대와의 상시적인 련계 하에 전투를 직접 지휘케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에 지령서를 도입하고 그에 근거하여 직접 부문, 보조 부문이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생산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령 체계의 확립은 생산 지도, 관리 사업으로부터 로동자들의 갱내 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범화하고 질서 정연하게 제도화할 수 있게 하였

으며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의 위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는 지도에서의 분산성과 산만성, 생산으로부터 계획화 사업의 유리, 생산과 기술의 인위적 분리 등과 같은 불합리성은 종국적으로 청산될 수 있게 되였으며 조그마한 사고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였다.

실지 전투가 진행되는 갱마다에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력량이 꾸려지고 지상으로부터 지하 막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이 질서 정연하게 전개되니 결국 로력, 설비 등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되고 탄전과의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였으며 생산에서 파동성도 근절되고 석탄 생산량은 계속 상승선을 걷게 되였다.

새 체계와 계획화 사업

우리 탄광에서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선 문제의 하나는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였다. 면밀히 타산된 과학적인 계획을 가질 때에만 매개 부서들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할 수 있었으며 막장 지도에서의 통일성도 보장하고 생산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시기까지에는 전투 계획 작성은 전적으로 계획부 내 몇몇 실무일'군들에게 일임되여 있었으며 그것마저 책상 우에서 수'자를 쪼개 주는 식으로 진행되였다. 이러한 계획이 생산 지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고 동원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생산 지도 체계는 바로 이러한 불합리성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새 체계가 생산 지도와 계획화 사업 간의 밀접한 련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며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인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체계의 우월성이 계획화 사업에서 실지로 발휘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정확한 계획 작성의 순차적 단계를 설정하며 명확한 전투 계획 방향을 세우며 탄전 및 설비 상태와 생산자 대중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한 데 기초하여 계획을 대중과 토의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선 계획 작성의 순차적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탄광 참모부로부터 갱에 이르기까지 유일한 계획 작성 체계에 의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대월 전투 계획 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자.

탄광 참모부는 매달 2일까지에 다음 달 계획 작성 방향을 설정하며 계획부는 4~5일 경까지에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매개 부서들에서는 이 초안에 기초하여 사업 중심 방향을 설정하고 군중 토의를 진행하며 계획부는 군중 토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계획 초안을 더욱 완성한다. 계획 초안을 탄광 참모회의에서 검토 확정한 다음 15일에는 탄광 당 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한편 생산 지도부에서는 월 전투 계획 초안에 근거하여 매달 5일부터 종합 일정 계획 작성을 준비하면서 월 전투 계획이 비준되는 차제로 갱과 보장

부서들 간의 일정을 맞물리는 사업을 대중 토의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진행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종합 일정 계획은 26일까지 탄광 참모 회의의 검토를 거쳐서 갱에 시달된다.

계획 작성 사업에서 이러한 유일적인 순차적 단계의 설정은 모든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계획 작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계획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며 광범한 군중을 계획 작성에 인입할 수 있게 한다.

계획 작성에서 보다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전투 계획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아무리 계획 작성 사업이 순차성 있게 진행된다고 하여도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투 계획은 우선 방향을 옳게 설정함으로써만 정확히 작성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 작성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지도 밑에 탄광 참모부 특히 지배인과 기사장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 작성 방향을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굴진을 선행시키며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하며 특히 매 시기 걸린 고리를 포착하고 중요 대상에 력량을 집중적으로 포치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례하면 8월 중 전투 계획의 중심 방향은 갱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로동 행정 사업 개선에 의한 1 인당 생산액 제고, 명년도 생산 준비를 위한 갱 건설을 전망성 있게 진행할 데 대한 문제, 당면하게는 새로 조업을 개시한 채탄장에 대한 기술 지도 사업의 강화 등 절실한 문제를 설정하였다.

경험은 새로운 체계 하에서 계획 작성 방향과 순차적인 단계를 옳게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이며 실천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 데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계획 작성 방향이 옳게 설정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획 작성에 광범한 군중을 인입하는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현지 지도에서 탄광 지도 일'군들은 탄전을 잘 알고 설비를 잘 알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획은 채탄 기술자, 기계 기술자, 지질 기술자, 측량 기술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생산자 대중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그러나 초기 일부 지도 일'군들 속에서는 《탄광은 공장과 사정이 다르다》느니, 《탄광에서는 앞을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투 계획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경향도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계획 작성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계획 작성을 생산자 대중의 사업으로, 모든 부서들의 중요한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우리 탄광에서는 지금 탄광 참모 성원들이 주동이 되여 중대에 직접 내려가서 중대 단위로 전투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탄광 참모 성원들은 갱 참모 성원들과 함께 중대별로 탄전과 설비를 정확히 타산함과 동시에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건강 상태, 각오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채탄 중대의 경우에는 채탄장의 길이, 지압 조건 등을 고려하며 동시에 생산자들에 대해서는 기능 수준, 원삽 바른 삽질 관계, 지어는 주택 거리 관계도 면밀히 타산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계획은 곧 생산을 정상화하며 그를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는 첫 출발점으로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업, 설비와의 사업, 탄전과의 사업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집행하면서 우리가 지난 기간 얻은 경험의 또 하나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와의 사업, 탄전과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잘 하여 전체 대중의 열성을 고도로 높이는 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사업인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우리 탄광의 경우에 로동 행정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 종업원들 중에서 직접공의 비중을 계통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로력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였다.

과거 우리 탄광에서는 막장 내 로력 조직이 《선산 후산제》로 되여 있었다. 선산들은 이른바 기술적 문제라고 하는 것만을 담당 수행하고 후산들은 작업에서 선산에 전적으로 의거하면서 가장 힘든 일만을 하였다. 그런데 로임은 순전히 기능 급수에 의해 지불되였기 때문에 후산들은 힘든 일을 도맡아 하지만 언제나 선산에 비해 적은 분배몫을 받고 선산은 응당 많은 로임을 받기 마련이였다.

우리는 이번에 로임 분배 형식을 일부 개편함과 동시에 로동 조직에서 낡은 《선산 후산제》를 없애고 소대 내에 새로운 로력 조직 형태인 조소제를 내왔다.

이것은 종래의 《선산 후산제》에서의 부족점들을 결정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조소제를 내온 결과 우리 탄광에서는 막장 작업에서 로동자들이 새로운 관계에 기초하여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의 생산 열의도 가일층 앙양되게 되였으며 모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심 성의껏, 자기 능력껏 일하게 되였다.

사람들이 발동되여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과 함께 문제로 되는 것은 일체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설비를 효과 있게 리용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관리에서 책임 한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종전에는 설비 관리를 그 주관 부서인 공무 동력부가 공구 수리 직장과 갱 설비 지도원을 통해서만 하게 되여 있었고 생산 지도와 설비 관리가 서로 분리되여 있었다. 그리하여 사고가 발생되면 설비를 다루는 채탄공이나 운전공들의 경우에는 물론 수리공들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일수였다.

결국 설비 관리에 대한 주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상 주인이 없었다.

생산과 설비 관리가 분리되여 있었던 관계로 지난 기간에는 또한 갱장들과 중대장들 자신들도 설비에 대하여 관심을 적게 돌렸고 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그 상태를 료해 장악할 수 없었으며 그의 가동 정형을 총화할 수도 없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그를 다루는 단위의 책임자들, 례하면 중대의 경우에는 중대장이 자기 구역 내에 있는 운반 설비를 비롯한 일체 설비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설비의 중소 보수는 갱에서, 대보수는 공무 수리 직장에서 담당하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생활은 이러한 체계의 확립이 설비 관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며 일'군들의 책임성을 가일층 높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훌륭히 실증하여 주었다.

우리 탄광에서는 그 후 운반 계통 설비 사고가 근절되고 매 교대 7 시간 이상 가동이 정상화되였으며 설비 사고로 인한 작업 휴지 시간은 결정적으로 축감되였다.

새로운 설비 관리 운영 체계에서는 또한 생산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람들 자신이 설비 관리에 대하여 잘 알고 책임지게 됨으로써 생산 및 로동 조직 사업과 설비 관리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생산에 대한 지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주요한 관심을 돌린 것은 또한 탄전과의 사업을 잘 하며 특히 굴진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사키도록 하는 것이였다.

굴진을 선행시킴에 있어서 우리 탄광의 경우에는 굴진을 집중화하며 그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나섰다.

경험은 굴진을 집중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술 준비 사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기술부를 우수한 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고 막장에 접근하여 로동자들과 토의하면서 탄광의 광체 기하학적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탄상과 지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갱 건설 설계와 구역 단위로 되는 채굴 설계를 작성하고 《예》급 확보 탄량은 5 년 분 이상, 《아 1》급 확보 탄량을 6 개월 분 이상 선행시키는 원칙에서 작업 공정도와 기술 공정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탄광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면서 유리한 구역에 굴진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굴진에 대한 기술 준비를 갖춘 다음 굴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재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기계를 창안 도입하는 한편 작업 조직에서 선진적인 동시 굴진, 동시 포장 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출수가 심한 우리 탄광에서는 적재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이 굴진 속도를 높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오늘 우리 탄광의 굴진 속도는 전에 비하여 116%로 제고되였으며 우리는 7 개월 간 채탄할 수 있는 확보 탄량과 3 개의 예비 채탄장을 가지게 되였다.

경험은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대로만 사업을 조직하고 탄광을 관리 운영한다면 틀림없이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교시를 받들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다.

(필자는 안주 탄광 지배인임)

혁명과 개량

최 병 진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부르죠아 개량주의로 바꾸어 놓으면서 혁명으로부터 물러 서고 있다.

오늘 당원들과 일'군들이 혁명과 개량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본질을 폭로하며 그들과 투쟁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혁명 수행에서 개량이 가지는 의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량은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투쟁을 전개한다. 그들 앞에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처지의 개량을 위한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로동 시간의 단축과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 등을 통하여 압박자들로 하여금 개량과 같은 부분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양보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의 합법적인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고 생활 조건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개량을 다만 부르죠아지의 양보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부르죠아지는 로동 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그와 정면으로 대결하여 탄압 조치만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투쟁에로 각성시키며 단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지는 근로자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하찮은 개량 따위를 그리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이러한 회유 정책으로써 자기들의 계급적 지위를 공고화할 것을 피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죠아 독재 체계하에 있어서의 개량에 대하여, 그것이 근로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못'이겨 부르죠아지가 양보한 측면과 더불어 그들의 회유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간파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그를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진짜 혁명가-공산주의자들과 가짜 혁명가-개량주의자들이 갈라진다.

개량 자체에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였다고 간주하거나 그것만을 설교하는 자들은 부르죠아지의 회유 정책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자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개량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으로써 전취한 개량에 대하여 물론 그를 기뻐 맞이하

며 근로자들의 생활 개선과 특히 그것이 혁명 력량의 준비에 있어서 가지게 되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취된 합법적인 일반 민주주의적 권리를 리용하여 대중 속에서 제국주의와 그리고 지주, 자본가 제도의 착취적,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들을 혁명 대오의 주위에 묶어 세우며 성과적으로 혁명 투쟁에 준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지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개량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모든 근로자들의 근본적인 리해 관계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갈 수 없다. 부르죠아지는 결코 자기의 근본적 리해 관계를 침해 당하는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실 상 동의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개량을 위한 투쟁에 머물 수 없으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에로 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투쟁에 있어서 혁명을 주되는 것으로 보고 개량을 그의 부산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혁명가에게는 주되는 것은 혁명 사업이고 개량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개량은 혁명의 부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정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혁명적 전술에 의하여 되는 개량은 자연히 그 정권을 와해시키는 무기, 혁명을 튼튼케 하는 무기, 혁명 운동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변하는 것이다.》(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228 페지)

맑스주의자들은 오직 혁명을 목적으로 하고 개량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개량을 위한 투쟁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혁명을 위한 투쟁에 종속시킨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며 따라서 동일시하거나 더욱기 동격에 놓아서는 안 된다.

부르죠아 독재 체계 하에서, 그 정권을 그대로 두고 그 어떤 《구조적 개혁》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과 같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해 관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바로 부르죠아 개량주의에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우리는 이러한 《리론》을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개량주의의 본질

개량주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조 개혁론》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레닌은 《개량주의는 그것이 완전히 성실한 것일 때에조차 실제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지가 로동자를 타락시켜 무력하게 하는 도구로 전화된다.》(전집 제 19 권, 447 페지)고 지적하였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구조 개혁론》에 대한 테제가 《강령적 성격》을 띤다고 하면서 이것이 《현 정세 하에서의 로동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적 전략의 원칙》으로 된다고 떠벌리고 있다.

그들이 내놓고 있는 《구조 개혁론》은 부르죠아 독재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헌법, 의회를 통한 합법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국가 내부의 세력 균형과 그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근

벽격시키며 그리하여 로동 계급을 국가 관리에 인입하도록 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국유화》와 《계획화》 및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특정 자본을 《제한하여》 자본가들로 하여금 로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조 개혁론》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치열한 계급 투쟁이 없이, 프로레타리아에 의한 독재의 수립이 없이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를 통하여 그것을 점차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방법의 도구로써 특히 부르죠아 의회를 들고 있다. 즉 그들은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얻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개조적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사회주의적 요구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르죠아 의회는 부르죠아지가 프로레타리아트를 압박하는 도구이며 또 의회가 각 계급, 각 계층의 대표로 구성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르죠아 의회인 한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도구인 것이다. 의회는 부르죠아지의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의석의 구성 문제는 본질적 역할을 놀지 못한다. 부르죠아 국가들에서 의회 선거 때마다 정당들의 의석수가 변하고 집권 당이 변하는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의 부르죠아 정치에는 하등의 근본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대중에 대한 착취 방법, 약소 국가들에 대한 략탈 방법이 더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로 세련되는 것 뿐이다. 미국에서는 의회 선거 때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집권이 거의 바뀌여지지만 그의 강도적 본성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수백만 근로자들은 여전히 착취와 압박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세계 도처의 약소 국가 인민들이 미제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부르죠아 의회 내에서도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개혁안이 통과될 수 없으며 설사 통과되여도 부르죠아지가 그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 뿐이며 더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의회를 해산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인도의 케랄라주에 성립되였던 공산당 주 의회와 주 정부의 해산 사건은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르죠아 독재 체계 하에서 의회는 부르죠아 국가 기구의 구성 부분으로서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며 또 그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의회가 부르죠아 국가 기구의 전부가 아니며 그의 주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르죠아지는 온갖 권력 기관—경찰, 헌병, 군대, 감옥, 행정 처리 기관 등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부르죠아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수단들이며 바로 이것들이 실제적인 권력 기구들이며, 력량인 것이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의회는 허수아비인 것이다.

우리는 일부 자본주의 나라 공산당의 대표가 부르죠아 의회에 참가하여 일정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나 지어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이 《단합된 힘》을 시위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타나기도 전에 탄압을 당하고 마는 것도 보아 왔다.

현실이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자본가들의 앞에서 착취의 《철폐》, 독점 자본의 점차적인 《제한》 또는 《개변》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이 때 부르죠아지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송장처럼 묵묵하고 있을 것 같은가?

오늘날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의회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을 다수표의 쟁취에 두고 있다. 그렇게 되면 로동 계급은 그저 선거전만 잘 하면 되고 부르죠아지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없으며, 당도 로동 계급의 투쟁을 특별히 조직할 필요가 없고 다만 선거 직전에 자본가들처럼 지지자들을 얻기 위한 사업만 하면 된다.

이것은 결국 그 어떤 투쟁을 하는 척하면서 로동 계급을 유롱하며 그들을 영원히 부르죠아지의 임금 노예로 남겨 두자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이 주장하던 바와 같이 운동이 전부이고 종국적인 목표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결론 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구조의 개혁에 의하여 사회주의에로 자연 생장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함으로써 계급 투쟁과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외곡하며 당과 로동 계급을 무장 해제시키자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립장과 주장으로써 자신들이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끼어 든,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라는 것을 폭로할 따름이다.

진정으로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가짜 혁명가들의 선전에 넘어 가지 말아야 하며, 대중이 그에 기만되지 않도록 혁명적 사상으로써 부단히 교양하고 혁명 투쟁에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혁명 수행에서 평화적 방도와 개량

구조적 개혁으로써 혁명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례외 없이 평화적 방도로만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인민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인도주의자 연 하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평화적》 혁명의 방도를 요란스럽게 떠들어 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어떤 공산주의자도 혁명의 평화적 방도를 반대한 일이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며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력사는 혁명이 아무런 우여곡절도 없이, 또 아무런 희생도 없이 승리한 례를 아직 모르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정당들은 물론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립각하여 혁명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을 타산한 기초 우에 가능한 한 희생을 덜 당하면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희생의 구실 하에 착취자 계급이 성나서 흉질을 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착취자 계급이 성을 내지 않는 정도에서 구조를 개조하여 《혁명》을 하자는 립장에 선다면 이것은 인민들을 부르죠아 독재 정권 하에 영원히 얽매여 두자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 하면 부르죠아지는 그 구조 개혁이 자기들의 리해 관계에 저촉될 때

에는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그 구조 개혁이 자기들의 발'등을 뜨겁게 할 때에는 성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보총이건 로케트건 마구 쏘아 댈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평화적 방도를 개량과 얼버무려 놓지 않는다.

혁명의 평화적 방도란 문'자 그대로 혁명에 대한 평화적인 방도인 것이지 개량주의에로의 전락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변혁이 아무리 희생이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혁명으로 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부르죠아 정권은 전복되어야 하며,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새로운 정권—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여야 하며, 그에 의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현 정세하에서 혁명의 평화적 방도만을 주장하는 것은 개량주의에로의 전락을 면치 못한다. 그것은 우선 1957년 모쓰크바 선언과 1960년 모쓰크바 성명에 지적되여 있는 바와 같이, 레닌주의가 가르치고 있고 또 력사적 경험이 확증하여 주는 바와 같이 지배 계급은 자진하여 정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현 세계에 있어서 그 어떤 부르죠아 정권도 군사 독재 정권이거나 혹은 그와 직접, 간접으로 련결되여 있지 않는 정권이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혁명의 평화적 방도만을 떠든다는 것은 결국 혁명을 그만 두자는 것이며, 그래도 《혁명》을 한다고 떠든다면 그것은 여전히 부르죠아지의 리해 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개량이나 좀 해 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무장한 반혁명은 무장한 혁명 력량에 의해서만 타승 극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혁명을 원할진대 그들은 반드시 두'가지 방면으로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혁명의 평화적 방도에 준비되여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혁명의 비평화적 방도에 대하여 특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혁명 정세가 조성되였을 때 부르죠아지의 아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으며 또는 부르죠아 반동 집단이 혁명 력량에 대하여 진공을 감행하는 때에 있어서도 그에 강유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고 오히려 반공격으로써 그를 타승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 평화적인 개조에 대해서만 떠든다면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와 대중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키게 될 것이며 사상적으로 그들을 무장 해제하고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피동적인 무준비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결국 혁명을 완전히 망쳐 버릴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량주의와 절대적 평화적 방도의 광신자들을 혁명의 변절자들의 대렬에 세워 놓는 것이며 그들과 끝까지 투쟁함으로써만 진정으로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종교

림 훈

과학적 세계관에 의하여 지도되며 건설되는 사회주의는 종교 미신과는 인연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단한 무신론의 선전으로써 사람들을 종교 미신에 의한 정신적 압박과 기만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종교는 허위적인 만민 평등과 박애, 평화, 자선을 들고 나옴으로써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며 착취 계급의 착취적 본질을 은폐해 주는 반동적 역할을 놀아 왔으며 놀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 반동 집단은 자국의 근로자들을 착취 압박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이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는 책동에 있어서, 민족 해방 운동을 진압하며 국제 로동 운동을 파괴하려는 책동에 있어서 종교를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합법화함에 있어서, 또한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비방 파괴 암해하려는 책동에 있어서 종교의 리용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종교의 본질을 밝히며 그와의 부단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과업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어루만지거나 감싸 주는 데로 나간다면 그의 성행에 의하여 나타가 자유주의화되고 평화와 사회주의 위업이 시련에 부닥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보나 국제 혁명의 견지에서 보나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로 된다.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교는 자연과의 투쟁에서, 계급 투쟁에서 근로 대중의 무력으로부터 오는 불가피적 산물이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된 이후에 있어서는 종교의 근원이 주로 계급적인 것에 귀착된다. 계급 사회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착취와 압박은 자연력보다 더 큰 재난을 사람들에게 가져 왔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였고 공포와 비애를 자아내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초현실적인 그 어떤 《존재》에 대한 환상적인 표상, 보다 좋은 래세의 생활에

괴한 신앙을 낳았다.

이러한 신앙의 체계화된 사상—이것이 곧 종교이다.

레닌은 종교의 본질과 근원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였다: 《종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로동과 빈궁 및 고독에 짓눌린 인민 대중을 도처에서 억제하고 있는 정신적 압박의 한 형태이다.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의 피착취 계급들의 무력은 자연과의 투쟁에서의 야만인의 무력이 신, 악마, 기적 등등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피적으로 보다 나은 저승에 대한 신앙을 낳게 한다.—레닌은 이러한 종교 신앙이 노는 두 방면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일생을 로동하면서 빈궁하게 지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종교는 저승에서의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지상 생활에서의 온순과 인내를 가르친다. 그 반면에 타인의 로동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종교는 그들의 일체 착취자적 존재를 정당화하는 극히 값싼 설교를 제공함과 아울러, 천상 안녕에로의 값싼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지상 생활에서의 자선을 가르치는 것이다.》 (전집 제 10 권 1 분책, 110~111 페지)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근로 대중에 대해서는 정신적 아편으로 되며 착취자들에게는 값싼 착취의 도구로 되는 것이다. 오늘 종교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식민지 략탈, 침략 전쟁을 위한 중요한 지주로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략탈의 척후대로서 항상 성경책을 들고 정의와 박애와 자선을 외우는 승려들을 파견하였다.

후진 국가들, 약소 국가들에 대한 침략에서 종교를 가장 널리, 가장 교활하게 리용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제의 조선 침략사도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의 침투로부터 시작되였다는 것은 주지되여 있다.

과거에 조선에 기여 들었던 미국 선교사들은 일제의 조선 침략을 합리화해 주며 미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함에 있어서 종교적 설교와 암해, 간첩 활동으로써 갖은 기만적이고 음흉한 책동을 다하였다.

오늘도 종교는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계속 착취와 압박, 헤아릴 수 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고통을 무마하며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북반부 인민들의 투쟁과 전진 모습을 정당하게 볼 수 없도록 하는 미혹제로,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는 세계 도처에서 바로 이와 같은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길잡이와 합법화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민들 속에서 격언화된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심장한 력사적 결론이기도 하다.

《백인들이 처음에 올 때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며 우리는 우리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 갈 때 우리들 손에는 성경책만 남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땅이 들어 가게 되였다.》

근로자들에게 착취에 대한 순종, 압박에 대한 무저항을 설교하는 것으로써 계급적 원쑤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착취, 략탈, 침략의 길을 열어 주며 그것을 정당화해 주고 합법화해 주는 것—여기

에 바로 계급 사회에 있어서의 종교의 본질이 있으며 착취 계급 국가들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이 있다.

력사 상 인민 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모든 선진적 인사들이 국가로부터의 종교의 분리를 요구하여 나섰던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종교의 기만극으로부터 인민 대중의 눈과 귀를 뜨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착취 계급 국가가 종교를 인민 대중에 대한 착취적 목적에 조직적으로, 강압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종교의 분리 문제는 계급 사회의 조건 하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없었다. 형식 상 국교를 선포하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종교가 지배 계급의 지배 도구로 리용되는 것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히려 종교의 사회적 근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의 근원을 무지, 기만에서만 찾으려는 부르죠아 속물들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로 대중의 사회적으로 억압된 상태, 자본주의(이것은 보통의 로동자들로 하여금 전쟁, 지진 등등과 같은 온갖 비상 사건들보다도 그야말로 천 배나 더 무서운 심고, 더 심한 고통을 날마다, 시간마다 맛보게 한다)의 맹목적인 힘에 대한 그들의 외견 상의 완전한 무력—바로 여기에 오늘의 종교의 가장 깊은 근원이 있다.》(전집 제 15 권, 496 페지)

종교와 각종 종교 단체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신성화하고 《영원한》 제도라고 미화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투쟁은 《죄악》이라고 하면서 그의 포기를 설교하고 있으며 주인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타이르고 있다.

종교는 특히 현 시기에 와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의 도구로서,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하는 방패로서, 기만적인 평화 구호의 가장대로서 더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교회는 독점 자본가들과 결탁한 반동과 반혁명의 소굴로 되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 도구 바티칸은 각종 출판물들을 통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 암해하는 공작을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바티칸은, 《공산주의 리론은 그 원칙에서 허황하며 교리로서 허위적이며 그 실천적 적용에서 비인간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또 거듭 말해 주어 그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떠벌린다.

로마 법왕은 지난 4월의 《지상의 평화》란 소위 《교시문》에서 《전쟁의 무서운 파괴》니, 《슬픔》이니 하면서 미제의 침략 책동 앞에서 인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오늘 종교는 제국주의 반동의 충실한 주구로서 근로자들을 그들의 해방 투쟁으로부터 떼내려고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종교를 더욱 부식하고 종교 단체들과 그 시설들을 더욱 확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종교적 신앙을 배양하는 물질적 근원은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만 비로소 청산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근거한 사회 관계의 청산과 더불어 종교를 산생하는 제반 조건들도 소멸

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신앙이 사사(私事)로운 일로 선포되였고 그의 자유가 보장되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종교 신앙의 《자유로운》 조장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계급 사회에 있어서 국가가 종교를 대중의 우매화에 조직적으로 리용하던 반동적 정책을 청산하기 위해서이며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문화-교양자적 활동에 의하여 종교를 물질-정신적 근저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종교를 그 어떤 국가적인 강압적 조치로서 《극복》해 보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있다면 그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실로 종교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취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기회주의적인 립장으로 된다.

어떻게 수백만 근로자들이 《아멘》을 부르며 석고뎅이나 나무쪼각, 빈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사사로운 일이요!》하고 외면할 수 있겠는가? 군인들이란 사람들까지 하늘을 우러러 눈이 멀게 있다면 그에게 따발총을 주든지 로케트를 주든지 무슨 맥을 추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마치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유익하며 돕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말하기를: 과연 종교가 나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종교는 나쁜 행동을 못 하도록 사람들을 붙들어 주고 있지 않는가! 핵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남의 나라와 재산을 략탈하지 말라, 만민은 동포이며 형제이니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다. 그들은 종교가 핵 전쟁을 범죄라고 선포하며 만민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은즉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새로운 발전을 나무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원 건설까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과업에 들어 가는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반동의 본거인 바티칸의 두목들을 《평화의 사도》로 추켜 세우는가 하면 법왕이 죽었다는 《비보》에 접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들은 인류 멸망설과 전쟁 공포증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 바티칸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상 종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조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핵 전쟁의 참혹성, 인류의 파산과 멸망에 대한 선전, 불가사이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의 핵 무기에 대한 신비화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핵 공갈의 압력에 짓눌려 전전긍긍하는 나머지 비애와 탄식에 울부짖고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비애와 탄식은 항상 종교를 길러 내는 정신적 온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맑스는 《종교는 압박 받는 자의 탄식》이라고 하였으며 레닌은 《공포가 신을 만들어 내였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비단 자연력, 계급 억압 앞에서의 탄식이나 공포만을 념두에 두고 지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세계 반동들은 일방으로는 저들의 침략 전쟁

정책 강화를 위하여, 타방으로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을 반대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그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 나라들에 아직도 남아 있거나 혹은 조장 확대되고 있는 종교와 그 조직들을 리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정세 발전의 객관적 추세는 반종교 투쟁을 완강히 그리고 단호히 전개하며 전투적인 무신론의 기'발을 높이 추켜 드는 것이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의 항시적이고도 긴절한 과업의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결코 종교 미신이 횡행하고 사람들을 우롱하며 몽매화하는 현상에 대하여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레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에 대해서는 종교는 사사가 아니다.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의식적이며 선진적인 투사들의 동맹체이다. 이러한 동맹체는 종교적 신앙에서 표현되는 무의식성, 암매성 또는 몽매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또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교회와 국가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사상적이고 오직 사상적인 무기, 즉 우리의 출판물, 우리의 말로써 종교적 운무(雲霧)와 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 동맹체 즉…당을 창건한 것은 특히, 바로 로동자에 대한 온갖 종교적 우롱을 반대하는 이러한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상 투쟁은 사사이기는 커녕 전 당적, 전 프로레타리아적 사업인 것이다.》(전집 제 10 권 1 분책, 114~115 페지)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강령이 선적으로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세계관 우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사상 교양 사업이 필연코 종교의 해독성,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사업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집권한 나라들에서 무신론의 선전, 종교와의 적극적인 사상 투쟁으로써 대중을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도록 교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신앙의 자유는 결코 종교의 탈을 쓴 제국주의가들의 앞잡이, 온갖 반동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해독을 주는 반공산주의 선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여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종교의 탈을 쓴 반혁명 분자들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격한 독재가 실시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서, 종교가 무해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기까지 하다는 설은 참으로 황당무계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모든 근로자들이 높은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그를 부단히 혁신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신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선진 과학 기술 지식과 기술을 성과적으로 소유하며 리용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사

람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새로운 형의 인간—공산주의적 인간,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수립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과 이러한 인간 관계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거나 산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적 과학적 의식의 대량적 산출을 위해서는 물질적 혁명만이 아니라 사상 혁명이 필요하며 사상 혁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이미 승리한 나라들에서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포함한 낡은 사회의 온갖 유물,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보수적이고 부패한 것을 쓸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령역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온갖 형태의 종교적 관념과 편견들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낡은 사상 독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종교적 감정을 거슬리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따라서 교인들의 감정에 그 어떤 모욕이라도 줄가봐 조심조심 《투쟁한다.》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조심성 있는 소극적인 무신론 선전을 《체계적이고 능숙한》 투쟁 방법으로 묘사하면서 오직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종교적 편견을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중 여하를 불문하고 온갖 종교적 표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무관심과 경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시이며 부르죠아 사상 잔습의 허용을 의미한다. 오늘에 있어서 신비성의 관념과의 타협, 그와의 투쟁의 홀시는 그 어떤 것이든지 반동에 대한, 낡은 것에 대한 합리화이며 방조이며 낡은 것 앞에서의 투항이다.

여기에서도 레닌적 문제 설정이 중요하다. 즉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냐? 문제는 이렇게 선다. 거기에는 중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온갖 경시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온갖 일탈은 동시에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의미한다.

우리 당은 모든 낡은 사상 잔재와 함께 종교적 편견들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 당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전 인민적인 운동은 우리 당이 온갖 낡은 것, 온갖 형태의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에 전체 인민들을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낙후한 것을 쓸어 버리고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 운동으로》 되였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천리마 운동의 주요 특성은 그것이 물질적 생산력의 강력한 앙양을 위한 위대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광범한 근로자들의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공산주의 의식을 대량적으로 산출하는 훌륭한 운동이라는 데 있다.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맑스는 공산주의 의식의 대량적 산출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대중적 변화가 필요하며 또 이 변화는 오직 혁명적 실천적 운동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맑스의 명제는 우리 당의 천리마 총 로선에서 실천적으로 확증되였다.

온갖 낡은 관점, 종교적 편견으로부터의 인민 대중의 해방, 공산주의 의식으로의 인간 개조 사업에서 현실에 대한 옳은 설명과 해석, 과학적인 무신론적 선전 사업이 큰 의의를 가지며 근로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 그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제고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낡은 의식, 종교적 관념으로부터의 완전하고 결정적이며 종국적인 해방,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의 대량적 배출을 위해서는 한갖 교양, 과학적 무신론적 말이나 설복만으로써는 부족하며,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제고의 방도만으로써는 부족하다.

인간 개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것은 혁명적 실천이다. 인간이 형성되며 개조되는 기초에는 항상 로동과 혁명 실천이 놓여 있다. 오직 로동과 실천 과정에서만 새 형의 인간들이 배출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경제 관계에 기초한 우리 사회에서의 로동, 새 사회를 위한 혁명 투쟁을 념두에 두는바 문제는 이러한 로동과 혁명 실천에 교양을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있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 교양과 모든 무신론적 선전, 물질적 자극 등을 대중의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의 공산주의적 개조에서 훌륭한 결실을 보고 있으며 위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케네디와 《평화 전략》

고 현 송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평화》의 외피를 쓰고 그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엄폐하며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일대 기만극을 연출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기만극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 더욱 적극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전에 아메리칸 대학에서 한 《세계 평화》에 대한 케네디의 연설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케네디는 《미국인들을 위한 평화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평화, 우리 세대를 위한 평화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위한 평화》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미국의 평화》에 대한 념원을 굉장히 불어댔다. 그러나 케네디가 말하는 《미국의 평화》가 《무덤의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케네디의 《평화》에 대한 장광설은 그의 《평화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제의 《평화 전략》은 그의 《기본 전략》의 일환으로서 열핵 무기를 위주로 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시켜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며 나아가서는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케네디가 꾸미고 있는 《평화》의 기만극에 발을 맞추어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미제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며 인민들의 경각성과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케네디의 기만극에 넘어 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더러운 역을 담당할 수 있다.

현 시기 미 제국주의자들의 《평화 전략》의 음흉한 기도를 철저히 폭로하는 것은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미제의 교활한 량면 수법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며 미제에 대한 경각성을 제고케 함으로써 혁명 투쟁과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기본 전략》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로서 그의 전쟁 전략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케네디는 벌써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들어 앉을 당시에 자기의 정책이 《한 손에는 화살을, 다른 한 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이라는 량면 전술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란 핵 전쟁 준비를 비롯한 침략과 전쟁 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케네디의 이러한 량면 전술은 대전 후 세계 력량 관계의 변동과 변천된 정세에서 자기들이 침략 정책을 계속 추구하기 위한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 후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부단한 강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전반적 붕괴 과정은 제국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가일층 심각화시켰으며 세계의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제국주의에는 불리하게 전변시켰다.

다른 한편 세계의 광대한 지역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이 비상히 제고되고 민족적 독립과 자유에 대한 그들의 지향이 전례 없이 높아졌으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진출이 급격히 강화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무력 하나에만 의거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에 불리하며 그들이 더욱더 고립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며 세계 인민들의 증오를 모면하며 인민 대중들의 혁명적 경각성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더욱 음흉한 정치적 기만 술책에 매여 달리게 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라는 구호를 들지 않고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계속하기가 곤난하게 되였으며 침략적 야욕을 실현할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 침략 계층들은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평화의 수호자》로,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옹호자》로 가장하면서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으며 그들을 예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케네디 정책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를 세계 력량 관계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전쟁 성격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그들은 열핵 무기의 발전이 인류의 운명에 대한 미제의 《책임감》을 증대시켰으며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세계 평화를 강력히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케네디는 바로 이러한 자들로부터 고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인류의 《정의롭고도 항구적인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전쟁의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케네디의 이 말은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고무를 주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면 오늘 케네디가 소란스러운 《평화》에서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핵 무기를 비롯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엄폐하며 세계 인민을 기만하여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전 후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각종 침략 전쟁을 발광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비 확장과 새로운 핵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미제의 침략 정체는 여지 없이 드러났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다.

오늘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신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세계 인민들의 철천지 원쑤라는 것이 여지 없이 폭로되였으며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으로 되고 있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민족적 독립과 자유의 쟁취를 방해하는 것이 미 제국주의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미제를 몰아 내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급격한 발전은 세계에서 미제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켰고 그 세력 범위를 축소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력사 발전의 이러한 추세를 저지시키고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여 미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 보려고 망상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의 기만적 정체는 최근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부분적 핵 시험 금지에 관한 조약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핵 시험 금지를 원하며 《진정한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기나 하는듯이 떠듦으로써 미 제국주의의 《성의》에 의하여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가 이루어지며 핵 전쟁의 위험이 감소되는듯한 환상을 류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핵 시험 금지에 관한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것은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새로운 책동에 불과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조약을 통하여 자기들의 핵 무기의 확장과 핵 공갈 정책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며 이 조약을 저들의 《평화 전략》 추진의 좋은 《기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케네디는 《평화》의 간판 밑에서 세계 긴장 상태의 원인과 그 후과를 사회주의 국가들에 전가시키려는 음흉한 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오늘날 세계 정세가 긴장되는 주되는 원인은 자기들의 정치 및 경제 제도를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키고 있는 캄빠니야》에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저들의 침략 정책을 합법화하며 다른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과 그 위신을 훼손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영향력을 막으려는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침투》, 《공산주의의 침략》 등의 허위적인 구실을 날조하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을 감행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 인민 중국을 《봉쇄》하고 인민 중국의 국제적 위신과 거대한 영향력을 막으려는 책동을 그[illegible] 회합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허위적 구호에 의거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이 추구하는 목적의 다른 하나는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끌어 당기고 그를 부추겨 줌으로써 그들을 미제국주의의 립장에 더욱 접근시키며 무원칙한 타협과 양보, 나아가서는 투항의 길에 들어 넣으려는 것이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전쟁 공포증에 사로잡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미제와 타협하려 하며 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리익,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의 리익을 팔아 먹으려는 것을 교묘하게 리용하고 있다.

케네디는 현대 수정주의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그럼에 합으로써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평화적 전화》를 거쳐 자본주의를 복구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공산 블럭 내에서의 계 변화가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음흉한 기도를 드러내 놓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평화 전략》을 통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에 침투하여 그 나라들을 미제에 예속시키는 것을 자기들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각종 정치적 기만 수단에 의거하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 및 평화의 《수호자》로 가장하고 있으며 《원조》를 미끼로 이 나라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그들은 이 광대한 《중간 지대》를 장악함에 있어서 무력적 방법에 의거하는 한편 《싸우지 않고》 예속시키기 위한 각종 수단을 《고안》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수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침략적 정체는 갈수록 철저히 폭로되고 있으며 그들이 침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케네디의 《평화》가 허위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케네디는 《미국의 평화》에 대한 조건으로서 미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도를 개변하며 《절망적이며 외곡된 립장에서 상대방을 보지》 말며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언사를 사용하지 말며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말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각국 받아 들여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케네디가 1 년 전에 내놓은 소위 《20 년 평화》 계획을 추진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망상이다.

다시 말하면 케네디는 《평화》의 조건으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미제에 대한 태도를 개변하여 미제를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 규탄하지 말며, 미제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감행하는 침략 행동을 묵인하며 지어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자본주의에로 복귀할 것을 [illegible]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케네디의 《평화》에 대한 파렴치한 요구 조건이다.

이처럼 케네디 정부의 《평화 전략》이란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여 자기들의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 전략을 엄폐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그가 걸어 온 전 행정과 세계의 현실은 케네디야말로 세계 인민의 칠천지 원쑤이며 세계 평화의 교살자라는 것을 잘 말해 준다.

케네디는 집권한 이튿날부터 《전면 전쟁이나 보통 전쟁, 대전쟁이나 소규모 전쟁 등 할 것 없이 모든 전쟁에 대처할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떠벌리면서 자들의 침략적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그는 집권한 2년 반 동안에 자기의 선임자들보다 더욱 음흉하고 교활한 정책에 매여 달리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원자 무기를 비롯한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금년에 케네디는 아이젠하워 집권의 마지막 한 해에 비하여 무려 100억 딸라나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1963~1964 회계 년도 미국의 군사비는 직접 군사비만도 560억 딸라나 되며 그에 간접 군사비까지 합치면 998억 딸라로서 실로 미국 총 예산의 80% 이상을 이루고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비 예산에 기초하여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위한 핵 무기의 제작에 서두르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위한 상용 무기의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나또, 세아또, 센또 등 각종 군사 쁠럭들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 침략적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에 100만 명 이상의 미제 침략군과 핵 무기를 비롯한 최신 무기들을 배치하고 있다. 해외에 파병되는 미군이 《유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하며 세계 인민을 공갈하며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미국 함대들이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를 마음 대로 싸다니면서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폴라리스로 장비한 미 원자 잠수함들을 아세아 지역에까지 배치함으로써 아세아 인민들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아세아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 지역의 평화 애호 국가들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는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삼고 있으며 아세아에서 새로운 군사 쁠럭을 조작하기에 발광하고 있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소란스러운 《반중국》 깜빠니야를 조작하는 한편 인도 반동 계층들을 더욱 끌어 당겨 아세아 침략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전쟁 준비에 발광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 라오스에서 로골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함으로써 사실 상 이 지역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의 연막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으며 미제의 침략
적 본성이 절대로 달라질 수 없으며 또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케
네디의《평화 전략》이란 그의 전쟁 전
략의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형태이다.
미제가 어떠한 간판을 들고 나오든지
그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
다.

케네디를 두목으로 하는 미 제국주의
자들의《평화 전략》에 대하여 사소한 환
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기만적
이고 교활한《평화 전략》에 대하여 환상
을 류포시키며《지지》를 표명하면서 그
들의 침략적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며 그
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은 미 제
국주의자들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며 진
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세계 인민
들의 투쟁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우리는 케네디 정부의 교활한 침략
전쟁의 양면 전술에 기만 당하지 말아
야 하며 경각성을 높여 미 제국주의자
들의《평화》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침략 정책의 추악한 정체를 세계 인민
들 앞에 철저히 폭로하여야 한다. 제
국주의를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떠나
서는 그 어떠한 평화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
걸하는 것으로는 쟁취할 수 없다. 오
직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
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
하며 그들이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
서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줌으로써만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생활 체험을 통
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평화 전략》의
기만성을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극동과 세계 평화의 위업
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우
리 인민이 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최
대의 경각성을 견지하고 그들의 온갖
도발 행동을 폭로 분쇄하며 우리의 방
위력을 철벽으로 다진 데 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더불어 반제 투쟁의 기
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의 통일과
항구한 평화를 쟁취할 것이며 극동과
전 세계의 공고한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사 《정권》이 해 놓은 일이란 무엇인가

정 신 봉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군정》이니 《민정》이니 하면서 떠들어 대던 끝에 얼마 전에는 금년 말까지에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선거》하고 《민정 이양》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앞두고 군사 《정권》 2년간에 실시한 정책에서 《기념할 만한 것이 있다》느니,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느니 하면서 마치 그 어떤 큰 《업적》이라도 있는듯이 떠들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제국주의자들도 군사 《정권》이야말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정부》라고 부추겨 올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분식이 필요하게 되였는가?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자기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박 정희와 같은 군사 파쑈 도당이 필요하였고 박 정희 파쑈 정권을 계속 유지하자면 군사 《정권》의 《업적》을 분식하지 않으면 안 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군사 정변》이 조작된 때로부터 2년이란 시일이 지나는 동안에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해 놓은 일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1

군사 《정권》이 해 놓은 일이란, 력사에 류례 드문 파쑈적 군사 테로 통치 체계를 확립하고 인민들에 대한 폭압과 학살을 감행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군사 《정권》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체계가 전면적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막다른 골목에서 하루'밤 사이에 최후 발악적 수단으로 조작해 낸 폭압 통치 기구이다.

그런 것 만큼 군사 《정권》은 《정권》을 찬탈한 첫날부터 파쑈적인 군사 테로 통치 체계를 수립하고 인민 대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그들은 《질서를 확립》하고 《부패 구악을 일소》한다는 미명 하에 일체의 상충 기성 관리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자기들의 심복자들인 괴뢰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로써 상충 관료들을 꾸려 놓았으며 지어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추종 분자들로써 배치하였다.

군사 《정권》은 비밀 경찰 기구이며 파쑈 모략 통치의 핵심인 《중앙 정보부》를 설치하고 미국 중앙 정보국의 지휘 하에 수사, 정보 등 일체 폭압 기관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만들었으며 20여만의 밀정을 박아 넣고 살인적인 특무 통치를 실시하였다.

사법 체계도 《단심제》의 《군법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 재판 체계를 수립하고 《혁명 재판소》는 인민 대중을 탄압하는 파쑈식 징벌 기관으로 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 같이 무수한 《법령》들을 조작 공포하였으며 수다한 정당, 단체들을 강제 해산하고 온갖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이 파쑈적인 폭압 체계를 강화한 군사 《정권》은 우선 정치적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으며 애국적 민주 인사들에게 포악의 예봉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반공》의 구호 하에 민주 인

사물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애국적 민주 력량을 압살하며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반미 구국 투쟁에서 물러 서게 하려 하였다. 이러한 목적 밑에서 1962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남조선에서 구속 령장에 의하여 검거된 건수만 하여도 7만 2,812 건에 달하였으며 수 많은 애국적 민주 인사들이 무참하게 처형 학살 당하였다.

군사 《정권》의 파쑈적 테로 통치는 남북 협상과 조국의 자주 통일을 주장하며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여 온 애국적 학생들과 청년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데서도 나타났다.

군사 《정권》은 교원들과 학생들의 교내 조직을 해체시켰으며 학원 내에 정치 사찰망을 뻗치고 그들의 일거 일동을 감시하며 학생들의 사소한 진출에 대하여서도 탄압하였다. 그들이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정변》 초기에 《교원 노조》의 핵심 성원 500 여 명이 체포 투옥되였다.

군사 《정권》은 파쑈적 폭압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을 억압하며 그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강화하였다.

《시설 불충분》이라는 구실로 76 개의 일간 신문과 305 개의 통신사, 453 개의 주간지를 포함한 수다한 출판 보도 기관을 강제로 폐쇄시켰으며 엄격한 보도 관제를 실시하였다.

사회 생활의 온갖 분야에서 군사적 질서가 강요되였으며 군사 파쑈 도당의 비위에 거슬리게 되면 인민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죄명으로 처벌을 당할지 모르는 참혹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정변》 후 작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에 《교통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리유만으로도 실로 28만 3,000 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검거되여 그 중 적지 않은 인민이 《재판》에 회부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는 30 초에 한 건씩 처리하는 데 해당한 《무데기 재판》이 서슴 없이 진행되였다.

이와 같이 군사 《정권》의 파쑈적 군사 테로 통치는 남조선을 암흑의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잡지까지도 《중세기의 암흑 정치도 무색할 만한 폭압과 테로의 도가니—이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2

군사 《정권》 2 년간에 남조선 경제는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민생고는 가일층 심화되였으며 경제의 예속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의 군사적 부산물로 전락된 남조선 경제는 《정변》 후 군사 《정권》의 일련의 반동적인 경제 시책에 의하여 더욱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처하게 되였다.

군사 《정권》은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한강과 락동강 연안에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다는 구호 하에 《자립 경제 건설》을 표방하면서 《5 개년 경제 계획》(년 평균 7.1%의 생산 장성률을 예견함)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였다. 우선 군사 《정권》은 《5 개년 계획》을 실현할 하등의 밑천도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립 경제》의 기초를 축성한다는 《5 개년 계획》의 자금을 주로 외자에 의거하고 있다. 총 투자액 25억 딸라 중 14 억 딸라는 미국의 《원조》와 외국 차관으로써 충당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군사 《정권》의 계획과 예산은 전적으로 외국 《원조》와 차관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였다. 이것은 벌써 그 자체가 《5 개년 계획》의 실패를 결정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경제 발전의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외세에 의존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 례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리 승만 통치와 장면 통치가 그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실 상 지금까지 외자 도입이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군사 《정권》은 하늘 같이 믿고 있던 외자 도입이 이렇게 되자 내부 자금에서 부족되는 것을 염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여의롭게 될 수 없었다.

내부 자금이란 하나는 인민들에 대한 강제 수탈이요, 다른 하나는 예속 자본가들의 투자이다. 그러나 《5 개년 계획》의 강제 집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로임 동결, 물가 통제, 생산 통제 등 경제에 대한 강한 통제는 인민들의 구매력을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한편 자본의 활동을 제약하고 투자 의욕을 상실케 하였다. 이리하여 내부 자금의 동원도 완전한 실패로 돌아 갔다.

이런 데로부터 군사 《정권》은 소요되는 자금을 강제로 략탈하기 위한 《통화 개혁》마저 서슴 없이 감행하였으나(이로서 116억 원의 민간 자금이 하루 아침 사이에 동결됨) 남조선 경제는 더욱 전면적인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이 가상적인 《5 개년 계획》의 강행으로 사회 경제적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특히는 《통화 개혁》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순이 극도에 달하게 됨으로써 군사 《정권》의 《5 개년 계획》은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5 개년 계획》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울산 지구 공업화 계획》은 1962년 내에 착공하기로 되였던 제철 공장, 비료 공장, 정유 공장과 금년 초에 착공하기로 예정된 화력 발전소 중에서 다만 정유 공장의 시공 작업이 착수되였을 뿐이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 소 기업이 파탄된 사실이다.

군사 《정권》은 중 소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하였으나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군사비 지출에 소모함으로써 그들이 방출한 중 소 기업 자금은 소요액의 10 분의 1도 못 된다. 이러한 데로부터 경영 자금의 70% 이상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 중 소 기업의 자금난은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구매력의 축감과 외화 보유량의 급격한 감소와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의 영향으로 원료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그의 파로난은 더욱 우심해졌다. 이리하여 작년에만도 3,000 개, 금년 첫 2 개월간에 또다시 300 여 개가 파산되였다.

남조선 농촌 경리의 파탄도 우심하다.

군사 《정권》은 《농촌 진흥에 의한 공업화》라고 하는 《중농 정책》을 내걸고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되였는가?

군사 《정권》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를 하겠다고 떠들어 왔으나 그들이 고리채로서 정리하기로 확정한 금액은 고리채 총액의 겨우 22%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고리채 정리》와 관련하여 빈농민들은 돈을 빌려 쓸 길조차 막히게 되여 더욱 곤궁에 빠지게 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중농 정책》으로 생활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 대한 《농지세》, 간접세 부과의 증대와 2 배에 달하는 비료 가격의 인상 등으로 가혹한 수탈과 혹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경지 면적은 축감되고 중첩되는 재해로 인하여 농업 생산력은 년년이 저하되여 식량 위기가 남조선 인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금년도 남조선의 식량 부족량은 1,500만 석으로 추산되며 6월 말 현재 절량민 수는 1,200만 명(200만 세대)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쌀값은 가마니당 4,500원으로서 전후 최고 가격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 파탄은 남조선 인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민 소득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인구 1 인당 60 딸라에 지나지 않는데 실업자 수는 《정변》 후 50만이나 더 증가되여 600 여만을 헤아리고 있다.

생활고는 날마다 남조선 인민들을 위

협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자살자와 아사자가 거리와 농촌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군사 《정권》은 조성된 사태로부터의 출로를 계속 예속의 길에서 찾으면서 미국 《원조》의 증액을 애걸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원조》 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난관으로 하여 대외 《원조액》을 삭감하며 《차관》에로 전환되고 있는 데 비추어 군사 《정권》의 재정적 난관을 완화시킬 하등의 희망도 없다.

이로부터 그들은 미제의 극동 전략에 추종하면서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짓고 일본 독점 자본을 대내적으로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조일 량국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것이 설사 《타결》된다 하더라도 《청구권》 지불은 1964년 이후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도 10년에 나누어 줄 것이므로 당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구출하지는 못 할 것이 명백하다.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경제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사태는 이미 군사 《정권》의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써도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자의 결핍, 보유 외화의 축감, 물가의 급등 등 중첩되는 난관 앞에서 군사 《정권》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때는 꽁무니식으로 물가 통제를 강행하면 그들도 최근에는 그것에조차 감히 손을 대지 못 하고 물러 나 앉고 말았다.

경제 정책 상에서의 무능력과 거듭되는 혼란은 정치적 위기와 더불어 군사 《정권》의 운명을 결정 짓고 있다.

3

《군정》 통치 하의 남조선에서는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가 범람되고 우리의 유구한 민족 문화와 미풍량속이 유린되고 각종 사회악이 더욱 우심해졌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며 붕괴에 직면한 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일체 진보적 사상을 억압하고 《반공》 사상을 인민들에게 주입시키려 하였다.

《반공》 선전의 중심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무한히 동경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북반부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고취시키며 자기들의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정책을 은폐하는 동시에 맑스-레닌주의를 왜곡 비속화하는 데 돌려졌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리 당의 현명한 정책을 중상 비방하며 있지도 않는 《공산주의 침략》을 운운하면서 《멸공》과 《승공》을 떠들었다. 지어 《경제 건설》도 《국방력 강화》와 《부패 구악의 일소》도 《승공》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을 더욱 노예화하며 자기들의 지배를 부지하려고 《숭미》 반동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청년 학생들을 우매화할 목적으로 《고등 유민의 범람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대학 정비안》을 조작하고 21 개의 대학을 일시에 폐쇄함으로써 청년들의 배움의 길을 억제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사회 발전의 법칙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 교육》을 대폭 축소하고 《도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미제와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려고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인민들 속에 주입시켰다.

그들은 《실존주의》를 비롯한 각종 반동적 부르죠아 철학을 류포시키면서 군사 파쑈 독재를 《선의의 독재》로 묘사하며 군사 《정권》만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말사스의 《인구론》을 찬미하면서 남조선의 극심한 민생고가 반동적인 사회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구 과다》에 있으며 따라서 《산아 제한》과 《이민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

인민들의 반감을 위압하며 하였다.

군사 《정권》은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 수행에서 일제를 《돌격대》로 내세움으로써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 체계를 부축하려는 미제의 침략 책동에 발맞추어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 조작에 날뛰고 있다.

미제와 군사 《정권》의 이러한 전쟁 준비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더 불안 속에 몰아 넣었으며 특히 남조선 괴뢰 군대 내에서 불안과 혼란을 증대시켰다.

미제의 전쟁 정책으로 인한 대다수 장병들의 처지의 악화, 훈련과 고역, 기압의 성행, 남조선 정세의 불안, 공화국 북반부의 영향력의 강화 등으로 괴뢰군 내에서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증대되였다.

이리하여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 불평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괴뢰 군대 내에서의 개별적 또는 집체적인 사병들의 도주 사건은 지난 1월 말 현재로 4 개 사단의 병력에 해당하는 약 6만에 달하였다.

사병들의 불평불만은 파쑈적 군사 규률의 강요를 반대하는 데에서도 직지 않게 나타났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며 《기합》을 가하는 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달려 들어 몰매를 가하는가 하면 사살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간밖에서만도 《군사 정변》 후 《군 풍기 위반 사건》은 10 여만 건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사병들 속에서는 군사 《정권》을 배격하는 기운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이 급격히 격증되고 있다.

이러한 사병들의 동향은 괴뢰군의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2 년 동안에 해 놓은 일이란 죄악에 명백하다.

《질서를 확립》하고 《부패 구악을 일소》하며 《자유,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던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오히려 남조선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더욱 심해하시켰으며 인민 생활을 참을 수 없는 도탄 속에 몰아 넣었다. 해 놓은 일이란 남조선 정계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다만 《박 정희 어깨 우의 별이 2 개에서 4 개로 된 것》뿐이다.

오늘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여 있다. 미제와 군사 《정권》의 데로 통치는 이미 완전히 그 밑창이 드러났으며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그들에게로 돌아 가게 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에 대한 인민 대중의 증오와 배격은 절정에 달하였으며 군사 《정권》은 종말의 운명에 처하여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자주, 자립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여 간결히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주, 자립, 자생, 자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유린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지주로 되고 있는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리는 데 있다.

남북 조선의 애국적인 역량이 굳게 단합하여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할 때 민족 자주 통일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문답 학습

자재 보유 기준에 대하여

오늘 당은 매개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려 나갈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모든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설비,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과 더불어 자재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이라도 더 잘 리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당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만일 기업소들에서 자재를 기준 이상으로 창고에 쌓아 두고, 자재 지출에서는 소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자재를 생산 외의 다른 목적에 리용한다면 그 공장의 경영 활동과 나아가서는 나라의 살림살이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다.

현 시기 자재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특히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재 보유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 단위들에서 생산의 부단하고 정상적인 보장을 위하여 저장하게 되는 생산용 자재의 량적 기준을 말한다. 현행 실무에서는 이를 공장, 기업소들의 자재 상시 보유량이라고도 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 국가적 규모에서나 공장, 기업소 단위에서나 할 것 없이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자면 항상 일정한 예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는 장성하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상품 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견할 수 없는 불의의 사변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예비 및 조절 폰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과 건설 계획을 정확히 실현하며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재를 공급하는 기관에서나 자재를 소비하는 기업소에서 일정한 자재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 우리들이 생산용 저장품이라 할 때에는 자재의 소비자 측 저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용 저장품을 어느만한 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물론 기업소마다 각각 자기의 특성이 있는 것 만큼 그 규모는 일정할 수 없다.

보유 기준은 매개 기업소마다 그리고 매개 자재마다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재의 보유 기준을 규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다른 하나는 공급 조건상 특성이다.

기업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일평균 원자재 소비량, 원자재 소비의 특성, 기업소의 위치 기타 등이 속한다.

왜냐하면 일 평균 원자재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장품의 절대적 규모는 커져야 하며 생산에의 자재 출고 회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저장품의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

공급 조건 상 특성에 속하는 것은 공급자 기업소들이 1회에 출하하는 물자의 량, 물자의 공급 기간, 수송 조건 등이다. 공급자 기업소들이 1회에 출하하는 물자의 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장량의 규모도 커지고 공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저장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생산용 저장품에 대한 기준화의 기본 원칙은 생산의 정상화에 필요한 최저 한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있다.

저장품으로 있는 자재들은 새로운 물질적 가치를 창조하는 데 직접 참가하지 않고 림시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이므로 그 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물론 보유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생산의 정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자재의 필요 이상의 저장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소 경영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

물자를 너무 많이 저장하는 것은 우선 류동 자금의 회전을 느리게 함으로써 기업소의 재정 형편을 악화시키며, 물자의 사장을 초래케 함으로써 전 인민 경제 범위에서의 물자 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저애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요 이상 창고 면적을 확장시키고 그의 보관에 따르는 비용을 증대시키며 불필요한 수송을 낳게 함으로써 수송 수단의 긴장성까지 초래시킨다.

따라서 오늘 당은 특히 자재를 필요 이상 기업소에 쌓아 두고 자기도 쓰지 않으면서 남도 쓰지 못하게 하는 현상과 결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기업소들에는 동원할 수 있는 유휴 자재가 많다.

금년 초 평양시 내 일부 기업소들에서만 하여도 8,760 세대의 문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량에 해당되는 자금과 물자들이 새로 동원 리용되였다.

따라서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추가적인 예비를 동원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 확립된 자재 공급 체계는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상시 보유량을 정확히 설정하며 그를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서는 생산용 저장품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로부터 아래에 자재를 책임적으로 실어다 주는 새로운 자재 공급 체계의 확립은 이러한 요인들을 정확히 타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어 주고 있다.

자재 상사들이 산하 기업소의 물자 공급을 책임 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본 상사 분창고 혹은 각 기업소에 파견되여 있는 상사 성원들이 매달 기업소 전투 계획 토의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기

업소에 필요되는 자재의 규모를 옳게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소의 자재 소비 정형과 함께 유휴 사장 및 초과 보유 물자들을 정확히 료해한 기초 우에서 현실적으로 최저한의 상시 보유량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우월성은 지금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계획 실행을 위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명확히 실증되고 있다.

현 시기 자재 보유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특히 1 개월 분 이상의 자재를 선행시키며 3 개월 분의 예비 부속품, 15 일 내지 1 개월 분의 협동 생산 제품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자재, 예비 부속품, 협동 생산 제품의 확보를 이러한 규모에서 선행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 수준에서 생산의 정상화와 그의 급속한 장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구로 된다.

따라서 모든 부문 기업소들에서 당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보유 기준을 계획화하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재 공급 사업의 계획화는 물자의 정확한 소비 기준에 엄밀히 립각하여야 한다.

그것은 물자 소비 기준이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물자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산출 기초로 되며 자재 공급 사업의 출발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물자 소비 기준은 자재 공급 사업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검열 수단으로도 리용된다.

자재 소비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한다면 그것은 필연코 자재 보유 기준도 그 만큼 높게 설정되여 필요 이상의 자재를 저장하게 되며 계획 상 과대한 예비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인민 경제 다른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와 같이 자재 소비 기준과 보유 기준은 공장, 기업소들의 물자 소비량과 상시 보유량을 과학적으로 근거 짓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호상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과거 낡은 경험이나 실적에 매여 달리는 그릇된 현상을 시정하고 생산 현장에 접근하여 군중들의 새로운 창발적인 지혜에 의거함으로써 보다 선진적인 물자 소비 기준과 자재 보유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우로부터 아래에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고 각 성, 도 상사, 분 상사(분 창고)들의 기능을 더한층 높이며 설정된 보유 기준에 준하여 자재를 종류, 규격, 재질별로 정확히 실어다 주며 생산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자재 공급 일'군들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자 공급과 소비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한 개의 못, 한 [illegible] 전

이라도 허실되지 않게 소중히 다루고 극력 아껴 쓰며 국가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 보유 기준에 대한 재정 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금융 기관들에서는 기업소 유동 자금에 대한 필요 이상의 보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설정된 자재 보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재를 류용 랑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김 선국

근로자 제 16 호 (루계 23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8월 20일 인 쇄 • 1963년 8월 17일

7－330523 값 40 전

경제 사상사 (상)

국판 400 페지

우리 나라는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로서 경제 사상 분야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세계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우수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의 민족 문화 유산은 오래 동안 정리되지 못 한 채 남아 있었다.

경제 사상사(상)는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사상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개괄하려고 시도한 첫 저서이다.

이 책에는 우리 나라 노예 소유자 사회에 있어서의 경제 사상으로부터 봉건 제도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사상을 포괄하고 있는바 저자들은 방대한 사료를 력사적 유물론의 명제들에 의거하여 분석 정리하면서 해당 시기의 사회 경제 형편을 개괄하고 그와의 호상 관련 속에서 경제 사상의 발전을 고찰하는 데 주력하였다.

경제 사상사(상)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와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과학원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 특집

17 호 9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 17 호 (231)

1963년 9월 (상)

차 례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번영의 기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15 년이 지나 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력사적 전취물이다.

공화국의 창건으로 조선 인민은 쓰라린 망국노의 비운을 영원히 씻어 버리고 당당한 독립 국가의 기치 하에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되였으며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 민족의 번영과 우리 인민이 향유하고 있는 오늘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륭성 발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공화국의 기치 하에 조선 인민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고, 이 기치 하에 우리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으며, 이 기치 하에 우리 인민은 조상 대대의 세기적 숙망을 성취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남북반부 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15 년이란 세월은 극히 짧은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력사에도 있어 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들과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들을 쟁취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면모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면에서 몰라 보게 변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에 걸쳐 하나의 꿈으로, 리상으로 생각하며 동경하던 많은 일들이 공화국의 기치 하에 우리 인민의 손에 의하여 현실로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이 완수됨으로써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사회주의 사회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지주도 자본가도 없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근절되였다.

공화국의 기치 하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가장 주요한 성과는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한 위대한 사업들을 자기의 손으로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혁명의 성과적 전진을 물질적으로 튼튼히 보장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확고히 축성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이미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조선 인민은 당과 정부의 령도 하에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히 극복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락후하고 무력하였던 우리의 경제를 강력한 자립적 토대 우에 올려 세웠다.

일제로부터 극심한 편파성과 기형성을 띤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해방 후 남북으로의 국토의 량단으로 인하여 경제의 편파성과 기형성이 더욱 격화된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고 아주 절실한 과업이였다. 특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끊임 없는 파괴 활동과 자립적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내외 원쑤들의 악랄한 책동은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당은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피로써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화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자주적인 륭성 발전도, 인민 생활의 향상도 기할 수 없다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관철시켰다.

당은 새 사회 건설의 첫날부터 자립 경제의 토대를 닦는 데 착수하였으며 전쟁의 준엄한 환경 속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전후 당과 정부는 파괴된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긴절한 과업을 해결하면서 공화국 북반부에 자립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특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전후 당과 국가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원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오늘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모든 부문들이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를 가지게 되였다. 과거 일제 본토 공업의 부속물로서 일면적 부문들의 발전에 편중되였던 중공업은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건재,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부문들을 모두 갖추었다. 현대적 경공업 공장은 물론 수공업마저 보잘 것 없던 우리 나라 전국 각지에는 방직, 일용, 식료 가공 등 현대적 경공업 공장들과 지방 공업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고 알곡 생산을 위주로 하는 다각적 농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공화국이 창건된 해인 1948년에 비하여 1962년에는 공업 총 생산액은 13.4배로, 알곡 생산량은 근 2 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특히 공업 부문에서 과거 락후하였던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장성함으로써 그것들이 공업 총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으로 제고되였다. 1948~1962 년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7.4%로부터 23%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최근 이미 확립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장성시킬 데

대한 7 개년 계획의 상반기의 과업이 성과 있게 추진됨으로써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다면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에 최대의 력량을 경주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리용하여 민족 기술 간부들을 양성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이 실현됨으로써 오늘 우리는 자체의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명을 급속한 속도로 실현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을 청산하였으며 모든 부문들을 최신 기술로 급속히 장비하고 있다. 국내 기계 설비의 자급률이 작년에 벌써 92%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제가 자체의 튼튼한 기술적 기초 우에서 확고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에 기초하여 자체의 튼튼한 원료 기지도 축성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만들어 내며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대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적지 않은 원료, 연료들이 국내 자원에 기초하여 해결되는 길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할 데 대한 당과 정부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제력의 급속한 장성 강화에 의거하여 과학과 문화도 전면적으로 개화되고 있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의 과학은 세계 수준에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의 민족 예술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 왔다.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켰다.

조선 인민은 물질 문화 생활에서의 세기적인 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다.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1949년에 비하여 1962년에 211%로 장성되였으며 전쟁 직후만 하여도 전체 농민들 중에서 빈농민의 비중이 40%나 되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오늘은 모든 농민들의 생활이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사회주의 국가 제도가 베풀어 주는 혜택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부하며 무상으로 치료 받고 있다.

공화국 창건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일어 난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혁에 기초하여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다.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 도덕적 통일 단결은 사회주의의 기초 우에서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였으며 국가 기관들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 련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적응하

게 인민 정권 기관들과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당과 정부의 조치들이 성과 있게 실현됨으로써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문화 교양자적 기능은 전례 없이 강화되였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지도 체계의 개편은 우로부터의 지도를 현실에 더욱 접근시키고 광범한 대중을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적극적으로 인입할 수 있게 하였다.

지도와 대중의 튼튼한 결합은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게 하였으며 당과 정부 주위에 한결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를 고도로 앙양시켰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킨 전 인민적 운동—천리마 운동은 바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이며 당과 정부 주위에 튼튼히 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공화국 정부가 마련하여 준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래일의 보다 큰 행복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튼튼한 경제력을 밑천으로 하여 보다 광활한 전망을 내다 보고 있다.

7 개년 계획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다. 우리의 공업은 각종 최신 기계 설비들과 생산 수단들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며 공업, 농업 할 것 없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은 더욱 현대적인 새 기술로 장비되고 힘들고 고된 로동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인민은 더 질 좋고 다양한 제품들, 발전한 사회주의 사회의 문명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의 공업과 농업으로부터 보장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간고한 시련을 이겨 내고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의 토대는 더욱 공고하여질 것이며 그의 위력이 인민 생활을 활짝 꽃피우게 할 것이다.

공화국의 기치 하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데서 조선 인민이 달성한 모든 성과와 그로 하여 갖게 된 웅대한 래일의 전망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며 파탄시키려고 책동하던 온갖 적들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화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날로 륭성 발전하는 공화국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 강화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작용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방안은 남조선 인민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투쟁에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자기들의 자유와 해방의 기치로, 행복과 번영의 보금자리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고 있다.

지난 15 년간에 남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과의 세력 관계는 혁명 발전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북반부 형제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에 고무되면서 영웅적 항쟁에 궐기하여 리승만 괴뢰 정권을 붕괴시켰다. 1960년 4월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승리였으며 미제의 침략 정책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였다. 항쟁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은 더욱 제고되였으며 투쟁의 예봉은 점차 미제에 돌려지기 시작하였다. 4월 봉기 이후 광범한 인민 대중은 조국 통일을 실현하지 않고는 착취와 빈궁, 기아와 무권리,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으며 남북 교류와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군중적 투쟁이 힘 있게 발전하였다. 대세는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지지하는 인민 대중에게 급속히 유리하게 진전하였다.

궁지에 빠진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여 보려고 파쑈적인 군사 독재를 수립하는 길에 들어 섰다.

군사 독재 정권의 수립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지위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것은 파국에 처한 자들의 절망적인 최후 발악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괴뢰 정권의 《합법적》 교체로써도, 폭력에 의한 군사 테로 독재의 수립으로써도 파국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수 없으며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군사 파쑈 분자들이 집권한 이후 2년이 경과한 오늘, 남조선에서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인하여 민족 공업은 여지없이 파산 당하였다. 《군사 정변》 후 2 년 동안에만도 공업 생산은 9% 감소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3 분의 2 밖에 안 된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적인 농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농촌 경리도 극도로 황폐화되였다.

작년도 알곡 수확고는 일제 시기에 비하여 43%나 감소되였다.

식량 기근은 절정에 달하고 있으며 민족 경제의 파탄과 미제의 략탈로 인민들은 전대 미문의 생활고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의 수 많은 겨레들이 사랑하는 향토를 등지고 다시 돌아 올 길 없는 수천 수만 리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고 있다.

온갖 패덕과 패륜 행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인민들은 래일에 대한 희망도 기약도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을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투쟁에 일떠 서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각 계층 광범한 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진출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 상 개선을 위한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략탈적인 농업 정책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검차 앙양되

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남조선의 청년 학생, 인테리들과 광범한 대중 속에서 외세를 배격하며 자주, 자립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양코들이 안하 무인격으로 활개치는 땅, 로동자, 농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땅, 조국 통일을 요구한다 하여 인민들이 학살되는 땅—오늘의 남조선에서 어찌 인민들이 투쟁을 멈출 수 있겠는가!

미제는 고조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무마하며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사 파쑈 도당들을 사촉하여 기만적인 《민정 이양》 연극을 꾸미는 한편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각종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사촉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도당들의 이 모든 책동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인민들을 더욱 큰 재난과 고통 속에 몰아 넣는 결과 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결코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며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경제력에 의거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으며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인민의 진정한 리익의 대표자이며 자유와 행복의 기치이다.

산 설고 물 선 이국 땅에서 오랜 동안 민족적 차별 대우와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60만 재일 동포들은 오늘 공화국의 륭성 발전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고 있다. 벌써 8만 여 명의 재일 동포들이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으로 돌아 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더 많은 해외 동포들이 계속 귀국하고 있다.

지금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조국에로의 왕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기 조국에로 자유로이 왕래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요구가 하루속히 실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지난 15 년간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대외 정책과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들로 하여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국제적 지위가 전례 없이 공고화되였다.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며, 착취와 압박,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설정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이러한 대외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앙양시키는 데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들, 특히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한 많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 및 경제 문화적인 교류 관계를 강화하게 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외 온갖 반동들은 그 어떤 책동으로도 날로 높아 가는 공화국의 국제적 위신을 훼손시킬 수 없었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의 부단한 발전을 저애할 수 없었다.

공화국은 이미 수십 개 나라들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 문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무역을 진행하는 나라들의 수는 날로 증대되여 가고 있다.

지난 기간 전반적 국제 정세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와 평화 력량은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붕괴 과정을 더욱더 촉진시키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두 개의 방대한 력량은 서로 지지하고 고무하면서 력사 발전의 길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의 면모를 변경시키고 있다.

이와 반면에 제국주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며 제멋대로 다른 나라 인민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사회주의 진영의 부단한 강화,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 투쟁의 앙양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궁지에 빠져 들어 가게 하고 있다.

현 국제 정세 발전의 이 모든 추세는 현 시대를 투쟁의 시대,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는 시대로 평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립장의 정당성을 실증하고 있다.

현 시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력사 발전의 필연적 길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의 주되는 내용, 주되는 방향, 주되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철저한 계급적 립장에서 출발된 것이다.

로동 계급은 언제나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착취와 억압의

근원을 청산하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을 해방하려는 립장에 서서 정세를 고찰하고 분석하며 유리한 정세는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불리한 정세는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면서 항상 세계 혁명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와 반면에 유고슬라비야의 찌또 도당과 같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대를 《평온한 시대》, 《투쟁이 없는 시대》, 《평화적 협조의 시대》라고 보면서 혁명 투쟁에 적극 나설 각오를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 력량을 조직 동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이 혁명 투쟁에 나서는 것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최근 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준동은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세계 반동의 중심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전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미제는 날이 갈수록 교활하고 모험적인 전쟁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날뛰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여전히 전면적인 전쟁과 핵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부분적인 핵 시험 금지 조약의 연막 뒤에서 핵 무기의 시험을 계속하고 그 생산과 축적을 증가시키며 핵 전쟁 준비를 더 강화하며 하고 있다.

핵 무기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으로써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런 책동을 조금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현실 발전의 모든 사태는 《현 시대에 와서 제국주의 본성이 변하였다》고 떠드는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잘 말하여 준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제국주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은 자체 내에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적 본성의 로골화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립장에서 출발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력량, 민족 해방 운동의 력량, 국제 로동 운동과 모든 평화 애호 력량의 공동 투쟁에 의거할 때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능히 좌절시키며 세계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세계 모든 피압박 인민들, 피압박 민족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단결시켜야 하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확대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 역량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이며 평화의 강력한 요인이다.

때문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 왔고 민족 해방 투쟁을 성심 성의 지지하여 왔다.

동시에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특히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시종일관 자기의 대외 정책 분야에서 확고부동하게 천명하여 온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계급의 가장 고귀한 전취물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위력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이 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도의 공통성과 동일한 사상, 동일한 투쟁 목표로 하여 하나로 굳게 단합되여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지지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이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로 특징 짓는 제국주의 나라들 호상간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나라들 호상간에 있어서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고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서로 음해하거나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제국주의자들처럼 원조를 미끼로 하여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훼손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매개 사회주의 나라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정부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형제 당들 호상간에 있어서 자주성과 평등, 호상 지지와 협조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찌또를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중국 깜빠니야》에 장단을 맞추면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리간시키며, 반목과 불신임을 조성하며, 중상 비방하며 고립시키려고 비렬한 책동을 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원칙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형성된 오늘날 어느 한 나라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그 통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 의무라는 우리 당의 명제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리익에 항상 충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명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리익, 진보적 인류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민들 속에서 광범한 공명을 불러 일으켰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철저히 투쟁할 것이며,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세계 각국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자기에게 부과된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진무한 미 충실할 것이다.

지난 15 년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국내외 원쑤들과의 끊임 없는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였으며 중첩되는 준엄한 시련 속에서 륭성 발전하여 왔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야합한 국제 반동들은 공화국을 그 요람 속에서 압살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였으며 국내의 원쑤들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근로 인민의 국가를 말살하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쥔 조선 인민은 자기의 혁명적 국가 주권을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원쑤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다.

오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에 거연히 서 있으며 날로 륭성 발전하고 있다.

공화국의 창건과 그의 발전은 자기 손에 주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들의 힘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계속 공화국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이며 이 기치 하에 더욱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을 이 땅 우에 건설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조선 인민의 앞길은 휘황 찬란하며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공화국 정권은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김 화 중

공화국의 창건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 상 처음으로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 주권을 가지게 되였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각계 각층 인민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여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인민 정권을 수립할 데 대한 로선은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으며 거기에서 이미 그 전통이 이룩되였다.

해방 후 우리 당과 인민은 이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혁명이 사회주의 단계로 들어 섬에 따라 이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권으로 발전시켰다.

공화국 정권의 수립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 정권 발전의 새로운 시기로 되였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무기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의 무기인 공화국 정권은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가차없는 독재를 실시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철저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이다.

《우리의 국가는 인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물질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다. 우리의 국가는 인민이 창건하였고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결된 력량에 의거하고 있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국가 사업에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이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1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국가이며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라고 가르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력사 상 처음으로 전체 인민 대중이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주권을 자기 손에 장악하며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 인민의 주권과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국가,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에서 비로소 문'자 그대로 실현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 대중은 주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온갖 물질적, 문화적 부의 주인으로 됨으로써 모든 물질적 및 정신 문화적 복리도 누리게 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 프로레타리아

적 민주주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대상, 범위에 있어서나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최대한의 민주주의로 된다.

공화국 정권 하에서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러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다.

근로 대중은 우선 공화국 정권 하에서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은 착취 계급들을 청산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생산 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주권 기관을 구성하고 주권을 행사하며 국가 및 경제 관리에 참가하며 자기들의 로동의 결과를 향유할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 자유와 권리는 인민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고 모든 물질적 수단들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능력에 따라 로동하고 로동에 따라 분배를 받으며 문화적 휴식과 무상 치료, 무료 교육 기타 사회 문화적 시책으로 막대한 국가적 혜택을 받으며 언제나 보다 훌륭한 래일을 맞이하게 된다.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기만성은 근로자들이 주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그들에게 소위 《권리》를 행사할 아무런 물질적 수단도 주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권리—로동과 휴식의 권리, 자기 로동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권리가 없이는 진실로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생활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정신 문화 생활에서의 자유, 개성의 자유도 보장한다.

근로자들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이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개성, 자기의 재능과 소질을 자유로이 발전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공화국 정권 하에서 광범한 근로 대중은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고도의 자각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공화국 정권 하에서 향유하는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을 광범한 대중과 토의하였으며 우리의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불굴의 투지를 발휘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바로 우리의 인민 정권이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하며 그들을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 형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71 페지)

인민 대중이 주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관리 운영은 바로

대중 자신의 사업이다.

우리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모든 국가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집단과 사회를 위한 가장 영예로운 일이며 자기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각자가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 받는다.

국가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일치, 자기 사업의 의의에 대한 높은 자각, 바로 여기에 근로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적극성과 자각적 열성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운동인 천리마 운동은 국가 사업에서의 근로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을 가장 뚜렷이 보여 준다.

우리 인민의 고도의 정치적, 로력적 열의와 창조력의 발현은 생산과 기술, 과학과 문화, 예술, 교육, 체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을 낳고 있으며 우리 조국을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시키고 있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는 … 근로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을 발전시키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무대에 참으로 그들의 대다수를 끌어 넣을 가능성을 지어 준다. 인민 속에 있는 이 재능은 아직 손을 대여 보지 않은 무궁무진한 샘인데 자본주의는 이 재능을 대량적으로 유린하고 억압하고 질식시켰던 것이다.》(레닌 전집 제 26 권, 500 페지)

소수 착취자들, 기생충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수백만 대중이 피땀을 흘려야 하며 국가 사업에서 배제되여야 하는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의 발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 주권 하에서, 대중의 창조적 지혜, 자각적 열성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다.

국가 사업에서의 대중의 자각적 열성은 생산자 대중이 직접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데서 제일 높은 단계에 도달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높은 지표로 된다. 우리 공화국 정권 하에서는 이것이 이미 현실로 되고 있다.

오늘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생산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고 기업 관리 운영에까지 참가하여 집단의 사업 전반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여기서는 생산자들이 계획화 사업, 로동 행정 사업들에 직접 참가하며 내부 채산제 실시, 설비 관리 사업, 정량 사업, 검사 사업들을 자체로 수행하는 고도의 자각성을 발휘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보수를 받는 일 이외에 국가 및 경제 관리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이 어떠한 높이에 도달하였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것은 국가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벌써 권리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도덕적 의무로, 생활 상 요구로서 습관화되는 길에 들어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 정권 하에서는 적대 분자를 제외한 전체 인민 대중이 남김 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

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신과 국가를 위하여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인민을 위해서는 벌써 하등의 제한도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당과 인민 정권은 혁명과 사회주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정치적 처지 여하를 불문하고 남김 없이 교양 개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며 공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그들에게 광명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전체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계급적 립장을 떠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계급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적아를 엄격히 구별하고 인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보장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그 폭에 있어서 전체 인민을 제한 없이 포괄하고 있으며 그 심도에 있어서 생산자 대중이 직접 기업 관리에 참가하는 그러한 높이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행사함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더 완전한 형태란 있을 수 없다. 공화국 정권은 가장 높은 민주주의,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2

공화국이 걸어 온 15 년의 행정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다시 한 번 사실로써 확증하여 주었다.

공화국 정권은 남반부에 뭉지를 틀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인 국내 반혁명 세력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반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반혁명 세력은 우리를 반대하는 책동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북반부에서는, 착취 계급이 이미 청산되였으나 과거의 착취자들이 아직도 적지 않게 살아 있고 남반부에 적이 있고 세계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적대 분자가 없을 수 없다.

인민 정권은, 우리의 사업을 파괴하며 쟁취된 인민의 락원을 도로 빼앗으려 하는 내외의 원쑤들의 기도를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만 인민 대중에게 그 모든 자유와 권리와 복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민 정권은 또한 적들의 기도에 리용될 수 있는 낡은 사상과 관습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각계 각층 군중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에 대한 진압, 비프로레타리아적 요소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 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착취자들, 적대 분자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조건 하에서만 전체 인민을 위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며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시도는 전적으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야망에 복무하는 것이다.

부르죠아 국가를 순전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세계로 보며 사회주의 국가를 순전한 《독재》의 세계로 묘사하면서 《독재》에 대한 공포로써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떼여내려는 것은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이 매여 달리는 상투적 술책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부르죠아지와 온갖 착취자들을 청산하고 착취와 압박을 근절함으로써 근로대중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 뿐만 아니라 온갖 물질, 문화적 복리까지도 보장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은페하면서 다만 착취자들에 대한 독재를 근로대중에 대한 《독재》로 민게 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나아가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고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조장하며 이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에로의 《평화적 진화》라는 구호 밑에 자본주의의 복구를 기도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마치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의 기구이며 그것을 약화시켜야 민주주의가 발양되는듯이 지껄이는 찌또를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립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1956년 웽그리야 사변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를 똑똑히 보여 주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전체 인민을 포괄하지 못 하는 어떤 제한된 민주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넘어 서야만 비로소 최고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듯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도 최후의 국가 형태가 아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어떤 보다 높은 형태의 국가가 출현하는듯이 간주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국가와 민주주의가 계급적이라는 것을 더 없이 강조하였다.

최후의 계급적 국가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하였을 때 그것의 조락으로써 국가는 영원히 소멸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하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계급적이면서 벌써 적대 분자를 제외한 전체 인민 대중을 포괄하는 것이며 그것이 최고도로 발양되였을 때에는 즉 완전한 공산주의에로 도달하였을 때에는 무용지물로 된다.

만약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끝남으로써 그 어떤 보다 높은 형태의 독재와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간주한다면 그것은 결국 초계급적 국가에로 문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론의가 초계급적인 문제 설정으로 되지 않는 듯이 떠들면서 마치 자신들이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국가를 항상 《초계급적인》, 《만민 평등》의 국가로 묘사하는 부르죠아적 론의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론의의 주장자들은 사실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적아를 뒤섞어 놓고 인민과 인민의 원쑤들 간의 계선을 말살하며 계급적 립장을 포기할 것을 설교하는 것이

다.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론의의 반동성을 전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공화국 정권이 걸어 온 15 년의 행정은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적 지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와 민주주의가 통일되여 있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생산의 무정부성, 류통과 소비의 자연 발생성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것이라면 사회적 소유를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에는 생산, 분배, 류통, 소비에 대한 국가의 중앙 집권적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 요구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친 중앙 집권적 지도로 되여야 한다.

각계 각층 수백만 인민들의 모든 활동은 우선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의 실현이라는 종국적 목적에 복종되여야 하며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 사회를 관리 운영하자면 매개 분야, 매개 단위들의 사업이 유일적인 의지에 복종되여야 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사실상 사회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자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는 근로 대중의 자유와 창의 창발성, 지방적 권한과 창발성을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 하면 국가는 인민 자신의 국가이며 국가와 개인, 중앙과 지방, 전체와 부분은 이해 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통일되여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 정부는 국가 관리 및 경제, 문화 건설에서 언제나 중앙 집권적 지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고 그에 의거하였으며 제반 조건의 성숙에 따라 지방의 권한과 창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최근 년간에 당과 공화국 정부가 도와 특히 군의 역할을 높인 데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것은 그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지방마다 더 많은 생산 기업소들이 일며 서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장되며 현대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각 도의 경제 사업은 해방 후 첫 시기에 있어서의 전국적인 경제 사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 서고 있다. 이것은 바로 중앙에서의 유일적이고 집중적인 통제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적응하여 중앙급 국가 기관에서의 일련의 공업, 농업 관리 체계의 개편과 함께 도 인민 위원회들의 기구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에 농촌 경리 위원회, 지방 산업 총국 등 경제 관리 기관들을 설치하고 군에는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지방 산업 지구 경영국(몇 개 군을 단위로)을 설치하였다. 또한 공장들에는 현대적 사회주의 공장 관리 체계로서의 대안 체계가 확립되였고 협동 농장들에도 청산리 방법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리 운영 방법들이 도입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들에 의하여 중앙에서의

통일적, 집중적 지도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 기능과 창발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와 자각적 열성이 더 높이 발양되고 있다.

경험은 국가의 중앙 집권적 지도가 경제, 문화 건설에서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자각적 열성을 제고하며 그들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물질 문화적 복리를 더 잘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제쳐 놓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생각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유고슬라비야의 저도 도당은 중앙 집권제 원칙도 거부한다.

그들은 중앙 집권적 지도를 《관료주의의 근원》으로 외곡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는 구실 밑에 《지방 분권화》를 내세우고 있다.

부르죠아 독재에서는 중앙 집권제가 필연적으로 근로 대중에 대한 관료주의적 억압 기구로 된다. 저도 도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부르죠아 국가의 그것과 슬쩍 바꾸어 놓으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비방 중상하려 한다. 지방에 권한을 주는 것은 중앙 집권적 지도와 모순될 수 없으며 또 모순되지 말아야 한다. 수정주의자들이 중앙 집권적 지도를 포기하거나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려는 구실로서 《지방 분권화》를 내세울 때 그것은 결국 나라를 자유주의화, 부르죠아화의 길로 내몰 따름이다. 거기에서 민주주의의 발양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가가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옹호를 위하여, 그들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집중적, 통일적으로 지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와 복리가 진실로 보장될 수 없으며 그러한 곳에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이 발양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고슬라비야의 현실은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만 개화 발전할 수 있다.

공화국의 인민 정권은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가차없는 독재를 실시하고 경제, 문화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에 철저한 중앙 집권적 지도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8

공화국 정권의 모든 활동은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당은 철두철미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혁명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자기의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고 있다. 당의 향도적 역할은 인민 정권으로 하여금 원쑤에 대하여는 무자비하고 인민 대중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인민 정권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수응

하여 국가의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그 기관들을 강화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개선하고 그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국가의 계획화 체계에 인입된 새로운 조건에서 당은 국가 기관들이 과거의 개인 경리를 지도하던 낡은 체계를 사회주의 경리를 지도하는 체계로 개편하였다. 국가 기관들 특히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경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적 대책이 취해졌다.

당은 또한 경제 발전에 비하여 일'군들의 지도 수준이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에 대처하여 간부들의 양성과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국가 기관들이 자기 하급 기관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더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인민적 사업 방법,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 당은 최근 년간 공업 및 농업에서의 기술 조건과 대중의 의식 발전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게 국가적 지도에서 당의 군중 로선,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구현시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를 확립하였다.

새 공업 지도 체계에서는 당 위원회가 기업 관리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되여 있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의 공통적인 특징은 경제 관리 운영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광범한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자발적 열성을 가장 훌륭히 발휘시키는 데 있다.

경험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만이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국가, 경제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과거 사회의 잔재를 철저히 근절할 수 있고 근로자들 속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운운하면서 당의 령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반박으로 된다.

공화국 정권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 확립된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에 튼튼히 의거하고 있다.

당과 인민 정권은 조성된 조건을 훌륭히 리용하며 또 적극적으로 조건을 조성하면서 생산 관계의 개조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적 경제 지도를 확립하였으며 이의 강화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우선 인민 정권의 정치적 기초로서의 로농 동맹과 각계 각층 인민의 통일을 강화하며 나아가서 그의 경제적 지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현실은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유일적 지배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공고화, 민주주의의 발양을 위하여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개인 경리를 그대로 두고도 공산주의에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적 관계의 조장 발전을 면할 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발양을 저애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자체의 정치적 지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있다.

당과 공화국 정권은 또한 일찍부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이의 관철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여 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확고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는 국가의 정치적 자주를 견지하고 인민의 정치적 자유와 물질 문화적 복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인민 정권은 또한 당의 령도 하에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계급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과학적 지식과 기술, 문화 소양을 갖춘 새 형의 인간으로 교육 교양하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도의 계급 의식과 애국주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반석 같은 정치.도덕적 통일의 사상적 기초로 되고 있으며 인민 주권과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하며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일부 나라들에서만 승리하고 세계에 제국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국토가 량단되고 혁명이 전국에서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대중의 계급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 혁명 발전의 현 단계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현 정세는 이 문제를 특히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계급 교양을 소홀히 하며 이를 떠나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해서 떠드는 것은 사실 상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 양식의 침습,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방임하는 것이며 《평화적 진화》의 방법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전복하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부르죠아 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으려고 기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물방아에 물을 대여 주는 것으로 된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대중의 의식성, 특히 그들의 계급 의식으로 하여 반석같이 공고하다.

ꕥ ꕥ

프로레타리아 독재로서의 공화국 정권은 오직 이것만이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부단히 증진하는 인민의 복리와 조국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공화국 정권은 이것만이 생지옥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유일한 해방의 기치이며 등대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등대로 하여 남반부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 침략 기도와

괴뢰 《정권》의 반인민적 본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고 반미 구국 투쟁의 길로 확신성 있게 전진할 수 있다.

미제 식민지 통치와 괴뢰 《정권》 하에서 민족의 자주, 경제의 자립, 인민의 살'길과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산에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일로 될 것이다.

오늘 미제 침략자들은 남반부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민족의 의사를 관철할 수 없는 예속된 《정권》을 가지고는 민족 경제의 파산과 예속화를 면할 수 없다. 18 년의 력사는 이것을 너무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정치적 자주가 없고 경제적 자립이 없고 인민이 생사 지경에서 헤매는 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떠드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은 없다.

대중은 절량에 아우성치고 쌀값은 불과 반 년 동안에 3 배나 폭등하는 심각한 사태에도 아랑곳 없이 소위 위정자들이 《정권》 쟁탈을 위하여, 《민정 이양》을 위하여, 《공명 선거》를 위하여 여념이 없는 것, 이것을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부르죠아들이 근로자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내거는 《민주주의》란 구호와 조금도 다름 없는 것이다.

리 승만 때의 《민정》도 그 후의 《군정》도 다 같이 인민의 권리, 인민의 자유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다.

소위 위정자들의 그 어떤 민주주의 놀음도 더는 남반부 인민들을 우롱하지 못할 것이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애국적 력량은 공화국의 기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쓸어 버림으로써만 자신들의 해방을 쟁취할 것이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할 것이다. 그 때에야말로 전체 조선 인민은 하나의 인민 정권 아래서 나라의 주인으로 될 것이며,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창조적 재능과 힘은 더욱더 힘차고 무진장하게 발양될 것이며 행복은 한량 없고 우리 조국의 번영은 더욱 무궁할 것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김 한 준

1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과 사회계에서는 경제의 자립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념려하는 사람들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외세에 예속된 데 있다고 일치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일보》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주 정신, 자주 판단, 그리고 자주 처리만이 자주 민족 국가를 자주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대 원칙》이라고 하였으며 《부산 일보》는 《정치적 자주 의식을 가지고 경제적 자립을 하루 속히 성취하여 외원과 외군에 의지 하지 않고 사는》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장래에 대한 심심한 우려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남조선 인민의 념원을 반영한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적극 지지 환영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서게 된 것은 해방 후 18 년 간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생활 체험에서 나온 필연적 귀결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무엇이며 이로부터의 출로는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게 되였다.

례컨대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해방이 되였다고 감격하던 그날도 벌써 18 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은 파산 뿐이다… 우리는 왜 이 꼴이 되였는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가? 우리의 무지 때문인가? 그보다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떤 외세 때문인가?》(《동아 춘추》 1963년 4 호)라고 썼다.

지난 18 년간, 미 군정과 리 승만의 개인 독재와 장 면의 《민주 정치》와 박 정희의 군사 통치를 다 겪어 본 남조선 인민들은 남조선이 미제에 예속되여 있는 한, 그리고 그 주구들이 괴뢰 정권에 들어 앉아 있는 한 사태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오늘의 재난과 고통의 화근을 뿌리 뽑고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책을 요구하여 나서기에 이르렀다.

남조선 인민들이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서게 된 것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의 거대한 혁명적 작용에 의한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로 남조선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든 북반부 인민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꾸려 나가고 있다.

북반부에서는 지금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한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여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내고 대규모 기업소들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있다. 중공업의 지원 밑에 경공업이 급속히 발전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들로 입고 쓰고 살게 되였다.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협동 경리로 전변된 우리 농촌에서는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장성하고 있으며 북반부에서는 이미 식량 문제가 해결되였다.

세기적 락후와 빈궁,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벗어 난 우리 인민은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래일의 보다 행복한 생활에 대한 전망을 내다 보면서 혁명적 낙관에 충만되여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날로 륭성 발전하는 공화국 북반부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 하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희망이며 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는 등대이며 그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방책은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강력히 고무 추동하였다.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방안은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과 리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8.15 해방 15 주년 경축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조국 통일의 새로운 방안과 그를 구체화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8 차 회의 제안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조국 통일을 실현하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밝혀 줌으로써 반미 구국 투쟁을 더 한층 발전시켰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은 우선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위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자주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자주권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북의 어느 일방이 자주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외세의 예속 하에 있을 때에는 자주적 통일이란 실현될 수 없다.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압력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인민의 손에 자주권이 없고 강점자 미제가 완전한 주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정권에서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을 제고시킴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이 투쟁에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서 벗어 나려는 불타는 지향이 맥박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폭로 비판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에게 반미 감정을 주입시키며 그들의 민족적 각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그 사상과 요구의 정당성으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2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주요 특징은 우선 이 운동이 공개적인 반미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 사실이다.

4월 인민 봉기 전까지만 해도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 예봉을 미제 침략자들에게 돌리지 못 하고 있었다. 그들은 리 승만 독재 정권만 전복되면 만사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후 두 차례나 괴뢰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그들의 처지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현 파국적 사태로부터 벗어 나기 위해서는 괴뢰 정권을 전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 그 자체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예봉은 직접 미제 침략자를 반대하는 데 점차 돌려지게 되였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항거하는 기세는 우선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는 《원조》를 배격하는 데서 잘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과거에도 침략적인 미국 《원조》를 비난하여 왔으나 그 때는 주로 미제의 《원조》가 가져 온 후과의 개별적 측면, 례하면 기간 공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재를 주지 않고 소비재와 잉여 농산물만 준다는 불만들을 단편적으로 표현하며 남조선에 대한 《원조》 정책의 개선과 《원조》 자금의 효과적 리용을 주장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원조》가 가져 온 후과의 개별적인 측면만을 폭로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조》의 침략적 본질과 그 후과를 전면적으로 폭로 비판하면서 《원조》 자체를 반대 배격하여 나서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가 《원조》를 미끼로 하여 로골적으로 내정 간섭을 자행하였으며, 군사적으로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 체계에 튼튼히 얽매여 놓았으며 경제적으로 남조선을 미국의 잉여 상품 시장으로, 원료 원천지로 전락시켰다고 단정하면서 미국 《원조》는 본질 상 략탈적이며 침략적이라고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미제는 1962년까지 남조선에 33억 딸라의 《경제 원조》를 주었는데 한편 이 기간에 그들이 남조선의 재부를 략탈한 액수는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80억 딸라에 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출판물들이 바로 미국 《원조》를 남조선에서 《자립성 상실의 늪속에 국민을 침몰》시키고 《사회적 질식》을 초래케 한 기본 요인이라고 규탄하면서 미국 《원조》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몽땅 거지》로 되였다고 항의해 나서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대한 항거 기세는 미제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을 반대하여 나서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자는 사실상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는 워싱톤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의 괴뢰 정권에 주구들을 갈아 앉히고 그들을 지휘하여 괴뢰 정권의 주요 《시책》들을 작성하며 남조선 군대를 지휘 감독하며 경찰 특무들을 폭출하는 것으로부터 남조선의 산업, 재정, 금융, 교통 운수, 농촌 경리,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4.19 전후의 맥코노이, 《군사 정변》 전후와 최근 시기의 비거 등의 거동은 식민지 총독으로서의 미국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남조선의 《경향 신문》도 미제의 파렴치한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남조선의 오늘의 정정은 그 한 초점을 미국 대사의 거동에 두고》 있는바 《한국에 정치적 위기가 래습할 때마다 국민은 미대사관 주변의 동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리유는 설명이 무색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제의 내정 간섭과 압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일시적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장구한 기간 울적되였던 그들의 심각한 불만과 첨예화된 민족적 모순의 반영이다.

반미 감정은 실지 행동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바 최근 남조선에서는 미군 부대 및 기관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침략 군대에 대한 기습, 살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포항에서는 6명의 미군이 조선 청년들에게 얻어 맞아 혹심한 부상까지 당하였으며 지금 남조선에서는 월 평균 20~30 명의 미군이 조선 청년들의 복수의 주먹에 의하여 살상 당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팽배히 끓어 오르는 자주 정신과 비등하는 반미 감정을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남조선에서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은 또한 대중적 성격을 띠고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한 계층이나 몇몇 인사들의 주장으로서가 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및 지식인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대중적 요구로 울려 나오고 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감이 강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4.19 3 주년을 전후하여 수천 명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대중적인 집회, 시위를 단행하고 미제의 로골적인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 더불어 정치적 간

섭과 같은 모든 외국의 영향을 배격한다》고 외쳤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원동력인 로동자, 농민들도 자주, 자립을 위하여 근거 있게 투쟁하고 있다.

례컨대 지난 5월에는 《대동 공업사》 로동자 100 여명이 국산품을 사용할 대신에 외래품에 의존함으로서 자기들을 실직의 위협에 몰아 넣고 있는 군사 《정권》의 처사를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일부 지방 농민들도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자립 경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 일보》, 《한국 경제》를 비롯한 중앙급 신문, 잡지들과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발간되는 지방 신문들까지도 한결 같이 외세 의존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경제적 자립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요구하는 사설, 론설들을 대대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은 다만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완강한 투쟁에로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이 내정 간섭으로 자명해진 이상 우리는 씻을 수 없이 모욕감을 뼈저리게 느끼며 민족 자립의 대도(大道)를 향하여 유감을 감추려 하지 않고 실로 매진해야 할 력사적인 책임감을 행동으로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민족 자학(自虐)에 안일할 수 없으며 민족 자립에 가해지는 압력에 좌시할 수 없다. 민족의 독립과 자립이 있는 곳에 민주주의는 생색(生色)을 낸다는 민족 의식의 발동을 고수해야 할 것이며 그릇된 한미 우호의 길을 광정(匡正)하여 새로운 세대에 호흡하고 싶으며 세계의 광장에서 락오자의 고독을 감수할 것이 아니라 떳떳한 독립국으로서 보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며야 하겠다…우리는 참된 안정을 위하여 기백 있는 저항을 펴야 한다》(《부산 일보》 1963. 3.27)

광범한 독자망을 가지고 있는 출판물들의 이와 같은 론조는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이 적극적인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할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점차적이나마 대중의 위대한 혁명적 진출이 배태되여 가고 있다.

정치 투쟁에 일떠 선 남조선 인민들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더욱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가고 있다. 이것은 대중의 정치 투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은 또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지향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국토와 민족의 분렬은 실로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진퇴 유곡의 도탄 속에 몰아 넣고 있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헤여져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만나기는 고사하고 생사조차 알길이 없으며 경제, 과학, 문화 등 모든 교류가 가로 막혔다. 심지어 단일한 민족인 우리 남북 조선 인민의 생활양식과 언어와 문'자마저 달라져 가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이 갈망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원흉은 미제 침략자들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 가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 무기를 비롯한 각종 신형 무기를 반입하여 새 전쟁 준비를 발악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 흉악한 침략 책동을 엄폐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방패로 소위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관한 진부한 구호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시기 실제적 경험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와 그 주구들이 떠드는 소위 《유엔 감시 하의 선거》란 결국 조선의 통일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북진 통일》, 《승공 통일》론과 아무런 본질적 차이도 없는 것이다.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은 통일의 방해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 나는 길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남북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깊이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서고 있다.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하여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도 조국을 분렬시키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난하면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는 사설, 론설들을 자주 발표하고 있다.

오늘 자주, 자립을 주장하는 남조선 출판물들의 론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반공》 사상의 자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일부 출판물들은 반쏘 《반공》을 강요하며 조국을 분렬시키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난하면서 조국 통일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는 점이다.

례하면 《부산 일보》는 《반공》과 《자유》의 구호 하에 남조선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말살하고 남조선을 공화국 북반부와 사회주의 진영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로 전락시킨 미제 침략자들을 신랄히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주, 자립, 자유, 반공이 확연히 구별되지 못한 채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야릇한 언어의 공전(空轉) 시대에 사는 습성이 붙어 버렸고 인공 위성도 쏘련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식의 객관성과 주체 의식을 상실한 말 못 할 〈타부〉 속에서 호흡하게시리 길들어 버렸다. 이 대미 일변도(對米一邊倒)만이 어째서 〈반공〉이 되고 〈자유〉가 되는 것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서방 진영의 교두보〉임을 암송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 온 것이다.》(1963.3.2)

잡지 《신사조》는 조국 통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였다.

《비옥한 평야, 풍요한 곡창 지대를 가진 남조선과 무진장의 공업 자원을 가진 북조선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분단은 량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공업 북조선의 상실로, 순전한

농업국으로 전화하여 공업화의 길과 자립 경제는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1963. 1 호)

조국 통일에 대한 요구는 비단 남조선 출판물들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집회들에서의 투쟁 구호로써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 대학교 학생 3,000 여 명은 《4.18 3 주년 기념식》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현 《정권》 당국자와 구정치인들을 모두 불신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질서의 조속한 확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오늘 외세를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려는 절박한 념원으로 튼튼히 안받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 주체적 힘에 의하여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 민족적 요구와 밀접히 결합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이런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의 심장을 틀어 잡으며 더욱 심화 발전하고 있다.

이 투쟁은 그 요구의 내용으로 보아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 독립을 지향하는 반미 애국 투쟁이다.

물론 이 투쟁이 아직까지는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대중적인 행동에로까지 발전하지 못 하고 주로 사상 계몽 운동의 단계를 벗어 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투쟁에서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철저한 반미, 자주, 자립 사상과 조국 통일에로의 불타는 지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투쟁이 또한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대중적 성격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출판물도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자조, 자주적 정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히 끓어 오르고 있다는 사실》(《동아 일보》 1963. 3. 7)을 자인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은 지금 비록 사상 계몽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미구에 남조선에서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과 조국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함에 있어서 커다란 작용을 놀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계몽 운동의 단계에서 급속히 탈피하여 대중적인 정치 투쟁, 미제를 쫓아 내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단계의 높이에까지 올려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 진리를 반영한 정당한 사회 리념이라 할지라도 실천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 리념은 다만 공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며 현실을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도 예외로 될 수 없다.

지금은 다만 모순된 남조선 현실을 비관하고 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승리는 오직 실천적인 투쟁을 요구하며 또한 실천 행동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빼앗긴 자주, 자립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기 위한 전 군중적인 투쟁이 요구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의 철거는 유린된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선결 조건으로 된다. 외래 제국주의 침략군을 자기 강토에 남겨 두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한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더우기 침략과 략탈의 화신으로 되고 있는 흉악 무쌍한 미제 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어떻게 민족의 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파국적 위기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인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기만 책동과 그에 아부 추종하는 주구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철저히 폭로 분쇄하고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여야 한다.

미제 강점이 계속되는 한 《군정》이건 《민정》이건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남조선 《정권》에 누가 들어 앉든 괴뢰 정권으로서의 그 본질은 변경할 수 없다.

진정한 자주권을 가지자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몰아 내고 인민들 자신이 발동하여 자기의 의사를 대표하며 자기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인민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정권이 수립됨으로써만 진정한 독립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이 민주주의적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 등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여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적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파쟁을 일삼는 정상배들은 민족과 인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군중 속에서 인민 대중이 요구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군사 정권도 보수 정객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인민 대중이 자기의 진정한 당과 지도자와 정부를 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때라야 비로소 남조선에서 민족적 자주가 실현될 것이며 만사가 민족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결정되고 처리될 것이다.

정치적 자주권은 경제적 자립이 안받침되지 않고는 보장될 수 없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외세 의존은 오직 파멸을 가져 올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원조》와 그의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반대 배격하고 자생 자결해야 하며 특히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실현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공화국 북반부에 축성된 강력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남북이 호상 유무상통하고 경제 문화 교류

를 실현하며 련방제를 실시한다면 피폐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고 령락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자주적 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남반부도 북반부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한다.

량 편이 다 같이 자주적이며 자립적이여야만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 힘에 의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완전한 자주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력사 상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민족적 독립을 성취한 전례는 없다.

우리 나라 력사는 이것을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리조 말에 이르러 봉건 지배층은 외래 침략 세력이 물 밀듯 밀려 들 때 일치 합심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며 침략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대신 서로 외래 침략 세력에 의존하여 감투 싸움만 하다가 결국 나라를 일제의 독아에 집어 넣었다.

해방 전 구미 렬강의 《선심》을 바라며 《청원》이나 《애걸》로 그 어떤 독립을 달성하려던 많은 정객들의 모든 시도가 제국주의자들의 우롱물로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해방 후에도 리 승만, 장 면, 박 정희 등 력대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 외세에 아부 굴종하고 그와 야합함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를 오늘과 같은 파국에 처하게 하였으며 인민들을 무권리와 인간 생지옥의 도탄 속에 빠지게 하였다.

우리는 이 쓰라린 력사적 교훈을 잊기 만이야 하며 외세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제 나라 제 살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간섭에 맡기겠는가.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 미국이 생기기 수백 년 전부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첨성대, 거북선 등을 비롯하여 수다한 과학적 발명과 문화적 창조로 세계 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재능 있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마수가 뻗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위기를 구원해 낸 애국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본 침략자들을 격멸한 임진 조국 전쟁, 3.1 운동, 광주 학생 운동은 모두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페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5 여 성상에 걸쳐 백두의 준령과 장백의 밀림에서 갖은 난관을 이겨내며 반일 무장 투쟁의 홰'불을 높이 추켜든 항일 유격대의 불멸의 위훈과 업적, 고귀한 혁명 정신은 조선 민족의 영웅성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의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되고 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인민은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미제의 침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였으며 전후에도 북반부에 자립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했으며 조국의 무한한 번영과 후손 만대의 행복을 위

하여 더욱 충천한 기세로 질풍 같이 내달리는 위대한 천리마 시대를 열어 놓았다.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한히 고무되면서 남조선 인민들이 피의 항쟁으로 미제의 주구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전복한 것은 조선 인민의 혁명적 기개를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바로 이런 조선 인민이 일치 단결하여 궐기한다면 남조선에서 횡포무도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양키 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 통일을 실현 못 할 리유가 어데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민족 해방 투쟁이 승승장구하는 혁명의 시대, 폭풍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국내외 정세는 우리 인민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어찌 이 위대한 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의 억압에 굴종할 수 있으며 자기 강토에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수모와 멸시와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그대로 감수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도탄에서 벗어 나는 길은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민족의 자결과 자주를 실현해야 하며 이 기초 우에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데 있다.

우국지성이 있고 민족적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남조선에서 짓밟힌 민족의 자주권을 찾기 위하여 이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모두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반동 통치 세력을 반대하여,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용감히 일떠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추켜 들자.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테리, 기업가, 상인 등 모든 애국 력량은 민족 자결, 자주, 자립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단결은 힘을 십 배, 백 배로 강화한다.

단결된 인민의 힘은 원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경험이 생생하게 실증하였다.

우리가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책동을 반대 배격하며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면 그들이 제아무리 간악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배겨나지 못할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지금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고 헤매고 있으며 대중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하에 단결된 인민의 힘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천리마 운동과 자력 갱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후 15 년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실로 《천지 개벽》과도 같은 대변혁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들은 천리마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령도의 혁명성,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을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천리마의 나라》, 우리 인민을 가리켜 《천리마를 탄 인민》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천리마 운동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천리마 운동을 낳게 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오늘 7 개년 계획의 거창한 하반기 전투를 앞두고 천리마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는 것이다.

천리마 운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들을 가장 훌륭히 리용하고 고도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여 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전 인민적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인민 대중이 자기들에게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온갖 창조적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게 될 때에만 일어 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 대중의 창조적 력량은 력사 상 처음으로 높이 발양되게 된다. 그것은 이 제도 하에서는 국가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 대중의 창조력은 그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 나가려는 각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에 최고도로 발휘되는 것이다.

자력 갱생—이것은 무엇보다도 앉아서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진공적 정신이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풍부히 하는 창조적 정신이며,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단 시작한 일을 끝까지 관철하는 전투적 정신이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혁명적 정신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하게 될 때 인민 대중은 있는 것을 더 잘 리용하고 예비를 더 잘 찾아 내며 모든 힘을 다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킬 수 있다.

인민 대중이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양하도록 하자면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이전 기존 권위나 공식,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의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인민 대중은 자신의 힘을 다하여 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려는 자각과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더 잘 수행하려는 책임성을 높이 간직하게 되며 모든 사업에서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한 문제는 혁명 정세가 비상히 복잡하고 또 과거로부터 락후한 유산을 물려 받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싸우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주동적으로, 대담하게 추진시킬 수 없었으며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우선 과거 오랜 기간의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일부 사람들에게 남아 있던 민족 허무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뿌리 채 뽑아 버리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여 왔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의 정당성은 우리 인민이 자기 앞에 제기된 모든 난관들을 성과 있게 극복하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온 데서 명백히 실증되였다.

1956년 말과 1957년 초에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사회주의 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기본적으로 축성되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제 1 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었다. 또한 국내외의 원쑤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진출하였으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당을 공격하여 나섰다.

이 때 가장 날카롭게 제기된 문제는 당 주위에 집결된 인민 대중의 혁명적 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이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난관을 타개할 수도 없었으며 원쑤들의 준동도 격파할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로동 계급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하에 도처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낡은 기준, 낡은 방법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면서 천리마 운동을 일으켰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원쑤들의 온갖 시도를 산산이 분쇄하여 버렸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천리마 운동을 낳은 중요한 정신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천리마 운동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계속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남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으며 계속 힘차게 투쟁한다

면 남보다 빨리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당의 일관된 교양과 천리마 운동의 실천적 체험을 통하여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농민, 근로 인테리들은 1930 년대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심장으로 파악하게 되였으며 실생활에 구현하게 되였다.

천리마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부족한 것은 풍부히 하면서 기술 개전의 과업을 촉진시키는 데서 높이 발양되였다.

우리의 로동 계급이 자그마한 농기계 공장과 자동차 부속품 공장에서 각종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을 생산해 냈으며 보통 기계 공장에서 8 메터 타닝반과 3천 톤 프레스를 비롯한 대형 공작 기계들을 련이어 만들어 낸 혁신적 성과들은 바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낳은 산물이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 간직하고 일을 더 많이 하며 남보다 더 빨리 나가기 위하여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과 인간 개조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면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으며 그것은 천리마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에 대한 현지 지도가 있은 후 당 사업이 사람들과의 산 정치적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되고 공산주의 교양이 더욱 심화되는 행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업, 농업, 운수, 건설,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천리마 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락후한 것을 쓸어 버리고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 운동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 로선으로 되였다.》(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천리마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천리마 운동이 전개된 후 불과 몇 해 동안에 우리는 지난날 그 어느 때에도 가져 보지 못한 자기의 민족적 밑천, 우리 인민이 스스로 자기의 살림을 꾸려 나가며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지난날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이미 선진적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나라를 발전된 공업 국가로 전변시킬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과 도덕적 풍모에서도 일대 비약이 일어 났으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화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함이 없이 끝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미풍이 발양되게 되고 로동계급의 령도 하에 로농 동맹에 기초한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불패의 것으로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이미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 나 안착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멀지 않아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생활 필수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인민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천리마 운동을 힘차게 전개하여 비상히 빠른 속도로 높은 고지에 올라 섰으며 가까운 장래에 더욱 휘황찬 전망을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 놓았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러한 성과와 경험은 극히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선 사회주의를 가장 성과적으로 건설하자면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국내의 모든 자원과 예비를 동원하고 인민 대중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축성하고 인민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은 것도,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로력적 및 정치적 연성을 부단히 제고시킬 수 있은 것도 바로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여 꾸준히 투쟁한 결과이다.

오직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수 있었으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 대중이 자기 나라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과 건설을 조선 인민 자신의 힘으로 강력히 추진시키려는 근로자들의 불 같은 지향에 의하여 천리마 운동과 같은 위대한 전 인민적 운동이 발기되고 부단히 심화 발전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립장에 확고히 서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힘을 믿지 못 하고 남이 도와 주기만 기다리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게 되며 자기 나라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들을 적극 동원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지 못 하게 된다.

자력 갱생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은 조국 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 결정적 대책으로 된다.

날로 강화되는 북반부의 혁명 력량에 고무된 남조선 인민들은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배격하고 민족 주체의 힘

으로 나라를 통일시킬 것을 열망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반미 구국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나라가 분렬되고 상반되는 두 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오직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려야만 반동 제도 하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천리마 운동은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과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방침의 생동한 구현이다.

천리마 운동 과정에서 천리마 기수들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켰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고 있다.

이 운동의 경험은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사업과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목적을 훌륭히 실현하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이 발생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으며 이 운동을 한 계단 높이 발전시킨 1958년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도 이미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에 천리마 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생활을 통하여 남김 없이 확증되였으며 이 운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 정신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 인민 앞에 제기되고 있는 혁명 과업과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이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 이미 축성된 경제 토대를 더욱 정비하고 보강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는 동시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과업과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실현하여야 할 혁명 임무가 나서고 있다.

국제 국내 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반동 세력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을 좌절시키며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며 우리 인민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천리마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1956년 말에 우리 인민이 천리마 운동을 일으켜 경제 건설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국내외의 원쑤들의 책동을 격파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장성한 력량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급속히 촉진시키며 실제적 성과로써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시도를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혁명적 대책으로 된다.

천리마 운동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을 발생 발전시키는 데 크게 작용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다.

오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특히 기술 혁명을 더욱 급속히 전개하며,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근로자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로동 조직을 부단히 개선하고 로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구현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 확고히 축성된 자립적 경제 토대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기계 설비들, 그 어떤 정밀 기계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더 좋게, 더 다양하게 생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인민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천리마의 고삐를 늦춤이 없이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여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온갖 건태증과 해이성, 안일성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6 차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며 이 운동을 가일층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천리마 운동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난관도 성과 있게 물리치고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 체계

김 종 완
김 정 일

1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체계를 수립하고 그것을 부단히 완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체계가 어떻게 조직되는가에 따라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의 잠재력을 경제 건설에 최대한 동원 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개선은 관리 체계와 함께 관리 방법, 일'군들의 지도 수준, 대중의 참가 정도에 의존한다.

그런데 관리 체계는 국가적 지도의 개선을 위한 다른 요인들을 규정하는 조석으로 된다. 일'군들이 기업 관리에 대한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도, 일'군들의 지도 능력을 생산 지도에서 충분히 발휘시키는 문제도, 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인입하는 형태를 발전시키고 그들을 기업 관리에 더욱더 광범히 참가시키는 문제도 결국 관리 체계를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달려 있다.

관리 체계는, 국가가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 공간이다.

그러므로 부단히 이루어지는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게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따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관리 체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관리 체계의 부단한 개선은 인민 경제의 균형을 계획적으로 설정하고 모든 생산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대중의 무궁 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경제 발전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준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관리 체계가 가지는 이와 같은 의의와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관리 체계를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해방 직후 처음부터 인민 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체계를 조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 하였던 형편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림시적으로 조직되였던 각 공장(광산) 관리 위원회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였다.

그러나 북조선 산업국이 조직되고 이어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창설되면서부터는 공장, 기업소들을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 집결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중요 산업 국유화를 력사적 계기로 하여 사회주의적 관리 체계가 창설되였다. 당시 공업 분야에서는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지역적 원칙에 기초하여 처음에는 산업국—공업처—기업소 체계로 관리 체계가 조직되였으며 공화국 창건과 함께 산업국은 산업성으로, 공업처는 생산 관리국으로 개편되여 성—관리국—기업소 체계로 그것이 완전히 정비되였다.

그 후 전쟁 시기, 전후 복구 시기, 5개년 계획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관리 기관들을 세분 확대하고 지도 력량을 이에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관리 체계의 개편이 부단히 진행되였다.

중앙 기관들의 세분 확대는 최단 기간 내에 우리 경제의 세기적 락후성과 편파성을 청산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었다.

그러나 5 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업의 규모가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문 간의 생산적 련계가 전례 없이 복잡해 지고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급격히 강화된 조건에서는 그것이 경제 관리 운영에서 기관 본위주의를 낳게 하였고 경제 건설에서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우후죽순처럼 솟아 난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전국에 조밀하게 분포된 사정은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력량을 재편성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8월 상무 위원회 결정과 그 후 당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의하여 중앙 관리 기관들이 통합 축소되고 공업 관계 성들이 공업 위원회들로 개편되였으며 관리 및 기술 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지방에 파견되였다. 그리고 지방 공업을 관리 지도하는 기관인 도 지방 산업 총국이 새로 조직되였으며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지방 당 기관들의 지도와 통제가 일층 강화되였다.

우리 당이 취한 이 조치의 정당성과 개편된 관리 체계의 우월성은 최근 년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하여 온 경제 건설의 중요 과업들—완충기 과업, 1961년 주요 과업의 하나였던 알곡 100만 톤 증산의 과업을 비롯한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명백히 실증되였다.

방대한 5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우리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다시 한 번 비약을 이룩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기 마련해 놓은 거대한 경제력과 기술의 힘이 경제 건설에서 완전히 발휘되도록 하며 새로운 비약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창설하는 것이였다.

우리 당은 7 개년 계획 수행에 들어서 벽두, 그러한 공간을 대안 체계에서 찾았다.

청산리 방법의 구현인 대안 체계는 전국 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곧 일반화되였다.

농업 부문에서도 농업 위원회, 도 농촌 경리 위원회,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및 협동 농장 관리 위원회로 되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공업 및 농업 부문에 수립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부단히 발전하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상응하게 심화 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대안 체계의 확립으로 하여 전국 공장, 기업소들에 조성된 현실적 조건에 맞게 중앙 관리 기관들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경제 발전의 기본 단위이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인 군에서까지 공업과 농업을 당적 명도' 체계를 통하여 지도케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공업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 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그리고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초한 경제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상과 같이 발전해 온 우리 나라 경제 관리 체계는 조직 원칙 상에서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관리 체계 발전의 전 행정에서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지역적 표식이 옳게 결합시킨 것이다.

관리 기구 조직에서 생산-지역적 원칙은 중앙 집권적 지도와 지방의 창발성, 부문별로 되는 전문적 지도의 심화와 현지에서의 집중적 지도의 보장 등을 옳게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관리 기구 조직에서 생산적 표식과 지역적 표식이 고려되는 정도는 개별적 시기에 해결해야 할 과업과 그의 수행 조건, 기업소 수의 증대와 그의 배치 상태, 지도 일'군들의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부단히 변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적 표식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함으로써만 개별적 시기에 전국적 견지에서 경제 발전을 좌우하는 중심 고리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부문 간 또는 기업소 간의 필요한 균형을 계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부문의 특성에 맞게 세부에 이르기까지 파고 들어 가서 구체적이며 실속 있는 생산 기술적 지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선진적인 관리 체계를 창설하는 당시에 있어서나 그 후 성, 관리국을 분렵 또는 통합하는 전 행정에 있어서 생산적 표식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지역적 원칙을 계속 견지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현존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 주권의 부문적 집행 기관으로서 중앙 공업을 지도하는 중앙 관리 기관들인 공업 관계 성 또는 공업 위원회와 총국들이 생산적 표식에 따라 일정한 부문만을 담당 지도하도록 조직되여 있으며 그 내부에는 주로 생산적 표식에 따라 더욱더 전문화되여 동종 부문 기업소만을 담당 지도하는 생산 관리국들이 조직되여 있다. 생산 활동이 지역별로 특성이 있거나, 생산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여 있거나 또는 제품의 특성이 지역별로 다른, 중앙 공업 부문에서만 지역별 표식을 고려한 관리국들이 조직되여 있다. 그리고 지방 공업에서는 해당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하여 해당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체의 사명과 관련하여 경공업 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지역적 표식에 따라 각 도별 지방 산업 총국과 도내의 지구별 지방 공업 경영국들이 조직되여 있다.

이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생산—지역적 원

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합리적인 형태로 된다.

만약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며 또 실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 분권화》《원칙》에 의하여 경제 관리를 조직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 경제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적 지도를 실현할 수 없게 하며 또한 불가피하게 생산 자원과 기술 력량을 분산시키고 기업소들 간의 경제적 련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은 결국 경제 발전에서 자연 발생성을 낳게 하며 국가 경제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

우리 나라에 확립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중앙 집권화된 경제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의 이 특성은 더욱더 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에 대한 지도에서 통일적, 중앙 집권적 장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당은 대안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현대적 공업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 지도를 실시하는 데서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대안 체계에서는 생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가 확립되였고 기사장의 지도 하에 생산과 기술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참모 체계가 수립되였으며 정연한 생산 보장 체계가 도입되고 그리고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방법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대안 체계에서는 기업소가 하나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 체계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였다.

경제 관리에 대한 중앙 집권적, 통일적 지도는 기업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소와 생산 관리국, 관리국과 성 사이에서도 강화되였다.

이것은 인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데 대한 사회주의적 경리 운영의 기본 요구가 공업 부문에 확립된 관리 체계에서 빛나게 실현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 체계에서 구현된 중앙 집권제적 지도 원칙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의하여 농촌 경리 지도 분야에서도 훌륭히 실현되고 있다.

새 형태의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술 력량과 기술 수단을 직접 장악하고 군내 협동 농장들의 모든 생산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도하게 되였다.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군내 협동 농장들에 월 작업 계획을 시달하고 있으며 협동 농장들의 재정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로력 관리 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는 농업에 대한 지도의 중심이 군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은 하나의 큰 농업 기업체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당은 최근 기계 공업성을 개편하여 새로 기계 공업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것은 기계 공업에 대한 관리

운영에서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종래 비기계 공업 성 산하에 있던 기계 공장, 기업소들이 일체 기계 공업 위원회에 이관되게 되여 그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게 되였기 때문이며 또 모든 기계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기계 공업 위원회의 지도가 강화되고 생산의 전문화가 급속히 심화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 지방 산업 총국, 지방 공업 지구 경영국 체계의 정비 강화는 지방 공업 관리 운영에서 역시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케 하였다.

그것은, 지방 공업 기업소들이 내각에 직속하는 전문적인 경제 관계 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놓여 있다는 데서, 그리고 지방 공업에 대한 경공업 위원회의 행정 기술적 지도와 통제가 일층 개선 강화된 데서 표현된다.

특히 최근 경공업 위원회 내에 경공업 총국이 설치되였고 경공업 위원회가 각 도 지방 산업 총국들을 책임지고 지도하게 됨으로써 중앙 경공업과 지방 공업에 대한 중앙으로부터의 통일적인 지도가 강화되였다.

이 모든 것은 공업, 농업 할 것 없이 또 중앙 공업, 지방 공업 할 것 없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경제 관리에 대한 중앙 집권적 지도가 강화되였으며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신속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에서 경제 지도에 대한 가일층의 중앙 집권화는 관리의 모든 고리들에서, 공업 농업에 대한 관리, 중앙 기관 및 기업소 관리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광범한 발양과 밀접히 결부되였다.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운영에 대중을 인입하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들이 있으며 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안 체계 이전에 있어서는 주로 생산 협의회, 증산 경쟁 운동의 형태를 통하여 대중이 기업 관리에 참가했고 그 기회에 한하여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이 높이 발양될 수 있었다.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이와 같은 참가는 많은 경우 일면성을 벗어 나지 못하였다.

대안 체계에서는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가가 전민적인 것으로, 항구적인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안 체계에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협의체를 통하여 생산자 대중이 기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와 그 결정에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당 위원회의 령도 하에 생산자들이 계획화, 로동 행정, 원 단위 제정, 기술 관리, 제품 검사, 로임 분배 등 기업 관리의 전 부문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대안 체계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단순한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일 뿐만 아

나라 생산의 관리자로, 생산의 통제자로 되였다.

이것은 대안 체계가 기업 관리에 대중을 전면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관리 형태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농업 생산에서의 농민들의 창발성과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고 있다.

새로운 지도 체계에서 농업 생산은 농장 자체의 생산 수단과 국가 소유의 생산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 생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장 자체로 남아 있다.

이것은 기업적 방법에 의한 국가로부터의 직접적 지도 밑에서 농업 생산이 진행되게 된 새로운 조건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책들이다.

경영 위원회는 농장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현존 협동 농장 제도를 철저히 존중하며, 농민들의 리해 관계에 대한 사소한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는 또한 도 농촌 경리 위원회가 종래에 농업성이 행사하던 기능과 권한을 넘겨 받고 도내 농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게 되였다.

이것은 농업 생산에서 대중적 발기, 지방적 창발성을 고도로 높일 수 있게 하며 자연 경제적 조건이 각이한 각 지방의 지대적 특성에 맞게 농업을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년간 중앙 공업에 대한 지방 당 기관들의 당적 지도와 통제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일부 관리국들의 생산 현장에로의 이동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중앙 공업 관리에서 지방적 창발성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양을 가져 왔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 공업 관리 운영에서 지방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58년 8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가 있은 이후 지방 공업 관리에 대한 지방 기관들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 강화되였고 적지 않은 기업소들이 중앙으로부터 도 지방 산업 총국 산하에 이관되였으며 지방 공업의 관리 간부 대렬과 기술 력량이 보충 강화되였다.

이것은 지방 공업 관리에서 지방적 창발성을 고도로 높이게 하였으며 지방 공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촉진하였다.

우리 나라에 확립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경제 관리에 대한 당적 령도와 행정 기술적 지도의 결합에 확고히 기초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안 체계에서 공장 당 위원회는 공장을 관리 운영하는 최고 지도 기관이며 생산에 대하여 제일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대안 체계에서 당 위원회가 공장을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키잡이의 역할

을 제고하는 형식을 통하여 기업 관리에 대한 당적 령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관리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과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극복하고 대중을 발동할 수 있으며 당적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경제 관리에서 분산성과 기관본위주의를 방지하고 레닌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철저히 실현할 수 있다.

《기업 자치》니, 《로동자 쏘베트》니 하면서 경제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유고슬라비아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은 경제 지도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리용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의 무정부성과 혼란을 가져 오게 할 것이다.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 관리에서 통일적 집중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제로 되며 또 대중을 경제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케 하는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매개 기업소에서 당 위원회가 최고 지도 기관으로 되게 하고 기업소 관리 운영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방 당 조직들이 해당 지역에서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지방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지방적 예비 동원이 생산 장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됨에 따라 중앙 관리 기관들의 행정 기술적 지도는 생산의 추동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그 제한성을 나타내게 되였다.

지방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지방적 예비를 경제 발전에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기 위하여 행정 기술적 지도에 당적 령도를 안받침함으로써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결합하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는 것이 절실한 요구로 되였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이미 도 지방 산업 총국, 지구 지방 공업 경영국을 창설하고 행정 기술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한편 지방 공업을 비롯한 도내 경제 발전에 대하여 도 당 조직이 책임을 지게 하였고 또 도 농촌 경리 위원회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실시하게 하고 지방 당 조직들이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게 하였다.

특히 최근 당은 경제 관리에서 군당 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경제 관리의 모든 고리에서 당적 지도와 행정 기술적 지도와의 결합의 원칙이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3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에서 경제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된다.

경제 관리 체계의 창설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새로운 경험은 첫째로, 기업소 관리에 대한 당적 령도제를 확립한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기본 요구의 하나인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구체적 형태와 방법을 찾은 그것이다.

세째로, 그것은 기업 관리에 대중을 인입하며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창조한 것이다.

네째로, 그것은 경제 관리의 모든 단위들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 주는 사업 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확립한 것이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한편에 있어서는 지난 시기 경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적한 경험을 집대성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 시기 조성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게 청산리 방법을 구현한 창조물이다.

우리 당은 새로운 관리 체계의 창설을 통하여 기업 관리 형태와 방법을 사회주의 건설의 현 조건에 부합되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고리들의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 원칙에서 관리 지도 체계를 정연하게 재편성하였다.

경제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령도제의 실시,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사회주의 경리 운영 문제를 리론 실천적으로 완성하는 면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된다.

그러면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 전면적으로 확립된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우월성은 어디 있는가.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가장 중요한 우월성은 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지도가 보장되게 되였다는 데 있다.

새 체계에서 과학적인 지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관리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제가 강화된 결과에 보장되였다.

사회주의 경제는 엄격한 타산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인민 경제의 합리적인 균형도, 생산의 부단한 장성도 보장할 수 없고 많은 자재, 로력, 자금을 랑비하게 된다.

특히 인민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부문 간, 공정 간 련계가 전례 없이 복잡하게 된 오늘의 조건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새로운 관리 체계에서는 집체적 령도제가 보장됨으로써 경리 운영을 타산하는 이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였다.

새 체계에서 과학적인 지도가 보장되게 된 것은 또한 관리 체계와 관리 방법들이 우로부터 아래로 내려 가는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된 결과이다.

공업, 농업할 것 없이 오늘 모든 부문에서 생산 과정은 곧 기술 공정이며 생산의 발전에 따라 복잡한 수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해결을 기다리게 된다.

이것은 일'군들로 하여금 지도 사업에서 아래에 내려 가 도와 주는 청산리 방

법을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그 자체가 아래에 내려 가는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였기 때문에 이 절실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계는 생산 지도 기능과 기술 지도 기능을 통일시키고 있는 만큼 지도 사업에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층 제고되였다.

또한 대안 체계에서는 공업 관리의 모든 단위 특히 공장적 단위에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서는 군 단위로 생산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공업 및 농업 지도 체계의 창설이 생산 단위에 대해서 보다 치밀한 타산과 높은 기술에 기초한 산 과학적인 지도를 주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는 경제 관계에서, 도덕 의식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하였다.

일정한 생산력 발전 수준을 전제로 하여 창설된 새로운 관리 체계는 생산 관계에 작용하여 그의 낡아진 개별적 측면들을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하였다.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창설로 인하여 공업 부문의 생산 관계에서는 주로 생산자들 간의 분공 관계, 생산 경영 상 관계에서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에서와 생산자들 간의 활동 교환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나게 되였다.

또한 새로운 관리 체계는 공산주의적 기업 관리의 요소를 풍부히 내포하고 있는 자체의 본질과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자체의 특성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도덕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변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는 자기들이 생산 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일층 높아 가고 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어 혁명 과업을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강화되고 있다.

확립된 관리 체계의 우월성과 토대의 개별적 측면 및 상부 구조의 일부 요소들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가 거대한 힘과 생활력을 낳게 하는 원천으로 된다.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의 우월성을 대중이 인식하게 되고 그 체제 하에서의 생활에 그들이 익숙하게 됨에 따라 생산력 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관리 체계는 더욱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새로운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오늘 도처에서 기술 혁신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시기 주되는 혁명 과업의 하나로 되는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제고를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관리 체계의 위력은 6개고지 점령과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생산력 장성에서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

전 정 희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지금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혁명은 모든 나라들에서 수행하게 되는 하나의 력사적 과정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과거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락후한 농업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업으로 제기된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산업 혁명이 수행되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 나라는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하여 오래 동안 매우 침체하고 락후한 농업 국가로 남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기술 혁명을 하여야 한다.》(김 일성, 《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오랜 봉건 통치와 일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 력사적으로 조성된 나라의 기술 경제적 락후성을 퇴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우리 당은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기술 혁명에 앞서 경제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수행하고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 중공업의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그 관철에로 인민의 혁명적 열성과 창발성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이 과업 수행에서 이미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자기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우리 당의 세련된 혁명적 령도의 또 하나의 뚜렷한 표현이다.

1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체를 확립하고 자력 갱생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철저히 복무시키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의 이 방침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을 통하여 생산의 기술적 장비 수준을 높이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새 부문을 창설하고 부문 내부 구조를 개선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조성함으로써 재생산의 순조로운 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새 기술을 도입하는 과업까지 실현케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하 우리 나라 공업은 원료 반제품 생산에만 치우쳤고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은 간단한 부속품조차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 하였으며 농업도 매우 락후하였다. 인민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손로동과 중세기적인 생산 방법에 의거하였으며 혹 생산이 현대화되여 있다고 하는 부문에서조차 대체로 기계 기술이 도입된 것은 극히 부분적인 공정들에 불과하였다. 현대적 공업 생산이 요구하는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도 가지고 있지 못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 인민 경제가 기술적으로 매우 락후하였던 사정에 주로 기인한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 경제의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지 않고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로대를 튼튼히 할 수도 없으며 우리 나라를 선진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도 없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29~430 페지)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을 추진시켜 새 부문의 창설과 부문 내부 구조의 개선 및 원료 기지 조성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 공정과 기계 동력에 기초한 새로운 로동 수단의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였다.

당이 기술 혁명의 내용을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전기화, 화학화로, 농업 부문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였다.

기술 혁명이 이러한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분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 부문들을 부단히 창설하여 경제의 다방면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인민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여 그 기술적 로대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나라의 자연 부원을 전면적으로 개발하고 새 원재료의 창조 및 그 합리적 리용을 촉진하여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창설할 수 있었다.

당은 이와 같이 기술 혁명 내용을 자립 경제 건설에 부합되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리 나라의 자연 및 원료 조건에 맞게 실현하며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은 찾아 내고 만들어 냄으로써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재, 원료, 연료, 동력 및 기계 설비들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기술 혁명의 구체적 실천 방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기술 혁명을 자립 경제 건설에 복무시킬 데 대한 요구와 경제 발전 수준, 내부 예비 등을 중요하게 타산하였다.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소여 경제 발전수준 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며 기술 발전의 경제적 효과성을 훨씬 높이고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하루 빨리 해방하는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로,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에로 이행하는 점차적 방법을 견지하였으며, 수단과 자금을 동원함에 있어서는 현대적

기술 수단과 재래식 기술 수단을 배합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기술 혁명을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도상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기술 혁명 수행에서 그 발전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 중심 과업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술 혁명의 첫 시기에 현대적 기술 수단이 부족하고 기술 간부가 많지 못하였으며 기술 경험이 어렸던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기술 혁명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다.

당은 기술 혁명 발전 단계를 두 단계로 설정하고 매 단계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과 기술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방향에서 기술 혁명의 인민 경제 부문별 방향과 그의 내용별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서 우리 앞에 제기된 중요 과업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것이 곧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당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로 되며 기술 발전의 지탱점으로 되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앞으로 전면적 기술 혁명 전개의 기초로 될 기본 공정들에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최단 기간 내에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와 기술 혁명의 강력한 거점으로 되는 중공업, 특히 그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를 창설 강화하였으며 많은 기술적 경험을 축성하였다.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서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방침은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의 축성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금후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였다.

《만일 우리 당이 경제 건설에서 정확한 로선을 세우지 않고 자립적 중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지 않았더라면, 만일 우리 당이 그처럼 막대한 정력을 기울여 기계 제작 공업의 기지를 창설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전면적 기술 혁명이란 말조차도 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김 일성,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현대 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은 그 본질에 있어서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방면적인 강력한 중공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을 가지지 못하거나 제한된 몇개 중공업 부문만 가지고서는 기술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으며 더구나 기술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문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기술 발전의 기초인 중공업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락후한 기술 경제적

처지에서 영원히 벗어 날 수 없으며 따라서 현대 사회가 달성한 과학 기술의 성과를 향유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를 주동적으로 도입하면서 전면적 기술 혁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된 이것이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당은 기술 혁명의 첫 단계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 둘째 단계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기본 공정들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과 모든 공정들에서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당은 기술 혁명의 내용별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주는 효과, 그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 기술 발전에서 그가 노는 역할 등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공업 부문의 기계화, 자동화와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기술 혁명의 기본 고리로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기술 혁명의 첫 단계에 공업 부문에서는 기계화에 력량을 집중하고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이에 전기화를 따라 세우고 화학화를 위한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는 수리화에 력량을 집중하고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기계화를 부분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면적 기술 혁명 단계에 들어 서면서 공업 부문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공정들에서 기계화를 완성하고 자동화를 광범히 실시하며 전기화를 강력히 추진시키고 화학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며 농업 부문에서는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기계화를 완성하며 화학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술 혁명 수행에서 군중 로선의 관철—이것은 인민의 힘과 혁명적 열의를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우리 당의 기술 발전 정책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당은 기술 혁명 수행에 있어서 그 규모의 방대성과 급속한 속도로부터 출발하여 처음부터 전 군중적 운동으로 그것을 촉진시켰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기술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려면 사람들의 대중적 지혜와 창발성이 요구된다.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 실시해도 좋다면 적은 힘을 동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장구한 시일이 걸린 일을 불과 몇 해 동안에 실현하려고 하는 만큼 전체 근로 대중의 창조적 힘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 혁명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저애하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생산자들 호상간, 로동자와 기술자, 과학자 간, 기

업소 및 부문 호상간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군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이에 의거하여 이 운동을 조직화하고 계획화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 수행에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로 된 것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였다. 이를 타개하지 않고는 기술 혁명에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동원할 수 없었으며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당은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과 군중의 대담한 발기를 지지하여 실생활에 구현하는 적극적 실천 활동을 밀접히 결부함으로써 보수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완전히 타파하였다. 이것은 기술 혁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확고한 사상적 지반으로 되였다.

대중의 열성과 창조성은 높은 문화 기술 수준과 결합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중의 문화 기술 수준을 제고함이 없이는 기술 혁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수 없다.

당은 모든 근로자들이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일반 지식과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데 대한 기본 구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문화 혁명을 기술 혁명과 병행하여 추진시켰다. 이것은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수 있는 대중 자신의 주체적 능력의 소유를 최대한으로 촉진하였다.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사상적 지반의 강화,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합리적 형태와 결합될 때 강력한 물질적 힘으로 나타난다.

우리 당은 기술 혁신 운동을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련결시키고 기술 발전을 위한 투쟁을 그의 중요 내용으로 되게 하였다.

이것은 기술 혁신과 생산 활동 및 근로자들의 교양 개조 사업을 결합시켜 기술 발전에 대한 생산의 적극적 반작용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적 협조의 기풍을 발양시킴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투쟁에서 자신도 개조하면서 생산과 기술 발전을 급속히 추진시킬 수 있게 한 가장 합리적인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 형태이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이 강력히 전개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일정한 기술적 경험을 축적하였고 그들의 문화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기술적 지도 력량과 작업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다.

당은 이러한 조건에 의거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 하에서 기술 발전을 작업반 단위로 계획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에로 발전시키였다. 이것은 기술을 결합된 생산자 집단에 의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요구를 보다 철저히 관철시킨 것으로서 기술

혁명 수행에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력을 더 잘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은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서로 돕고 서로 배우며 경험과 과학이 진정으로 결합되여야만 기술 혁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김 일성,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는 데로부터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당은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과 로동자들의 경험에서 새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배격하는 한편 기술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지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로동자들과 기술자들간의 창조적 협조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켰다.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은 기업소 및 부문 호상 간의 협조를 강화 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환절이 호상 긴밀히 련결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한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은 다른 부문에서의 기술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대적 기술 혁신 운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추진시켜 기업소 및 부문 간 기술 발전에서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소 간의 호상 협조를 밀접히 하고 전 국가적 립장에서 온갖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게 하였다.

2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이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기술 발전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과거 산업 혁명이 제기한 순수한 기계 혁명 과업의 범위를 벗어 나서 현대 과학 기술 혁명의 과업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과거 산업 혁명을 수행하지 못한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제기된 것 만큼 주로 기계 혁명을 그 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혁명이 새로운 력사적 조건 하에서 즉 현대 과학 기술 발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까닭에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가 광범히 도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기술 혁명은 그의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여 진행되고 있다.

즉 기술 수단의 도입과 제작에서는 간단한 도구의 생산으로부터 현대적인 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8 메터 타닝, 3천 톤 프레스, 자동차, 뜨락또르, 전기 기관차의 생산 등 최신 기계 설비의 제작과 도입에로 직접 이행하였다. 기술 공정의 개선도 개별적 공정의 부분적 개선으로부터 전반적 공정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

괄하면서 개별적 공정 및 수개 공정의 개선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전반적 공정의 ,개선에로 이행하고 있다. 기술 혁명의 중요 내용인 기계화 및 자동화는 반기계화와 종합적 기계화, 부분적 자동화와 완전 자동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일련의 기업소들에서는 손로동에 의한 생산 공정으로부터 직접 자동화에 의한 생산 공정에로 이행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 과학 기술 혁명의 중요 내용들로 되고 있는 자동공학, 전자 공학이 인민 경제에 도입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현대 기술 발전에 의하여 주어진 가능성들이 최대한으로 리용됨으로써 기술 수준이 낮은 생산 과정은 보다 높은 수준에로 제고되고 있으며 나아가서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기술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술 혁명의 빠른 속도—이것은 우리 나라 기술 혁명 수행 과정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술 혁명 수행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기술 혁명의 높은 속도는 현대적인 대규모 기업소 건설, 새로운 기술 수단의 창조 및 도입, 기술 혁명 내용의 실현 속도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

최근 5~6 년간에만 하여도 황해 제철소, 흥남 비료 공장, 희천 공작 기계 공장, 덕천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1,500 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적 기술 토대 우에서 복구 신설되였으며 세계 1 등급의 비날론 공장은 불과 1 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되였다. 각종 기술 수단의 도입은 3 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5 개년 계획 기간에 2 배 이상으로 급격히 장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운 종류의 기술 수단의 도입이 보다 급속히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의 강력한 전개에 기초하여 부속품 생산으로부터 기계 생산에로, 중 소 기계 생산으로부터 대형 및 특수 기계 생산에로의 이행이 전후 불과 수년 동안에 진행되였다. 이것은 기계 기술 발전 속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을 수십 배로 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 및 합리화 건수는 공업 부문에서만도 1956년에 비하여 1960년에는 3 배 이상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일련의 힘든 작업들에서 기계화된 로동에 참가하는 로동자의 비중은 1957년에 비하여 1962년에 20~30% 더 제고되였다. 기술 발전의 이러한 속도는 기술 혁명이 심화될수록 더욱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천리마적 속도를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지난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무런 토대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현대적 기술을 마음 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우선적으로 장성함으로써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은 1954~1962 년간에 22 배로 장성하였으며 각종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1962년에 92%에 달하였다.

강력한 기계 제작 공업에 기초하여 전력 공업, 야금 공업,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새로운 부문이 창설됨으로써 자체의 기술, 원료, 동력 자원에 기초하여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인민 경제에서 기계화 및 자동화, 전기화가 급속히 추진된 결과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다.

특히 인민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에 기술 수단과 기술 력량이 집중됨으로써 이 부문에서 기계화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오늘 공업 부문에서 힘 들고 품이 많이 드는 일련의 중요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60~90%에 달하고 있다. 채취 공업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작업들이 기계의 적용에로, 가공 공업 부문에서는 많은 작업들이 기계 체계 도입에로 이행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대규모 중앙 공업에서는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이 부문들에서 자동화가 광범히 도입되고 있다. 특히 기계 제작, 전력 및 화학 공업을 비롯한 가공 공업 부문들의 일련의 기업소들은 완전히 자동화되였다.

과거 원시적인 농기구와 중세기적 생산 방법이 지배하던 농업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루어졌다.

농촌 경리의 수리화와 전기화가 본격적으로 착수된지 불과 2~3 년간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농업 기계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62년에 총 경지 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은 1956년에 비하여 약 3.5 배로 장성하였으며 인민의 중요 농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비상히 높아졌다.

1961 년말 현재 동력 및 축력에 의한 기경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95.7%, 탈곡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81.2%, 수송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85.7%로 각각 제고되였다.

건설 부문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수로 손로동과 등'짐에 의거하던 건설 작업들이 대대적으로 공업화되고 기계화되였다. 1960년에 조립식 건설의 비중은 산업 건설에서 20% 이상, 주택 건설에서는 약 60%에 달하였으며 중요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로공 작업에서 53%, 적재 적하 작업에서 47.2%, 수직 운반 작업에서 86.2%, 콩크리트 혼합 작업에서 69.6%로 제고되였다.

기계화와 함께 칠콕쓰에 의한 제철법, 구단광에 의한 선철 생산법, 비날론과 염화 비닐의 생산, 석탄 가스화, 갈, 옥수수 및 벼'짚에 의한 인조 섬유의 생산, 벼'종자의 육종과 종자 개량, 산소 취입법, 수력 채탄법 등 선진적 기술 공정이 생산에 광범히 도입되였다.

생산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의 제고와 선진적 생산 방법의 광범한 도입에 의하여 각종 기술 경제적 지표들이 또한 개선되였다.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 주물 직장 생산 면적 평방 메터당 생산량은 2 배 이상, 착암기 대당 탁광량은 170%로, 평로 로지 평방 메터당 1 주야 평균 강철 생산량은 154%로 각각 제고되였다.

인민 경제의 전기화에서도 결정적 전진이 이룩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 부문의 로동자 1 인당 전력 소비 수준은 이미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그것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결과 전체 농촌 리의 92.1%, 농가 호수의 62%에 전기가 들어 갔으며 농촌 기계 동력 구성 중 전동기의 비중은 1960년 초에 약 40%에 달하였다. 탈곡, 사료 절단 및 분쇄 등 일련의 고정 작업들에서 전기 리용은 1961년 말 현재 총 작업량의 80～90% 이상 달하였다.

인민 경제의 전기화 수준은 급격히 제고되였을 뿐만 아니라 전기 리용의 구성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인민 경제의 전력 총 소비량 중 기술 공정용 소비는 1949년에 73%였는데 1960년에는 47.5%로 저하되였으며 이 기간에 동력용 전력 소비는 25%로부터 49%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것은 기술 공정용 전력 소비에 편중되였던 전력 소비 구조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기화를 현대 전기 리용의 방향에서 더욱 급속히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비상히 강화된 결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부단히 장성되고 생산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작업에서 손로동의 비중이 축감되고 기계로 작업하는 새로운 직종이 출현함에 따라 로동자, 농민의 직종 구성에서 역시 근본적 변화가 일어 났으며 그들의 로동을 경감시키고 로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은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 간의 본질적 차이의 소멸 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기술 혁명 특히 화학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각종 화학 제품과 화학적 기술 공정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데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달성되였다.

합성 섬유, 합성 수지 공업의 창설로 방직 및 일용품 생산을 비롯한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다.

1962년에 벌써 우리 나라 섬유 원료 중에서 화학 섬유의 비중은 40% 이상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1959년의 세계 화학 섬유의 평균 비률보다 거의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된다. 일용품 생산 원료 중에서 각종 합성 수지를 비롯한 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생산이 물리 화학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공업 부문들에서는 친푹쓰, 무연탄 가스화, 산소 등 각종 화학 제품과 화학적 기술 공정들이 광범히 도입되여 생산을 집약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없거나 부족되는 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경리에서 화학화도 급속히 진행되였다. 1949년에 비하여 1961년에 화학 비료 시비량은 약 2 배로 장성하였으며 각종 농약들의 공급량도 현저히 장성하였다.

이 모든 것은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고 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계획인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켜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최신 과학 기술의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 공업 부문에서 기계화를 실현하고 자동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점차 보조적인 작업 행정 까지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자동화에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 부문에서는 지대적 조건에 맞게 각종 농기계들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화학화를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 기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승리적으로 완성할 것이다.

현대성과 우리 문학의 성과

천 세 봉

지난 기간 우리 문학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참으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문학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문학 예술에 대한 당의 정확한 지도와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당은 력사적 변천의 매 단계에서 우리 문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확고한 기치밑에 당성과 인민성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

오직 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문학은 자기 발전의 매 단계에서 형식주의, 자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문예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우리 문학의 특징은 그 전 과정이 현대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데 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게—이런 중요한 사상이 해방 후 당의 문예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에 옳게 관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성과는 현대성의 구현에서 이룩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성—이것은 작가에 의한 현실의 적극적 탐구이며 생활적 본질의 진실한 반영이다. 현대성의 개념은 광범하며 그것은 인민성과 긴밀히 결합되여 있다. 왜냐 하면 바로 인민성의 개념 속에는 작가에 의한 거대한 사회적 문제의 제기와 인민적 리해 관계에 상응하는 그 문제의 해결 그리고 작품에 대한 광범한 독자 대중의 리해성이 포괄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민족 문화와 예술을 지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인민성, 현대성의 견지에서 출발하였다.

해방 후 초기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인민의 결정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문화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문학 예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된다. 이 연설에는 문학의 인민성, 현대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여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대중 속에 들어 가서, 대중을 찾아 가서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쓰며 대중의 요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모든 작가, 예술인들에게 교시하였다.

이 교시는 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문학이 인민성의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며 무엇을 어떤 내용으

로 창작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실로 해방 후 우리 문학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 있어서 싸우는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반영함으로써 우리 혁명에서 《강력하고도 예리한 투쟁 무기》로 또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게 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 문학에서 생생한 현대성으로 일관된 주제는 우선 새 사회 건설에 궐기한 우리 인민의 앙양된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 개혁들이 실시되고 낡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사회 생활에서 제거되여 갔다.

이 중요한 사변들이 우리 문학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일어 나는 우렁찬 삶의 노래는 작가들의 심장을 격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현실적 주제가 우리 문학 발전을 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 리 기영은 장편 소설 《땅》에서 로동당의 혜택으로 일생 처음 토지를 분여 받은 조선 농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 주었다.

소설의 주인공 곽 바위는 우리 문학에서의 새로운 인간이다. 그는 토지를 분여 받음으로써 자기 땅의 주인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다.

작가는 곽 바위의 형상을 통해서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간의 창조적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 주었다.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창조적 로동을 찬양한 작품들로는 리 북명의 단편 《로동 일가》, 박 웅걸의 단편 《류산》, 황 건의 단편 《탄맥》, 송 영의 희곡 《자매》 기타 수 많은 서정시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을 특징 짓는 것은 평화적 건설 시기 우리 로동 계급의 헌신적 생산 투쟁이며 로동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태도이다.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자— 바로 이 사상이 이 시기 문학 작품들 속에 격류처럼 흐르고 있다.

로동의 주제— 이것은 평화적 건설 시기의 우리 문학에서 가장 중심적이며 중요한 주제이다.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인민의 물질적 부를 창조하는 새로운 로동을 찬양하면서 이데까지나 그 로동 과정에 의하여 변천되는 인간 그리고 그 창조적 로동으로 말미암아 발전되고 형성되는 인간의 정신적 미를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적 요구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문예 로선에 정확히 립각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의 긴절한 사회적 문제를 대담하게 취급하며 새로운 인간들을 탐구하고 시대의 전형적인 사변들과 주인공들의 생활을 통해서 인민들을 로동과 투쟁에로 고무하였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의 현대성이 있으며 그의 당성과 인민성이 있는 것이

다.

평화적 건설 시기의 문학이 현대성 구현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의 하나로서 조 기천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서사시는 해방 후 우리 시 문학 발전을 위하여 혁신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특히 이 작품의 주제적 새신성과 관련된다.

서사시의 작자는 조선 인민의 수령 김 일성 동지와 그의 전사들을 다함 없는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노래하였다.

우리 인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15 개 성상을 백두 밀림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전설적 항일 빨찌산들을 우리 문학에 반영한다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현대성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도 성과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문학의 전투적인 힘은 미제 침략자들을 격퇴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더욱 뚜렷이 발양되였다.

로동당에 의하여 훈련되고 육성된 우리 작가들은 한 손에 펜을 들고 다른 손에 총을 들고 화선으로 달려 갔으며 인민군 전사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영웅적 위훈을 노래하였다.

고지의 용사들에게 애국적 위훈을 고무함에 있어서 또한 미제 원수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의 감정을 배양함에 있어서 우리 시인들의 목소리와 우리 작가들의 단편 소설들이 얼마나 위력하였던가! 전사들은 우리 시인들의 노래에 고무되면서 돌격전으로 나아갔으며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진호에서 잠시 휴식하는 짬에도 예리하고 전투적인 단편 소설들을 열독하였다.

우리 문학은 문'자 그대로 전투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복무에 대해서 높은 긍지와 영예를 느끼고 있었다.

전쟁 기간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일련의 교시들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앙양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1951년 6월 30일 작가, 예술인들과의 담화에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문학의 전투적 사명에 대하여, 작가들의 세계관과 창작적 기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교시를 하였다.

특히 이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조해서 인민을 승리에로 고무 추동하는 것은 그들의 고상한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전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집단적 영웅주의, 애국주의를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인민의 생활을 잘 알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 교시를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창작을 진행하였다.

박 웅걸의 단편 《상급 전화수》, 황 건의 단편 《불타는 섬》, 윤 세중의 단편 《구대원과 신대원》 등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작가들은 인민 군대의 강철 같은 투지와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을 힘 있게 반영하였다.

이 시기 우리 시 문학이 발휘한 위력

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실로 시 문학은 전투적인 시 문학이였다. 우리의 서정시들은 주제의 절박성(현대성)과 강한 전투성으로 해서 언제나 전사들의 변함 없는 길'동무였다.

박 세영과 안 룡만, 조 기천과 김 우철 기타 많은 시인들의 목소리는 싸우는 우리 인민과 함께 있었으며 인민을 새로운 전투와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전쟁 시기에 우리의 극 문학은 일련의 의의 있는 영웅적 성격들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적 정신을 반영하였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사람들을 교양하였다.

우리의 희곡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행기 사냥'군조원들이였으며 전투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전투 영웅들이였다. 우리의 극 작가들은 전쟁 시기에 전투적인 단막극들을 많이 썼으며 이 작품들은 역시 사건들의 똑똑성과 현실성으로 해서 쉽게 상연될 수 있었다.

위대한 사변, 위대한 시대는 우리 문학에 격동적인 현대적 주제들을 가져왔으며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영웅적 조선 인민의 풍부한 정신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할 수 있는 창작적 가능성을 주었다. 가렬한 전쟁 시기에 종군 작가로 활약한 우리의 수 많은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김 일성 동지가 1951년 6월 30일 교시에서 말씀한 대로 원쑤와의 투쟁에서 리용할 《가장 강력하고도 예리한 무기》로 되였다.

우리 작가들에 의해서 씌여진 소설들과 시들, 정론, 오체르크들은 그 훌륭한 사실주의적 화폭들로써 우리 인민의 투지와 기개, 그의 애국주의적 사상을 옳게 반영하였으며 전시 조선 인민의 영웅적 모습을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유감 없이 전달하였다.

여기에 우리 문학의 현대적 의의가 있으며 거대한 공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문학은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사상 예술적으로 더욱 단련되였으며 세련되였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이 어려운 전후 복구 건설에 착수하였을 때 우리 작가들은 곧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전후 우리 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새로운 력사적 환경을 분석하고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6 차 전원 회의이며 이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1953년 9월에 소집되였던 전국 작가, 예술인 대회이다.

대회 결정에는 작가들이 창작을 통해서 경제 건설에 궐기한 전체 인민들을 고무하며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배양해 주며 특히는 로동 계급의 전형적 주인공들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여 있다.

당의 전투적인 호소를 받들고 우리의 작가, 시인들도 건설장으로 달려 나갔으며 어제'날의 고지의 용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건설자들의 로력 투쟁을 형상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우리 근로자들을 창조적 로동의 정신으로 고무하고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제 1 차 5 개년 계획 시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작가들은 근로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일반화하며 로동 계급의

전형을 심오하게 형상한 보다 대규모적인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윤 세중의 장편 소설 《시련 속에서》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저자는 로동 계급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을 묘사하였다.

《시련 속에서》의 주인공 림 태운은 갖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생산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며 그것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 당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 주인공으로 하여금 강한 의지와 의의 있는 성격의 소유자로 되게 하고 있다.

윤 세중의 이 소설은 주제의 현대성에 있어서나 예술적 의의로 보나 우리 문학에서 로동 계급을 취급한 우수한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전후 사회주의 농촌을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로는 신 고송의 희곡 《우리 마을》, 《선구자》, 리 용악의 서정 시편 《평남 관개 시초》 등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전후 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위대한 변혁의 력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쟁 직후의 어려운 환경에서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농업 협동화 운동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들이다.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축적된 생활 체험과 자료들에 기초해서 현대적 주제를 대담하게 일반화하는 작품들을 쓰는 한편 주제의 령역을 넓혀 우리 인민들의 과거 생활을 반영한 대형식의 작품들도 수다히 창작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어느 것이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방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일관해서 현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박 웅걸의 장편 《조국》, 황 건의 장편 《개마 고원》, 석 윤기의 중편 《전사들》, 신 상호의 서사시 《현대의 기수》 등이 그러한 작품에 속한다. 이 작품들은 우리 인민이 원쑤를 타승한 영웅적 위훈을 보다 큰 화폭을 통하여 보여 줌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원쑤에 대한 증오심을 북돋게 하며 그들을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리 기영의 장편 《두만강》 1,2,3 부, 최 명익의 장편 《서산 대사》, 조 령출의 희곡 《리 순신 장군》은 우리 인민의 애국적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다.

장편 《두만강》은 19 세기 말부터 8.15 해방까지의 장구한 기간에 걸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그 1 부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시기의 조선 인민의 투쟁을 생동하게 묘사한 훌륭한 작품이다.

장편 《서산 대사》는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왜적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를 반영한 작품이며 희곡 《리 순신 장군》 역시 임진 조국 전쟁 시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적 명장 리 순신 장군의 력사적 위훈과 인간 풍모를 생동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들은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이라는 맑스-레닌주의의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인민이 가진 높은 애국주의 정신과 그 강대하고 무진장한 힘이 원쑤를 어떻게 타승하고 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후 시기에 우리 문학이 거둔 성과

는 앞에서 지적된 작품들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문학 분야에서도 리 원우의 중편 《기다리던 날》, 강 효순의 중편 《기적 소리》, 리 진화의 중편 《새는 비둘'골에 깃든다》, 김 학연의 서사시 《소년 빨찌산 서 강렴》과 같은 성과작들이 나왔다.

인민 경제의 거대한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 사회주의 건설에 궐기한 근로자들의 미증유의 적극성—이 모든 것이 작가들의 창작을 무한히 고무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인민들의 로동과 행복한 생활을 취급한 수다한 시집들과 단편 소설들, 희곡들과 영화 씨나리오들 그리고 정론들과 실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작품들은 인민들의 의식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 작가들에 의하여 창조된 긍정적 주인공들에게서 우리의 독자들은 자기들의 생활적 리상을 찾으며 모범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 문학은 급속히 장성하는 독자들의 미학적 요구와 당의 기대에 아직 충분히 보답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김 일성 동지는 1960년 11월 27일 작가, 예술인들에게 중요한 교시를 주었다.

이 교시에서 김 일성 동지는 작가들이 천리마 현실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천리마 기수들의 로력적 위훈을 보다 광범하고 심도 있게 묘사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 교시에 고무된 우리 작가들은 천리마 기수들의 생활을 보다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공장과 어촌, 농촌과 탄광으로 찾아 갔으며 그들과 같이 일하며 생활하면서 새로운 작품들을 구상하였다.

김 병훈의 단편 《길'동무들》, 권 정웅의 단편 《백일홍》 등은 천리마 기수들의 로력적 위훈과 그들의 높은 정신 세계를 반영한 작품들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창작된 성과적인 작품들은 극 문학 분야에서 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리 지용의 씨나리오 《분계선 마을에서》와 한 상운의 씨나리오 《갈매기호 청년들》은 영화로 되어 성과리에 상영되였으며 조 백령의 희곡 《붉은 선동원》은 무대에 올라 군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붉은 선동원》은 우리 연극의 현대성 구현에서 거보의 전진이였으며 우리 연극을 국외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으로 되였다. 리 동춘의 희곡 《산울림》은 천리마 현실을 경희극으로 구현하는 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우리 문학 예술의 새로운 앙양과 그의 현대성, 인민성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11월 27일 교시가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이 교시는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천리마의 현실을 계속 심오히 연구하고 우리 시대 인민들의 정신적 미를 더욱 훌륭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27일 교시의 생활력은 우리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 생활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그들이 창작에서 현대성 구현

을 위하여 얼마나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는가 하는 데서 여실히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문학의 힘은 바로 그 현대성의 시종 일관한 구현에 있으며 언제나 자기 독자들의 사상-미학적 수요를 기동성 있게, 더 훌륭하게 해결하려고 열망하는 거기에 있다.

현대성 구현에 대한 우리 문학의 열망은 그 주제의 확장에서 또는 다양한 생활적 주인공들의 탐구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일 투사들의 형상들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형상은 우리 문학에서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 시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와서 혁명 전통의 주제는 광범하게 취급되였다.

근로자들을 혁명 정신으로 부단히 교양하는 데 있어서 또한 그들을 공산주의적 품성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서 혁명 전통 주제의 취급은 우리 문학 앞에 제기된 절실한 과제이다.

이 주제를 취급한 많은 소설들과 서정시들이 나왔다. 특히 박 달 저 《서광》 1,2 부, 박 세영의 서사시 《밀림의 력사》, 송 영의 희곡 《불사조》, 박 명보의 희곡 《해바라기》 1,2 부, 박 혁의 희곡 《조선의 어머니》, 리 종순의 씨나리오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 가자》, 박 승수의 씨나리오 《미래를 사랑하라》 등은 우리 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하게 한 작품들이다.

박 달 저 《서광》 1,2 부는 1930 년대 초부터 조국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장구한 력사적 시기를 포괄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간고한 투쟁 모습을 높은 예술적 화폭으로 보여 준 작품이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령도 예술을 정면으로 볼 수 있으며 그의 지도 밑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의 고매한 정신과 백절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 위훈을 감동 깊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저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개의 인물이 실제 인물이며 1930 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실재한 력사적 사변들을 정면으로 취급함으로써 다른 어느 작품도 따르지 못 하는 독자적인 경지를 보여 주었다. 바로 거기에 이 작품의 특출한 의의가 있다.

시인 박 세영은 《밀림의 력사》에서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현명한 령도와 높은 덕성을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노래 불렀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항일 빨찌산 시기의 위대한 수령의 형상을 감동 깊이 볼 수 있다.

작가 송 영은 희곡 《불사조》에서 주인공 리 두성을 통하여 실로 불사조와도 같이 혁명에 충실한 불요 불굴의 혁명 투사의 형상을 감동 깊이 보여 주었다.

박 명보의 2 부작 《해바라기》의 녀 주인공 김 순실은 적들의 잔인한 고문과 간교한 술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산주의자의 지조를 지키며 자기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들의 머리 속에는 이 백절 불굴의 위대한 공산주의자의 모습이 불멸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

독자들과 관람자들은 항일 투사들의 빛나는 형상들에서 자기 행동과 사고의 직접적인 모범을 보고 있으며 거기에서 자기들의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고무를 받는다. 때문에 우리 당 4차 대회 총결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문학 예술의 과업을 언급하면서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전개한 공산주의 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의 숭고한 혁명 정신으로 우리 세대의 인민을 교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문학 앞에는 계속 우리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의 형상과 함께 항일 투사들의 전형을 더욱 광범하게, 다양하게 창조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실로 우리 문학 발전의 모든 단계는 우리 인민의 력사적 변천과 긴밀히 련결되어 있으며 영웅적 우리 인민의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은 우리 문학의 모든 성과를 달성케 한 거창한 원동력이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내달리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더욱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더욱더 높은 미학적 리상을 가지고 우리 천리마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걸작들을 수많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믿음직한 사상 전사로서 근로자들의 이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영예로운 자기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 제 17 호 (루계 231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9월 5일 인 쇄 • 1963년 9월 3일

ㄱ — 330561 값 40 전

권 영벽 동지의 생애와 활동

판형 4×6 판, 페지 280 페지

이 책에는 조선 인민이 낳은 열렬한 공산주의자이며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사인 권 영벽 동지의 고결한 생애와 그의 혁명적 활동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의 전 편에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혁명 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의 지시라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기어코 수행하고야 마는 혁명 투사 권 영벽 동지의 강의한 투지와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 담겨져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산주의자는 군중을 떠나 잠시도 살 수 없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대중과 함께 고락을 나누며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는 권 영벽 동지의 능란한 군중 공작 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혁명 전통을 학습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8 호

9 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제 18 호 (232)

1963년 9월 (하)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최 용 건

(오래 계속되는 박수)

동지들!

조선 인민이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한 때로부터 15 년이 지나 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걸어 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 행로를 회고하며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투쟁 업적을 무한히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박수)

나는 이 뜻깊은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 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은 오래 동안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말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장구한 기간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자기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숙망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후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북조선에서 낡은 일제 통치 기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인민 주권을 수립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과 봉건 세력을 청산하는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북조선에서 수행된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 속에서 창건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 자신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입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쥔 독립된 민족으로서 세계 무대에 진

출하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기도하여 왔으며 마침내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3 년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독립과 영예를 사수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오늘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더욱더 장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이며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피로써 지켜낸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자기들의 영웅적 로동으로써 건설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공화국의 륭성 발전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공화국을 사수하며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공화국의 국가 사회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세기적인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독립 국가의 튼튼한 경제 토대를 축성하여 놓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함으로써 생산력은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해방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영원히 청산되였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불문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서 세계 선진 국가들의 대렬에 설 수 없습니다.

더우기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해방 후에도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우리 민족의 흥망과 조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하여 우리의 혁명 진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힘 있게 추진시키며 통일되고 독립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공업은 류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공화국 창건 후 15 년 동안에 절반 이상의 시일이 전쟁과 파괴된 경제의 복구 사업에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은 14.5 배나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업은 해방 후 첫 11 년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업 제품을 단 한 해 동안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수)

우리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집중함으로써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부문들을 다 갖춘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국내의 자연 부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중공업은 114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1천 320만 톤의 석탄, 120만 톤 이상의 선철과 립철, 105만 톤의 강철, 78만 톤의 화학 비료, 237만 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962년에 그 생산액은 1948년에 비하여 45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대형 공작 기계,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써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박수)

이리하여 우리는 제 힘으로 생산한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습니다.

수 많은 대규모의 현대적 경공업 공장들과 함께 전국 도처에 2천 여 개의 중 소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습니다.

1962년에 방직 공업은 1948년에 비하여 31 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12 배로, 문화용품 및 일용품 공업은 62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방직 공업은 2억 5천만 메터 이상의 각종 직물을 생산하였습니다.

15 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소비품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

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의 모든 상점들을 국내산 상품으로 채우고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박수)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알곡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을 자급 자족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은 승리한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농기계와 영농 기술을 부단히 도입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였습니다.

1962년에 관개 면적은 1948년에 비하여 6 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2.6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년간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현재 농촌에서의 뜨락또르 대수는 15 마력으로 환산하여 1만 7,500 대에 달하였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현대적 농기계들이 도입되여 농민들의 고되고 힘든 로동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1962년에 알곡 생산은 1948년에 비하여 1.9 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예 작물, 채소, 과실, 축산물 생산도 급속히 증대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장차 알곡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하고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박수)

독립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 경제 토대와 함께 국가와 경제를 능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체의 민족 간부를 가져야 하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며 과학 기술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당과 정부의 거대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와 대학이 대대적으로 증설되였습니다.

각급 학교수는 1948년의 4,240 개로부터 현재는 9,191 개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대학은 11 개로부터 97 개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255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생 수는 2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15 년 동안에 우리는 국내의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24만 명 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간부들의 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진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은 인민 정권하에서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아름답고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 예술로서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였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민족 경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1962년에 국민 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8.7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그들에게 안착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주택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인민들의 주택 조건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10년 간에만도 도시와 농촌에 3천 290만 평방메터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도 해마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대학 및 전문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유급 휴가제와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국가 및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유치원과 탁아소들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제도인 전반적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는 날로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민 보건 사업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1962년에는 해방 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근 절반으로 감소되였으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 년이나 연장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도, 류랑인도, 걸인도 없으며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병치료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이 모든 것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거대한 배려의 뚜렷한 표현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증시하는 것입니다.

새 조국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창조적 로동의 결실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하지 못 할 어떠한 요새도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더욱 훌륭한 미래를 명확히 내다 보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참말로 우리 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전망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이미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이미 축성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제고되었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계속 앙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으로써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고 기계 제작 공업과 화학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우리의 중공업을 전반적으로 더욱 정비하고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중공업은 앞으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훌륭하게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우리 인민은 지금에 와서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특히 금속 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 목재 가공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초물 제품 등 다양한 일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더욱 문명하고 유족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박수)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논 면적을 계속 확장하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알곡을 풍족하게 생산하고 특히 벼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일 것이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울 것입니다. 7 개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공화국은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 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무한히 고무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더욱 높은 열성과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완수할 것이며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와 경제 토대는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는 전

례 없이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화국은 유일한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 립각하고 있으며 위력한 사회주의 공업과 공고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착취 계급도 피착취 계급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토대 우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확고한 정치 도덕적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바로 이와 같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전투적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 국가는 혁명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적대 분자들과 제국주의의 주구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자기의 인민들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우리 당은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기지를 와해시키려는 인민의 원쑤들의 파괴 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도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고도로 발현시키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데 거대한 관심을 돌려 왔습니다.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수립된 결과 모든 사업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군중의 적극성을 발동시키는 우리 당의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습니다.

당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세대의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의 계급적 관점과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는 사상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교양되고 있으며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는 굳게 단합되고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된 하나의 전투 집단으로,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 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이 자기의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시 당하고 억압 당하던 고난의 력사는 영원히 과거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는 근로 인민의 진정한 조국,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한 강유력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류례 없는 번영의 시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파괴할 수 없으며 공화국의 기치 밑에 단결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승리와 영광에 찬 위대한 새 생활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에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공화국 남반부는 치욕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 가장 야수적인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3 년째 극단적인 군사 파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 운동은 전대미문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탈취하였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적 목적에 완전히 예속시켰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식민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괴되였습니다.

더욱더 심각하여지는 원료 및 자금의 부족과 미국 상품의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18 년이 지난 오늘 남조선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농업도 말할 수 없이 황폐되였습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농촌에 투자는 하지 않고 바닥이 나도록 농촌을 긁어 냈습니다.

산림이 황폐되고 관개 시설이 파괴된 결과 남조선 농토의 절반 이상이 복구, 개간하지 않고서는 수확을 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였습니다. 심한 토지의 부족과 가혹한 봉건적 및 식민지적 착취로 인하여 농민 경리는 극도로 령세화되였습니다.

1962년에 남조선의 알곡 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근 30%나 감소되였으며 금년에 농사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부단한 파산과 조업 단축은 이미 오래 전에 수백만에 달한 실업자의 대렬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끝없는 물가의 폭등과 조세 수탈의 강화는 인민 생활을 빈궁의 밑바닥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금 무서운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는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18 년간에 걸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 지배층의 매국 정책은 조국 남반부를 죽음의 땅으로,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수습할 수 없는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며고 테로와 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술책

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민정 이양》으로 남조선 사태가 개변될 것 같이 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민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들은 벌써 10 년 이상 《민정》이 가져다 준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군정》을 《민정》으로 바꾸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며 새 생활과 새 정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 대중의 증오와 항거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외세 의존을 배격하며 자생, 자결과 경제의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사활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 민족의 념원에 부합되는 이 애국적 주장을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지어 현 남조선 《정권》의 일부 당국자들까지도 자립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이 인민 대중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나온 것인지 혹은 민족적 량심에서 우러 나온 것인지 똑똑치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조선 경제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고 있는 이것이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 경제를 예속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을 그대로 두어 두고는 남조선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함으로써만 남조선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말로만 자립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계속 외세에 의탁하며 제국주의의 《원조》를 끌어 들이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사태를 조금도 개변시키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립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 합작을 실천해야 하며 전 민족의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작하고 협력하는 외에 남조선이 재생할 수 있는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남북의 합작과 협조를 실현함으로써 북조선 공업 지대와 남조선 농업 지대 간의 련계를 회복하며 전국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남북조선의 전체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먼저 건설하고 통일한다》느니,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북 간의 어떠한 협조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도리가 없으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전 조선을 침략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남조선이 재생하기 위하여서는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지금부터 남북의 힘을 합치면서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배격하고 전 민족이 힘을 합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도탄에서 구출하는 데 있습니다.

남북이 합작하지 못 할 어떠한 리유도 없습니다. 남북 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는 우리가 민족의 사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적 력량이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단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공산당과 자산 계급의 정당이 합작하여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 력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오늘도 공산당과 다른 정당들이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민족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4월에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김 구 선생을 비롯한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력사적인 남북 련석 회의에 모여 앉아 반미 구국 대책을 세웠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 자산 계급의 대표자들이 외적을 반대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서 투쟁하지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남북 협상의 기회를 조성하며 남북의 합작을 실현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남북이 합작하여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며 남반부 동포들을 사경에서 구원하는 것은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3천만 전 민족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집권자들과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사 숙고하여야 하며 전 민족의 이 절박한 요구를 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 누가 끝끝내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반공》이니, 《승공》이니 하면서 계속 민족의 화목과 단결을 파괴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진창 속에 짓밟으려 한다면 그는 결코 리 승만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을 위하여, 남북의 합작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반미 구국의 기치 밑에 북조선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를 몰아 내지 않고서는 조선 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자기 군대를 계속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가리기 위한 방패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저들의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할 어떠한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야 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사람들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군대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군비를 축소함으로써 남북 조선이 다 같이 민족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무력을 축소하고 남북 합작이 실현되면 남조선은 민족 보위에 필요한 무력을 외국의 군사 원조 없이도 민족 자체의 힘으로 능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합작과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의 체결은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통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민주주의—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원칙입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극동과 아세아에서의 평화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전체 조선 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우리의 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박수)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반동적 매국 세력만이 우리의 이 원칙적인 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온갖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 애국적 자본가 등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단결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미제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일어 서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힘으로도 조선에서 무너져 가는 식민지 제도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전체 애국적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격파되고야 말 것이며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전체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0만 재일 동포들은 공화국의 륭성과 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무한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8만 여 명에 달하는 재일 동포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에 돌아 와 행복한 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박수)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은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은 일본 각계의 민주 단체들과 진보적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 공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하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지체 없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렁찬 박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은 재일 동포들의 침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동포들의 이 정당한 요구는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버리고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전례 없이 공고화되였으며 전반적 국제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유리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 밑에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극동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자기들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제는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장 개석 도당을 사촉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책동을 끊임 없이 감행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발광적인 반중국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네루 정부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사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부 월남에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 또다시 국내 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며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가장 흉악한 원쑤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을 연막으로 하여 핵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광적으로 자기의 동맹국들에 핵 무기를 전파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핵 무력의 우세를 확보할 데 대하여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제국주의 력량과 평화 애호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결속시켜 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음모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우리의 국방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미제의 침략 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을 달성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더욱더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국주의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의무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견정적으로 반대하며 모든 식민지 및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느끼고

딘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과 조국 통일을 위한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 반동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 통일과 평화와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며 영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음모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합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와 국내 독점 자본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꾸바 인민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우렁찬 박수)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 대외 정책의 확고 부동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명확히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동지적인 호상 지지와 호상 원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하거나 또는 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이러저러한 형제 나라를 고립시키고 우리 진영에서 떼여내려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지 행동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국가들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우리 진영의 통일은 수호될 수 있으며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복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파괴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며 우호적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시종 일관한 방침입니다.

지난 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기니아, 말리, 알제리아, 아랍 련합 공화국, 예멘 아랍 공화국, 우간다 등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르마, 캄보쟈, 쎄일론, 이라크, 소말리, 우루과이 등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우리 나라의 경제 문화적 협조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와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박수)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박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동지들!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 밑에 지난 15 년 동안 영광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 왔으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독립되고 힘있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되였으며 날로 더욱 번영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유와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구현하였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강력한 성새로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의 담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가로 막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고조를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당면한 혁명 과업을 토의하고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 앞에 중요한 력사적 과업이 제기될 때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전체 당원들을 궐기시키고 군중을 발동함으로써 그것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되여 있다.

당은 1952년 말에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그들을 원쑤를 격멸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아이젠하워의 발광적인 신공세를 격파하였고 1958년 9월에도 편지를 보내여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대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 추켜 세웠다.

금번의 편지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당의 이 호소는 일편 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설레이게 하고 있으며 창조적 적극성과 혁명적 열의를 계발하고 있다.

새로운 고조는 현 단계의 성숙된 요구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진지를 공고히 한 토대에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는 장엄한 시기에 들어 섰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셔 내고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첫 고지—사회주의의 기초 건설 고지를 점령하였다.

우리 인민은 5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벽두부터 천리마의 진군을 개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하였다.

이 시기(1957~1960년) 우리 나라 공업은 년 평균 36.6%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농촌 경리에서도 일대 비약이 이루어졌고 건설에서도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가 창조되였다.

바로 이런 템포로 달림으로써 우리는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2 년 반에 수행하였으며 우리 조선은 《천리마의 나라》로 불리우게 되였다.

당은 1960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균형을 조절하였으며 채 꾸리지 못한 부문들을 정비 보

강하면서 이미 점령한 고지를 공고히 다지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첫 3 년간에 우리는 계속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를 정비 보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 기지를 강화하였고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약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바야흐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 축성된 토대에 근거하여 모든 일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 섰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가 있다.

우리의 중공업은 이미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건재, 기계 제작 등 기간적 부문들을 모두 갖추었다.

작년에 공업 부문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하였으며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92%를 넘어 섰다.

이것은 우리의 중공업 기지가 이미 튼튼히 구축되였으며 그것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부단히 장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공업의 지원 하에 경공업 기지도 튼튼히 축성되였다. 우리에게는 지금 발전된 방직 공업이 있으며 다양한 식료품 공업과 일용품 공업이 있다.

지난날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가 오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소비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관개 체계가 확립되고 현대적 기계들과 새로운 영농 방법이 도입되여 해마다 농업 생산이 장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완전히 자급 자족하고 있으며 공업 원료를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는 날마다 새 문화 주택이 차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우리의 살림은 부단히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인민들은 지금 더 좋은 문화 주택에서 일체 가구들과 문화 기재들을 다 갖추어 놓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살 것을 념원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인민들의 이 념원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였다.

인구 1 인당 중요 공업 제품과 알곡 생산량에서 우리는 세계 선진 국가의 수준에 급속히 접근하여 가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는 제 힘으로 제 살림을 훌륭히 꾸릴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였으며 일용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되였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고조는 바로 현실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절박한 념원이다.

또한 오늘 남반부에 조성된 혁명 정세가 이것을 요구한다.

남반부 인민들은 벌써 18 년째나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신음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 정책으로 민족 경제는 여지 없이 파탄되고 인민들은 전대미문의 생활고에서 허덕이고 있다.

수 많은 겨레들이 무참히 쓰러지고 있으며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고 있다.

동족의 이 참상을 우리가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남반부 인민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고 있다.

그들은 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자립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운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위정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 우리의 위력을 일층 강화하고 북반부를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킨다면 조국 통일 위업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여야 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고 파괴된 남반부의 경제를 복구할 물질적 준비를 더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야 한다.

오늘의 국제 정세가 또한 우리에게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제는 《평화》의 가면 밑에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극동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각종 신형 무기를 끌어 들이면서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한편 미제는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찌또를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더욱 로골적으로 제국주의에 아부 굴종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당들을 중상 모해하며 그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극력 방해하고 있다.

제반 사정은 우리에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항상 견지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오직 우리가 항상 준비된 태세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경제력과 방위력이 강력할 때만이 원쑤들의 준동을 격파할 수 있다.

1957년에 우리가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반쏘 반공 깜빠니야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한 것처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한 우리 당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을 증시하며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격파해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대고조는 바로 이와 같은 혁명 정세의 긴절한 요구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기적 숙망의 완전 실현

당 중앙 위원회가 보낸 금번의 편지는 우리가 지난 기간 축성한 토대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최근 1~2년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돌려지고 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당은 이제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문화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려고 한다.

오랜 세월 천대 받고 못 살던 우리 인민, 제 나라 제 땅의 번영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싸우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이 남보다 못하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당은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 영웅 조선의 이름이 세계의 선진 국가 대렬에서 빛나게 하려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은 수천 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꿈꾸어 오던 세기적 숙망이다.

이 력사적 과업이 바로 우리 세대, 우리 로동당원들에게 부과되였다. 이보다 더 보람 있고 영예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상의 제'상에 이밥 한 그릇 변변히 떠 놓지 못 하던 우리 인민이 1년 내내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되고 대대손손 오막살이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고대 광실 높은 집에서 문명하게 살며 엄동설한에도 베적삼, 로스레를 면하지 못 하던 우리 인민이 철따라 비단옷을 갈아 입게 된다.

이 얼마나 흥분과 격동을 자아내며 새 힘을 용솟음치게 하는 일인가!

당은 지금 이 력사적 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투쟁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는 이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우리의 기본 과업은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

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더욱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켜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도처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살림을 더욱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곳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 목재 가공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초물 제품 등 다종 다양한 일용품을 도처에서 생산하며 라지오, 텔레비존, 축음기, 사진기, 시계, 학용품, 운동구 등 문화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을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꾸리게 하며 우리의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을 모르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질 좋고 다양한 천을 더 많이 짜야 하며 편직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피복 공업을 발전시키며, 맵시 있고 편리한 기성복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먹는 문제 해결에서 식료 가공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물과 수산물, 과실과 채소를 가공하여 사철 떨구지 말고 풍족하게 공급하며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시원한 청량 음료와 과즙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상시 세 끼 이밥을 먹도록 하자면 알곡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고 벼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관개 수리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논 면적을 확장하며 밭벼를 더 많이 재배하며 알곡을 위주로 하는 2 모작 체계를 광범히 도입해야 한다.

고기, 계란,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며 수산업을 발전시켜야만 우리가 끼니마다 고기'국을 먹을 수 있다.

농촌에서 돼지를 대대적으로 기르며 닭, 오리, 게사니 등 가금들과 소, 양, 토끼 등 초식 동물을 더 많이 사양하며 바다와 호소에서 양식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하여 어획고를 부단히 장성시켜야 한다.

주택 문제는 아직도 긴장되고 있다. 건설에서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며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를 창조한 우리 건설자들의 영웅적 기개를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을 쾌속도로 다그쳐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이 땅에서 수천 년래의 오막살이의 마지막 흔적을 한시 바삐 없애 치워야 한다.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임에 대한 당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

야 한다.

우리는 채취 공업의 발전을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이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지하 자원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그것이 인민 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탄광, 광산 설비, 화학 공업 설비와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생산을 확대하며 방직 기계들과 제사 설비, 일용품 생산을 위한 탁상 선반, 탁상 볼반, 탁상 후라이스를 비롯한 기계 설비들, 식료 가공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함으로써 그것이 소비품 생산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화학 공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화학 비료와 농약, 살초제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키며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짜도록 비날론, 스프, 인견사 등 화학 섬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특히 염화 비닐을 비롯한 합성 수지 원료의 생산을 증대시켜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공급해야 한다.

생산이 확장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강재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금속 공장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규격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며 발전소들에서는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우리 앞에는 실로 찬란한 화폭이 펼쳐져 있다.

당이 제기한 과업을 수행하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일대 전변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나라는 현대적 공업과 농업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전변될 것이다.

새 고조를 위하여 일떠서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고조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천리마의 진군을 한 계단 더 높이 추켜 세우던 1958년을 감회 깊이 회고한다.

그 때 우리가 어떤 목표 밑에 무엇으로, 어떤 방도로 대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였으며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려고 하는가?

그 때 우리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며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업을 목표로 삼았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상 전래의 세기적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때 우리는 잠재하는 예비를 동원하여 지방 산업 공장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켰고 그로 하여 5 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2 년 반 동안에 수행하였다.

지금 우리는 이미 튼튼히 축성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에 의거하여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려고 하며 이것으로 7 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수행하려 한다.

그 때 우리는 손로동,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생산을 조직하여 경제를 앙양시켰다.

지금 우리는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대규모적인 중앙 공업 공장들과 기계화된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며 이것으로 경제를 장성시키려 한다.

그 때 우리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사상 동원 사업으로 아직 동원 리용되지 못 하고 사장되여 있는 예비를 동원하여 많은 것을 해결하였다.

지금 우리는 사상 동원 사업과 함께 일'군들의 조직 사업, 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예비를 찾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 전반적 기술 혁신에서 전진의 방도를 찾고 있다.

그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계속 악전 고투하였으며 경제 깜빠니야를 련'이어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이미 넘어 섰으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장거전을 위해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얼마나 큰 전변인가!

세월은 불과 5 년이 흘렀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에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으며 조건인들 또한 얼마나 좋아졌는가!

우리는 이제 장만된 토대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하려고 한다.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대인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은 오직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손로동과 락후한 기술을 퇴치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어데서나 기계로 일하게 하여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며 혁신이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기술 혁명 수행에서 전변을 가져 와야 한다.

당은 과학 기술 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며 전 당이 기술을 학습하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다 자기 부문 일에 정통하여야 하며 맡은 일에 능수가 되여야 한다.

당은 가까운 기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며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며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인민 경제 발전과 생산 장성의 중요

한 예비는 생산에 대한 지도와 조직 사업에 있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지도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항상 생산 현장에,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 가 군중과 함께 상론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혁명 과업 수행에서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의 사업 기풍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논다.

지도 일'군들은 항상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며 모든 분야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아가는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언제나 국가적 견지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며 국가와 사회 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여 하나라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 인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검박하게 생활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해야 한다.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각급 당 조직들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전원 회의 결정들과 편지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하며 항상 간부들과의 사업에 1 차적 주목을 돌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 *

당이 제시한 찬란한 설계도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보낸 편지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이 제기한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근로자들 속에서 바야흐로 일어 나기 시작한 환희와 격동의 파도는 곧 혁명적 대고조의 억센 물'결로 되여 전국을 휩쓸 것이며 이 땅 우에 그야말로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 문'자 그대로의 지상 락원을 가져 올 것이다.

1 9 6 4 년 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적 과업

림 계 천

최근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에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명년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1~2 년 내에 보다 부유하게 만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킬 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더욱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전원 회의는 명년에 화력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로, 생활 필수품 생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다종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농촌 경리에서 논 면적의 대대적인 확장, 정당 수확고의 제고, 2 모작 체계의 광범한 도입, 간혼작의 대대적인 실시, 고산 지대에서의 알곡 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 특히 벼의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축산업과 과수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한편 공예 작물 생산을 증대시켜 경공업의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세째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며 그것을 더욱 정비 보강함으로써 경공업의 발전에 소요되는 각종 금속 및 화학 자재와 농업의 화학화에 필요한 각종 비료, 살초제, 살충제 등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업, 석탄, 림업을 결정적으로 추겨 세워 원료 및 연료 기지를 강화하여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네째로, 기계 제작 공업을 일층 강화하여 채취 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복무하도록 하며 기본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다섯째로, 무역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외화 획득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당적, 전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이러한 과업들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고뼤를 돌리며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오늘 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남만 못지 않게 부유하고 문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업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성숙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빛나는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집중함으로써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 부문을 다 구비한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마련하여 놓았다.

특히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대형 공작 기계,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 과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중공업,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중공업을 축성하여 놓았다.

우리는 또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경공업이라고는 거의 아무 것도 없던 북반부에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으며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조성하여 놓았다.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농촌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급속히 전변되였다. 최근 년간 당이 농촌 경리 발전에 특히 커다란 력량을 집중한 결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농촌 진지는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과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의 승리이며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당은 바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명년도의 기본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축적과 소비 간의 합리적 균형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방침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해당 시기 당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과 경제 발전의 제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항상 축적과 소비에 전면적 배려를 돌리며 그들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재정 정책과 투자 방면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며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축적이 없이 그저 비는 대로 다 대며 먹고 소비해 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반드시 앞날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공업화를 위해서, 또한 사회주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축적에만 너무 치중하고 장래에만 너무 치중하여 목전의 인민 생활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여 왔지만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도록 하여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선집 제 5 권, 365～366 폐지)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근본적 문제들인 공업화와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여 해결되여 왔으며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 속도와 그들 간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기본 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었다.

이미 축성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장성시킬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가장 훌륭히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된다.

우리는 이 방침을 실현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 놓은 물질적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 생활을 활짝 꽃피우게 할 것이며 인민들의 로력적 열의를 더욱 고무하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의 기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들 앞에 나서는 중심 과업들을 명시하였다.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선 중심 과업은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공간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공업으로 하여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데 있다.

당은 명년에도 채취 공업에 계속 투

자를 집중하여 그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데 대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다.

채취 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이며 따라서 이 부문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원료, 연료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명년에 채취 공업에서는 계속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각종 유색 금속, 희유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야 한다.

채취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진을 선행시키는 문제이다. 굴진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생산의 정상화도 갱의 기술적 개건도 실현할 수 없으며 생산의 계통적인 증대도 보장할 수 없다.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력, 설비, 자재 및 자금 투자에서 굴진과 채굴 간의 비례를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광업에서는 1~2 년 내에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건을 갖출 것이며 석탄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는 오늘 중공업의 심장이며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의 임무와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명년도 계획 실행에서 기계 제작 공업은 다른 모든 과업을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이다.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일층 높이지 않고서는 채취 공업의 선행, 기본 건설,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 제품의 질 제고 등 어느 것을 물론하고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기계 제작 공업의 중요 과업은 현존 기계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채취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기계 설비와 뜨락또르, 자동차, 관개용 양수 설비 등을 포함한 각종 선진 농기계들과 소형 선반을 비롯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기계, 자동화 기구, 측정 기구 생산을 확대하며 다양하고 질 좋은 가정용 철제 일용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전력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우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들과 중소 규모 발전소들을 더욱 정비하고 그 능력을 제고하여 전력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강계 및 운봉 발전소와 평양 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적인 발전소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그 조업 개시 기일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 증산과 함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규격 강재와 합금강, 철제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박판 생산을 증대시키며 강관, 철선, 와이야 로프 등 재가공 제품의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켜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화학 섬유 및 합성 수지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생산을 증대시켜 질 좋은 경공업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는 한편 각종 화학 비료와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

한 각종 농약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화학 자재와 화학 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림업 부문 앞에 거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림업을 강화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목재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림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는 순환식 채벌 방법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림업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요구이며 현 시기 우리 당이 결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심 과업이다. 명년에 경공업 부문 앞에 나선 중심 과업은 3억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제품, 수지 제품, 화학 제품, 유리 제품 및 도자기 제품, 목재 가공 제품, 초물 제품 등 맵시 있고 아름다우며 더욱 질기고 쓸모 있는 다양한 일용품과 맛있는 식료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인민 생활 향상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데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경공업과 지방 공업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한편 중공업을 비롯한 기타 모든 중앙 공업 부문 기업소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을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고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그에 대한 령도 체계를 정확히 확립하여야 한다.

수산 부문에서는 대형 어업과 중소 어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는 한편 저수지, 호수, 강하천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양식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인민들에게 맛 좋은 젓갈품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명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특히 벼의 생산을 증대시켜 알곡의 질적 구성을 개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 축산과 개인 부업 축산을 옳게 배합하여 소, 면양, 염소 등 초식 가축과 돼지, 토끼, 가금 등을 대대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실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미 조성하여 놓은 과수원 관리 사업을 잘하고 계속 과수 면적을 확장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은 기계 제작 공업과 함께 명년도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명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생산적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생활 필수품 생산 부문에 보충적 투자를 앞세우면서 주택 및 공공 문화 후생 시설에 대한 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는 교통 운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방대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실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

의를 가진다.

이것은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산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영예스러운 과업이다. 이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치어 일대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명년도에 이 과업들이 실현되면 중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온갖 준비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이미 축성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가일층 공고화될 것이다.

명년도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의 해로 될 것이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높은 고지를 넘어 서는 것으로 된다.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우리의 혁명 진지는 가일층 공고화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미제와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여 줌으로써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우리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진변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기세는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신심을 주며 그들의 투쟁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힘 있게 시위하는 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국제 국내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대중을 이끌어 천리마 운동의 발단을 열어 놓은 1956년 12월 전원 회의와 같이, 지방에 잠재하는 온갖 예비와 모든 가능성을 동원 리용하여 지방 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의 계기를 열어 놓음으로써 5 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전환을 가져 온 1958년 6월 전원 회의와 같이 우리 당, 우리 혁명,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실로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과 제반 조치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대한 대책으로 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우리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들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무한한 흥분과 격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앙양되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 담보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계획 실행을 위한 사상 동원 사업과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적 지혜를 계획 실행에로 한결 같이 조직 동원하며 천리마 운동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에서)

이것은 명년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의 전투적 지침으로 된다.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의 우월성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경제 지도 사업에서 《행정 만능》, 《기술 만능》과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 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이에 치밀한 조직 사업을 결합함으로써 제기된 혁명 과업을 당 조직과 군중을 조직 발동하여 보장하는 혁명적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의 성과는 결국 지휘 성원들의 능력과 활동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경제 사업에서나 기타 모든 투쟁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사업할 줄 알아야 한다. 주공 방향이 바로 잘 세워짐으로써만 투쟁에서 승리하며 중심 고리를 바로 쳐야만 다른 모든 고리들이 풀릴 수 있다.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그에 집중적으로 돌격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 사업 방법이며 혁명가의 사업 태도이다.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의 중심을 옳게 틀어 쥐고 명년도 계획 실현을 구체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에서 분산성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중심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집중시키며 중심에서 떨어짐이 없이 하나씩 돌파하여야 한다.

계획의 정확한 작성—이것은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 계획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획 작성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발성이 계획에 남김 없이 반영되도록 하며 계획화 사업을 지도 일'군들이 직접 장악하고 조직 진행하는 것이다.

일단 작성되고 비준된 계획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여야 할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는 엄격한 계획 규률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계획 실행에서 기관 본위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 과제를 책임적으로 리행함으로써 인민 경제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의 계획 실행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 조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의 정확한 보장이다. 자재 보장과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자재를 우로부터 아래에 내려다 주는 공급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자재 상사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 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는 것은 명년도 계획 실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이다.

기술적 혁신을 일으켜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장성시키지 않고서는 명년도 계획에 예견된 방대한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로력 문제는 오늘 우리 앞에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로력의 랑비가 적지 않으며 로력 절약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예비가 얼마든지 있다.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 이외에 로력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도는 없다.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이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도처에서 기계화, 자동화가 실현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로동 행정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잘 실시하며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정치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원칙》(김 일성)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지도 일군들은 로동 정량을 바로 정해 주고 로동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에 계속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로력 보충, 로력 후비 양성, 로동 규률의 강화, 로력 관리, 로동 안전 등에 대한 제반 대책을 잘 세움으로써 명년에 로동 행정 사업 전반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은 다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로동 행정 사업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직맹, 민청 등 근로 단체들이 로동 행정 사업을 적극 방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 생산 면적과 있는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당이 일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특히 예비 부속품 생산과 확보를 반드시 선행시키며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정확히 확립하고 설비의 가동을 정상화하며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의 장성을 가져 오며 모든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그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명년도 계획 수행에서 모든 지도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는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1~2 년 내에 3만 종 이상으로 확대하며 모든 제품의 질을 2~3 년 내에 선진적 수준에로 올리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 일'군들과 제품을 직접 만드는 근로자들이 낡은 사상을 철저히 청산하고 인민을 위하여 더 알뜰하고 쓸모 있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선집 제 6 권, 256 폐지)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그런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제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의 저렬한 제품도 나오지 않게 하며 최단 기간 내에 모든 제품의 질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당은 명년도 계획 실행에서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절약 제도란 최소 한도의 지출로써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리 운영 방법이며 원칙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며 나가는 것은 명년 계획 수행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며 나라의 축적을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중요 담보로 된다. 명년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절약 투쟁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 군중적 투쟁으로 철저히 전환시켜야 하며 각종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대중이 우리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수행을 위하여 나설 때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 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당원들과 대중 속에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기본 사상과 중심 내용을 깊이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대중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기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한결 같이 궐기하도록 사상 동원 사업을 철저히 보

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 당 조직들은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당 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 특히 간부들과의 사업에 항상 제1 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조직들은 모든 부분에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당이 제시한 모든 과업들을 이악하게 달라 붙어 끝까지 관철하도록 교양하며 모든 일'군들이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 조직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혁신과 진보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며 진리이다. 당 조직들과 당원들은 우리의 전진 운동을 장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침체, 동요 등 현상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을 보장하여야 한다.

매개 당 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금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명년도 계획 실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다.

특히 명년도 계획을 례년보다 훨씬 앞당겨 작성하게 된 것은 1964년 계획 실행을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과업을 훨씬 앞당겨 제시한 당의 조치는 지도일'군들로부터 모든 생산자들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토의 하에 새해의 구체적 투쟁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실현 방도를 옳게 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설비 자재를 비롯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새해 첫날부터 자신만만하게 계획 수행에 착수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당 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명년도 계획 실행을 위한 물질, 정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고조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리하여 1964년을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 실현에서 위대한 전환의 해, 결정적인 전진의 해로, 인민 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의 해로,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더욱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하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물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량 정 태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첫째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소, 양, 토끼 등 초식 가축과 양돈업의 발전을 계속 견지하면서 닭을 비롯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둘째로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세째로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축산업을 가축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전원 회의 결정서에서)할 데 대한 금후 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축산업 발전의 이 방침은, 첫째로 축군 회전이 빠르며 적은 로력과 사료로써 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둘째로 국영 및 협동 농장들의 축산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개인 부업 축산을 적극적으로 추켜 세우며 협동 농장들에서 공동 사육과 개인 사육, 소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을 배합 실시하며, 세째로 사료 조건, 기술 문제가 해결되는 데 따라 점차 축산업의 전문화, 집약화를 실시하고 가축 및 가금에 대한 속성 비육 방법을 도입할 것을 그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이 방향에 기초하여 국영 및 협동 경리 공동 축산업과 개인 부업 축산에서 명년에 도합 13만 톤의 육류, 2만 3,700 톤의 젖, 2억 600만 개의 란류, 344 톤의 양모, 3,100 톤의 꿀을 생산할 것이며 그 중 협동 농장 매 작업반들에서는 1 톤의 육류, 개인 부업 축산에서는 호당 년 100~150 키로그람 이상의 육류를 생산할 전투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금번 진행된 전원 회의에서 축산업 발전의 방향이 왜 이렇게 설정되게 되였고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 현 계단에서 왜 특별히 강조되는가.

축산업을 빨리 추켜 세우고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 문제를 푸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축산업은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죽, 털, 젖,

고기 등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며 농산업에 역축과 질 좋은 거름을 보장한다.

이와 같이 축산업의 발전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당이 현 시기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축산업의 이러한 일반적인 중요성으로부터만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한 문제를 풀자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고 이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되였다.

당은 가까운 년간에 모두가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더욱 유족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는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주식물인 알곡을 비롯하여 직물, 주택들과 함께 먹는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을 더욱 발전시킴이 없이는 당이 제시한 이 보람찬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현 시기 당이, 특히 금번 전원 회의가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번 전원 회의가 취한 조치는 축산 분야에 마련된 온갖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축산업 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왔고 매 시기 필요한 온갖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대규모 사회주의 축산업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고 축산업의 생산 조직, 경영 활동 및 사육 방법에서 극히 귀중한 경험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우리는 알곡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그의 일정한 량을 가축 사료에 돌리게 되였고 축산업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였다.

또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된 결과에 축산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이 모든 것은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실시하며 가축에 대한 속성 비육 방법을 광범히 도입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준다.

금번 전원 회의가 축산물 생산의 증가를 위하여 제시한 방침을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철저히 관철시킨다면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축산 분야에 잠재해 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들이 당의 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축산업의 생산 조직과 사육 방법을 선진 과학 기술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못 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 ⁂

금번 전원 회의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높은 물질 기술적 토대에 기초해서만 축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생산의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종축의 개량은 그의 기본으로 된다. 종축을 개량하면 가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 단위의 소비를 낮출 수 있고 축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각급 농업 지도 기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각 지방에 분포되여 있는 가축, 가금들의 품종들을 조사 장악하고 우량 품종과 개체들을 선발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량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지도 기관들은 가축별 종축 체계를 확립하고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이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료 문제의 해결은 축산업의 전문화, 집약화의 급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사료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 부문 자체가 백방으로 노력하여 사료 기지를 더욱더 튼튼히 조성하는 한편 유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각종 가축 사료들을 책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산이 많고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2 모작으로 사료를 재배하며 자연 사료 기지를 적극 조성 리용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2 모작 사료 재배가 가지는 의의와 유리성을 옳게 인식하고 논 및 공예 작물 전작으로 호밀, 보리, 채소, 사탕무우 등을 광범히 재배하여 가축의 다즙 사료와 농후 사료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명년에 협동 농장 매 작업반에서 1 정보의 알곡, 2 정보의 사료 작물, 500~1,000 평 이상의 채소를 논밭 전작으로 재배하여 그것을 작업반 자체 사료로 리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부터 예견성 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또한 야산과 하천 류역을 비롯한 일체 공한지들과 저수지들에 갈, 호박, 수초 등의 가축 사료를 광범히 재배하고 칡, 아까시아 등의 자연 사료 기지를 조성리용하며 일체 농업 부산물들을 가축 사료로 잘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차 그의 공급량이 증대되는 농후 사료에 대한 효과적인 리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축산 부문과 련관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도 사료 문제 해결에 보다 큰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금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동물질 사료와 광물질 사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된다. 그러므로 수산 부문에서는 어분과 골분을, 경공업 부문에서는 번데기박과 소금을 시기별, 종류별로 정확히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매 량정 부문에서는 미강박, 밀'기울, 옥수수 배아박 등 량곡

가공 부산물을,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효모 사료, 합성 뇨소 등 화학 사료를 계획에 의하여 제때에 생산 공급해 주어야 한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축 두수의 장성에 따라 축사 시설들을 완비하며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축산업의 전문화와 속성 비육 방법의 도입에 적합하게 현존 축사들을 개축 완비하고 현존 축사 시설의 리용률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며 부족되는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지대별, 가축별 표준 설계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건설해야 한다.

한편 각종 동력 원천에 의거하여 사료 분쇄 작업을 비롯한 사료 조리, 운반, 급수, 전모, 착유 등 모든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 1 인당 가축 관리 두수와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현존 축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일체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보수 정비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농촌 지원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백방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수의 방역 사업의 강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 지도 기관들과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수의 방역 사업과 예방 치료 대책을 강화하여 가축들의 질병과 폐사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을 관철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축에 대한 사양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종축이 좋고 사료가 풍부하며 또 축사 설비와 기계가 완비되고 수의 방역 사업이 째였다 할지라도 사양 관리 사업이 잘 조직되여 있지 않으면 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현 시기 가축 사양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축산의 생산 조직과 함께 경영 활동을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가축별로 전문 작업반을 조직하고 축산물을 년중 생산하는 원칙에서 축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며 축군별에 따르는 과학적인 관리 방법과 선진 경험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 활동에 대한 타산을 강화하여 1인당 가축 관리 두수를 증가시키며 축산물 단위당 사료 지출과 가축의 폐사률을 낮춤으로써 가축의 생산성과 축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속성 비육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사양 관리에서 기술적 지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우량 가축의 선정, 배합 사료의 리용 및 강制 비육의 실시 등등 가축에 대한 기술 관리를 개선하며 가축별 도살 월령을 정확히 설정하고 제때에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물 생산의 급속한 증가를 위하여 이 부문 과학 기술 일'군들에게는 중차한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대규모 사회주의 축산업의 건설과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 집약화에로의 이행은 허다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 부문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각이한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사료용 식물들의 재배, 그의 성장 및 가공, 생산성이 높고 생활력이 강한 신품종의 육성, 과학적인 사양 관리 체계의 확립,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오염 경로의 해명, 그에 대한 대책의 수립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긴절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수의 축산 기술자 양성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축산 부문 대학들과 통신 교육망을 확장하여 수년 내에 협동 농장당 1명의 축산 기사와 작업반당 1명의 축산 기수가 차례지도록 양성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축산물 생산을 가일층 증가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한 우리들은 축산물 수매 사업의 조직과 주민들에 대한 이 상품들의 공급 사업을 개선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 하면 축산물의 수매 및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 집약화가 강화되며 그의 상품 생산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만큼 축산물의 수매 사업을 생산자들의 리익과 편의를 존중히 하는 원칙에서 개편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로 된다.

지방 정권 기관들, 상업 류통 부문 일'군들은 생산된 축산물을 현지에서 제때에 수매하며 농민들이 부업으로 기른 가축, 가금들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국가에 수매시키거나 농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도시 및 로동자구를 비롯하여 주민이 많이 사는 지대들에 육고망과 국영 및 협동 농장 직매점을 설치하며 농민 시장을 활발히 운영케 함으로써 각종 축산물과 생가축에 대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수요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

축산 부문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축산이란, 생명을 가진 동물을 다루는 일이며 년간을 통하여 하루도 빠짐 없이 시중해야 하고 영양가가 높은 먹이를 정도에 맞게 골고루 때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세밀하고도 복잡한 일이다.

축산의 이러한 특성은 생산의 전문화, 집약화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축산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게 당적 지도와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각급 당 조직들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은 축산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축산업이 전문화, 집약화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되며 협동 농장들의 공동 축산업이 작업반 단위로 확대 발전되기 때문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일부 일'군들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지도 작풍을 철저히 극복케 하고 지도 일'군 자신들이 직접 생산 단위에 내려 가서 종축의 개량, 사료 기지의 조성, 축산 작업의 기계화 등 축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급 당 조직들은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축산 계획을 작성케 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과된 계획 과제를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 없이 완수 및 초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축산업에서 생산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 가축 사양에 대한 생산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게 하며 생산을 많이 내고 일을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가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축산 부문 일'군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공훈 사양공 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하여 가축 사양에서의 일'군들의 책임성과 사업에 대한 그들의 긍지를 일층 높이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과 축산 부문 지도 일'군들은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 축산 부문 앞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들인 종축 확보, 건초를 비롯한 사료 생산, 가을철 수의 방역, 과동 준비 등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를 일층 강화해야 된다.

모두나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혁사적 과업 실현에 한결 같이 동원됨으로써 축산물 생산에서도 새로운 전환과 고조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운 1958년 9월 전원 회의

리 혁 수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5 년이 지나갔다.

9월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앙양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고리인 질과 관개 문제를 옳게 포착하고 그의 해결에로 대중을 힘차게 불러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운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전원 회의 이후 지난 5 년간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변혁들로 가득찬 시기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 전진을 이룩한 시기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전원 회의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 실행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앙양을 위하여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 관철을 위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놓았다.

이 기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9월 전원 회의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 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할 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 력사적인 1958년 9월 전원 회의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9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일대 고조기에 들어 선 력사적 환경 속에서 소집되였다.

당 앞에는 전후 시기 실현된 사회 경제적 변혁들과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에서 축적한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미 완성되였고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더욱 강력히 추동하고 있었다.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여 가고 있었으며 당 주위에 굳게 결속된 대중의 창조적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제 1 차 5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 두 해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는 가일층 강화되였고 중공업 및 경공업 기지들이 튼튼히

축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발전의 제반 조건들도 마련되였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울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되게 되였다.

당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급속히 수행하여야 할 긴박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성숙된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경제 전반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광활한 전망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적 과업을 성과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기간적 부문인 금속 공업을 앞세워야 하였으며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여야 했다.

철과 기계,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인민 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는 금속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며 밭 관개 및 논 관개 면적을 더 확장할 데 대한 문제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고리로 인정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 강구하였으며 사회주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울 것을 호소하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철과 기계, 이 문제의 해결은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와 전면적 기술 혁신의 기본 고리였다.

당시 인민 경제의 그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철재였다.

수많은 공장 건설, 농촌의 대자연 개조 사업, 철도 및 항만의 복구 확장, 주택 및 문화 시설들의 건설 등 이 모든 것이 다 철에 걸려 있었다.

철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였고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못 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흑색 금속 공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흑색 금속 공업은 중공업 중에서도 기간적인 부문이다. 흑색 금속 공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기계 제작 공업과 기본 건설의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64 페지)

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선 나라의 공업화와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위한 기초이다. 이것이 없이는 중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

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전면적 앙양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회의에서는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그의 관철에로 전 당을 불러 일으켰다.

당은 철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우선 모든 야금 공장들과 광산들에서 부단한 기술적 개조를 진행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고 현존 기본 건설을 앞당겨 금속 제품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철재 절약과 고자재 회수 및 지질 탐사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당은 또한 근로자들 속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운동》을 광범한 창의 고안 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로동자와 기술자와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최대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금속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선철과 립철 생산은 1962년에 1956년에 비하여 525%, 기계 제작 공업은 같은 기간에 681%의 비약적인 장성을 보이였다.

금속 공업의 장성은 선철 생산에만 치중되였던 일면성을 퇴치하고 각종 규격 강재들, 형강, 환강, 강관, 특수 강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철재와 강재에 대한 기본 건설과 기계 제작 공업의 장성하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기존 공장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건설이 활발히 진척되게 되였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장성은 우리 나라에서 소요되는 중소형 기계 설비들은 물론 야금 설비, 발전 설비, 자동차,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 등 대형 기계 설비까지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비날론 공장과 같은 대규모적인 현대적인 공장도 능히 자체로 건설할 수 있는 일체 설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였으며 지금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게 되면 만들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의 급속한 발전은 공업 생산에서 높은 장성 속도를 보이게 되였는바 우리는 그간 매년 30~40% 또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립으로써 세인을 경탄케 하였다.

전원 회의는 금속 공업과 함께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뒤떨어진 농업을 공업에 따라 세움이 없이,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할 수 없었다.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우선 그의 기본으로 되는 수리화를 급속히 완성시키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회의는 밭 관개 및 논 관개 면적을 계속 확장할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은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급속히 완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관개 공사는 국가에서, 중소 관개 공사는 협동 농장들이 담당 수행하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 군중적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결과 전원 회의 이후 불과 반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37만 여 정보에 물을 댈 수 있는 대관개 공사를 완공하여 농촌 수리화의 과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이게 되였고 억만년 흉풍을 모르는 오곡 백과 주렁진 땅으로 전변됨으로써 수천년을 두고 한재와 수재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이 실현되였다.

농촌 수리화의 과업이 실현됨에 따라 전기화의 과업도 또한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였고 농촌 기계화를 급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는 기경과 파종, 운반 등 기본적인 영농 작업들이 기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년년이 증대되게 되였는바 알곡 생산은 1962년에는 1957년의 320만 톤에 비하여 약 1.6배나 되는 500만 톤 수준에 오르게 되여 우리 나라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실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개의 중심 고리인 금속 공업과 농촌 수리화를 튼튼히 틀어 쥐고 그의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능숙히 조직 동원함으로써 제 1 차 5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1 년 반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약진을 이룩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력사적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천리마의 대고조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사르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가적 기풍으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켰다.

천리마 운동의 위대한 힘은 《…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앙양시킨 대중적 운동이라는 데》(《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48 페지) 있다.

그러므로 당은 사회주의 고조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하여 사회 경제적 및 물질적 제 조건을 조성하면서 이에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억누르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사상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켰다.

온갖 대중적 혁신 운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발생 발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신이 일어 날 때에는…락후한 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적인 것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09 페지)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우리 당은 보수주의와 소극성과의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대중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불러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제 1 차 5 개년 계획이 성과있게 집행되고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전면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고조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과 소극 분자들은 발전하는 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대중의 사업인 천리마 진군에 겁을 먹고 뒤'걸음치며 그의 전진을 저애하

였다.

그들은 《기술 신비주의》를 운운하며 낡은 공칭 능력과 기술 기준을 가지고 대중의 창발성을 억눌렀다.

보수주의자들과 소극 분자들은 스스로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할 대신에 자기의 힘—조선 사람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것만 숭상하고 쳐다 보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기기에만 몰두하면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지 않고 있었다.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높이 추켜 세울 수도, 천리마 운동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회의는 선진 운동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을 신 당에 호소하였다.

당시 우리의 앞에는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새로운 공업 부문을 창설하며 필요한 대형 기계 설비까지도 자체로 만들며 원료와 자재도 그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선렬들, 항일 빨찌산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이 요구되였으며 주체적 립장에서 나라의 살림을 꾸리야 할 것이 요구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사상 투쟁을 대중 속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그리면 모든 〈신비성〉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무엇 때문에 우리는 남의 기준량의 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며 남의 뒤만 따라 가야 한단 말인가.

다른 나라에서 4～5 년 걸려서 하는 일을 우리가 2～3 년에 하여 놓는다면 무엇이 나쁘겠는가.

우리는… 어떤 난관이든지 대중을 동원하여 헤쳐 나갈 줄 알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조직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청소》하여야 한다.

당은 광범한 대중 속에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 정신을 해석 침투시키며 그의 실행에로 적극 추동하는 한편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중의 창발적 발기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를 실지 생산에 구현하도록 꾸준히 지도 방조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대중을 주체의 사상으로,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부단한 교양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적 지혜를 사회주의 건설에로 남김 없이 동원하며 대중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불러 일으켰다. 이리하여 세인을 경탄케 하는 서대한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였다.

기계 공장도 아닌 수은 아마 공장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이 일어 났고 농기계 공장과 뜨락또르 수리 공장에서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생산되고 과거에

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8 메터 타닝반, 3,000 톤 프레스를 비롯한 각종 대형 기계들이 생산되였다.

이것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극복할 때,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는 당의 구호를 대중이 접수하고 일떠설 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가를 보여 준다.

경험은 우리의 전진 운동이 사상 해방 사업과 밀접히 결합될 때 인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 정책의 진수를 대중 속에 철저히 파악시키며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강화하며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의 정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일 때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거대한 앙양이 일어 난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은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강화되고 청산리 방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당 사업이 사람과의 산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의 높은 단계를 이루는, 생산 혁신 운동과 인간 개조 운동이 밀접히 결합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심화 발전되였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추동력으로, 대중적 경제 관리 운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대중 교양의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되였다.

* *

9월 전원 회의가 우리에게 준 력사적 교훈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고리를 틀어 쥐고 대중을 줄기차게 동원하며, 전진을 가로막는 낡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고 주체적 립장에 서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할 때 그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천리마의 대고조를 더 한층 높이 추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9월 전원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성과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높이 뛸 수 있는 토대로 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전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것을 전 당에 호소하였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세련된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주위에 굳게 단결된 인민 대중이 있음으로 하여 어떠한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었다. 우리는 과거 그러하였던 것처럼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충만되여 있다.

《전 세계사》(쏘련 과학원 편)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력사학 박사 교수 김 석형, 김 희일, 손 영종

쏘련 과학원에서는 1955년 이래 10 책으로 되는 《전 세계사》를 편찬하여 간행하고 있다. 멀지 않아 그 마지막 권이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 맑스주의 사학가들이 지구 상 모든 나라 인민들의 력사를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으로 개괄하여 세계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인민의 력사에서 과거나 현재의 식민주의 학자들, 부르죠아 반동 사가들이 가해 놓은 온갖 외곡들을 극복하며 모든 력사적 사실들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아 놓을 수 있다. 과거 부르죠아 사가들에 의하여 시도된 전 세계사들은 어느 것이나 모든 나라들의 력사가 아니라 몇몇 《선발》된 나라들의 력사로 구성되였으며 인민의 력사가 아니라 침략자와 착취자의 력사로 엮어졌다. 또한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면서 사회 발전이 해당 사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저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곡하여 왔다.

세계사를 서술하는 맑스-레닌주의 사학가들의 임무는 응당 이와 같은 온갖 부르죠아적 외곡과 허위 날조를 폭로 분쇄하면서 력사를 인민의 력사로 서술하여야 하며 사회 발전을 그 내부적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합법칙적 과정으로서 체계화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력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의 력사에 대해서 공정한 립장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부르죠아 반동 사가들에 의하여 허위 날조가 극심하게 가해진 동방 여러 나라 인민들의 과거에 대하여 현 시기 맑스-레닌주의 사학가들은 가장 공정하고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과학원 편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서술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력사학의 이상과 같은 기본 요구와는 배치되는 엄중한 착오들이 있으며 조선사에 대한 저자들의 편견과 무식으로 인하여 수다한 외곡들과 허위 날조들이 있다. 우리는 조선 력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또 이 책에서 처음으로 조선 력사를 아주 국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일부 알게 될 독자들을 위하여 그 조선 관계 서술에서 범하고 있는 오유들과 외곡들을 지적하여 독자들의 리해를 바로 잡아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한다.

1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저자들이 범한 엄중한 착오들 중에서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 고대사를 무시해 버린 점이다. 기원전 시기에 적어도 4~5백 년간이나 존재했던 우리 고대 국가들은 그들에 의하여 제멋대로 삭제되고 말았다. 어떻게 이렇게 력사를 소홀하고 무지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우리 고대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기원전 5~4 세기에 고조선 국가가 존재하였으며 기원전 3 세기에는 부여, 진국 등 나라들이 있었다.

우리 력사에서 첫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료하 류역으로부터 조선 반도의 서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령토를 가진 강력한 국가였다.

기원 전 4~3 세기 이전에 편찬된 중국의 《관자(管子)》라는 책에는 기원 전 7 세기에 《조선》이 중국 제(齊) 나라와 무역한 사실이 기록되여 있다. 중국 사서 《사기(史記)》와 《위략(魏略)》에 의하더라도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 전 5~4 세기에는 국가로서의 확고한 징표들을 가진 나라였다. 즉 거기에는 기원 전 3 세기 말 2 세기 초에 우리 나라에서 왕조의 교체가 일어 났으며 전(前) 왕조에는 부(否), 준(準), 후(後) 왕조에는 만(滿), 우거(右渠) 등의 왕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여 있다. 또 《한서(漢書)》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오랜 기원을 가진 성문법 8 개조가 있었는바 이 법률 조항들에서는 이 나라를 노예 소유자 국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가혹한 형벌 제도와 노예 제도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의하면 남의 재산에 대한 사소한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그 《범인》은 노예로 삼을 것과 일단 노예로 된 자는 막대한 돈을 물어야만 평민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혹한 노예 제도는 다시 평민으로 속량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보통 평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8 개조 성문법은 노예 소유자 계급의 리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가혹한 사회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고조선의 노예 소유자—귀족들은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된 국가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상(相), 대부(大夫), 박사(博士), 장군(將軍) 등의 관직은 왕의 전제 권력을 보강하는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였으며 관직을 맡은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와 인민을 령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이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기원 전 3 세기 초에 중국 연 나라와 대전쟁을 진행하였으며 그보다 오랜 기원 전 4 세기에는 연 나라의 침략을 대비하여 그에 대한 대공격을 준비하다가 《대부》인 례(禮)의 반대로 이를 중지하였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중국 사서(史書)를 읽을 수 있다면 기원 전 2 세기 말 고조선이 적어도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이 원시 사회 내부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여 발생한 계급 사회였다는 것은 오늘 조선 반도 서북부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출토품들로써도 방증될 수 있다. 기원 전 2,000 년기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비파(琵琶)형 단검(종전에 만주식 단검이라고 하던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문화의 계승자들은 기원 전 6~5 세기에 철기 사용으로 넘어 갔다. 그들에 의하여 창조된 고조선 문화는 기원 전 수세기부터 계급 사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고도의 련철 기술과 공예품의 발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모든 문헌 사료들과 고고학적 출토품들은 고조선이 독자적으로 기원 전 5~4 세기 경에는 고대 국가로 형성되여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조선 이외의 우리 고대 국가들 중에서 부여는 기원 전 3 세기에는 고대 국가로 형성되여 있었다. 특히 기원 3 세기 후반기에 편찬된 중국 사서인 《삼국지(三國志)》가 전하는 부여의 력사를 보면 《호민(豪民)》과 《하호(下戶)》가 있었고 군왕(君王) 아래에 정연한 중앙, 지방의 통치 기구가 있었으며 귀족들이 죽으면 100 여 명의 노예를 순장하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이 나라 귀족의 호화로운 생활과 엄격한 남녀 차별과 가혹한 형벌 제도, 노예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동북 지방 송화강 류역의 이 나라는 조선, 중국 사서들에서 고구려에 선행한 국가로 서술되여 있으며 부여 왕실의 계보와 왕명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 반도의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진국(辰國—마한)을 비롯하여 그 국명과 국가 기구를 엿볼 수 있는 나라들을 조선과 중국의 사서들은 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 력사가들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서 이미 많은 사실들을 천명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의 고대사를 부정해 치우면서 다만 중국 《연 나라 왕의 한 사람》인 《위만》이 조선으로 와서 《기원 전 2 세기 초에 조선 왕국에서 정권을 장악》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것은 원 사료를 읽어 보지도 않고 내린 망단이다. 만에 대하여 말할진대 《사기》 조선 렬전 이하 그 어떤 사서들에도 만을 연 나라의 왕이라고 한 것은 없다. 그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사료인 《사기》 조선 렬전을 다른 부분의 서술들과 대비하면서 세심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행한 왕조에 대체한 그의 왕조가 조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자신도 조선 사람이였다고 론증한 학자는 종전부터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사》는 고조선과 그 밖의 우리 고대 국가들의 력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4~5백 년간에 걸쳐 존재한 이 고대 국가들이 어떤 무식한 외국 필자들의 주관에 의하여 우리 력사에서 삭제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력사가 사람들의 주관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세계사》가 우리 고대사 서술에서 범한 이와 같은 엄중한 착오는 우선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료해도 없이 이를 되는 대로 처리한 데 기인한다.

고대사 서술에서 《전 세계사》가 범한 엄중한 착오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사》는 《종족 동맹들과 첫 국가들의 성립》이라는 제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전기한 정체 모를 왕국의 서술에 앞서 우리의 《첫 종족 련합》은 기원 전 2천 년기 말에 중국 은 나라의 망명 귀족인 기자(箕子)와 그와 함께 망명해 온 중국 사람들에 의하여 수립되였다고 론단하였다. 이 허황하기 짝이 없는 《기자 동래설》을 《전 세계사》가 인용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자 (箕子)라는 인물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은 나라 말년 즉 기원 전 12 세기에 은왕 주 (紂)의 숙부로서 포악한 주왕에 의하여 갇힌 몸이 되었다가 은 나라가 주 (周) 나라 무 (武)왕에 의하여 멸망하자 석방되였고 석방된 후에는 기(箕)국의 령주 (제 4 급의 령주인 자 《子》)로 되였다고 전한다. 기자는 그의 본 이름이 아니라 《기국의 령주》라는 뜻이다. 오늘날 그의 이름이라고 전하는 서여 (胥餘)는 기원 후 시기에 이르러 조작된 것이였다. 그 이름도 명확하지 않은 이 인물의 전기에는 전설적인 요소가 아주 많다. 그러한 전설적인 기록에 의하더라도 기자는 중국 본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즉 기자는 주 나라 무왕을 위하여 유교 정치의 기본 원칙들인 《홍범 (洪範)》 9 개조 (九疇)를 진술하였고 그후 자기 나라에 있다가 주 나라의 서울을 방문하였고 그 길에서 은 나라 고도를 지나다가 폐허로 된 그 곳에 보리가 무성한 것을 보고 맥수(麥秀)가를 불렀다고 한다. 중국 고문헌들인 《상서(尙書)》와 《시경 (詩經)》에 이 홍범과 맥수가가 실려 있다. 3 세기 중국 진 (晋) 나라의 주석가인 두예 (杜預)는 기자가 《기》국 땅인 오늘의 중국 하남성 몽현(蒙縣)에서 살다가 죽었고 거기에는 그의 무덤이 있다고 하였다. 기자가 실재한 인물이였고 그의 전기가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는 이 곳에서 은, 주의 서울로 래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자가 조선에는 올 수도 없었으며 올 리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동래설이 중국의 봉건 사가들과 조선의 사대주의 봉건 사가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다. 전자는 타국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후자는 그 국내 봉건 통치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자 전기 중에서 전설적 요소들을 제멋대로 리용하여 사실들을 위조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기원 전 3~1 세기

의 저작들인 《상서대전 (尙書大傳)》과 《사기 (史記)》의 《송 미자 세가(宋微子世家)》가 그 첫 조작자들이다. 이 사서들에 의하면 주 나라 무왕은 기자를 자기 신하로 삼기가 곤난해서 《조선》의 주권자로 책봉하였다고 꾸며 놓았다. 그리고 보면 기원 전 12 세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된다. 그 허황성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 전 3 세기 이전의 중국 고문헌들에서는 기자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나 조선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서술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원 전 1 세기의 《사기》도 정사 조선의 력사를 서술하고 있는 《조선 렬전》에서는 기자에 관하여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사서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면 누구에게나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소위 동래설이 대체로 기원 전 3~1 세기 경부터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조작되기 시작하여 그 후 점차 내용이 첨가되였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과연 기원 전 3~1 세기부터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였고 그 봉건 통치배들은 이 곳을 침략하고 있었다. 나라의 문화 수준이 높으며 인민들의 례의 범절이 훌륭한 그러한 조선을 중국의 봉건 사가들은 자기 나라의 《성인(聖人)》들 특히 그중에서도 전설적 요소가 적지 않은 기자의 《교화》에 결부시킴으로써 그 침략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전기한 우 여가 오늘의 중국 하남성에 기자묘가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사기》와 그 밖의 중국 사서들의 《기자 동래설》을 반대하여 쓴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사》는 《…남만주 및 그 곳과 린접한 반도의 북부 지방에서 출현한 조선에서의 첫 종족 련합은 기원 전 2천 년기 말에 중국 이주민들이 형성하였다.

… 자기의 종족 그루빠와 함께 조선에 이주해 온 은 나라의 중국 귀족의 한 사람인 기자가 이 련합의 수장으로 되였다.》(2 권, 577 페지)라고 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사》는 원주민이 중국 이주자들로부터 양잠업과 수공업을 배웠고 《검정콩》, 《수수》, 《메밀》과 청동 제품, 철 제품도 중국에서 받아 들이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자의 《업적》을 더 날조, 첨가해 넣은 15 세기 중국의 잡서 (雜書)들에서 전하는 말들을 그것도 되는 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검정콩》 등의 전달 운운은 그러한 황당한 기록들에서도 볼 수 없는 《전 세계사》 저자들의 《신 발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사》의 저자들이 이왕 전설이나 신화를 가지고 조선 력사의 첫 머리를 서술할 바에는 왜 《단군 신화》를 무시하였는지 모르겠다.

조선 사서 《삼국 유사》에 의하면 기자보다도 천 년이나 이전에 《조선》의 임금으로 된 단군의 부친 환웅 (桓雄)과 그 부하들은 하늘로부터 조선 땅에 내려 와서 곡식 재배와 질병 치료, 형벌 제도, 도덕 규범들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이를 기원 전 24 세기에 있었던 일로 전하여 왔다. 단군 신화 외에도 조선의 건국 신화, 전설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사》가 오직 기자 전설만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은 아마도 조선의 전설은 기자 전설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오늘 우리는 《단군 조선 왕국》이 우리의 첫 국가였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신화나 전설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 자체가 맑스주의 사가들의 할 일이 아닌 것이다.

2

《전 세계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 이후의 중세 력사 서술에서도 그 첫 시기 수백 년간의 력사를 삭제했으며 대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

3국의 건국 연대를 늦잡는 것과 기원 후 수세기 간의 대일 관계, 13~14 세기의 고

려-몽고 관계, 그리고 중세기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 전쟁의 서술에서 그 대표적 실례들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사》는 3국의 건국을 4 세기로 늦잡음으로써 기원 전 2 세기 말 고조선의 멸망 후 이 때까지의 력사를 중국 군현의 력사로써 대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바로 우리 력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봉건 국가들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던 시기이며 동시에 이 나라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마침내 이를 종국적으로 청산해 버렸던 시기인 것이다.

압록강 중류에 자리잡고 있었던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자로서 기원 전 1 세기 중엽부터 강대한 정치 군사적 력량으로 장성하였고 이 시기에 벌써 비류(沸流), 행인(荇人) 등의 린접 《소국(小國)》들을 정복 또는 통합하면서 압록강 류역 일대를 장악하였고 중국 군현들에 계속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고구려는 광대한 령역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였다. 이 시기의 고구려 유적에서 선행한 고조선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강철 제품들이 출토되는 것은 당시 이 나라 생산력의 높은 수준을 방증하여 주는 것이다.

백제 국가는 기원 1 세기 한강 하류를 근거지로 하여 그 북쪽의 락랑군과 대치하면서 진국(마한)의 령토를 잠식하고 있었다. 2 세기까지 백제는 반도 서남부에서 광대한 령역을 차지하는 국가로 되었다.

반도의 동남부에서는 2 세기 중엽까지에 신라 국가가 형성되였다. 신라의 건국 과정도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린근 《소국》들의 정복과 통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선의 사서 《삼국 사기》는 보여 주고 있다.

《삼국 사기》는 고구려, 백제는 부여 계통이며 신라는 《조선》, 즉 고조선의 유민이 세운 나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은 3국 인민들이 고조선, 부여, 진국(마한) 등 우리 고대 국가 인민들의 후계들이며 그 생산력과 문화의 직접적인 계승자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승성에 관하여서는 다른 문헌 자료 및 고고학적 출토품으로써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3국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고대 국가들보다 한 계단 높은 봉건 체제를 갖추었다.

3국 형성의 이러한 력사 과정을 전연 무시하고 나선 《전 세계사》는 밑도 끝도 없이 《기원 313년에 옛 종족 동맹으로부터 형성된 고구려는 반도의 북부와 남만주의 린접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46년에 발생한 백제는 서남부를, 356년에 형성된 신라는 동남부를 차지하였다.》(3권, 47 페지)라고 쓰고 있다. 《전 세계사》가 고구려의 건국을 313년으로 잡는 것은 고구려 제 15 대 왕 미천왕 14년에 있었던 고구려에 의한 락랑군의 종국적인 박멸을 념두에 두고 쓴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백제는 그 제 13 대 왕인 근초고왕 원년(346년)으로, 신라는 그 제 17 대 왕인 나물왕 원년(356년)으로 각각 그 건국을 잡은 것이다. 고구려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선 력사를 깎아 버리기에 광분하였던 일제 어용 학자들도 감히 그 건국 년대를 1 세기 이후로는 내려 잡지 못 하였던 것이다. 백제와 신라의 건국 년대에 대해서는 일본 부르조아 사학자들이 내놓은 설과 《전 세계사》의 년대는 신통히도 부합된다. 일본 부르조아 학자들은 백제의 13 대 왕인 근초고왕과 신라의 17 대 왕인 나물왕의 이름들이 중국의 사서들의 기록에 나타났으니 확실하다든가 또는 이 때부터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설정되든가 하였으니 3국을 이 때부터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 창건을 보면 왕명이 본국 사서에는 있으나 타국 문헌에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는 아예 력사에서 말살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또 몇 십 대 왕이든지 그 이름이 타국 문헌에 기록된 왕이 그 국가의 창건자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결국 《전 세계사》는 조선의 고대 국가들을

무시한 데다가 다시 그 후 시기 수세기 간 조선 사람들의 나라는 없었다고 론단함으로써 우리 력사를 무려 근 1,000 년이나 공백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 세계사》의 기원 전후 시기 이후 조선의 대일 관계 문제로 넘어 가자. 우리는 여기서 4~5 세기 일본의 남조선 일부 지역의 강점을 운운한 것을 보게 된다. 이것도 일제 어용학자들이 일본의 조선 강점을 력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소위 《미마나의 미야께(任那日本府)》설, 즉 임나(任那) (조선 반도 남부 락동강 류역의 작은 봉건 국가인 가라 또는 가라를 가리키는 말) 땅에 《미야께(일본의 통치 기관)》를 설치했다는 헛소리의 반복이다. 이 허망한 《미마나의 미야께》설은 일본 침략자들이 지난 세기 조선 침략을 개시하던 시기부터 그 어용학자들이 줄곧 떠들어 왔다.

《마마나》설은 한마디로 말하여 4~5 세기 전후 시기까지 일본 렬도 내에 존재했던 조선 계통 《소국(小國)》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장차 일본을 통합하게 되는 국가의 세력이 이 소국들에 설치하게 된 《미야께》를 마치 남조선에 설치한 것으로 엉뚱하게 바꾸어 놓은 날조이다.

력사적 사실은 기원 후 수세기까지 조선 반도에서 건너 간 이주민들이 일본 국가 형성과 문화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원 전 오랜 시기부터 이주민 집단이 조선 반도에서 일본 렬도에 건너 갔던 것은 일본 고문헌들에서 많이 말하고 있다. 3 국 성립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이주민 집단은 거기서 수세기 간 독립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자기들의 고국인 3 국과도 일정한 련계를 가지었다.

쌍방의 고문헌들과 유물들은 이러한 관계를 전하고 있다. 일본 렬도 내에서 기원 후 여러 세기를 두고 《소국》들의 분립 상태가 존속하는 조건 하에서 조선 계통 이주민 집단은 정치 군사적으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으로 고국에서 하던 대로 산성(山城)을 쌓고 살았으며 자기의 본 고장의 이름을 그 거주지에 붙이었다. 이러한 산성은 우리 3 국에 고유한 것이며 일본의 원주민에게는 없는 것이다. 8. 15 전에 어떤 일본 학자도 조선의 3 국 조선(朝鮮)식의 산성이 북구주(九州)와 본주(本州) 섬 서단에 6 개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세끼노(關野) : 《일본의 건축과 예술 (상)》 소재 《일본 건축사》 제 2 장 원시 시대 참조)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最古)의 사서 《일본 서기 (日本書紀)》와 《고사기 (古事記)》 (8 세기) 에 의하더라도 후에 일본 통일 국가의 중심지로 된 야마도 지방 (나라현) 에도 《쯔쯔끼》 (《쯔쯔》는 우리 말로 산이요, 《끼》는 우리 말로 성의 뜻) 즉 산성 속에 궁궐을 짓고 사는 가라 (가락)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신화의 하나인 이즈모 (出雲) 지방 (시마네현) 신화에 의하면 그 곳에는 본시부터 8 개 산곡 (山谷) 에 걸친 큰 오로찌(일본 말로는 뱀의 뜻) 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일본 학자의 설에 의하면 이 오로찌 이야기는 그 곳에 조선식 산성이 8 개나 있었으며 산의 릉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산성벽이 멀리서 보면 뱀이 굼불거리는 것 같아서 뱀의 이야기로 전하여졌다고 하였다. 《오로찌》라는 말 자체도 이 일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 말의 《어론치》 즉 대인(大人)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 지방에도 산성을 쌓고 원주민과 대립하던 《소국》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정복하였다는 이 지방 최고의 주재자는 자기 고국인 신라에 래왕하였던 것으로 일본 고문헌들은 전하고 있다. 이즈모 지방에 신라 계통의 《소국》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고사기》나 《일본 서기》 보다 좀 나중(9 세기)의 저작인 일본 고문헌 《신찬 성씨록 (新撰姓氏錄)》에는 《구다라 (백제)》 사람들이 하리마 (병고 〈兵庫〉 현 지방)에서

도 그들의 《습속》에 따라 산성을 쌓고 살았으며 거기서 큰 전쟁을 진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일본의 나라 (奈良)현 석상 (石上) 신궁에는 칠지도 (七支刀)라는 백제 칼 한 자루가 있다. 그 칼에는 천자 (天子) 로 자처하는 백제 임금이 《백병 (百兵) 을 물리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이 무기를 그 후왕 (侯王) 인 왜왕에게 준다는 내용의 명문 (銘文) 이 새겨져 있다. 백제의 후왕으로 자처하던 세력이 이 지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밖의 일본 고문헌들에 나타난 수다한 기록을 가지고 백제 계통의 《소국》이 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의 신라, 가라, 백제 계통 이주민 집단이 형성한 《소국》들은 이상에서 본 몇 개만이 아니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 렬도 서부 일대에 《시라 (신라) 》, 《가라》 또는 《미마》, 《구다라 (백제) 》라는 말이 붙은 지명이 적지 않으며 또 이 나라 사람들을 조상신으로 하는 신사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심지어 《일본 서기》, 《고사기》에 조작되여 있는 일본 황실의 계보 내에서도 조선 계통 사람들의 이름을 골라 내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 일본 고문헌들은 이들이 그 때부터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억지 강변이다. 아직 일본 렬도에는 귀화할 만한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 계통 《소국》들은 나중에는 마침내 일본 통일 국가에 용합되고 말았지마는 한때 그 세력은 몹시 강대해진 일도 있었다.

일본 부르조아 력사가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결국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니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실례를 하나 들자. 쯔기(津[illegible])라는 일본 학자는 자기의 저서 《일본 문화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야마도(大和) 민족이 이세(伊勢) 지방에 세력을 부식하고 이기를 근거로 하여 차차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였을 당시에 이보다 앞서 이미 조선 지방으로부터 이즈모(出雲) 민족이 건너 와 있었던 것이다. 이 민족은 이즈모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그 세력이 자못 컸었다. …그 세력은 산음(山陰) 지방은 물론, 동방으로는…북륙(北陸) 지방에 미쳤고 남으로는 산양도(山陽道)에서 하리마(播磨)를 복종시키고 다시 더 나아가서 이세, 야마도 지방에까지 뻗어 있었다.》 (우에 듀렐, 1권 40페지)

이러한 정면에서 일본 렬도 내의 통일 국가의 형성 과정은 원주민 계통 및 조선 계통 《소국》들의 정복 또는 통합 과정으로서 이루어졌다. 바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되여 있다. 이 과정에서 야마도의 왕은 지방 《소국》들을 통제하고 수탈하기 위하여 《미야께》를 일본 렬도 내 각지에 설치하였다 하며, 한편 《미마나》뿐만 아니라 《시라기》, 《구다라》, 《고마》 (일본 사람들은 고마를 고구려에 해당시키고 있다) 등 《소국》에도 이를 설치하여 공물을 받아 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서는 《미야께》를 주관하는 관리인 《미꼬도모찌(宰)》가 미마나에 출입하면서 《신라》, 《구다라》, 《고마》의 《고니끼시》 (왕의 뜻)를 불러 놓고 꾸짖기도 하고 항복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여 있다. 《일본 서기》가 말하는 이 《미마나》, 《시라기》, 《구다라》, 《고마》 등은 바로 일본 렬도 내에 있었던 조선 계통 《소국》들인 것이다.

이상의 모든 자료들은 기원 전후 시기 이후 일본 사람들이 조선 반도로 진출하였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선 사람들이 일본 렬도에로 진출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시기 조—일 관계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였다.

후세 일본의 소위 국학자들은 자기 고문헌들의 불명확한 점들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천지 개벽 이래의 일본의 남조선 지배설을 제창하였다. 이 망설이 너무나도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대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일본 고문헌들의 기사를 제멋대로 읽으면서도 그

년대만은 다소 끌어 내림으로써 이를 좀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조작된 것이 4 세기 말 이후 2~3백 년간에 아직 생겨 나지도 않은 일본의 통일 국가를 있는 것으로 날조하여 그것이 남조선을 식민지로서 《경영》했다고 하는 신판 <미마나의 미야께>설이다. 그것을 《전 세계사》는 최신판으로 받들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의 래습은 기원 4 세기에 특히 강화되였는데 이 때 그들은 지어 반도 남단의 크지 않은 부분 즉 가라 왕국 <또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하면 미마나 (任那)>의 일부를 강점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하였다.》(2 권 578~579 페지)

《일본의 종족 귀족들은 미마나와 자기네들의 섬들로부터 임의의 시각에 조선 내의 국가들 간의 전쟁에 간섭할 수 있었으며 여러 번 신라에로의 침공을 조직하였다.》(3 권 49 페지) 등등.

《전 세계사》의 저자는 조선사에 대한 연구도 없이 그저 손에 잡힌 지난날 일본 사람의 어떤 책을 망탕 베껴 놓았다.

이것은 신중치 못 한 태도이다. 물론 력사 저술에서 남들의 많은 저서들과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데까지나 신중한 분석이 가해져야 하며 자료들의 취사 선택에서는 과학적 엄격성을 기하여야 한다. więc 조선사에 깊은 연구가 없고 남의 책에만 매여 달리는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 세계사》는 다음 시기인 660 년대 신라—당 련합군의 공격에 의한 백제 멸망 당시 일본 야마도 지방의 통일 국가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병한 사실을 쓰면서 《일본의 통치자들은 반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하여 <미마나>를 점령하고 백제의 점령도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주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결과에 일본 군대는 패배하여 다만 적은 부분이 조국으로 도망쳐 갈 수 있었다. (663년)》 (3 권 50 페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옮겨 놓지 못 한 것이다. 이 때의 일본군은 침략자로서 조선에 온 것이 아니였다. 이 출병은 당시 일본 왕정 내에서 정권을 좌우하고 있던 백제 계통 귀족들이 멸망에 직면한 자기들의 고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단행한 것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백제 고국의 멸망은 그 정치적 지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변이였기 때문이다.

6, 7 세기 일본에 통일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정권 내에 융합되어 들어 갔던 조선 계통 귀족들, 특히 백제 계통 귀족들의 세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기한 《신찬 성씨록》에 등록된 전체 일본의 성씨 1, 183 개 중에서 3 분의 1은 외국 계통이며 그 대부분은 조선 계통이다. 귀족 성씨들 중에서는 수'적으로도 사실 상 3 분의 1을 훨씬 넘는 비중을 조선 계통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통일 국가 체제 수립에서 최대의 사변으로 되는 645년 일본의 《대화 개신 (大和改新)》에서도 주동적 역할을 한 세력 중에서는 백제 계통 귀족들이 우세하였다. 《대화 개신》에서 반대파를 타도하고 주동적인 역할을 한 고향 현리(高向玄理)와 승려인 민(旻)과 청안(請安) 등은 책략의 주모자들이였다. 개신 후에 현리는 국박사(國博士)로 되여 민과 함께 새로운 모든 법률 제도의 작성자로 되였다.

《일본 서기》에는 이들을 모두 <아야비또>라고 하였으며 《신찬 성씨록》에서는 《아야비또》는 《백제국 사람 다야가(多夜加)의 후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7세기 중엽 일본 왕정 내에서 백제 계통 귀족의 세력은 우세하였으나 그 반대파 세력은 은연 중에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660년 백제 멸망은 일본 왕정 내에서 이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백제 계통 귀족들을 불안케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에 의하여 개압 당한 반대파 귀족들의

세력 만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백제 지원의 출병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출병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으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출병 실패 이후 백제 제통 귀족들의 자기 세력 유지를 위한 책동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였다. 《일본 서기》는 이를 반영하는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660 년대 일본의 출병은 《미마나 회복》이나 《백제 령토의 탈취》를 위한 것이 아니였다. 이 시기 일본의 령토 문제를 놓고 본다면 본주 섬의 동북 지방의 대부분도 아직 이 야마도 국가의 장악 하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일본으로서는 이 방면으로의 진출에 부심하고 있었던 때였다.

이런 형편에서 바다를 건너 조선 반도 남부에 새로이 령토를 확장하는 문제로서의 소위 미마나 회복 문제는 도저히 제기될 수 없었다. 사실 그러한 문제는 있지도 않았다. 이것을 소위 미마나 문제로서 체계화한 것은 후세의 엉터리 없는 력사 위조자들이였다.

《전 세계사》는 이 엉터리 없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거기다 백제의 주민들이 일본 래원군에게 《완강하게 저항하였다》고 《신학설》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자고로 어느 누구도 알지 못 하였으며 또 이야기한 일도 없는 《전 세계사》 저자가 새로 창작한 황당무계한 자기류의 력사이다.

백제 주민들은 이 때에 일본군과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신라—당 련합군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 후 신라—당 련합군 내에서 모순이 첨예화됨에 따라 백제 유민은 마침내 신라와 손을 잡고 당 침략군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사실은 이러하였다.

다음으로 13~14 세기 고려—몽고 관계를 일별하자.

13 세기 30 년대부터 몽고 침략자와 대치하여 고려 인민은 40 여 년을 두고 그 어떤 외원도 받음이 없이 치렬한 반침략 투쟁을 전개하였다.

고려—몽고 간의 국가적인 관계, 당시의 표현 대로 한다면 《화친(和親)》 관계가 수립된 것은 13 세기 60~70 년대부터였다. 이 때의 고려—몽고 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종전부터의 고려 주권의 유지가 그 전제로, 기초로 되고 있었다. 때문에 사서들은 이 관계를 《화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사》가 약 90 년간의 이러한 《화친》 관계를 《거의 백 년간…고려는 몽고의 기반 하에 있었다. 고려의 왕들은 비록 왕위에 있었으나 실제 상 나라의 일체 사무를 감독하는 몽고 총독에게 완전히 예속되었다》 (3 권 538 페지)거나 또는 몽고의 봉건 관리들이 고려를 통치한 것처럼 (우와 같은 책, 같은 페지 참조) 서술한 것은 이 때의 력사를 전혀 연구함이 없이 망탕 규정하고 드는 분별 없는 론단이다.

그러면 이 때의 사실은 실지 어떻게 되여 있었던가. 1231년에 있었던 제 1 차 침입이 《화친》으로 끝난 것을 몽고 침략자들은 고려가 항복한 것처럼 제멋 대로 해석하고 그 이듬해에 고려의 중요 지반들을 통치할 임무를 가진 70 여 명의 《다로가치》 (몽고 관리의 뜻)를 파견하여 왔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왕정에서는 이들이 오자마자 모조리 처단하는 것으로써 대답하였다. 고려 몽고 전쟁의 제 2 차 이후의 전역들이 이로써 발단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약 40 년간의 전쟁이 다시 《화친》으로 끝난 후 몽고는 감히 고려를 통치하려고 덤비지 못 하였다. 마지막 《화친》 성립 당시 얼마 간 고려 수도 개경에는 또다시 《다로가치》가 와 있었으나 량국 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그 주둔군과 함께 철수하고 말았다. 그 후 고려에 주로 래왕한 몽고인들은 고려 왕의 안해로 된 몽고 공주 일행과 몽고 사신들이였다. 고려 령토로 확보된 령역 내에는 한 사람의 몽고 장군도 관리도 없었으며 고려를 통치하는 기관은 여전히 종전의 고려 봉건 통치 기구였고 주권자는 여전히 고려 왕이였다.

몽고의 고려 내정에 대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고려 왕이 몽고의 이익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 다른 고려 왕족으로 교체하려던 몽고의 음모는 고려 측의 반항에 부딪치어 번번이 실패로 끝났으며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반역자들은 고려 왕정에서 엄혹한 처단을 면치 못하였다. 이 시기 고려—몽고 관계를 《전 세계사》가 혹심하게 왜곡하게 된 것은 조선사에 조예가 없는 《전 세계사》의 저자가 고려—몽고 관계를 마치도 구라파에서의 몽고의 통치 관계처럼 착각한 데 기인한다.

13 세기 중엽에 몽고인들은 볼가강 하류에 이른바 황금 한국이라는 것을 세웠다. 그들은 루씨 땅에 그 기반을 틀어쥐었으니 루씨땅의 최고 주군(主君)은 몽고 한이였고 여러 공국들은 몽고 태수들이 관할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수백 년간에 걸쳐 루씨의 여러 공국들은 몽고의 기반 하에 있었다. 이 시기 고려의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루씨의 경우와 판이하였던 것이다.

《전 세계사》가 조선 중세사 서술에서 범한 일반적 착오는 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의 빛나는 업적을 묵살하거나 심히 과소 평가하면서 침략자의 력사, 지배 계급의 력사를 서술한 점이다. 이것은 고려—몽고 관계에서도 완전히 그렇게 되였다. 다시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하여 좀 소급해서 고구려의 대외 전쟁에 관한 례를 들어 보자.

고구려는 이미 그 건국 과정에서 기원 전후 시기부터 한 4 군, 그 중에서도 락랑군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락랑군이 종국적으로 구축된 313년에 이르기까지에도 고구려는 한, 위, 진, 연 등의 중국 대륙에 생기한 강대한 나라들을 상대로 수십 차의 전쟁을 계속하였다. 그 後 5 세기 末까지에 고구려는 외래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격퇴하고 료하 류역 이동의 만주 지역과 조선 반도의 북반부에 걸치는 광대한 판도를 령유하는 대강국으로 장성하였다.

589년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 나라 문제는 천하 만국에 대한 지배를 망상하면서 598년에는 30만의 륙해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참패 당하였고 611～614년에 그 아들 양제는 《아비의 위업》을 계승하려다가 그 자신과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612년 전쟁에서 수 양제는 고구려를 반대하여 전투원 113만에 후방 부대까지 무려 300만의 대군을 출동시켰다. 륙군 전투부대의 행군 서렬만 하여도 그 길이가 1천 40리에 달하였고 한편 함선의 총 연장이 수백 리라는 대해군이 동원되였다. 인류 력사는 이때까지 타국 침략에 이러한 대군이 동원된 실례를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희랍—페르샤 전쟁에서 이와 대비될 수 있는 규모의 군대가 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 인민은 영웅성과 애국주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반도 내부에 깊이 침입하였던 30만의 적 선봉대가 불과 2천 700 명 밖에 살아 돌아 가지 못하였던 한 가지 사실만으로써도 이 전쟁에서 침략군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였던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 반침략 전쟁과 이를 통하여 의욕된 인민의 빛나는 애국 전통을 불과 몇 줄 내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하였으며 전쟁의 과정과 고구려 인민의 투쟁 및 그 성과를 왜소화하였다.

고구려—당 전쟁도 644년부터 수십 년간 계속되였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이 전쟁을 아주 사소한 사변으로 묘사하였다. 례컨대 645년 고구려의 안시성 군민들이 진행한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그 대신 당 나라가 《남만주의 고구려의 령토를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3 권 49 페지)라고 있지도 않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였다.

고구려 인민들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은 668년 나라가 신라—당 련합군에 의하여

망한 후에도 줄기차게 계속되였다. 그들은 신라 및 백제 인민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우리 땅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항전을 계속하였으며 676년에는 조선 반도에서 침략군을 구축하였다.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은 여러 성들에 의거하여 항쟁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발해국을 창건하였다. 발해는 당 세력을 료서(遼西)로 구축하고 8 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고토를 거의 완전히 수복하였으며 200 여 년간 《해동 성국(海東盛國)》의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전 세계사》 저자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만주 국가》로 무책임하고도 타족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3 권 300 페지 참조)

8 세기 이후 우리 인민들은 고구려를 포함한 3 국 인민들의 애국적 전통을 계승하여 남북으로부터의 강대한 외적을 반대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3 국 이래의 모든 우리 중세 인민의 영웅적인 업적들에 대하여는 고구려 인민의 반침략 전쟁에 대한 서술과 같이 례외 없이 왜소화하고 외곡하고 있다.

우리 중세사의 전 과정에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투쟁이 언제나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국내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도 쉴사이 없이 전개되였다. 이 투쟁들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력사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9~10 세기 초의 약 100 년간과 12 세기 이후의 1 세기 반에 걸친 대농민 폭동들은 우리 중세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 사변들도 《전 세계사》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나 몇 마디 말로써 스쳐 지나 가고 말았다. 어떻게 되여 력사를 이렇게 서술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전 세계사》의 저자가 과거의 식민주의 학자들의 서적들에 의거하였고 또 그것을 베껴 놓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는 인민들의 반침략 투쟁이나 더우기 계급 투쟁은 서술할 리 만무하다. 바로 불행한 일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세사에서 인민들의 영웅적 항전이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끊임 없이 전개되였던 계급 투쟁들이 전혀 무시되였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만 력사가 서술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인민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민들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업적을 적히 놓고서는 조선 중세 인민사를 서술할 수 없다. 력사에서 맑스주의 원칙—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은 자기 나라와 타국의 력사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 력사에서 적용되여야 한다. 이렇지 않고 타국 력사에서는 이 원칙을 내던져 버리고 신중한 연구 없이 력사를 사실에 어긋나게 되는 대로 외곡하거나 과거의 왕조사나 식민주의 력사서들을 그대로 베낌으로써 인민의 력사를 무시하고 만다거나 하는 그러한 조폭한 저술 활동은 우리 맑스주의 사학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전 세계사》는 근세사에서도 엄중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 《전 세계사》 저자는 근세사 서술 초두에서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 개혁의 첫 시도였던 갑신(1884년) 정변을 일본인들이 조작하고 일본인들이 수행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와 함께 조선의 부르죠아 개혁 운동자들은 모두 일본 침략자의 주구로, 친일파로 규정해 놓았다. 이것도 사실을 완전히 전도한 큰 착오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그 어떤 사회 사상이나 운동을 일정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상응하는 합법칙적 현상으로 본다. 갑신 정변의 지도 사상으로 된 개화 사상과 정변을 지도한 개화파들의 개혁 운동도 바로 봉건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발생기의 합법칙적인 력사적 과정을 반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7 세기 후반기~18 세기에 걸쳐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 화폐 관계가 확대 발전되여 갔고 이것은 붕괴되여 가고 있었던 리조 봉건 통치 체제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다. 19 세기 이후 봉건 통치 체제는 인층 약화되였고 봉건적 신분 제도에도 균열이 생겨 났다. 상품 화폐의 류통은 농민층 내부에서 일정한 분해 작용을 일으키게 하였다. 몰락하는 농민들은 농전과

같이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여 인신적으로 타인에게 예속되는 일이 극히 드물게 되였으며 《자유》롭게 된 농민들은 도시에로 흘러 들거나 광산 지대로 들어 갔다. 고용 로동을 관청들에서도 광범히 사용하게 되였다.

부역 밖에 몰랐던 제반 국가 경리의 운영과 광업, 수공업 등의 생산 부문에서 고용 로동을 채용하게 된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한 극에서는 《자유》로운 로동력이 조성되고 다른 극에서는 장성하는 상업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과정이 완만하게나마 진행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우리 력사에서 자본주의 요소들에 대한 개항이 있기 오래 전부터 볼 수 있다.

즉 18 세기 후반기부터는 금, 은, 동광들에서 자본주의적 경영 형태들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 우 정규(禹禎圭)라는 관리는 왕에게 《땅이 없이 농사를 못 짓게 된 백성(無土不農之民)들로 하여금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경영하는 광산들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를 세울 것》을 제의한 바 있었다. 그의 제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새로운 광산 경영은 봉건 국가로부터 계속되는 탄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요소의 장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아 내지 못 하였다.

1858년에 이르러서 함경도 암행 어사는 자기의 견문을 왕에게 보고한 가운데서 《매개 금, 은, 동 광산들에는 수천 명의 일'군들이 모여 들고 일용 백물(日用百物)이 없는 것이 없으며 읍내 부호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일이 비일 비재이며 1천 척이나 되는 깊은 갱갱(坑坑)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 상업 자본의 장성과 그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과정은 광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일어 나고 있었다.

18 세기 70 년대 말에 봉건 정부에서 엽전 100만 냥을 주조할 때에 많은 상인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대상인 오 한주(吳漢柱)는 19 세기 초에 유기(鍮器) 매점을 하여 막대한 돈을 모았고 19 세기 50 년대에는 정부로부터 화폐 주조 청부를 맡고 자기 자본으로 원료와 연료를 구입하고 로동력을 사서 20만 량을 주조하였다. 늦어도 19 세기 50 년대부터 이름 난 평북 운전군 정정리의 납청(納淸) 유기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법으로 생산되였다. 자본가인 경영주들은 매 사람이 2~3만 량의 자본을 가지고 설비와 원료, 연료를 장만하였고 로동자들은 8 개의 공정에서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한 대'가로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매개 수공업장의 규모는 적았으나 제품의 판로는 전국적이였다. 보부상들이 다른 상품들과 함께 이를 전국 각지로 날랐다. 수공업의 다른 부문들, 례컨대 비단 생산과 같은 부문에서도 사정은 류사하였다.

상품—화폐 관계의 장성과 새로운 자본주의 요소의 발생 발전은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일층 강화하였다. 19 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 폭동의 거세찬 파도가 휩쓸었다. 봉건 통치배들은 사태를 수습하는 데 무능하였다. 절박하고 긴장한 봉건 통치의 위기는 계속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낡은 것을 대담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근대 사회를 건설하려는 지향이 당시의 복잡한 정국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봉건 통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대상인들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었던 중인 계층의 영향이 정계에서 큰 작용을 일으키게 되였다. 비로 중인 출신들인 류대치(劉大致), 오 경석(吳慶錫) 등은 개화 사상의 초기 대표자들이였다. 이들은 1860~70 년대에 선행한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낡아 빠진 봉건 통치를 청산하고 나라를 근대적 방향으로 시급히 변혁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이 개혁 사상을 지지하여 나선 선진적 활동가들은 개화파라고 불린 정치적 력량으로 결성되였는바 그 지도자는 김옥균(金玉均), 홍 영식(洪英植) 등이였다.

개화파의 정치 활동은 특히 1876년의 개항

이후 우리 나라가 반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시급히 근대적 발전의 길을 개척하려 한 더욱 애국적이고도 급진적인 성격을 띤 운동으로 되였다. 사태의 발전은 바로 이렇게 되여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갑신 정변에서 력사적으로 준비된 사회 경제적, 정치 사상적 제 요인을 전혀 묵살하고 갑신 정변과 이에 선행한 부르죠아 개혁 운동을 일본 침략자들이 조작한 것으로 력사를 완전히 외곡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신 정변 자체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다음과 같이 론술하였다.

《…일본인들은 청국에 의거하고 있는 조선 정부를 전복하고 자기의 주구들로써 구성되는 새 정부를 수립하려고 결정하였다.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궁중 변혁은 일본인들과 결탁한 조선 량반(귀족)들을 원조하여 실현하기로 되여 있었다. 이 때에 <개화당>이라고 자칭한 젊은 량반 그루빠가 형성되였다…1884년 12월 4일 일본군 부대는 왕궁을 점령하고 왕을 포로로 하였다. 주권은 <개화파>에 넘어 가고 그 지도자들은 김 옥균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였다.》(7 권 276 페지) 이것이 갑신 정변과 관련된 서술의 거의 전부이다.

여기에서는 갑신 정변 행정이 일본 군대에 의하여 진행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개화 활동가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도구이고 그 침략을 방조한 주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갑신 정변이 일본 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였으며 김 옥균이 친일파란 말인가. 자기 력사를 남보다 더 잘 아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누구도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로 황당무계한 론단이다. 개화파의 정치 활동이 가지는 애국적 반침략적 성격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물론 개화파가 신중히 타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곤난한 조건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화파의 국가 정변 준비는 1882년 이후 반동적 만청 통치층의 무장력이 우리 나라 내정을 간섭하며 조—청 반동의 련합 세력이 국내의 온갖 진보적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조건에서 수행되게 되였다. 따라서 개화파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선 침략에서 대립하고 있는 청 일 간의 모순, 특히는 일본 세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시의 조건 하에서 부득이 취하게 된 개화파의 이런 전술적 립장이 결코 개혁 운동 자체의 성격과 의의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개화파는 종시 일관하여 애국적 립장에 확고히 서 있었다. 김 옥균은 정변을 앞둔 9월 29일(양력 11월 16일)에 류 대치를 방문하고 《가령 일본 정부의 원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의사로 볼 때에는 우리 나라 사태가 절박하기 마치 배수 무량(背水無梁)과 같은지라 일본 정부의 거동을 기다릴 수 없는 터이다.》라고 말하였다. (김 옥균 《갑신 일록》(11월 16일 조) 홍 영식은 정변 직전에 《우리 나라는 이제 만일 개혁이 없이 수년을 경과하면 그때에 가서는 변혁된다 하여도 다시는 조선인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될 것 같은 것이 념려가 되여 견딜 수 없다.》(《조선 교섭 자료》 상권, 291~292 페지)라고 개화파들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었다.

물론 개화파들의 정변 준비의 불철저성,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이 아직 미약하였던 력사적 제한성 등 정변이 실패할 수 있는 주객관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들이 조국의 독립과 진보를 위한 견결한 립장에 시종 확고히 서 있었으며 그 립장에서 개혁을 주체적으로 준비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상의 자료들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우정국(郵政局) 락성연에서 정변의 첫 봉화를 올리고 다음 날 개화파 내각을 조직하고 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예견한 정강을 공포하고 개혁 사업에 착수한 것은 모두 개화파 자신에 의해서 수행된 일이였다. 그리고 개화파는 실제 상 정권

사 발전의 기본 특징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주 운동 시기가 종말을 고하고 로동 계급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지도적 력량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력사적 시기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쏘련 및 중국에 대한 전쟁 준비와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 수행에 따라 식민지 통치가 유례없는 횡포성을 띠게 된 환경 속에서 로동 운동이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급속히 장성하였고 그 영향으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비상히 고조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은 청소한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인민 대중은 전고 미문의 간고한 정세 하에서도 그가 계승한 애국주의 전통과 혁명성을 남김 없이 발휘한 것으로 특징적이다.

1925년 조선 공산당의 창건, 1926년 대중적 반일 시위 투쟁으로 전개된 6.10 만세 운동과 그 이후의 로동 운동 및 농민 운동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이 일제의 야만적 폭압 속에서도 급속한 상승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였다.

특히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혁명 운동은 그야말로 철통 같은 일제의 폭압을 박차고 일어 난 거대한 혁명적 앙양이였다. 이 혁명적 앙양의 시초로 된 것은 1929년의 원산 총 파업 투쟁이였다. 원산 일대의 산업 운수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일제 경찰의 테로적 탄압을 무릅쓰고 로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의 지원과 쏘련, 중국, 일본, 불란서 등의 로동자, 사회 단체들의 국제적인 련대성 속에서 수개월간이나 영웅적으로 전개된 이 투쟁은 각지 로동자,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로동자들의 전투적인 파업과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 났다. 1930년의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이 폭동적 투쟁으로 발전한 이후 로동자들은 《신흥 동무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전국 도처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구호 하에 [illegible] 격렬한 폭동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운동의 특성은 농민 [illegible] 로동자들의 폭동적 투쟁에 호응하여 [illegible] 으로 결합한 것이였다. 1930년 함남 단천군 농민 2천여 명이 일제 군청과 경찰을 습격한 것을 비롯하여 폭동, 시위, 소작 쟁의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의 파도가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 평안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휩쓸었고 각도 지방에서는 [illegible]수 폭동, 춘황 폭동과 같은 대규모적인 투쟁들이 전개되였다.

전국 학생들은 1929년 11월 전라도 광주에서의 조선인 녀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들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일제를 타도하자!》는 구호 하에 전국적으로 궐기하였다. 이 투쟁은 전국 방방곡곡의 학생들이 지어는 소학생까지도 일어 나서 싸운 전국적 반일 학생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는 로동자, 농민 대중이 들고 일어 나서 무장한 적을 폭력으로 반거해 나섰고 온 나라는 혁명 투쟁으로 끓는 도가니로 화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세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거세찬 투쟁에 궐기한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군사적으로 준비시켜 무장 투쟁 단계에로 운동을 발전시켰다.

1932년에 우리 력사 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되는 인민 혁명 무력인 항일 유격대가 창건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일제가 대륙 침략을 개시하고 파쑈 테로 통치를 류례 없이 강화하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에 수많은 정규군 사단들과 그 밖의 무력을 집결시킨 것과 같은 어려운 조건 밑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illegible] 항일 전쟁의 병참 기지로 전환시키고 조선과 만주의 국경 지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압록강 류역에 유격 근거지들을 창설하고 무장 투쟁과 전국의 혁명 운동을 [illegible] 발전시키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illegible] 조선으로 [illegible] 항일 유격대는 인민 [illegible] 조선 [illegible] 군사 요새 [illegible] 보천보, [illegible] 안도, 혼

춘, 동녕, 액목, 외란, 무송, 반석, 휘남 등 만주의 주요 현성을 비롯한 수 많은 군사 작전들에서 일제에게 거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일례로 1937년 6월 보천보—간삼봉 계선의 전투에서는 1천 500 여 명의 일제 정예군을 살상하였으며 1939년의 1 년간에만 하여도 적 3만 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항일 유격대에 의해서 거듭되는 군사적 타격을 받은 일제는 항일 무장 투쟁이 《국책(國策) 완수 상의 중대 문제》로서 제기되고 조선과 만주 통치의 치명적 타격으로 되였다고 비명을 올리였다. (《만주국 경찰사》 상 346 페지) 무장 투쟁의 승리적 발전, 근거지에서의 혁명적 제반 시책,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지도를 통하여 혁명적 영향은 전국 도처에 료원의 불'길처럼 파급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을 치렬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로 궐기 시켰다.

특히 1936년 5월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의 전반적 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을 일으켰다.

조국 광복회는 전 민족의 힘을 단합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혁명 강령을 제시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앞길을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투쟁 방도로써 밝혀 주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조선의 거의 전역과 중국 동북 일대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에서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그 산하에 수십 여 만의 군중을 망라시켰다.

조국 광복회 강령을 투쟁 기치로 하여 서울, 평양, 함흥, 흥남, 청진, 라신, 원산, 신의주, 부산 등 산업 중심지들과 수 많은 농촌 지대들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폭동과 파업, 소작 쟁의들이 끊임 없이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하에 그리고 일찌기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에서 조직된 군중적 토대에 기초하여 15 개 성상의 장기간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우리 나라 력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혁명 운동 사상(史上) 가장 높은 발전 단계를 의미하였으며 선행 시기 력사의 경험과 성과를 집성하여 발전시키고 8.15 해방 후의 새 력사를 준비하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1930 년대에 있어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을 가장 철저하고 명백하게 구현한 세계사의 구성 부분이다.

1920~1930 년대 로동 계급을 선두로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는 조선 력사의 서계화에서 떼여 낼 수 없는 부분이며 따라서 《전 세계사》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 세계사》가 조선사를 체계화함에 있어서 봉건 왕조나 부르조아지와 관련된 시기의 력사는 서술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령도한 인민 운동의 력사는 무시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칙적 오유를 범하게 된 리유를 우리는 리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사》 저자들이 력사 서술에서 생명으로 되는 당성의 원칙에서 리탈하였으며 동시에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사상으로써 인민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기본 사명마저 저바린 것이다.

4

이 밖에도 《전 세계사》의 조선 관계 서술에는 여러 가지 오유들이 허다하다.

그 중 몇 개만 들어 보자.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서술의 첫머리, 원

시 시대에 관한 서술에서는 조선의 신석기 문화 유적이 평양 지방, 황해 남도의 남부, 서울 지방, 부산 지방 및 동부 조선의 끝(두만강 류역) 지방 등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2 권 576∼577 폐지 및 부록 지도 참조) 이것이 누구의 견해를 답습한 것인가도 비밀이 아니다. 1930 년대 일본의 어용학자들이 내 놓은 이 곰팡이 내 나는 견해는 이미 우리 학계에서 극복된 지도 오래다.

물론 외국인 필자들이 조선 원시 고고학에 깊은 연구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남의 책을 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초보적으로 그 책의 저작 년대를 따져서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고학적 자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의 고고학계는 이 낡아 빠진 1930 년대의 일본 사람들의 견해를 매장해 버린 지 오래다. 조선 고고학에서 수십 년이란 세월은 길기 때문이다.

우리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견하였고 구석기 시대를 이은 신석기 시대는 기원 전 5천년기부터 기원 전 2천 년 기말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 도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여 있다.

다음으로 우리 고고학자들은 조선에서의 독자적인 청동기, 철기 문화의 존재 시기에 대해서도 이를 체계화한 지 오래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이것도 역시 오랜 옛날의 일본인들의 낡은 《금석 병용기(金石倂用期) 론》을 수입하였다.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금석 병용기(에네올리뜨)》란 금속 도구와 석기를 동시에 쓰던 시기라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선진 금속 문화가 들어 와서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석기를 사용하는 상태에 있었으나 상층부는 주로 사치품이나 제기(祭器) 등으로 금속을 사용하였던 시기라는 것이다.

결국 이 자들은 중국 문명의 영향에 의하여 그 동방 지역에서 금속 문화의 여명이 시작되였다는 《문화 이동론》과 같은 침략부세한 외인론으로 력사적 사실을 처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 고고학자들은 조선의 금속 문화가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철기의 사용은 중국보다 결코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중국 학자 범 문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철자의 옛 글'자는 <銕>로 썼으니 동방 이족(夷族)이 가장 먼저 제철술을 발명한 것이며 한족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중국 통사 간편》 182 폐지, 1955년 인민 출판사 판, 수정본 제 1 편) 여기의 동이족은 고조선을 포함한 것으로 리해되여야 한다.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저자들의 외인론은 이 책의 일관한 사상으로 되였다. 고구려의 건축술과 미술이 불교 수입 이후에 발전하였다(3 권 48 폐지 참조)는 것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고구려 고분의 축조 기술과 그 벽화의 주제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도리여 거기에 불교적 색채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근세사 서술에서 《전 세계사》가 범한 또 하나의 엄중한 착오는 10월 혁명의 국제적 의의와 동방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준 그 영향을 몰각하고 만 점이다.

《전 세계사》는 1919년의 3.1 인민 봉기 서술에서 10월 혁명의 영향에 대해서는 몇 마디 수식어로써 지나 가면서 그 대신 첫날부터 변절하였던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의 역할만을 일방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14 세기 중엽의 정치가 신 돈(辛旽)을 신 우(辛禑)로 혼동한 것이라든지(3 권 538 폐지), 구월산(九月山)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중간에 있다고 하여 세계사의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선의 산을 딴 지역에 옮기더니는 것이라든지(4 권 687 폐지), 대원군을 《북인(北人) 당파》의 령수였다(6 권 442 폐지)고 엉터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등 허다한 사발적 오유들에 대하여는 구태여 들지 않겠다.

이것은 얼마나 《전 세계사》의 저자가 조선

력사의 초보적 상식도 없으며 또 무책임하게 되는 대로 력사를 다루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이상에서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서술에서 나타난 오유들 중 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가 지적한 《전 세계사》의 수다한 오유들은 거의 모두가 력사적 사실들을 란폭하게 외곡한 것이다.

어떻게 되여서 이렇게 허다한 착오들을 범하게 되였는가. 그것은 조선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저자들이 의거해야 될 책에 의거하지 않고 과거 일본 침략자들의 책과 식민주의 력사 서적들에 의거하여 또 이것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력사적 사실들이 황당하게 외곡되였다.

우리는 쏘련 과학원 이름으로 된 《전 세계사》가 이러한 엄중한 착오를 범한 데 대하여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력사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전 세계사》와 함께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과거 많은 나라 인민의 력사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 사가들의 외곡날조가 극심한 조건 하에서 쏘련 력사가들이 인민의 립장, 모든 인민의 력사에 진실로 신중하게 대하는 립장을 견지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다른 부문 사회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력사 과학도 부르죠아 력사학과의 투쟁의 과학으로, 그 온갖 외곡과 날조를 폭로 분쇄하는 위력 있는 사상 투쟁의 무기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사》 저자들이 조선사 서술에서 범한 엄중한 과오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신중히 그리고 책임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한다.

쏘련 과학원은 이 엄중한 과오로 말미암아 《전 세계사》 독자들에게 미치게 될 후과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근로자 제 18 호 (루계 232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9월 20일 인 쇄 • 1963년 9월 17일

ㄱ— 330613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9 호

10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19호 (233)
1963년 10월 (상)

차 례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이 숭고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은 커다란 흥분과 감격 속에서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를 접수하였으며 지금 각급 당 단체들은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구체적인 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써 대중의 로력적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고 있으며 수 많은 혁신적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중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고도의 기술 과학적 지혜를 요하는 75 톤급 탑식 기중기를 생산 설치하여, 성공적인 시운전을 보장하였으며 덕현 광산에서는 이 광산의 생산량 증대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2천 메터의 통동갱을 관통하였으며, 함흥 동력 기계 공장에서는 자동 전기 가마, 2중식 곤로 등 다양한 가정용 전기용품들을 훌륭히 생산해 내고 있다. 우리 나라 각지 농촌들에서는 풍작 이룬 곡식을 걷어 들이는 전투에서 련일 새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열두 삼천리'벌에서, 나무리'벌에서, 함주'벌에서, 전국의 모든 곳에서 례년에 드문 성과적인 추수 소식이 풍작 소식과 함께 전해져 오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정당하며 그것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성숙된 요구와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는 우리 인민들의 숙망과 혁명적 지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기간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악전 고투하여 쌓아 올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자체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그리하여 오늘에 와서 우리 인민들은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살림살이를 마련할 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이제 다시 한 번 우리가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킨다면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은 실현될 것이며 더 휘황한 앞날을 약속하는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나라의 경제는 더욱 위력해질 것이다. 우리 인민은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사는 문'자 그대로의 지상락원에서 살게 될 것이며 빈궁과 헐벗음은 영원한 옛말로 되고 말 것이다.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는 것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지난 시기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로써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였으며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붕괴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달리는 천리마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을 관철시키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공고화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혁명의 기지—공화국 북반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다 명백한 투쟁 전망과 신심과 용기를 주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조국 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국제 혁명 세력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과거 우리 나라와 같이 락후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있던 신생 독립 국가들에 주게 될 심각한 혁명적 영향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지난 공화국 창건 15 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던 아세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 대표들이 한결 같이 인정한 것처럼 자력 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우리의 발전은 그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모범으로 된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목격하게 될 때,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제국주의로부터의 종국적인 해방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부강과 인민들의 생활 상 요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식민주의 세력에는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앞잡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 분쇄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 한 번 시위할 것인바 이것은 이 로선을 《민족주의》니, 《폐쇄된 경제》니 하고 비방 중상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게 더욱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기여로 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와 붉은 편지가 제시한 혁명 발전의 이 휘황한 전망은 전체 인민을 힘찬 로력 투쟁에로 무한히 고무하고 있다.

※ ※

사회주의 건설에서 다시 한 번 혁명적 대고조를 이룩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명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은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이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철저히 발양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선 일'군들이 혁명가적 기풍을 발휘하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정확하며 그를 집행하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각오도 비상히 높다.

문제는 혁명 과업 수행을 지휘하는 간부들이 이 력량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한 활동에서 우선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양하는 데 있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극복해 나가는 강의한 투지와 혁명적 전개력이 요구된다.

지도 일'군들이 이러한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당 정책 집행을 능숙하게 조직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제반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 나갈 수 없다.

또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은 당이 제기하고 있는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 운동을 적극 추진시키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 임무의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키고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 운동은 우리 나라 생산력 발전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할 명년도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실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력사적 숙망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부문에서 손로동과 락후한 기술을 퇴치하여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특히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며 기계화된 부문들을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중의 기술적 창안을 광범히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체 낡은 사고 방식에서 해방되여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것은 기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로동자들과 과학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원 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바와 같이 전 당이 기술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지도 일'군들은 정치 학습과 함께

기술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부단히 섭취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게 대담하게 도입하고 일반화하는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짧은 기간 내에 당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 혁명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력 갱생의 정신은 또한 로동 행정 사업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로력이 긴장된 조건 하에서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은 명년도 공업 생산액의 장성 계획도 바로 추가적 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해서 달성시켜 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 혁신과 함께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고 로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한 명의 로력이라도 절약하여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는 것은 긴요한 문제이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잘 실시하여 생산에 대한 근로자들의 물질적 자극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잘 실시하기 위해서는 로동 정량을 바로 정해주고 로동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옳게 세우며 후방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생산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가까운 년간 내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또한 자력 갱생의 정신이 표현되여야 한다.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리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풍모이며 나라의 주인으로 된 전체 근로자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시기에 나라와 인민을 위한 고상한 애국심은 바로 국가와 사회 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는 데서 중요하게 표현되여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한 그람의 철, 한 오리의 실, 한 토막의 나무라도 더 절약하여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빨리 높이는 것은 우리 인민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인민의 절실한 생활 상 요구이다.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는 제품의 질을 2~3 년 내에 선진 수준

에 도달하게 하며 그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제품의 질을 제고하며 품종을 확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자 대중들로 하여금 한 개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더 알뜰하고 쓸모 있게 만들겠다는 배려의 정신과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문에서 되는 대로 만드는 낡은 습성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며 근로자들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광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로 불러 일으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다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한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하며 근로 단체들이 이에 대한 지도를 일상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 정신을 관철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계속 철저히 도입하며 실현하는 것이다.

경험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실지 활동에서 옳게 구현한 모든 곳에서 당 정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사회주의 건설에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계속 견지하고 나아가야 할 기본 열'쇠이다. 우리는 이 열'쇠를 틀어쥐고 나감으로써만 당의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하고 모든 사업을 당의 요구에 맞게 실현하면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과 열성을 성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이 부르는 새로운 전투에로 힘 있게 전진하자.

자립적 중공업 토대와 인민 소비품 생산의 획기적 발전

손 경 준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 결정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요구와 빨리 전진하여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한 것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 영예롭고 숭고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공업으로 하여금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중공업 부문의 중심 과업은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공업으로 하여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데 있다.》

명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 과업을 실현하는 것은 이미 구축된 자립적 중공업 토대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켜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한 전원 회의 결정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관건적 문제로 된다.

* *

현 시기 우리의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생활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 더욱 유족하고 문화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되며, 자립적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은 전후 중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시종일관 인민 생활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으며 그에 적극 복무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취하여 왔다.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사회 경제 발전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였다.

이미 사회주의 건설에 들어 선 나라들은 비교적 덜 발전된 나라라 하더라도 대체로 일정한 경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산업 혁명과 경제 발전이 경공업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현대적 경공업 토대가 없는 나라들은 봉건적 수공업에 기초한 소비품 생산이라도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들어 섰다.

그러나 과거 산업 혁명을 거치지 못한 우리 나라는 경공업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 하였으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수공업도 다 몰락되였다. 약간 있었다는 경공업마저도 남북의 량단으로 인하여 남반부에 있게 되고 북반부에는 그야말로 소비품 생산이란 거의 없었다. 더우기 3 년간의 전쟁은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와 인민 생활을 여지 없이 파괴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전후 우리 나라 경제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과 동시에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중공업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인민 생활 향상과 밀접히 련결된 부문에 중점을 둘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를 일층 강화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품 생산이 자기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공업을 건설하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를 축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가 하려는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이요, 앞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중공업이요, 또한 오늘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공업이다.》(선집 제 5 권, 365 페지)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금속 공업, 전기 공업, 석탄 공업, 건재 공업, 화학 공업 등 모든 기간적 중공업 부문들이 급속히 건설되였으며 나라의 중공업 토대는 확고히 축성되였다. 더우기 7 개년 계획의 첫 3 년 간에 우리는 여러 부문들을 더 창설하고 미비하고 부족한 점들을 정비 보강함으로써 중공업 기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였다. 인민들에게는 오막살이 집 대신에 새로운 문화 주택들이 차례졌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인민들은 완전히 벗어 났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사는것 —이것이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 인민들이 남만 못지 않게 살기 위한 세기적 숙망이다. 오늘 인민들은 더욱더 유족하고 문명하게 살 것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물질적 토대와 경제 생활에서의 여유를 가지게 되였다.

현 시기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한 성숙된 요구이다.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할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에서 취한 우리 당의 조치는 바로 이러한 성숙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대책이다.

생활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공업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 부문들을 발전시킨다면 오늘 인민 소비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더 좋은 문화 주택에서 일체 가구들과 문화 용품들을 갖추고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살게 할 수 있다.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이와 함께 현 단계에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정확히 보장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은 지난 기간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것은 인민 생활을 급속히 제고시킴과 함께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정세와 우리 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였다. 결과 인민 생활 향상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적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가질 수 있게 되였다.

생산의 계통적인 급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축적을 부단히 증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축적은 궁극에 가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축적을 위한 축적으로 될 수는 없다.

소비를 계속 장성시키는 한편 축적도 그 효과를 더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향 상시킬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축적과 사회주의 건설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한다.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여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확대한 축적의 효과를 더 잘 나타내게 함으로써 소비를 급격히 장성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인민들의 열성을 제고시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 생활을 급속히 제고시킴과 동시에 금후 중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서 우리 당의 금번 조치는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가일층 촉진시킬 것이다.

오늘 남반부 인민들은 18 년간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굶주림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생활

온 날을 따라 암담해 가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인민들 속에서는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새로운 목소리들이 높아 가고 있고 정상배들은 서로 물고 싸우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눈에 띄게 좋아지고 경제적 위력이 강화된다면 조국 통일 위업의 실현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원칙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그의 구현인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방침의 우월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시위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이 오늘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한 과업이 조성된 현 조건에서 가장 정당한 조치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

금번 전원 회의에서 명백히 제시된바와 같이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은 두개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금후 중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다.

중공업으로 하여금 인민 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경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 요구되는 기계 설비 및 원료, 자재들을 충분히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오늘 경공업을 발전시켜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며, 농촌 경리에서 대자연 개조 사업을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2모작을 실시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대형 및 소형 기계들과 염화 비닐을 비롯한 수지 제품 원료와 화학 섬유, 각종 화학 자재 및 금속 자재들이 방대하게 요구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보장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못 하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

중공업 부문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화학 공업, 금속 공업에 살을 붙여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기계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그것을 더욱 정비 보강하고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형 선반과 단능 설비 및 특수 설비를 생산 보충하여 기종 간의 불균형과 리용에서의 불합리성을 퇴치하며 자동화 수준을 보다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개편된 기계 제작 공업에 대한 관리 지도 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킴으로써 기계 제작 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 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기계 공장들의 정리 사업을 계단별로 정확히 조직 진행하여야 하며 보다 완성된 전문화, 협동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설계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설계 조건을 잘 보장하

어 주며 중요 제품 대상별로 전문 설계 기관을 조직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이며 설계를 생산에 선행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열구 엔진, 관개용 양수기, 뜨락또르, 자동차, 현대 농기계 등 각종 선진 농기계들과 경공업 부문에서 생활 필수품 생산에 요구되는 소형 공작 기계, 프레스, 소형 압연기, 인발기, 수지 가공 설비를 비롯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제철 및 제강소들의 능력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재가공 제품의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용광로, 평로, 전기로들에서는 원료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 공정을 부단히 개선하며 로의 보수 정비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현존 생산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선철과 강철 생산을 증대시키며 스프링강, 탄소공구강, 저합금강, 내산 내열강, 구조용 합금강 등 각종 질 좋은 합금강들과 특수강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압연 강재 생산 부문에서는 그 품종과 규격을 더욱 확대하여야 하며 일용품 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얇은 박판, 가는 철선 등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압연 강재 생산에서 박판 생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현존 생산 능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박판 로루의 질을 제고하며 황해 제철소 박판 직장의 건설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 도금 설비들을 더욱 보충하여 도금판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철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철선 연신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남포 제련소에서 연신기 설치 공사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강관, 와이야 로프 생산을 증대시키며 특히 와이야 로프 생산에서 연삭 비중을 제고시켜야 한다.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제련소들을 정비 보충하고 제련 실수률을 제고함으로써 동, 연, 아연, 수은 등 각종 유색 금속의 생산을 증대시키며 특히 유색 금속 압연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원료 및 부원료 관리 사업과 소결로, 용광로, 전해조 등 설비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표준 조작과 기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남포 제련소 압연 직장의 확장 계통 건설을 추진시켜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비날론을 비롯한 화학 섬유와 염화 비닐 등 합성 수지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질소 비료, 린 비료를 비롯한 각종 화학 비료와 농약 생산을 증대시키며 가소제, 접착제, 각종 염료, 도료, 안료, 화학 시약 등 화학 자재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하여 명년에 아오지 지구와 흥남지구에 각각 1만 5,000 톤 능력의 암

모니아 생산 능력을 새로 조성하고 흥남 지구에 류린안석회 비료, 합성 뇨소 생산 능력을 새로 조성하여야 한다. 각종 농약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헥사클로란 생산을 증대시키고 디디티 생산을 시급히 정상화하는 한편 2.4 디, 피시피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다.

비날론과 그리고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합성 수지 제품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현존 설비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강화하고 기술 관리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실수률을 높이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산, 알카리 기초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인조 섬유, 유리 제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가성 소다, 탄산 소다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가성 소다 생산 증대를 위하여서는 신설 부문에 대한 기술 관리, 설비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제고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미 있던 가성 소다 생산 계통에 대한 개건 확장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가성 소다 생산량의 장성에 따라 염소 가스 후처리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동시에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수은, 카바이드, 전력, 소금 등에 대한 절약 사업을 강화하며 그의 소비 원 단위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공업이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이 바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은 또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생활 필수품 직장을 더욱 확장하며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여 전기 다리미, 전기 곤로, 세탁기, 선풍기, 랭장고, 재봉기 등 철제 일용품, 라지오, 축음기, 자전거, 유모차, 타자기, 계산기, 시계 등 문화 용품, 옷장, 이불'장, 침대와 안락 의자 등 목재 일용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 성진 제강소, 영안 화학 공장을 비롯하여 중공업 부문의 거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원료 원천에 기초한 생활 필수품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질 좋은 다종 다양한 일용 필수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함흥 전기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자체로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 생활 필수품 직장의 기술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명년에는 금년도 계획에 비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무려 7 배 이상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성진 제강소에서는 6 배, 강선 제강소에서는 10 배, 순천 화학 공장에서는 7.6 배로 장성시킬 예비를 찾아 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중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존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한다면 생활 필수품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막대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우리 당이 생활 필수품 생

장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생활 필수품 직장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모든 중공업 공장, 기업소들에서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 원료, 자재를 시급히 보장하고 소요되는 로력과 경험 있고 우수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조절 배치하여 생활 필수품 직장을 완전히 정비 확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속히 시제품 생산을 끝냄으로써 년내로 명년도 생산 준비를 갖추며 래년 초 생산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다른 하나의 과업은 중공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다.

그러한 준비를 위하여서는 공업의 제1차적 공정에 속하는 채취 공업과 그리고 전력 공업의 발전을 선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은 명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채취 공업의 발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가공 공업 생산의 증대를 위해 필요한 원료를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채취 공업 부문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사상 동원 사업과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광석과 석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일대 비약을 가져 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채취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우선 이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 부문에 대한 보장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하며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장들과 금속 공장들에서는 권양기, 압축기를 비롯한 기계 설비, 적재기, 레루를 비롯한 수송 기재 등 광산, 탄광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

채취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갱 건설과 굴진을 채굴에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키는 것이다. 굴진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생산의 정상화와 기술 개건을 기대할 수 없으며 광석 및 석탄 생산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다.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는 당면한 생산에만 몰두하면서 굴진에 대하여 경시하는 현상을 근절하고 굴진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자재 등을 제때에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고속도 굴진 운동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채취 공업 부문에서 설비에 대한 관리 사업과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광산, 탄광들에서는 공무 동력 직장의 역할을 높여 부속품 생산을 증대시키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을 개선하여야 하며 갱내 로력 비중을 증대시키고 로력 조직을 합리화하며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확립하고 특히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중공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서는 또한 전력 공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켜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급속히 장성하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력 공업의 발전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하여서는 기존 발전소들과 중소 규모 발전소들의 능력을 제고하며 강계 및 운봉 발전소와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조업 개시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래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은 물론 극히 방대하고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확고히 기초하여 제기된 성숙된 요구이다.

문제는 모든 경제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어떻게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적 지혜를 계획 실행에로 한결 같이 조직 동원하며 천리마 운동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래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는 다른 부문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모든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의 본질을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를 무조건 옹호 관철하는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특히 금번 전원 회의 결정과 전원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자기 부문 사업과 밀접히 련결시켜 연구한데 기초하여 그 집행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며 혁명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또한 성, 관리국,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안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 필수품 생산과 야간 생산에 대한 지도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 지도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지휘 성원들을 잘 꾸리고 생산에서 그들의 지도 수준을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 속에서 방식 상학과 실무 교양을 위주로 하는 상학조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기술 학습과 실무 학습을 일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반장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은 오늘 기업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작업반장들은 생산 현장에 있는 지휘 성원들이다. 그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 생산의 성과 여부가 크게 좌우된다. 그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술 실무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을 강화하고 기술 기능 양성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자들을 해당 전공 부문에 조절 배치하고 그들을 고착시키며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중공업 부문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획화에서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모든 지도 일'군들은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어김 없이 실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며 협동 생산 규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획 수행에 필요한 원료를 정확히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성, 관리국 자재 상사들의 사업 체계를 정확히 수립하고 그의 역할을 일층 높여야 한다.

명년도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을 년초부터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명년도 생산 준비와 월동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동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들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며 생산과 근로자들을 위한 난방 시설을 완비하여 월동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춤과 동시에 동기 건설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월동 준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상과 같은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이에 대한 당 위원회들의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당 정책 집행 정형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며 필요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사업 특히 간부들과의 사업에 일상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 실행에서 결정적 고리로 된다. 모든 경제 기관들과 중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당이 제시한 10 대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를 계속 공고 발전시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으로써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준비 있게 임하자.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자

박 룡 성

1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는 명년도에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경공업 부문 앞에는 3억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수지 제품, 금속 제품, 화학 제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목재 가공품, 초물 제품 등 맵시 있고 아름다우며 더욱 질기고 쓸모 있는 다양한 일용품과 맛 있는 식료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한 중심 과업이 제기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을 135%로 급속히 장성시키며,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최근 1~2 년내에 3만 종 이상으로 확대하며 모든 제품의 질을 2~3 년내에 선진적 수준으로 높일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은 시종일관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키며 경공업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데 거대한 력량을 경주하였으며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오래 전부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특히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여 왔으며 김 일성 동지의 1961년 6월 27일 교시와 창성 로작을 비롯한 일련의 간곡한 교시들에서는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 방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였다.

경공업 발전을 위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방 전에 일제는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하여 지어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수공업마저 말살하여 버렸으며 우리 나라에는 사실상 경공업이 거의 없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이 새로 건설한 경

공업도 전쟁에 의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후 빈터 우에 경공업을 새로 창설하는 길에 들어 선 우리는 극히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경공업 기지를 꾸려 놓았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켰다.

우리는 해방 직후 연필, 단추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인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품들을 다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의 상점들은 완전히 우리의 손으로 만든 상품으로 꾸려졌으며 인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품을 어느 하나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인민 소비품은 량적으로 급속히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종도 확대되고 질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각종 염화 비닐 제품이 생산되고 직물과 피복 생산이 점차 개선되여 사람들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더욱 아름답게 되였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성과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며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공업 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확증하여 준다.

그러나 우리의 경공업은 아직도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 하였으며 인민 소비품의 품종과 질에서는 부족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전반적으로 발전되고 인민 생활이 일층 향상된 오늘의 현실은 생활 필수품 생산 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변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에 의하여, 오래 동안 보존하여 오던 모든 가장집물을 다 잃어 버린 우리 인민들은 이제까지는 살림살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꾸려야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생활이 더욱 향상된 조건에서 소비품에 대한 새로운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더 질이 좋고 다양한 가지각색의 일용 필수품과 문화 용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구두 한 가지를 가지고 사시절 계속 신었다던 지금에 와서는 철을 따라 신는 각종 신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촌 문화 주택과 도시의 다층 주택에서 살게 된 근로자들은 이에 어울리는 문화적인 각종 가정 용품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은 라지오, 사진기, 각종 악기류 등 다양한 문화 용품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여 놓은 강력한 자립 경제를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보다 부유하고 보다 문화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가 지난 기간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 고투하면서 자립 경제를 건설한 목적도 결국은 전체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우리가 력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중공업을 건설한 것도 중공업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케 함으로써 인민 소비품 생산을 증대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현 시기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인민들의 생활을 더 빨리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 기초를 더 빨리 튼튼히 만드는 것으로 된다.

이 과업의 해결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면서 문명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조국 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추구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불패의 힘과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우리 나라의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현 시기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과업은 우리들에게 가장 보람 있고 영예로운 전투적 과업이며 특히 경공업 부문 일'군들의 가장 중요하고 영예로운 과업으로 된다.

2

우리가 최근 년간 해결하려는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과업은 종전의 요구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요구되는 모든 제품을 어느 것이나 다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종전에 해 오던 것을 좀더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 랭장고, 전기용품, 각종 문화용품 등 새로운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우리가 과거에 보지도 못 하고 이름도 모르던 것까지도 우리 인민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다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는 초기에 우선 먹고 입고 쓰는 문제 즉 의복, 신발, 양말 등 대중 용품, 아동 용품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모든 것과 함께 인민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문화 용품, 특수 상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품종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 소비품의 품종과 질에서 우리 인민의 각이한 취미와 기호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성별, 년령별, 직업별 그리고 계절적 및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모든 수요를 다 해결하며 매개 지방의 생활 조건과 관습에 따르는 각이한 기호를 다 고려하여 누구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자, 농민 특히 가정 부인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로력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종전에는 매개 가정에서 만들던 각종 부식물까지도 더 많이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선진 수준으로 올려 세워 우리 나라의 인민 소비품이 어느 것이나 국제 시장에서 남의 상품보다 못지 않게 하여야 한다.

1964 년도 인민 소비품 생산의 품종 확

대와 질 제고의 구체적 방향은 우선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탁기, 선풍기, 랭장고, 재봉기, 전기 다리미, 전기 곤로, 그리고 옷장과 이불장, 침대와 안락 의자 등과 법랑 철기, 알루미니움 그릇, 아름답고 질 좋은 도자기와 유리 그릇 등 가정 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라지오, 축음기와 악기, 자전거, 유모차, 타자기, 계산기, 사진기, 시계 등 각종 문화 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보다 훌륭한 학용품, 아동 용품, 운동구, 놀이'감 등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며 신발, 모자, 비옷, 양산, 화장품, 가방, 트렁크, 초물 제품, 아름다운 여러 가지 화학 수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방직 공업 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질 좋고 다양한 천을 더 많이 짜야 하며 편직물 생산을 증대하여 내의, 양말, 각종 메리야스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피복 가공을 개선하여 더 맵시 있고 편리한 가지각색의 기성복을 더 많이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누구나 계절에 따라 좋은 옷을 갈아 입으며 모양 있고 단정한 옷차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식료 공업 부문에서는 된장, 간장, 기름 등 부식물 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깨끗하고 맛 있고 영양가 높은 각종 식료품을 값싸게 더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

명년도에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전투적 과업은 실로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의 생산을 량적으로 135%라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면서 이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업은 몇 년을 두고 단계를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단 기간내에 다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서서히 하자는 관점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달라붙어야 한다.

비록 우리 앞에 세기된 과업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 당적,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현 시기 우리에게는 인민 소비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지난날 우리에게는 경험도 기술도 없었으나 오늘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고 현대적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며 더 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

3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보장하는 기본 방도는 우선 지도 일'군과 생산자 대중 속에서 한 개의 물건을 만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며 알뜰하고 쓸모 있게 성심성의로 만들겠다는 높은 책임성과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확립하는 데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선집 제 6 권, 256 폐지)

품종 확대와 질 제고는 단순한 기술 경제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세기적 락후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인민 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자는 력사적인 과업으로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높은 자각성과 사상 동원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품종 확대와 질 제고의 중요성과 의의를 정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인습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지도 일'군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이 당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면한 금액 상 계획 수행에만 치중하면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기술 일'군이나 하부 일'군에게만 일임하고 품종 확대 계획과 질 제고 계획을 미달하거나 시제품 견본품 지어는 어떤 제품의 한 개 부분품을 생산하여 통계 수'자를 늘구는 것으로 이 사업을 대치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지도 일'군들로부터 공장의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원들이 제품을 되는대로 만드는 낡은 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진실로 당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으로 한 마음 한뜻이 되여 어느 공장, 어느 작업반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제품을 정성껏 만드는 아름다운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공업은 단시일 내에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지 못 하고 중요한 골간들을 형성하여 놓은 데 불과하다. 아직 우리의 경공업은 생산 부문간, 생산 공정 간의 사소한 부족점들을 퇴치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의 일부 제품들은 완전한 가공을 하지 못 한 채 반제품 상태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 부문과 공정간에 빠진 공정들을 새로 보충하고 일부 불합리한 것들을 통합 정비하여야 한다.

현존 공장들을 더욱 규모 있게 알뜰하게 정비하며 모든 공장에서 생산 공정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는 것은 생산의 량적 장성에서 뿐만 아니라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모든 공장의 정비 방향과 선후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망성 있게 꾸려 나가며 공장의 기술적 장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우선 식료 공장을 더 잘 꾸리는 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모든 식료 공장들의 원료의 반입으로부터 완제품의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 공정을 기계화

하며 생산 문화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방직 공장들에서는 염색 및 후처리 가공 공정을 잘 정비하고 매개 도에서 소형 염색 시설을 갖추며 가공 기술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직물의 색갈과 문양을 일층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지 공장들의 정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최단 시일 내에 모든 제지 공장들에서 팔프 생산 공정과 초지 공정을 완전히 꾸리며 특히 팔프 선별 장치를 갖춤으로써 종이의 질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일용품 공장들에서 각종 칠제 일용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금 전문 직장과 형타 직장을 꾸리고 그 기술 장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공업 기업소들의 정비 사업과 함께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체계를 옳게 세우는 것은 극히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설비 리용률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며 생산의 급격한 량적 장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현행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중한 타산과 세밀한 준비 밑에 수송 조건, 원료 보장 조건, 기업소의 설비 및 기술 상태와 생산 조건 등 제반 조건을 세밀히 연구하고 타산하여 순차별로 전국적 및 지방적 전문화 체계를 세우며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고 한 부문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화 체계의 중요 방향은 된장, 간장을 비롯하여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군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며 비교적 높은 기술을 요하고 군에서 생산하기 적당치 않은 품종은 도'적으로 전문화 하도록 하며, 더욱 높은 기술이 필요하고 중앙적으로 원료를 보장하며 몇 개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전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과 중앙적으로 다량 공급하는 직물, 신발을 비롯한 중요 제품들은 지역적 및 전국적 범위에서 전문화하는 것이다.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의 전문화는 원칙적으로 품종을 축소하지 않고 품종을 확대하는 조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화를 한다 하여 이미 생산하던 품종을 다 집어 치우고 하기 쉬운 몇 가지 품종만 생산하려는 경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반대로 품종을 전문화하지 않고 설비 원료 등 구체적인 조건도 타산하지 않고 한 기업소에서 수백 품종을 생산함으로써 며칠에 한 번씩 생산을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중공업 부문 특히 기계 공업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공업은 경공업에 더 잘 복무함으로써 경공업에 필요한 방직 설비, 제지 설비, 식료 가공 설비, 소형 공작 기계, 공구, 지구, 계기, 실험 기구, 형타 직장 조직에 필요한 설비 등 각종 기계 설비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책임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경공업 공장들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자체 내에 생활 필수품 직장을 신설 확장하고 기술 장비를 개선 강화하여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질 좋은

각종 철제 일용품, 가정용품, 문화 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 소비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함에 있어서 원료의 질을 높이며 그 공급을 정상화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원료의 정확한 보장— 이것은 인민 소비품의 생산량을 증대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는 기본 고리로 된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휘하여 이미 축성한 원료 기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료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국가 자재에만 의존하면서 우에서 보장해 줄 것만을 기다리는 경향을 철저히 퇴치하고 자체의 원료 기지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원료 기지 조성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공장의 원료로 직접 쓸 수 있는 것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형 화학 공장을 광범히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년도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 대한 방대한 과업은 중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질 좋은 원료를 더 많이 제때에 공급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질 좋은 원료를 제때에 공급해 주지 않고 월말이나 년말에 가서 일시에 공급해 주게 되면 생산 기업소에서는 생산에서의 파동성을 극복할 수 없게 되고 질 제고에 관심을 돌릴 수 없게 된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생활 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염화 비닐을 비롯한 수지 제품 원료와 화학 섬유, 그 밖에 가소제, 가성 소다, 탄산 소다 등 각종 화학 자재와 각종 규격의 금속 자재를 제때에 질 좋게 생산 공급하여야 하며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더 질 좋은 목화, 아마, 대마, 참견 등 각종 섬유 원료, 유지 작물, 담배 등을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조직 지도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은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요구하는바 그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의 특수성과 관련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인민 소비품은 전국 도처에서 그에 대한 수요가 비할 바 없이 다양하며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어느 제품을 막론하고 한 가지를 만드는 데도 여러 가지의 설비, 자재, 기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일반적 호소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빈틈없는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지난 기간의 경험은 구체적인 조직 사업이 보장되지 못할 때에는 생산이 중단되거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옳게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우선 계획화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 계획은 반드시 생산 계획과 밀접히 련관시켜 보장 조건이 정확히 맞물리도록 작성되여야 하며 계절과 년령, 성별, 기호에 따라 수요에 맞게 품종별, 재질, 형태, 규격, 색갈별로 빠짐 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

여야 한다.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노선을 더 잘 관철함으로써 설비 상태, 원료, 자재, 로력 등 생산의 모든 요소들과 대중의 수요를 면밀히 타산하여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정확히 보장하며 계획 실행에서 품종별 생산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제도와 규률을 강화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제품의 표준을 규정하고 그에 의하여 반드시 생산하도록 규률과 제도를 정확히 세울 것이며 특히 원료를 쓰는 첫 공정부터 제품의 포장, 상표에 이르기까지 매개 개별적 품종에 대한 검사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과학 연구 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며 기술 기능자 양성 사업을 강화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생활 필수품 생산기술을 소유한 기술자, 고급 기능자들을 다 찾아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며 모든 기업소들의 기능공들을 고착시키도록 심중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중앙 및 도, 시에 견본 진람관을 꾸리며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대 공장에는 상품 견본실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생산자들의 적극성과 창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하도록 도덕적 및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등급 차이에 따르는 로임의 차이를 정확히 설정하며 제품의 등급에 따라 가격 상 현저한 차이를 두는 방향에서 가격을 개정하며 규격 및 가격 제정 사업에서 번잡한 사무 절차를 극력 간소화하여 지나친 실무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우수한 생산자들과 단체들을 정확히 평가하여 주며 제품에 대한 사회적 합평 사업을 조직하는 등으로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지도 일'군들이 직접 하부에 내려 가서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며 한 점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 *

인민 소비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는 결정적 담보는 각급 당 조직들이 당이 제시한 방침을 튼튼히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다.

최단 기간에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이 방대한 과업은 결코 해당 부문 일'군들의 힘만으로써는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곳에서 오직 전 당적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은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키며 그를 정확히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처에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이 창조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제의 전쟁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

김 룡 진

미제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미증유로 자라난 독점 자본의 지배와 그의 리해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 전쟁의 진정한 사회적 성격, 보다 정확히는 진정한 계급적 성격의 증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의 외교사 가운데서 찾아질 것이 아니라…경제 생활의 기초에 관한 자료의 총체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전집 제 22 권, 243 폐지)고 하였다.

그러므로 독점 자본이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근원은 사라지지 않으며 제국주의 정책에서의 《전환》, 《변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대 군사 과학의 발전, 열핵 무기의 출현을 론거로 삼으면서 미제 침략 계층의 《리성》, 그들의 전쟁 정책에서의 《변화》를 운운하며 미제가 더는 전쟁 정책에 리해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였다고 떠들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배신자들의 이러한 기만이 핵 전쟁의 공포증에 사로잡혀 미제의 전쟁 정책의 본질을 보지 않으려 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계급 투쟁의 원칙을 부인하며 미제의 전쟁 정책을 엄폐하며 세계 인민들의 혁명적 의식과 투지를 마비시키기는 추악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제의 전쟁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과의 호상 관계, 미제의 전쟁 정책에 반영된 그의 정치와 경제의 호상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현시기 미제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미화 분식하는 부르죠아 반동 변호론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리론》을 분쇄하며 인민 대중을 미제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궐기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미국 독점 자본은 미제의 대외 침략, 전쟁 정책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야수적인 전쟁 과정에서 비상히 팽창되였다.

특히 제 1 차 대전과 제 2 차 대전은 미국 독점 자본을 전례 없이 급격히 비대케 하였다. 전쟁은 문'자 그대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황금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1 차 대전 전까지만 하여도 구라파의 채무자였던 그들은 대전 후 거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대전 전의 경제의 심한 불경기는 전시와 전후의 급격한 앙양으로 바뀌였다. 공업 생산은 1913~1929 년간에 70% 나 장성하였고 상선은 전쟁 기

장에만도 실로 10 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대독점 회사들의 순 소득 총액은 1912년에는 38억 딸라였는데 1917년에는 벌써 105억 딸라에 달하게 되였다.

이와 같이 1 차 대전은 미국 독점 자본의 지위를 급격히 제고시켰으며 20년대의 미국의 《번영》을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생산의 집적과 집중 과정이 가일층 촉진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의 발전과 치부에서 제 2 차 대전이 준 영향은 제 1 차 대전에 비할 바 없이 크다. 실례로 미국의 전쟁 상인들은 인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270억 딸라의 순 리윤을 얻었으며 생산 자본을 2 배 이상 증대시켰다. 1939~1944년까지의 5 년 동안에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1.5 배나 증가하였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훨씬 초과하게 되였다.

그러나 제 2 차 대전 후 미국 독점 자본은 전시에 진행한 공업의 미증유의 확장과 전후의 생산 능력의 엄중한 과잉을 한편으로 하고 근로자들의 빈궁화로 인한 상품 판로의 위축된 상태를 다른 편으로 하는 사이의 첨예한 모순이 지체 없이 독점 자본가들을 위협하게 되였다. 대전 기간에 급격히 비대해진 미제의 방대한 《과잉》 자본은 즉시 유리한 투하지를 갈망하게 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대전 후 변동된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제거》하고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 말살함으로써 세계 제패 계획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망상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게 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경제를 대대적으로 군사화하고 전쟁 준비를 강화하며 전쟁 도발 책동을 로골화하는 데서 출로를 찾으려고 발광하였다.

미제에 의한 조선 전쟁의 도발은 그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된다. 조선 전쟁 시기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군수 생산은 실로 지난 대전 시기의 수준에까지 접근하였다.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은 1939~1946년의 8 년간에 31% 장성하였는데 1950~1953년의 4 년 동안에는 25% 장성하였다.

조선 전쟁 시기에 진행된 거액의 전시 투자는 비행기, 화학, 특수 금속, 원자 무기 공업 등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의 군사화가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전쟁은 미국 경제를 제 2 차 대전 후에 래습한 첫 과잉 생산 공황(1948~1949년)의 와중에서 《구원》하였다.

조선 전쟁에서의 미제의 패배와 정전의 실현은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다더 심화시켰다. 조선에서 정화가 실현된 이후 1953년~1954년 공황이 닥쳐 왔으며 또 그 상처가 미처 가시워지기도 전에 1957~1958년 공황의 큰 파도가 휩쓸게 되였다. 그에 뒤'이어 1960~1961년의 공황이 일어 났으며 지난해 말부터 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닥쳐 오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 지배층들은 병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며 《세계적 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랭전을 고취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 년간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여 강행된 쿠바에 대한 무력 침공, 남부 월남에서의 《선전 포고 없는 전쟁》, 라오스에서의 내전 확대를 위한 책동, 남조선, 대만 등에서의 군사적 소동,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인도 반동층에 대한 군사적 사촉 등 끊임 없는 침략과 전쟁 소동은 바로 그것을 말하여 준다.

미제는 이를 위하여, 극히 축소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선 전쟁 후 지난 《평화적》 10년간(1954~1963년)에 군사비로 4천억 딸라나 지출하였다. (그의 절반은 각종 현대 무기 생산을 위한 데 지출되였다) 케네디 행정부는 1963~1964 회계 년도에 군사비(간접 군사비까지 포함하여)로 국가 예산 총액의 80% 이상을 책정하고 있으며 년간 총 생산물의 25~30%를 군사적 수요에 탕진하고 있다.

미제 지배층들은 이와 같이 방대한 군사비 예산에 기초하여 침략과 전쟁 도발 준비를 위한 《전쟁 전략》을 작성하고 있으며 나토, 쎄아토, 쎈토 등 각종 침략적 군사 블럭들을 조작하여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며 세계 도처에 침략적 군사 기지들을 확장하고 있다. 그들은 《전쟁 전략》에 의거하여 전면 핵 전쟁을 위한 준비를 발광적으로 추진시키는 한편 상용 무기 생산을 자극하기 위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의 기만적 간판 뒤에서 핵 무기의 완성과 그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이 성립되기 바쁘게 미제는 불란서에 새로운 핵 비밀을 제공할 데 대하여 주동적으로 제의하였으며 카나다와 핵 탄두 공급에 관한 비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핵 장비를 둘러싸고 서독과의 《군사 협조》를 강화할 데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발광적인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의 주되는 목적의 하나는 미국 독점체들의 군수 생산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를 조성하는 데 있으며 그들의 전쟁 정책 역시 미국 독점체들의 리해 관계를 반영하며, 그에서 직접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면 이와 같은 계속적인 군비 확장과 전쟁 정책이 미국의 사회 경제에 어떠한 현상들을 산생하고 있는가?

독점 자본은 전쟁 정책의 어떠한 고리들을 통하여 팽창되는가?

오늘 미제의 정치, 경제적 제 모순의 첨예화와 장기간에 걸치는 전쟁 정책의 주요한 결과는 정치에서의 반동화의 비상한 추진, 그리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군사적인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로의 전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배적 독점들에의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완전한 종속, 독점 자본과 군벌파의 인적 결합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 미국의 금융 대왕들은 군비 확장과 전쟁 정책을 강요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파쑈적 통치 체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긴장 상태를 부단히 격화시키고 있으며 독점체들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하나의 기구로 융합시키고 있다.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살인 장군으로 악명 높은 현역 군인 출신이였고, 현 대통령 케네디 형제는 반공 특무와

《총아》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관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전후 국방 장관들은 모두다 대자본가들이였고 (현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을 지낸 자로서 군수 생산과 아주 밀접한 련계가 있다) 국방 차관, 륙, 해, 공군 사령관들도 역시 그들 자신이 자본가이거나 혹은 독점 자본가의 수급 사환'군들이다. 동시에 많은 퇴역 고급 장교들이 독점 회사들의 지배인, 리사장, 중역 등의 자리에 추대되고 있는데 1959년 현재 100 개의 대회사들에 채용된 이런 자들의 수는 1,400 명 이상에 달하였다.

대 독점 자본가-관료-군벌, 바로 이러한 인적 결합은 미국의 지배층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가 하나의 커다란 《군사-산업적 결합체》 이며 행정부와 군부는 최대한의 리윤 획득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는 대독점들의 공동 봉사 기관으로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정책에서의 독점체들의 치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의 거액에 달하는 군수품 구매와 주문에 의하여 보장된다. 여기서 부르죠아지를 위한 국민 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서의 국가 예산이 결정적인 역할을하고 있다. 국가는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로부터 짜낸 막대한 세금의 대부분을 공개된 또는 은폐된 형태로서 군사비에 돌리며 독점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시장과 상품의 판로를 제공하며 만성적인 조업 부족으로 허덕이는 기업들에 《활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리하여 군수품 주문의 접수, 국가에의 군수품의 판매는 독점 자본이 군사비의 기본 담당자인 근로 대중을 착취하여 거액의 리윤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는 기본 통로로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생산의 집적과 집중을 촉진시키게 된다. 실례로 1961~1962 회계 년도의 군수품 생산 계약 총액의 약 80%를 100 개의 대군수 기업체들이 담당 수행하였다. 군수품 생산이 독점체들을 얼마나 비대케 하는가 하는 것은 《제네랄 모터스 회사》(여기에는 퇴역 고급 장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다)의 실례가 말하여 주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대전 시에 85억 딸라에 달하는 주문을 받아 정부 투자금으로써 100 여 개의 새 공장을 건설하고 낡은 공장들을 개건 확장하였으며 현재 88억 딸라의 자산과 53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최대의 독점체로 자라났다. 기타의 대회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류사하다.

군수품 생산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주문은 독점체들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각종 기술적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국가는 군수품 생산과 관련된 기술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각종 보조금과 장려금을 독점체들에게 제공한다. 지금 미국에서 새 기술 도입에 지출되는 비용 총액의 60% 이상은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데 그의 압도적인 부분은 군수 기업체들에 배당되고 있다.

국가로부터 기술적 특혜를 받은 독점체들은 그것을 다만 군수품 생산 부문

만이 아니라 소비재 생산 등 기타 부문에까지 도입함으로써 시장 쟁탈전에서 자기들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는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정책에서의 각종 경제적 《조절》 및 《통제》 시책들을 통하여 독점들에게 독점적 리윤을 보장해 주고 있다.

대독점 자본의 직할 사무소인 정부는 주요 제품(그것은 주로 군수품이다)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독점체들에 《할당》하고 있으며, 독점이 생산한 전략 물자들과 무기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매점하는 가격 《조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전후 군수 물자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10~12 배나 인상되였으며 1951~1960년에 판매된 거의 같은 대수의 군용 항공기와 민용 항공기의 가격 총액을 대비한다면 군용 항공기의 가격 총액이 민용 항공기의 가격 총액의 5 배에 달한다.

이밖에도 가격 《조절》 대책에는 증대되는 군사비 지출을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세납 조치의 실시, 국가 수입 및 지출 항목의 변경, 군수 생산 독점들에 대한 저리 신용 대부, 공채와 지폐의 란발 등 금융 거두들에게 리롭게 작용하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가진 각종 시책들이 포괄된다.

국가적 《통제》도 이에 못지 않게 군수품 생산에 봉사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 물자》의 명의로 일련의 희유 금속을 비롯한 중요 원료들과 설비들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군수 생산 독점들에게 돌려 주고 있다. 또한 제품의 규격 제정 및 검사 등을 구실로 중소 기업소들을 제한하면서 대독점들에 의한 군수품의 대량 생산을 비호해 준다.

미국 독점 자본이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정책을 상투적인 《반공황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군수품 구매와 주문, 《조절》과 《통제》 등이 병든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일시적인 《수혈》로 되기 때문이며, 독점들에게는 막대한 리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군사화와 전쟁 준비로 인한 대독점의 치부와 세력의 강화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른바 《국가 소유》에 의해서도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 있으며 그의 거의 전부가 군수 생산 및 봉사와 관련된 《국영》 경리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상 사독점 자본가들이다. 지난 대전 시기 미국 련방 정부는 군수 생산에 직접 거액의 투자를 하였다. 1939~1945년에 증대된 가공 공업의 생산 능력만도 260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그의 3 분의 2는 정부가 투자한 것이였다. 그런데 정부가 투자한 것들은 전시에 이미 독점 자본가들에게 《임대》되였으며 후에는 그들에게 눅은 값으로 양도되였다. 전후에는 국가 투자에 의하여 특히 최신 무기를 생산하는 《국영》 기업들이 수많이 전설되였다. 그러나 《국영》 기업이란 단지 명색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실제적 주인은 대군수 독점들로 되여 있다. 국가는 이러한 군수 기업들의 관리 운영을 전적으로 대독점 자본의 대표자들에게 내여 맡기고 있다. 실례로 국회 직속

《원자력 위원회》 산하 기업소들은 《도우 캐미클 컴퍼니》, 《제네랄 엘렉트릭크》, 《유니언 카바이드》 등과 같은 전기, 화학 부문의 대콘체른들에 완전히 장악되여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국가가 《국가적 소유》라는 명의로 독점의 리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의 전쟁 정책과 독점 자본과의 호상 관계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타국에 대한 소위 《원조》이다. 월가의 강도들은 저들의 대외 팽창 정책을 《원조》라는 간판으로 분식하고 막대한 《과잉》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낡고, 체화 상태에 있는 군수품들을 《피원조국》들에 고'가로 팔아 넘김으로써 막대한 리득을 보고 있다.

군사 《원조》의 략탈적 성격은 그에 의하여 육성 되는 《피원조국》의 현지 고용 군대가 문'자 그대로 누거라 대포'밥으로 되고 있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군 1 명을 1 년간 해외 군사 기지에 주둔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에 비한다면 현지 고용 군대 비용은 그의 20 분의 1도 못 된다. 이와 같이 군사 《원조》에서 얻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절약》과 리익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얼마 전에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가 예산에서의 군사 《원조》의 증대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비단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자체의 리익에 부합》되며 이러한 군사 《원조》비의 지출로 말미암아 《지불 발란스에서의 결손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며 해외에 나가는 이 기금의 80% 이상은 미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원조》를 리윤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의 전쟁 정책과 독점 자본의 호상 관계에 대한 분석은 그의 침략과 전쟁 정책이 어떤 개별적인 집권자들이나 장군들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그 경제적 기초에 의하여 산생되며 독점 자본의 리해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즉 백악관의 일체의 정책은 곧 월가의 의사를 대변하며 펜타곤의 전쟁 계획은 다름 아닌 록펠러, 듀폰, 모르간 등 금융 대왕들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은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배와 전횡에 기초한 미제의 대외 정책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독점 자본의 지배가 존속되는 한 미제의 전쟁 정책에서의 《변화》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의 반동적 리론가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미제의 전쟁 정책에서 그 어떤 《전환》, 《변화》에 대해서 떠들면서 케네디를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며 그의 《리성적》 정책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이 순전한 기만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미 제국주의, 이것은 미증유로 팽창된 독점 자본의 전능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지주이다.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배가 존속하는 한 미제는 전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며 세계의 진정한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미제의 침략 정책의 《전환》에 대한 그 어떠한 사소한 《환상》도 황당한 것이며 그것은 혁명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칠 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더러운 책동이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로부터 철저한 규탄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곳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며 미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줌으로써만 그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할 수 있다.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극동에서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기여를 하여 온 조선 인민은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앞으로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과 더불어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사회주의 동방 초소를 굳건하게 보위할 것이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의 특성

윤 상 우

1

남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와 농민들의 처지에 대한 과학 리론적 구명은 농민 각 계층을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를 정확히 보장함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의 계급 구성은 일제 강점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주, 부농, 중농, 빈농 및 고농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그리고 일제와 미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차이점 등 제 조건에 의하여 지주 계급 및 농민 내부의 계급 분화에서는 일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지에서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 제도의 와해 과정은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저지되거나 정체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봉건적인 제 관계를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유지와 식민지 초과 리윤 획득을 위한 유리한 지반으로 리용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북반부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의 영향 하에 토지를 요구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치렬한 투쟁에 의하여 위기에 처하였던 지주 제도는 미제의 비호 하에 인공적으로 유지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지주 계급은 일제 시기와 동일한 형태로 지주 제도를 존속시킬 수 없게 되였다. 그것은 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전변된 국내외 정세와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의 가일층의 앙양 등 사회 정치적 제 조건에 의한 것이였다.

남조선에서 지주 계급은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력량 관계가 변화된 조건 하에서 종전과 같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공공연히 소작 주며 고률의 봉건적 소작료를 농민들로부터 착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지배 체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 독점 자본도 남조선 농촌에서 지주를 계급으로 보존하며 그들을 조선 침략의 동맹자로 리용하고 있으나, 소수의 대지주들에 의한 대규모의 토지 집중은 도리여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못 하다고 타산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사회적 위기를 더욱 조성할 수 있으며 자국의 파잉 농산물의 유리한 투매와도 일정한 모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남조선에서 대지주들의 존재는 필경 그들에 의한 상품 농산물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미국 독점 자본

이 자국의 과잉 농산물을 남조선 시장에 자유롭게 투매하며 식민지 초과 리윤을 획득함에 리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남조선 농촌의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의 지배와 부농 경리 발전의 일정한 제한성 및 방대한 잠재 실업자의 존재는 중 소 지주 대렬이 확대될 수 있는 유리한 지반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대지주들을 예속 자본가로 전환시키는 한편 농촌에서 기본적으로 중 소 지주 대렬을 보호 육성하게 되였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한 기만적 《농지 개혁》은 미제의 남조선 지주 계급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되였다.

지주들은 《농지 개혁》을 통하여 자기들의 소작지의 적지 않은 부분을 《자경지》의 명목으로 은폐하였거나 괴뢰 정부의 《매상》에 응하였다. 그 결과 대지주는 현저히 감소되고 중 소 지주 대렬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지 개혁》 후 농민들에 대한 추가적 수탈의 강화에 따라 농민 경리의 령락이 촉진됨으로써 지주들의 수중에로의 토지의 재집중이 또다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대지주 토지 소유를 제약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작용으로 하여 중 소 지주 대렬의 확대를 촉진하였으나 대지주 대렬의 확대를 초래하지는 못 하였다.

지주 수중에로의 토지의 재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지주적 토지 소유는 그 규모에 있어서 일제 시기의 수준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1961년에 경상남도 밀양군, 전라북도 정읍, 전라남도 구례군 및 경기도 리천군 내 몇개 부락들의 농가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지주적 토지 소유규모는 총 경지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한다. (《사상계》 1962년 6호 82페지, 《신경제》 1961년 5호 83페지)

해방 후 남조선 지주 계급의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특성—대지주의 감소와 중 소 지주 대렬의 증가—은 지주 계급 내부에서 대지주에 의한 중 소 지주의 구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로 지주 제도의 불안정성의 증대,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등 사회 경제적 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상이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과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가 현존하는 조건 하에서 민족 공업 뿐만 아니라 부농 경리 발전에도 제약성이 가하여지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부유한 농민들도 축적된 자금을 생산 자본화할 대신에 토지를 구입하여 지주로 변생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지주들은 자기의 토지를 공개적인 것과 함께 반 공개적 및 비공개적 방법으로 소작 주고 있다. 소작 관계의 반 공개적 및 비공개적 성격은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인신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소작료를 높이며 소작 기간을 단축시킨다.

남조선 농촌에서의 현실적 소작료는 《농지 개혁법》이 규정한 《공정》 소작료인 수확고의 30%를 훨씬 초과하여 수확고의 50~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소작 기간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년을 초과하는 례가 드물다.

지주는 그 구성과 착취 방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의연히 농촌의 지배적인 착취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남조선 농민들은 지주 계급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미국 독점 자본과 남조선 예속 자본에 의하여 2중 3중으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있다.

괴뢰 정부와 그 산하 각급 기관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각종 조세와 기타 가렴 잡세, 신용 체계와 독점 시장 가격 정책에 의한 농민 수탈은 그 규모에 있어서 일제 시기의 수준을 현저히 능가하고 있다.

해방 후 특히 남조선 지주, 부농들의 고리 대금에 의한 농민 수탈 규모는 미증유의 속도로 확대되였다. 농민들의 고리 부채액은 정전 후 기간에만도 20여 배로 장성하였으며 그 리자률도 현저히 높아졌다.

남조선 농민들에 가하여지는 이러한 가혹한 착취는 농촌 경리의 령락을 촉진시키며 농민 내부에서 계급 분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면 남조선에서 농민 내부의 각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데 둘 것이며 계급 분화의 특성은 어데 있는가?

농민 내부의 각 계층의 구분은 경지 면적의 규모와 농가들의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 및 농가 생활 정형의 호상 련관에 기초하여야 한다. 물론 토지가 농업에서 기본 생산 수단이니 만큼 경지 면적 규모는 농민 각 계층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 징표의 하나로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지 면적 규모는 농업 경영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성을 갖는다. 왜냐 하면 집약적 농업이 보다 광범히 또 급속히 발전하면 할수록 경지 면적 규모에 의한 농민 각 계층의 구분은 빈한한 농민들의 처지를 더욱 분식하며 빈농과 부농 경리와의 대조적 차이를 은폐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각 계층의 구분은 경지 면적의 규모와 더불어 고용 로동자 사용의 크기와 수지 상태에 상응하는가 어떤가를 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 농업 경영에서 집약화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집약적 농업이 거의 보급되지 못 하고 있다. 농업 경영에서 집약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일부 지역 례컨대 대도시 근교와 상품 농작물 재배 지역에서 집약적 농업을 진행하는 농가들은 남조선 농가 총수의 1.3%에 미치지 못 하는 극히 적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조선 농업의 현재 수준으로는 경지 면적 규모에 의한 농가 계층의 분류가 그래도 비교적 현실적 상태를 근사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농을 2 정보 이상, 중농을 1~2 정보, 빈농(고농 포함)을 1 정보 이하의 경영 규모를 가진 농가로 보면 약간의 례외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와 농가 영농 수지 관계에도 기본적으로 상응한다.

2 정보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서는 년간 농업 생산에 투하된 로동 총량 중 50% 내외의 고용 로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년간 수입으로 생계비

와 영농 상 및 기타 지출을 충당하고 난 후에 다소의 잉여를 남기고 있다.

1~2 정보의 영농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 있어서는 다소의 고용 로력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기와 가족 로력에 의하여 영농하고 있으며 년간 수입으로 얼마 간의 생계비 부족을 느끼고는 있으나 생활 수준을 최저 생계비 이하로 다소 낮추는 방법에 의하여 단순 재생산은 실현할 수 있다.

1 정보 이하의 영농 규모를 가진 농가들에 있어서는 년간 영농 수입과 품팔이로 번 수입을 합하더라도 년간 최저 생계비의 대반을 보충하지 못 하는 빈농과 고농 계층이다.

이러한 제 사실은 상기와 같은 경지 면적 규모가 남조선 농민 각 계층을 구분하는 근사한 기준으로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농민 각 계층을 구분하고 그들 내부의 계급 분화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민 내부에서의 계급 분화란 중농 계층 농민을 희생으로 하여 부농 계층과 빈농 고농 계층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해방 후 시기 총체적으로 보아 남조선에서의 특성은 빈농과 고농 계층의 비중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빈궁화가 촉진되고 있는 반면에 부농 경리의 발전이 일정하게 정체되고 있는 점이다. 1945~1960 년간에 농가 총 호수에서의 영농 규모 1 정보 이하의 빈농(고농 포함)의 비중은 65.3%로부터 73.1%로 높아졌으나 2 정보 이상의 영농 규모를 가진 부농의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중농은 22.2%로부터 20.6%로 저하되였다.

남조선 농민 내부의 계급 분화에서 표현되는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경제 정책의 특성과 관련된다.

미제는 남조선을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확보하고 남조선 경제를 자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그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리하여 민족 공업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도 전면적으로 파괴하였다.

남조선에서 고농 빈농 대렬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빈궁화가 촉진되는 현상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와 더불어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착취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강화되므로 농촌 경리는 파탄되고 농민 대중의 영락은 촉진된다. 그러나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도시에서 민족 공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여 영락된 농민들을 산업 로동자로 흡수하지 못 하게 되므로 이들은 계속 농촌에 운집하여 농촌 《과잉》 인구를 형성하며 봉건 지주들의 령세한 소작지에 다시 결박되여 반 농노적 처지를 강요 당하게 된다.

과거 일본 독점 자본은 자국에서 부족되는 원료 및 반제품의 략탈을 위하여 조선에 일정한 정도의 자본을 투하하였으며 기형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식민지 경제를 건설하였다면 오늘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의 예봉을 주요하게 자국의 과잉 상품의 투매에 집중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에서 공업을 건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일본 독점 자본이 남조선에서 자연 부원의 략탈과 군사적 수요를 위하여 건설하였던 시설들까지 파괴하거나 이러저러한 강압적 조치들에 의하여 가동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계급적 력량 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극심한 불안정성과 더불어 미국 내에 조성되고 있는 경제 공황의 폭발적 위기와 밀접히 관련된다.

미제의 이러한 식민지 경제 정책의 결과로 남조선에서 도시 공업의 파탄은 더욱 가중되고 도시 공업에로 령락된 농민들의 흡수력을 일제 시기보다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므로 농민들은 더욱 령락되는데 도시의 공업은 이를 산업 로동자로 인입하지 못 하므로 농촌에서 빈농과 고농의 비중은 일제 시기보다도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남조선 농가 총수에서 1 정보 이하의 영농 규모를 가진 빈농(고농 포함) 호수가 1923~1945 년간에 절대수에 있어서는 7만 호 이상이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도리여 0.7%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조선에서 소작에 관한 참고 사항 적요》 67 페지 및 《경제 년감》 1949년 10~29 페지)

그러나 1945~1960 년간에 빈농(고농 포함) 호수는 절대수에 있어서 41만 호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은 7.8%가 증가하였다.

일제 시기에 비한 미제 강점 하 남조선 농촌에서의 빈농 고농 대렬의 증감 동태에서 나타난 이러한 대조적 차이는 농민 수탈에서 미국 독점 자본보다 일본 독점 자본이 가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 독점 자본이 통치 말기에 특히 령락된 농민들을 도시 공업에 다소나마 흡수하고 《이민》과 《징용》으로 국외에 강제 이동시키며 소위 《자작농 창설》 운동 등 미봉적 수탈 조치를 취하여 빈농 고농 대렬의 확대를 일시적이나마 완화시켰으나 미국 독점 자본은 이러한 미봉적 조치조차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다음으로 남조선에서 해방 후 부농 경리의 발전이 제한되는 것도 일본 독점 자본보다 더욱 강할 뿐 아니라 그와 다른 특이한 농촌 수탈 방법을 적용하는 미국 독점 자본의 강압에 기인한다.

과거 일제는 가혹한 농촌 수탈을 진행하면서도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소의 투자는 하였으나 과잉 농산물에 의한 농민 경리의 압박은 가하지 못하였다.

미국 독점 자본은 남조선 농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모조리 군사적 수요를 위하여 략탈하여 내면서도, 농업 생산을 위한 자금 투하는 억제하며 다른 편으로 다량의 과잉 농산물을 투입하여 농민 경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 남조선 농업은 일제 때보다 더 파탄되였다.

절대 다수의 남조선 농민들은 년간 영농 수입과 부업 및 품팔이로 버는 수입을 합하더라도 확대 재생산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곤난한 처지에 있다.

그 대부분이 미국 독점 자본의 특혜적 조건으로 영농하는 2 정보 이상의 부농들만은 년간 수입으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 한 중농 이하의 농가들에 있어서는 년간 총 수입으로 그해의 지출을 보상하면 년 최저 생계비조차 보충하지 못 하고 있는바 중농 상층에서는 그 부족률이 4%, 중농 하층에 속하는 농가들에서는 그것이 벌써 20%이며 1정보 이하의 빈농 고농 계층에 있어서는 그것이 46~60%에 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농 계층 농가들은 오직 생계비의 지출을 현저히 낮추고 로동일과 로동 시간을 과도하게 연장하고 로동 강도를 과도하게 강화하는 방도에 의하여서만 단순 재생산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중농 상층 농가들은 년간에 그리 많지 않은 생계비 부족을 보고 있으므로 생계비를 최저 수준 이하로 현저히 저하시키는 방도로 어느 정도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

남조선에서 중농 상층 이상의 농민들이 이러한 방도에 의하여 다소의 자금 축적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것으로써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을 확대하기는 곤난하다.

미국 독점 자본이 《원조》의 탈을 쓰고 아무러한 관세 제한도 없이 과잉 상품을 남조선 시장에 범람시키고 있는 조건 하에서 미국 과잉 농산물의 압박을 적게 받는 농업 생산 부문이거나 미제 침략군을 위한 군납 농산물을 특혜적 조건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의 일부만은 부농적 농업 경영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농 경리를 확대하기는 극히 곤난한 형편에 있다. 그것은 부농 경리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특히 미국 과잉 농산물의 압박으로 농민들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부농 경리를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하에 있는 일정한 부문에서 《농지 개혁》 후 부농 경리는 약간의 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과잉 농산물이 남조선 농촌을 거의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또 군납용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특정 부문을 상대로 하는 부농 경리가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못 한다.

그리하여 부유 농민들이 자금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경우에 그들은 이것을 부농 경리의 확대를 위하여 투하할 대신에 토지의 구입과 고리대 자금에 리용하고 있으며 기생적 지주로 고리 대금업자로 변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남조선 농촌에서 부농 경리 발전을 제약하는 조건들이다.

《농지 개혁》 후 2 정보 이상의 영농 규모를 가진 농가 호수 비중의 일정한 증가와 빈농 고농 대열의 증가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일제 시기에 비한 해방 후 남조선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의 론거로 할 수는 없다.

2 정보 이상의 농가 호수의 비중은 1951년에 4.4%로부터 1958년에 6.5%

로 《농지 개혁》 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1959년 이후에 그 비중은 계속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농지 개혁》 후 부농 경리가 일정하게 장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그것이 총체적으로는 얼마나 억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방 후 남조선에서 빈농과 고농 대렬이 장성한 사실이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론거로 되지 못 한다.

물론 빈농과 고농 대렬의 증가는 농민 대중의 령락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되나 농민 대중의 령락이 바로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킬 중요한 전제의 하나로 될 뿐이다.

농민 대중의 령락은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도 있었다. 봉건 제도 하에서도 농민들의 대량적 령락이 있었는바 봉건 령주들은 이 령락을 경제외적 강제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 정지시킬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남조선 농촌에서도 미국 독점 자본과 봉건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의하여 농민들의 대량적 령락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제는 봉건적 토지 소유 제도를 인공적으로 유지하면서 령락되는 농민들을 토지에 다시 결박시키고 그들을 계속 봉건적 착취와 억압 하에 구속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농업 생산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정체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에서 고농 및 빈농 대렬의 증가는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진화의 전제 조건의 하나로는 될 수 있으나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의 지표로는 되지 못 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가 자본주의 발전의 다를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다.》(전집 제 22 권, 47 페지)

그런데 남조선 농촌에서 고농 및 빈농 대렬이 일제 말기보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보다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는 현저히 감소되였다. 1931～1932년에 남조선 농업에서의 고용 로동 사용의 크기는 총 로동 투하량의 34.7%였다. 그러나 1958～1961 년간에 그것은 16.0～21.6%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남조선 농업 로동에서 고용 로동의 비중은 1958년 이후 체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것은 1958년에 21.6%, 1959년에 21.1%, 1960년에 17.8%, 1961년에는 16.0%로 저하되였다.

이러한 제 사실은 남조선 농업 생산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일제 시기 수준보다 높지 못하며 보다 정체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에 의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의 인공적 유지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남조선 농촌에서 빈농과 고농 대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부농 경리의 발전은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3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의 이러한 특징

석 현상은 공황의 심각한 영향 하에 또 외래 독점 자본의 강한 압박 하에 다른 나라에서도 일찌기 체험한 바 있다. 이것은 다만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공황과 외래 독점 자본의 압력이 제거될 때 정상적인 분화 과정에로 환원될 수 있다.

그러나 농민 내부에서 촉진되는 계급 분화와 농민들의 빈궁화는 외래 독점 자본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청산되지 못한다. 그것은 동시에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 립각한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지주 제도를 청산하며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고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실시함으로써만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농민들은 자기들의 처지의 개선을 위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 궐기하여야 한다.

남조선 농촌의 각 계급들과 계층들은 그가 처하고 있는 계급적 및 생활상 처지로 하여 반제 반봉건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대하여 각상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빈농 계층(고농까지 포함)은 농가 총수에서 73.1%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지 총 면적의 56.6%를 경작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부족한 빈농 고농들은 그의 절대 다수가 가종 형태로 지주 토지에 결박되여 있으며 지주에게 예속되여 있다. (《사상계》 1962년 6호 82페지 및 기타 자료)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년간 수입으로 생계비의 태반을 보충하지 못 한다. 그리하여 부단히 토지를 상실하며 몰락한다.

이리하여 이 계층 농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혈연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의 하나로 된다.

중농은 농가 총수에서 20%, 경지 면적 규모에서 38%를 차지하고 있다. 중농은 그 대부분이 형식상 자기 소유 토지에 기초하여 영농하고 있으나 그들 역시 미제와 지주 및 부농들에 의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으며 일부 중농은 토지가 부족하므로 직접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고 있다. 중농 계층에 속하는 농민들의 거의 모두가 부단히 몰락되여 빈농과 고농의 처지로 전락되고 있으며 극히 적은 부분은 지주와 부농으로 변생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 부단히 몰락되고 있는 중농은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의 중요한 동력을 이루고 있다.

남조선 농가 총수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지 면적 규모에서는 18.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농은 현존하는 농촌의 봉건적 제 관계와 미국 독점 자본의 압박 하에 그 발전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들의 적지 않은 부분은 부농적 경리를 확대하지 못 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 주며 기생적 지주로 변생하며 일부는 중농, 빈농에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미국 독점 자본의 비호 하에 침략군의 군수용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며 부농 경리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부농은 고농과 빈농을 눅은 품값으로 또 고리대를 통하여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남조선의 부농들 중에서도 미국 독점 자본의 비호 하에 자기 경리를 확대하고 있는 예속적 부농들과 지주로 변생하는 과정에 있는 계층들을 제외한 부농들 즉 봉건 제도와 독점 자본의 압박하에 부단히 몰락되여 가는 계층들은 반제 반봉건적 립장에 서고 있다. 이와 같이 반제 반봉건적 립장에 서고 있는 부농들은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 인입할 수 있다.

남조선의 지주 계급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봉건적 착취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남조선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반동적 계급이다. 따라서 지주 계급은 남조선에서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국내에 조성된 현 정세로부터 일부 지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며 이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다. 그리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에 기여한 지주들에 대하여는 반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에서 토지 대'가를 물어 주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남조선의 고농, 빈농, 중농들과 반제 반봉건적 립장에 있는 부농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굳게 단결하여 미제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와 민주주의적 토지 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어제'날 곡창 지대였던 남조선 농촌은 오늘 만성적인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것은 18 년간에 걸친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그가 남조선 농촌에서 인공적으로 유지해 온 봉건적 지주 제도의 직접적 후과이다. 소위 《원조》의 미명 하에 실시되고 있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은 남조선 농업 생산력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농민들을 오늘과 같은 참담한 처지에 몰아 넣었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배를 청산함이 없이는 남조선 농민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남조선 농업을 파멸적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 미제에 의하여 기형화되고 전면적으로 파괴된 남조선 공업은 농업을 복구할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 하다.

남조선의 농민 생활을 개선하며 농업을 복구하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 튼튼히 축성된 자립적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야 한다.

북반부에는 파괴된 남조선 농업을 복구 발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은 일치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남북의 합작과 협조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한 고찰

리 응 수

조선 인민은 반만 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찬란하고도 슬기로운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력사와 문화 전통은 그 동안 일부 봉건 학자들의 사대주의와 일제 어용학자들의 간악한 파괴 책동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외곡되여 왔다. 발해의 력사도 그런 실례로 된다. 발해는 명백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조선 력사 밖에 놓여 있었다.

해방 후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과학 문화 정책에 의하여 조선 력사의 한 부분인 발해사는 비로소 정당하게 연구되였으며 당시에 찬란히 발전하였던 문학 유산도 옳게 계승되게 되였다.

7 세기 중엽에 고구려와 백제의 통치 계급들은 극도로 부패 타락하였으며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아 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신라는 3 국 통일의 길에 들어 섰으며 동방에 진출하려는 당나라와 합세하여 드디어 660년에는 백제를, 668년에는 고구려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애국적 유민들은 국가 회복의 념원을 안고 옛 고구려의 장군이였던 대조영(大祚榮)이 거란 밑에 벗어나 당나라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698년 동모산(당시 동북의 산) 남쪽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고 불렀다.

발해는 그 뒤 크게 발전하였다. 옛 고구려 령토의 대부분을 회복한 발해는 동북 아세아의 큰 령토를 차지하고 조선 인민의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

발해의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과 지위의 높아지는 동안에 대해 당 나라도 부득이 계속하여 온 당 나라로 하여금 발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발해는 고구려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 특히 고구려 문학의 고귀한 전통과 경험에 토대하여 자기의 문화와 문학을 창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발해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해국은 고려(고구려를 말함—필자)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扶餘)의 유속(遺俗)을 보유하고 있다.》

발해는 고구려의 《천손》(天孫) 사상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다. 천손 사상은 원시 시대로부터 발생하여 최초에는 씨족장이나 종족의 탁월한 지도자를 숭배하는 사상과 결부되여 있었다. 례컨대 고조선의 단군 신화, 고구려의 해모수 신화, 신라의 시조 박 혁거세 신화도 모두 이러한 사상과 결부되여 있다. 발해의 시조 대조영도 《하느님의 자손》으로 간주되였다.

발해는 서울에 국학을 설치하고 많은 귀족 자제들에게 경서, 력사학, 문학 등을 공부시켰으며 당 나라에도 류학생을 보내여 이들이 발해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발해의 춤과 음악은 당시 해외에서까지 이름이 높았는데 발해의 춤은 당나라에 전해져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8 세기 중엽에 류학생을 파견하여 수년씩 발해 음악을 배우게 함으로써 발해 무악은 일본의 신악(神樂)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 밖에 발해에는 고유 문자가 없었으며 한자를 빌려 발해음을 표기한 리두 문자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렇듯 옛 고구려의 대부분과 그 인

구를 포괄하고 고구려의 전통적 문화를 계승한 발해는 그 터전 우에서 자기의 문화와 문학을 찬란히 발전시킴으로써 당시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발해의 문화와 문학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10 세기 초에 발해가 거란인에 의하여 멸망된 후 그 유산의 거의 전부가 인멸된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조선 문학의 연원의 하나인 발해 문학을 연구하는 데 많은 곤난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발해 문학의 일부 유산들과 린접 국가들의 사료를 통하여 우리는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발해 문학의 풍부성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발해의 문인들 가운데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로서는 양 태사(楊泰師), 왕 효렴(王孝廉), 배 정(裴頲)과 그의 아들 배 구(裴璆), 승려 정소(貞素) 등이 있다. 또 발해가 망한 뒤 발해 자손의 문인으로서 알려진 사람들은 왕 정균(王庭筠), 오 현명(烏玄明) 등이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당시 발해 국가의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당 나라와 일본 등 외국에도 자기의 문명을 높이 떨쳤다. 이것은 당시 발해 문학의 높이를 말해 주는 동시에 린접 국가들과의 왕성한 경제-문화적 교류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발해 국가 초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의 한 사람은 양 태사이다. 그는 8 세기 중엽에 발해국 제 3 대 문왕(文王) 때의 시인이였으며 정치 활동가였다. 그의 생애와 창작 정형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발해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서 일본에까지 문명을 떨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夜聽擣衣詩)는 바로 일본에 외교 사신으로 갔을 때에 지은 시다.

서리찬 달'밤에 강물은 유난히 빛나는데
고국을 생각하는 나그네의 마음 더욱 간절하여라
긴 밤을 새려니 울적한 마음 견디기 어렵구나
때마침 들려 오는 이웃 녀인의 다듬이 소리
이었다, 끊었다, 끊었다, 이었다.
그 소리 조국에서 듣던 바로 그대로다.'
…

다듬이 소리는 우리 나라나 중국 등 동방 여러 국가 인민들의 민족적 풍속, 녀성들의 근로 생활과 결부되여서 고대, 중세 문학의 중요 제재로 되였다.

이 시에서 보다싶이 작자는 멀리 이국 땅의 달 밝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조국과 고향을 사모하는 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노래하였다.

더우기 이 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감정 표현의 섬세성과 수법의 평이성이다. 그것은 8 세기 이전 우리 시가 문학에서 찾아 보기 드문 것으로서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의의 있는 작품이며, 발해 문학 발전의 높이와 수준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양 태사와 함께 시인으로서 우수한 사람은 왕 효렴이다. 그도 역시 정치-외교 활동에 전심하다가 외국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작품으로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5 편의 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하노라》(對月思鄕之作)는 그의 대표작이다.

적적한 어둠'밤
낮같은 저 달'빛
산과 물을 삼삼이 비칠 때
저 달'빛 바라 보는
고향의 내 안해 않은 그리며
고향 떠난 나그네의 마음도 한 없이 안타깝나.

이 시에서 작자는 이국에 가서 밤에 달을 보고 자기 조국과 고향, 가정을 그리는 감정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대

우기 그는 이국 땅에서 돌아 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인 것 만큼 자기 발해를 사모하는 감정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는 시의 마지막에 《누가 달'빛이 천리에 갈라진 그리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 준다고 말하였는가》고 반문함으로써 고국을 그리는 정을 보다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발해 문인들의 문학적 기량은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 나라의 유명한 시인의 한 사람이였던 온정균(溫庭筠)은 당시 당 나라에 와 있던 발해의 왕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큰 위훈 세우시고
고국으로 돌아 가시는
그대가 남긴 아름다운 시구를
오래도록 이 땅에 전하리.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 발해 왕자가 당 나라에서 얼마나 문명을 높이 떨쳤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발해 말기의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는 배정과 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는 알 길이 없으나 모두 뛰여난 시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외교 사신으로 갔던 배정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정치, 문학 분야에서 제 1 인자였던 스가하라 미찌자네(菅原道眞)는 배정의 높은 시적 재능을 격찬하여 《칠보지재(七步之才—일곱 걸음 걷는 사이에 시를 짓는 재주)》라고 하였다. 또한 시인 시마다 다다오미(島田忠臣)도 배정의 시적 풍격을 이야기하면서 쓰기를 《그 날카로운 맛이 직진으로 쳐들어 가는 병사의 서리'발 같은 칼날을 련상시키고 마치 번개가 번뜩이는 듯 날래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배정은 발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문학 작품들을 남겨 놓았을 것이 명백하며 발해 국가 말기의 문학을 찬란하게 개화시킨 이름 높은 문인이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발해 왕조는 건국 후 229 년이 지난 기원 926년에 거란족의 나라인 《료》에 의하여 망하였으나 발해 인민들은 그 후 300 년 동안 오사국(烏沙國), 정안국(定安國), 흥료국(興遼國), 대발해국(大渤海國) 등의 형태로 동북 일대에서 련면히 조선 인민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존속시켰다. 특히 《료》는 발해의 고지에 동단국(東丹國)을 설치하고 거기에 거란인의 높은 관리를 임명하고 거란인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아래 관리들은 전부 발해인들이였으며 여전히 발해의 유속을 보존하고 있었다. 동단국은 다른 나라와의 외교도 독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발해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료》가 《금》으로 교체된 후에도 일정한 방법으로 발해인들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역시 발해의 유민들은 자기의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었다. 더우기 《료》나 《금》의 문학계에서 이름 있는 문인들 중에는 발해의 자손들이 많았다.

정안국왕 오현명, 료에서 활동한 천조제의 제 2 부인 문비, 금에서 활동한 왕정균은 발해의 자손으로서 발해문학을 고수한 우수한 문인들이였다.

왕정균은 문집까지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문학 유산이 오늘 남아 있는 것만 해도 시 28 수, 사 12 수, 산문 5 편에 달한다.

이들의 문학 유산 중에서 정안국왕 오현명이 송 나라 태종에게 보낸 서한은 거란인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의 영웅성과 애국주의의 드높은 긍지감을 반영한 우수한 산문 문학 유산의 하나이다.

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발해는 벌써 망했으나 그 유민들은 동북 땅 여러 지역에서 조선 인민의 력사와 문화 전통을 고수하며 계속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안국은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정안국은 발해가 망한지 1 세기 가까이 되는 900 년대 말까지도 의연히 동북 땅의 서방 압부 지역에서 발해의 명맥을 보존하면서 료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 과정에 송 나라와 여러 번의 서신을 통하여 거란의 침략을 공동으로 물리칠 데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현명은 자기의 편지에서 거란이 국토와 강새를 파괴하고 인민을 노예로 끌어 가고는 있으나 《고구려의 옛 땅로에 발해의 후예로서》 용감히 조국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원쑤와 싸우겠다는 불 같은 사상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은 발해 인민의 애국주의 사상을 반영한 문학 유산 중에서 상층 통치 계급들의 안일성을 폭로하고 선량한 인민들을 못 견디게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빼앗긴 천조제의 안해 문비와 왕 정균의 작품들은 매우 감명 깊다.

문비는 발해의 후손으로서 천조제의 총애를 받아 그의 제 2 부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부화 방탕하고 주색과 사냥에만 몰두하는 천조제의 비행에 격분을 참지 못하여 여러 번 충고하다가 그래도 안 되여 나중에는 《풍간가》 (諷諫歌)를 지어 폭로하였다.

국경 지대에 전쟁 기운이 어리여
강적이 침략하는 것만 근심 말라
국내의 간사한 무리를 막고
어질고 충직하며 고생 겪고 힘센
문무(文武) 관리를 적절히 배치하면
능히 아침에 강적을 막아 내고
저녁에 이 나라 정운을 진정케 할 것이다.

이 《풍간가》에서 작자는 북방의 몽고족과 서방으로부터의 한족의 침입을 겁내기 전에 먼저 천조제를 비롯한 상층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한 충신들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외적도 스스로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하였다.

이 시는 물론 상층 통치배들의 정치 도덕적 부패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여기서 《충성스러운 사람》과 섶 우에 드러 누워 등'살이 배기는 아픔을 참고 짐승의 열을 씹으면서도 그 쓴 맛을 이셔 가며 《고생 겪고 힘센 사람》을 신하로 삼을 것을 권고한 사상은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 사상이며 인민의 사상 감정이다.

특히 그의 이러한 애국주의적인 사상 감정은 《영사시》 (詠史詩)란 노래에 뚜렷이 반영되여 있다. 그는 료 나라 왕이 거란족 출신들만 요직에 앉히고 그 관리들이 사사로운 일에 군대를 거느리고 왕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앉아서 독관을 치는 반면에 발해 자손들과 인민들은 학대 받고 쫓겨만 간다고 분격에 차서 폭로 비판하였다.

문비의 가차 없는 이러한 비판의 시편들은 거란왕의 분노를 야기시켜 드디여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문비는 발해의 자손으로서 발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여 싸우다가 무참히 희생된 애국자였다.

왕 정균 역시 애국적인 문학자로서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문학 유산을 남겨 놓았다.

그의 《탁주중수 촉선주 묘비》(涿州重修蜀先主廟碑)문은 발해 유민의 문학 유산 중에서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 감정을 반영한 우수한 산문 작품의 하나이다.

왕 정균은 이 묘비문에서 인자(仁者—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와 그와 반대되는 불인자(不仁者)를 대치시켜 《인자는 자기 일신을 위하여 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생각하며, 불인자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나 속심에는 나쁜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내 남을 속이지 못하고 바탕이 드러나며 아울러 그가 한 일도 초목처럼 말라 버리고 만다》고 썼다. 그는 이 글에서 또한 《사람을 옳게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은 일의 성공 여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면서 비문의 주인공의 긍정적인 공적에 대하여 찬양하는 반면에 위선자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의 예봉을 돌리였다.

이것은 왕 정균 자신이 바로 일생 동안 위선자들의 중상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고 정계에서 쫓겨 났던 체험과 관련되여 보다 더 심각하고 예리하다.

그의 시편들인 《옥중에서 제비를 보고》, 《대안사 시원(大安寺試院)에서 한식날에 읊는다》 등도 그러한 반항의 감정과 비판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발해의 문학 유산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발해의 문학 유산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하며 그 의의는 크다.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조선 문학사에서 취급하게 되였다는 사실은 사대주의자들과 어용학자들의 그릇된 견해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발해의 문학 유산은 우리 나라 7~9 세기 문학사를 보다 풍부화시켜 주었다.

발해 문학에서의 애국주의적 사상 감정은 통치 계급의 모순과 부패 타락상을 비판 폭로하는 풍자적 기백과 통일되여 있다.

발해 문학에서는 동시에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 형식의 평이성 등의 특성을 찾아 보게 된다.

특히 사랑에 대한 주제의 새로운 개척, 자연 묘사에서의 환상적 요소의 거의 완전한 제거 등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며 우리의 문학사 연구에서 가치있는 것들이다.

또한 발해의 문학 유산은 우리의 문학사에서 해명을 요하던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명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해 문학에서의 7언시의 발전, 사(詞)와 부(賦)의 출현 등은 7~9 세기 문학과 고려 문학과의 계승 관계를 더욱 명백하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고려 문학에 7언시나 사(詞), 부(賦)의 문학 형식이 매우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문학사에서 고려 문학을 련계시켜 주는 통일 신라 문학에는 사나 부가 거의 없고 7언시는 최 치원을 제외하고는 오직 왕 거인(王巨仁)의 《분원시》 (憤怨詩) 한 편 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나 7~9 세기 문학에서 통일 신라 문학과 대등하는 발해 문학을 연구함으로써 고려 문학과의 련관 관계를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게 되였다.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한 연구 도정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 민족의 혈통과 문화 전통의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는 발해의 문학 유산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보다 완전한 면모를 알아 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문답 학습

국가의 계급성

국가가 인류 사회의 그 어느 때나 존재한 것은 아니였다. 국가는 사회의 계급적 분렬의 산물로서 나타났다.

국가란, 자기의 계급적 적대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지배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는 기구이라고 쓰딸린은 지적하였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정치적 조직이며 일정한 경제적 토대 우에 서 있는 상부 구조이다. 따라서 계급 사회에서 경제적 토대의 계급적 성격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한다. 그것은 경제적 령역에서 지배하는 계급이 곧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으로 되기 때문이다.

지배 계급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는 언제나 지배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때문에 적대적 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국가는 모든 계급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존재하여 온 노예 소유자들의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자기의 계급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 학자들은 마치도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묘사하며 또한 그것이 사람들이 생겨 날 때부터 생겨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한다.

국가가 인류 력사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력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또한 그의 계급성을 부인하는 부르죠아적 견해들은 결국 착취자 국가를 영원한 현상으로, 초계급적인 기구로 미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부르죠아 학자들의 주장을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우선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계급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찌또 도당은 지어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어느 한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지 않으며 그것은 점차 초계급적인 《자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로 넘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부르죠아 국가가 자본가와 로동 계급의 리해를 조화시키며 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적당히 조절하는 《공평》한 기구로 전환된듯이 묘사하면서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계급적 본성을 은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계급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독점 자본의 도구로서의 그의 반인민적인 본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국가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을 외곡하는 수정주의자들을 규탄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는 계급적 모순의 불상용성의 산물이며 그 표현이다…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계급적 모순이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맑스주의의 외곡은 시작된다…그들은 국가가 계급 협조의 기관으로 된다는 식으로 맑스를 〈약간 수정〉한다.》 (레닌 전집 제 25 권, 487 페지)

맑스주의 철학에서는 어떤 생산 관계 우에 서 있으며 어떤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가에 따라 구별되는 국가의 종류를 국가의 류형이라고 한다. 국가의 류형에는 네 가지 즉 노예 소유자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있다.

우에서 든 첫 세 가지 류형의 국가 즉 노예 소유자 국가, 봉건 국가, 자본주의 국가는 모두 착취 계급의 리익을 옹

호하는 착취 계급의 독재 국가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류형에는 같은 류형에도 국가의 구체적인 력사적 발전 조건, 계급 력량의 호상 관계, 계급적 모순의 첨예화 등에 의하여 다양한 통치 형태를 가진다. 례하면 노예 사회에서는 군주 정치, 귀족 정치, 봉건 사회에서는 군주제 또는 공화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주 공화국, 의회제 군주국, 파쑈 독재 등 여러 가지 통치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통치 형태는 다양하나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러한 변동도 없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들은 어떤 통치 형태를 취하든지간에 모두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본가 계급이 피착취 근로 대중을 착취하며 억압하기 위한 폭력적 조직이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오늘 공화제 형태를 취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국가나 립헌 군주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부르죠아 국가나 모두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옹호하고 근로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폭력 조직이다.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그의 활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국가의 대내외적 기능은 모두 그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계급의 계급적 성격에 의하여 가정된다.

자본주의 국가의 대내적 기능은 전적으로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대내외적 기능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대내적 기능의 연장이다. 국가가 자국 내의 근로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되여 있다면 그 국가의 대외적 기능도 역시 타국 인민을 억압 략탈하려는 데로 돌려진다. 착취 계급의 대외적 기능은 타국을 침략하고 략탈하고 령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의 대외적 활동은 대내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독점 자본가들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현대 부르죠아 국가는 자본가들의 대외적 침략을 보장하는 도구이다. 지금 독점 자본가들은 국가 기구를 통하여 《원조》라는 미명 하에 후진 자본주의 및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자본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조》를 통하여 약소 국가들과 식민지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킨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적 대외 정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전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 침략 수단과 외교적 방법으로 자기들의 침략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전쟁의 방법에 의거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에 기인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각종 군사 블럭들을 조작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식민지 및 약소 국가 인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 침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야 찌또 도당은 제국주의 국가는 더는 전쟁 수단에 의하여 자기의 정치 경제적 리해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평화 애호적》 국가로 전환되였다고 떠들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론조는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로동 계급의 투쟁을 마비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인 것이다.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자신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하여 부르죠아 정권을 전복하고 그의 통치 기구를 분쇄한 기초 우에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해야 한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인 사회주의 국가는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진압하며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 역시 한 계급의 독재의 무기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종전의 착취자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는 소수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절대 다수의 근로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무기이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어떤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전복된 착취 계급들에 대한 독재인 동시에 광범한 근로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한 범주의 두 측면에 불과하다.

계급 사회에서 순수한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계급성을 띤다.

오늘 전복된 계급들이 자기들의 옛처지를 복구해 보려고 발악을 다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의 전취물을 침해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독재를 부정하고 《완전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초계급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떠드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계급적 원쑤들에게까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시하자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나라들을 《평화적》으로 자본주의에로 《진화》시키며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반동적 시도로서 철저히 규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적대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기능과 함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립각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인민 경제의 앙양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찌또 도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관료화》라고 하면서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가의 《관료화》를 퇴치하고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는 구실 밑에 《자치회》 《지방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개개의 기업소를 《생산자》 집단이 제멋대로 경영케 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포기하며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를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다.

결과 유고슬라비야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생산이 계속 감퇴되고 수많은 기업소들이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파산 당하고 있으며 20만의 만성적 실업군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포기하고 나라의 경제를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의 작용에 내맡긴 불가피한 결과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 교양자적 역할은 사회주의 국가 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의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통하여 착취자 사회의 잔재인 문화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며 사람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인민들을 새로운 공산주의 사상과 선진적인 문화 기술로 무장한 인간으로 교양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현 시대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최신 기술 습득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계급적인 정치 사상 교양을 태공함으로써 부르죠아 사상과 부르죠아 생활 양식의 침습을 조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을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과 불요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부르죠아적 안일과 개인 향락을 조장하는 방향에서 《교양》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문화 교양자적 기능이 혁명의 요구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부르죠아 국가의 대외적 기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적 기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고수하며 각국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지지를 주며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자본주의 나라의 로동 운동과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 원조를 홀시하며 지어는 반대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세계 혁명을 포기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로선이며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은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며 점차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에도 진압의 기능이 보존됨과 함께 그의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기능이 더욱 확대 강화되는 것으로써 발전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때로부터는 사회주의 국가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관이 아니라 비계급적인 기관으로 전화한다는 것이며 전면적 공산주의 건설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필요없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말살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령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레닌은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그날까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 계급의 독재는 온갖 계급 사회 일반에서나 또는 부르죠아지를 전복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계급 사회〉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갈라 놓는 한 력사적 시기 전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리해한 사람이여야만 맑스의 국가 학설의 진수를 체득한 사람이다》 (전집 제 25 권, 522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축성되고 공산주의 교양이 부단히 강화되는 데 기초하여 계급들의 차이가 완전히 소멸되고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사회 성원들의 머리 속에서 완전히 극복되고, 나아가서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조락될 수 있다.

최 무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

[illegible] 《근로자》 제 18 호 44 페지 좌단 29 행에 1을 2로 정정함.

근로자 제 19 호 (루계 233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0월 5일　　인 쇄 • 1963년 10월 3일

ㄱ—330650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0 호

10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20호 (234)

1963년 10월 (하)

차 례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

1958년 11월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 연설이 있은 때로부터 5 년이 지나 갔다.

이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시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 내용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강령적 문헌으로 된다.

이것은 갓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더욱 추켜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는 거대한 힘으로 되였으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확고한 지침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 교시에 근거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새로운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지난 기간 근로자들을 새 형의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사실로써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우리 당이 근로 대중을 낡은 사상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 섰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는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려는 새로운 기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이며 인간 개조의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으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생산과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현대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원칙적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공산주의 교양—이것은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으로 무장시켜 새 형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력사적 과업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생산력을 부단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최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산주의란, 사람들이 낡은 사상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산해 진미를 갖춘 식탁에 모여 앉은 것이 아니다.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교양의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천명한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여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적응하게 그 내용을 규정하며 매개 나라의 력사적 전통과 현실에 부합되게 그 형식과 방법들을 부단히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항상 사상 사업에 제 1 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자 당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은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결부시키며,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를 기본 방법으로 삼으며, 생산 단위를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하면서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왔다.

경험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된 조건 하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지체 없이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사회주의 사회의 그 어떤 성숙된 발전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며 사람들의 물질 생활 수준이 일정하게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대중의 혁명성을 믿지 않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그들의 억제할 수 없는 지향을 보지 않는 립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교양에서 기본은 계급 교양이다. 계급 교양은 모든 사상 교양 사업의 근저에 놓여 있어야 한다.

계급 교양이란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그의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킨다는 것, 이것은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전 세계에서 온갖 착취 제도와 계급을 청산하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려는 혁명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계급 의식은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의 기본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힘의 원동력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급 의식—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혁명 정신은 그들의 모든 행동, 도덕, 사상의 근저에 확고히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각과 혁명 정신을 떠나서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새 형의 인간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 사업은 반드시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데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사상 교양, 도덕 교양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계급 교양을 홀시하고 로동에 대한 교양, 집단주의 교양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여도 그것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계급 교양을 배제하면서 로동에 대한 교양을 《사상 사업의 심장》이요 《척추》요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직 계급 의식이 확고할 때에만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으며 사회의 리익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높은 계급 의식을 소유할 때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공세에 대처하여 부르죠아 사상과의 효과적인 투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적대 사상의 침습을 격파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적들이 근로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며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는 것은 적대 사상의 침습을 격파하기 위한 신제적인 대책으로 된다.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긴절한 과업이다

현 시기 국제 혁명 발전의 객관적 정세와 사회주의 나라들 내부의 사태 발전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그것은 우선 현 시기 국제적 규모에서 전개되고 있는 계급 투쟁의 치열성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 시대는 《대립되여 있는 두 사회 체계의 투쟁의 시대》(1960년 모스크바 성명)이며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이다.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자본주의를 청산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력사 무대에서 물러 서려 하지 않으며 아직도 위험한 적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멸망이 가까와 올수록 더욱더 광포하고 악랄하게 사회주의 진영과 피압박 인민들을 반대하여 책동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치렬하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책동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전쟁 준비 정책을 강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혁명 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데 예봉을 돌리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전 세계에서 반공산주의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 복구를 망상하면서 이 나라 인민들 속에 부르죠아 사상과 서방의 퇴폐적 생활 양식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은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주요한 지주로 삼고 있다.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수정주의의 기본 립장은 계급 협조이며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에 복무하는 것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백방으로 미화 분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혁명 력량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악한 책동을 옹호하며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계급적 립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분렬을 조성하며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 반제 의식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리용하여 자기의 흉악한 정체를 위장하고 반혁명 전략을 교활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 혁명과 반혁명 간의 투쟁은 극히 복잡하고 첨예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현대 수정주의를 극복하며 반제 투쟁, 혁명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 대중을 계급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세계 혁명의 장구한 행정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낡은 사상이 소생될 수 있다는 사정이 또한 계급 교양을 강화할 것을 긴절하게 요구한다.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투쟁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첨예하게 진행될 것이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는 장기적이고 치렬한 계급 투쟁을 거쳐서만 해결되는 문제이다.

이 투쟁 행정에서는 온갖 시련과 우여 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판가리 싸움이 앞으로 더욱 치렬해질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혁명적 의식이 확고하지 않고 낡은 사상이 철저히 극복되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평온하

제》 진행됨에 따라 그들 속에는 혁명에 대한 권태증이 생길 수 있고 공산주의 위업을 배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력사는 장기적인 혁명의 시련 앞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 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한 각종 기회주의자들, 타락 분자들, 변절자들이 나타났으며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장기적인 세계 혁명의 시련을 이겨 내지 못 하고 혁명을 포기한 자들이며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한 자들이다.

사람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싸움이 앞으로 오래 동안 계속되는 행정에서 이러한 변절자들이 더 나타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장구한 행정에서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사상이 점차 희박해지고 소소유자적, 부르죠아 자유주의적 사상이 소생될 수 있다.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오랜 기간 남아 있게 된다.

수천년에 걸친 계급 사회에서 형성되였으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된다고 하여, 근로자들의 물질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고 하여 결코 저절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 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사상적 침습이 있는 조건 하에서 그것은 오히려 소생되고 조장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낡은 사상이 조장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 받은 관습과 습성, 전통과 편견은 사회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이것들이 가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존립 자체에 대한 커다란 위협을 조성한다.》 (쓰딸린)

근로자들의 높은 계급 의식은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는 순탄한 환경에서나 혁명이 간고한 환경에서나 변함 없이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고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계급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세대가 바뀌여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행되는 장구한 과정에서는 과거 사회에서 계급적 원쑤들의 압박과 착취를 당한 세대들을 대신하여 점차 새 세대들이 자라 나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새 세대들은 부모들이 겪은 그 압박

과 착취를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착취자들을 격멸하는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지 못하였으며 나라의 락후성을 퇴치하고 부유한 생활을 위한 토대를 닦는 간고한 투쟁에도 참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제국주의와 착취제도, 자본가, 지주 등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없으며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을 개념으로써만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체계적이며 생동한 계급 교양이 요구된다.

레닌은 청소년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새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지주와 자본가의 압박 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때,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개시한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자기가 몸소 느낀 때, 또 그들이 전취한 것을 고수하기 위하여 그 투쟁을 계속하는 데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며 지주와 자본가가 얼마나 광포한 적인가를 보는 때—그 때에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공산주의자로서 교양되는 것이다.》

세계 혁명이 오래 끌면 끌수록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 모든 것은 근로자들과 후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혁명 력량을 정치 사상적으로 꾸리는 결정적 담보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필수 조건이며 혁명 수행에서 사활적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 준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세계에 아직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일부 나라들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한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나라들 특히 국토의 절반 땅에서만 사회주의가 승리한 나라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는 날카롭게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조성된 혁명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이것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국토의 한 부분에서만 혁명이 승리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지 못 한 나라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와 세계 혁명이 완수되지 못 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계급 교양에 대하는 태도는 혁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준다

계급 교양—이것은 사상 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 투쟁이다. 이것은 부르죠아적 세계관과 사고 방식을 극복하고 로동 계급의 세계관과 그의 계급적 립장의 승리를 이룩하는 과정이며 각종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 과정이다.

사상 교양, 사상 투쟁의 그 어떤 약화도 그것은 곧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을 증대시키며 그의 침습의 길을 열어 준다.

사람들의 사상 생활에는 진공 상태란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적 이데올로기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냐? 거기에는 중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온갖 경시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온갖 일탈은 동시에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의미한다.》

레닌의 이 교시의 정당성은 오늘 사회주의 하에서 더욱더 뚜렷이 증시되고 있다.

부르죠아 사상과 인습을 반대하는 투쟁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경시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데서는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 부르죠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침투되고 있으며 날로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데서는 부르죠아 서방에 대한 환상적인 동경과 무비판적 모방, 퇴폐적 기풍이 수 많은 젊은 세대들과 인테리들을 좀먹고 있으며 혁명과 투쟁, 공산주의적 미래에 대하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리익과 오늘의 향락에만 급급하는 개인주의적, 향락주의적 경향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 나고 있다.

부르죠아적 사조와 생활 양식이 침투되고 조장되는 것, 이는 곧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의미한다. 나라의 《자유주의화》, 이것은 사회의 사상 정치 생활, 물질 생활에서 부르죠아적 관계의 조장,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의 약화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며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양과 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나라의 《자유주의화》가 조장된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계급적 견지에서 보지 못하게 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거부하는 데로 나가게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헌신하지 않게 된다.

나라의 《자유주의화》,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소위 《평화적 진화》를 의미한다.

《평화적 진화》는 유고슬라비야의 현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점진적인 자본주의 복구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 반혁명적 폭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을 배제하면서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에 대하여 떠드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한 일은 없다.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진영은 모든 물질적 수단들과 함께 근로 대중의 사상적 무장이 튼튼할 때에만 굳건히 보위될 수 있으며 강고 발전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세계 혁명도 가일층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 여하, 혁명을 끝까지 하자는가, 안 하자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징표로 된다.

계급 투쟁, 혁명 투쟁을 거부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그 어떤 민주주의의 발양으로 찬미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대립시키고 량자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는 반맑스주의적 견해로써 대중을 중독시키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핵심이며 진수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레닌이 천명한 바와 같이 모든 독재와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건설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국가가 조락하는 데 이르기까지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예견한 일이 없다.

사회주의가 승리하였다고 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혁명적 규률을 약화시키며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는 것은 오직 반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 줄 따름이다.

우리는 이러한 반맑스주의적 견해를 철저히 폭로하고 근로자들과 새 세대들을 계급 의식으로,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현 시기 계급 교양에서 주요한 문제들

오늘 계급 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문제이다.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피압박 계급들과 인민들의 해방을 달성함에 있어서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은 제국주의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모든 기회와 수단을 다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도발 정책을 폭로하며 대중이 제국주의에 대한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근로자들 특히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과 그의 약탈성, 그리고 제국주의의 동맹자인 지주, 자본가들과 그 제도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오늘날 세계 반동의 괴수이며 진보적 인류의 최대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켜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 투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으며 평화 투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두 제도 간의 평화적 공존은 사상 투쟁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인민 대중을 반제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상 제국주의와의 사상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염소가 아니고 승냥이다.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국주의를 욕하지 말고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하며, 마치도 제국주의자들이 평화를 원하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의 《리성》과 《선의》에 의하여, 그들과의 타협에 의하여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각성을 마비시키고 그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는 것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대중을 교양할 대신에 핵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인류 멸망설》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인민들을 비관에 빠지게 하고 제

국주의자들을 더욱더 핵 공갈과 침략 책동에 매여 달리도록 추동하는 것으로 된다.

현대적 과학 기술의 발전, 열핵 무기의 출현과 더불어 무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였으며 핵 전쟁은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보는 것은 력사에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부인하며 전쟁의 정치적,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며 력사 발전의 객관적 법칙들을 부인하는 견해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와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무기는 그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으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력사 발전의 거류를 가로막을 수는 결코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핵 무기를 소유하고 핵 공갈을 일삼고 있으나 날로 더욱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며 날로 혁명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더욱더 큰 승리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인민 대중이다.

제국주의자들이 핵 공갈에 매여 달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며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적 인류의 전진 운동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대중을 혁명적 락관주의로,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성, 약탈성 뿐만 아니라 그의 부패성, 취약성에 대하여, 그것이 진흙으로 된 다리로 서 있는 거상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철저히 파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념과 그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침략 앞에서 대중을 무장 해제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반제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동시에 우리 제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 우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거기에 있다. 그것은 또한 생산력이 전례 없는 속도로 부단히 장성하며 사회의 모든 물질적 문화적 부가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를 위하여 돌려지는 데 있다.

이것은 오직 사회주의 제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우월성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근본적 우월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쟁취되였는가를 인식할 때에만 사람들은 계급적 견지에 튼튼히 설 수 있으며 이 제도하에서 사는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이 제도를 고수하려는 열렬한 투쟁 정신을 견지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이렇게 하지 않고 속물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수정주의자들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무원칙하게 자본주의 나라와 대비

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을 대치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 근로자들과 자본주의 나라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단순히 로임만을 가지고 대비할 수 없으며 또 대비하여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수입 이외에 막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은 수다한 계층으로 나뉘여져 있으며 자기 로동의 결과에서 극히 작은 몫을 로임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마저 이러저러하게 착취 당하고 있다. 또한 거기에는 항시적으로 수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취업 로동자들도 래일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계급적 견지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대비하여야 하며 두 제도 하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문제는 일면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교양이 속물적으로 진행될 때 근로자들이 계급적 견지에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할 줄 모르고 다만 목전의 물질적 생활에만 관심하게 되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이 제도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우리 나라 남반부와 북반부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근로자들은 상반되는 두 제도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임무이다.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민들을 해방하고 공산주의에로 이끌어야 할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것은 부단한 혁명 과정이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고 전국에서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며 세계에서 피압박 인민들이 다 해방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부단 혁명의 사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있다.

우리는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도달된 성과에 만족하여서는 안 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도에서 주저 앉을 권리가 없다.

우리는 앉아서 제국주의자들, 계급적 원쑤들의 멸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그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공산주의 승리를 달성하기까지 계속 전진하고 계속 투쟁하기 위해서는 안일성과 권태증을 철저히 배격하고 항상 긴장되고 김박하게 생활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견지하도록 대중을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며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고 한 위대한 레닌의 교시를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우리는 자만자족하지 말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다.》(김 일성)

계급 교양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도덕 교양이다.

로동 계급의 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생활 전통과 인습에 있어서까지 온갖 낡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인적 리해 타산과 금전 관계에 기초한 생활 관습과 도덕, 퇴폐적인 생활 기풍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것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는 동시에 그것이 내부에서 소생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커다란 후과를 끼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도덕과 관습에 대치하여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며 생활하는 새로운 인간 관계, 새로운 도덕 기풍이 전 사회에서 승리하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 널리 발현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생활 기풍을 구감으로 하여 공산주의 도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도덕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계급적 의식으로 무장시키자면 그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근로 대중과 청소년들을 열렬한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함이 없이는 매개 나라에서 승리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세계 혁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근로자들의 열렬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하고 자기 나라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가장 빨리,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는 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 인민 자신이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립장을 견지하고 자기 나라에서 제기되는 혁명 과업들은 무엇보다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해결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주견과 철저한 책임감, 또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견이 있고 책임감과 민족적 자부심이 있을 때라야만 사람들은 애국주의를 행동과 실천에서 남김 없이 발휘할 수 있다.

로동 계급이 주권을 장악한 조건하에서 애국주의를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 수 없고 국제주의를 떠나서는 애국주의도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오늘 그의 통일과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친선 단결과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승리의 중요한 담보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사상으로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며 지어는 이 나라들의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까지 감행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진정한 국제주의는 모든 인민들이 자기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 프로레타리아트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우선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다른 나라의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력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 나라들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실현하여야 하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의 무조건적 의무라는 사상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근로자들을 계급 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곧 공동의 원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의 전투적 련대성의 정신으로, 그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려는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으로 된다. 계급 교양은 가장 중요한 국제주의 교양으로 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계급적 원쑤와의 비타협적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떠나서 국제주의 교양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제국주의를 반대하지 못 하게 하려고 하며 자신이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혁명을 하지 못 하게 하려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정신으로 대중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응당 대중을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부단히 교양하여야 하며 그들이 혁명의 기치를 견지하고 자기 나라에서와 전 세계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도록 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 *

우리 당은 우리 혁명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앞으로도 근로자들과 후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 공산주의 교양을 부단히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계급 의식과 혁명적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일체 부르죠아 사상과 수정주의의 침습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것이며 세계 혁명 앞에서 지닌 우리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의 위대한 승리

지난 9월 초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1963 년 인민 경제 계획의 실행 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1964년 계획을 토의하였으며 명년도의 투쟁 목표와 그의 실행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 해 계획의 실행 정형을 9 월에 총화하며 또 3 개월 전에 명년도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토의한다는 것은 실로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계획화의 비상히 높은 수준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며 경제 건설에 대한 우리 당 지도의 능숙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계획화를 개선 완성한 우리 당의 창조적 활동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며 대안 체계를 실현하는 행정에서 달성한 커다란 승리이다.

1

사회주의 경제는 곧 계획 경제이며 사회주의 경제 체계는 계획 경제 체계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오직 통일적 계획 밑에 모든 경제 부문과 경제 단위들의 활동을 옳게 결합시키며 목적 의식적으로 조직 운영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레닌은 《사회주의는… 수천만 사람들로 하여금 생산 및 생산물 분배의 사업에서 유일한 규범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계획적인 국가적 조직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전집 제 27 권, 427 페지)고 지적하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의 경험은 인민 경제에 대한 계획적 지도, 계획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발전하는 현실에 적응하게 계획화를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들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이 문제의 옳은 해결이 없이는 재생산에 필요한 균형을 정확히 유지할 수 없고 인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로농 동맹의 강화 발전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훌륭히 리용하는 문제도 기대할 수 없다.

계획화의 의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의 확립과 그의 공고 발전,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에 따라 더욱더 증대된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는 모든 경제 부문과 생산, 분배, 교환, 소비, 축적 등 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들을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경제 부문이 세분화되고 호상간의 련계가 복잡해지며 이것은 생산 과정에서의 일치성과 균형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된다.

인민 경제 계획화를 부단히 개선 완성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한다는 것—그것은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그 집행에 이르는 모든 행정에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인입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일성 동지는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생산자 대중을 참가시키지 않고 작성하는 계획은 주관주의적 계획이며 이런 계획을 아래에 내려 먹이는 것은 관료주의이다… 어떤 사람들은 로동자들은 헐한 것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로동자들의 혁명성을 믿지 않는 옳지 못한 생각이다.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주력 부대이다. 그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면 그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다 나온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오직 계획화 사업에 광범한 근로 대중을 실질적으로 인입할 때에만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요인들—설비와 자재, 로동력,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 등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 그렇게 할 때에만 계획을 대중 자신의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계획을 그 질과 량에 있어서 성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계획은 대중의 창발적 발기들을 충분히 종합하여 작성되였을 때에 비로소 적극적인 것으로 되며 또한 생산자들 자신이 계획 수행의 목표, 그 제품 생산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계획 수행 방도를 명백히 알 때 그것은 진실로 대중의 생산 활동을 향도하는 지침으로, 그들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고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경제 발전의 비상히 빠른 속도를 견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계획화를 개선 완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짧은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경공업 부문 등에서 수 많은 새로운 부문들이 창설되였으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포함한 모든 경제 부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생산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비상히 높은 발전 속도는 경제 부문 상호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케 하였으며 따라서 계획화 사업은 정확히 해결하는 문제를 특히 날카롭게 제기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서 계획 경제를 실시한 첫날부터 시종 일관 계획화의 개선을 위하여 커다란 관심을 경주하여 왔으며 계획화의 체계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시켜 왔다.

계획화의 개선 완성을 위한 우리 당 활동의 확고 부동한 기초로 되는 것은

바로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며 대중의 창조력을 남김 없이 동원하는 군중 로선이다.

계획화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은 특히 1956년 12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당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은 생산 현장에 내려 가 대중에게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알려 주고 대중과 마주 앉아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과 함께 그 수행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근로자들은 대중적 증산 운동에 궐기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가 일어 났다.

그 후 우리 인민이 계속 기적적인 경제 건설 성과를 달성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뚫고 경제를 높은 속도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계획이 군중과의 토의를 거쳐서 작성되고 군중이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접수할 때에는 아무리 긴장된 계획이라도 능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2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의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게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형식과 방도들을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생산자 대중을 계획화 사업에 인입하는 형식은 다양하다. 우리 당은 행정 관리 체계를 통하여, 생산 협의회 기타 여러 사회적 조직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주의 경쟁을 통하여 근로자들을 계획화 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왔다.

특히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생산에서의 집단적 혁신 운동이며 인간 개조의 위대한 공산주의 학교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통하여 경제 관리에 대중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계획화 사업에서 비상히 높은 자각적 열성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형식들은 근로자들을 계획화 사업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직접적으로 참가시킬 수는 없었다. 여기에서는 생산자 대중이 주로 작업반, 직장의 범위에서 계획화 사업에 참가하는 정도를 벗어 날 수 없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보다 완성된 체계와 형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문제는 바로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계획화에 구현됨으로써 전면적으로 완성되게 되였다.

청산리 방법의 기본 요구는 지도 일군들이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일터에서 근로자들을 도와 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대중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실천적 투쟁 행정에서 대중을 계획화 사업에 적극 인입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해결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 체험을 통하여 계획화 사업의 전 행정에서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계획의 현실성, 과학성, 동원성을 보장하며 예견된 계획을 언제나 어김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는 것이 더욱 확증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바로 청산리 방법이 공업에 대한 관리 운영 체계에 도입되고 구현된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본질은 당 위원

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여 생산자 대중의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그들의 자각적 열성을 조직 동원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경제 관리에 실질적으로 참가시키는 데 있다.

경제 관리에 생산자 대중을 실질적으로 참가시키는 것은 어떤 행정적 명령이나 지시로써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고 로동 계급 속에서 당 사업,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에서는 당의 령도적 역할이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당 위원회는 세포들, 세포는 당원들을, 당원들은 대중을 움직이는 정연한 당 사업 체계와 함께 정치 사업을 선행하여 사람들을 자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당적 사업 방법이 확립되여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근로자들을 발동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그들을 경제 관리, 계획화 사업에 가장 훌륭히 참가시키는 바로 여기에 당의 군중 로선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 체계의 혁명적 본질이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도입하는 행정에서 우리가 달성한 성과는 바로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생산자인 로동자들과 토의하여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생산자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김 일성, 우와 같은 책) 새로운 계획화 체계의 커다란 우월성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실로 새 계획화 체계에서는 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행정에 대중을 직접적으로 인입하는 형태와 방법, 생산의 지휘 성원들이 계획화 사업에서 놀아야 할 역할과 그들과 생산자 대중과의 련계에 관한 문제 등이 전면적으로 해결되였다. 이것은 군중 로선에 기초하여 계획화의 실천적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한 모범으로 되며 맑스-레닌주의 계획화 리론 발전에 대한 귀중한 기여로 된다.

대안 전기 공장에서는 새 계획화 체계를 확립한 결과 매개 기계 설비들의 성능과 그 마모률, 보수 정형과 정밀도, 로동자들의 의식 수준과 기능 수준, 생산 경험 지어는 그들의 건강 상태와 소질, 가정 생활의 구체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료해한 기초 우에서 계획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이 공장에서는 정밀성과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 지난해 년간 계획을 2 개월 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그 후 계속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우리 당은 청산리 방법을 농촌 경리의 관리 운영에 구현하여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사회주의 농업에 대한 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 오게 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국가가 직접 기업적 지도 방법으로 농촌 경리를 관리 운영하며 기술 력량과 물질적 수단이 배합된 지도가 보장될 때에만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계획적 지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계획적 지도, 이것은 공업을 지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것은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의 차이, 로동자와 농민 간의 의식 수준 및 기술 문화 수준 상

차이와 함께 생산 행정에 미치는 자연적 조건의 차이 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사실 상 새 농업 지도 체계가 창설되기 전에는 협동 농장들이 기계 설비, 물, 전력 기타 자재의 공급 사정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없었다. 또한 종전에 군 인민 위원회는 필요한 기술 력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별개의 체계에 따라 군내에 포치되여 있던 농기계 작업소, 관개 관리소, 농기구 공장, 건재 상점 등을 장악할 수 없었으므로 협동 농장들에 대한 정확한 계획적 지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기업적 지도를 통하여 생산의 모든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정확한 계획을 세우며 농장들의 계획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그것을 군'적인 계획을 통하여 유일적인 국가 계획에 밀접히 결합시킬 수 있게 되였다.

또한 경영 위원회는 군내의 농촌 경리 봉사 기업소들을 협동 농장들과의 긴밀한 련계 하에 농업 생산 과정에 참가시키고 호상 계약에 의하여 맞물리게 하였으며 협동 농장별, 영농 작업별로 되는 월 작업 지령을 통하여 농장들의 계획 수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적당히 조절 배치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많은 협동 농장들에서는 년간 계획이 년초에 작성된 대로 년중 변동 없이 수행되게 되였다. 이것은 농업 계획화 사업에서 일어 난 커다란 혁신이다.

경영 위원회가 창설되고 농업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이 관철된 결과 많은 군들에서는 1945년 이후의 농업 생산에 관한 매년 실적 자료와 군내 협동 농장들의 현 상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협동 농장별로 근거 있는 현행 및 전망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농촌 기술 혁명과 농촌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년차별 계획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새로운 지도 체계의 커다란 우월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공장과 농장, 생산 단위들에서 혁명적 군중 로선을 체현한 새 계획화 체계가 확고히 도입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더 큰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다.

3

우리 당은 공업과 농촌 경리에 대한 새로운 관리 지도 체계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국가 계획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국가 계획 위원회 내의 로동, 재정, 기본 건설, 기술 계획 등 중간 종합 부서들이 통합되였으며 통계가 대폭적으로 축소되였다. 이것은 사회적 생산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련결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으며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킬 수 있게 하였다.

지방 계획 기관들도 일층 강화되고 그에 대한 지도가 개선된 결과 지방의

자연 경제적 조건들과 잠재하는 예비를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전략 및 작전 계획 단위들에서 아래에 내려갈 수 있는 정연한 사업 체계가 확립된 조건에서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군중 토의의 가장 효과적인 형식과 방법을 찾아 내며 충분한 토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중 토의 사업의 기본 단위는 생산자 대중이 직접 일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들이다.

성, 국 지도 일'군들은 생산 현장에 나가 군중과 토의하는 행정에서 하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게 되며 기업소 호상간, 부문간, 지역 간의 련계를 정확히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군중 토의 사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년간 계획을 전년 4월부터 9월까지 광범한 생산자들과 토의하여 작성하게 하며 10월에는 작전 및 전투 계획 단위들에 시달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계획화에서의 군중 로선의 철저한 관철은 국가로 하여금 하부의 구체적 실정을 손'금보듯이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든 조건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과학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 한 분기 이상 앞당겨 명년도 계획을 토의할 수 있은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 우에서만 가능하였다.

명년도 계획을 3 개월 이상 앞당겨 토의한 것, 이것은 계획화에서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승리인 동시에 앞으로 군중 로선을 더 잘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여 놓았다.

그것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미리 명년도 계획을 알고 그 수행 방도를 토의할 수 있게 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체 준비 사업을 더 실할 수 있게 한다.

수개월이나 계획을 앞서 시달하는 것은 우선 명년도의 대전투를 앞두고 정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과의 사업을 더 잘 하며 생산자 대중을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제 우리는 자기 앞에 제기된 명년도의 구체적 과업을 놓고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를 대중 속에 충분히 침투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그 과업의 해결이 가지는 정치 경제적 의의와 그의 수행 방도를 보다 명백히 인식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대중의 자각성을 더욱 높이며 어떠한 일이라도 제기된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자신심과 책임감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한편 지도 일'군들로 하여금 사람과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청산리 사업 방법을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계획을 훨씬 앞서 시달하는 것은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물질 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한다. 성, 국,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의 보수 및 그 리용률 제고 대책, 로동 행정 사업의 개선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 대책,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와 기술 혁신을 추진시킬 방도 등을 하나 하나 따지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충분히 동

위하여 생산을 더 빨리 발전시키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수행 과정에 있는 금년도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원만히 결속 짓도록 추동함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경제는 부단히 상승 발전하는 것이 법칙이며 따라서 계획은 해마다 장성하고 명년에는 금년보다 더 크고 높은 과업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다음 해의 방대한 계획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곧 해당한 생산 수준을 년초 전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년 계획을 미리 정확히 예견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추동하는 강력한 작용을 놀게 된다. 특히 명년도 계획과 같이 그 내용이 방대하고 비상히 빠른 발전 속도를 예견한 계획의 실현을 준비하는 행정에서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는 상응한 생산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년 계획을 더 잘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민 경제 계획을 훨씬 앞당겨 작성 시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과업을 철저히 인식하고 더 잘 준비하며 더 잘 투쟁하게 한다.

이리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년초부터 국가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초과 수행하도록 확고히 보장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보다 훌륭히 보장할 것이며 특히 현 시기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협동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튼튼히 보장할 것이다.

＊　＊

우리 당은 계획화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을 개척하였다.

우리 당이 창조한 새로운 계획화 체계를 튼튼히 틀어 잡고 나아갈 때 근로자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은 더 높이 발양될 것이며 생산력은 부단히 발전하고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구체화하는 사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속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모든 근로자들 속에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정확히 침투시키며 그들과 더불어 계획 수행의 방도를 집중적으로 토의하며 명년도 계획 수행을 위한 준비 사업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금년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그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며 면밀한 지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 조직들은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 동원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에로 힘차게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과 1964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

김 상 학
정 관 룡

명년도 계획에는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확고히 관철되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최근 1~2 년내에 인민 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며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중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금번 우리 당이 호소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는 우리 나라 천리마 운동의 계속 발전 과정에서 일어 나는 또 하나의 비약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발전에서의 새로운 계기,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이룩함으로써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는 위대한 력사적 과업을 실현하였다.

오늘 바야흐로 일어 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자력 갱생의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면서 이미 마련한 튼튼한 밑천에 의거하여 우선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이며 전면적 기술 혁명 수행과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며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당은 이 새로운 고조 속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동시에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우선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에 력량을 집중하고 계속 자립적 민족 경제를 더욱 튼튼히 건설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규정하고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 것을 제시하였다.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더욱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켜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은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이 성숙된 요구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섰으며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영원히 해방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아직도 유족하게는 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지금 더욱 풍만하고 보다 문화적으로 살 것을 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쌓아 올린 힘 있는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전면적으로 전개하며 인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유족한 생활에로의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그리하여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오랜 세기적 숙망은 오늘에 와서 현실로 될 수 있게 되였다.

실로 명년도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은 남보다 못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나라의 튼튼한 경제 토대가 축성되고 경제 건설에서 여유가 생긴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객관적 요구이다.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이 가장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는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우리 당과 인민이 악전 고투하여 축성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는 것이며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의 승리에 기초하는 것인 동시에 그의 계속 관철로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직접적으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로선이며 또한 그것은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을 보장하는 로선이다.

이 로선은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최대한으로 결합시키는 로선이며 전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는 로선이다.

또한 이 로선은 경제 발전의 매 계단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로선이다.

1964 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바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의 이상과 같은 본질적 요구를 명년도 경제 발전의 새로운 조건에 상응하게 확고히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 어떻게 관철되며 구현되고 있는가.

첫째로 명년도 계획은 이미 축성된 강력한 중공업의 위력에 의거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소비품 생산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룩할 것을 예견하

고 있다.

이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의거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을 동시에 해결하는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철저히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우리 당은 명년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인민 생활 향상과 직접 관련된 중공업 부문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당의 이 방침은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의 본질적 요구이며 기본 로선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방도이다.

세째로 명년도에는 인민 소비품 생산 기지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춤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더한층 강화될 것이다.

네째로 명년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는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촌 경리 발전의 호상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이 이룩됨으로써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달성할 것이다.

명년에 우리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환경에서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경공업이 중공업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균형을 이룩하는 조건에서도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견지하게 된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본질적으로 보아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의 객관적 요구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당의 일관한 경제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명년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이미 우선적으로 장성하여 온 강력한 중공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을 준비함으로써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로선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복무시키는 것은 기본 로선의 본질적 요구이다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명년에 우리 당이 결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심 문제이며 현 시기 우리 앞에 나선 가장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오늘 경공업 제품들의 품종과 그 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며 알곡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면서 벼의 비중을 높이고 축산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및 기술적 토대를 더한층 공고히 할 것이 요구되며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중공업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명년에 이미 마련된 강력한 중공업의 토대를 더욱 정비 보강함으로써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시킬 과업을 제시하였다.

중공업을 경공업 및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인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공업 부문의 발전에 중점을 두는 당의 일관한 방침의 구현이며 이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인민 소비품 생산의 높은 장성과 결합시키는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의 본질적 요구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중공업의 발전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비재 생산 부문의 발전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또한 그 발전에 의하여 제약된다.

중공업 발전의 우위를 보장하면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인민들의 장성하는 생활 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법칙과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의 객관적 요구이다.

더우기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현대적인 중공업과 경공업은 물론 수공업마저 가지지 못 하였고 또한 농업 생산도 극히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그리고 전쟁에 의하여 인민 경제가 여지 없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전후 최단 시일 내에 나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사정은 중공업 건설에서 인민 생활과 밀접히 련결된 부문에 중점을 두며 또한 중공업의 토대가 축성되는 차제로 그 힘을 최대한으로 소비품 생산에 복무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특히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자체의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자기 힘으로 인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민 소비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민 생활에 최대한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전후 우리 나라 중공업 발전의 중심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리가 하려는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이요, 앞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기초를 닦는 중공업이요, 또한 오늘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공업이다.》(선집 제 5 권, 365 페지)

우리 당은 전후 시기 인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방침을 계속 견지하면서 경제 발전의 매 시기의 구체적 조건에 상응하게 그를 관철시켰다.

전후 3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당은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공업화의 기초 축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면서 전쟁에 의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단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5 개년 계획 기간에 당은 인민 생활 향상과 공업화의 기초 축성에 모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의 기간적 부문들을 꾸리면서 나라의 경제 토대를 위한 중공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힘을 돌렸다.

당은 7 개년 계획의 첫 시기에 인민 생활의 가일층의 향상과 전면적 기술 혁명의 수행을 위하여 중공업 발전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에 필요한 중공업 부문들을 보충 정비하여 왔다.

특히 명년에 우리 당은 최근 년간 이미 보충 정비하여 온 강력한 중공업의 위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

휘시켜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철저히 복무시킬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은 명년도의 새로운 조건에서 중공업을 인민 소비품 생산에 복무시키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선 금속, 화학, 기계 공업 부문 등에서 재가공품과 세공 제품의 생산을 발전시키며 또한 현존 중공업 공장들의 생산 능력과 기술 지표를 더욱 제고시키며 그리고 생활 필수품 직장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등 중공업 공장들의 예비를 적극 동원할 것이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적극 복무시키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며 그것을 보충 정비하는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공업을 정비 보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 방향에서 진행된다. 그의 하나는 중공업 골간에 보조적 및 부차적 부문들을 보충하고 제품의 품종 구조를 더욱 완비하는 것이며 그의 다른 하나는 현존 설비들과 기술 공정들에 미비한 점들을 보강하여 그 생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명년에 중공업을 정비 보강함에 있어서 우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키고 세공 조직을 잘하는 등으로 인민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공업 제품의 품종을 더욱 확대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명년에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공업 제품,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금속, 화학, 기계 공업 등에서 재가공품의 품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보다 다각적이며 밀접한 생산적 련계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수천 수만 종에 달하는 일용 필수품과 문화 용품 중에서 초물 제품과 도자기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들은 우선 철재를 리용함으로써만 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속 공업에서 각종 소형 압연 시설과 인발 강관 직장 등을 보충 정비하여 규격이 큰 대중형의 압연 강재 뿐만 아니라 각종 소형의 강재와 가는 철선, 얇은 박판 등 재가공품의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주로 기계 제작과 기본 건설에서만 쓰이던 금속 자재를 각종 인민 소비품 생산에 더욱 광범히 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화학 공업에서 화학 섬유와 합성 수지를 비롯한 각종 경공업 원료와 화학 비료와 농약 등을 보장하며 또한 기계 공업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선진 농기계들과 소형 선반, 소형 압연기, 인발기와 수지 가공 설비 등 경공업 설비들을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공업 제품의 품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채취 공업으로부터 가공 공업 및 재가공 공업을 걸쳐 인민 소비품 생산에 이르는 일관된 생산 순환을 확립하게 되며 우리의 중공업 부문들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욱 잘 복무시킬 수 있다.

제품의 품종 확대를 위한 중공업의 이와 같은 정비 보강은 우선 중요하게 많은 투자 없이 현존 기업소 내부에서 일부 설비 또는 직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실현할 것이며 극히 부분적인 경우에는 중 소 규모의 새 공장을 건설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당은 명년에 중공업을 보충 정비함에 있어서 중공업 제품의 품종 구조를 완비할 뿐만 아니라 부대 설비들

과 부대 조건들을 충분히 꾸림으로써 그의 생산 능력과 기술 지표들을 현저히 개선하며 내부 예비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데도 매우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지난 시기 중공업 건설에서는 그 골간을 꾸리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 생산 공정들을 구비한 데 비하여 부차적인 공정과 보조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하였다.

우리는 명년에 원료의 예비 처리 공정, 제품 검사 공정, 과학적인 기술 관리에 필요한 측정 조절 장치 등을 보충 완비하며 이와 함께 부산물, 폐설물 등을 회수 처리하여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부대 공정들을 보충 정비함으로써 중공업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

실례로 우리는 명년에 금속 공장과 기계 공장들에서 파철장과 파철의 선별, 절단, 파쇄, 압착 설비 등을 충분히 보충할 것인바 이것은 명년도 계획에 예견된 바와 같이 50만 톤의 파철을 회수 리용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로 될 것이다. 강철 생산에서 50만 톤의 파철을 리용하는 것은 100만 여 톤의 철광석과 80만 톤의 수입 콕스 원탄을 소비하여 1 년 동안에 생산하는 선철을 대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년에 우리는 중공업을 보충 정비함으로써 중공업을 크게 확대함이 없이 주로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것에 의하여 중공업 제품의 생산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기계 설비들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명년에 중공업을 인민 소비품 생산에 복무시키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중공업 공장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들을 대대적으로 정비 확대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현대적인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창설되고 중공업 공장의 수와 규모가 커진 조건에서 우리에게는 생활 필수품 직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각종 설비들을 중공업 공장 자체에서 보충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중공업 공장을 비롯한 중앙 공업 공장들에서 생활 필수품 직장을 확대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명년에 생활 필수품 직장의 생산액은 금년에 비하여 약 5 배로 장성하며 경공업 총 생산액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정도에 달하게 될 것이다.

중공업 공장을 포함한 중앙 공업 공장들에서 생활 필수품 직장의 확대 강화는 큰 투자 없이, 단시일 내에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키며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우리는 명년에 일용품 공업에 대한 국가적 기본 투자를 그 전년에 비하여 크게 증대시킴이 없이도 생활 필수품 직장의 확장과 관련하여 그 생산액을 약 2 배로 장성시킬 수 있다.

생활 필수품 직장의 확대는 중공업 공장의 폐설물과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일용 필수품 생산의 원료 원천을 확대하며 원자재를 절약적으로 리용하여 값싼 일용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또한 대규모 중공업 공장들에 구비된 높은 기술 토대와 기술 력량을 소비품 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 소비품의 질 문제

를 해결하며 품종을 확대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기여로 된다.

생활 필수품 직장을 확대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우리는 중공업의 예비를 동원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조성된 자금 원천과 여유를 리용하여 중공업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생활 필수품 직장을 확대할 데 대한 과업의 성과적 실현은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게 할 것이다.

명년도 인민 경제 발전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명년에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조건에 상응하게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를 가장 정확히 해결할 것이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공업 총 생산액을 121%로,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113%, 소비재 생산은 135%로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경공업이 중공업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도 인민 경제 전반에서 매우 높은 발전 속도를 실현할 것을 예견하는 명년도 계획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의 호상 관계에서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명년도 인민 경제 발전에서는 경제 발전의 속도와 균형에서의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도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과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당의 경제 정책이 계속 관철될 것이다.

맑스는 확대 재생산에 관한 불후의 과학적 도식을 천명하면서 확대 재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의 필연성을 기초 지었다.

그러나 맑스는 그의 도식에서 확대 재생산의 실현 조건으로서 I 부류의 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의 합계가 II 부류의 불변 자본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I 부류가 소비재를 생산하는 II 부류보다 빠른 속도로 장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직접 표시하지는 않았다.

레닌은 확대 재생산에 관한 맑스의 도식에 기술의 진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장성을 고려함으로써 그를 더욱 구체화하고 완성시켰으며 확대 재생산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을 경제 법칙으로서 규정지였다.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은 인민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재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빠른 장성 속도를 요구하며 그것은 경공업에 비한 중공업의 빠른 장성 속도, 농업에 비한 공업의 빠른 장성 속도에서 구현된다.

우리는 여기에서 맑스와 레닌에 의하여 천명된 확대 재생산 리론의 본질적 요구를 옳게 파악하고 현실의 다양한 구체적 조건에 맞게 그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우선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 법칙과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관한 것 자체는 개별적 년도, 또는 수년 간의 일시적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경제 발

전의 일정한 전망에서, 장기적인 견지에서 중공업이 우선적으로 장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확대 재생산의 실천 조건을 명시하는 맑스의 도식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생산 수단의 효과적 리용 정도의 변동과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의 제고, 인민 경제 제 부문들에서 각이한 생산 예비의 크기의 변동과 전년도로부터 조월되는 생산 수단 규모의 변화 등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전후 복구 시기(1954~1956 년간)에 경공업에 비한 중공업의 발전 속도를 약 1.9 배로, 5 개년 계획 기간(1957~1960 년간)에는 그것을 약 1.1 배로 중공업의 보다 빠른 장성을 보장하였으며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1961~1963 년간)에도 그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고 있다.

당은 전후에 우리가 간고 분투하여 그 골간을 꾸렸으며 지난 3 년간에 그를 더욱 정비 보강한 강력한 중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명년도에는 인민 소비품 생산의 비상히 빠른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자립적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을 한 계단 더 높이 끌어 올리며 인민 소비품 생산의 발전을 앞세움으로써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되고 있다.

실로 명년도의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성숙된 요구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고 경제 건설에서 여유가 생긴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객관적 요구이다.

명년도에 이미 마련된 중공업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살데 대한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건설에 대한 그들의 열성을 더욱 제고케 하며 그것은 또한 중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 소득 분배에서 그에 상응하는 소비의 증대를 동반하는 동시에 그것은 다른 한편에 있어서 축적의 유일한 원천인 사회 순소득을 국가 수중에 집중 시킬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명년도에 국가 축적의 자금 원천을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중공업의 계속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게 된다.

우리 당은 명년에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또한 앞으로 중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견경적으로 선행시키며 광업, 석탄, 전력, 림업 등 원료 및 연료-동력 부문들과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강화하게 된다.

금년에 비하여 명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은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 속도를 훨씬 릉가하며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특히 공업에 대한 총 투자액 중에서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최근 수년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명년도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현저히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금후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로 되며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명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발전의 매우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된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명년도에는 이미 이루어진 중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앞으로 다시 중공업 건설을 더욱 확대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중공업의 강력한 토대를 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명년에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며 중공업의 금후 발전을 준비하는 당의 이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계단에서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를 축차적으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단계에로 부단히 전진하는 우리 당의 세련된 혁명적 령도 방법을 다시 한 번 증시하는 것이다.

실로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여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철저히 해결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련쇄를 튼튼히 이끌고 나아》가고 있다. (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우리 당은 명년도 공업 생산에서 21%라는 높은 증가 속도를 예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생산 장성의 높은 속도를 예견하고 있다. 생산 장성의 이러한 빠른 속도는 생산의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였으며 그리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우리 나라 현 조건에서 류례 드문 높은 속도이다.

명년도에 경공업의 장성 속도를 중공업에 비하여 훨씬 앞세우면서도 확대 재생산의 매우 높은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요인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의 거대한 잠재력과 특히 이미 축성한 중공업의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데 기초하는 것이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 설비와 원료 자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 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며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데 있다.

지금 중공업, 경공업 및 건설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는 생산 증대를 위하여 동원 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예비가 있으며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더욱 큰 예비가 있다.

명년에 인민 소비품 생산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의 제고와 원자재의 합리적 리용, 중앙 공업 공장들에서의 생활 필수품 직장의 신설 확대, 중공업을 정비 보강하는 방침의 계속 관철 등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 리용하며 기본 투자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훨씬 큰 생산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생산의 전반적인 높은 장성 속도, 특히는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례컨대 우리는 명년에 중공업 부문에서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켜 각종 규격의 압연 강재를 비롯한 재가공품의 품종을 확대함으로써 중공업 제품들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더욱 유용하게 리

용하며, 특히 동일한 현물량의 원자재를 가지고 종전보다 가치 있는 더 많은 인민 소비품을 생산할 것이다.

명년에 중공업에 비하여 경공업의 장성을 앞세우면서도 확대 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대책들은 맑스와 레닌에 의하여 구명된 확대 재생산의 실현 조건을 우리 경제 발전의 현실에 맞게 가장 적극적으로,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전후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하는 데 매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당은 시종일관 축적을 계통적으로 증대시키는 기초 우에서 소비를 부단히 증대시키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당은 이 방침을 견지하여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의 관철을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함께 인민 소비품의 생산 기지를 구비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 자립적 민족 경제는 바로 축적과 소비에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자체의 경제 토대에 의하여 축적과 소비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되고 있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도 축적과 소비에 관한 당의 방침은 계속 관철되고 있다.

명년에 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앙양되고 특히 로동 생산 능률이 매우 급속히 장성함으로써 국민 소득은 121%의 높은 속도로 장성한다. 이에 기초하여 명년도 계획은 국민 소득 분배에서 축적에 계속 상당히 큰 힘을 돌리면서도 인민 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소비 폰도를 더욱 크게 증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우리 당은 명년에 생산적 건설에서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투자의 높은 비중을 계속 유지하며,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축적과 경제 건설을 최대한 인민 생활 향상에 복무케 하는 당의 일관한 방침을 더한층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당은 명년에 생산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기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케 함으로써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진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축적과 소비에 관한 당의 이러한 방침과 조치들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1964년 계획의 실현은 7 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명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소비품 생산의 장성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 생활은 현저히 향상될 것이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룩한 경제 건설의 열매인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그들의 열성을 더욱 고무할 것이다.

이것은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일떠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 추동할 것이며 조국 통일의 실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우리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힘 있게 시위하는 것으로 되며 로동 계급의 리익을 배반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촌 경리 지도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김 만 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는 농촌 경리 발전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명년에 농업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은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기된 명년도 중심 과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논 면적의 대대적인 확장, 정당 수확고의 제고, 2모작 체계의 광범한 도입, 간혼작의 대대적인 실시, 고산 지대에서의 알곡 증산에 력량을 집중할 것이며 특히 알곡 구성에서 벼의 비중을 제고하여 알곡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축산업과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며 공예 작물 생산을 강화하여 경공업의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최근에 진행된 평남도 당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가 농촌 경리 부문 앞에 제시한 방대한 과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고 협동 농장에 대한 지도에서 기업적 방법을 더 능숙하게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창설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이미 실천에서 그의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보여 주었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나온 이후 농촌 기술 혁명 과업은 일층 촉진되였고 협동 농장들의 경리 운영 사업은 획기적으로 개선 강화되였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우리는 불리한 자연 기후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알곡을 비롯한 기타 농작물의 대풍작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조직되고 농업에 대한 그의 기업적 지도 방법이 은을 나타냄에 따라 우리 나라 협동 농장은 더욱더 그 자체가 하나의 농업 기업체로서 활동하게 되였다.

협동화 운동 초기에는 그 생산 과정이 복잡한 기술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에 손로동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또 협동 농장 그 자체의 사명이 기업을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였다.

협동 농장들이 리 단위로 통합되고 협동 경리의 생산 과정에 각종 농기계, 화학 수단들이 광범히 참가하게 되였고 협동 농장들이 확대 재생산의 길에 확고히 들어 서게 됨에 따라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한 조건 하에서 협동 농장들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는 수익성 높은 기업체로 발전하게 되였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이것은 현 시기 현대적인 기술 공정으로 전환된 농업 생산 과정의 요구를 가장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 방법이다.

오늘 우리의 농업 생산은 공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기술 공정으로 되였다. 우리 농촌에는 발전된 관개 체계가 수립되여 있고 많은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이 작업하고 있으며 전기화, 화학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토지 정리, 토지 개량, 육종 등 영농 기술이 또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계 작업은 물론이고 물 관리, 시비 체계 및 기타 농업 생산 공정의 매개 고리들이 하나의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였다.

이렇게 현대적인 기술 공정으로 전환된 농업 생산은 기계와 설비들을 적당히 포치하고 제때에 그것들을 보수하고 보강해 주며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모든 기계 설비와 자재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게 하는 기술적 지도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그런데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그 자체는 계획 작성, 생산 조직, 로동력의 배치와 조직, 자재 보장, 재정 활동 등 기업 활동의 다른 측면들을 옳게 지도하는 경우에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왜냐 하면 기업 활동의 이 모든 측면들은 기술 공정으로 되여 있는 농업 생산 과정 자체와 직접 련결되여 있으며 바로 이 생산 과정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에 와서는 오직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위주로 하면서 기업 활동의 다른 모든 측면들을 이에 결합시키는 지도 방법—기업적 지도만이 농촌에서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앙양시킬 수 있게 되였다.

협동 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보다도 채산을 맞추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왜냐 하면 수익성을 내지 못 하는 기업체는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협동 농장들에서 생산 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러자면 생산에 필요한 제반 물질적 수단—기계, 자재, 자금과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생산에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동일한 지출로써 보다 많은 생산물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다.

군 경영 위원회가 기업적 방법으로 협동 농장을 지도하는 데서 계획 작성 사업은 첫 출발점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가 군 협동 농

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한 목적의 하나가 농촌 경리의 계획화 사업을 잘 하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경영 위원회는 계획화 사업을 직접 틀어 쥐고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다.》(《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고 교시하였다.

계획화 사업은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옳게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항상 빈틈없이 서로 딱딱 맞물고 발전하여 나가도록 하며 자재, 로력, 재정 등의 모든 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적은 지출로써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 임무가 있다.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부과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화에서 과학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계획화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계획화를 주관적 욕망에 의하여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자재, 설비, 로력, 자금 등 모든 객관적 조건을 충분히 타산하여 현실에 맞는 실천성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 경영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청산리 방법 대로 밑에 내려 가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토지, 농기계, 로력, 축력 기타 생산력의 제 요소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모든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지난해의 모든 생산 및 소비의 단위당 실적과 토지의 등급별로 되는 작물별, 품종별 정당 수확고, 축산을 비롯한 부문별 생산 실적들을 분석하고 생산의 예비와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할 뿐만 아니라 새해에 조성될 제반 물질 기술적 조건들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개별적 부문들과 단위들의 모든 고리들을 호상 긴밀하게 련계 지어 주는 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 보장 대책으로서의 기계화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농장들의 각종 작업량과 농기계 작업소의 능력을 타산하여 년간 계획을 통일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작업소와 협동 농장에는 년간 및 분기별 계획과 월 작업 지시를 동시에 시달하고 유일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경영 위원회는 농기계 작업소와 협동 농장들의 생산 과정을 더욱 강력히 틀어 쥐고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더욱 제고하고 작업의 질을 높이며 정보당 작업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중 소 농기계화 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경영 위원회에서는 중소 농기계의 도입 정형, 현존 농기계의 대수와 성능, 그 중 수리 정비하여야 할 대수 등을 정확히 조사 장악하는 한편 시기별, 월별 농기계 및 농기구 생산과 공급할 수 있는 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그를 매개 농장에 알려 줌으로써 기계화 작업 계획에 맞물려 부문별 또는 중 소 기계화 작업 계획을 매개 농장들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계화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로력 계획과 맞물리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관개 관리소, 자재 공급소 계획이 협동 농장 계획과 호상 맞물리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 년도에 수행해야 할 각종 기준들을 정확히 제정하여야 한다. 즉 토지 리용률 기준, 자재 소비 기준, 작물 배치와 그에 따르는 공정별 기술 자료 및 로동 정량, 뜨락또르의 가동률 및 단위당 급수 기준 등 계획 작성의 기초로 되는 각종 기준들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에 기초하여 생산 과정에 대한 작물별, 작업별 기술 공정 계획을 작성하고 그를 년간 생산 계획 작성의 기초로 되게 하는 동시에 농사를 과학 기술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 공정 계획은 토지, 기계, 물, 자재, 로력 등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생산에 투하하면서 가장 능률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겠는가, 특히는 단위당 수확고를 최고도로 높이며 지출 단위당 소출을 높이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기술 공정 계획에는 생산 과정에 대한 작업 공정별 작업량과 그에 따르는 농기계 아그레가뜨의 편성 및 작업 조직, 작업 기준량, 소요 로력, 소요 자재, 작업 시간, 매단 작업 처리에 대한 농학 기술적 요구, 작업비 등이 포함된다.

이 기술 공정 계획에 의거하여 생산 및 물질적 보장 계획들이 수립되고 모든 농산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 위원회는 수립된 년간 생산 계획에 기초하여 그를 집행하기 위한 월 작업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모든 작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업화를 보장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생산의 제 요인들인 기계, 물, 전기, 비료, 토지 등의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선진 영농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농업 생산에 대한 기술적 봉사 및 기술적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경영 위원회는 농기계 작업소들로 하여금 우선 기계 수단들을 잘 동원 리용함으로써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여 자체의 채산을 보장하면서 당의 기계화 방침을 관철시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선 군 경영 위원회는 매개 협동 농장들의 지형 및 토양 조건과 기계화 작업 범위, 로력 및 축력 상태를 조사 료해하고 그에 적응하게 뜨락또르를 배치하며 뜨락또르 중대와 소대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기계화 작업 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도록 지도 통제하며 계획에 예견된 원 단위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 자체의 수입을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경영 위원회는 수리 및 기술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시작품 합평회, 농장 관리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자

수 조직하고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며 군내 매개 지역에 적합한 농기계의 량과 규격, 기술 조건을 제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뜨락또르 자호별 성능에 따라서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며 규정된 작업 시간에 자기 정량을 실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 위원회는 농기계 작업소들로 하여금 중대 단위로 기술 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대별 토양의 종류, 포전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뜨락또르 자호별 작업 정량과 연유 소비 기준을 제정해 주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 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은 수도작을 비롯한 농업 생산물 증산의 결정적인 수단이다. 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작물의 생육기별, 시기별로 생물학적 요구에 맞게 급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군 경영 위원회는 농작물의 개별적 생육 과정에 소요되는 물을 정확히 공급하기 위하여 군내 농작물 배치 계획에 따르는 관개용 수량을 정확히 타산하고 용수 원천을 조성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체 수원공을 개선 확장하는 한편 관개 관리소와 협동 농장들에 용수 원천을 조성함에 대한 과제를 시달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모든 수원들과 시설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급수 지구 내에 있는 모든 포전들에 물을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 지휘 체계를 수립하며 협동 농장의 년간 생산 계획 및 시기별 작업 계획과 농업 생산의 기술 공정의 요구에 맞게 급수 조직을 하여야 한다.

물의 효과적인 리용과 함께 경영 위원회는 매개 생산 부문들에서 전기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에서 양수, 탈곡, 정미, 사료 가공 등 농산 작업과 축산 작업에서 기계 동력으로 리용되고 있는 전력의 소비를 절약함으로써 그의 소비 기준을 계통적으로 저하시켜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를 낮추도록 지도 통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협동 농장들에 대한 지도를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화학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수확고를 높이는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비료는 토양의 물리적 조성과 작물의 특성에 따라 그의 종류와 시비량 및 시비 시기, 방법 등을 옳게 규정하여 사용함으로써만 그의 키로그람당 증수률 더 높일 수 있으며 농약도 병충에 따르는 효과성에 기초하여 필요한 종류를 규정하고 병충해의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만이 농약과 로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식물 보호 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고 단위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군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별로 배치된 농작물의 특성과 기후 및 토양 조건에 맞게 각종 비료와 농약

들을 타산하며 재배 작물과 그의 비배 관리 시기에 따라서 시비량, 시비 시기와 시비 방법들을 규정하여 줌으로써 그의 단위당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수단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이다.

김 일성 동지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밑천은 토지이다. 기계도 중요하고 로력도 중요하지만 땅이 없으면 다 소용 없다. 그러므로 토지 정리 사업, 토지 개량 사업을 잘 하여 토지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고 강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경지 면적이 제한되고 척박하며 논밭 토양의 물리적 구성이 다양하며 산성화 정도가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군 경영 위원회는 우선 토양에 대한 물리 화학적 성질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고 토양의 형과 산도에 따라 그를 개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매개 농장으로 하여금 포전 카드를 작성케 하며 이에 기초하여 해당 포전에 개량 재료를 공급하는 한편 토지의 효과적 리용을 위한 기술 지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 정리 사업을 전망 계획에 의하여 계단별로 진행하는 동시에 홍수로부터의 토지 류실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며 토지 리용률과 그의 비옥도를 높여서 수확고를 계통적으로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영농 사업에 선진 재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같은 자재, 같은 로력으로써 농작물의 다수확을 얻는 중요한 고리이다.

군 경영 위원회는 농업 기상 조건 및 자재 조건들에 적응하는 각종 육모 방법을 합리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적기에 전모를 이앙하며 논'벼의 다수확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닐 랭상모, 유지 랭상모, 동과모, 육성모, 절충모 등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도입하도록 하며 기상, 품종, 토양 및 비료 등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파종 방법과 재식 밀도를 규정하는 동시에 논에서는 3정 체계를 수립하며 밭에서는 한발 방지를 위한 봄철 보호나 작업을 광범히 진행하도록 해당한 기술 지도를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기업 운영의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 자재의 공급 행정을 틀어 쥐고 농업 기업소들에 자재를 계획적으로 보장해 주며 자재 경리를 정확히 조직 집행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재를 떠난 생산과 건설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자재 경리를 떠난 기업적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자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재 공급은 계획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정 조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직 사업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만 자재를 원만히 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조직 사업은 없다.》(《모든 힘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농업 생산의 기술 공정에 맞게 자재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자재 공급의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농작업의 시기성에 맞게 자재 공급을 조직하여야 한다.

기자재의 계획화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기자재의 수요와 보장 원천을 밝히고 공급 활동 방향을 규정하여 주는 발란스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자 발란스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물자 소비 기준에 의하여 작업 대상별로 기자재의 수요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시기별, 기술 공정별 순위에 따라 빠짐 없이 예견하는 문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대별, 재배 작물별 특성에 맞는 소비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평균 소비 기준을 정한다면 농업 생산의 구체적 조건이 요구하는 자재 소비를 정확히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랑비와 필요 이상의 예비를 조성하게 된다.

자재 공급을 잘 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에 맞게 기자재 공급 조직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선 농작업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업무 활동의 시기성을 옳게 타산함과 동시에 해당 시기 생산과 건설 작업의 중심 고리를 해결하는 데 자재를 제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 수단들이 계절적으로 투하되며 년중을 통하여 매 시기마다 질적으로 다른 생산 수단이 소비된다는 농작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자재 공급의 적시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랭상모판 용 자재를 비롯하여 농약, 화학 비료, 파종기, 중경 제초기, 수확기, 탈곡기 기타 일련의 농기계, 농기구 등 농업 부문에서는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수단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수단을 사용 직기에 공급하지 못 한다면 해당 작업 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공급된 기자재는 다음 년도 사용 시기까지 사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그러므로 군 경영 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기자재 공급 조직에서 적시성을 보장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기자재 공급 조직에서 적시성과 함께 중요한 문제는 기자재를 종합적으로 공급 보장하는 것이다.

만일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기자재 공급 실적은 높아져도 작업은 예정 대로 진행되지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자재 공급에서는 반드시 작업 단위로 필요한 생산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종합적으로 공급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적 지도에서 기자재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우로부터 아래로 기자재를 책임적으로 날라다 주는 정연한 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우선 자재 공급소의 기

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군 경영 위원회는 기자재 공급 류통 기관인 군 자재 공급소가 협동 농장에 대한 자재 공급에서 독자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재 공급소를 시급히 정비 강화하는 동시에 기자재 류통 계획과 재정 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기자재 상시 보유 한도와 자금 회전 일수를 설정하고 필요한 류동 자금을 교부 받으며 정상적인 은행 대부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 위원회는 자재 공급소를 옳게 운영하여 기자재를 협동 농장들과 직속 기업소들에 직접 날라다 주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전루 계획과 물자 발란스 작성에 자재 일'군들을 참가시키며 기자재 공급 계획을 제때에 시달하여 줌으로써 자재 공급소 일'군들이 자기 사업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적으로 업무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동 농장에 대한 기업적 지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또한 로력 관리를 비롯한 로동 행정 사업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군내 협동 농장과 직속 기업소들에 대한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 기능은 불가피적으로 철저한 로동 행정 사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없이는 군내 농업 생산에 대한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없다.

그것은 농업 생산 행정에는 물질 기술적 수단과 함께 로력이 참가하게 되며 이 로력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때에만 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로동 행정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협동 농장과 직속 기업소들에 대한 로력 관리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통제하는 것이다.

군 경영 위원회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군내 로력 원천을 장악하고 그의 류동을 방지하는 사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협동 농장들로 하여금 로력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방향에서 농장원 명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장원 명부 작성에서는 기본 로력을 무원칙하게 부대 로력으로 만들거나 로동자, 사무원들의 부양 가족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부대 로력자로 인정하는 편향들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농장 총회 또는 대표자 회의 결정도 없이 몇몇 농장 관리 일'군이나 작업반장들이 마음대로 농장원을 가입, 탈퇴, 제명시키는 현상들이 발로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직속 기업소의 로력 실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동자의 류동에 대한 통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직속 기관 기업소에서의 로동자의 채용과 퇴직 및 조동 등이 경영 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미 조사 장악한

자료에 기초하여 매 월별로 매개 협동 농장의 로력 류동과 로력 구성의 변동 정형을 체계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로력 류동에 대한 경영 위원회의 통제는 로력자의 증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협동 농장 및 직속 기관 기업소 내에서 비생산 로력의 증대, 작업반 간 무원칙한 로력의 조동 등 로력자를 고착시키지 않고 자주 류동시키는 현상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장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작업에 로력들을 무원칙하게 동원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로동 행정에 대한 기업적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매 시기 영농 작업을 적기에 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장의 로력을 합리적으로 조직 리용하는 것이다.

경영 위원회는 매개 협동 농장들에서 년간 계획의 실행 방도로 되는 월 작업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시기별 영농 작업을 계획적으로 조직 진행하도록 철저한 지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군 경영 위원회는 영농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자체가 장악하고 있는 물질 기술적 수단들과 군내 협동 농장들의 구체적인 현실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매 시기 영농 사업 방향을 규정하고 그에 철저한 물질적 보장 대책과 로력 조직을 항상 따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 위원회는 매 월별로 생산 과정별 기술 공정 지표에 적응한 영농 방향과 그의 수행 방도를 군내 협동 농장들에 제시하여 주고 그에 기초하여 매개 농장들이 자기 농장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월 작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를 경영 위원회가 직접 검토 비준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 작업 계획에 대한 검토 사업은, 경영 위원회의 계획 기술 및 로동 행정 부문 일'군들의 참가 하에 진행하되 매 농장들의 월 작업 계획이 제반 영농 작업들의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고 중심적인 작업에 로력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였는가, 농기계 및 농기구를 비롯한 물질적 수단들이 그에 안받침되여 있는가 또한 뜨락또르에 의한 기계화 작업과 관개 급수 계획들이 월 작업 계획과 호상 맞물려 있는가 등을 해당 농장의 구체적 실정과 결부시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매개 협동 농장들에서는 월 작업 계획에 대한 군 경영 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매개 작업반의 당면한 작업 진행 정형을 고려하여 월간에 수행하여야 할 작업 내용, 작업 시기 및 로력 투하와 로력의 지출 범위를 규정하는 월 작업 지시를 시달하여야 한다. 작업반에서는 시달된 월 작업 계획이 기계화 작업 계획과 호상 맞물려졌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10 일간 전투 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로동 행정에 대한 기업적 지도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등급별 작업 정량을 정확히 제정하고 로력일 평가 계산을 강화하여 로동 보수 지불에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

하도록 지도 통제하는 것이다.

군 경영 위원회는 년간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시기에 생산 과정에 대한 공정별, 작업 지표별로 되는 정량을 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로력일 평가 계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협동 농장 로력일 평가 그루빠들의 조직 운영 정형을 검토하고 그들의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 로력일 평가 계산에서 극히 중요한 것은 계산된 로력일을 계산장과 로동 수첩에 제때에 정리하고 매월말과 10일에 1 차씩 공시하는 한편 농장 내 작업반 간 로력일 지출 정형을 월별로 검토하고 무원칙한 로력일 지불을 극력 방지하도록 지도 통제하는 것이다.

협동 농장들의 재정 운영 체계의 확립은 농업 생산의 정상적인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되며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의 중요 내용의 하나로 된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의 재정 활동을 책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기업적 지도 방법을 완성하게 된다.

한 개 기업소의 기업 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기업 활동이란 자금의 순환 과정을 조직하며 그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과정이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는 재산에 대한 소유 형태의 차이로부터 협동 농장의 재정 활동을 직접 조직할 수는 없으며 협동 농장의 자금을 지출할 수도 없다. 즉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의 재산을 다치지 않으면서 기업적 지도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협동 농장과 직속 기업소에 대한 재정 부기 사업 지도에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재정 부기 사업에 대한 계획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재정 운영을 옳게 조직하여 주고 재정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매개 고리들에서 재정 계획을 어김 없이 수행하도록 하며 특히는 재정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부기 계산을 경상화하며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 부기 사업 지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협동 농장별로 재원 상태와 시기별 자금의 수입 지출 정형을 분석 검토하고 자금의 합리적 리용 방도를 제시하여 주며 협동 농장들에서 재산의 관리 정형과 그의 합리적 리용 과정을 지도하며 업무 부서들과의 련계 밑에 기자재의 공급에 따르는 자금의 결제 방식들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군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에서 독립 채산제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매개 협동 농장들이 보다 적은 지출로 더 많은 생산을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협동 농장들에서는 가치 법칙의 리용 범위가 좁았으며 독립 채산제의 원칙들이 다른 국가 기업소들에서와 같이 강하게 작용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농장 자체의 성격이 독립 채산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도 독립 채산제의 길이다.

그러므로 경영 위원회는 협동 농장들이 기업 활동에서 자체의 재산을 맞추

고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 *

협동 농장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그에 적응한 사업 방법을 요구한다.

기업적 지도를 강화하며 그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시키자면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모든 일'군들은 일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 아래 일'군들을 책임적으로 도와 주며, 농민 대중 속에 들어 가서는 그들의 일'손을 도와 주면서 당 정책의 본질과 그 수행 방도에 대하여 철저히 인식시키며 이들을 제기된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또한 군 경영 위원회와 지도 일'군들은 군의 전반적인 농작업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의 일반적 공통성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산 단위가 어데인가를 포착하고 이 단위에 준비된 기술 경제 력량을 투입하여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적극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 특히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무궁무진한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형식적 사업 방법을 결정적으로 청산하고 기업적 지도 방법의 본질을 옳게 체득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 해결에서 항상 대중과 같이 생각하고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그를 풀어 나가는 청산리 방법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틀어 쥐고 나갈 때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 서게 될 것이다.

문답 학습

남조선 《국영 기업》의 본질

오늘 남조선 《국영 기업》은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를 위한 경제적 지반으로 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경제의 기간적 부문들을 《국영 기업》의 형태로 장악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의 재생산 과정을 좌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적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일부 어용 학자들은 《국영 기업》의 우월성에 대하여 많이 론하면서 그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때문에 남조선 《국영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인민들을 그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해방시키며 그들을 반미 투쟁에로 추동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영 기업은 국가 자본주의 형태의 하나로서 국가 소유의 기업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국영 기업은 그것이 결코 《인민적 소유》이거나 초계급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다. 력사적 경험은 그것이 자본가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생산 수단에 대한 부르죠아적 사적 소유의 변종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부르죠아 국가는 자본의 시초 축적의 시기로부터 자본주의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국가 기구를 리용하여 자본가들에게 자본 축적의 길을 닦아 주었다.

특히 자본 력량이 미약하였던 시기에 부르죠아 국가는 사회적 생산의 재생산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군사적 의의를 갖는 연료, 전력, 철도, 체신 등 부문들을 국영 기업의 형태로 건설하고 경영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보다 큰 리윤을 보장하여 주었다.

부르죠아 국가는 또한 호경기 때에는 흔히 자본가들에게 국영 기업을 불하하고 불경기 때에는 다시 기업체를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여 자본가들의 치부를 보장하여 주었다.

자본가의 리익을 위하여 부르죠아 국가가 담당하는 이 모든 부담들은 결국 광범한 인민들로부터 조세 수탈에 의하여 보상되였으며 특히 국영 기업들에서 로동 계급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의하여 보상되였다.

엥겔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영 기업의 성격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주의 국가가 《생산력을 자기 소유 하에 더 많이 장악하면 할수록, 그것의 총 자본가로의 전화는 더욱더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더욱 많은 국민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반듀링론》 1955년 로동당 출판사 판, 369 페지)

오늘 남조선에서의 《국영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가 자본주의와 다른 일련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정권의 괴뢰적 성격과 《국영 기업》 형성 과정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산업 국유화는 국가가 자본가로부터 기업체들을 매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단 국유화한 기업체에 대하여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독자적으로 경리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나 남조선 《국영 기업》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 무력적 방법으로 수탈한 《적산》(전 일본인 소유 공사 기업체)을 괴뢰 정권에 이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 미제와 괴뢰 정권에 의하여 새로 신설된 약간의 기업체들도 《국영 기업》에 포함되고 있다.

미제는 전후 시기 《미영 키》 기재을 몰하여 《국영》 또는 《직할》 기업체들을 집권적으로 불하하면서도 《기간 기업체》를 이루는 중요 기업체들만은 불하하지 않고 이것을 괴뢰 정권을 통하여 계속 《국영 기업》의 형태로 유지하여 왔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국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급으로부터 생산 활동 및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 활동은 괴뢰 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제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

실로 미제는 남조선에서 《국영 기업》의 형태로 사회적 생산의 재생산 과정에서 명맥을 이루는 부문을 틀어 쥐고 있다.

즉 철도, 운수 및 체신 부문을 지배하고 있으며 전략 자원 수탈과 관련된 중석 채굴 부문(《대한 중석》)을 독점하고 있고 흑색 금속 야금 공업 부문(《대한 중공업》)과 유색 금속 제련 부문(《장항 제련》)을 비롯하여 기타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중공업 부문 기업체들을 《국영》 또는 《직할》 기업체 형식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기간 기업들을 《국영 기업》의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목적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기간 기업들을 《국영 기업》의 형태로 장악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침략과 예속을 강화하며 그것을 군수 물자의 현지 조달에 유리한 물질적 지반으로 리용하려는 데 있다.

즉 군사적 의의가 큰 철도, 운수, 체신, 전력, 연료 부문과 군사적 수요를 위하여 복무하는 식료품 공업과 방직 공업 등 기간 공업 부문을 장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전략 상으로나 미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미국 독점들의 사자본 침투를 위한 길을 닦으며 경제적으로 미약한 예속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소위 특혜 조건들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자기들의 침략과 약탈적 목적을 쉽게 달성하려는 데 있다.

즉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자본의 침투를 위한 물질적 전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직접 남조선 예속 자본가들에게 넘겨 주는 것보다도 기간 산업 부문들을 《국영》의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부문에 대한 사자본 투자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모면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간주한 데 있다.

셋째로, 미제는 기간 기업체들을 《국영》 형태로 장악함으로써 남조선 로동 계급을 강권에 의거하여 직접 통제하고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억압하며 그들을 보다 가혹한 착취에 얽매여 두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국영 기업》들에 《고문》들을 배치하고 《원조》의 공간을 리용하여 생산과 류통에 이르기까지 일체 경리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감행하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원조》에 의한 남조선 지배는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의 두 기계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군사 원조》는 미 국방 예산에 포함된 자금으로 미국 군수 독점체로부터 구입한 군수품을 직접 현물로 남조선 괴뢰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미 국방성에 종속된 《주한 미국 합동 군사 고문단》에 의하여 장악 집행되고 있다.

《경제 원조》 계획은 미 국무성에 종속된 《주한 미 경제 협조처》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다. 《주한 미 경제 협조처》는 《경제 원조 계획》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재정 금융을 비롯한 일체 경제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이 두 《원조》의 집행 기구는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관의 통일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워싱톤의 지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제는 《원조》 자금에 의한 건물 투자를 소위 《군 관수용》이란 명목

으로 《국영 기업》에 우선적으로 돌리고 있으며 《대충 자금》의 공간을 리용하여 《국영 기업》들의 운영 자금을 통째 장악하고 있다.

미제는 《국영 기업》들에서 로동 강도를 제고할 방책의 하나로서 소위 《군 관리제》에 의한 군대식 로동 관리 조직을 도입하고 있다.

《군 관리제》에 의한 로동 조직은 직접 군인에 의한 로동 감독 체제를 의미하는바 여기서는 일체 로동 활동이 군대식 규률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로동력의 최대한의 소모를 강요하는 고한 제도의 새로운 남조선 판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군사 《정권》은 이 제도를 강화하여 《국영 기업체》는 물론 일부 예속 자본가 기업체들에까지 《군사적 로동 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로동 감독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국영 기업》은 괴뢰 정권의 법적 소유 형태로 위장된 식민지 관영 기업에 불과하다.

《국영 기업》이란 미명 하에 남조선 기간 공업의 미제에 의한 장악은 경제의 예속성을 가일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기간 공업이 주로 전략 물자 생산에 편중하는 것 만큼 생산 구조의 편파성을 심화시키며 경제 제 부문 간의 유기적 련계를 파괴하는 전제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남조선 《국영 기업》이 미국식 낡은 기계 설비와 원자료에 의존함으로써 제철, 제강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을 비롯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부문은 그 발전이 완전히 억제되였으며 보잘 것 없던 기존 시설까지 파괴되여 가고 있다.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일부 지하 자원의 개발 및 군수품 생산과 미국 원료를 쓰는 약간의 경공업 부문만이 자기의 여명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을 뿐이다.

1960년 말 현재 남조선 가공 공업에서 소비재 생산을 기본으로 하는 공업 부문이 79.3%를 차지하고 야금, 기계, 화학 공업 부문은 20.7%에 불과하였다.

이리하여 가공 공업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간의 비률이 1960년에는 12.1 대 87.9로 그 편파성이 심화되였다.

명색뿐인 야금 공업은 기존 시설마저 가동 못 하고 있다. 채굴 공업에서 생산되는 중석을 비롯한 희유 금속 광물들과 철광석, 연광석, 흑연, 형석, 활석 등도 자체의 야금 공업의 원료로 리용되지 못하고 원광 그대로 거의 전량이 미국과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에의 기간 공업 장악은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의 유기적 련계도 파괴하였다.

오늘 남조선 공업은 농업 생산에 요구되는 화학 비료와 농약은 물론 간단한 농기구조차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를 통하여 화학 비료의 전량과 농약의 70%를 공급함으로써 남조선 농업의 자립성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 *

모든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제는 기간 공업을 《국영 기업》의 형태로 장악함으로써 남조선 경제의 전반에 걸친 지배와 예속의 공간으로 리용하여 왔다. 또한 미제는 《국영 기업》을 통하여 예속 자본가들과 관료배들의 치부와 기생성을 조장하여 왔으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미끼로 리용하여 왔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 일부 어용 학자들이 《국영 기업》의 식민지적 성격을 은폐하고 그 어떤 우월성이 있는듯이 론의하고 있는 것은 인민들의 이목을 기만하고 미제의 식민지적 착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남조선 《국영 기업》을 추켜 세워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인민들의 리익에 복무케 하려면 이를 장악하고 있는 미제의 검은 마수를 끊어 버리고 그의 소유를 인민의 수중에 넘겨야 한다.

김 수 영

《진보를 위한 동맹》이란 무엇인가

《진보를 위한 동맹》은 케네디가 집권한 직후인 1961년 3월 14일에 미국회에 제출된 그의 《원조 교서》에서 제기되였고 그 후 1961년 8월 17일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열린 《미주 국가 기구 경제 사회 리사회》(꾸바를 제외한 미주 20 개국이 참가)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정식 조작되였다.

이 회의에서 케네디가 그처럼 소란스럽게 선전하여 온 《진보를 위한 동맹》의 이른바 《푼타 델 에스테 헌장》이 채택되였는데 여기에서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경제, 교육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들은 1961년부터 앞으로 10 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를 위하여 약 200억 딸라의 《원조》를 지출할 것이며 그리하여 《앞으로 약 10 년간에 매 개인의 수입이 매년 2.5% 씩 증가》할 것이며 《매개 아동들은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며 《맑은 음료수를 충분히 공급 받게 될 것》이며 《토지 개혁》과 기타 경제 체제의 정비 등이 실시될 것이며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 경제적 락후성이 퇴치될 것이라는 감언리설을 늘어 놓았다. 당시 케네디는 이 《동맹》을 자랑하면서 이것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목적의 숭고성에 있어서 전례 없는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몽둥이 대신에 《원조》를 들고 자기를 《선량한 협조자》로 가장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정책과 기만 수단에 매여 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반미, 반괴뢰 투쟁, 진보적 력량의 급격한 진출로 인한 정세의 변동과 관련되여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대전 이후 년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며 그에 추종하는 반동 괴뢰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줄기차게 발전되여 왔다. 특히 꾸바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지리적 숙명론》에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이 대륙 인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미제는 《몽둥이로 다루는 방법》 하나만으로는 투쟁에 궐기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몽둥이 정책과 함께 《원조》를 미끼로 하는 유혹 정책, 정치적 기만 정책에 더욱더 달라 붙게 된 것이다.

이른바 《진보를 위한 동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원조》의 간판 밑에 이 대륙에 대한 예속과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미제의 신판의 식민주의의 수법의 일종이다.

그러면 미제가 《진보를 위한 동맹》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노리는 실제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꾸바 혁명을 말살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막지는 데 있다. 꾸바 혁명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축적되여 온 폭발물에 불을 질러 놓았다. 미제는 력사적

으로 《몬로주의》, 《범미주의》 등 기만적 수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외부 세계의 영향을 막고 이 대륙을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영원히 예속하고 략탈할 것을 타산하여 왔다.

그러나 혁명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미주 대륙 내부에서, 미제의 코 앞에서 일어 났으며 그의 영향은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막을 수 없는 파도와도 같이 미치게 되였다. 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질겁하고 당황한 것은 워싱톤의 지배층들과 월가의 금융 대왕들이였다.

꾸바 혁명의 승리에 눈이 뒤집힌 미제는 그를 요람기에 교살하며 그의 혁명적 영향력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매달리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기만적 간판을 들고 나옴으로써 추종 국가들을 묶어 세워 미제의 침략 정책에 추종케 하며 다른 편으로는 혁명적 꾸바에 집단적 제재를 가하여 꾸바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

미제는 《진보를 위한 동맹》 제도를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 《동맹》에 망라된 나라들이 꾸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며 미제의 반꾸바 음모에 추종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원조》를 유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대적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작년 2월 아르헨띤의 프론디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꾸바와의 관계를 끊게 되자 미국은 곧 아르헨띤에 1억 5천만 딸라의 차관을 제공한 사실은 그의 일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1월 22일 《미주 국가 외상 회의》를 열고 《공산주의 정권은 미주 체계의 사상과는 량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주 국가 기구》로부터 꾸바를 제명하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할 목적으로 작년 8월에 《고도의 기동력을 가진》 《소방대》와 《반 게리라 전투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국제 경찰 학교》, 《라틴 아메리카 방위 대학》 등을 꾸려 놓고 파괴 암해 활동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진보를 위한 동맹》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를 위한 동맹》을 조작한 목적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기들의 식민지 리권을 보장하며 《원조》의 간판 밑에 이 지역 나라들을 더욱더 경제적으로 예속시킴으로써 무제한 략탈을 감행하려는 것이다.

오늘 미국 독점 자본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미국 독점체들은 자본 투하를 통하여 이 대륙에서 1959년 1월 현재 1만 여 개의 기업소들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라틴 아메리카의 철광석의 거의 전부, 동광의 90%, 아연광의 3분의 2, 석유 생산의 60%, 그리고 동력 공업, 철도 운수, 식료 공업, 목축업 지어는 주요 출판 부문까지도 독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독점체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대외 무역에서 수출은 45%, 수입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륙에서 가장 큰 토지 소유자들도 그 대부분이 미국 독점체들이다.

바로 이러한 사정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전적으로 미국 독점 자본의 리윤 획득의 원천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독점적 리권을 계속 확보하며 보다 많은 리윤을 짜내기 위해서는 착취만 아는 미국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사회적 개혁, 즉 《토지 개혁, 공업화, 민주주의》를 위하여 《협조》할 줄도 아는 미국으로 가장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만적 구호 밑에 《진보를 위한 동맹》 제도의 원조 자금을 그들의 자본 수출과 고물의

리윤 획득의 수단으로, 경제적 예속의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 설정하고 있는 각종 부대 조건과 《원조》 자금의 용도에서 볼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차관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의 원료와 설비에 의존해야 하며, 미국인 기사들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미국인 선박에 의하여 수송하여야 하며,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여야 하며, 고률 리자를 납부하는 등 무제한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원조》 자금의 사용 면에서도 그 대상은 해당 국가의 민족 산업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 지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 독점 자본과 련결된 매판 기업체들인 것이다. 그리고 《원조》 자금의 대부분은 《공업 발전》에 배당된 것이 아니라 주로 《통화의 안정화》와 무역의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였으며, 미국의 민간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로, 항만 수축 등에 사용되였다.

이처럼 《진보를 위한 동맹》은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이 지역 나라들에 대한 예속과 략탈의 도구인 것이다.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진보》와 《개혁》을 협조한다던 미제의 《약속》은 전혀 말공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늘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사회 경제적 형편은 지난 2 년간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대대적인 자본 침투를 통하여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이 나온 1961년 한 해 동안에만도 8억 2천만 딸라의 리윤을 짜냈으며 미국 차관에 대한 고률 리자와 투자에 의한 리윤의 형태로써도 최근 2 년간에 20억 9천만 딸라를 략탈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대외 부채는 매년 증가(례하면 1962년까지 브라질은 23억 5천 700만 딸라, 아르헨띤은 18억 딸라)하고 있으며 생계비는 현저히 등귀(례하면 1961년 12월에 비하여 1962년 12월에 아르헨띤에서는 31.7%나 증가)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떠벌린 《토지 개혁》도 주로 이민에 의한 황무지 개간으로써 지주들의 토지는 전혀 다치지도 않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토지 개혁》은 사실상 명색 뿐이고 농민들은 토착 지주들과 미국 농장주들로부터 더욱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교육 문화와 보건 시설도 한심한 처지에 있다. 중미 국가들에서 14 세 이상되는 사람들 중 55%가 문맹자이며, 과테말라에서는 주민의 71%가 문맹자이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천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 해마다 200만 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있다. 실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는 기아와 빈궁,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고 있다.

이리하여 라틴 아메리카에는 《…늙기도 전에 쇠약하여 죽는 사람이 매 분간에 약 4 명, 매일 5,500 명, 매년 200만 명, 매 5 년에 1천만 명에 달한다…이와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계속 부단히 미국에 흘러 나가는 돈은 1 분 동안에 4천 딸라, 1 년에 20억 딸라, 5 년에 100억 딸라나 된다… 1천 딸라를 빼앗아 갈 적마다… 시체 하나씩 남겨 놓는다. 1천 딸라에 시체 하나—이것이 바로 이른바 제국주의의 가격이다》(제 2 하바나 선언)

이것이 소위 《진보를 위한 동맹》이 빚어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다.

이처럼 《진보를 위한 동맹》은 그 침략적 및 략탈적 본질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저들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원조자》, 《수호자》로 가장하면서 《동맹》 계획의 파탄을 모면할 헛된 가

니라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여론과 규탄을 회피하며 하고 있다.

케네디는 금년 8월 17일 《진보를 위한 동맹》 창설 2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보를 위한 동맹》이 《단기간에 이룩한 그러한 발전에》 《고무를 받고 있으며》 2년간에 이룩된 이러한 발전은 《감명 깊은 것》으로서 이 계획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케네디의 이러한 음흉하고 교활한 나발도 날마다 드러나고 있는 이 《동맹》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할 수 없으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

오늘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미제국주의야말로 라틴 아메리카의 자주적인 발전을 저애하고 있는 주되는 세력이며 이 대륙의 모든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라는 것을 [illegible] 알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진보를 위한 동맹》을 《빈곤을 위한 동맹》, 《퇴보를 위한 동맹》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를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신문 《베네솔라노》는 《진보를 위한 동맹》 창설 2주년과 관련하여 발표한 론설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원조》를 제공한다는 미제의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미제는 이 《동맹》을 리용하여 이 대륙의 진보적 력량의 장성을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멕시코의 잡지 《폴리티카》는 전체 라틴 아메리카가 이 계획이 무익한 것이며 미국의 손에 장악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2년간에 인민들로부터 폭풍과도 같은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고 썼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진압하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침략과 예속을 강화하려는 미제의 이 계획은 반드시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 승 렬

근로자 제 20 호(루계 234 호)

편 집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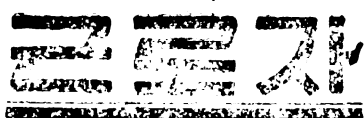
발행소 • 근 로 자 사
발 행 • 1963년 10월 20일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3년 10월 17일

ㄱ—33337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1 호 11 월 5일

평양 근 로 자 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21 호 (235)

1963년 11월 (상)

(반 월 간)

차 례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더욱 심각하여 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부터 멀리 리탈하여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깊이 굴러 떨어지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는 인민들의 혁명 위업과 평화 위업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 속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적들과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위대한 생활력을 절실히 체험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반대하며 그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공동의 투쟁 과업이라고 인정한다.

1,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이다

사회주의는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미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바로 문 앞에 있는 섬나라 꾸바에서도 승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지구 륙지의 4 분의 1, 세계 공업 생산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서 나아가고 있다.

세계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비상히 장성하였으며 더욱 더 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위대한 승리이다.

국제 로동 계급이 자본의 철쇄를 끊

고 쟁취한 이와 같은 전 세계사적 승리는 결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맑스와 엥겔스의 위대한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허다한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뚫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며 원쑤들과의 결사적 투쟁을 통하여 승리의 앞길을 개척하였다.

자본가들과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자기들의 가장 무서운 원쑤로 선포하였으며 과학적 공산주의 사상의 전파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온갖 흉악한 원쑤들을 반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투쟁을 담당하여 왔다.

험난한 투쟁의 길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많은 파란과 곡절을 겪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때로는 뼈아픈 실패도 하였으며 고통스러운 퇴각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투항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이 나타나 혁명 대렬을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실패에서 락심하지도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도 않았으며 비겁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건 말건 계속 혁명의 붉은 기치를 고수하였다. 때로는 지하에서, 때로는 손에 무기를 들고, 때로는 철창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불사조와 같이 투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국제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본의 진지를 끊임 없이 공격하였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위대한 혁명적 력량으로 자라났다.

력사 상 처음으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주권을 수립하였던 파리 콤뮨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하여 궐기한 파리 로동 계급의 70 여 일간의 결사적 투쟁 끝에 실패로 돌아 갔다. 콤뮨은 야만적 백색 테로에 의하여 피바다 속에 잠겼다. 그러나 파리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 업적과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써 얻은 고귀한 교훈은 국제 로동 계급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최초의 위대한 승리는 레닌의 령도 밑에 로씨야의 로동 계급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상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환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의 강력한 보루를 가지게 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궐기시켰으며 오래 동안 《력사 밖에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 수억만》(레닌)<1> 동방 인민들을 각성시켰다. 혁명적 폭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은 동방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운동과 결합되여 제국주의에 더욱더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교살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나 쏘련 인민은 레닌 당의 령도 밑에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공격을 물리치고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을 끝까

지 고수하였으며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나아갔다. 외쑤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은 위대한 혁명의 기치—레닌주의 기치 밑에 강대한 력량으로 급속히 장성하였다.

국제 자본은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주의—파시즘을 력사 무대에 등장시켰으며 그것을 사회주의 국가 쏘련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돌격대로 내몰았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혁명과 반혁명 간의 치렬한 진투가 진행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에서, 세계의 도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반파쑈 전선의 선두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흉악한 외쑤들과의 결전에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피압박 근로 대중을 령도하여 장구한 기간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략탈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영웅적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완전히 격파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말살하려던 제국주의자들의 기도는 국제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근로 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분쇄되였으며 세계의 많은 인민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였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진영에 대치하는 강대한 진영을 형성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력사적인 대산변으로 된다. 이 때로부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반석 같은 지반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 력량은 점차 인류 사회 발전에서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인류 력사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이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과 국제 자본가 계급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의 결과이다. 그것은 100 여 년 동안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온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되는 총화이며 장구한 기간에 걸친 국제 로동 계급과 피압박 근로 대중의 피어린 투쟁의 위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은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더욱 확증하여 주었다.

사회주의 진영은 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국제적 조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아니며 일시적인 《블럭》도 아니다. 그것은 국제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 발전 과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승리한 로동 계급들은 자기들에게 고유한 계급적 련대성의 요구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하나의 진영에로 결합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이것은 국제적인 사회주

의적 련대성의 긴밀한 뉴대와 공통적인 리해관계 및 목적의 통일로 하여 단합되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유롭고 자주적인 인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협동체이다.》(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성명)〈2〉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새 형의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계급적 동맹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은 이미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이 진영에 망라된 형제 국가 인민들의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평화 위업과 혁명 위업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통일되고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혁명적 인민들을 격속시키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 추동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은 전반적 국제 정세를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킨다. 그것은 또한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강력한 타격으로 되며 모든 반동 세력들을 전율케 한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려는 음흉한 술책에 더욱더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리간시키고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며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한 책동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찌또 도당은 수정주의에 떨어진 첫날부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악랄한 책동을 계통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오늘 일부 사람들은 찌또 도당을 적극 비호하면서 점점 더 사회주의 진영에 혼란을 조성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찌또 도당의 책동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국제 로동 계급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그들이 피로써 쟁취하였으며 사수하여 온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을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파괴 책동을 물리치고 국제 로동 계급의 위대한 전취물—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2,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은 그 대렬의 통일에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합된 력량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믿음직

하게 보위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실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공산주의 운동의 힘을 몇 배로 증대시킨다.

단결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로동 계급은 력사 무대에 등장한 첫 시각부터 단결의 힘에 의거하여 어려운 투쟁에서 자본가 계급을 타승할 수 있었다. 오늘도 사회주의 진영은 통일된 대오로 나아감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사회주의 진영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사실 상 전일적인 대오로, 단합된 력량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비방하며 공격하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상 상의 론쟁을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고립시키며 배제하기 위한 책동들이 감행되고 있다. 군중들과 다른 형제 당들과 국제 단체들까지 동원하여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형제 국가들을 반대하는 소란스러운 깜빠니야가 전개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혁명적 동지와 계급적 원쑤들을 분별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적들에게는 더욱 접근하고 《친선》과 《호의》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여 계급적 형제들과 혁명적 동지들에게는 원쑤처럼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현상을 발로시키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위업을 위한 공동 투쟁에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형제 당,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뒤통수에 이러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은 오직 제국주의자들 뿐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등지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의 《의견 상이를 리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떠벌리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기정 사실로 묘사하기에 서두르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운명과 세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이 엄중한 사태를 수수 방관할 수 없다.

오늘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의 장구한 투쟁의 력사적 전취물을 옹호하는 것이며 세계 혁명의 기지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의 사회주의 국가나 혹은 사회주의 진영에 망라된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던 쏘련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시금석으로 평가되였다.

지난 시기 쏘련은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고

무하고 지원하였다. 쏘련은 세계 혁명의 유일한 기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쏘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곧 세계 혁명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신성한 국제주의적 행동으로 되였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였다.

암담한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쏘련을 우러러 보았으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라는 구호 하에 쏘련 인민에 대한 선투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은 13개의 나라로 확대되였다. 이리하여 쏘련과 함께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같이 국제 혁명 운동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게 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직 <돌격대>가 하나 밖에 없었으며 거의 단독으로 이 선동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는 물론 이 영광스러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오늘에는 전혀 사정이 달라졌다.

중국과 조선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와 웽그리아에 이르기까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돌격대>들이 출현한 오늘 우리 당은 투쟁하기도 용이하게 되였으며 또한 일도 즐겁게 되고 있다.》<3>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장성됨에 따라 세계 혁명의 기지도 확대되였다. 오늘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가 세계 혁명의 기지로 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쏘련과 함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인 행동으로 된다. 오직 이러한 태도만이 혁명의 승리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세계 혁명을 가일층 추진시키는 길로 된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도 있고 오래지 않은 나라도 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보다,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가 오래지 않은 나라보다 국제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크고 혁명을 먼저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며 피착취 대중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결코 어느 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대표하며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발전된 나라라 할지라도 결코 한 나라의 위력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역할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이건 작은 나라이건, 혁명을 한 지 오랜 나라이건 오래지 않은 나라이건, 경제가 발전된 나라이건 뒤떨어진 나라이건 할 것 없이 다 같이 혁명적 입장에서 견결히 노력한다면 자기들이 차지한 위치에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례컨대 오늘 우리가 사는 서

반구에서의 첫 사회주의 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어떤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꾸바의 위치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단합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은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당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가 크며 방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라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약화시키고 단결을 파괴하게 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버린다고 하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듯이 행동하고 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나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별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는 그릇된 생각의 구체적 표현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어느 한 특정된 나라의 혁명의 성과만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성과가 다 같이 귀중하다.

우리는 국제 로동 운동의 영광스러운 전취물인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고 그것을 더욱 반석 같이 다지며 그 토대에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것은 앞날의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이다. 만약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위력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세계적 깜빠니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국제 반동 세력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악의에 차서 증오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한짝이 되여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무근거하게 중상, 비방하며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까놓고 말하여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무슨 사회주의 진영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비단 큰 나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나라이라 할지라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배제한다는 것은 용허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장구한 혁명 투쟁의 결과에 쟁취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제국주의자들에게 내여 맡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할 대신에 어제는 한 나라를, 오늘은 다른 나라를, 내일에 또 그 어떤 다른 나라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가져 오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사분오렬시킨다는 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는가.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것은 그 한 나라에만 관계되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운명과 관계되며 세계 혁명의 운명과 관계되는 근본적 문제이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라도 더 많이 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렬이 계속 확대될 것을 념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하물며 이미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를 떼여 내버리려는 행동을 어찌 용허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보다 두 나라가, 12 개 나라보다 13 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일부 사람들은 개별적인 나라들을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떼여 버리려고 하는 한편 제멋대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일치하게 규탄된 찌또 도당과 같은 제국주의의 사환'군을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황당한 일이다.

어느 개인이나 몇몇 사람의 주관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나라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나라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 《사회주의 칭호》를 주고 이를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 한다고 하여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어느 한 개인의 롱락물로 될 수 없다.

분렬은 허용되지 말아야 하며 통일은 수호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에 기초하여 통일되여야 한다. 이 원칙을 떠나서는 어떠한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혁명의 길에서 물러 나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어떠한 경우에 부닥쳐도 모든 시련을 극복할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혁명의 전진 운동을 가로 막지는 못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진일적인 대오로 굳게 단합되여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3,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은 호상 관계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동일한 사상과 공통된 투쟁 목적으로 단합되여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 및 성명은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간의 호상 관계의 원칙과 준칙들을 가

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선언과 성명은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의 규범을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범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장구한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력사적 경험들을 총화하여 형제 당들이 일치하게 내린 결론이다.

바로 이 규범들은 각국 당들의 단결의 기초로 되며 행동 통일의 규준으로 되고 있다. 이 규범들의 정당성은 이미 생활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형제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호상 관계의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진실로 자원적이고 의식적이며 공고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러한 규범들이 위반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 사이에는 불피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며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해치게 된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 존중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상급과 하급의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즉 누구는 어떤 중앙적 위치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집행하는 관계란 있을 수 없다.

어느 한 당이 다른 당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 동지적으로 지지하며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형제 당들 간에 합의된 이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들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로는 누구나 다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원칙들을 준수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서 중앙 집권적 원칙과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 집권적 원칙은 개별적 당들의 내부 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 원칙은 결코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다.

한 당내에서는 당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복종하며 모든 당 단체는 당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만약 개별적 당들의 이 내부 생활 규범을 형제 당들 간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그것은 기성된 권위를 가진 어느 한 당이 기계적 다수를 규합하여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다른 당들에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단결은 없게 되고 대국주의적 오만과 관료적 전횡이 지배하게 되며 호상간의 불신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형제 당들 간에 의지와 행동의 통일은 기할 수 없게 된다.

본래 공산주의자들은 온갖 불평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다. 오늘 이 형제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불평등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형제 당들 간의 호상 관계에 중앙 집권제 원칙을 적용하려는 주장은 이미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들에서 배격되였으며 파산 당하였다.

오늘 각국 형제 당들은 국제 공산당이 존재하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세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혁명 운동은 모든 대륙에 걸쳐 미증유의 규모와 다양한 형태로 확대 발전되였으며 정세는 급격하고 복잡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장기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세련되였으며 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느 한 《중앙》으로부터의 유일 지도는 할 수도 없으며 또 필요도 없게 되였다.

이것은 물론 각국 형제 당들이 호상간에 아무러한 련계도 없이 분산적으로 혁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호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국 형제 당들은 공통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적인 전략과 전술을 규정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내린 평가와 결론들을 일치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형제 당, 형제 국가들 간의 계급적 련대성은 강화할 수 있으며 의지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할 수 있다.

형제 당들 사이에서는 의견 상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각국 형제 당들이 활동하는 조건과 구체적 임무가 각이한 데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혁명에 대한 잘못된 립장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형제 당들 간에 의견 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과 원칙에 근거하여 진지하고 인내성 있게 동지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일부 사람들은 형제 당들 간에 합의된 원칙들을 자의로 저버리고 의견 상이 문제를 각종 강압의 방법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자기 의사에 복종하지 않는 형제 당들에 대하여 덮어놓고 《교조주의》, 《종파주의》, 《민족주의》, 《모험주의》, 《호전 분자》 등의 감투를 씌우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그들은 당들 간의 사상상의 론쟁 문제를 점점 더 국가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로 확대시키고 있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조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싶이 하고 있다. 대사를 비롯한 외교 일'군들과 보도 일'군들을 빈번히 추방하고 있다. 형제 국가와 국교를 단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에 형제 당들 간의 사상 상의 론쟁 문제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시켜 사태를 계속 악화시켜야 하겠는가? 제국주의 나라들과도 국가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어떻게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리득을 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며 손실을 보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계급적 립장을 떠나거나 공산주의적 도덕과 의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련대성에 의하여 굳게 련결되여 있다. 계급적 동맹의 원칙을 떠난다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각국 형제 당들은 피부색갈이나 인종 및 지역 별이나 나라의 발전 수준 등 표징들에는 관계 없이 오직 계급적 전우로서 평등한 립장에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이 초보적 규범도 유린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세아 당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민족이나 인종의 《우월성》과 특출한 역할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계급적 형제들을 멸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형제 당들을 모욕하는 거만한 태도이며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민족 배타주의적 행동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락후한 아세아》에 관한 관점이나 《우월한 민족》, 《렬등한 민족》에 관한 관념은 이미 오래 전에 규탄되고 매장된 낡은 유물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배격되여야 한다.

형제 당, 형제 국가들 간에서 일방이 타방의 내정에 간섭하며 일방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행위는 호상간의 정상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근원으로 된다.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호상 지지하며 호상 협조하는 것은 그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이 호상 원조와 협조는 또한 어느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당, 형제 국가들에 다 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혜택을 베푸는 것도 아니며 장사'군과 같이 치부를 해 두기 위한 것도 아니다.

원조에 대하여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리용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 조건 있는 《원조》, 내정 간섭을 전제로 한 《원조》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서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매개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공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 대회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새로운 단계》의 개시로 묘사하며 한 당의 정책과 결정들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한다.

한 당의 결정이나 조치들은 그 당 내

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며 결코 다른 당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더우기 소위 《개인 미신 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 나라들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바로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으로 하여 수많은 형제 당들이 공연한 《열병》을 겪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개인 미신 반대》의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다른 형제 당들의 대내외 정책들을 규정하여 주며 그 실천을 통제하려 한다. 다른 당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자기의 주관적 견해를 형제 당들에 강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지난 시기 일부 동지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 건설 정책에 대하여도 응당한 리해와 지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의 《5 개년 계획은 환상》이라느니, 《기계 제작 공업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느니, 《농업 협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느니, 《농기계가 없이 어떻게 농촌 경리를 협동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등 남의 실정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시비를 하였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결심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큰 손실을 받은 것은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정한 후과를 가져 올 수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다.

각이한 환경과 력사적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느 한 당의 정책이나 경험이 다른 모든 나라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호상간에 서로 믿고 성과를 같이 기뻐하며 형제 당들의 로선과 정책에 대하여 응당한 리해를 표시하며 형제 당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허심하게 서로 배워야 한다.

그런데 남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습관된 일부 사람들은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달성하는 형제 당들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제 당들을 의심하며 형제 당들이 자기의 《훈시》대로 움직이는가,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가 않는가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형제 나라 출판물들과 방송들에서 어느 한 당의 결정들과 문헌들을 의무적으로 보도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형제 나라들에서 어느 한 당의 력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서까지 감독하려 하며 심지어는 어느 한 나라의 영화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따지며 간섭하려 한다. 여기에서는 벌써 평등과 호상 존중의 정신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대국 배타주의의 표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형제적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가 이상과 같이만 된다면 그

것을 어떻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새 형의 국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말로는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력사 상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이다.

이 형제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심병》을 없애며 대국 배타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눌리여 독자성을 상실하고 다른 당들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도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자기의 주체성도 없이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며 남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며 국제주의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 사업에 불가피적으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며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게 된다.

레닌은 《각국의 공산주의적 로동 운동의 국제적 전술의 통일은 결코 다양성의 제거와 민족적 차이의 말살을…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기본 원칙들(쏘베트 주권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을 …민족적 및 민족—국가적 차이에 옳게 맞추어 옳게 적용하는 것을 요구》< 4 >한다고 지적하였다.

각국 당들은 독자성을 견지하여야만 자기 나라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혁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개 당들은 자기 자신의 맑스-레닌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령도하며 자국 인민 앞에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반드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자기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정책을 작성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물러 서도 안 되며 또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형제 당들의 정책과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도 안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며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경험들이 그 나라들의 어떠한 력사적 발전 단계와 어떠한 구체적인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창조되였으며 그것을 적용할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교조주의의 오유를 피치 못할 것이다.》< 5 >

남의 경험을 통채로 삼켜서는 안 된다. 교조주의를 범한다면 결국 그

당은 현실과 인민 대중으로부터 리탈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 앞에서 지닌 자기의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각국 당들이 주체성과 독자성을 견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혁명 발전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각국 당들이 창조한 경험들에 대하여는 매개 당들이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어느 특정한 당의 경험만이 유익하고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당에서 창조된 경험은 배울 것이 못 되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지난 년간 레닌과 그의 위업을 계승한 쓰딸린을 수반으로 한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력사적 경험은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이 력사적 경험들을 부정하고 쏘련 인민이 걸어 온 지난 시기를 《암흑의 시기》로 묘사하는 것은 곧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와 10월 혁명의 길에서의 리탈을 의미한다. 찌또 도당의 소위 《유고슬라비아의 길》은 이의 한 가지 실례이다.

과거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의 경험과 함께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창조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던 나라들과는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과 력사적 전통과 민족적 풍습 등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특수성들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것들이다.

식민지 예속 국가였던 나라들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특히 피압박 민족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으로 된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면 설수록,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이 다르면 다를수록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더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될 것이다.

각국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 발전의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함으로써 다 같이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데 집체적으로 기여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오직 매개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의 의식적이며 책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수호될 수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히 평등한 립장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회주의 진영의 매개 나라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할 공동의 임무를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는 동시에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매개 사회주의 국가를 강화하며 그 힘을 단합함으로써만 전체 진영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의 사회 정치 제도를 튼튼히 다지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진지를 백방으로 공고히 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를 튼튼히 꾸리지 않고서는 어느 당도 자기 인민과 국제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매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당의 령도 하에 자기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기본 담보이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를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원조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결정적 요인은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만약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의 원조에만 의존한다면 혁명도, 사회주의 건설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립장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자력 갱생의 원칙에 의거하여야만 형제 국가들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로 국제주의에 충실한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이다. 우리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6 >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창설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각이한 사회 력사적 조건과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어떤 나라는 과거로부터 비교적 발전된 경제를 유산으로 넘겨 받았으며 어떤 나라는 과거에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였던 탓으로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서게 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나라들에서 하루 속히 자립적인 민족 경제

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건설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국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나라의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발전된 현대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자립 경제를 건설하는 기초 우에서만 형제 국가들과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물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극히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력 갱생과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극력 반대하며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대하여 《민족주의적 편향》이요, 《폐쇄적인 경제》요 하는 딱지를 붙이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적으로 유해로운》 로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진상을 외곡하면서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마치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조와 원조에 모순되는듯이 사태를 꾸며대고 있다.

그들은 그 무슨 《생산 전문화》이니 《수익성》이니 하면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종합 경제는 오직 큰 나라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한된 몇 개의 경제 부문만 발전시켜야 하며 항상 기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매우 괴이한 론리이다.

묻노니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보장, 이 기초 우에서의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이라면 어찌하여 이 원칙이 경제 분야에서는 《위험하고》 《유해로운》 것으로 된단 말인가?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들의 평등권과 자주성의 원칙을 유명 무실한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발전되고 다방면적인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농업을 건설하지 않고는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신 사회주의 국가들의 《통합 경제》의 창설을 제창하고 있다. 그들은 《통합 경제》가 현 시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제적 협조의 가장 리상적인 형태이라고 한다. 그들은 《통합 경제》의 간판 밑에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성을 없애고 이 나라들의 민족 경제의 발전을 통제하며 그것을 다른 나라 경제에 얽매인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오늘 이러한 《통합 경제》의 실시는 매개 나라의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하며 인민들의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경제 발전에 혼란과 침체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통합 경제》의 실시는 결국 매개 사회주의 나라 경제를 어느 한두 나라 경제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며 어느 한두 나라 경제 발전의 리익에 복종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립성이 결여된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권도 보장될 수 없다

는 것은 뻔한 일이다. 독립과 자주권이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국제적 협조도 사실 상 존재할 수 없다.

자립 경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는 계속 락후한 처지에 있어야 하며 과거의 농업 국가는 계속 농업 국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발전 수준에서의 차이는 퇴치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커질 것이며 발전된 나라에 대한 락후한 나라들의 의존 상태는 의연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제국주의의 억압 하에 있는 나라의 인민들에 대하여도 좋지 못 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세계 인민들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식민지 및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과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만약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자립 경제 로선을 부인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며 락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불피코 식민지 예속 국가와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외곡된 표상을 주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 하고 남에게 예속되게 된다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자고 하겠는가.

사회주의 진영은 오직 어느 한두 개 나라만이 아니라 [illegible] 나라가 다 같이 발전될 때에 더욱 위력하여질 수 있다.

그러자면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나라들의 자립 경제 건설 로선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먼저 혁명을 수행하고 발전된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후에 혁명을 하고 락후한 경제를 가지고 사회주의 대렬에 들어 선 나라들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락후성을 퇴치하고 발전된 선진 국가의 수준에 올라 서도록 하여야 한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자주성을 강화하는 기초 우에서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전적으로 반석과 같이 다질 수 있으며 세계 혁명의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에 압도되어 감히 침략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뒤떨어졌던 형제 국가가 하루속히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진 발전된 강국으로 전변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적극 밀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행동이다.

사회주의 각국 당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러한 립장에 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력은 철옹성 같이 다지기 위하여서는 역시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방력을 다 같이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와 제 인민들의 안전의 수호자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제거될 수 없다. 바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중에 장악된 무장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제어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방위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 하에 진행되든 사회주의 진영의 무장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마치도 어느 한 나라의 무장력만이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보위하고 있으며 어느 한 나라의 수중에 장악된 최신 군사 기술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는듯이 선전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보위에서 다른 형제 국가들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응당 하여야 할 호상 협조도 잘 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 대하여 진심으로 념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립장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과 최신 군사 기술은 그것을 소유한 당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제어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를 어느 한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방위는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무장력에 의거하여야 하며 어느 한 최신 무기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을 방위함에 있어서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정한 초소들을 수호하고 있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자기의 초소를 지키는 데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만 의거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인민들을 반대하여 《전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군사력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동시에 자체의 힘과 가능성에 의대한 의거하여 적들의 어떠한 군사 침략적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하여 다 같이 최신 군사 기술을 소유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동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하며 전세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과 전투적 단결의 립장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매개 나라 당들은 또한 이미 전취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을 강화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대중에 대한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공산주의 교양이 약화되는 곳에서는 부르죠아 사상이 머리를 들게 되고 대중의 계급적 각성이 마비된다.

지주, 자본가는 계급으로서 청산되였으나 그의 잔재는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낡은 사상 잔재와 낡은 생활 관습들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각종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침투시키며 이 나라들에서 청산된 착취 계급의 잔존 세력들과 낡은 사상 잔재 및 낡은 생활 풍습들에 의거하여 각종 부르죠아 사상 독소와 퇴페적인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변질시키고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강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유》요, 《민주주의》요, 《준법성》이요, 《인도주의》요 하면서 근로자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며 계급 투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급이 청산되였다》느니, 《정치범이 없다》느니, 《진압의 대상이 없어졌다》느니 하는 구실 밑에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주의 진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태도이다.

물론 매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회 계급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계급 투쟁이 없어졌다거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는 필요 없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에는 부르죠아 사상이 만연되여 사람들이 안일 해이하여지고 부화 방탕하게 되며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며 내외의 원쑤들에게 파괴 활동의 틈을 지어 주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계속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지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계속 꾸준히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지며 그 힘이 련합될 때에 사회주의 진영은 비할 바 없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성새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것이다.

5.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종국적 목적은 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달성하는 데 있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세계 혁명의 구성 부분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세계 혁명이 종국적 승리에로 가는 과정이다. 개별적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세계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 수 없으며 세계 혁명의 승리를 떠나서는 개별적 나라들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 혁명의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은 불가분리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일국적인 것으로부터 세계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에서의 혁명 승리와 사회주의 건설을 자체 목적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일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자기 민족적 과업이 아니다.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체를 자기 만족적인 단위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로,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이. 쓰딸린) < 7 >

만약 자기 나라 혁명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세계 혁명을 잊어 버린다면 그것은 혁명 투쟁을 도중에서 멈추는 것으로 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위업으로부터 물러 서는 것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혁명 뿐만 아니라 세계 혁명을 완수함으로써만 자기에게 부과된 력사적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자기 나라 인민과 함께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근로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혁명의 기지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도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세계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을 통하여 세계 인민들을 혁명 투쟁에로 부단히 고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매개 사회주의 국가 당들은 우선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잘 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통하여 세계 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

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권이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수중에 있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이 영원히 청산되였으며 실업과 빈궁이 근절되고 로동과 휴식과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는 사실들을 뚜렷이 보여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사회에 고유한 전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과 인민들의 공산주의적 도덕과 고상한 풍모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인민들을 더욱 각성시킬 것이며 그들을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을 다만 경제적 경쟁에만 국한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개인 향락이나 누리게 되면 다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주의 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적 차이를 모호하게 하고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모범의 의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경제적 경쟁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저절로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 경쟁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승리는 아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혁명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사회 발전의 주객관적 요인의 작용의 총체적 결과로서 일어 난다.

혁명 정세의 성숙과 혁명의 수행은 우선 그 나라의 내부적 발전의 산물이며 그 나라 인민들의 각성 정도와 조직성에 달려 있다. 이러저러한 나라의 혁명은 그 나라 인민들 자체에 의하여 준비되며 수행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여 해 줄 수 없다.

경제적 경쟁이 가지는 의의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계급 투쟁의 립장에서 물러 서고 있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경쟁에서 승리하면 세계 인민이 자연히 다 해방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희생을 내면서 혁명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전횡을 계속 감수할 것을 설교하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회피하려는 것이며 세계 혁명 운동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희생이 두렵다고 하여 투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한다면 언제 가도 해방과 독립은 얻지 못 한다.

혁명 투쟁에서의 희생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착취와 무권리, 실업과 빈궁, 기아와 질병으로 매일 매 시각 수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데 대하여서는 보려고 하지 않는가. 인민들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제국주의 야수들의 박해와 탄압에 의하여 침창 속에서 살육하며 형장에서 무참히 쓰러지고 있는 것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세계 혁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 의무이다. 레닌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나라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원하며 고무하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으로 실행> <8> 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누구와 동맹하여야 하며 어디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하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 로동 계급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인민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피압박 민족들과 동맹하여야 하며, 전 세계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동맹하여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여야 하며 모든 력량을 단합하여 제국주의를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단합된 력량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인 미 제국주의에 공격의 예봉을 돌려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투쟁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국주의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투쟁을 적극 쟁취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로동 계급에게 계급적 련대성과 전투적 지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질곡을 반대하는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을 백방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혁명 수출의 음모를 저지시키고 파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평화의 위업을 위해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를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분쇄하여야 하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 각층 세력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정세를 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킬 것이다. 오직 이러한 혁명적 립장을 견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사회주의 진영은 명실 공히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이 좋게 지내며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하여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원하지 않으며 전쟁의 위험성에 빙자하면서 그들의 무장 투쟁을 반대하는 것은 인민들의 혁명 위업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 앞에 투항하는 것이다.

세계 혁명을 지원하지 않는 현상과 함께 《원조》의 구실 하에 세계 혁명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는 비계급적인 현상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어데까지나 원조를 받는 나라의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혁명 력량을 강화하며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 진지를 약화시키는 방향에서 제공되여야 한다.

이러한 립장에서 리탈된 《원조》는 진보적 력량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동 세력을 돕게 될 것이며 혁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며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 각종 원조를 이러저러한 나라들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세계 혁명을 해치는 행동이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항상 투쟁하는 인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 세계 혁명 운동 발전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혁명적 사상으로 살아야 한다.

만약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만 만족하면서 이미 쟁취한 혁명의 성과를 누리기만 하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 간다면 어떻게 사회주의 진영이 세계 혁명의 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남보다 일을 적게 하고 자신의 안일과 향락에만 급급하게 한다면 그들은 계급적 형제들의 고통도 망각하게 될 것이며 세계 혁명의 리익도 안중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며 공산주의자들의 의리가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은 자기 나라의 륭성 발전과 전 세계 근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계속 긴장하여 투쟁해야 하며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세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인류의 3분의 2가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 없다. 아직도 적지 않은 인민들이 식민주의의 치욕스러운 멍에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올가미를 들씌우고 있다.

만약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면, 국제주의자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전 세계 로동 계급 앞에서 지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목전의 안일을 추구하여 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혁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혁명을 하는 것도 방해하

고 있다.

자기도 혁명을 안 하고 남도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누가 혁명을 하겠는가. 그 누구도 혁명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해방되지 못 한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곤난과 시련 앞에서 동요하며 혁명에 권태증을 느끼고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혁명을 해야 할 사람들은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전 세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혁명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 성원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 인민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의 지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거대한 힘으로 되며 원조로 된다.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 체계에 타격을 주며 그 진지를 약화시킨다.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으로 된다.

자본주의 국가 인민들이 자국 정부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것을 파탄시킨다면 이 것은 그 나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지원을 주는 것으로 된다. 세계 각국 인민들의 완강한 공동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수족이 얽어 매여지고 평화가 유지 공고화된다면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소동이 벌어졌을 때마다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지하고 옹호하여 나선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었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가렬한 전쟁에서 세계 인민들이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어떤 나라도 전 세계 근로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호상 지지하고 원조하는 데서 우리의 힘은 배가될 것이며 혁명의 위업은 촉진될 것이다.

전 세계 근로 인민들과 피압박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더욱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6,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강력한 기지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성새이다. 세계 인민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륭성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으며 거기에 자기들의 사활적 리해 관계를 결부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을 때에 강력하고 위대하며 진보적 인류 앞에 지닌 자기의 력사적 임무를 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내부적 의견 상이로 하여 엄중한 국면에 처하여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이미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과 관련된 원칙적 의견 상이로 발전하였다.

이 의견 상이는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단순한 투쟁 방법 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근본 문제와 관련되여 있으며 어떤 개별적 문제가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전략 전술의 전반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오늘 문제는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느냐 하지 않느냐,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의 현재의 론쟁은 결국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간의 투쟁이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정세가 변하였다》는 구실 하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진수를 거세하고 있으며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들을 공공연히 유린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그들에게 덮어 놓고 양보하며 순응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을 싫어하고 포기하고 있으며 각국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수정주의의 진흙탕 속에 끌어 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그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혼란과 긴장성을 조성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분렬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주의를 말살시키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이 장기간 피와 땀으로 쟁취한 위대한 진지를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도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 대두한 우경 기회주의를 제때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국제 로동 계급의 위업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 오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혁명 로선과 기회주의

조선은 랑립할 수 없다.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지금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없으며 로동 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 세계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긴절한 혁명 과업이다.

오늘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개별적 당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관계되는 문제이다.

현 정세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에게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랭정하게 고찰하며 심사숙고하여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문제는 응당 우리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조성된 난국은 결코 몇몇 당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타개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서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방법과 형태는 매개 당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방법과 형태를 취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당이 자체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원칙적이며 자주적인 립장에서 이 투쟁에 참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당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수정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수정주의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수정주의가 군중 속에 침투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수정주의에 끌려 들어 가지 않도록 하며 전체 공산주의자들과 군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결속시켜 전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 확고히 서게 하며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매개 당에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 수정주의를 남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동을 단호히 제지하며 이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당의 기성된 권위를 리용하여 도처에서 수정주의를 범람시키며 다른 당들에 자기 뒤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정주의적 립장을 지지하고 협조하여 나설 《동료》들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

들은 이러한 행동을 견결적으로 배격하여야 하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내리 먹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수정주의자들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자기의 원칙적 립장을 굽히서는 안 되며 항상 독자적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 내에서와 각국 당 내에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광범히 전개하며 사상 투쟁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투쟁의 예리한 무기이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발생한 의견 상이는 결국은 모든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의 근본 립장과 관련된 사상 정치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 어떤 강압적 방법이나 사태를 이물어물 넘어 두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는 비판과 자기 비판,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기 운동의 약점들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빨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6>라고 레닌은 교시하였다.

우리는 사상 투쟁을 통하여 모든 당들과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더욱 단련시키며 군중을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 투쟁에로 준비시킬 수 있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립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되여야 한다. 비판과 자기 비판에서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이며 동지적인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나 개별적 당에서나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종파≫니 무어니 하는 감투를 씌우며 보복하는 행동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할 용기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광범한 비판 사업과 사상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의 계선은 확연히 갈라질 것이며 누가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수정주의는 파산될 것이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자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을 건전한 토대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

계급적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는 락오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혁명 대렬은 그 순결성이 보장됨으로써 더욱 강화될 것이며 계속 장성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수정주의와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오를 부단히 혁명적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경험은 오직 혁명 대렬이 유일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결

속될 때에만 강력한 전투적 부대로 될 수 있으며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온갖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와의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승리하여 왔다.

이 투쟁 과정에는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혁명적 로선을 견지하여 난관들을 극복하고 자기 대렬을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약한 것으로부터 강한 것으로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한때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도적 지위를 리용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다. 그때에 수정주의자들의 형세는 매우 큰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레닌을 선두로 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혁명적 맑스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수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과거와는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다.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된 수백 수천만 공산주의자들의 대군이 자라났다.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되어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휘날리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레닌주의의 가면을 쓰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은 기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가리울 수 없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압박 근로 대중의 혁명 투쟁과 민족 해방 투쟁은 계속 앙양되고 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 투쟁 앞에서 수정주의자들의 정체는 폭로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회주의적 로선은 파산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더욱더 확증되고 있으며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서 공산주의적 혁명 대오는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 한 인민 대중은 계속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앙양됨에 따라 공산주의 운동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수정주의의 패배와 맑스-레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더욱더 높이 들어야 한다.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단결하여야 하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하며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항상 수정주의를 반

대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의견 상이가 발생한 첫날부터 시종 일관 단결의 원칙을 수호하여 왔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충실할 것이며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근로 인민들이 불멸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 있게 전진함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

<1> 레닌 전집 제 31 권 272 페지

<2>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년 판 19 페지

<3> 쓰딸린 쏘련 공산당 제 19 차 대회에서 한 연설

<4> 레닌 전집 제 31 권 98 페지

<5> 김 일성 선집 제 5 권 245 페지

<6> 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한 연설

<7> 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543 페지

<8> 레닌 전집 제 28 권 364 페지

<9> 레닌 전집 제 31 권 214 페지

위대한 10월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자

오늘 조선 인민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6 주년을 뜻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영웅적 로씨야 로동 계급이 레닌과 공산당의 령도하에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통치를 전복하고 세계 최초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창설한 가장 심각한 혁명적 변혁이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인류 해방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세계 혁명의 시초를 열어 놓았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제국주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의 길, 민족적 재생의 길을 밝혀 주었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한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승리에 관한 레닌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레닌의 학설의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여 주었다. 이것은 또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거부하고 개량주의를 설교하던 제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10월의 위대한 기치는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인 레닌의 영상과 함께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을 광명한 미래에로 고무하였으며 날이 갈수록 그들의 심장을 더욱더 든든히 틀어쥐고 새로운 승리에로 향도하고 있다.

쏘련 인민은 레닌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확고 부동하게 전진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다.

레닌이 서거한 후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위크당은 뜨로쯔끼, 부하린 기타 온갖 레닌주의의 원쑤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쏘련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쏘련 인민은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용감하게 극복 타개하면서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고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어려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쏘련을 세계 1등급의 과학 기술을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의 령도 밑에 쏘련 인민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인류를 파쑈의 노예화에서 구출하는 데 거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새 사회 건설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를 주었다.

쏘련 인민은,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천신만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귀한 피땀으로써, 주권을 장악한 인민들만이 발휘할 수 있는 혁명적 성력으로써 쌓아 올린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에 기초하여 오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10월의 길은 철저한 혁명의 길이며 이 길로부터 리탈되면 곧 기회주의의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된다. 10월 혁명은 로동 계급의 해방이 개량주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혁명의 길에 의거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로동 계급이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혁명적으로 궐기할 때에는 어떠한 반동의 아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0월 혁명 후 쏘련 인민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은 정권을 전취한 로동 계급이 자기의 혁명적 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자라도 능히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확고하게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승리한 로동 계급은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함으로써만, 그리고 오직 자기의 전위대인 공산당의 령도를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것은 또한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의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 국가 내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세계적 범위에서 레닌주의의 승리를 촉진하는 중요 담보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10월의 위업은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의식적인 로동 계급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다.

2 차 대전 후 구라파와 아세아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강대한 세계적 세계로 전변되였다.

레닌이 그처럼 념원하던 중국 혁명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승리하였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는 10월 혁명 후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한 가장 위대한 사변이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다.

오늘 사회주의의 기치는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바로 코 앞에 있는 꾸바에서도 휘날리고 있다.

우리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위대한 10월 혁명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력사 밖에 서 있었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서만 간주되여 오던》(레닌 전집, 제 31 권, 272 페지) 식민지 민족들을 크게 각성시켰다.

10월의 길을 따라 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을 휩쓸게 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50 여개의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미제의 《안전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반제 반괴뢰 투쟁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자본의 철쇄를 반대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운동이 줄기차게 발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전면으로부터도, 후면으로

부터도 강력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 더 헤여 날 수 없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피하다.

※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은 위대한 10월의 기치에서 해방의 무기를 찾았으며 승리의 한길을 개척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암담한 비운에 처하여 있던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비쳐 주었으며 투쟁과 승리의 길을 밝혀 주었다.》 (선집, 제 5권, 205~206 페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길,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일제를 반대하는 15 성상에 걸친 간고한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조국의 해방을 촉진시켰다.

영웅적 쏘련 군대는 우리 인민을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쏘련 인민은 해방 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미제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나 항상 조선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 있었으며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물심 량면으로 막대한 원조를 주었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이 준 고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원조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해방 후 고난과 시련으로 충만된 조선 혁명의 전 과정은 조선 반도에서 위대한 10월의 사상,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레닌주의 리론이 승리한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우리 당은 레닌의 계속 혁명 리론에 근거하여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후 지체 없이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그의 실천에로 우리 인민을 령도하였다.

우리 당은 레닌의 협동화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과업의 하나인 농업 협동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를 확고히 수립하였다.

레닌은 로동 계급이 정권을 쟁취한 후 자기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전 기간에 걸쳐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경제 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를 성과 있게 건설하는 기본 담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자체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 것이며 그 나라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이다.

우리 인민은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쏘련 인민을 비롯한 형제 국가 인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원조를 받았다. 이 원조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illegible]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조이나 [illegible]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illegible] 기본으로 하고 형제

국가들의 [illegible] 리용하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완강하게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우리 당이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 로선을 견지하고 관철시킨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혁명이 기어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하루 속히 튼튼히 꾸려야 할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만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국제 혁명 력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철저히 맑스-레닌주의적인 로선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인 로선이다.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민족주의적 편향》이니, 《폐쇄적 경제》의 건설이니 하면서 비방 중상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자립 경제의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 형제 국가들의 경제적 자립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그 나라들을 락후한 채로 남겨 두고 압력을 가하여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상호 관계의 원칙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직접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결코 형제 국가들 간의 협조와 원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고 원조하는 것, 이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간의 원조는 본질 상 호상성을 띠는 것이며 원조를 주는 나라나 원조를 받는 나라에 다 같이 유리한 것이다.

원조를 주는 것을 그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며 더우기 원조의 구실 하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과 같은 것은 철저히 배격되여야 한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라고 가르쳤다.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남김 없이 사회주의 건설에 조직 동원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부르죠아지 즉 주민의 소수를 반대하는 폭력을, 민주주의의 완전한 발전…과 결합시킨다.**》(전집 제 23 권, 18~19 페지)

사회주의 하에서 전복된 계급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주권을 전취한 로동 계급의 중요한 임무이며 근로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된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였으며 이 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계급적 각성을 부단히 높이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계

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계급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이 철저한 계급 의식과 혁명 정신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비단 착취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중앙 집권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계통적으로 취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발기와 지도 하에서 창조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의 본질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여 생산자 대중을 경제 관리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길을 열어 놓은 데 있다.

이 체계의 공고 발전은 나라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을 국가 및 경제 관리의 주인으로서 더 잘 준비시키는 동시에 로동 계급의 농민에 대한 지도, 국가의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군중 로선을 더욱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게 하고 있다.

이미 사실 자체가 증시 사회주의 하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서서히

하거나 약화시킨다면 기필코 전복된 계급놈이 머리를 들게 할 것이며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오직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됨에 따라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더 높임으로써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킬 때에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은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10월이 열어 놓은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며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그것을 나라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때 반드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10월의 기치, 레닌의 기치는 전 세계에서 승리하고 있다.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옹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이것은 10월 혁명 이후 세계 로동 계급이 쟁취한 가장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이며, 세계 혁명의 강력한 요새이며 세계 평화의 불패의 보루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로동 계급의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 과정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였다. 세계 방방곡곡의 수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위하여 피를 흘렸으며 이것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사회주의 진영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련대성의 요구에 의하여, 동일한 리해 관계 및 목적으로 하여 단합된 계급적 동맹체이다.

계급적 동맹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이 반석 같이 통일 단결되고 혁명 투쟁에서 보조를 같이 취할 때 그의 힘은 10 배, 100 배로 증대될 것이며 이 단합된 력량 앞에서는 그 어떤 제국주의 전쟁 세력도 감히 함부로 날뛰지 못 한다는 것을 생활은 확증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며 그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가장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발맞추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또한 날뛰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면전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견실한 당들, 형제 국가들에 대하여 《교조주의자》니, 《민족주의자》니, 《전쟁광》이니 하고 중상하면서 그들을 배척 고립시키려는 전례 없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의리도, 원칙도 다 집어 던지고 계급적 형제들을 원쑤로 대하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견실한 당들을 사회주의 진영에서 떼 내려는 음모까지 서슴 없이 꾸미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시도는 완전히 헛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그 어떤 협약에 의하여 형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어떤 한두 사람의 의사나 제의에 의하여 해체되거나 몇 개 나라가 그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현 사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붉은 기치를 더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 순간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 가장 숭고한 력사적 과업이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한다는 것은 결코 어느 한 개별적 나라나 일부 국가들만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되기 이전, 쏘련이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혼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시기에는 쏘련 한 나라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모든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국제주의적 의무였다. 당시 쏘련은 세계 혁명의 유일한 기지였으며 혁명적 인민들은 쏘련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고무를 받았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쏘련에 대한 열렬한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됨으로써 세계 혁명의 기지는 확대되였으며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전일적인 계급적 동맹체를 고수하는 문제가 나서고 있다.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가 한 나라 뿐일 때는 한 나라를 옹호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주의적 행동이였다면 오늘에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표현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견해와 의사를 따르지 않는

다 하여 형제 당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지어는 제국주의자들과 합류하여 중국을 반대하는 《대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의 3 분의 2의 인구와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끝

적들의 면전에서 사회주의 진영을 사분오렬케 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말아 먹으려는 수치스러운 소동에 지나지 않는다.

단결은 수호되여야 하며 분렬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은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 즉 완전한 평등, 자주성, 호상 존중, 내정 불간섭 및 동지적 협조 등의 제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형제 당들과 형제 국가들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의 기초로 되며 행동 통일의 규준으로 되는 이 규범들을 엄격히 준수할 때만이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공고화될 수 있다.

간고하고 장기적인 혁명의 길에서는 락오자, 타락 분자, 변절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결코 약화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강화된다.

비겁 분자들이 혁명을 배반하고 대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맑스-레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기치, 레닌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단합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투쟁은 더욱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며 승리는 공산주의자들 편에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 맑스주의와 수정주의와의 계선을 명백히 그어야 하며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수정주의는 파산될 것이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참다운 단결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 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종일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10월의 기치에 충실할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은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내 로동 운동과 식민지 및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세계 6 대주에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밝혀 주고 있다. 인민들은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그 앞에서 전율하고 있다.

미래는 공산주의에 속하며 승리는 인민의 것이다.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10월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용감하게 전진함으로써 더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

김 창 원

현 시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위대한 혁명 투쟁의 시대로서 특징 지어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세계 도처에서 비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투쟁에로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각이한 나라들, 각이한 민족들이 각이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각국 당과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맑스-레닌주의는 그것이 혁명 수행에 관한 일반적 원칙들을 주고 있는 것 만큼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각이한 나라들에서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구체화됨이 없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 문제는 또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이 원칙들을 란폭하게 외곡 수정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더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수정 거부함으로써 혁명 수행에 커다란 장애를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태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리론-실천적 문제로 제기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사회 력사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운동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합법칙성은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에는 관계 없이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며 반복성을 가진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에로 가는 모든 나라들이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일반적 로정과 방향이 내포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혁명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한 것이며 전능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또

한 그것이 철저한 과학적 진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

이 원칙들은 인류 력사의 선행성과 국제 로동 운동의 전체 투쟁 경험을 일반화하여 천명한 과학적 결론들이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그 후 제반 사회 력사적 운동 행정에서,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특히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의 제반 실천 행정에서 그의 정당성이 여지 없이 확증된 진리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은 그의 보편 타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전능한 것이며 따라서 그 누구도 이를 마음대로 뜯어 고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고수하며 준수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이 원칙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함으로써만이 사회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혁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례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령역에서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 당이 령도하는 주권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각국의 제 특성으로 하여 형태에 있어서 다양할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이외의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전 기간에 존재하여야 한다. 만일 도중에 이것이 필요 없게 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혁명을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경제적 령역에서는 자본주의적 소유의 청산과 기본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수립, 농촌 경리 및 도시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선진적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상응한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의 창조,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등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적 변혁을 수행함으로써만 사회주의는 공고 발전될 것이다. 그것들도 각국에서 생산력 발전 정도, 계급적 력량 관계와 기타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질 수 있으나 본질에서는 다를 수 없다. 개인 경리를 가지고도 공산주의에로 갈 수 있다는 자들은 결국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자들이다. 이 따위 《리론》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원칙과는 량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은 정치적 및 경제적 령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령역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문화 혁명이 수행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되어야 한다. 특히 로동 계급과 신체 근로자들 속에서 부르죠아 사상 잔재들을 청산하며, 계급 교양을 위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 사업이 강력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계급 교양을 떠나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운운하는 《리론》이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계급 교양을 떠난 공산주의 교양이란, 방향과 목적이 없는 부르죠아적, 초계급적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면서 무경각성을 경계하고 국내외의 원쑤들로

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민족-배타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면서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 사이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들을 수정 거부하는 자들은 혁명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총체적으로, 혁명의 일반적 원칙들을 준수하며 고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정 거부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진짜 혁명가—공산주의자들과 가짜 혁명가—수정주의자들이 갈라진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노골적으로 왜곡 수정하면서 이와 같은 립장을 정당화하려는 구실 밑에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당과 국가들에 대하여 《교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시대의 변화》와 그에 적응한 《창조적 발전》이란 명목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제멋대로 뜯어 고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에 의하면 핵 무기가 출현했고, 제국주의 진영과의 력량 대비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우세해졌고, 제국주의의 본성이 《변하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는 투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이고 모든 분쟁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경쟁을 통하여》 해결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들의 어떠한 요설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는 여전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 즉 로동 계급과 모든 혁명적 인민들이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나아가서 사회주의의 전취를 위하여 미제를 선두로 한 온갖 반동을 반대하는 가렬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이 사회-경제 구성태들 호상간을 련결하는 발전의 법칙들은 변함 없이 작용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그 어떤 주관적 욕망으로써도 결코 이 객관적 법칙들의 작용을 막아 낼 수는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법칙들을 반영한 혁명의 제 원칙을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자본주의는 멸망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는바 이것은 사회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들을 반영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더욱더 확고히 증시해 주고 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만 혁명 수행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시대의 추세를 각국에서, 전 세계에서 혁명의 종국적 승리에로 성과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고수하며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혁명의 일반적 원칙들은 실지 자기 나라의 혁명 사업에 적용하여 생활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그것을 성과적으로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

반적 원칙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정당성, 진리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히 주체적 립장에 서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원칙들은 모든 나라에 타당한 혁명 수행의 일반적 방도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개 나라에서 반드시 적용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원칙들 자체에는 매개 나라에서 혁명을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해답은 주고 있지 않으며 또 줄 수도 없다. 따라서 매개 나라의 당들은 주체적 립장에 서서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매개 나라는 경제 발전이 각이하여, 자본주의 국가, 식민지 반봉건 국가, 반식민지 반봉건 국가 등의 차이도 있다. 또한 매개 나라는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간의 력량 관계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당의 준비 정도와 로동계급의 전투력에 있어서, 그 나라 혁명 전통, 문화 전통, 풍습, 지리적 조건과 자연 부원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 사정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도와 속도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요컨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그것이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매개 나라들은 각이한 구체적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민족은 사회주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적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완전히 동일하게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각 민족은 민주주의의·이런 또는 저런 형식이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런 또는 저런 변종이나 사회 생활의 각 방면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런 또는 저런 템포에 독특한 것을 가져 올 것이다.》 (전집 제 23 권, 83 페지)

여기로부터 각국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응당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엄격히 의거하는 동시에 주체적 립장에 서서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혁명의 일반적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형제 당들이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경험을 심중히 연구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도 기계적인 도입이 아니라 반드시 주체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연구 섭취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제반 원칙과 형제 당들의 경험에 창조적으로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진척 여부가 결정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 학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형제 당들의 경험도 역시 그렇다. 우리가 형제 당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그 본질을 파악

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옳게 적용하여야 그 경험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채로 받아 들이어 익은 맛쳐 버린다면 우리 사업에 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형제 당들의 고귀한 경험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선집 제 4 권, 337 페지)

혁명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체적 립장과 창조적 태도가 없이 교조주의적 행동으로써 남의 것을 모방하며 통채로 삼킬 때 그것은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주거나 지어 혁명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렬 내에 나타났던 교조주의자들과 완강히 투쟁하였다.

한때 우리 대렬 내에 잠입했던 종파'군들과 교조주의, 사대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형제 당들의 경험을 통채로 받아 들이며 기계적으로 모방하려 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관계없이 사회주의 개조도 남의 나라와 같이 물질-기술적 토대가 구축된 다음에야 할 수 있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도 아직 다른 나라에서 해 본 일이 없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방하여 나섰다

이러한 자들은 본질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가 창조적 학설이라는 것을 모르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지려는 혁명가적 기풍이 없는 자들의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교조주의, 사대주의의 잔재를 배격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전개하여 왔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주체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조선 혁명의 주인은 조선 인민과 조선 로동당이며 따라서 조선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 자신이 책임지고 해 나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대중을 혁명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여 왔다.

이러한 립장에 튼튼히 섰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의 일반적 원칙들을 우리 나라의 제 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었으며 또 우리 나라 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 있게 추진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 서지 않거나 남의 뒤꽁무니만을 넘어 놓고 따르는 자들을 항상 배격하여 왔으며 또 배격하고 있다.

오늘 국제 공산주의 대렬 내에도 현대 교조주의자로 불리우는 이러한 반동분자들이 있다.

이 교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과 형제 당들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민족주의》니, 《종파주의》니, 《분렬주의》니 하고 감투를 씌우려 하면서 자기들의 교조주의적 행동을 《국제주의적》 립장으로 정당화해 보려 하고 있다.

특히 이 교조주의자들의 특징은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절대시하는 데서 범하는 오유인 것이 아니라 수정주의적 경향으로 나가고 있는 대국주의자들에게 면종맹종하며, 대국주의자들의 소위 《경험》을 절대시하고 그것을 통채로 삼킨다는 데 있으며, 이것을 국제주의적 립장으로 묘사한다는 데 있다.

교조주의자들은 남의 당의 정책, 립장을 자기 당에도 의무적인 것으로 선포하며 또 대국주의자들의 지시라면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국제 혁명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거리낌 없이 집행하고 있다.

주체성 없이 남의 것에 맹종맹동하는 이따위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조선 속담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격의 제정신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제정신이 없이, 자기 것에 튼튼히 발을 붙임이 없이 남의 정신을 가지고 남의 덕에 혁명을 해 보려는 자들은 기필코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끼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주의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된다.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하려는 립장이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한 마디씩 해 주고 얻어나 먹자는 립장이 어떻게 국제주의와 량립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철저히 리기주의적 립장이며, 기회주의적 립장이다.

현대 교조주의자들의 행동은 그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자국 인민들로부터 고립 당하게 할 뿐이며 그리하여 구경은 혁명을 그만 두는 길로 떨어지게 할 따름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자국 내에 전파하는 안내자이다.

수정주의의 우두머리나 그들을 따라 《남의 장단에 춤추는 자들》이나 혁명과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배반자들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다 같이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혁명의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창조성》의 기치 하에 수정주의로 나가거나 《국제주의》의 기치 하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로 떨어지는 엄중한 과오들을 다 같이 경계하여야 하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들을 확고히 고수하고 주체적 립장에서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제 1 차적 의무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의 담보이며 또 국제 로동운동, 공산주의 운동 발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며 외곡 수정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견결히 반대하고 그들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제 원칙을 철저히 수호하며 그를 자기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생활력을 백방으로 과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매개 나라에서, 온 지구상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진정한 혁명가적 태도이다.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

—《인민 일보》 및 《홍기》 편집부 론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위대한 혁명적 폭풍이 일어 났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50 여 개 국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중국, 월남, 조선 및 꾸바 4 개국은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섰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면모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에서의 혁명이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실패를 당하였다면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정세는 전혀 달라졌다. 제국주의자들은 더는 민족 해방 운동의 강력한 불'길을 끌 수 없게 되였다. 제국주의의 낡은 식민지 체계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후방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충천하는 투쟁 전선으로 되였다. 일련의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에서는 제국주의의 지배가 이미 전복되였으며 기타 나라들에서도 그것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뒤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종주국 내에서도 제국주의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불안정하게 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 혁명의 승리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성과 서로 호응하면서 우리 시대의 우렁찬 개선 행진곡을 울리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 혁명의 폭풍은 오늘 세계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자기의 태도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대한 혁명적 폭풍 앞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으며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손'벽을 치며 환호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아주 나쁘다,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대단히 좋다, 대단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은 《이것은 반역이며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이것은 혁명이며 인민들의 권리이며 이것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력사의 조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 시기의 이 가장 첨예한 정치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맑스-레닌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피압박 인민들의 편에 철저히 서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실제 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편에 서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을 백방으로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말로는 아직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는 구호를 감히 완전히 내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리해 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이러저러한 제스추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 그들이 수년래 고취하고 있는 일련의 론조와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놓고 본다며 그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소극적이며, 멸시적이며, 부정적인 것이다. 그들은 신식민주의의 변호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7월 14일부 공개 서한과 쏘련 공산당 동지들의 수 많은 론설들과 연설들은 민족 해방 운동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변호하며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기 위하여 아주 많은 정력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반맑스-레닌주의적이며 반혁명적인 립장을 더욱 명백히 증명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면 민족 해방 운동 문제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리론》과 실천을 보기로 하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과업을 취소하고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은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앞에 나선 제국주의,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 과업이 이미 완수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이 투쟁 과업이 완수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항상 오늘 세계에서 식민주의는 이미 소멸되였거나 거의 소멸되여 가고 있는듯한 론조를 류포시키고 있다. 그들은 《지구 상에는 5천만의 인구가 식민주의 통치 하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으며》 식민주의 제도는 아프리카에 있는 포도아령 앙골라, 모잠비크 등지에 일부 잔재가 남아 있을 뿐 식민주의의 청산은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 섰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은 과연 어떠한가?

먼저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정세를 보기로 하자. 이 지역에 있는 일련의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통제와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 나라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략탈과 침략의 대상으로 되여 있으며 여전히 신구 식민주의자들의 란투장으로 되여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구식민주의자들이 변신하여 신식민주의자로 되고 있으며 자기들이 양성해 낸 앞잡이들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타 일부 나라들에서는 앞문으로 승냥이가 나갔는데 뒷문으로 또 호랑이가 들어 오는 격으로 새로운, 더욱 크고 더욱 위험한 미국 식민주의자들이 구식민주의자들을 대신하고 있다. 미제에 의하여 대표되는 신식민주의의 마수가 아

세아와 아프리카 각국 인민들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보자.

제 2 하바나 선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의 라틴 아메리카는 서반아 식민주의 제국보다 더욱더 야수적이고 더욱더 강대하고 잔인한 제국주의의 멍에를 쓰고 있다.》

또한 지적하기를, 제 2 차 세계 대전이 결속된 이후 《미국의 투자는 100억 딸라를 릉가하였다. 라틴 아메리카는 값싼 원료 공급지로 되였으며 값비싼 상품의 구매자로 되였다.》 《돈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미국으로 부단히 흘러들어 가고 있다. 즉 1 분 동안에 약 4천 딸라, 하루에 500만 딸라, 1 년 동안에 20억 딸라, 5 년 동안에 100억 딸라가 흘러들어 가고 있다. 우리의 1천 딸라를 강탈해 갈때마다 우리들에게 시체 하나를 남기고 간다. 1천 딸라에 하나의 시체—이것은 이른바 제국주의의 가격이다.》

사실은 아주 명백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는 식민주의를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주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제국주의가 직접 식민지를 통치하던 낡은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자기들이 선택하고 길러낸 앞잡이들을 통하여 식민지 통치와 식민지 착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군사 블럭의 조작, 군사 기지의 건설 또는 《련방》과 《공동체》의 창설, 괴뢰 정권의 부식을 통하여 식민지 국가와 이미 독립을 선포한 나라들을 자기들의 통제와 예속 하에 두고 있다. 그들은 경제 《원조》 등등의 방법을 리용하여 이러한 나라들을 계속 자기들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원료 공급지로, 자본 수출지로 만들고 이 나라들의 재부를 략탈하고 이 나라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그들은 또한 유엔을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이 나라들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및 문화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으로써 이 나라들에 대한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이 나라들에서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전복 활동을 하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 간섭과 무장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신식민주의를 추진시키는 측면에 있어서 미국은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교활하다. 미 제국주의는 신식민주의라는 무기로써 기타 제국주의의 식민지와 세력 범위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자기의 세계 제패권을 수립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신식민주의는 더욱 위험하고 더욱 악랄한 식민주의이다.

묻노니 이러한 정세 하에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이제 식민주의의 청산이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 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자기들의 황당한 말을 변호하기 위하여 1960년 성명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구실을 찾으려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1960년 성명이 식민지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

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성명에 지적된, 낡은 식민주의 제도가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론점은 결코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이 류포시키고 있는, 식민주의가 청산되고 있다는 론점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폭로하였다.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은 미국이다.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의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착취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경제적 통제와 정치적 영향의 공간을 자기 수중에 계속 틀어 쥐려 하고 있다.》 여기서 성명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민족해방 운동이 소위 경제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고 하는 《리론》을 조작해 내였다. 그들은 《이전에는 투쟁이 주로 정치적 령역에서 전개되였으나》 지금은 경제 문제가 《중심 과업》이며 《혁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기본 고리로》 되였다고 간주하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섰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는 결코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말하는 그런 《새로운 단계》가 아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전례 없이 각성되고 혁명 운동이 전례 없이 앙양되고 있으며 그들이 자국에서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세력을 철저히 소멸하고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철저한 독립을 쟁취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들 앞에 나서고 있는 선차적이며 가장 긴절한 과업은 여전히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가일층 전개하는 것이다. 이 투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상 및 기타 분야들에서 치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각 분야의 투쟁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치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왕왕 제국주의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무장 탄압에 매여 달리는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생 독립 국가들에 있어서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업은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결코 떠날 수 없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소위 《새로운 단계》론은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소위 《식민주의가 청산되였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하여 미국을 대표로 하는 신식민주의가 실시하고 있는 침략과 략탈을 미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와 피압박 민족들 간의 첨예한 모순을 은폐하는 것이며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려는 기도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리론》에 의하면 이미 식민주의는 거의 청산되였으며 지금 민족 해방 운동의 중심 과업은 다만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라는 것이며 따라서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 및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민족 해방 운동 과업을 근본적으로 취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로부터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말하는 경제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란 본질상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 및 그 주구들을 반대할 필요가 없는 단계이며 또한 민족 해방 운동이 필요 없는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을 취소하기 위한 처방

자기의 그릇된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곰곰히 생각한 끝에 피압박 민족들을 위한 만병통치의 처방을 만들어 냈다. 대체 이것이 어떤 처방인가를 보기로 하자.

첫째 처방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이라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전후 시기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민족 해방 운동에서 달성한 일련의 위대한 승리를 자기들의 소위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의 덕택으로 보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평화적 공존의 환경 속에서 최근 년간에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중요한 승리들이 달성되였으며 세계 혁명 과정은 성과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또한 민족 해방 운동이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환경》 속에서, 두 적대적인 사회 제도의 경제적 경쟁의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이 《외국 독점체들의 경제적 지배로부터의 인민들의 해방 과정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적 단계의 모든 체계》에 《섬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계속 떠들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레닌적인 평화적 공존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은 결코 각국 인민 대중들의 혁명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모든 식민지 및 예속 국가들은 민족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 나라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 혁명 투쟁을 그 어떤 다른 나라가 대신하여 해 줄 수는 없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견해에 의하면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는 주요하게는 각국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의하여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인민 대중은 자기 자신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들은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경쟁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스스로 소멸되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피압박 민족이 제국주의의 략탈과 예속에 영원히 타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거하지 말아야 하며 혁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처방은 후진 국가들에 대한 원조라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자기들의 경제 원조의 역할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흐루쑈브 동지는 이 원조가 이 나라들로 하여금 《새로운 예속을 피하게 하며 그들의 진보를 추동하며 국내의 정상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며 지어는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통하는 사회적 발전의 대로에 올라 설 수 있게 하는 국내적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신생 독립 국가들에 제공하는 원조는 필요한 것이며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개조가 주요하게는 이 나라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원조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단언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최근 년간에 실시하고 있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원조 정책과 그의 목적은 로골적으로 말해서 의아스러운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신생 독립 국가들에 대한 원조 문제에서 흔히 대국 배타주의적, 민족 리기주의적 립장을 취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정치 경제적 리익에 손실을 주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인도에 주는 원조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쏘련이 신생 독립 국가들에 주는 원조 중에서 인도는 첫 자리를 차지한다. 이 원조는 명백히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인민을 반대하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여 네루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을 장려하려는 목적 밑에 제공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까지도 쏘련의 이 원조가 《미국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미제와 함께 《후진 국가들에 원조를 줄 것》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1959년 9월 미국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와 당신들의 경제적 성과는 전 세계가 환영하고 있다. 전 세계는 우리 두 렬강이 경제 발전에서 수 세기간 뒤떨어진 인민들로 하여금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야성이 《빨리 자립》하도록 피압박 민족을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신식민주의자들과 줄거 한 패가 되며 그것을 자신의 영예로 간주하는 것은 실로 괴이한 일이다.

세째 처방은 군비 철페라는 것이다.

흐루쑈브는 《군비 철페는 군대의 무장해제, 군국주의의 청산, 임의의 나라 내정에 대한 군사적 간섭의 제거,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의 완전하고 종국적인 청산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비 철페는 청소한 민족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조성할 것이다. 만일 1년 1,000억 딸라에 달하는 세계 군사비 총액 중에서 8~10%만을 이와 같은 목적에 배당한다면 20년 내에 지구 상의 가난한 지역들에서 기아, 질

명 및 문맹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군비 경쟁과 [illegible] 준비를 폭로하며 [illegible] 투쟁할 목적으로 [illegible] 위한 투쟁을 [illegible] 없이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illegible] 마련하고 군비 [illegible] 식민주의를 청산할 수 있다고 [illegible] 안 된다고 간주한다.

흐루쑈브는 《고통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제국주의는 무기를 놓을 것이며 자유가 당신들에게 강림할 것이다. 기다리라. 그러면 제국주의는 당신들에게 [illegible] 자비심을 베풀 것이며 세계의 가난한 지역들은 우유가 강물서럼 넘쳐 흐르고 과일 동산이 꽃피는 복된 땅으로 될 것이다.…》라고 설교하는 목사와도 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잠꼬대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아편이다.

네째 처방은 유엔을 통한 식민주의의 청산이라는 것이다.

흐루쑈브는 만일 유엔이 식민주의 제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는 데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현재 외국의 지배로 인한 굴욕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 인민들은 외국의 멍에로부터 [illegible] 해방될 명백하고도 가까운 전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196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유엔이 식민주의 통치 제도의 청산을 주장해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서겠는가!》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참으로 괴이한 소리다! 흐루쑈브의 견해에 의하면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적 인민들은 식민주의를 청산하지 말아야 하며 또 청산할 수 없으며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문제에서는 유엔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흐루쑈브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서방 국가 인민들의 리성과 선견지명에 호소하며 그 정부들과 유엔의 이 고상한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에게 호소한다.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함에 있어서 서로 협조함으로써 이 합법칙적인 과정을 촉진시키자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흐루쑈브는 유엔의 원조에 기대를 걸으므써 본질에 있어서는 제국주의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유엔은 식민주의의 지배를 유지 강화할 수 있을 뿐 그 어떠한 식민주의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처방들은 미치도 제국주의가 식민주의를 포기할 수 있으며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혁명적인 리론들, 모든 혁명적인 주장들, 모든 혁명 투쟁이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고 필요 없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있다.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하는 책동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로 하여금 혁명 투쟁을 포기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민족해방 운동과 민족 해방 전쟁을 말로써는 지지한다고 떠들기는 하나 혁명적 폭풍 앞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지어 조그마한 불꽃도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계 대전은 만일 그것이 일어 나기만 하면 반드시 열핵 전쟁으로 되여 모든 인류를 소멸할 것이라는 유명한 《리론》을 내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흐루쑈브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국부 전쟁〉,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전쟁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거물거리는 불꽃을 끄기 위하여 완강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목청을 돋구어 웨치고 있다. 여기에서 흐루쑈브는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반드시 취하여야 할,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는 립장을 배반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최근 18년간의 력사는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이 총칼로 가혹한 지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피압박 민족의 혁명을 탄압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민족 해방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국주의와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부단히 일어 난 대 소 혁명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타격을 주었으며 세계 평화 옹호 력량을 강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대전 도발 계획을 좌절시켰다. 흐루쑈브는 평화를 위해서는 혁명의 불꽃을 《꺼야》 한다고 불어 대고 있다. 사실 대로 말한다면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 하에 그는 혁명을 반대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정책에서 출발하여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모든 피압박 민족들에게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을 포기하고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어는 제국주의 편에 서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혁명의 불꽃을 꺼버리기 위하여 가능한 온갖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전쟁을 실례로 들어 보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오래 동안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란서 제국주의 편에 서 있었다. 흐루쑈브는 알제리아의 민족적 독립 문제를 불란서의 《내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1955년 10월 3일 알제리아 문제에 언급하면서 《나는 우선 쏘련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념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1958년 3월 27일 불란서 신문 《피가로》 기자와의 담화에서 《우리는 불란서가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불란서가 자기 존엄을 강화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

였다.

불란서 제국주의에 유리하도록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오래 동안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가 결정적인 것으로 되고 불란서가 알제리아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황급히 알제리아 정부를 승인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러한 추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자기의 수치를 자랑하려고 하였으며 알제리아 인민의 희생적이며 류혈적인 투쟁의 연대도 그들이 제정한 《평화적 공존》이라는 영예 등록장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는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콩고 문제에서 논 역할을 보기로 하자.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콩고 인민의 무장 투쟁을 적극 지지할 대신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콩고에서 터번지는 《불꽃》을 끄기 위하여 황망히 미제와 《협조》하는 길로 나아갔다.

1960년 7월 13일 쏘련은 미국과 함께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콩고에 유엔군을 파견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는 데 찬동함으로써 미제가 유엔의 기'발로 가장하고 콩고에 대한 무력 간섭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쏘련은 자기의 수송 수단을 유엔군에 제공하였다. 7월 15일 흐루쑈브는 카사부부와 루뭄바에게 보낸 전문에서 지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가 유익한 사업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쏘련 출판물들은 유엔이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옹호하도록 콩고 공화국 정부를 방조하고 있다.》고 열렬히 찬양하였으며 유엔이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나아가서 쏘련 정부는 8월 21일 부와 9월 10일 부 성명들에서 콩고 인민의 투쟁을 탄압한 유엔을 계속 극구 찬양하였다.

1961년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기젱가로 하여금 유엔군의 《보호》하에 개막된 콩고 국회 회의에 참가하며 괴뢰 정부에 참가하도록 추동하였다. 당시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파렴치하게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콩고 국회 회의의 소집이 《신생 공화국의 생활에서 뜻깊은 사변》이며 이것은 《민족적 력량의 승리》라고 떠들었다.

제반 사실들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자기의 그릇된 정책으로써 콩고를 반대하는 침략에서 미 제국주의에 커다란 봉사를 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루뭄바는 살해 당하였으며 기젱가는 투옥되였다. 많은 애국자들이 탄압을 당하였으며 콩고에서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실패하였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현 세계 모순이 집중된 지역

민족 해방 운동과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하는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언설들과 행동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피압박 인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지 않았으며 자기의 그릇된 로선과 정책을 변경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격노하여 중국 공산당과 기타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대하여 중상과 공격을 퍼부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자기의 공개 서한에서 마치도 중국 공산당이 그 어떤 《새로운 리론》을 내 놓은듯이 공격하고 있다. 이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이러한 리론에 의하면 현 시대의 기본 모순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 아니라 민족 해방 운동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다. 중국 동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력량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국제 로동 계급의 투쟁인 것이 아니라 의연히 민족 해방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날조이다. 우리는 6월 14일부 서한에서 현 세계의 기본 모순이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이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이며 피압박 민족과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이며 제국주의 국가들 간 및 독점체들 간의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은 두 개의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 제도인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 간의 모순으로서 이 모순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첨예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제 모순을 단순히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에만 귀착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견해는 명백하다.

우리는 6월 14일부 자기의 서한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혁명 정세와 민족 해방 운동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론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1,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광범한 지역들은 현 시대의 세계의 각종 모순이 집중된 지역이며 제국주의의 통치가 가장 약한 지역이며 오늘 직접 제국주의에 타격을 주고 있는 세계적인 혁명적 폭풍의 주되는 지역이다.》

2, 《이 지역들에서의 민족 민주주의 혁명 운동은 국제 사회주의 혁명 운동과 함께 현 시대에 있어서 두 개의 큰 력사적 조류를 이루고 있다.》

3, 《이 지역들에서의 민족 민주주의 혁명은 현 시기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4,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은 제국주의와 신 구 식민주의의 통치 지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그를 약화시키고 있는바 이것은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현 시기의 강대한 력량이다.》

5,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 위업은 결국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의하여 좌우된다.》

6,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혁명 투쟁은 결코 지역적 성격을 띤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 혁명 위업 전반과 관련된 전반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이 모든 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견

해이며 현 세계의 구체적 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결론이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매우 유리한 혁명 정세가 조성되여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혁명은 오늘 제국주의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의 제 모순이 집중되여 있는 지역들이다.

세계 모순의 집중점, 세계 정치 투쟁의 집중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투쟁과 혁명 정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이동한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과 투쟁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요람이며 제국주의의 중심인 서구라파와 북미에서 대전투의 위대한 날이 도래할 것을 확신한다. 그 때에 가면 서구라파와 북미주는 의심할 바 없이 세계 정치 투쟁의 중심으로, 세계 모순의 결절처로 될 것이다.

1913년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적 대폭풍우의 새로운 원천이 아세아에서 터졌다.》 《우리는 현재 바로 이러한 폭풍우의 시대 그리고 그 폭풍우가 구라파에 〈반영〉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전집 제18권, 745 페지)

1925년에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식민지 제국은 제국주의의 주요한 후방인 것이다. 이 후방의 혁명화는 제국주의가 후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동양의 혁명화는 서양에서 혁명적 위기를 첨예화시키는 결정적 충격을 반드시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제국주의를 파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집 제7권, 307 페지)

과연 레닌과 쓰딸린의 이러한 명제들이 그릇되였단 말인가? 이 명제들은 이미 오래 전에 맑스-레닌주의의 상식으로 되였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민족 해방 운동의 의의를 감소시키려고 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초보적인 상식도, 목전의 극히 명백한 사실들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혁명에서 령도권에 대한 레닌의 사상의 외곡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7월 14일부 자기 공개 서한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견해도 공격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중국 동지들은 레닌을 〈시정〉하려 하고 있으며 마치도 로동 계급이 아니라 소부르죠아지나 혹은 민족 부르죠아지, 지어는 〈일부 애국적 기분을 가진 왕들이나 왕자, 귀족〉들이 제국주의와의 세계적인 투쟁에서 령도자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견해에 대한 철면피한 외곡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6월 14일부 자기 서한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을 고수할

필요성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려사는 《제국주의와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며 민족 민주주의 혁명 운동의 최선두에 서서 사회주의적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 영광스러운 사명을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프로레타리아 당들에 부과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정당들은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결속시킬 수 있는 모든 주민 계층을 결속시켜야 하며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 전선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 정당들이 사상, 정치, 조직적 면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며 혁명의 령도권을 견지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6월 14일부 자기 서한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서 광범한 반제 통일 전선을 결성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피압박 민족과 인민들 앞에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의 가장 광범한 주민 계층들은 제국주의 멍에를 메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들 중에는 로동자, 농민, 인테리, 소부르죠아지들 뿐만 아니라 애국적인 민족 부르죠아지, 지어는 일부 애국적인 왕과 왕자, 귀족들도 있다.》

우리의 견해는 아주 명백하다. 즉 민족 해방 운동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을 고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광범한 반제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어떤 부정확한 점이 있단 말인가? 어째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우리의 정확한 견해들을 외곡하고 공격해야 하는가?

혁명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관한 레닌의 사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이다.

만일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그릇된 로선을 따라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과업을 근본적으로 취소하며 민족 해방 전쟁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이것은 피압박 민족들과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애국적 투쟁의 기치를 공손히 남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반제 통일 전선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어떤 사람의 지도 하에서도, 지어는 네루와 같은 반동적인 민족주의자의 지도 하에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줄곧 설교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관한 사상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물러 선 립장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공개 서한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국가 로동 운동 및 민족 해방 운동 간의 호상 지지의 관계에 대하여 민족 해방 운동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주국들에서의 로동 운동의 《령도》 하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지어 이와 같은 주장이 프로레타리아

트의 령도권에 관한 레닌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듯이 말하고 있다. 이것이 레닌의 사상에 대한 가장 란폭한 외곡이며 수정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이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자기의 혁명 취소 로선을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운동에 강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민족주의와 변절의 길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7월 14일 부 공개 서한에서 중국 동지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국제 로동 계급과 그의 산아인 세계 사회주의 체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또 하나의 죄를 전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또한 우리가 민족 해방 운동을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으며 량자를 서로 《대치》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와 같은 소리로 말하며 그가 한 말을 되뇌우고 있는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과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가? 민족 해방 운동을 사회주의 진영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에 대치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그를 반대하고 있는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다.

중국 공산당은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호상 지지한다고 변함 없이 간주하고 있다. 민족 해방 운동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립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리익 전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적인 발전이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로동 운동 및 전 세계 평화 위업을 위하여 극히 위대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그 추종 분자들은 이 역할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지지가 노는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민족 해방 운동의 지지가 노는 역할은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에 타격을 가하는 데서 노는 서방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이 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역할은 과소 평가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립장은 맑스-레닌주의에 배치되며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릇된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자본주의 나라 로동 운동이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원칙적인 문제이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들이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피압박 민족들을 적극 지지 원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혁명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나라들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들과 인민들의 혁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지로 되여야 하며 그와 밀접한 동맹을 맺고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은 한 개 혹은 몇 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종결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이 자기들의 총 로선이라고 말하는 평화적 공존에 복종하며 자기들의 일국의 민족적 리익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25년에 쓰딸린은 뜨로쯔끼주의자들과 지노비예브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청산파들과의 투쟁을 진행하면서 청산파들의 위험성의 특징은 《국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불신, 그 승리에 대한 불신, 식민지와 예속국의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회의적 태도,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목적 자체인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는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초보적 요구에 대한 몰리해이다.》(전집 제 7 권, 220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길은 민족주의와 변절의 길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적 정책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이다. 왜냐 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세계 혁명 운동이란 한 개의 전일체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시초인 동시에 그 종결로 보면서 우리 나라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까닭이다.》(전집 제 7 권, 220 페지)

쓰딸린은 청산파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중국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무엇 때문에 지지할 것이란 말인가? 그것은 위험하지 않을가?

그것은 우리를 다른 나라들과 반목케 하지 않을가? 다른 〈선진〉 강국들과 함께 중국에 〈세력권〉을 확립하고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중국에서 그 무엇을 좀 빼앗아 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전집 제 7 권, 221 페지)

쓰딸린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월 혁명의 대외 정책을 청산하려고 시도하며 변절의 요소들을 배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적 〈풍조〉는 이상과 같다.》(전집 제 7 권, 221 페지)

쏘련 공산당의 현 지도부는 실로 당시의 청산파들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혁명한 자들로 자처하고 있는 그들은 《유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한》 일만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나라들과 다투게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 하고 있으며 때문에 백방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개의 소위 최강대국 간에 《세력권》을 확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청산파들에 대한 쓰딸린의 비판은 바로 쏘련 공산당의 현 지도자들에게 전적으로 해당된다. 청산파들의 전철을 밟으면서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은 10월 혁명의 대외 정책을 취소하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변절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쓰딸린은 한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오직 철저한 국제주의의 기초 우에서만 오직 10월 혁명의 대

외 정책의 기초 우에서만 최초의 승리한 나라가 세계 혁명 운동의 기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최소 저항 및 민족주의의 길은 최초의 승리한 나라의 고립 및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은 명백하다.》(전집 제 7 권, 222 페지) 쏘련의 이 경고는 쏘련 공산당의 현 지도부에 대해서도 심중하고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

사회 배외주의의 하나의 전형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압박하는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독립에 대한 피압박 민족들의 권리를 적극 지지하며 그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압박하는 민족들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오직 피압박 민족들의 지지 하에서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였다. 《구라파와 아메리카에서 자본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에 있어서 그 자본의 압박을 받는 수억만 〈식민지〉 노예와의 완전하며 밀접한 단결이 없다면 선진 제 국에 있어서의 혁명 운동은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기만으로 될 것이다.》(전집 제 31 권, 323 페지)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로 자처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로 그 전형적인 실례이다.

장기간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포기하고 미제가 불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치, 경제 및 군사적 통제와 구속을 과감히 반대해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을 반대하는 불란서의 민족적 투쟁의 기치를 드골과 기타 분자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었다. 다른 한편 그들은 온갖 수단과 구실을 다하여 불란서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적 리익을 옹호하고 불란서 식민지들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에 지지를 주지 않았으며 지어 이 운동을 반대하여 나서기까지 하였다. 특히 그들은 민족 혁명 전쟁을 반대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민족 배외주의의 진창 속에 굴러 떨어졌다.

레닌은 《식민지 인민들 역시 민족이라는 것을 구라파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이러한 〈건망증〉을 용인하는 것은 배외주의를 용인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전집 제 23 권, 74 페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레즈 동지와 같은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러한 《건망증》을 나타내는 데만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지어 공공연히 불란서 식민지 인민들을 《귀화된 불란서인》들로 간주하면서 민족적 독립과 불란서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란서 제국주의가 실시하는 《민족 동화》 정책을 로골적으로 지지하였다.

10 여 년 동안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불란서 독점 부르죠아지의 뒤꼬리를 따르면서 불란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

책에 추종하였다. 1946년 불란서 독점 자본의 우두머리들이 신식민주의적 간계를 부리면서 불란서 련방 창설안을 제기하였을 때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즉시 《우리는 변함 없이 불란서 련방을 자유로운 인민들의 자유로운 련방으로 간주한다》느니, 《불란서 련방은 새로운 기초 우에서 불란서 인민과 과거 불란서에 예속되여 있던 해외령 인민들 간의 관계 문제를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느니 하고 떠벌렸다. 1958년에 불란서 련방이 붕괴되고 불란서 정부가 식민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란서 공동체》 창설을 제기하였을 때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또 즉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창설이 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떠벌렸다.

뿐만 아니라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족적 독립에 대한 불란서 식민지 인민들의 요구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은 위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란서 련방에서 탈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유명 무실하고 일시적이며 허위적인 독립을 가져오게 할 수는 있으나 오직 제국주의의 강화를 초래할 따름이다.》라고 떠벌렸다.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또한 《문제는 하나의 불가피성으로 된 이 독립이 불란서와 더불어 실현될 것인가, 불란서 없이 실현될 것인가 또는 불란서의 반대하에 실현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의 리익은 이 독립이 불란서와 더불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알제리아 문제에서 민족 배외주의 립장을 취하였다. 최근에 와서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벌써 오래 전에 《자유에 대한 알제리아 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가?

오랜 기간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은 민족적 독립에 대한 알제리아의 권리를 도대체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불란서 독점 부르죠아지를 추종하면서 《알제리아는 불란서의 불가분의 일부》라느니, 불란서는 《위대한 아프리카 국가이며 또 앞으로도 위대한 아프리카 국가로 되여야 한다》느니 하고 불어댔다. 토레즈와 기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관심사로 되는 것은 알제리아가 해마다 불란서에 《100만 두의 양》과 막대한 량의 밀을 납입함으로써 《육류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식량 부족을 충당》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보라, 불란서 공산당 지도자들의 민족 배외주의가 얼마나 심한가! 이들에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흔적이나마 있는가? 이들에게서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다운 면모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가? 이들의 이와 같은 민족 배외주의적 립장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익에 대한 배반이며 불란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익과 불란서의 진정한 민족적 리익에 대한 배반이다.

쓰던 공산당 지도부는 민주 해방 운 동을 반대하여 온갖 수법을 다 쓰던

끝에 이제는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인종론에까지 매여 달리게 되였다. 그들은 민족 해방 운동을 견결히 지지하는 중국 공산당의 정당한 립장을 《인종적 및 지리적 장벽의 축성》, 《계급적인 관점을 인종주의적인 관점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주의적이며 지어 인종주의적인 편견의 리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구 상에 맑스-레닌주의가 아직 없다면 이러한 거짓은 사람들을 속여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거짓의 날조자들은 때를 잘못 타고 내여 났다. 오늘날 맑스-레닌주의는 이미 사람들의 심장 속에 깊이 스며 들었다. 쓰딸린이 훌륭히 지적한 바와 같이 레닌주의는 《백인종과 흑인종, 구라파인과 아세아인, 제국주의의 〈문명한〉 노예와 〈미개한〉 노예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깨뜨려 버렸다.》(전집 제 6 권, 192 페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바로 이러한 인종주의적인 장벽을 다시금 쌓으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현 시대의 민족 문제는 결국 계급 투쟁 문제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문제이다. 오늘 전 세계의 백색, 흑색, 황색, 갈색 등 각색 인종 중의 로동자, 농민, 혁명적인 인테리,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부르죠아들과 기타 반제적이며 애국적인 개명 인사들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 통일 전선은 부단히 공고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백인들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으면 유색인들의 편에 서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줌도 못 되는 제국주의와 반동의 편에 서는가 하는 데 있다.

피압박 민족들은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와 명백히 계선을 갈라야 한다. 이것이 맑스-레닌주의적인 계급적 관점이다. 그 계선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복무하는 민족 배외주의적인 관점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 민주당의 강령에 있어서 중심적인 개소로 되어야 할 것은, 제국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가 거짓말로 회피하고 있는, 압박 민족과 피압박 민족에로의 민족들의 바로 그 구분이다.》 (전집 제 21 권, 492 페지) 오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반제 투쟁에서의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그 어떤 《지리적 및 인종적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는》 단결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회 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의 립장에 자신을 놓고 있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인종론》을 괄고 다니면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을 백인들을 반대하는 유색인들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구라파와 북미주의 백인들 속에서 인종주의적 증오심을 선동하려는 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인민의 투쟁 목표를 딴 데로 돌리며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국제 로동 운동의 투쟁 목표를 딴 데로 돌리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도처에서 《황화》니, 《칭기스 한의 위협이 또다시 닥쳐왔다》느니 하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실상 이것은 반박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 론문에서 우리는 칭기스 한의 력사적인 역할을 론평하려 하지 않으며 몽고, 로씨야 및 중국 등 민족의 발전과 국가 형성 과정을 론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쏘련 공산당 지도부에 이러한 요언을 날조함에 있어서 력사를 한 번 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뿐이다. 칭기스 한은 당시 몽고의 한이였으며 중국도 로씨야도 그의 침략을 받았다. 1215년에 칭기스 한은 중국의 서북과 북방의 일부분에 침입하였으며 1223년에는 로씨야에 침입하였다. 칭기스 한이 죽은 후 그의 후계자는 1240년에 로씨야를 정복하였으며 30여 년이 지난 1279년에 전 중국을 정복하였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 로신이 1934년에 쓴 자기의 글에서 칭기스 한에 대하여 한 말은 당신들에게 쓸모가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참고로 하도록 아래에 그것을 인용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스무 살 나던 때 《〈우리〉의 칭기스 한이 구라파를 정복한 것은 〈우리〉의 황금 시대였다는 말을 들었다. 25세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소위 이 〈우리〉의 황금 시대는 실상 몽고인들이 중국을 정복하였으며 우리가 노예로 된 때라는 것을 알았다. 금년 8월에 한 옛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권의 몽고 력사 책을 뒤졌는데 그 때에 비로소 몽고인들의 〈루씨〉 정복과 헝그리야, 오지리 침입이 아직 전 중국을 정복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당시 칭기스 한은 아직 우리의 한이 아니였다. 로씨야인들이 우리보다는 노예 자격이 오랜 만큼 도리여 그들이 〈우리의 칭기스 한이 중국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황금 시대였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로신 전집 중문 판, 제 6 권, 109 페지)

세계 근대사에 대한 상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떠들어 대는 《황화론》이 독일 황제 윌헬름 2 세의 유문을 계승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반 세기 전에 벌써 윌헬름 2 세는 《나는 황화론자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독일의 윌헬름 황제가 《황화론》을 고창한 것은 중국을 가일층 분할하고 아세아를 침략하며 아세아의 혁명을 진압하고 구라파 인민들의 혁명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였으며, 또한 그것을 당시 제국주의적 세계 대전의 도발과 세계 제패권의 쟁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연막으로 삼자는 것이였다.

윌헬름 2 세가 《황화론》을 고창한 시기는 바로 구라파 부르죠아지의 극단한 부패와 극단한 반동의 시기였으며 바로 1905년 로씨야 혁명의 전후이며 민주주의 혁명이 중국, 토이기, 페르샤를 휩쓸고 인도에 파급되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레닌은 《락후한 구라파와 선진적인 아세아》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당시에 윌헬름 2 세는 혁혁한 대인물이였으나 해'볕 아래 눈사람에 불과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반동의 두목은 자기가 조작한 반동 리론

과 더불어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그러나 위대한 레닌과 그의 빛나는 사상은 영원히 살고 있다.

세월은 50 년이 흘러 갔다. 서구라파와 북미주의 제국주의는 더욱더 부패해졌으며 더욱 반동화하였으며 그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한편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혁명의 폭풍은 레닌의 생존 시기보다 헤아릴 수 없이 거세차졌다. 이러한 시기에 윌헬름 2 세의 역을 맡아 나서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력사에 대한 희롱이다.

낡은 수정주의의 재생

식민지-민족 문제에서의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정책은 다름 아닌 파산 당한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적인 정책이다. 그 차이는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가 제국주의의 구식민주의에 복무하였다면 현대 수정주의는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에 복무한다는 오직 그점에만 있다.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구식민주의의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는데 흐루쑈브로 말하면 신식민주의의 악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제 2 국제 당의 《영웅 호걸》들인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는 제국주의의 구식민주의 통치의 변호인들이였다. 그 자들은 식민주의 통치가 진보적이라느니, 그것이 식민지들에 《고도의 문명을 가져다 주었다》느니, 식민지들의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느니 하고 로골적으로 떠벌렸다. 그들은 심지어 식민지를 없애는 것은 《야만 상태로 돌아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 점에서 흐루쑈브는 낡은 수정주의자들과는 달리 구식민주의 제도를 비난할 용감성을 가지고 있다.

흐루쑈브의 이러한 용감성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문제는 제국주의의 어조가 이미 변경되여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 해방 혁명의 2 중의 타격을 받고 《만약 서방이 식민주의를 현 상태 대로 유지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폭력 혁명과 패배를 초래할 것이며》 구식민주의 통치 형태는 《오히려 국가가 경제적 및 도덕적 힘을 상실하는 〈부담〉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지배의 방법을 변경시켜 신식민주의에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흐루쑈브는 신식민주의자들과 결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식민주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식민주의는 이미 철폐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피압박 민족들에게 신식민주의를 받아 들일 것을 설교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피압박 민족들이 문명한 제국주의자의 《원조의 덕분》을 입어 《민족 경제의 급속한 장성》과 《생활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으며 압박받는 나라들의 《국민 수입이 비할 바 없이 확대되고》 《공업이 발전한 나라들

의 경제에 필요한 더 많은 원료와 각종 제품 및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제고될 것이다.》라고 백방으로 떠들어 대고 있다.

흐루쑈브는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자들의 무기고에서 끄집어 낸 녹이 쓴 무기에 매 달리기를 잊지 않았다.

실례를 들어 보자.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전쟁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민족 문제는 《오직 국제 협정을 통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흐루쑈브는 《식민주의 제도를 고요히 매장》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자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볼쉐위즘은 사실상 호전적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 인터나쇼날은 로동자들의 해방이 백전 백승의 붉은 군대의 총창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으며 세계 혁명을 위하여서는 새 세계 전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비방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국면이 《새 세계 대전의 엄중한 위험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요설을 퍼뜨렸다. 오늘날 흐루쑈브는 중국 공산당과 기타 맑스-레닌주의적 형제 당들을 비방하면서 한때 낡은 수정주의자들이 볼쉐위크들에게 하던 바로 그런 말을 쓰고 있다. 그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흐루쑈브가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에 복무함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구식민주의에 복무하고 있던 낡은 수정주의자들에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제국주의 정책은 국제 로동 운동을 두 조류로, 즉 혁명적 조류와 기회주의적 조류로 갈라지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혁명적인 조류는 피압박 민족의 편에 서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혁명적 조류와는 반대로 기회주의적 조류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식민지 및 반식민지 인민들로부터 략탈한 리윤의 일부를 얻어 먹고 자기 살을 찌우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와 식민주의자 편에 서서 피압박 민족의 해방 혁명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레닌이 지적한 국제 로동 운동에서의 혁명적 조류와 기회주의적 조류의 분렬은 현 시기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민족 해방 운동이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로동 운동과 공고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또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복무하는 수정주의 조류와 명확히 계선을 갈라야 하며 그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서구라파와 북미주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이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과 긴밀한 동맹을 맺어야 하며 수정주의 조류와 명확히 계선을 갈라야 하며 그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국제 로동 운동 대렬내에 잠입한 제국주의의 주구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만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담이며 거짓말》(전집 제 22 권, 394 페지)이라고 말하였다. 그런즉 오늘날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주의가 제아무리 가장하며 발악하여도 또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이 제아무리 제국주의를 분식하고 도와주어도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는 멸망의 운명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 해방 혁명의 승리는 가로 막을 수는 없다. 신식민주의의 변호인들은 드디여 완전히 파산되고야 말 것이다.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와 피압박 인민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 21 호 (루계 235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1월 5일 인 쇄 • 1963년 11월 3일
ㄱ—330729 값 40 전

모 택 동

전쟁과 전략 문제

판 형	국 판
페지수	290 페지

모 택동 동지의 로작집 《전쟁과 전략 문제》는 중국 혁명에서의 전략과 전술 문제 특히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해방 투쟁에서 중국 공산당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천명한 모 택동 동지의 주요 로작들을 묶은 것이다.

이 로작집에는 《실천론》, 《모순론》, 《지구전론》, 《전쟁과 전략 문제》, 《신민주주의론》, 《항일 전쟁 승리 후의 정세와 우리의 방침》, 《인민 민주주의 독재론》 등 7 개편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했다.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2호 11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제 22 호 (236)

1963년 11월 (하)

(반 월 간)

차 례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10월 혁명의 위업을 계승하자!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6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박 금 철

동지들!

로씨야에서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세계에서 첫 프로레타리아 독재 국가가 창건된 때로부터 46 년이 지나 갔습니다.

10월의 기치는 위대한 레닌의 영상과 함께 오늘도 계속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자유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 력사에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였으며 오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위대한 쏘련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10월 혁명은 인류 해방의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10월 혁명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최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은 이때로부터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튼튼히 틀어 쥐고 인류의 리상인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길에 들어 섰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붕괴의 발단이였으며 모든 착취자들과 억압자들에 대한 멸망의 선고였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근로 대중의 세기적인 념원과 숙망을 실생활에서 구현한 것으로서 전 세계를 진감시켰으며 모든 피착취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에게 해방의 앞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횃불로 되였습니다.

10월의 기치 하에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궐기한 인민들의 혁명 대오는 날이 갈수록 더욱 장성하였으며 오늘 그것은 낡은 착취 세계를 파괴하고 새 세계를 창조하며 인류 력사의 발전을 추동하는 위대한 힘으로 되였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제 2 국제당 수

정주의자들을 반대하고 맑스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제국주의 시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킨 레닌주의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레닌은 수정주의자들이 혁명 승리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을 때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의 력사적 위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국주의 시대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로 규정하였으며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에 기초하여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략 전술을 전면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일국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레닌의 천재적 예견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그의 학설의 정당성을 생활로써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는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리론을 배반한 수정주의자들과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종국적 파산으로 되였습니다.

세계 제국주의자들과 모든 반동 세력들은 첫 사회주의 국가 쏘련을 그의 요람기에 교살하며 10월 혁명에 의하여 개시된 위대한 혁명의 흐름을 막아 보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전인 미답의 길을 헤쳐 나아가는 쏘련 인민은 중첩되는 난관과 준엄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공산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백전 백승의 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내외의 원쑤들의 간악한 공격을 분쇄하고 10월의 전취물을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레닌의 서거 후 쏘련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간고한 시기에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볼쉐위크 공산당은 뜨로쯔끼, 부하린 기타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격파하고 레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면서 전체 쏘련 인민을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레닌적 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동원하였습니다.

쏘련 인민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극복하고 레닌이 가리킨 길을 따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농업 집단화의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쏘련 인민은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모든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자기 조국을 세계 일 등급의 공업을 가진,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이 발전한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쏘련 인민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격멸함으로써 진보적 인류 앞에 위대한 공훈을 세웠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견고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전 세계에 시위하였습니다.

전후 쏘련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쏘련의 위력은 더욱 장성하였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쏘련 인민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는 레닌의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된 쏘련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의 위대한 결실입니다.

쏘련 인민은 내외의 원쑤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새 사회 건설 도상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의 투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였

으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혁명의 기치를 고수하고 자기의 고귀한 피와 땀으로, 해방된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 로력으로 웅대한 사회주의 건물을 하나 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10월 혁명 후 40여 년간의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업적에 기초하여 오늘 쏘련 인민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 섰습니다.

레닌, 쓰딸린을 수반으로 하는 쏘련 공산당의 령도 하에 쏘련 인민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쌓아 올린 력사적 경험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밑천입니다. 레닌은 10월 혁명의 경험은 《사회주의의 전취물로서 력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리고 이 경험에 기초하여 장래의 국제 혁명은 자기의 사회주의적 건물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의 길은 철저한 혁명의 길입니다.

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혁명적으로 궐기하여 폭력으로 낡은 통치 기구를 분쇄하였으며 계급적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쟁취하고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10월 혁명은 로동 계급은 개량주의의 길이 아니라 오직 혁명의 길에 의하여서만 자기의 해방을 실현할 수 있으며 로동 계급과 모든 피압박 인민들이 혁명 투쟁에 궐기할 때 어떠한 반동의 아성도 능히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0월의 사상, 레닌주의는 오직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의거함으로써만, 계급적 원쑤들과 외래 침략자들, 모든 낡은 세력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고수할 수 있으며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0월의 경험은 로동 계급은 오직 맑스주의로 튼튼히 무장되고 기회주의와 완전히 결별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을 가짐으로써만, 그리고 국가와 광범한 인민 대중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만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위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10월의 길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의 혁명적인 대외 정책의 모범과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레닌과 쓰딸린은 민족 배타주의와 사회 배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는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 피압박 민족들과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여야 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투쟁을 전력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레닌은 《우리 위업은 국제적 위업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에서(가장 부유하고 문명한 국가들도 포함하여)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우리의 승리는 절반 또는 아마 그 이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로씨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혁명을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에로 전변시키는 것—이것만이 이 혁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담보로 될 것이다.》라고 교시하였습니다.

10월의 길은 인민들을 해방하고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입니다.

여기에서 리탈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수정주의와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에 굴러 떨어지게 되며 혁명 위업을 배반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10월의 기치를 견결히 고수하여야 하며 이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10월의 위업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으며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 나 강대한 세계적 체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사회주의는 구라파와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 기치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의 바로 문 앞에 있는 섬 나라 꾸바에서도 휘날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 혁명의 승리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10월 혁명 후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과시한 가장 큰 국제적 사변이였습니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 세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거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과 지구 륙지의 4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대한 경제력과 발전된 과학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10월 혁명 이후 국제 로동 계급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가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이며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입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민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견인력은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대렬은 전례 없이 장성하였습니다.

10월의 사상, 레닌의 사상으로 무장한 수백 수천만의 공산주의자들이 지구의 방방곡곡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수로서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선두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10월 혁명은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새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10월의 포성은 동방 인민들의 세기적 잠을 깨우고 그들을 세계 혁명의 전반적 흐름에 끌어 들이였습니다. 10월 혁명은 서방의 로동 계급과 동방의 피압박 민족들 간에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 력량과 국제 로동 계급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제국주의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세아와 아프리카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꾸바 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여 라틴 아메리카의 전 지역에서도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 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으로 되였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각성된 수억만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과 식민지 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제국주의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였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이 계속 앙양되고

았으며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가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인민 대중의 강력한 반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10월 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는 력사 발전의 전 과정은 자본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미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속한다는 것을 론박할 여지 없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10월 혁명의 승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기반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 인민에게 승리의 서광을 비쳐 주었으며 위대한 해방의 무기—레닌주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일성 동지는 《조선 인민은 10월의 길을 따라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투쟁의 거대한 조류에 자기의 투쟁을 합류시킴으로써 비로소 해방의 앞길을 찾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10월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장구한 기간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영웅한 쏘련 군대는 우리 인민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여 주었습니다. 조선 인민 앞에는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광활한 앞길이 열려졌으며 우리 인민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낡은 일제 통치 기구를 완전히 분쇄하고 인민 주권을 수립하였으며 극히 짧은 기간에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북반부에 확고한 민주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무비의 영웅성과 용감성을 발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전후 우리 인민은 전쟁의 페허 우에서 도시와 농촌을 복구 건설하는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투쟁에서 쏘련 인민은 항상 우리 인민의 편에 서 있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물심 량면으로 막대한 원조를 주었습니다.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의 진정한 해방자이며 원조자입니다. 당시 쏘련은 혁명을 먼저한 나라로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을 혁명적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쏘련 인민의 국제주의적 원조는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고무하여 주었으며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 사업에 커다란 기여로 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이 우리에게 준 이와 같은 고귀한 원조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쏘련 인민과 함께 중화 인민 공화국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이 또한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형제적 원조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형제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고무되면서 혁명을 대담하게 전진시켜 공화국 북반부를 튼튼한

사회주의 진지로 꾸리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따라 제때에 사회주의적 개조의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레닌의 학설에 기초하여 그 수행 방도를 정확하게 수립하고 인민 대중을 그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매우 순조롭게 완수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됨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이 열려졌으며 우리 사회의 계급적 진지가 결정적으로 공고화되고 인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국가 주권이 착취자들의 온갖 반항을 종국적으로 진압하고 자기의 완전한 공고성과 충분한 지배력을 보장한 후 모든 산업을 대규모적 집단적 생산과 최신의 기술적 기초의…원칙에서 개편하는 때에만,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공고화는 비로소 보장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교시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중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자립 경제를 가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없으며 부강하고 문명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원래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았으며 더우기 국토가 량단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문제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혁명 진지를 반석 같이 다지는 기본 담보였으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륭성 발전을 위한 민족적 과업이였으며 우리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하였으며 전후 간고한 나날에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가면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초석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이리하여 공화국 북반부에는 기계 제작 공업을 비롯하여 기간적 부문들을 다 갖춘, 그리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국내의 자연 부원에 립각한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였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공고한 원료 기지를 가진 수많은 현대적 대규모 경공업 공장들과 전국 도처에 2,000여 개의 중소 지방 산업 공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자체의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 나라 공장에서 자기가 만든 상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상품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 더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촌 경리의 발전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농촌 기술 혁명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경

리의 공고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축성되였으며 어렵던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고 농업 생산의 모든 부문을 더욱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기후 조건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해마다 농업 생산을 장성시켜 왔으며 금년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농업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을 자기의 힘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민족 간부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을 소유한 문명하고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당의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인민 대중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재능을 발동시키고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한 전체 근로 대중은 자력 갱생에 기초한 당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로선을 열렬히 접수하였으며 전 인민적인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촉진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후 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형제 국가들로부터 많은 경제 기술적 원조를 받았으며 이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 커다란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는 원조에만 매여 달린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을 위주로 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자립 경제 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락후하고 파괴되였던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시키며 하루 속히 조국의 통일 독립을 실현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다지며 수호하여야 할 국제주의적 의무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자력 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견결히 관철시켜 왔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우리는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켰을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들과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형제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제 발로 확고하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보답입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은 자력 갱생의 길이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

고 있습니다. 원래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 인민 자체의 힘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합니다. 자기 나라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때에만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와 호상 원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협조를 거부하거나 주는 원조를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다 호상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호상 협조는 매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형제 국가들 간에 동지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며 특히 어려운 처지에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형제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 주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또한 형제 국가들의 원조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언제나 호상적인 것입니다.

형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그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원조를 자랑하기만 좋아하고 심지어는 서로 유무 상통하는 무역까지도 원조로 묘사하면서 형제 국가들의 모든 성과가 마치도 원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듯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우기 원조나 무역 관계를 리용하여 형제 나라들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며 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디까지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협조하고 지지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위업을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추진시킬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기본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문제라고 교시하였습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심각한 계급 투쟁 과정입니다.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 투쟁을 부단히 진행하며 착취 사회가 남겨 놓은 모든 반동 세력의 잔재와 낡은 사상 잔습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구실 하에서든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키려는 것은 곧 계급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력사적 경험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약화시킬 때 그것은 부르죠아적 영향을 강화하고 적대 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게 하며 반혁명의 공세 앞에서 혁명 대오를 무장 해제시키며 이미 쟁취한 혁명의 진지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와 인민 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에 근본적으로 배치되

는 것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적대 분자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함으로써만 인민 대중에 대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으며 대중 속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고 로동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근로 인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적대 분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며 철저히 분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그의 기능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왔으며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계급 로선과 군중 로선을 밀접히 결합하여 관철시켜 왔습니다.

우리 당은 온갖 적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부단히 강화하는 한편 혁명의 편에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발동시켰습니다.

당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기본 열쇠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자유주의적, 수정주의적인 견해의 침습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적 기능을 강화하며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경험은 오직 당의 령도적 역할이 강화될 때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양될 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가 강화되고 모든 전선에서 계급 진지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왔으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에 기초하여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적 지도가 대중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하게 되였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게 되였습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며 혁명 대렬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일성 동지는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 교양 문제…이것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국토의 한 부분에서만 혁명이 승리하고 전국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와 세계 혁명이 완수되지 못하고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계급 교양 문제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라고 교시하였습니다. 국제 국내적으로 계급 투쟁이 계속 치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그들을 로동 계급의 력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과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서는 계급적 원쑤들과 투쟁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수 없으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부단히 향상되며

또 계급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조건에서 그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과 공산주의 교양을 약화시킨다면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소생되고 조장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와 존립 자체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정신으로, 전 세계 로동 계급을 비롯한 피압박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정신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무장시켜야 하며 우리의 혁명 대오를 와해시키는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독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제고하며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당 주위에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발동시키는 것을 당 사업의 기본으로 인정하였으며 전 당의 력량을 기울여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시켜 왔습니다.

이리하여 근로 대중의 계급적 의식이 비상히 제고되였으며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였으며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이 점차 수립되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있으며 전체 인민 대중이 하나의 불패의 혁명 대오로 결속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반석 같은 지반을 축성하여 놓았으며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 혁명의 불패의 요새로 전환되였습니다. 레닌주의는 조선 땅 우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은 날로 융성 발전하는 북반부의 현실에서 민족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앞길을 뚜렷이 내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외세에 의한 예속을 반대하고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자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반미 애국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민족 해방 혁명을 완수하며 남조선 동포들을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남북 조선을 통일하는 것 뿐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발악적인 책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세는 더욱더 우리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은 반제 민족 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미제를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반드시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10월 혁명에 의하여 일어 난 혁명의 불'길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계속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자본의 압박과 착취가 지배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마수가 뻗치고 있는 지구 상의 모든 곳에서 압제자와 략탈

자들을 반대하는 피착취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은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과 반혁명 간의 치렬한 투쟁에서 혁명 력량은 반혁명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여 가고 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횡포하여지고 있으며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인민들을 억압하며 침략하는 국제 반동의 원흉이며 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입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환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화를 념원하며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오직 평화의 원쑤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구실 밑에 제국주의자들에게 양보만 하고 그들과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투항의 길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적들의 침략적 야욕을 조장시키며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 투쟁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해방과 로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업은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일체 반제 력량과 평화 력량을 굳게 결속시켜 제국주의가 발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국제 로동 계급이 이미 쟁취한 혁명의 진지를 고수하여 그것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전 세계 인민들을 해방과 독립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는 강유력한 요인으로 됩니다.

지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 세력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며 이 진영을 분렬시키는 위험한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최대의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하나의 전일체로 통일되고 단결되여 있을 때 강력하고 위대하며 세계 혁명의 기지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그 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옹호해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옹호해야 합니다. 이러저러한 사회주의 국가를 고립시키며 배제하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하는 범죄적인 행동이며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장기간의 피어린 투쟁에서 달성한 가장 위대한 전취물이며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로동 계급의 공동의 혁명 전지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결코 그 어떤 사람들의 롱락물로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사회주의 진영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고립시키려고 책동하는 사람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국제 반동들의 소란스러운 반중국 깜빠니야에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 인구의 3 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사실 상 사회주의 진영의 분렬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들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스크바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당 및 형제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동지적 립장에서 호상 존중하며 협조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 나라도 특권적 지위에 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형제 당, 형제 국가들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통일을 구실로 하여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내려 먹이고 남의 내정에 간섭하려 하며 자기에게 추종하지 않는다 하여 이러저러한 부당한 감투를 씌우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대국 배타주의의 표현입니다.

또한 외부의 압력에 못이겨 자주성을 잃고 남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 가는 것도 국제주의적 립장이 아니며 우리의 단결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사상 상의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 확대시켜 형제 국가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훼손시키며 형제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에 손실을 끼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적아를 구별하지 않고 적들에게는 더욱 친근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계급적 형제들에게는 횡포하고 거만하게 대하며 혁명 동지들을 공격하는 행동은 응당 규탄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모스크바 선언과 성명의 혁명적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떠난 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적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은 수호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위업은 더욱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해방 투쟁의 위대한 무기이며 인류 사회 발전의 길을 밝혀 주는 불멸의 학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어떠한 책동도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진리를 훼손시킬 수 없으며 이 기치를 높이 추켜 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장엄한 전진 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력사가 전진함에 따라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은 더욱더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구 상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온 세상에서 압제자들을 붙어 버리고 인민들을 해방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바로 10월의 사상,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혁명 투쟁의 방도를 가르쳐주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는 것으로 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무한히 귀중한 것입니다.

10월의 사상은 압제자들의 탄압에 대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맞받아 나가 싸워야 하며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으며 모든 피착취 계급과 피압박 민족들이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계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수억만 인민들이 아직도 제국주의의 압박과 자본의 착취 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도중에서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며 락오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여 왔으며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승리하여 왔습니다.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이것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신조입니다.

수천 수만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이 이렇게 웨치면서 원쑤들과의 결전에로 용감히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혁명하려는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을 계속하여야 하며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이 있는 한 인민 대중은 계속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여 궐기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앙양될 것입니다.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피압박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 투쟁 앞에서 수정주의는 분쇄될 것이며 제국주의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민 대중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불패의 혁명적 기치로서 계속 자기의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들은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으며 10월이 개척한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항상 승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현대 수정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

성을 고수할 것이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오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 력량이며 평화 력량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 투쟁은 제국주의를 붕괴시키는 강력한 타격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 견결히 지지할 것이며 자본주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앞에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웅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계속 긴장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옹성 같이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인 성과를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며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파괴 책동을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로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며 안일성과 해이성, 권태증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사업 기풍과 혁명적인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당과 대중의 통일은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담보입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을 로동 계급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대중의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하겠습니다.

전 당과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민은 그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백전 백승할 것입니다.

10월의 기치—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10월의 기치—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기치 만세!

—위대한 쏘련 인민과 조선 인민의 영구 불멸의 친선 단결 만세!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 만세!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과 로동 생산 능률

최 중 극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 이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 이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은 3.2 배, 농업 총 생산액은 2.4 배, 기본 건설은 그 투자액에서 지난 7 년간의 2.3 배에 해당한 방대한 규모로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웅대한 사회주의 건설 과업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로동 생산 능률을 계획적으로 부단히 제고하는 것이다. 계획 기간에 로동 생산 능률을 공업에서는 1960년에 비하여 2.2 배, 기본 건설에서는 1.6 배 장성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 공업 총 생산액 증가의 75~80%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개년 계획의 3 년간의 과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며 경제 발전의 계속 높은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새로운 고조는 집중적으로 기술 혁명에 기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야말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관건적 문제로 된다.

(1)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사회주의적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완성의 가장 중요한 방도이며 인민 생활 향상의 필수적 조건이다.

7 개년 계획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가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사회적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보장하며, 원가를 저하하고 국민 소득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며, 사회주의적 축적의 규모를 증대시키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가능성을 조성하는 데 있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청산된 사회주의 하에서 사회 성원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수요를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하게 충족시킬 데 대한 생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의 확장과 장성에는 로력의 절대적 증가에 의한 조방적인 것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기초한 집약적인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 생산 장성의 이 두 가지 방도들은 사회주의 경제 발전의 각이한 단계들에서

그의 역할과 의의도 각이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들은 호상 밀접히 결합되여 생산의 장성을 보장한다.

사회주의는 제도 자체의 우월성으로 하여 로력 부원이 급속히 증가한다. 사회주의 사회에는 실업이 청산되고 주기적인 경제 공황과 동요로 인한 생산의 중단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인민 경제에서 계획적으로 로력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인구의 장성 속도와 로력 자원의 리용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생산 장성의 비상히 빠른 속도를 보장할 데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로력자 수의 장성이 경제 발전 속도를 따르지 못 한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 해방 후 인구는 1946년에 비하여 1961년에 120%로 증가하였는데 사회 총 생산액은 같은 기간에 941%로 장성하였다. 즉 사회 총 생산액은 9.4 배로 장성하였는 데 인구의 증대는 다만 20%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하게 그리고 부단히 제고시킬 것이 요구된다.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예견한 7 개년 계획 기간에 그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7 개년 계획의 통제 수'자에 지적된 공업 총 생산액, 종업원 수,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지표 간의 호상 관계를 지난 계획 년도들에서의 실적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1953년에 비한 1960년 (7 년간)	1960년에 비한 1967년 (7 개년 계획)
공업 총 생산액 장성	990	320
년 평균 장성 속도	39	18
종업원 수의 장성(공업 부문)	425	150 *
년 평균 장성 속도	23	6.0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공업 부문 종업원 1인당 생산액)	273	220
년 평균 장성 속도	15.3	11.9

(* 인민 경제 전체 종업원 수의 장성임)

보는 바와 같이 지난 7년간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 기간)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수 장성의 호상 관계를 보면 전자에 비하여 후자가 약간 빠른 속도로 장성되였다. 그러나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 장성에서 로동 생산 능률과 종업원 수의 장성이 노는 역할과 의의는 동일하지 않았다. 3 개년 계획 기간에는 로동 생산 능률이 종업원 수의 장성을 능가하였다면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종업원 수의 장성이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를 약간 릉가하였다. 이것은 두 계획 기간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된다. 3 개년 계획 기간에는 주로 기존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개건하며 이에 일부 공장, 기업소의 신설을 배합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였으며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격히 제고할 수 있었다.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협동 단체 공업이 급속하게 확장되였으며 1958년 6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지방의 유휴 자재, 설비, 로력에 기초하여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신설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설된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 장비와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아직 높지 못 하였으며 우리 공업 자체를 놓고 볼 때도 이 기간은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시기였으므로 새로 조직된 공장, 기업소들을 일시에 기술적으로 개건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제 사정에 의해 로동 생산 능률과 공업 부문 종업원 수의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에서 전자에 비한 후자의 약간의 릉가가 불가피하였다. 건국 전후 전반적으로도 종업원 수의 장성이 로동 생산 능률 장성 속도를 앞섰었다.

그러나 7 개년 계획에서는 종업원 수 장성에 비한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의 결정적 우위를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는 7 개년 계획 기간 인민 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 담보로 된다.

인민 생활 향상은 국민 소득의 크기와 국민 소득 장성에서 로동 생산 능률 장성에 의한 몫의 크기에 의하여 중요하게 좌우된다. 로동 생산 능률이 급속히 장성되고 따라서 국민 소득의 크기와 그 중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의한 비중이 제고되면 될수록 그 만큼 종업원 1 명에 돌아 가는 몫이 증가되고 사회의 관리에 들어 가는 소비 생산물의 량이 증가되며, 사회 성원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높아지며, 로동력 확대 재생산의 가능성도 증대된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기간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이 계통적으로 장성된 것은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하여 로동 생산 능률이 부단히 장성하고 국민 소득이 급격히 증대된 데 기초한 것이였다.

	1949년	1962년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공업)	100	241
국민 소득의 장성	100	389*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의 제고	100	211

* (1961년도임)

특히 7 개년 계획 기간에는 인민 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 확고하게 예견되고 있다. 계획 기간에 국민 소득은 273%,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은 173%, 농민의 실질 소득은 212%로 장성될 것이다.

이것은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과 농민의 실질 소득 장성보다 훨씬 더 빨리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7 개년 계획 기간 로동 생산 능률 제고는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와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보장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의 위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이며 자본주의 제도에 비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과시할 것이다.

(2)

현 시기 당이 제기하고 있는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장성시킬 데 대한 문제는 7 개년 계획 기간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로 된다.

그것은 7 개년 계획에 예견된 로동 생산 능률 제고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군들의 관심을 전적으로 공장, 기업소 자체의 력량에 의하여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돌리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보장하며 로력의 긴장성을 완화시키며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의 력사적 과업을 해결하게 한다.

오늘 우리 나라는 인구 1,000 명당 물질적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인민 경제의 급속하고 다각적인 발전 책정에서 사회의 로동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 시기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긴급하고 중대한 과업들은 보충적인 로력 자원을 계획적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며, 인민 경제의 높은 속도와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채가공 공업 부문들을 창설 발전시키고 공업 부문 구조를 가일층 완비하자면 계속 더 많은 로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다른 부문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전반적인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나라의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제고시키는 것은 바로 이 중요한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고리로 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로력의 예비를 얻어내여 계속 새로운 부문들을 창설 발전시킬 수 있고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일 수 있으며 인민 경제를 더욱 현대적 기술로 개건하면서 경제의 부문 구조를 가일층 완비할 수 있다.

현 시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또한 생산물의 원가를 저하시키고 축적과 국민 소득의 장성을 보장하며 특히 인민 생활 향상의 과업을 급속히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도로 된다.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는 지난 기간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1946년부터 1962년까지의 17 년간에 로동 생산 능률은 605% 장성되였다.

그러나 로동 생산 능률의 수준 즉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은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인민 경제 각 부문들 간에서 그 차이도 현저하다. 공업에 비하여 농업, 중공업에 비하여 경공업, 경공업 내에서도 중앙 공업에 비하여 지방 공업들이 종업원 1 인당 생산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오늘 이 차이를 없애며 전반적으로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는 것은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과 농장원들의 실질 소득을 제고시키게 하는 기본 담보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특히 현 시기 종업원 1 인당 생산액 제고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업 총 생산액을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력자의 머리수를 늘이는 방법과 기술 혁명을 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의 형편으로 보아 로력자의 머리수를 늘이는 방법으로 생산액을 증대시킬 수는 결코 없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로력 원천이 극히 부족하며 현재의 인구 증식률을 가지고 생산 확대에 요구되는 로력을 원만히 보충할 수도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증가되는 것 만큼 소비량도 증대되게 되므로 로력자의 머리수만 증대시켜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유일한 길은 지금 있는 공장들과 기업소들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실시하여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높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로력을 다른 부문의 생산 확대에 돌리는 것이다.》(《기술 혁명 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14 페지)

오늘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 제고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규정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현 시기 더욱더 공고화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성된 이후 전일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공고화는 생산력과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광활한 여지를 조성하였다. 생산력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여 기술적 진보와 기술 혁명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하게 축성되였다. 특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정

책이 철저하게 관철된 결과 경제와 기술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적인 중공업 기지가 창설되였으며 경제 발전에 더욱더 유리한 부문 구조가 형성되고 인민 경제 각 부문들과 부문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설정되였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였으며 생산에서의 그 리용의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가일층 심화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자 대중의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 그들의 능동적 적극성이 고도로 발양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였다. 끝으로 경제에 대한 관리와 지도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 관리에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으며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이 더욱 심화되였다.

이 모든 요인들과 조건들은 사회적 생산의 높은 속도와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된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고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이 장성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가능성과 조건들을 최대한으로 옳게 리용하여 실지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적 지도와 조직을 하는 데 있다.

(3)

현 시기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전면적인 기술 혁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기술 혁명—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원래 로동 생산 능률은 생산에서 산 로동의 몫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체화된 로동의 몫을 증대시킴으로써 총체적으로 사회적 로동의 지출을 축소하는 방도에 의해 달성된다. 따라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의 법칙은 인민 경제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과 기술적 진보에 의거하여 실현된다. 생산 수단은 그것이 생산 과정에서 각이한 역할을 놀지만 로동 수단과 로동 대상의 두 요소들이 모두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특히 로동 수단의 발전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로동 수단의 장비 수준 즉 종업원 1 인당 생산적 고정 폰드의 장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의 필수적 조건이다.

로동 수단의 장비 수준을 제고하며 기술적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민 경제의 가장 선차적 부문들인 전력 공업, 화학 공업, 금속 가공업 등 부문들과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공업을 강력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생산 공정의 기계화 및 광범한 자동화를 실현하며 개별적 기계 설비의 생산으로부터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계획 기간에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의 생산액은 3.3 배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기계 제작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하고 기계화를 완전히 실현하며, 자동화를 광범히 도입하며 기계 제품 생산에서 프레스 및 형단조 작업을 현저히 확대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의 기술 장

비를 강화하여 손 로동을 완전히 기계에 의한 생산 공정으로 전환시키며, 낡은 설비들은 현대적 설비로 개건하며, 선진적인 기술 공정들을 대대적으로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면서도 사회적 생산물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힘 들고 고된 생산 부문들과 단위 제품 생산에 투하되는 로동 용량이 많은 부문들을 기계화, 자동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례컨대 힘든 생산 부문인 채굴 작업을 기계화한다면 우리는 현재 도달된 기술 수준으로도 손 로동에 비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 로동 생산 능률을 2.2 배 제고할 수 있으며 갱내 운반 작업은 3.7 배, 갱외 운반 작업은 2.6 배, 채탄 채광 막장에서의 적재 작업은 6.1 배, 금속 부문에서는 주물 성형에서 1.4 배, 용선 운반 작업에서 12.4 배, 기본 건설 토건 작업에서는 16.9 배, 적재 적하 작업에서 2.3 배 제고할 수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도 제유 작업, 식료품 세척 작업, 염색 작업, 고무신 제작, 제혁 제화 작업, 목재 일용품 가공업, 철제 일용품 가공 공업에 적지 않게 손 로동에 의한 작업이 유지되고 있다. 수산 부문도 사정은 동일하다.

현대 과학과 기술은 생산 발전에 새로운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과학 기술 및 생산 간에는 더욱 밀접한 호상 관계가 조성되였다. 생산에 앞서 기술이 발전되고 기술에 앞서 과학이 발전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되였다. 과학이 발전되고 그것이 인민 경제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됨에 따라 사회적 필요 로동 시간을 절약하면서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 대상 즉 원료 생산 부문에서 사회적 로동 시간의 지출을 축소시킬 실제적인 조건을 조성하였다. 특히 화학 공업과 같은 전망성 있는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조건들을 조성하고 있다.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화학 공업은 약 5.5 배 장성될 것인바 그 중 화학 비료는 3 배, 농약은 9 배, 화학 섬유는 7 배, 합성 수지는 68 배로 장성될 것이다.

화학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섬유 소비량 중에서 1967년에 54%에 달하게 될 것이다. 화학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됨으로써 인민 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화학 제품에 의한 원료와 자재를 보다 많이 생산에 도입하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자립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단위 제품당 로동 용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기된 과업에 비하여 로력 사정이 긴장한 부문들인 농업, 경공업, 식료품 공업들에서 기술 혁명을 촉진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촌 경리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완성함으로써 농민들을 고되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면서 생산량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급속히 제고할 수 있다. 수리화의 완성은 자연 기후 조건의 영향을 받는 농촌 경리에서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되였다. 동시에 기계화, 화학화를 촉진시켜 단위 제품당 로동 용량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경공업, 식료품 공업 부문 특히 지방 산업에서의 기계화, 자동화의 촉진과 선진적인 생산 공정의 도입은 로력의 절약을 보장하면서 소비재 생산의 량을 증대시키며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 조건이다. 우리는 지방 공업에서 기계

화와 선진 기술 공정을 도입함으로써 로력의 증가 없이 소비재의 생산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으며 당면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과업의 실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현존 생산 폰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생산 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더욱 장성시킨다.

우리 당은 기존 설비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7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 생산액 증가의 41.2 %를 기존 시설의 리용률 제고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예견하였다. 현존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며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며 기존 건물 안에 보다 많은 생산 설비들을 설치함으로써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데 대한 당의 정확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더우기 7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인 나라의 전면적인 기술 혁명의 실현은 생산적 고정 폰드의 장성을 촉진시킨다.

계획 기간에 고정 폰드의 장성을 예정하는 기본 건설 투자액은 1960년에 비하여 1967년에는 229%로(기본 건설 투자액 중 생산적 건설 81%) 장성된다.

생산적인 기본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생산적 고정 폰드의 장성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사정은 설비의 관리 및 점검 보수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필수적 조건의 하나는 생산 및 로력 조직을 가일층 완성하는 것이다.

우선 로력 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 축산 로동의 리용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며, 무용한 로동 지출을 철저히 근절시키며, 로동 시간을 완전하게 리용하며 로동자들을 고착시키고 그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로동력과 로동 수단의 호상 련결과 결합 방법 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로력 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허다한 예비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공업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발전되는 행정에서 적지 않은 신입 로동자들이 인입되였는바 이들의 기능 수준은 응당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현대적 공업이 생산 공급하는 기술 수단들을 가장 완전하게 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력과 로동 수단의 련결과 결합 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완성하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그의 도입은 작업반 조직과 형태의 개선을 요구하며 현대적 기술의 생산 능력을 가장 완전하게 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장비, 원료, 자재 및 부속품들을 정확하게 보장함으로써 로력의 랑비와 생산 과정에서의 휴지를 근절하며 생산의 률동적이며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체계적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는 매개 인'군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계속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부

단히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며 온갖 보수와 소극성을 극복하며 모든 집단이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선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또한 실생활에서 그 생활력과 우월성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일층 심화시키는 것이다. 로동 생산 능률을 장성시키는 문제도 궁극에 있어서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산 사람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얼마 만큼 효과적으로 발양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로동 생산 능률 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아는 것이 생산자 대중이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그 사업 자체도 직접 생산자 대중이 한다. 이런 조건 하에서 기업 관리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고 생산자 대중과의 정치 사업을 잘 하며 그들의 정치 사상적 각오 정도를 부단히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특히 생산자 대중을 계속 혁신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당 정책 관철에서 견결한 혁명 전사로 교양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 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이다.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선집 제 6 권, 467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에 의하여 대중의 자각성을 고도로 발양시킴으로써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고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로동 및 생산 조직을 더욱 개선할 때 7 개년 계획에서 관건적 문제로 되는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하고 급속한 제고를 달성할 수 있으며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의 급격한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과 소비

안 광 즙

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7차 전원회의는 이미 마련되여 놓은 경제 토대를 계속 강화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며 부강한 조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 올 데 대한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제시한 새로운 력사적 과업과 196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과 소비,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한 문제를 유기적인 련계 밑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이 반영되여 있다. 실로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은 지난날의 축적의 결과를 오늘의 소비의 장성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하며 앞날의 축적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축적과 소비의 균형 문제 해결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로 된다.

오늘 우리가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락후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기의 확고한 경제 토대 우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게 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 ❋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며 사회 전체의 리익과 근로자들의 개인적 리익, 장래의 리익과 현재의 리익을 옳게 조절하는 것으로서 결국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는 데서 본질적 의의를 가진다.

과거로부터 락후한 경제를 물려 받은 데다가 미제의 야수적인 침략 전쟁으로 생산력이 여지 없이 파괴되고 인민 생활이 극도로 령락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특별히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자력 갱생의 원칙 밑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과업을 동시에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 있었다.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하루 속히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킴으로써 부강하고 자주적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립적 경제 토대의 강화와 인민 생활 향상에 대한 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축적과 소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에 적응하게 축적과 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 원칙을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정확하게 타산한 과학적인 방도들로써 이 원칙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후 시기에 우리 당은 자기의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경제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인민 생활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선집 제 5 권, 519 페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전면적인 고려를 돌리며 축적과 소비를 균형적으로 급속히 장성시키는 우리 당의 일관된 원칙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 적용한 장기적인 전망 계획의 기본 과업들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마다 축적의 증대와 소비의 장성, 생산력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내세우고 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왔다. 당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공업과 농촌 경리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복구 강화하며 령락되였던 인민 생활을 회복 향상시키는 것을 3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과업이 수행되고 개건기의 첫 단계에 들어 서게 되자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5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였다.

당과 정부는 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54~1960 년간에 각 부문의 생산적 및 비생산적 건설에 총액 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기본 건설 투자를 실시하는 한편 전후 년간에 7 차에 걸치는 물가 인하와 4 차에 걸치는 임금 인상, 련속적인 농업 현물세의 감하와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 사회 문화 시책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의 모든 분야에서 실로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인민 경제는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당의 일관한 원칙은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예견한 7 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에서도 사고히 견지되고 있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축적 폰드는 2.8 배, 소비 폰드는 2.4 배로 각각 장성하게 된다.

우리 인민은 7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길에서 벌써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킨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물론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일련의 창조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러한 과업은 실현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축적이나 소비가 결국 다 같이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동일한 목적에 복무하면서도 축적이 소비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주어진 국민 소득의 리용에서 축적의 몫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소비의 몫이 감소되며 소비의 몫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축적의 몫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축적과 소비의 원천인 국민 소득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축적과 소비가 합리적으로 배합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내부 예비의 동원을 합리적으로 배합함으로써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보다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소비 자료 생산에 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우선적 장성과 소비에 비한 축적의 선차성을 보장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의 원칙적 요구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우선 먹고 보자는 소비자적 립장을 철저히 배격하고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장성시키며, 축적의 계통적인 증가에 의거하여 소비를 부단히 장성시키며, 생산의 확대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침을 시종 일관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 생활의 향상은 인민 경제의 발전 수준에 튼튼히 의거하여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적 축적과 옳게 배합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적 축적을 장성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국가는 축적의 계통적인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비 폰드를 증가시켜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선집 제 5 권, 177~178 페지)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당은 중공업 건설의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행한 축적의 결과가 최단 시일 내에 소비로 전환되게 하며 적은 투자로써 축적의 원천인 사회의 순 소득을 급속히 증가시키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게 하는 등 일련의 중요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우선적으로 장성하는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적극 복무케 하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중공업 건설에서 인민 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중공업의 토대가 축성되는 차제로 그 힘을 소비품 생산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적을 빠른 시일 내에 소비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당은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소비품 생산의 증대를 보장하고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많은 부분을 얻어 내고 있다. 이것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배합하는 것이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추진을 위한 축적 문제 해결에서도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축적과 소비를 동시에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자금의 확보면에서 경공업의 유리성을 적극 리용하는 것과 함께 축적된 자금의 리용면에서 특히 자금이 많이 요구되는 중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건설 기간이 길고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중공업 기업소의 건설에서는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며 축적의 결과를 더 잘, 더 빨리 나타내게 하는 데서 효과적이다. 그런데 본래부터 식민지적 편파성을 띤 데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심히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의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잘 복무시키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의 기업소들을 복구하고 완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중공업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케 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제작 공업, 유기 화학 공업 등 과거 우리 나라에 없었던 일련의 새로운 부문들을 창설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이 만일 일정한 기간 투자를 집중하여 중공업의 부문 구조를 갖추는 데 주력하지 않았더라면 일부 건설에 투하되는 자금은 장기간 응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되였을 것이며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

하여 충분히 복무할 수 없게 되였을 것이다.

우리 당은 전후 중공업을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존 기업소들의 생산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며 기업소들의 복구와 개건 및 신설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었으며 중공업 건설을 위한 축적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 인민 생활의 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였다.

축적의 급속한 증대와 소비의 동시적 장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축적 원천의 조성과 축적 폰드 리용에서 각 부문의 특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축적과 소비 간의 호상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들로 되고 있다.

* *

우리 당이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시기와 모든 단계에서 축적과 소비 간의 비례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은 항상 축적과 소비에 다 같이 고려를 돌려 그것들을 동시에 장성시키면서도 사회주의 건설의 각이한 단계에서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의 해결에 적응하게 경제 토대 강화를 위한 축적의 증대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의 장성을 유기적으로 배합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축적을 급속히 증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칙을 더욱 원만히 실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이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이한 시기의 특성을 옳게 타산함으로써 축적이 소비의 장성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원래 축적은 인민 생활의 장래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축적의 결과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효력을 나타내게 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며 따라서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일정하게 긴 기간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현재와 가까운 장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라의 먼 장래의 발전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견》(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하면서 축적과 소비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오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축적의 결과가 소비의 장성을 위해 더 잘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 락후하였던 처지로부터 최단 기간 내에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할 것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축적의 당면한 효과만을 생각하여 경공업의 발전을 앞세우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와는 달리 우선 많은 자금을 축적하여 자체의 중공업 토대를 축성하며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시키면서 그 기초 우에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정세와 우리 혁명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였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였던 인민 경제를 하루 속히 복구하고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할 수 있었으며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의 향상도 보장할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 중공업은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혹심하게 파괴되였었다. 결과 전후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농업 생산에 비하여 공업 생산의 비중이, 공업 부문에서는 소비재 생산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발전시키되 중공업을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지 않고서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생산 시설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였던 중공업에 있어서는 전후 첫 시기에 기본 건설 투자 없이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는 예비가 거의 없었으며 생산의 장성은 거의 전적으로 기본 건설 투자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였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지난 시기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 중공업의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며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여 왔다.

그것은 전후 3 개년 계획과 5 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비례 관계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즉 중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를 기준으로 할 때 경공업과 농업의 투자 비례는 지난 3 개년 계획 기간에 대략 100:23:23이였으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대략 100:18:20이였다. 이것은 3 개년 계획 기간과 5 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액이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액보다 거의 4~5 배나 더 많이 지출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3 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중공업 건설에 대한 년 평균 투자액이 178.4%로 장성하였다.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에서 우리 당이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전후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 건설에 많은 투자를 돌리고 중공업 건설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그와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결과 1960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공업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15 배로, 소비 자료 생산은 695%로, 농업 총 생산액은 195%로 각각 장성하였다.

그리고 인민 경제에서 공업과 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의 42:58로부터 1960년에는 71:29로 전환되였으며 같은 기간에 공업에서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자료 생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62로부터 55:45로 변화하였다.

전후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은 것은 우리 당이 소비품 생산 분야에서 중앙 공업과 함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수립하고 국가 투자 없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한 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로력 투쟁에 의하여 국가 투자를 거의 들이지 않고 지방 공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소비품 생산은 급속하게 발전되고 중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대규모 중앙 공업의 건설에는 더 많은 투자가 돌려지게 되였다.

지방 공업에서 막대한 예비를 동원한 결과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투자의 분배에서 5 개년 계획 기간에 전자의 비중은 3 개년 계획 기간의 81.1%로부터 82.6%로 더욱 높아졌으며 후자의 비중은 18.9%로부터 17.4%로 저하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자료 생산의 년 평균 장성 속도는 3 개년 계획 기간의 59.4%와 28%로부터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37.7%와 34.9%로 변동하였다. 이것은 1958년 6월 전원 회의의 결정이 성과적으로 관철됨으로써 국가의 투자를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소비 자료의 생산 속도를 생산 수단의 생산 속도에 더욱 접근시킬 수 있게 한 것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첫 3 년간에 우리 당은 계속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를 정비 보강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경공업 기지와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계

속 강화함으로써 선행한 축적이 인민 소비의 장성을 위하여 보다 더 급속히,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놓았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이 지난 시기 많은 투자를 중공업 건설에 돌려 우선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강화하는 데 력량을 집중한 것은 소비에 대한 축적의 선차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 완전히 적응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였다.

※ ※

현 시기 우리 당은 지난 기간 쌓아 놓은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최근 1~2년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당의 이러한 방침에 근거하여 명년에 인민 경제에서 공업 총 생산액은 121%로, 그 중 생산 수단 생산은 113%, 소비 자료 생산은 135%로 장성하게 된다.

인민 경제 전반에서 매우 높은 발전 속도를 견지하면서 인민 소비품 생산이 생산 수단의 생산에 비하여 훨씬 더 빨리 발전할 것을 예견하는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는 현 시기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성숙된 요구에 적응한 축적과 소비 간의 보다 합리적인 균형 관계가 반영되여 있다.

명년도에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는 축적과 소비가 다 같이 급속하게 장성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소비 폰드가 축적 폰드에 비하여 보다 빠르게 장성하게 된다.

명년도에 축적과 소비 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호상 관계는 지난날 우리 당이 온갖 가능성을 동원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자립적인 경제 토대 축성을 위한 중공업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여 온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으로 되며 그의 완성으로 된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가며 악전 고투하여 강력한 자립적 중공업 기지를 창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온 결과 오늘에 와서는 인민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변을 이룩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에 기초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우리의 중공업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이미 튼튼한 기지를 축성하여 놓은 경공업과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는 중공업의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 들여 생산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게 되였다.

거액의 자금으로 대대적인 건설을 진행하여 중공업의 골간을 꾸려 놓았으며 그를 더욱 보강하여 온 결과 오늘에 와서는 기존 기업소들에서 새 기술을 습득하고 설비 리용률을 높이며 그것을 계속 보강하는 방법만으로도 소비재 생산의 확대에 필요한 생산 수단의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예비를 가지게 되였다.

중공업 부문에서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을 더욱 장성시킬 수 있는 많은 예비를 가지게 됨으로써 생산 수단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장성시키면서도 이미 꾸려 놓은 중공업의 강력한 힘과 국민 소득의 현저한 부분을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소득의 장성에 돌릴 수 있게 되였다.

이 가능성을 제때에 리용하여 인민 생활 향상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현 시기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투자의 증대와 예비의 동원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재 생산,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며,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경제 건설 로선과 축적을 급속히 증대시키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는 원

칙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로 된다. 이 조치에 의하여 우리는 지난 시기 소비품 생산에서 수공업적 기술까지 적극 리용하면서 발전시켜 온 경공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되며, 인민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급격히 장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축적과 소비의 보다 합리적인 균형을 보장하게 된다.

우리 당은 이미 7개년 계획의 첫 3년간에 중공업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기본 건설 투자를 계속 장성시키면서 경공업 건설에도 투자를 급속히 증대시켜 그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한층 더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선행한 축적이 있는 조건에서 우리 당이 명년에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은 축적과 소비 간의 균형 조절에서 성숙된 요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된다.

총체적으로 보아, 축적의 급속한 증대와 소비의 동시적·장성을 보장하되 중공업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인민 경제 토대를 강화한 다음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크게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적 축적을 인민 소비의 장성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되며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된다.

이 시기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지난 시기 축적의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축적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이미 건설하여 놓은 중공업을 경공업과 농업에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지난날 중공업 건설에 투하한 막대한 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는 것으로 되며 축적의 새로운 원천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지방 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인민 소비의 급속한 장성과 축적 원천의 증대를 보장하였던 것처럼 금번 전원 회의 이후 새로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다시 한 번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는 것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더욱 장성시키며 앞으로 중공업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금을 성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실로 금번 전원 회의가 취한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 건설의 매 시기에 중심 고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여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원만히 해결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련쇄를 능숙히 이끌고》(김 일성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나아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방법의 또 하나의 귀중한 모범으로 된다.

동시에 그것은 축적과 소비 간의 적대적 모순을 모르는 사회주의 제도의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게 할 것이며 축적의 증대와 생산의 확대를 위한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성과 관심을 더욱 제고시킬 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

주 룡 각

지도와 대중의 결합,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으로부터 출발되는 당 사업 방법의 기본 요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조직과 그의 활동의 근저에는 혁명적 군중 로선이 놓여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위력의 원천은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에 철저히 의거하는 데 있으며 인민 대중은 또한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령도 하에서만 자기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것은 당의 모든 활동이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오직 이 혈연적 련계만이 혁명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가 없고 그들에게 의거하지 않는 지도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당의 지도는 인민 대중의 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대중의 경험으로써 부단히 보충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정확한 지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결함들을 제때에 발견할 수 있으며 모든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대중을 지도함에 있어서, 즉 로선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나 그를 대중 속에 침투시키며 그의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항상 대중의 리해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대중의 준비 정도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도와 대중이 밀접히 결합됨으로써만 대중은 당을 깊이 신뢰하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한결 같이 동원되게 될 것이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혁명은 성과 있게 수행될 것이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하는 사업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왔다.

오늘 우리 당 사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들은 바로 우리 당이 이 원칙을 모든 사업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대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하고 그들의 창조적 열의를 적극 동원한 데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 우리 앞에 부과된 방대한 전투적 과업은 당이 모든 분야에서 지도와 대중을 더욱 밀접히 결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야 할 력사적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광범한 대중의 자각적 열성, 창발성과 재능을 남김 없이 동원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업이 복잡하고 방대할수록 대중이 자기의 투쟁 목표, 방침, 실행 방도를 더욱 명백히 인식하도록 하며,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목적 의식적으로 투쟁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은 대중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접수할 때에라야만, 지도가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어 대중의 요구와 희망이 지도에 적극 반영될 때에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더우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체 인민을 붉은 사상으로 교양하여 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절박한 과업이다.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업은 필연적으로 당 사업을 보다 심화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객관적 현실과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에 당적 지도를 따라 세움으로써 지도와 대중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　＊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란 대중의 혁명 실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정확한 투쟁 과업을 제기하며 그것을 다시 대중의 실천 활동을 통하여 관철하도록 하는 부단한 반복 과정이다.

당 조직은 우선 대중의 광범한 의사와 절실한 요구에 기초하여 정확한 투쟁 과업과 과학적인 방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으로는 제기한 투쟁 과업과 방침을 자신의 것으로 접수하고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도록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킴에 있어서 제기되는 첫째 요구는 당적 지도에서 집체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당의 집체적 지도 원칙은 당적 지도에서의 최고 원칙이며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기본 담보이다.

이 원칙의 철저한 준수는 대중 운동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가장 정확한 투쟁 방침과 형태 및 방도들을 수립할 수 있게 하며 대중의 요구와 실천적 경험에 기초한 과학적인 지도를 줄 수 있게 하며 투쟁 방침을 관철하는 데로 대중을 가장 성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게 한다.

당의 집체적 지도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집체적 령도 기관인 당 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

실제에 있어서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여 대중의 요구를 종합 분석하며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 방침을 규정하고 그의 실행 과정을 지도 통제하는 것은 해당 부문의 최고 령도 기관인 당 위원회이다. 그러므로 대중의 지혜를 지도에 옳게 인입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당 위원회의 지도적 역할에 달려 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을 사업에서 검열된 유능한 당 핵심들로써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군중 속에서 그들의 지도적 역할을 높임으로써 위원회가 생기 발랄한 전투적 참모부로 되게 하여야 한다.

만일 당 위원회가 군중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며 군중의 정서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또한 군중의 힘을 믿고 대담하게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주관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며 대중으로부터 유리되게 될 것이다.

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의 책임은 자못 크다. 그것은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의 위치와 그 임무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사업 태도와 작풍이 위원회의 전반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지도 일'군들이 항상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직접 대중 속에 들어 가 대중의 요구와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풀어야 할 고리를 예견성 있게 포착하였을 때에는 집체적 지도를 정확히 보장하여 대중을 옳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대중과의 사업에 무관심하며 현실에 대한 파악이 없이 주관에 의해서 문제를 경솔하게 처리할 때에는 지도에서 집체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 정책 관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공고한 결합은 특히 제기된 과업의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기 위한 실천적 투쟁에서 훌륭히 실현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정당하게 수립된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일'군들의 실지 사업 방법 여하에 달려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선집 제 4 권, 238~239 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 실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필연코 제기되는 문제는 지도를 대중 속에 더욱 접근시키며 대중을 가르치고 도와 주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적 군중 로선을 당 활동에 철저히 구현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 방법으로서 그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기본 방법이다.

당은 오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킴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대중 속에 침투하여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전체 당원들과 군중들을 다 움직이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의 지도가 대중의 실천 활동과 결부되자면 오직 대중이 있고 그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지도 일'군들이 침투하여야 한다.

현장에 내려 가야 군중을 만날 수 있고 군중을 만나야 실정을 료해하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대중을 정확히 지도할 수 있고 당 정책도 정확히 관철시킬 수 있다.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킨다는 것은 다만 일'군들이 현장에 내려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현장에 내려 간다 할지라도 대중을 경원시하거나 대중의 활동을 외면하고 유람식으로 돌아 다니면서 강조와 독촉으로 지도를 대치한다면 그러한 지도는 대중을 파악할 수 없고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지도 일'군들은 하부에 내려 가서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하부 일'군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며 그들과 힘을 합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며 하부 일'군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실천적 방도를 주어 제기된 과업 실천에 광범한 대중을 조직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당 정책이 정확히 관철될 뿐만 아니라 상부와 하부 간에, 지도 일'군과 대중 간에 진정한 혁명적 관계가 이루어지며 혁명 대렬의 의식적 단결이 보장된다.

사업 방법과 함께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바로잡는 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대중은 지도 일'군들을 통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파악하며 당의 지도를 받는다. 대중은 지도 일'군들을 통하여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받으며 사업과 생활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의 사업 태도, 사업 작풍은 대중을 당의 의도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놀게 되는 것이다.

오직 인민에게서 배우며 인민을 배워 주는 작풍,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작풍에 기초한 지도만이 대중의 높은 신임을 얻으며 대중을 혁명 승리에로 한결 같이 이끌 수 있다.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일'군들의 겸손성과 소박성은 우리의 고유한 품성으로 되여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해야 대중과 한덩어리로 될 수 있고 군중 관점이 확립된 일'군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군들이 대중 앞에서 겸손할 대신에 우쭐거리며 너그러울 대신에 까다로우며 배워 줄 대신에 욕설과 명령으로 대하며 대중으로부터 배울 대신에 자고자대하여 거만을 부리거나 세도를 쓰면 대중은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요구와 의견을 허심하게 제기하며 진지하게 의논할 대신에 거짓으로 대하거나 만나기조차 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당의 지도는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며 따라서 대중을 묶어 세울 수도 없고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보장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 당은 대중의 일부분이며 간부들과 당원들은 군중의 한 성원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에게는 그 어떤 특권도 부여되여 있지 않으며 또한 그들 자신이 그 어떤 특별한 존재로 자처할 근거도

없다. 군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군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충복이라는 것이며 당 정책을 더 빨리, 더 잘 연구하며 군중을 배워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 뿐이다.

그러므로 간부들이 자기 자신을 대중의 우에 올려 세우거나 《틀》을 차리며 《세도》를 쓰며 군중을 호령하고 강박하는 것과 같은 낡은 사업 작풍을 지속하는 것은 오늘 우리 제도 하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겸손성과 함께 풍부한 인간성은 일'군들의 작풍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우리 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목적과 공통된 리해 관계로 하여 사람들이 서로 동지적으로, 인간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이러한 사실을 리해하지 못하고 일'군들이 낡은 지도 작풍을 의연히 고집하고 군중에게 까다롭게 대하며 구체적 실정은 료해하지 않고 자꾸 따지기만 하며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실무적으로만 대한다면, 또한 군중의 생활에 대하여 배려할 줄 모른다면 대중은 그에게서 아무러한 인간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는 그와 만나기조차 두려워 할 것이다.

일'군들의 지도적 권위는 그 어떤 세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중 관점과 대중 속에서의 정확한 지도 작풍,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따뜻한 인간성에 의해서 보존된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담하게 군중 속에 들어가 사업하며 대중을 아량 있게 포섭하여야 한다. 설혹 군중들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의식적이 아닌 이상 그것을 너그럽게 처리하며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으며 그들을 탓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따뜻하게 타이르고 인내성 있게 도와 주어야 할 때 대중은 그것을 통하여 당의 뜨거운 손'길을 실감으로 느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당에 바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제기되였을 때 간부들이 솔선하여 일의 선두에 나서고 실천적 모범으로써 대중을 이끌 때 그들은 어떠한 주저도 없이 간부들의 뒤를 따라 나서며 당 정책 관철에서 한량 없는 열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모든 간부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겸손하고 소박하며 항상 대중 속에서 이신작칙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사업에서는 항상 대중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　＊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문제는 오늘 모든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군들 속에서 군중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관점을 확립하며 지도에서 낡은 틀을 마스기 위한 꾸준하고 완강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당적 사업 방법과 지도 작풍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원칙의 관철을 위하여 오늘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업은 우리 당의 초급 진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당은 오늘 당의 정책과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초소인 초급 진지를 강화함으로써만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정확히 실천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조직들 특히 시, 군당 위원회의 관심은 응당 초급 당 조직들에 대한 지도에 집중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초급 일'군들의 대렬을 당성이 강하고 작풍이 좋으며 군중의 신망이 높은 당 핵심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사업 작풍과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하도록 꾸준히 배워 주며 도와 줌으로써 대중 속에서의 그들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당 조직들과 간부들 그리고 전체 당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지도를 대중과 확고히 결합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통일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시킬 것이다.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과 청년 학생들

김 연 성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문학의 기본 독자 대중은 청년들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생활에 문학이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 사회의 문학이 청년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즉 문학이 시대와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나라의 기둥인 수백만 청년 대중을 창조적 로동에로 부르며 진리를 위한 투쟁 정신으로 교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는가—하는 문제는 비단 청년들 자체의 미래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와 운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진정한 인민의 정치는 항상 청년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간주하면서 그들의 교양 문제에 전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였고 문학 예술을 청년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계발하는 중요한 교양 수단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나 특히 극단적 반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문제가 정반대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 청년들은 미래의 역군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동의 폭발자로 인정되면서 지배 계급들의 부단한 감시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배 계급들은 청년들의 건전한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문학 예술을 리용하면서 사실주의 문학 예술과 인민적 문화 유산의 발전을 극도로 탄압하고 극심한 사회적 모순을 미화 분식하며 온갖 타락과 염세, 패덕과 범죄를 설교하는 반동 문학과 각종 형식주의, 자연주의 예술들을 이른바 《순수 예술》의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문예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실례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통치에 의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말할 수 없는 암담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수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실업자의 대렬을 보충하고 있다. 설사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거액의 학비를 장만하기 위하여 피를 팔며 갖은 고통과 굴욕을 참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학교를 졸업하여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등 실업자》나 미제의 값싼 대포'밥으로 끌려 가는 암담한 운명뿐이다.

청년 학생들의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여지 없이 짓밟아 버리는 이러한 현실은 그들 속에서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불만과 새 사회, 새 정치에 대한 지향을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 통치의 비참한 후과를 직접 체험하게 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반미 사상을 로골적으로 폭발시키면서 배움의 권리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과감히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인민의 높아 가는 웨침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합치고 있다. 실로 리승만 매국 정권을 전복하고 미제의 식민지 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준 영웅적 4.19 봉기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혁명성의 자랑스러운 시위였다.

청년 학생들의 이러한 투쟁 기세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고 있으며 그들의 부단한 위구의 대상

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반동 통치배들은 청년 학생들의 자유로운 집회를 탄압하며 그들의 일거 일동을 감시하는 등 폭력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 학생들이 선진 사상과 접촉하는 길을 백방으로 방해하며 허위 날조된 《반공》 선전과 각종 기만적 《구호》로써 그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 미제와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이 청년들을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삼아 온 것은 반동 문학 예술이다.

이런 데 리용되여 온 남조선 문학 예술은 오늘날 과연 어떻게 되였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야만적으로 유린 말살하고 갖은 방법을 다하여 《미국식 문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하는 것은 식민지 인민의 민족적 감정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기여 든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혹독하게 유린 말살하였으며 온갖 퇴폐적인 서구 반동 문학 예술을 광란적으로 끌어 들이고 그것이 남조선의 모든 사회 생활에 침투하도록 조장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조선 인민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서구 부르죠아 문학 예술의 맹목적인 추종자로 전락되였다.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민족 예술의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그 어떤 민족적인 감정도 표현할 수 없게 되였다.

민족적 량심을 저버린 남조선 반동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붓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것이 청년들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고 서구의 모방 문학 예술을 제조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지어 그들은 자신들도 채 리해하지 못하는 퇴폐적인 예술 조류들을 맹신 맹종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예술 전통들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가 《〈춘향전〉이 문학으로 대접 받고 있는 것은 편협한 사고 방식이라 하겠다》고 지껄인 것은 그들이 얼마나 속물로 변하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 통치배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지하고 계속 조장시키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민이 남겨 놓은 진보적 문학 유산들이 근로자들 특히 청년 학생들의 투쟁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는 그들 자신도 《전통은 외래 사상의 지배 하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서구라파 문학의 모방 문학으로 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온갖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것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남조선에는 부패한 양키 영화와 서구 활극, 《맘보 문화》, 쟈즈, 트위스트, 림보록 등 추잡한 노래와 춤들이 젊은 세대들의 건전한 생활을 침식하고 있다.

미국에서 류입된 트위스트 춤은 청년 학생들 속에 전염병처럼 퍼져서 마침내 서울 《시민 회관》에서 이 춤을 구경하던 수 많은 청년 학생들이 우―우 소리를 치다가 관람석을 박차고 무대 우에 뛰여 올라 배우들과 함께 붙어 돌아 가는 상상하기 어려운 추태까지 빚어 내였다.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이러한 《미국식 문화》,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면서 청년 학생들에게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와 향락주의, 허무와 절망의 감정을 고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 학생들이 사회의 심각한 모순에서 눈을 돌리고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들을 일신의 안일과 부화만을 생각하는 비렬한 존재로, 비관과 애수에 잠겨 운명을 탄식하는 무맥한 존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의 주인공들이 거의 다 허무주의자, 성격 파탄자, 정신 착란자, 범죄자들인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가장 많이 류행되고 있는 문학 조류의 하나인 실존주의 문학은 작중 인물들을 통하여, 인간은 부단히 절망 속에 갇혀 들어 가며 그 존

재가 위협을 받고 《인간성》은 나날이 소멸되여 간다는 절망의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 산다는 것이 곧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청년 학생들에게 로골적으로 죽음의 철학을 설교하고 있다. 이 허무와 비관의 아우성은 또한 오직 살아 있는 《자아》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하여 《반항》하라는 역설과 결합되여 청년 학생들을 무서운 범죄의 길로 사촉하고 있다.

최근작인 《허》라는 소설에서 작자는 동물적인 치정 관계로 하여 서로 물어뜯는 인간들을 묘사하면서 인생의 허황함을 선전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차 영철은 친구의 안해를 사이에 두고 싸우던 끝에 친구를 죽이고 10 년 징역을 살다가 출옥한다. 작자는 소설에서 친구의 무덤으로 가는 차 영철, 그를 따라 가는 친구의 처 경옥, 그 녀자의 뒤를 물푸레나무를 들고 좇아 가는 그 녀자의 현 남편 용수 등 스산한 인간 관계를 그리면서 결국 인간들은 이렇게 허황하다고 력설하고 있다.

이처럼 반동 작가들은 극도의 리기주의와 범죄를 로골적으로 변호하면서 도덕과 륜리는 예술을 위해서 한갖 거치장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담하게 파괴해 버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원래 현실 사회에서 점점 더 커가는 공포와 불안, 자기 분렬에 직면해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술 냄새, 담배 연기에 가득차 있는 카페에서 밤새도록 마시고 떠들고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할 줄 모르는 인간 쓰레기들 속에서만 예술을 탐구할 수 있다고 지껄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동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서 항상 놓지 않는 것은 추잡한 색정 세계의 묘사이다. 그들은 온갖 도덕 규범을 초월한 이성 관계, 보다 기형적인 변태 성욕자를 고안하기에 몰두하고 있다. 반동 어용 작가들은 이런 것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혈기를 음탕한 생활 속에 용해시켜 버리려 하고 있다.

작가 예술인으로 행세하는 자들 자신이 다름 아닌 색광들이다. 《다실 환상곡》이라는 시에서 작자는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카운터에 선 소녀를 보고》 《모리지안의 도색의 타부》를 련상하며 《성욕》을 느꼈다고 썼다.

《순수 예술》이라는 표방 하에 이들은 현실을 외면하고 운명에 순종하라고 설교하면서 다방에서 시작되여 호텔에서 끝나는 《신변 잡기》 따위의 잡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원의 서》라는 소설은 다방과 술집들을 전전하면서 커피와 술로 세월을 보내는 평론가와 작가, 실업한 신문 기자, 화가들이 《인생은 나미다(눈물)야》, 《에잇, 따분해 살 수 있나, 살인 사건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자극이 되지》하고 지껄여 대는 넋두리를 엮고 있으며 무위도식하는 창백한 인간들의 세계를 례찬하고 있다.

이 현실 도피자들은 그것으로써 남조선의 부패한 사회상을 호도하고 있으며 현실의 고통을 말 없이 참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 《장미꽃 입술로》는

> 그렇다
> 오늘은 효드머게 된
> 저 장미꽃의 웃음 소릴 듣자
> …
> 우리들의 마음 죄이는 눈물겨운 가난과
> 독감처럼 만연하는 절망 농가가
> 없어 좋다

고 하면서 장미꽃의 《웃음》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잊으라고 설교하고 있다.

서구 문학 예술을 추종하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을 고창하고 있는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사실 상 무서운 사회악의 매개물로, 추동자로 되고 있다. 일부 청년 학생들 속에서 반동 문학 예술의 영향으로 일어 나는 염세 자살, 집단 폭행, 부화 방탕 등 참극과 범죄는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실존주의 문학을 탐독한 일부 남녀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눈이 내릴

데 삼각산에서 죽으면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존주의 작품 《이방인》의 주인공처럼 죽어 갈 것을 맹세하고 어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10 대의 소년 10 여 명이 《피.엔.피》라는 폭력단을 조직해 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을 위협 구타하여 《유흥 자금》을 탈취해서는 밤마다 술을 마시고 녀학생들을 유혹하며 한 학생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남조선 교육자들과 학부형들의 큰 두통'거리로 되고 있다.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도 《성인 소설의 태반이 저속한 것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사회의 저속한 이야기를 본받아 10 대나 20 대의 청소년들이 추잡한 이성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의 반인민적 본질은 《반공》 사상의 선전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인민들의 비렬을 받은지도 오랜 인간 쓰레기들을 긁어 모아 《반공》 문학 《돌격대》로 내세우고 있다. 량심을 돈과 바꾼 이들 문인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북반부에 대한 동경과 조국 통일에 대한 념원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면서 북반부를 터무니 없이 비방 중상하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고취하고 있다. 그들은 청년 학생들 속에서 미제의 《승냥이 법칙》을 선전하며 미제의 값싼 대포'밥이 되는 《영광》을 떠벌리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비호 하에 문단과 예술계를 더럽히면서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자라나는 세대들의 약동하는 심장에 마약을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 반동 문학 예술은 근로 인민들 속에서, 특히 투쟁에 궐기한 청년들 속에서 차츰 그 영향력을 상실 당하고 있다. 반동 작가, 예술인들이 짖어대는 그 절망과 비관, 타락의 세계는 당장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그것은 원래 배부른 생활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현실 생활이 아무런 의의도 보지 못하며 점점 더 위기에 빠져 들어 가는 자들의 처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비애를 느끼고 있는 서구 반동 부르죠아지들의 퇴폐적 생활의 산물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래일의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인민 앞에서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언제 처단될 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자들만이 그러한 문학 예술에서 위안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남조선의 문단에서 반동 문학 예술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력사와 현실을 엉터리 없이 외곡하고 배반한 예술은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도 없거니와 절박한 생활에서 각성되여 가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민족적 의식과 정의의 투쟁을 멈춰 세우지도 못한다. 그것은 반동 문학 예술이 제아무리 암담한 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고 해도 숨막히는 현실은 현실 대로 남아 있으며 얽힐 대로 얽힌 그 모순은 결국 자기 해결의 길을 찾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반동 문학 예술의 기만보다는 몇 배나 더 위력하다. 아무런 권리도 자유도 없고 오늘 당장 살아 갈 길이 문제로 되는 그러한 현실에서 투쟁 이외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보아야 할 것이며 금전과 권력에 강요되여 추잡한 세계를 모색하기에 어지러워진 붓대를 집어 던지고 현실과 인민의 편으로 돌아 와야 할 것이다.

사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반동 문학 예술에 대처하여 새로운 추세가 자라고 있다. 비록 미제와 반동 통치배들의 극단한 탄압으로 그것은 아직 자유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썩은 반동 문학 예술의 울타리를 헤치고 울려 나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동족의 심장을 강하게 울리고 있다.

시인 신 모는 《시인들은 우리 민족 삶

에 조문(條文) 없는 텁법자가 되라! 그리고 그것이 억압 당했다면 그 억압자의 권력과 조직에 항거하고 도전하는 정신의 폭동을 일으키라》고 절규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총검을 박차고 반미 구국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이런 전투적인 노래를 요구하고 있다.

4.19 인민 봉기 당시 대학생으로서 고려 대학 시위 대렬의 최선두에 섰던 젊은 시인 구 모의 시 《와서 이 제단을 부셔버리라》와 리 모의 《당분간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도 바로 이러한 요구에 대답하고 있다.

정치에 강간 당한 4월이여
정치와 간음한 5월이여

젊은 시인은 붉은 가슴을 헤치고 범죄자들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들 가슴 가장 깊은 곳
지금은 스위치를 잠가 논
시한 폭탄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하여 물러 두리라 당분간은
저마다 스위치로 손이 갈 때까지
지명도 없이 광화문이 행로가 될 때까지
물러 두리라 당분간은

시인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멸망을 줄 《시한 폭탄》은 드디여 폭발하고야 말 것이니 《다시 4.19 정신이 분화구를 찾는 날》 《시한 폭탄》은 터져 올라 미제와 그 주구들, 그리고 남녘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단호히 웨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지이며 신념이다. 이 투지와 신념을 안고 그들은 인민들과 함께 《투쟁의 광장》으로 더욱 줄기차게 모여 들고 있다.

만약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의무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갖 '돈' 벌이를 위해서 《유흥'거리》를 팔아 먹는 그러한 작가 예술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미제의 식민지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력사와 인민은 그러한 자들의 더러운 작품을 내던지고 말 것이며, 그들의 생명은 죽어 가는 민족 반역자들의 운명이 길지 못한 것처럼 짧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예술가로서 무엇을 후세에 남기겠는가? 인민 앞에 저지른 죄악 밖에 없다.

예술가란 필경 그들의 작품과 같이 살아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과거의 훌륭한 예술가들은 정의를 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임진 조국 전쟁 시기 왜적을 물리치는 선상에서 《선상탄》을 읊은 애국 시인 박 인로, 봉건 통치배들을 신랄히 비판 풍자한 박 지원, 백성을 억압하는 고루한 봉건 귀족들과 관리배들을 타매하여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정 다산 등 우리 나라의 고전 대가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도 우리 인민과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정 다산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라를 걱정하지 않으면 시가 될 수 없으며 시국의 혼란을 슬퍼하고 세속의 불의를 분노하지 않으면 시가 될 수 없으며 좋은 것을 찬미하고 나쁜 것을 풍자하며 참함을 권하고 악함을 징계하는 도덕적 의의를 가지지 않으면 시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학문이 순정하지 못하며 큰 도를 듣지 못하거나 나라 살림을 잘 꾸리고 인민을 잘 살게 하려는 사상이 없이는 시를 쓸 수 없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는 작가를 어찌 작가라고 할 수 있으며 어찌 조선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은 선조들의 이러한 사상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자기의 필묵을 바로 잡음으로써 조국이 통일되는 날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문답학습

계급과 당

계급의 존재는 사회 발전의 일정한 력사적 시기와 관련되여 있다. 계급의 발생은 사회적 분업의 발생,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출현에 의하여 조건 지어졌다.

정당의 발생은 력사적 계기에 있어서 계급의 발생보다 더 후행하였다. 그것은 당이 자기 계급의 리해 관계를 의식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매개 계급은 발생하자 마자 자기의 력사적 위치와 사명, 리해 관계를 완전히 깨닫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일정한 력사적 시기가 요구된다. 로동 계급도 바로 그러하였다. 자재적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이 자위적 계급으로 되기까지에는 상당한 력사적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정당들은 매개 계급이 성장하여 자체의 리해 관계를 완전히 깨닫는 시기에야 발생할 수 있다. 즉 정당의 조직 그 자체가 바로 일정한 계급이 자기의 리해 관계를 명백히 인식하였다는 증거로 되는 것이다.

정당에는 일정한 계급의 가장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자원적으로 망라되여 자기 계급의 리해 관계를 의식적으로 대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정당들이 자기가 어느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로동 계급의 당인 맑스-레닌주의 당만이 자기의 계급적 리해 관계를 대중 앞에 공공연하게 선포하며 투쟁한다. 그것은 이 당의 투쟁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되여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의 리익을 대표함으로써 또한 광범한 피착취 근로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 대중의 미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과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을 착취로부터 해방하고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러한 투쟁의 정당성으로 하여 이 당은 결코 자기의 투쟁 목적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죠아 정당들을 비롯한 착취 계급의 정당들은 자체의 계급적 본질을 그대로 드러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착취 계급들의 정당의 투쟁 목적은 어떻게 하면 대중에 대한 자기 계급의 착취적 목적을 더 잘 충족시켜 주겠는가 하는 데 있다. 투쟁 목적의 이와 같은 부

정의성, 반동성으로 하여 이 당은 자기 당의 계급성과 투쟁 강령을 공공연히 선포할 수 없는 것이다. 부르죠아 계급들의 당이 흔히 《초계급성》을 표방해 나서고 있으며 《전 인민적》, 《전 민족적》 리익의 대변자인듯이 가장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레닌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 당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면서 매개 당의 본질은 단순히 그들의 성명이나 구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급 투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의 실천을 통하여 검증되고 파악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 어떠한 반동 계급의 정당이든지 자기들의 리해 관계가 크게 저촉되는 투쟁 마당에서는 저들의 진면모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각종 부르죠아 당이나 소부르죠아 당들은 《전 민족》 앞에서의 행복에 대한 요란스러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의 행복을 실지 담보할 수 없으며 담보하지 않는다.

로동자, 농민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며 그들의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을 옳게 지도할 력사적 사명은 오직 맑스-레닌주의 당만이 수행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자기의 계급성을 은폐하지 않으면서 공허한 약속으로가 아니라 실천적 사업으로써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에게 투쟁에 대한 의식성과 조직성을 부여하며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로써 그들을 혁명 승리에로 조직 동원한다. 이 당은 자본주의 제도와 모든 착취 계급을 타도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계급의 가장 유력한 무기로 된다.

로동 계급은 오직 이러한 강유력한 무기를 소유함으로써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로동 계급에게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무기인 당을 빼앗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당의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려 하고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당을 부르죠아 당으로 변질케 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발전한 시기에 있어서는 맑스-레닌주의 당이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전 인민의 일치한 리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로동 계급의 당이기를 그만두고 《초계급적인》 《전 인민적》 당으로 된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항상 로동 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대표함으로써 전체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전체 진보적 인류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더우기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 당들이 사회 성원의 어느 일부분만 즉 로동 계급의 리익만을 대변한 적이 없다. 언제나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당들의 《초계급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로동 계급적 성격에 의해서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계급적 기치는 전체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맑스-레닌주의 당은 자기의 계급적 기치를 철저히 고수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세계사적 사명에 충실함으로써만 전체 근로 대중의 리익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비록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을 완수했다 하더라도 계속 공산주의에로 이행할 과업이 남아 있고 또 국제 부르죠아지들과의 투쟁할 과업이 남아 있는 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투쟁을 령도하는 당은 프로레타리아적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당이 프로레타리아 당으로부터 《전 인민적》 당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선봉적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전 인민적》 당에 관한 주장과 모순되는 점이다. 당의 프로레타리아적 계급적 성격을 부인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국가적 지도,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이 《전 인민적》 당을 운운하는 것은 본질 상 《초계급적》 당을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며 당을 로동 계급의 당으로부터 소부르죠아적 기회주의적 당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정치적 참모부로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고 당의 기능을 경제 기술적 지도에로 즉 행정화하는 데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당 조직들이 생산 지도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구실 밑에 당 기관들의 지역적 조직 원칙은 완전히 포기하고 생산적 원칙만으로 넘어 가서 각급 당 조직들을 경제 부문 담당 조직들로 분리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당은 경제 기술의 보급 선전자가 아니라 정치적 령도 기관이다. 당 조직들은 모든 사업에 대한 정치적 키잡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당을 행정화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러한 당적 지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찌또 수정주의 도당은 일찌기 류사한 수법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말살하고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위 당도 파괴하고 비프로레타리아 정당으로 전락시켰다. 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반맑스주의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당의 조직적 역할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독점주의》라고 비방하는 데로 떨어졌다.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제 7 차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은 《정권에서

공산당의 절대적 독점을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사회주의 건설의 보편적이며 <영원한> 원칙으로 선포하는 것》은 《교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당들이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혁명적이고 창조적인 요인으로 되지 못 하게》 되였다고 설교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은 그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 발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당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반동적인 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까지 떠벌렸다.

그렇기 때문에 쩌또 도당은 로동 계급이 《그 어떤 당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사회주의의 정치적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떠들고 있다. 쩌또 도당은 그러한 역할을 직맹과 같은 대중 단체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을 대중 단체에 용해시키고 있다.

쩌또 도당은 당이란 다만 《사회주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여 정치적 및 문화적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 과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상 오늘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공산주의자 동맹》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1953년에 《사회주의 근로 인민 전선》을 개편하여 조직한 《사회주의 근로 인민 동맹》이 첫자리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 내에서 지도적, 향도적 력량이며 국가 기구와 직맹 기타 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당은 프로레타리아 독재 체계에서 모든 대중적 조직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활동을 로동 계급의 종국적 해방과 승리를 위한 유일한 목적에로 인도한다.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피착취 근로 대중은 이러한 로동 계급의 계급적 정당을 가짐으로써만 자기 해방의 동대를 가지게 되며, 자기들의 종국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적 립장과 수정주의적 립장 간의 근본적 차이는 결국 혁명을 하려는 립장과 혁명을 그만 두자는 립장, 로동 계급이 자기의 조직을 가지지 못 하게 하고 해방 투쟁에 일어 서지 못 하게 하며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지 못 하게 하려는 립장 간의 차이에 귀착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과 그의 령도적 역할을 외곡 약화시키려는 사소한 표현도 제때에 가려낼 줄 알아야 하며 그것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인 당을 보위할 수 있으며 우리 혁명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리 민

농민 시장에 대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축산물 생산을 증가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면서 현 시기 농민 시장에서 생가축을 비롯하여 토끼, 게사니, 닭고기 및 계란 등 축산물의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데 대하여 특히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이것은 1~2 년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전투적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특히 축산업을 비롯한 농업 생산을 급격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농민 시장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농촌의 추가적 상품 원천을 동원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구성 부분이다.

과거 협동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농촌 시장은 농업 생산 장성에 대한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자극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확대를 자극하는 부정적 역할도 놀았다. 소농 경리에 토대하였던 이 시장은 도시와 농촌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농민 시장은 협동화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적인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교류를 실현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통일적인 사회주의 시장의 한 구성 부분으로 지변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착취 관계도 없으며 또 그것은 자본주의를 산생시킬 수도 없다.

오직 농민 시장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 근로자들 호상간에 상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오늘의 농민 시장은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이 여유 농산물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농민 시장은 그의 자연 발생성으로 하여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과 구별되며 그것이 비조직 시장으로 불리우는 리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 시장 상업이 존재하게 되는 리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협동적 소유의 특성과 협동 농장원들의 개인 부업 경리의 존재와 관련된다.

협동 농장들은 국가에 대한 납부 및 수매 계약을 리행한 후의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 및 기타 부업 생산물을 자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농장원들은 로력일에 의하여 분배를 받는 현물 보수와 터밭 경리(비록 크지는 않지만)에서 나온 생산물 중에서 자체 소비를 충당하고 남는 부분을 역시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 농산물 부분은 두 개의 판로 즉 국가 수매 체계와 농민 시장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 중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국가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국가 수매이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 시장 상업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판로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누구도 어느 한 가지만을 강요할 수 없다.

우리 당이 수매 사업에서 농민들의 자원성에 확고히 립각하여 상업적 방법을 관철시키며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수매 활동을 조직하도록 하는 한편 농민 시장에서의 여유 농산물

의 실현 조건을 충분히 보장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 농민 시장의 중요한 역할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에 있는 여유 농산물을 상품 류통 령역에 적극 인입함으로써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부식물 공급을 증대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교류를 강화함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 시장에서는 각종 채소류, 조미료 및 기타 농부산물이 광범히 류통되고 있으며 최근 시기에는 각종 가금류, 육류, 계란 등 축산물의 판매량도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는 개별적인 농민들이 생산한 여유 농산물이 각이한 시기에 반출됨으로써 거의 모든 품종이 년중 품절됨이 없이 보장된다. 이러한 사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농민 시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민 시장이 추가적인 상품 자원을 동원하며 특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절실한 일련의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농민 시장은 협동 농장과 농장원들에게 보충적인 화폐 수입을 보장하며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그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한다.

농민들의 여유 농산물은 국가 수매 체계와 농민 시장을 통하여 실현됨으로써 현물 수입 부분이 화폐 수입으로 전화된다. 여기에서 그의 압도적 부분은 국가 수매 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농민 시장을 통한 농민들의 화폐 수입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농민 시장으로부터의 화폐 수입은 많은 경우에 농민들의 부업 경리와 련결되여 있는 만큼 그것이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년간을 통하여 농민들의 긴절한 화폐적 요구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다.

협동 농장에서 화폐 전불 제도가 광범히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농민 시장의 활발한 운영이 농민들의 부업 경리 생산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높여 주며 나아가서 협동 경리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상품 류통 통모를 확대함에 있어서 그가 노는 이러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농민 시장 상업에 대하여 항상 깊은 주의를 돌려 왔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면적으로 전개되였던 1957년 초에 있은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는 농민 시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시 협동화 운동이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농업 생산은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농촌에는 더욱 많은 여유 농산물이 조성되였다. 동시에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인구는 장성되고 그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도 격증되였다. 반면에 당시 수매 사업은 아직 새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였으며 또한 식료품 공급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오던 개인 상인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된 제 사정은 농민 시장 앞에 더욱 새로운 임무를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농민 시장 상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농산물의 수매, 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 시장의 발전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 농촌 시장은 농산물의 집산지로, 농산물 수매, 교류의 중심지로 되여야 한다.》 (선집 제 5 권, 45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그 후 농민 시장의 건설, 시장 내에서 상업 조건의 보장, 시장 관리 사업의 개선 등 제반 조치들이 강구됨으로써 농민 시장은 협동화가 완성된 새로운 환경에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는 하나의 고리로 되였다.

오늘 농민 시장 상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어데 있는가?

우선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에게 보다 많은 여유 농산물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농업에 대한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이 있고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업 생산량은 매해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입쌀로 충족시키기 위한 과업을 해결하는 단계에 들어 섰다. 식량 문제의 해결은 또한 축산물 생산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을 발전시킬 충분한 가능성을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 당은 현물세물을 계통적으로 인하하여 왔으며 그것도 가까운 년간에 폐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관개 사용료, 농기계 작업료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여 있으며 또한 협동 농장들에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분배 몫은 해마다 증대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이 더 많은 여유 농산물을 가지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농민 시장에 반출할 수 있는 상품 원천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여유 농산물의 대부분은 물론 수매 체계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지만 수매 활동이 강화된다고 하여 규모가 작은 품종이나 량적으로 많지 못한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그리고 광대한 농촌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모든 여유 농산물과 축산물 및 부업 경리 산물을 빠짐 없이 흡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유 농산물을 농민 시장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교류하는 것은 당면하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된다.

다음으로 농민 시장 상업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부식물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풍족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된다.

오늘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구매력은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영양가 높고 맛 좋은 다양한 부식물에 대한 수요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주민 수요 구성의 변동에서 합법칙적 현상이다.

도시 및 로동자 지구 주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전적으로 상품 교환의 방법으로 충족된다. 따라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과 함께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민 시장을 식료품 공급 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그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로 된다.

마지막으로 농민 시장 상업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은 축산물 생산을 비롯한 기타 농업 생산에 대한 상품 류통 령역으로부터의 반작용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관련된다.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환절로서의 상업은 단순히 그의 중간에 개입된 중개자가 아니다. 상업의 능동적인 역할은 생산과 소비의 장성 발전에 적극적인 반작용을 주는 데 있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숙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기타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생산에 대한 상품 류통 령역으로부터의 반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

농민 시장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 대한 그의 반작용을 강화하는 것은 협동 농장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농산 및 축산물 생산과 부업 경리 생산에 적극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현 시기 농민 시장 상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가?

우선 일'군들이 농민 시장의 역할과 의의를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 시장이 오늘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놀고 있는 역할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농민 시장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 증대되였다.

따라서 이 시장이 비조직 시장이라는 측면만을 일면적으로 보면서 각종 행정적 방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려는 편향을 근절하는 한편 농민 시장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지 말고 계통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하여 연구하며 식료품 공급 기지로서 더 잘 복무하도록 잘 꾸려 주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농민 시장 상업의 개선을 위해서 제기되는 것은 판매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이다.

농민들의 여유 농산물 반출 조건과 시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초점으로 되는 것은 영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에 보다 많은 농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장원들의 여유 농산물을 농민 시장에 반출하는 사업을 조직적인 관심사로, 이를테면 농장적인 또는 작업반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조직화한다면 많은 로력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농민들의 편의를 훨씬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농장원들의 여유 농산물을 종합하여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집체 판매, 또는 위탁 판매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민 시장에서 류통되는 상품이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이며 오늘 그의 류통 규모가 장성하고 특히 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판매량이 증대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지 않고서는 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없다.

농민 시장의 위치를 교통 및 위생 조건이 구비된 장소에 선택하는 문제, 판매자와 구매자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시장 내부 설계를 합리화하는 문제, 상품 보관 조건 및 기타 상업 설비와 도구를 갖추는 것 등이 오늘 농민 시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중요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끝으로 농민 시장에 대한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 시장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여기에서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당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연 발생성을 면 이 시장에 대한 국가적 조절의 한 측면을 이룬다. 따라서 시장 내에서 제정된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농민 시장에서는 상품 취급에서 문화 위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높은 상업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당 및 해당 부문 일'군들과 특히 지방 정권 기관들이 상업 관리 부서들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 시장에 대한 지도 통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 호 식

근 로 자 제 22 호 (루계 236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1월 20일 인 쇄 • 1963년 11월 17일

ㄱ—880754 값 40 전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3 호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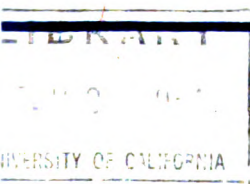
평양 근로자사 1963

제 23 호 (237)

1963년 12월 (상)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차 례

언어 문화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달라붙자

유구한 세월을 두고 조선 인민은 자기의 언어, 조선어를 써 가며 살아 왔다.

조선어는 그 어느 때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요긴하고도 소중한 존재이였다. 어머니의 품안에서 배우기 시작한 조선어는 일생을 두고 우리 생활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모국어라 부르며 자기의 조국과 더불어 더함 없는 사랑으로 대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 조선어는 조선 로동당의 언어다. 조선어를 통하여 당은 자기의 정책과 가르침을 조선 인민들에게 주며 인민은 조선어를 써서 이것을 리해하고 연구하며 실천에 옮긴다. 정치, 경제, 문화의 그 어느 곳에나 우리 당의 사상이 아니 가 있는 곳이 없고 그 어느 곳에나 조선어가 아니 가 있는 곳이 없다.

우리 활동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조선어의 표현성은 더욱더 세련되고 풍부화되며 정밀화될 것을 요한다.

조선어는 조국의 륭성 발전과 더불어 그 문화성이 더욱더 높아져야 하며 훌륭한 교제의 수단으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실정—여기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항상 조선어와 일'군들의 언어 생활에 깊은 고려를 돌리고 있으며 정확한 언어 문화 정책을 실시한다.

조선 인민은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언어 문화의 령역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의 우리 말과 글은 8.15 이전의 것이나 더우기 미제 강점 하 남녘 땅의 그것과는 비길 바가 아니다. 조선 사람의 말과 글의 응당한 전형은 이 땅,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되여 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진 도상에서의 이 성과에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급히 하여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천리마로 내닫는 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에 상응한 만족스러운 말과 글이 많지 못 하다. 적지 않은 말이나 글에서 부족점이 청산되지 못 하고 있다.

언어 형식이 덜 다듬어져서 중요한 내용들이 효과 있게 전달되지 못 하며 리해되지 못 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

유구한 전통과 높은 문화를 가진 조선 인민의 언어 문화는 응당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인민적, 전 국가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강력하고도 꾸준한 노력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 전진 운동에 장애를 주는 중요한 한 측면은 우선 일'군들의 관점, 각오 정도와 관련되여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은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습득

되며 자기의 언어 생활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언어는 그 어음, 어휘, 문법, 문체들이 비교적 복잡한 정경을 띠고 있으며 해당 사회 성원들이 다 같이 지켜 나아가야 할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모르지 않는 것이 자기 나라 언어지만 또 소박한 단계를 벗어 나려면 힘써 배워야 하는 것이 자기 나라 언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일'군들은 또한 흔히 언어적 상식은 언어 연구가나 기타 《전문 일군》들만이 알 바라고 그릇 생각하고 있다.

언어적 상식은 문명한 사회의 글 쓰는 사람들의 상식이며 말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것은 결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다.

또 때로는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풍부화하려는 각오와 기백이 결여되어 있는 현상도 볼 수 있다. 곧 전혀 모르지도 않는 데다가 조금 더 잘 알려면 일정한 노력이 드는 것으로 하여 얼마간 알고 있는 데 주저 앉고 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며 높은 문화 생활을 하려는 우리들이 취할 바가 아니다. 노력이 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차례지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 습득에서도 적용되는 진리다.

다음으로는 일부 일'군들이 언어 생활에서의 군중 관점이 철저히 서 있지 못 하다.

자기의 언어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사람들이 잘 리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며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 되는 대로 조잡한 채로 버려 둔다.

자기가 하는 말이며 자기가 쓰는 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좋아 하는 글, 대중이 리해하는 말—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실한 마음씨는 혁명하는 사람의 고상한 품성이며 아름다운 륜리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부터 《오직 대중을 위하고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해》(선집 제 1 권, 1955년 판, 100 페지)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우리들은 참으로 이 참뜻을 깊이 체득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여야 한다.

또 적지 않은 일'군들은 말과 글을 더 인민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어려서 려하게 보수성을 버리지 못 하고 있다.

말과 글이 통속적이어야 하며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자기가 말과 글에 부닥치면 대담하게 쉽게 하며 통속적으로 만드는 데 주저한다.

관습이란 그것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을 완강히 요구하며 개선과 전진을 가로막는 수가 적지 않다. 의식은 현실적 요구보다 뒤떨어져서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응당 깨뜨러져야 한다.

사실상 이때까지의 언어 문화 운동에서의 전진도 바로 이런 관습 및 의식과

의 투쟁의 력사로 일관되여 있다.

처음에는 그런 쉽고 통속적인 말이나 글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표현의 《정중성》, 《엄격성》, 《박력》, 《전투성》을 망쳐 버리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정하게 쉽고 통속적으로 된 오늘날의 견지에서 지난 때를 돌이켜 볼 때 결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는 몇 배나 좋아졌다.

오늘날의 눈으로 몇 해 전의 글을 볼 때 느끼는 부족점을 오늘날의 글에서 보려는 앞날의 눈—이것을 가지는 데 더 대담하여야 한다.

언어 문화 운동을 일으킨 지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말과 글의 문제가 론의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이 보수성에 있다.

전진할 것처럼 말하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긋고 그 이상은 들어 가려 하지 않는 보수적인 태도—이것과의 투쟁 없이 우리의 이 운동은 전진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의 한 예봉은 응당 이것을 깨뜨리고 불살라 버리려는 데 돌려져야 한다.

우리들이 언어 문화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크게 해결을 지어야 할 것은 교육 부문이다.

교육 기관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거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언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부문을 대담하고 심각하게 론의하여 본 일이 많지 못 하였다.

학생들은 작품을 변변히 읽지 못 한 채 그 사상성과 형상성을 론하는가 하면 문법 교육을 통하여서는 추상적인 범주와 정의를 주로 배우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리해하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없게 하였으며 더구나 작품 이외의 다양한 글들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 하였는바 학생들의 필력을 길러 주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어문 계통의 교육을 조선 사람의 실정과 조선어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 견지에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응당한 필력을 가지지 못 한 채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며 또 그 능숙하지 못 한 솜씨가 자기 후대의 본보기로 되고서는 우리의 언어 문화가 결코 높아질 수 없다. 오늘날 말과 글에 대한 교양은 사회적으로도 주어야 하지만 일반 사회 성원들의 후비로 되는 학생들에게 우선 잘 주어야 한다. 들어오는 물이 흐리고서는 호수가 항상 흐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교원들의 역할은 아주 크다.

교원들은 어문 계통을 담당할 경우는 물론 다른 과목을 맡는 경우에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결정적으로 높이여야 한다. 직접 말과 글을 가르칠 때는 물론 다른 수업에서도 교원의 언어 지식은 학생들의 언어적 소양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일껏 어문학 계통의 수업을 통하여 정확히 준 언어의 규범적 측면들이 다른 교수 시간에 파괴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젊은이들에게 언어적 소양을 길러 주는 데서 교과서가 또한 큰 역할을 한다.

국어 교과서를 모범적인 다양한 문체

의 글들로 엮어야 하며 새로운 중요한 어휘들이 계통성 있게 단계를 밟아서 붙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른 교과서의 문장들도 모두가 세련되여서 그것이 또한 조선어 습득의 산 모범의 구실을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 교원들은 교과서 이외에 필요한 참고서들을 가져야 하며 특히 조선어 사전을 가지고 수시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한 바, 여기에서 이런 서적들의 집필자와 출판 일'군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

다음으로 언어의 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작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작가는 정신의 기사인 동시에 또한 언어의 명수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언어 발달에서 작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크다. 수 많은 나라들의 표준어가 이름 난 작가의 출현과 함께 확립 공고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이 만큼 작가는 영예로우며 또 그 짐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우리 작가들의 글은 세련되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인민의 모범으로 된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다. 어휘의 사용, 비유의 적용, 문장의 구성에서 인민들에게 접수되기 어려운 구절을 종종 보게 된다. 또 문예 평론의 글은 그 론리가 간명하지 못하며 문장 구성이 필요 없이 장황한 경우가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도 문체론적인 규범까지도 포함한 일체 언어적인 규범은 일단 의무적이다.

물론 작가는 언어의 명수로서 그 표현성을 일정하게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창조는 항상 인민의 찬동을 받을 수 있을 때, 언어의 발달 법칙에 순응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작가라 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언어 규범 상의 리탈을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에게 있어서도 우선은 인민들이 공인하고 있는 풍부한 어휘와 의미들, 다양한 표현들, 엄밀한 문법들을 배우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언어적 수양을 쌓는 것이 특히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

작품에 대한 평가에는 거기서의 언어 사용 정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좋으며 작가들 속에서 작품의 언어에 대한 과학적 론의가 더 활발히 일어 나야 한다.

참으로 작품의 글에서 사람들은 인상 깊게 배우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작가는 언어의 스승으로서 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출판 보도 일'군들의 역할이 우리 나라의 언어 문화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광범한 인민 대중이 매일과 같이 보고 듣는 것이 신문의 글이며 잡지의 글이며 라지오의 말이다.

따라서 이 글과 말이 잘 되고 못 되는데 따라 인민들이 언어 생활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 동안 출판 보도 일'군들은 말과 글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들을 기울이였다. 이러한 노력의 귀중한 열매는 바로 오늘날의 신문의 글, 라지오의 말이 현저히 개선된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정한 결함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을 쉽게 하는 면에

서 더 대담하게 나아갈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지방 출판물들의 글에서는 더 많이 다듬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며 방송의 말에서는 정서성, 호소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억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 보도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언어 교육자적 사명을 자각하고 지도적 견지에 설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민적인 좋은 단어나 표현들을 적극 보급시키며 인민성이 없는 딱딱하고 어려운 어휘나 표현들을 적극 없애며는 능동적 작용을 하여야 한다.

어떤 다른 계통에서 전달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언어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단어나 표현들은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좋은 단어나 표현으로 고쳐서 내놓을 권한이 있으며 또 의무가 있다.

출판 보도 일'군들은 나쁜 어휘나 표현이 걸리는 관문으로 되여야 하며 좋은 어휘나 표현으로 바뀌는 교환처로 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항상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며 언어에 대한 자질을 더욱더 높이여야 한다.

오늘날 국가 공문서의 글들이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주는 영향도 또한 적지 않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며 접수하며 보도한다. 그러므로 그 초안을 작성하는 일'군들은 언어 문화의 견지에서 쉽고 간명하게 글을 짜며 특히 쉬운 용어들을 쓰도록 류의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는 문체에서 시사어의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이런 특성으로 하여 지나친 격식화가 이루어지기 쉽고 표현이 엄정한 나머지 딱딱하여지기 쉽다.

과학자들의 과학 론문들, 기술 서적들의 글도 더 쉽고 통속적으로 되여야 하며 표현이 정확하면서도 명료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이런 론문이나 글들은 오늘날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인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과학 지식의 보급을 받고 기술 혁신의 지식을 얻고 있다.

과학 기술의 글이란 원래 문체적으로 독특한 점이 있어서 정서성보다도 주로 론리성이 생명을 이루는바, 이런 특성으로 하여 글이 어려워지기 쉽다.

무대, 영화들에서의 배우의 말과 수많은 우리 선동원들의 말은 대중에게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

배우의 말은 문화적이고 세련된 것으로서 전 인민적인 표준 발음의 전형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 록음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며 특히 젊은 학생들의 표준 발음 교육에 도움을 주게 되여야 한다.

그리고 선동원들은 어떤 서사어적인 글에서 자료를 취하는 경우라도 글과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깊이 류의하고 그 내용을 자기의 말로, 인민의 말로, 로동자, 농민의 말로 고치여 쉽고 흥미 있게 해설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 언어 문화 운동에서 조선어 연구가들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 반음, 철자, 어휘와 그 의미, 문법, 문체 기타의 전 령역에 걸쳐서 언어 규범과 리론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하며 조선어가 앞으로 발달하여 나아갈 방향을

민감하고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 오늘날 조선어 연구가들은 준비가 충분히 되여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선어의 억양을 비롯한 발음 상의 온갖 특성들을 규명하여 정확한 발음에 도움을 줄 리론적 해명들이 덜 되여 있으며 문체론의 연구를 심화하여 글을 효과 있게 쓰도록 방조를 주지 못 하고 있다.

조선어의 어휘론, 의미론, 문법의 연구를 실천과 더 밀접히 련결시켜야 하며 이제보다 더 정밀한 전문 용어의 사정, 띄여 쓰기의 규정 작성, 철자법의 보충을 시급히 끝내야 한다. 특히 전문 용어 사정에서는 한'자 사용이 폐지된 조건 하에서 인민들이 잘 리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인민의 언어에 튼튼히 립각하여 좌우경적인 두 편향을 다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연구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조선어 연구가들의 대중 앞에서의 강의는 이런 실태에 기초하지 못 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선어 연구가들은 리론적 연구에 치우치고 인민들의 언어 생활과 직접 결부된 실천 문제에는 비교적 어두우며 또 자기 자신의 말이나 글이 모범적으로 되지 못 하는 수가 없지 않다.

조선어 연구가 집단들은 언어 문화를 위한 이 영예로운 과업 앞에서 바로 자기 내부를 과학적으로 잘 꾸리며 모두가 이 운동의 선두에 나서서 전진하여야 한다.

언어 문화 운동은 전 인민적인 운동이다.

작가, 기자, 예술인, 교육가, 과학자, 신문적인 조선어 연구가들이 당의 언어 문화 정책을 높이 받들고 밀접한 련계 밑에 서로 돕고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조선어 연구가들이 실정에 맞는 더 깊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강의 기타를 통하여 풍부한 지식들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문필 활동가들은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선 자기의 말이나 글에서 모범을 창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 문화 운동은 조선 혁명에 복무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 혁명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온갖 교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전체 인민들이 더 잘 혁명에 복무하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의 인민적 언어 정책

김 병 제

조선 인민은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그리고 아름답고도 발전된 민족어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한다.

우리의 민족어는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서로 교제하는 수단으로, 사상 교환의 무기로 사용되여 왔으며 우리 인민이 걸어 온 력사와 함께 발달하여 왔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족어의 발달, 이것은 아무러한 우여 곡절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인민의 력사가 계급 투쟁의 력사인 것처럼 우리 민족을 특징 짓는 중요한 표식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어의 고수와 발달의 력사도 투쟁으로 일관되여 있다.

우리 민족어가 오늘과 같이 전 인민적 소유물로 되고 고도의 인민성을 띠게 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 통치 계급들의 반인민적 시책과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포악하고도 야만적인 언어 말살 정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끊임 없는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는 해방 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어의 온갖 우수성과 인민성을 론할 때 마땅히 그 창조자이며 보유자인 인민들의 투쟁과 우리 당의 인민적인 언어 정책, 그리고 언어 발달의 객관적 법칙과를 관련시켜서 보아야 한다.

과거의 봉건 지배 계급들, 사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언어를 속어(俗語)니 언어(諺語)니 하여 우리 말을 상말로 여기였다. 심지어는 우리 민족어를 어떤 언어에 대한 결 가지로 인정한 나머지 방언(方言), 향언(鄕言)이라고까지 불렀다.

이리하여 봉건 통치배들은 민족어를 진정한 인민의 언어로 발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어의 보편화를 억제하였으며 저해하였다.

그러나 광범한 인민 대중은 이와는 반대로 언제나 자기 언어에 대한 무한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 우수성을 발천하며 이를 더욱 발달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일체의 공용어를 일본어로 할 것을 선포하였고 그 마지막 시기에는 소위 《국어 상용》을 강요하는 등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어의 말살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잊지 않았고 자기의 찬란한 문화를 끔찍이 사랑했으며 자기의 말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제적 동화 정책에 항거하여 민족적 자주성을 고수하며 모국어의 수호와 발달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어는 거대한 견인성과 비상한 저항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족 문화와 민족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어의 고수를 민족 해방 투쟁의 한 고리로 간주하고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에도 민족어의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혁명 근거지와 해방 지구들에서 문맹을 퇴치하는 사업과 함께 실지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들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인민이 걸어 온 력사, 우리 민족어가 겪어 온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어와 민족 문'자를 진정으로 인민의 소유물로 만들며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건설에 적극 복무할 수 있도록 일련의 혁명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전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인민들과 같이 살며 인민들의 리익을 자기의 리익으로 알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온갖 정책들을 세우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하는 정치 로선을 세우고 있다.》 (김 일성 선집 제 1 권, 452 페지)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며 인민 대중은 사회를 발전시키며 온갖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창조하는 결정적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민에 의거하며 인민들을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며 인민들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는 혁명적 군중 로선, 맑스-레닌주의적 군중 관점을 관철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어가 진 인민적 소유물로 되고 인민성을 띠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당 군중 로선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다.

해방 후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우매화 정책이 빚어 낸 수백만의 문맹을 퇴치하는 사업을 긴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한 결과 짧은 기간에 이를 성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의 일상적 서사 생활에서의 한'자 사용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거 우리 인민에게 있어 한문 학습은 실로 무거운 짐으로 되었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전 인민적 소유물로 될 수 없었던 만큼 민족 문화 발전에 커다란 질곡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민족 문'자를 가지고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의 정책,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 문화 창조 사업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낡은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계급적 통용어, 일본어적인 어휘, 불필요한 외래어, 인민 대중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와 한문식 표현 등 비인민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유구한 력사 발전 행정에서 우리 인민이 창조하였으며 발달시켜 온 평이하고도 아름다운 인민적 어휘를 찾아 쓰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언어 정책의 빛나는 승리의 하나이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민족어의 인민성, 평이성을 말할 때 단어의 선택, 성구, 속담, 문장 구조, 서술 체계, 문풍 등 문제들에 대하여 론의할 수 있다.

우선 단어의 선택을 두고 말하더라도 동일한 의미 내용을 가진 단어 부류 가운데 고유 조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및 외래어들이 있으며 동일한 고유 조선어 가운데서도, 또는 동일한 한'자어 사이에도 어렵고 쉬운 것이 병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쓰는 것은 언어의 인민적 성격을 높이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언어의 본질적 사명에도 부합된다.

《언어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존재하며 또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실천적 의식이다.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오직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 요구와 진정한 필요에서 발생한다.》(맑스,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그러므로 언어는 사회에 대하여 단일적이며, 사회 성원들의 계급적 직위에는 관계 없이 이들에게 평등하게 복무하는 만큼 전체 인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리해되기 쉬운 말, 쉬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언어에 관한 맑스주의적인 진리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인민성, 이것은 언어 발달 행정에서 형성된 기본적 속성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어를 인민 대중에게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혁명 수행의 무기로서 더욱 발달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미 군중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조선말을 쓸 것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해방 후에도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선전 일'군들이 군중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설하여 주지 않고 자기도 완전히 리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들과 명제들을 라렬하는 독경식 교양 방법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하였다. 이것은 언어의 인민성과 평이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

또한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하며 남이 알아 듣지 못 할 말을 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우리 당의 군중로선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맑스-레닌주의 언어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우리 당의 이러한 일련의 언어 정책은 일반적으로는 민족어의 발달에, 특수적으로는 우리 민족어의 인민성과 평이성을 보장하는 데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은 언어의 인민성, 평이성을 포함하여 전반적 언어 실천에서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였는바 이것은 우리들의 구감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나라의 생산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며 민족 문화가 류례 없이 개화 발전하는 현실에 복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족어의 규범화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언어 규범이란 발음과 철자법, 단어의 의미, 문법적 형태와 그 구조 등 분야를 포괄하는바 우리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을 취하여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제는 민족어의 발달을 위하여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다.

언어 실천에서 규범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의 다양한 표현적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틀에 얽어 매여 두자는 것도 아니다. 규범이란 오히려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리해를 용이하게 하며 통신적 기능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며 민족어의 통일적 발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해방 후 우리 당 언어 정책의 빛나는 승리의 다른 하나는 인민적 문풍 확립이다.

당은 인민적 문풍의 중요한 특성으로 되는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전달하고저 하는 내용의 본질을 간단하게 압축하여 서술하면서도 론리가 정연하여 앞뒤의 모순이 없고 그 내용을 똑똑하게 나타내는 언어의 표현적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상은 내용을 이루며 문체는 형식을 이룬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 깊은 상관적 관계를 가진 즉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룬다. 따라서 언어적 형식 즉 문체의 간결, 정확, 명료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정당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내용은 우수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되였을 때 비로소 생활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훌륭한 문풍을 이룬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의 립장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풍에 대해서는 봉건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글을 씀에 있어서 어떤 립장에 서는가, 누구를 위하여서인가에 따라 문풍의 성격은 달라진다.

낡은 사회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고 소위 아름다운 말과 글'귀의 바렬에 그치며 허위가 가득찬 반인민적인 문풍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러한 문풍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글은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급들의 취미와 도락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진정한 문풍은 인민적 언어의 온갖 우수성과 풍부성을 남김 없이 리용하여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도록 하는, 글을 읽는 사람의 립장의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더우기 인민적 문풍은 언어에 내재하는 인민적 성격, 그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 성격에 부합되게 말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계급적 립장과 태도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적 문풍이란 인민적 립장, 당적 립장에서 쓴 그러한 글이 가지는 풍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풍은 오늘날 로동당 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게 되였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이 자기 활동과 지도의 전 행정에서 모든 혁명 사업을 오직 인민 대중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또한 혁명 수행이 인민 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당의 군중 로선과 인민적 사업 작풍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적 시책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언어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철두철미 인민적 립장이며 어데까지나 당적 립장이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는 그 사회 성원들에 동일하게 복무하는 만큼 언어 그 자체에는 계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이러저러한 계급들과 집단들은 언어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의 관점과 립장은 어데까지나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되며 언어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을 규정하는바 이것은 사회 제도 여하에 따라, 사람들이 어떠한 립장에 서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

이미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창조자는 인민이며 또 이를 발단시키는 것도 인민이다. 때문에 언어 사용에서 인민적 립장에 서며 언어를 인민 대중들에게 복무하도록 혁명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동시에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적 당적 립장이다.

우리 당은 언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서 민족어가 노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민족어의 개화 발전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의 민족어는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건설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 남반부의 언어 상태는 이와는 판이한 길을 걷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시책으로 말미암아 남반부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으며 문맹은 날로 증대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은 과학과 문화의 령역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단일한 민족이며 단일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자는 점차 달라져 가고 있으며 문화와 생활 풍습도 달라져 가고 있다.

오늘 남반부에서는 우리의 찬란한 민족 문화, 예로부터 하나의 길로 발달하여 온 우리 민족어의 자주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민족어의 아름다운 전통은 여지 없이 더럽혀지고 있다.

모든 출판물들은 국한문을 섞어 쓰고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와 영어, 일본어 등 외래어가 뒤섞이여 있으며 게다가 괴벽하고도 까다로운 말투나 표현들로 하여 아름답고도 우수한 우리의 민족어는 완전히 자주성을 잃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언어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어휘 구성은 사회의 온갖 변화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다. 때문에 오늘 남반부에서의 부패한 양키식 문화와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은 남반부의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여 민족어의 인민성은 그림자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반동적 문화인들은 인민들이야 알거나 모르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유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 언어를 뒤섞은 괴상하고 야릇한 언어적 형식으로써 인민들을 우롱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아름답고도 우수한 우리 민족어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제의 야수적인 식민지 통치와 악랄한 조선어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모국어를 끝까지 고수하여 온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국 통일을 촉진하며 앞으로 통일된 후 남반부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구원할 튼튼한 물질적 담보가 있으며 남반부의 어지러워진 언어 상태를 바로 잡을 튼튼한 인민적 언어 토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의 정확한 인민적 언어 정책과 현명한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며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 과업이 남아 있다.

자주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백 남 운

자주성은 조국 통일의 기본 원칙

어떠한 민족을 막론하고 자주성이 없이는 무엇 하나 자기 마음 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전 조선 인민이 망국노의 생활을 한 것도, 해방 후 남조선 인민들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도 그들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주권을 침해 유린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조선이 북조선과 같이 자기 의사 대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도 이미 실현된 지 오랬을 것이다.

조선의 통일 문제를 조선 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선의 주인은 바로 조선 사람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매개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민족 자주 자결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조국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성을 확고 부동한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 연설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며 오직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전 조선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내여 맡기자는 것이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유구한 력사적 전통을 가진 통일된 국가, 단일한 민족을 두 부분으로 분렬한 인공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혈연적인 련계의 회복과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인 만큼 어떤 국제적 분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한 것이며 민족적 자주권에 속한 문제인 것이다.

조선을 분할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자들만이 이 엄연한 진실을 무시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조선의 통일 문제가 완전히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인 까닭에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조선 인민 자신의 힘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가 조선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족적 자주 자결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 추종분자들은 아직도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할 것을 망상하며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10 여 년 동안이나 되뇌이고 있다. 도대체 유엔 감시 하의 선거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

오늘날 유엔의 이름은 미제의 침략 행동을 은폐하는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더구나 조선에서 유엔은 교전 일방으로 되였으며 오늘까지도 미제 침략자들은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유엔의 감시란 사실 상 미국 침략자들의 신식민주의를 연장하기 위한 감시라는 것은 삼척 동자에게도 명백하다.

미제 감시 하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친미 주구들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은 해방 후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선거 놀음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사실 상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운운하는 자들은 미제의 간섭과 비호가 없이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며 민족 자주적인 통일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무엇 때문에 조선 인민이 자기 조국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를 양키들의 간섭에 맡겨야 하겠는가!

동서 고금의 여러 나라의 력사적 증거들은 그만 두고라도 우리 나라의 근세사와 해방 후 18 년간에 걸친 미제의 남조선 통치사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명확히 보여 주지 않는가!

리조 말엽에 송 병준, 리 용구, 리 완용 등 친일 주구들은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민족을 팔아 먹고 당시 조선의 숨통을 졸라매면서도 나라의 《독립》이니 《협화》니 하고 뇌까렸던 것이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 승만, 장 면, 박 정희 등 력대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 미제에 아부 굴종하고 그 친미 《반공》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를 오늘과 같은 파국에 몰아 넣었으며 미군 총검 하에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무권리와 부자유, 인간 생지옥의 참경에 떨어지게 하였다.

생동한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외세 의존으로는 나라의 자립도, 조국의 통일 문제도 조선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능히 외세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 상에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 수천 년간의 민족 문화를 창조한 우리 조선 인민은 외적들의 마수가 뻗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해 낸 애국적 전통과 단일 민족으로 형성 발전된 자주적 정신을 이어 받은 민족이며 백전 백승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고 있는 민족이다.

특히 해방 후 북조선에 창설된 새 사회, 새 제도, 새 생활은 조선 인민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력력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당의 령도 밑에 자주성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관철하였고 이 원칙에서 조선 민족의 새 나라를 세우고 인민 경제를 건설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북반부는 우리 민족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주,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요새로 전변되였다.

북반부에 축성된 이 물질 기술적 혁명과 남반부 인민들의 힘을 합친다면 조선 민족은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과 민주 독립을 능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남북의 힘, 전 민족의 힘을 합치려고 할 대신에 《승공 통일》을 떠벌리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승공 통일》이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제쳐 놓고 분렬된 조국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적 권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가장 철저한 애국자들이다.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형언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일편 단심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15 성상이나 피어린 투쟁을 헌신적

으로 전개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의 지도자로서 해방 후 북반부에서 국토와 나라의 재부를 개발하고 민족 경제의 터전을 마련하여 인민들을 잘 살게 하며 민족의 갱생과 번영의 대로를 개척하는 새 조국 창건의 위업을 달성해 놓았다.

이와 같이 조선 민족의 영구 번영의 길을 개척하고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쳐 놓고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는 인류 사회의 태양이며 조선 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반공》 구호는 분할 통치를 유지하려는 방패에 불과한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결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평화 통일은 오직 남북의 힘을 합치고 미군을 몰아 냄으로써만, 전 민족이 단합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민족의 주체적 력량과 자주, 자립 정신, 이것이 없이는 나라의 통일과 독립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완전한 민족적 자주권, 정치, 경제, 군사적 자주성—오직 이것만이 남조선에 조성된 현 파국적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이며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다.

남조선에서의 자주성의 보장은 조국 통일을 위한 초미의 문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북의 어느 일방이 자주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외세의 예속 하에 있을 때에는 자주적 통일이란 실현될 수 없다.

오늘 남북 조선의 상반되는 현실은 엄연한 객관적 판단력을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남반부의 암흑상은 민족 자주, 자결권이 결여된 식민지의 산물이라면 북반부의 번영은 완전한 민족적 자주성의 산물이다.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압력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손에 그러한 자주권이 없고 강점자 미제가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의 지휘봉을 장악하고 있다.

일제의 패망 후 북반부에 진주하였던 쏘련 군대는 해방적 방조적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체 행정권을 우리에게 넘겨 주었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완전히 주권을 행사하며 자기 손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며 자기의 자유로운 창조적 로력으로 새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자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돌아 갔다.

미제 침략자들이 강요한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도와 주기 위하여 출전하였던 중국 인민 지원군도 정전 이후 우리의 요구 대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 군대는 맥아더가 자기의 첫 포고문에서 로골적으로 선포한 바와 같이 강점자로서 침략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 쥐였으며 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전쟁까지 도발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예속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인민의 지주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아직도 물러 가려 하지 않는다.

남북 조선에 조성된 서로 판이한 사실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면에서 쌍방에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결

과를 가져다 주었다.

북반부에서는 우리 인민이 처음부터 자기의 손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자기의 힘으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손에 국가 주권과 생산 수단을 튼튼히 틀어 쥐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조선 인민 자신이 창건한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이러저러한 간판을 갈아 대면서 종래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연장하여 왔다.

미제는 남조선을 마치 자주적인 《주권 국가》인듯이 묘사하며 《민주주의》니, 《대의제 정부》니 하며 선전하여 왔지만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선거》란 완전한 허위 날조이며 《대한 민국 정부》란 미군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침략자들의 위장물이며 일제 말기의 《만주국》의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 남조선의 군사 《정권》도 미제가 오래 동안 길러온 특무들을 조종하여 꾸며 낸 것이며 미제의 지시에 따라 친미 《반공》의 예속화 정책을 집행하는 괴뢰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실 상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미국 대사이다. 미국 대사는 워싱톤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의 괴뢰 정권을 지휘 조종하며 괴뢰 정권의 주요 시책들을 작성하며 남조선의 산업, 재정, 금융, 교통, 운수, 무역, 농업 등 중요한 경제 정책들을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4. 19 전후의 맥코노이, 《군사 정변》 전후 및 최근 시기 번장극인 《민정 이양》을 앞둔 버거 등의 행동은 식민지 총독으로서의 미국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남조선의 《경향 신문》도 《오늘의 정권은 그 한 초점을 미국 대사의 거동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정치적 위기가 래습할 때마다 국민은 미국 대사관 주변의 동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리유는 설명이 무색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우리 인민이 양키들에게 그 어떤 민족적 멸시와 모욕, 만행과 박해를 당해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며 어떠한 대책도 세울수 없다.

미군과 미국인들의 어떠한 죄행도 《대한 민국 국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양키들이 떠벌리는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구호는 모두 다 치위며 식민지 통치를 미화하려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괴뢰 정권이 어떻게 민족 자주권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원조》의 미명 하에 남조선 경제의 약탈한 파괴자로 등장하였으며 완전한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1948년 《한 미 원조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미명 하에 무려 100여 억 딸라의 군사 장비와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투입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더욱 철저히 딸라의 지배 하에 예속시키고 말았다.

미제는 소위 《원조》의 올가미로써 남조선 경제를 자기 수중에 장악할 수 있는 지배 체계를 수립하고 그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각종 《협정》들을 괴뢰 정권에게 강요하였다.

이 기간에 미제와 괴뢰 정권 간에 조작된 각종 협정들은 《한 미 경제 및 원조 협정》,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에 관한 협약》 등을 비롯하여 무려 10여 종에 달하는바 이 모든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은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 예속 관계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 《조약》 및 《협정》들에 기초하여 남조선 지배층은 미국 정부에 남조선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무제한한 감독권을 넘겨 주었으며 미국 독점 자본의 략탈할 길을 열어 주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의 모든 재정 금융, 경제 계획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미제의 사전 검토와 비준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좌지우지할 특권이 부여되였다.

미제는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공간을 조직하고 경제 명맥의 모든 고리에 침투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주권, 돈'궤, 쌀'독 등의 주인이 못 되면 누가 대통령, 누가 국무 총리가 되든 그들은 주권, 쌀'독, 돈'궤를 장악한 상전의 사환'군으로 밖에 달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며 오늘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의 내막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오늘 남조선 괴뢰 정부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의 승인이 없이는 《원조》 및 대충 자금의 한 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부터 관영 료금의 인상에 이르기까지 경제 생활의 전 령역에 걸쳐 그 어느 한 가지도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원조》 물자에 의한 경제의 지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조선 공업과 농업을 미국 경제에 예속시키고 군사 경제의 부속물로 만드는 정책을 일관하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철저히 예속되였다.

그러나 북반부는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북반부에는 원래 민족이 자립할 만한 경제적 토대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전쟁의 폐허 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쪼개 쓰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는 필요한 거의 모든 기계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중공업과 인민의 수요를 자기 식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공업을 창설하여 놓았으며 중공업,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마련하여 놓았으며 기술 인재를 자체로 다 양성하고 있으며 그 어려운 식량 문제도 자체로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자주권, 민족적 자주 독립을 고수하며 더욱 튼튼히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로 생산한 공업 제품 및 화학 제품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국제 무역, 국제 분업에 참가한다.

우리는 외국의 원조도 받았지만 완전히 주체적 립장에서 그것을 자립 경제를 건설할 목적에 적응하도록 타산하면서 받았고 또 그렇게 리용하였다.

우리는 모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하는 방법에서도 누구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주적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였다.

우리 북반부에는 오래 전부터 실업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동력이 부족할 정도로 생산이 급속히 확장되며 장성한다. 사회 문화 부문에서도 청소년들은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며 장년들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으며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문제가 전연 다르다.

현대적 제강소 하나, 기계 공장 하나 없으며 수공업적인 소규모 공장들도 자체로는 원료와 자재를 보장할 수 없으며 미국의 잉여 량곡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주민의 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

실업자는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으며 모든 물가는 열병적으로 뛰여 오르며 만성적인 식량 기근은 해마다 우심하여 간다.

이러한 경제 형편에서 생산의 확장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어려운 현실이다.

남북 조선에서의 이와 같은 상반된 현실—북반부의 완전한 자립 경제와 남반부의 완전한 예속 경제는 자주성과

예속성이 각이하게 빚어 낸 필연적인 산물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군대의 통수권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미 군사고문들은 괴뢰 정부의 국방부로부터 군단, 사단, 련대, 대대, 훈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배치되여 괴뢰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미제는 괴뢰군 장령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군사 문제 전반에 걸친 보고를 받으며 지시와 명령을 하달한다.

남조선 군대가 얼마나 철저히 미군에 예속되였는가 하는 것은 괴뢰 정부의 전 주미 대사란 자가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도 2일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실토한 데서도 넉넉히 알 수 있다.

미국 사람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남조선 괴뢰군은 《미국 무장력의 연장이며 보충물》(미 군사 잡지 《군사 평론》)에 불과하다.

과연 총 한 방 쏘자고 해도, 휘발유 한 그람을 쓰자고 해도 미제의 지령을 받아야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 무슨 자주권을 론할 수 있겠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공화국 북반부는 군사 부문에서도 완전한 자주성을 발휘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란 원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압박과 사람들 간의 인권상 불평등을 반대하여 나선 사람들이며 그것을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싸우는 투사들이다.

이러한 공통적 리념과 목표를 가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그 어떤 예속 상태나 압박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 범위에서 호상 보조를 맞추어 통일적으로 행동하며 서로 협조하는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압박과 예속, 불평등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하며 독자적으로 집행한다.

공화국 정부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완전히 자주적인 까닭에 모든 대내 대외 정책을 우리 민족의 권익에 알맞게 수립하고 집행한다.

북조선은 대외 분야에서도 자주적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도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 민족 보위를 위한 민족 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철저한 자주성 원칙에서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게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며 호혜적으로 협조한다.

우리는 민족의 권익과 자주권에 부합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교 관계도 무역 관계도 설정할 수 없다는 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주적인 까닭에 조국 통일 문제를 자주, 평화,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언제나 조성된 정세에 상응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후에도 당과 정부는 남북 협상과 경제, 문화 교류를 루차 제의하였으며 남북 간의 련방제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 정권에게는 민족적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의 애국적인 제안들이 외세의 압력으로 인하여 모조리 거부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 통일을 위한 똑똑한 방안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혹은 남조선 당국이 인민의 압력에 못이겨 비록 북반부와의 초보적인 접촉이나 협상을 해 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선 상전의 눈치를 살펴야 하며 그의 배'속을 모르고는 아무 말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 한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8 차 회의의 제의가 있었을 때, 남조선 통신 보도에 의하면 1960년 11월 29일 서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판문점에서 협상 회의를 개최하자는 북조선의 제안을 한국 관리들이 수락하려면 사전에 그들은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있는 한, 그들의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 통일을 위한 그 어떤 효과적인 방책들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외세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 나서 완전한 민족적 자주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완전한 자주성의 보장은 조국 통일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남북이 합작하여야 한다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 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나라의 통일 독립이 보장된 일이란 없었다.

력사적 사실이 이러할진대 미제 침략자들을 조국 강토 안에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일체 불평등 매국 조약 및 협정들을 페기해 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미군 주둔을 무기한으로 허용한 《한 미 호상 방위 조약》을 비롯하여 미국에 대한 남조선의 예속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놓은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을 철페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군》의 지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국군》과 기타 모든 부문에 배치된 미국 《고문》들을 축출시키여야 한다.

《국군》은 더는 미제를 위하여 복무하는 고용군이 되지 말아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의 군대가 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국내 생활에 대한 미제의 일체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들의 전쟁 준비 정책과 략탈 정책을 걸음마다 분쇄하여야 한다. 군사 시설의 건설과 군수 물자의 수송 및 공급을 거부하며 군용지로 때앗긴 토지를 탈환하며 미군의 략탈, 강도 행위와 부녀자들 및 인민들에 대한 만행들을 결정적으로 저지시켜야 하며 미제 강점군에게 한 알의 쌀, 한 방울의 물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의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단결보다 더 강한 무기란 없다.

민족적 단결이 없이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더욱 파쑈화하며 민족 내부에 분화의 씨를 뿌리며 남조선을 계속 분할 통치하려는 미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들, 중 소 상공업자들, 애국적 자산가들, 종교인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몰아 내기 위한 구국 투쟁에 총 궐기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북반부의 애국적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의 철저한 합작만이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남북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는 데는 제도의 차이, 사상의 차이가 장애로 될 수 없다.

오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공산당과 보수당 및 자본 계급 정당들과의 합작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며 민족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가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4월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김 구씨를 비롯한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남북 련석 회의에서 민리 구국 대책을 토의하고 그

것을 실현하려고 공동으로 투쟁한 경험이 있었다.

본래 단일 민족인 조선 민족이 외제에 의한 일시적 분렬로부터 근본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어찌 제도나 사상의 차이 때문에 저해를 받아야 하겠는가.

더우기 그것은 민족의 사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다.

만일 진정으로 민족적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진실로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는 이 길에서 물러 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권익을 옹호하며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와 정치적 견해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미제의 악독한 민족 분렬 정책에 의하여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남조선에서 미국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는 데 첫 걸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 긴장 상태가 제거되면 우리는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 나 우리 민족 내부 력량을 단합하고 협조하는 길이 애국 애민의 길이며 현실적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북반부의 공업 지대와 남반부의 농업 지대를 련결시키며 전국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남북 조선의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남북 경제 교류는 남조선에서 대대적인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진행하고 대규모의 개간 사업을 추진시키며 현대적 농기계를 도입하는 등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할 것이다.

남북 경제 교류는 또한 시들어 가는 남조선 공업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게 될 것이며 원료 및 기자재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급속히 복구 재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남북이 합작만 하면 해결 못 할 문제란 없으며 돌파 못 할 난관이란 없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남조선 인민들의 참혹한 민생고를 능히 해결할 것이며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당분간 그냥 두고 련방 기구를 통하여 민족 공동의 리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하는 련방제를 실시한다면 남북 간의 신뢰와 리해를 촉진시키며 정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완전 통일을 달성하는 데 새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적 총 선거에 의하여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합작은 국토 량단, 민족 분렬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타률적으로 분단된 단일 민족인 우리 민족이 자률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응당한 론리의 귀결이다.

그러므로 남북 합작을 거부한다면 《민족적 앉은뱅이》로 굳어질 것이고 남북이 합작하는 날에는 남조선 정치 경제의 자주, 자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결국은 《군사 분계선》도 사라지게 되고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전 민족이 통일적 번영의 길에 들어 설 것이다.

기계 공업 발전에서의 새 단계

홍 성 주

최근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에 상응하게 기계 공업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우기 위하여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당이 취한 금번의 이 조치는 전국의 기계 공업을 하나의 지도 체계에 통합하고 전문화 협동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과 기계 공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의 자동화 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방침은 확연히 구별되는 두 과제를 자기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기계 공업의 조직과 관련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기술 발전과 관련한 것이다.

현 계단에서 이 두 과업은 기계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본 방도들이다.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는 것—이것은 금번 당이 새로 제시한 방침의 한 측면이다.

오늘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한다는 것은 그의 현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분산되였던 기계 공업을 기계 공업 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전문화 협동화의 원칙에서 기계 공업의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은 전문적인 성에 집중화된 중앙 기계 공업과 지방 기계 공업 그리고 다른 부문 성 단위로 조직된 기계 공업을 병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경제 건설의 일정한 단계에서 기계 공업의 이러한 조직 형태는 필요한 것이였으며 긍정적인 것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는 대규모 기계 공업을 관리 운영해 본 경험이 어렸고 기술 간부가 부족하였으며 또 기계 공업 자체의 기술 수준도 낮았다.

그런데 전후 시기 우리의 기계 공업에는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이 부과되여 있었다.

원래 락후한 데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허로 된 조건에서 전후 시기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 복구하고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또 우리는 남이 한 발'자국 갈 때 열 발'자국 가며 남이 열 발'자국 갈 때 백 발'자국 가는 속도로 모든 것을 빨리 건설해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필요한 각이한 기계 설비를 한꺼번에 생산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을 집중화된 기계 공업에만 의존하여서는 그것을 기동성 있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경제 건설의 일정한 단계에서 지방 기계 공업과 다른 부문 성 단위로 조직된 기계 공업으로 하여금 자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하면서 집중화된 중앙 기계 공업은 나라의 경제 토대의 건설과 새로운 공업 기지의 창설에 힘을 집중하게 한 당의 조치는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와서는 문제가 달리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는 크게 달라졌으며 기계 공업에 대한 그의 요구도 변동되였다.

우선 인민 경제의 물질적 토대가 정비되였고 생산이 비상히 장성되였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3 개년 계획 기간에 이미 복구의 과업을 수행하였고 5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7 개년 계획 첫 3 년간에 그것을 보강하고 완비하여 왔다.

인민 경제가 정비되고 그것이 거대한 규모로 장성된 오늘에 와서는 기계 공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는 보다 성능이 높고 보다 기술 조건이 잘 구비된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해 줄 것을 기계 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를 계기로 하여 앙양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는 현대적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를 격증시키고 있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뜨락또르, 자동차, 엑스까와또르, 공기 압축기, 착암기 등의 대형 기계들과 소형 공작 기계, 수지 가공 설비 등의 경공업 기계 설비들, 전기 기관차 변압기 등의 철도 운수 기계 설비 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계 설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기계 공업 자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났다. 과거 부속품이나 깎던 기계 공장들이 큰 기계 공장으로 발전되였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수 많은 기계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현대적 기계 공장을 능숙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경험도 축적되였고 간부 대렬과 기술 력량도 마련되였다.

이와 같이 기계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고 기계 공업에 대한 인민 경제의 요구도 달라진 오늘에 와서는 기계 공업의 종래와 같은 조직 형태는 더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였다.

기계 공업이 분산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결여된 테로부터 기계 공업의 부문 간, 기업소 간, 기종 간에서는 능력 리용에서 일정한 불균형이 생기게 되였다.

기계 공업성과 타성 산하 기계 공업 간의 설비 리용률 대비

기 계 공 업 성	100
전기 석탄 공업성	84
금속 화학 공업성	94
교 통 성	87

* 1963년 상반년 현재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기계 공장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비하여 생산을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현저히 제고하고 원가도 훨씬 저하시킬 수 있다.

기계 공업의 분산성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기술 력량의 효과적인 리용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의 전 과정은 현 시기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확립할 데 대한 문제를 성숙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금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방침의 다른 한 측면은 기계 공업에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당이 기계 공업을 정비하는 문제와 함께 자동화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하는 근거는 어데 있는가.

그것은 우선 기계 공업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앞서 기술 혁명을 수행하고 그 앞장에 서서 인민 경제 전체를 기술 혁명에로 잘 이끌자는 데 있다.

당은 전면적인 기술 혁명을 7 개년 계획의 주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그의 추진을 위하여 최대의 힘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 혁명이 급속히 실현되고 있는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이 증대되는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계 공업 자체의 기술 개건을 하는 것이 긴절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소재 생산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여 주물 주강 단조품을 비롯한 소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주물 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주물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물 생산의 전문화를 적극 실시하며 전 공정에서 원료 및 기술 관리를 개선하고 기술 공정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금형 주조, 정밀 주조 등 선진 주조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압연기, 연신기, 교정기 등 소재 재가공 설비를 갖추고 자체로 세밀한 각종 규격의 박판, 철선들을 생산해야 한다.

기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계 공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일층 개선하는 것이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공업 자체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긴절히 요구된다.

기계 공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설계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 시기 질 좋은 기계를 생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설계 력량을 강화하며 일'군들에게 설계를 대담하게 맡기고 실천을 통하여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설계를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요 공장에 대상별 전문 설계 기관을 조직하고 설계를 전문화하며 설계에 대한 엄격한 비준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기술적 지도의 개선에서 표준화 규격화 사업의 강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전문화 협동화의 발전과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준 설계를 작성하여 생산에 도입하며 광산 기계 치차를 비롯한 현존 설비들의 마모 부속품들을 최대한으로 통일시키며 볼트, 낫트 등 련결 부속품의 상용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자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간부를 예견성 있게 양성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는 기계 공학 및 자동화 리론을 전공하는 과학 기술 일'군들과 설계 일'군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 공업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기술 일'군들의 자질 향상에 집중한 주의를 돌리며 그들을 고착시키고 기술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로동자들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자면 또한 이 부문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현 시기 기계 공업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업은 우리 나라 실정에 적응한 새로운 기계들 특히 고도로 정밀하고 성능이 높은 자동 기계 자동화 기구를 창안 제작하며 현존 기계 공장들에 대한 합리적인 자동화 방법들을 연구해 내는 것이다.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현존 과학 연구 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계 공장 자체에서도 시험 연구실을 조직하고 기본 생산 제품에 대한 종합적 시험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외국의 경험 그의 발전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좋은 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기계 공업에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새 방침을 관철

하기 위하여서는 련관된 인민 경제 부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특수강 정질 합금을 비롯한 각종 금속 재료들을 재질별 규격별로,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합성 수지 절연물 도장 재료를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며, 경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지류와 다양한 특수 고무 제품을, 림업 부문에서는 목형 용재를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 *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새로운 방침은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벌써 많은 일들이 진행되였다.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새로운 방침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찾아 보게 된다. 앞으로 새로운 방침이 더욱더 큰 우월성을 나타내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새로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의 우월성을 백방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당의 금번의 방침에 근거하여 기계 공업 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기계 공업 부문에서 대안 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기계 공업 위원회의 조직은 기계 공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

기계 공업 부문의 일'군들은 새 체계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기계 공업의 생산 조직을 전문화 협동화의 원칙에서 개선함으로써 종래 그의 분산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리용되지 못하였던 기계 공업의 능력을 생산 발전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지도에서 고도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보장하며 기업 관리 운영에 생산자 대중을 광범히 인입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새 체계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기계 공업의 자동화 반 자동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문제는 현 시기 기계 공업 부문 당 조직들과 당원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이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부문 당 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당 조직들은 현 시기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력 강화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을 대중에게 잘 납득시키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이 새로운 방침의 관철에 한결 같이 나서도록 할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이 사업의 집행 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급성 기관 본위주의 보수성 등 온갖 부정적 현상을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서 나온 새로운 싹을 적극 받아 들이고 조장 발전시켜야 한다.

기계 공업 부문 당 조직들은 근로자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케 하며 전 군중적 운동으로 자동화 기계, 자동화 기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기계 공업 부문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금번 타성으로부터 기계 공업 위원회에 새로 이관된 기계 공장들의 간부들을 꾸리며 그들의 지도 수준과 기술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다.

또한 기계 공업 부문 당 조직들은 기술자들 고급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일층 개선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자와 로동자들 간의 합작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 공업 부문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현 시기 기계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현 시기 기계 공업의 자동화가 강조되는 리유는 또한 그것이 기계 공업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당면한 방도로 된다는 데 있다.

오늘 우리 기계 공업은 높은 기술 발전 단계에 처해 있다. 이미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자동화가 일정한 정도로 실현된 기계 공업은 지금 자동화의 강력한 추진이 당면한 과제로 되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계 공업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기계 공업의 자동화를 그의 정비와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기계 공업의 정비가 자체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게 하며 생산에서 전문화, 협동화를 심화시킴으로서 자동화의 촉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기계 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 시기 유일하게 옳은 방도로 되는 것은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고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다.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금번의 조치는 기계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기계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케 한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성의 제고 정형

농업 위원회 남시 농기계 공장	121.2
[illegible]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160
[illegible] 신천 종합 기계 공장	125.4

※ [illegible] 7[illegible]에 비한 10[illegible]의 실적

이것은 전국의 기계 공업이 기계 공업 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화 사업이 개선되고 생산의 전문화가 강화된 데서 얻어진 것이다.

당의 새로운 방침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기 주되는 혁명 과업—종업원 1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으로 제고시킬 데 대한 과업을 해결하는 기본 고리로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침의 관철은 가장 적은 투자로써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여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일층 튼튼히 꾸리게 하며 우리 나라를 발전된 공업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당의 경제 건설의 기본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또한 새로운 방침의 관철은 기술 혁명의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인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헐하고 문화적으로 일하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임무를 해결하는 데서 큰 전진을 가져 오게 할 것이다.

* *

금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고 그의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계단에서 중공업을 강화하는 기본이며 기술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 문제이다.

기계 공업을 정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전문화를 강화하는 원칙에서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계 공업의 정비 사업은 일정한 기간 현존 공장들의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장들의 실태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생산의 전문화에 유리한 공장을 선택하고 생산을 점차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 공장으로부터 다른 공장으로 제품 생산을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을 2 중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비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기계 공업에서 공작 기계의 기종 간 구성을 개선하고 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공작 기계의 기종 간 구성에서 부족점은 선반, 볼반 등의 보통 공작 기계에 비하여 치절반, 연마반 등의 특수 공작 기계와 대형 공작 기계들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보통 만능 선반 생산을 적게 하고 특수 공작 기계의 생산을 증대하는 동시에 그의 리용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종 간 구성의 개선에서 현 시기 또한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생산 공정에 리용되고 있는 만능 공작 기계를 단능 기계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 교체는 귀중한 만능 공작 기계를 얻어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성을 제고케 한다.

만약 덕천 자동차 공장과 기양 뜨락또르 공장들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모든 공정에 단능 기계를 도입한다면 거기에서 수백 대의 만능 기계를 얻어 낼 수 있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자체로 단능 공작 기계를 생산하여 만능 기계와 교체하며 담구된 만능 기계들로써 공구 직장, 기계화 직장들을 강화하며 새로운 생산 부문을 창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공업을 정비하는 당국의 목적은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일층 광범히 실시하자는 데 있다.

기계 공업이 통합된 새로운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은 우선별로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전문화 협동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기계 공장들의 기술 장비 생산 경험 련지적 조건 기반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한 개 기업소씩 그의 성격, 규모, 발전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다량적으로 소요되는 규격, 리권 부속품들—볼트, 나트, 치차 등을 전문화함으로써 공무 직장들이 설비 보수에 필요한 개별 부속품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기계 공업 자체에서 자동화 반 자동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기계 공업은 기계화를 계속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술 발전의 최고 형태인 자동화 및 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그런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기계 공업에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전반적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만 현존 로력과 현존 설비로써 생산을 배가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기계 공장을 성능이 높고 자동화 반 자동화된 현대적 설비로 꾸리자면 무엇보다도 공작 기계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공작 기계 공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있는 공작 기계 공장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일부 부족되는 부문을 확장하는 한편 새 공작 기계 공장의 준설도 예견해야 한다.

자동화 반 자동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기계화 직장 설치 작업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자동화 반 자동화에서 우리는 국가에만 의존하려거나 또는 큰 것만 바라 보려고 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일반 공작 기계에 능률적인 부대 장치 자동 장치들을 제작 도입하여 그의 성능을 높이며 생산 능률을 훨씬 제고해야 한다.

자동화 반 자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자동화 모범 공장을 창조하고 자동화 사업 경험을 축적하며 기계 공업 발전에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

자동화된 새로운 기계 설비를 생산하자면 그에 필요한 각종 전기 기계 전기 기구 및 측정 수단의 생산을 강화함과 함께 소재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재 생산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기계의 질과 가공 능률을 제고할 수 없다.

양풍에 대하여

리 성 곤

양풍이란, 부르죠아들의 타락하고 퇴폐한 생활 양식이다. 양풍은 부르죠아들의 개인적 리해 타산과 금전 관계에 기초한 생활 양식이며, 황금으로 자기들의 속물적인 향락을 충족시키며 사람들을 희롱하는 비도덕적인 생활 양식이다. 특히 양풍은 극도로 타락하고 기생화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심리와 인습 및 취미를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생활 양식에서는 쟈즈, 만보, 트위스트 등의 색정적이고 추잡한 노래와 춤이 《지상의 예술》로 간주되며 《곤두라지게 먹고》 《진탕거리고》 노는 것이 삶의 전체 목적으로 된다. 또한 이 생활 양식에서는 렵기적이고 변태적이며 광신적인 오락과 깡그식의 협잡, 강도, 사기, 강간, 살인 등이 삶의 쾌락으로 간주된다.

부르죠아들은 양풍을 비단 저들의 속물적 취미의 충족물로서 뿐만 아니라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피착취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사회 생활은 양풍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에서 양풍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도 미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의하여 양풍이 만연되였으며 그것은 인민 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을 좀먹는 마취제로 되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양풍을 또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복귀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양풍을 사회주의 나라들에 침습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이러한 목적을 대변하여 사회주의 국가 내에 양풍을 전파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양풍을 《시대적 류행》이니 《국제적 생활 양식》이니 하고 떠들면서 그것을 근로자들 속에 적극 류포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정주의자들은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생활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며 무규률을 조성하고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정치-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양풍을 반대하는 투쟁은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양풍과 현대 수정주의가 서로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정주의와 양풍은 사촌 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정주의가 들어 오면 양풍이 들어 오고 양풍이 들어 오면 수정주의가 들어 온다.》

원래 사회주의 나라들은 그 제도의 본질로 보아 양풍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양풍은 적대되는 생활 양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만큼 만일 그들 속에서 계급 교양이 부단히 강화되지 않고 안일과

해이가 목과되거나 또 외부로부터의 양풍의 침투가 적극 방지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활 양식에 물들 수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현실은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의 양풍의 류행은 전적으로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의식적인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리용하여 한편으로는 나라를 《자유주의화》하고, 사회주의적 규률과 질서를 파괴하고, 계급 교양을 하지 않으며 다른 편으로는 양풍을 음으로 양으로 수입하여 전파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양풍을 전파시키는 목적은 저들의 수정주의적 사상의 공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종국적으로는 부르죠아 제도를 복귀하기 위해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사상이 독자적인 사상 조류로서 형성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지지자들이 있어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지지자들을 얻기 위하여 양풍을 리용하고 있다.

양풍은 우선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농후한 서방 숭배자들, 혁명을 싫어하는 건달'군들, 특히는 부화한 청년들 속에서 인기를 획득한다.

청년들은 새 것에 민감하고 모든 것에 반응력이 강한 것으로서 특징적이다. 그런데다 아직 사회적 경험이 적고 혁명적 세련을 적게 받은 데로부터 진짜 새 것과 겉으로만 새 것으로 보이는 낡은 것,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식별하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청년들의 이런 특성을 악리용하여 마치 청년들의 특성과 감정에 맞게 정책을 하는듯한 《인기 전술》로써 양풍을 전파하고 있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의 각전치 못 한 청년들은 점차 양풍에 물젖어 들어 가고 있다.

양풍에 걸린 청년들은 젊은 패기와 정열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바칠 대신에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

양풍은 또한 혁명적 원칙과 지조가 약한 인테리들을 쉽사리 감염시키고 있다. 인테리들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 지조가 굳건하지 못 한 때에는 물밀듯이 들어 오는 양풍에 저항하지 못 하고 동요하게 되며 마침내는 그것에 물젖고 만다. 양풍은 특히 민족 허무주의와 서방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고 생활에서 안일하고 부화한 인테리들에게 쉽게 오염된다.

어떤 나라의 불건전한 작가, 예술가들은 양풍에 물젖어 《전 인류적 문학》, 《전 인민적 예술》을 운운하면서 문학 예술 창작에서 당성, 인민성을 거부하며, 《창작의 자유》, 《개성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실제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적 자연주의 창작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양풍은 로동자, 농민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계급적 바탕이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혁명이 오래 걸리고 생활이 풍만해지는 데 병행하여 혁명적 수양을 위한 교양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안일성이 나올 수 있으며 그리하여 양풍이 들어 올 때 그에 저항하지 못 하고 오염되고 만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에는 공허란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이 희박해지면 그 만큼 부르죠아 사상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견실했고 혁명가적 기풍이 강하였으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헌신적이였던 로동자, 농민들, 혁명 투사들이 양풍에 걸려 계급적 립장을 저버리고 개인 향락에 빠지고 있는 것은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양풍은 인민 대중의 정치-도덕 생활에 막대한 해독을 주고 있다.

양풍의 해독성은 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도덕 규범과 혁명적 생활 기풍을 파괴하고 속물적인 취미, 인습에 빠지게 한다는 데 있다.

양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적 생활 규범에 기초하여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적 립장에 전락되여 생활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서 삶의 영예와 행복을 찾을 대신에 오로지 개인의 리익과 저속한 향락을 삶의 전부로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와 인민을 위한 헌신성, 충실성, 창조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양풍에 걸리면 로동을 천시하며 점차 건달'군으로 전락되며 기생적인 생활을 즐기게 된다.

또한 인간들의 호상 관계에서 공산주의적 의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주의와 허위, 위선, 멸시적 감정과 심리가 작용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호상 관계에서 파렴치하고 잔인 무도해진다. 또한 생활에서는 검박하고 소박할 대신에 라태해지며 부화해지며 돈만 아는 속물적인 인간으로 전락된다.

양풍에 걸린 어떤 나라의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배터지게 먹는 것, 곤드라지게 마시는 것, 술'집에 찾아 가는 것, 영화를 구경하는 것, 미친듯이 차를 모는 것, 멋진 쟈케트, 새 춤, 새 미국 노래—이것은 생활의 요구이다.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 만사는 나의 것이다.》

이러한 속물적인 인간으로 전락된 사람은 자기의 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인간적, 비도덕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감행한다.

그리하여 양풍에 걸린 어떤 나라의 속물적인 인간들은 사회주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모리 간상 행위와 사기, 횡령, 협잡을 일삼으며 지어 도적, 강간, 살인의 만행까지 감행하고 있다.

양풍의 해독성은 또한 사람들을 정치-도덕적으로 타락시킴으로써 결국은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과 혁명의 리익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데 있다.

양풍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일신 상 평안과 안녕만을 념려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계급적 지조와 절개도 저버리며 혁명가로서의 원칙과 량심도 다 집어던진다. 계급적 의식은 마비되고 정치에는 암둔해진다.

양풍에 걸린 사람들은 정치와 혁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며 특히 계급적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 대해서는 질겁한다. 양풍에 걸린 자들은 될수 있는 한 혁명과 투쟁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며 안온과 태평만을 찾으려 한다.

오히려 이것을 위하여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고창하며 혁명적 규률, 질서를 반대하며 지어 당의 통제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여 나선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부르죠아 사회의 복귀를 요구하여 나서는 반역적인 행위이다.

양풍의 해독성은 또한 부르죠아 사회 특히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을 고취한다는 데 있다.

양풍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생활에서 가정용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미국제》, 《미국식》이 아니면 싫다는 식으로 되여 간다. 그리하여 이런 자들은 《미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라면 염치도 체면도 다 저버리고 발광증을 부린다. 길 가는 외국 사람을 붙잡고 그 미국 상표가 붙은 쟈케트와 잔바를 당장 벗어 팔라고 한다. 지어 어떤 자들은 미국에 의존하며 미제와 협조할 때만이 잘 살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리하여 미국에 가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간주하며, 미국인으로 태여나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미국 숭배 사상으로 물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민족적 자부심, 주체와 자력 갱생의 정신이 있을 리 만무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이 있을

리 만무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을 양풍에 물젖게 함으로써 바로 미국 부르죠아 앞에 아부와 양보, 굴종하는 비굴한 정신을 조장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양풍과 같은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회적인 여론, 비난에 의하여 견디지 못하며 배격 당하고 만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는 양풍의 안내자인 수정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며 또 당의 옳은 계급 교양에 의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혁명 의식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할 근거는 없다. 우리도 안일해지면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에 의하여 양풍이 밀수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항상 혁명적 생활 기풍을 견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맑스-레닌주의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적 관점과 우리 당의 사상 체계로 무장하며 사대주의,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양풍 따위의 저속한 생활 양식이 붙을 수 없다.

특히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항일 빨찌산들처럼 일편 단심 혁명을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바치는 투사에게는 낡은 생활 양식이 붙을 수 없다.

양풍을 반대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적 도덕 교양을 적극 강화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도덕은 인류 력사 상 가장 고상한 도덕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도덕 원칙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며 일할 때 이와 배치되는 온갖 낡은 입습, 취미를 제때에 폭로하며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양풍이 침습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옳은 미적 관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수준이 높고 옳은 미적 관점에 설 때 생활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등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으며, 더럽고 추잡한 것, 저속한 것을 증오하며 그와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문화 수준을 높이며 정확한 미적 견해를 가지도록 부단히 학습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에게 혁명적인 생활 기풍이 철저히 확립될 때, 우리들이 혁명적으로 사고하며 건전할 때 양풍 따위의 부르죠아 생활 양식과 현대 수정주의가 발붙이지 못 할 것이며 또 이와 견결히 투쟁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의 두 로선

—《인민 일보》및《홍기》편집부 론설—

온 세상이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하여 론의하고 있다.

가증한 제국주의 제도는 세계 인민들에게 무수한 전쟁을 가져다 주었으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제국주의 전쟁은 인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고난을 겪게 하였으며 동시에 인민에게 교훈으로 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 인민은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세계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수호하자면 반드시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심중히 고려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나갈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들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들의 전쟁 계획을 파탄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대중을 교양하여 대중의 각성을 높이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과는 반대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제국주의를 방조하여 허위로써 대중을 기만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인민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며 이 투쟁을 약화, 파괴하며 제국주의의 새 전쟁을 위한 준비 계획을 엄호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로선과 수정주의 로선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로선은 세계 평화의 수호에 유리한 정확한 로선이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로선이다.

수정주의 로선은 새 전쟁 위험을 조장시키는 그릇된 로선이다. 그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쏘련 공산당 제 20 차 대회 이후 점차 발전시킨 로선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개 서한과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수 많은 발언들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많은 허위들을 날조하여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비방 중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상이의 본질을 은폐하지는 못 하였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로선과 수정주의 로선간의 주되는 의견 상이를 아래에 분석하려 한다.

력사적 교훈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발전된 후 전쟁과 평화 문제는 계속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되여 왔다.

제국주의는 현대 전쟁의 근원이다. 제국주의의 평화로 가장하는 기만 정책

과 전쟁 정책은 교체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흔히 평화라는 거짓말로 저들의 침략 죄행과 새 전쟁 준비를 은폐하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평화로 가장하는 제국주의의 기만을 반대하여 투쟁하라고 각국 인민들에게 꾸준히 호소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정부가 《말로는 강화와 공정을 운운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침략적인 강탈 전쟁을 수행》(레닌 전집 제 26 권, 311 페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쓰딸린은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는 평화주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즉 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화란 요란한 언사로 대중을 기만》(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391 페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제국주의적 평화주의를 평화의 도구라고 생각들 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제국주의적 평화주의는 전쟁 준비의 도구이며 또 이 전쟁 준비를 평화에 관한 위선적 언사로써 은폐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와 또 그 도구인 국제 련맹이 없이는 현 정세 하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쓰딸린 저작집 제 11 권, 279~280 페지)

레닌, 쓰딸린과는 반대로 제 2 국제당의 수정주의자들, 로동 계급의 반역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도발하는 데 있어서 흉악한 방조자로 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전에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를 대표자로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허위적인 평화의 언사를 다하여 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전쟁 준비 계획을 은폐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로 수정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국 제국주의 정부의 편에 서서 세계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하여 나섰으며 국회에서 군사비 지출에 찬성 투표하였으며 《조국 보위》의 허위적 구호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 로동자 형제들을 학살하는 전쟁에로 자국의 로동 계급을 내몰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적 조건에 따라 휴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였을 때 카우츠키를 대표로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또다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양보하는 평화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환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①고 하는 감언 리설로 인심을 유혹하고 혁명을 반대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후 배신자 카우츠키와 그의 계승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기만의 나팔수로서 더욱 공공연히 복무하였다.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제 2 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은 수 많은 허위를 류포시켰다.

(1) 그들은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세계 인민의 투쟁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평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국주의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미소한 것이다. 동방의 민족적 지향과 각이한 독재로부터 오는 위협이 더욱 크다.》②

이것은 전쟁의 근원이 제국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피압박 민족들과 위대한 평화의 성새인 쏘베트 국가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도와 새 전쟁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대중의 투지를 마비시켰다. 1928년에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지금 누가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성을 아직도 운운한다면 그는 우리 시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전통적인 도식에 기초하는 자이다.》③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자는 《력사에 대한 숙명론적인 리해의 신봉가이다.》④라고 주장하였다.

(3) 그들은 전쟁이 전 인류를 소멸시

킨다는 론조로써 인민 대중들을 위협하였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음 번 전쟁은 빈궁과 재난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인바 남는 것은(적어도 구라파에서) 전후에는 오직 연기나는 폐허와 썩고 있는 시체들 뿐일 것이다.》⑤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지난 전쟁은 전 세계로 하여금 매우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하였는바 다음 번 전쟁은 전 세계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새 전쟁을 준비하는 이 하나의 사실은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다.》⑥

(4) 그들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간의 계선을 가르지 않았으며 혁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1914년에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 정세 하에서 일반적으로는 민족들에게, 특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불행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전쟁이 유익하며 어떠한 전쟁이 해로운가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어떠한 수단으로 위협적인 전쟁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토의하였다.》⑦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구한 평화에 대한 지향은 모든 문명한 국가들의 광범한 대중을 더욱더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우리 시대의 진실로 크나큰 문제를 2차적인 것으로 일시 밀어 놓는다.》⑧

(5) 그들은 무기 만능 리론을 광고하였고 혁명적인 무장 투쟁을 반대하여 나섰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래의 혁명적 전투들이 무력에 의하여 더욱 드물게 결정될 것이라는 원인의 하나는 이미 여러 번 명백히 지적된 바와 같이 보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하여 현대 국가 군대의 무장이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있는바 이 우월성은 통례로 반항에 대한 시민들의 일체의 시도를 최초로부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⑨

(6) 그들은 군비 축소에 의하여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릇된 리론을 류포시켰다. 베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에 평화를 확립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 우리는 앉아 쉬여서는 안 된다. 사회로 하여금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앞으로 발전하게 하며 국제적 협정과 군비 축소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각 민족의 일률적인 권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⑩

(7) 그들은 군비 축소에 의하여 절약된 자금으로 락후한 나라들을 원조할 수 있다는 그릇된 리론을 류포시켰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구라파의 군사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많은 자금으로 중국, 페르샤, 토이기 및 남미 등 지역에서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사들을 〈용감한 배〉를 건조하는 데 비하면 그것은 공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⑪

(8) 그들은 제국주의의 《평화 전략》 작성에 기여하였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명한 구라파의 각 민족들(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은 군함과 비행기에 의거하는 것보다 자기의 경제 및 문화적 수단에 의거하는 것이 근동과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⑫

(9)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있는 국제 련맹을 높이 떠받들었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 련맹의 존재 자체만 하여도 평화 위업의 위대한 성과로 된다. 이 조직은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기구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한다.》⑬

(10) 그들은 미제에 의거하여 세계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환상을 류포시켰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다. 미국이 국제 련맹에서 또는 국제 련맹과 함께 전쟁 방지에 노력한다면 그것은 국제 련맹으로 하여금 불가항적인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⑭

레닌은 카우츠키와 같은 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무자비하게 폭로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자들의 평화주의는 《인민들에 대한 위안으로서의, 제 정부가 앞으로 제국주의적 살륙에서 대중을 순종시키는 것을 쉽게 해 주는 수단으로》(레닌 전집 제 23 권, 308 페지) 될 것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민주주의가 제국주의적 평화주의를 로동 계급 속에 끌어 들이는 주요한 매개자이며 따라서 사회 민주주의는 새 전쟁과 무력 간섭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로동 계급 내에 있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지주이라는 것이다.》 (쓰딸린 저작집 제 11 권, 280 페지)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흐루쑈브 동지의 발언을 한 번 읽어 보고 흐루쑈브의 언론과 베른슈타인 및 카우츠키의 언론을 비교하여 보기만 한다면 흐루쑈브의 견해가 결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의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운명과 관계되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흐루쑈브는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이것이 전 세계 평화 위업에 극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 평화를 효과적으로 고수하고 새 세계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흐루쑈브의 그릇된 로선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반대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최대의 기만

세상에는 지구 상의 평화의 주되는 원쑤를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이태리 및 일본 파시스트들을 대신하여 나선 미제는 세계에 전례 없는 대제국을 수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제의 《세계 전략》의 변함 없는 목적은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지대를 침략하여 이 지대를 저들의 통제 밑에 두며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의 불'길을 꺼버리며 나아가서 마침내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청산하고 전 세계에 대한 제패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세계 제패를 달성하려는 자기의 탐욕스러운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는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18 년 동안에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계속 부단히 침략 전쟁을 감행하며 반혁명적 무장 간섭을 실현하고 있으며 악랄하게 새 세계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제국주의가 여전히 현대 전쟁의 근원이며 우리 시대에 있어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에 명백하게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미제의 두목들을 평화 애호적 활동가로 보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정세를 건전하게 평가할 능력이 있는 《리성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와 케네디가 이 《리성적인》 사람들의 대표자로 되여 있다.

이전에 흐루쑈브는 아이젠하워가 《자국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평화를 진정으로 념원》하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시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였다.

지금 흐루쑈브는 또다시 케네디가 아이젠하워보다도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흐루쑈

보의 발언에 의하면 케네디는 《평화 유지에 대하여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지구 상에서의 평화로운 생활과 창조적 로동을 위한 믿음직한 조건의 보장》을 그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를 전파하고 제국주의를 미화함에 있어서 흐루쑈브는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자들과 꼭 같이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이러한 허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은 《모든 부르죠아 정부들이 자기들의 모든 사업에서 정말로 온갖 리성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맑스-레닌주의의 초보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계급 사회에서 초계급적 리성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에게는 프로레타리아적 리성이 있으며 그리고 부르죠아에게는 부르죠아적 리성이 있다. 리성이란 자기 계급의 근본적 리익에 따라 정책을 작성할 줄 알며 자기 계급의 근본적 립장에서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케네디 따위의 리성은 미국의 독점 부르죠아지의 근본적 리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바 그것은 즉 제국주의의 리성이다.

세계 무대에서 계급 력량 관계가 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되고 미제가 실시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이 거듭 실패를 겪는 조건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자주 평화의 가면으로 자기를 가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실로 케네디는 평화에 대한 미사려구를 잘 던질 줄도 알며 온갖 평화적 수법을 쓸 줄도 알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가면 밑에 실시하는 그의 기만 정책은 그의 전쟁 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두 미제의 《세계 전략》에 복무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미제의 《법과 정의에 기초한》 《자유 세계 제국의 공동체》에 온 지구를 통합할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의 기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부식시키는 것;

평화적 수단으로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침투를 실현하고 그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 밑에 두는 것;

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유고슬라비아식 《평화적 진화》의 길로 떠밀어 넣는 것;

평화적 수단으로 전 세계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한 최근의 자기 연설에서 케네디는 교만하게 미국과 쏘련 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선포하였다.

(1)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서독에 병합할 것;

(2) 사회주의 규바의 존재를 용허하지 말 것;

(3)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에 《자유로운 선택》의 길을 제공할 것, 즉 이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복구를 실현할 것;

(4)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지지를 허용하지 말 것;

될 수 있는 대로 《평화적 수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도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수법들 중의 하나이다.

자기의 지배를 보존하며 대외 팽창을 실현할 목적으로 반동 계급들은 항상 량면 수법 즉 목사들의 기만적 수법과 교형리들의 진압의 수법에 변함 없이 의거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가면을 쓴 기만 정책과 전쟁 정책은 언제나 서로 보충하며 서로 도와 주고 있다. 미국 독점 부르죠아지의 대변자인 케네디의 리성은 그가 오직 더욱더 교활하게 이 량면 수법을 적용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반동적 지배 계급들이 의거하는 주요한 수법은 변함 없이 폭력이며 그리고

목사와 같은 기만은 폭력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력 범위의 분할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힘의 립장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케네디는 아주 명백하게 언명하였다.

그는 《결국 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종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며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케네디가 정권에 들어 앉은 이후 소위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을 실시하면서 하나의 《다양한 군사 력량》을 시급히 창설하며 《전면적 실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전면 전쟁이거나 제한된 전쟁이거나 또는 핵 전쟁이거나 보통 전쟁이거나 큰 전쟁이거나 작은 전쟁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전쟁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케네디의 이러한 무모한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의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는 전례 없는 규모에 달하였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일부 자료들을 보기로 하자.

(1) 미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1960 회계 년도에 467억 딸라였던 것이 1964 회계 년도에는 600억 딸라로 증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는 평화 시기와 그리고 지어 조선 전쟁 시기에 지출한 수준을 초과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다.

(2) 얼마 전에 케네디는 최근 2년 남짓한 기간에 미국 《당직 전략 무력》의 관할 하에 있는 핵 무기의 수량은 2배로 증가하고 상시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륙군 사단수는 45% 장성하였으며 수송 비행기에 대한 주문량은 175%나 증가하고 《특수 게리라 부대》와 《반란 진압 부대》의 인원 수는 약 5배로 장성하였다고 말하였다.

(3) 미 전략 목표 합동 계획 참모부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핵 전쟁 진행 계획을 작성하였다.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금년 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심의되는 기간에 쏘련의 거의 모든 〈연하고〉(지상의) 〈절반 굳은〉(반 지하의) 군사 목표들과 그의 아주 공고한 많은 로케트 발사장들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도시 구역과 공업 구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 앞으로 공격하기 위한 예비로 되는 잘 보호된 무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겨누고 있는 자기의 로케트-핵 기지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으며 유도탄으로 장비된 해외의 핵 잠수함대의 배치를 현저히 강화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지휘 하에 있는 나토군은 금년에 동방으로 진출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야의 국경 지대에까지 바싹 접근하였다.

(4) 케네디 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자기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진압하는 데 리용할 목적으로 미 륙 해 공군 《특수 작전 부대》를 현저히 확장하였다.

미국은 남부 월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전변시켰다. 남부 월남 주둔 미군수는 1만 6천 명을 릉가하였다.

(5) 케네디 정부는 전쟁 지휘 기관들을 강화하였다. 케네디 정부는 《타격 사령부》를 설치하였는바 그의 관할 하에 륙군과 공군의 혼성 부대가 있다. 이 부대들은 항상 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 도발을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케네디 정부는 지상 및 지하 전국 군사 지휘 쎈터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비행기와 군함들에 각각 비상 공중 지휘소와 비상 해상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 사실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현 시기 가장 포악한 군국주의자들이며 새 세계 대전의 책동자들이며 전 세계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이 비록 흐루쑈브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찬송가를 불러 주어도 그들이 그 어떤

황홀한 천사로 되지 않았으며 호루쑈브가 향'불을 피워 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여도 그들이 인자한 보살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루쑈브가 제아무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하더라도 그들은 호루쑈브의 체면을 보아주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새로운 침략 및 전쟁 책동을 감행하면서 평화 제창자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으며 따라서 호루쑈브의 뺨을 련속 때리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미화 분식하고 있는 호루쑈브의 모든 날조가 비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의 비호자로 나서기를 그처럼 즐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매우 슬픈 일이다.

새 세계 대전 방지의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새 세계 대전을 맹렬히 준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을 인민 대중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새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는 언제나 아주 명백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모 택동 동지는 전후의 국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 세계 대전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명제를 내놓았다.

벌써 1946년에 모 택동 동지는 미국 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유명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결속된 지 오래지 않은 오늘날 미국 반동파들이 이처럼 요란스럽게 미 쏘 전쟁을 강조하면서 란장판을 이루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목적을 캐여 보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그들은 반쏘 구호 밑에서 미국의 로동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을 미친듯이 진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 팽창의 모든 대상국들을 미국의 부속물로 만들고 있는 판이다.

미국 인민 그리고 미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일체 국가의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국 반동파 및 각국에 있는 그 주구들의 진공을 반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투쟁이 승리하여야 제 3 차 세계 대전을 피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면할 수 없다.》

(모 택동 선집 조문판, 제 4 권, 1842 페지)

모 택동 동지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당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각국의 반동들은 반쏘적이며 반공산주의적이며 반인민적인 활동을 날로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쏘련 간에 반드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제 3 차 세계 대전은 필연적으로 발발할 것이다.》고 고아댔다.

장 개석 반동도 또한 중국 인민을 놀래울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선전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 당시 일부 동지들은 이와 같은 공갈에 겁을 먹고 미제의 지지를 받는 장 개석 반동의 무력 침공에 직면하여 나약성을 나타냈으며 반혁명 전쟁에 대하여 감히 혁명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하려고 하지 못 하였다.

모 택동 동지는 이와 반대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만일 세계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결정적이고도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새 세계 대전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 택동 동지의 이와 같은 과학적인 결론은 중국 혁명의 위대한 승리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국제 무대에서의 계급 력량 호상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1950년 6월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제 3 차 세계 대전의 발발의 가능성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제 3 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저애하는 전투적 력량은 대단히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다수 인민 대중의 각오 정도가 제고되고 있다. 전 세계의 공산당들이 가능한 모든 평화와 민주주의 력량을 계속 단합시키고 이 력량의 가일층의 발전을 달성한다면 새 세계 대전은 방지될 수 있다.》(《인민 일보》 1950년 6월 13일 부)

1957년 11월 각국 형제 당 대표들의 회의에서 모 택동 동지는 제 2 차 대전의 종결 후 국제 관계에서 일어 난 변화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현 국제 정세의 발전이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세를 형상적으로 특징짓기 위하여 중국의 한 고전 소설에서 취한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리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현 국제 정세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즉 사회주의 력량이 제국주의 세력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생각한다.》(선집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들은 종이범이다》)

모 택동 동지는 국제 무대에서의 계급 력량 관계를 분석한 데 기초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완전히 명백히 《동풍》의 개념에는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계급, 공산당들,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서풍》의 개념에는 다만 전쟁 세력들인 제국주의와 반동들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유의 정치적인 뜻은 극히 명백하며 적절한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표현을 지리적인, 인종적인, 혹은 기상학적인 개념으로 외곡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구라파와 북미에서의 민족 배타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방》 대렬에 끼여 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모 택동 동지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는 명제를 내놓은 것은 역시 주로 새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평화적 환경에서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였다.

우에서 지적한 모 택동 동지의 명제들은 중국 공산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견해이다.

이로부터 중국 공산당이 《새 세계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고의적으로 날조해 낸 요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로부터 제 3 차 세계 대전의 방지에 관한 명제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오래 전에 내놓은 것이며 결코 쏘련 공산당 20 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며 흐루쑈브의 그 어떠한 창조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흐루쑈브가 참말 조금도 창조한 것이 없는가? 아니다. 창조한 것이 있기는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이러한 이른바 창조란 결코 맑스-레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수정주의적인 것이다.

첫째로, 흐루쑈브는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서만 운운하고 세계 대전의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말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동시에 지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오직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며 두 방면에 준비를 갖춤으로써만 군중을 동원하여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을 진행하

는 데 유리하며 동시에 제국주의가 일단 세계 전쟁을 세계 인민들의 머리 우에 들씌울 때에는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 인민들이 무준비 상태에 처하여 손쓸 사이 없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흐루쑈브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새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위험을 폭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론거에 의한다면 제국주의는 실제 상 이미 평화 애호적인 제국주의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방조하여 대중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며 제국주의가 획책하는 새 전쟁 위험 앞에서 군중으로 하여금 경각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흐루쑈브는 새 세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멋 대로 보며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레닌주의의 리론은 이미 낡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새 세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이고 혁명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한 측면이다. 량자를 혼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쟁을 산생시킬 수 있는 토대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레닌이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발견한 객관적 법칙이다.

1952년 쓰딸린은 새 세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리론을 내놓으면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제거하려면 제국주의를 청산하여야 한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정확하였으며 흐루쑈브는 오유를 범하였다.

력사는 제국주의가 도발한 세계 전쟁은 두 번 밖에 안 되나 제국주의가 일으킨 기타 각양 각색의 전쟁은 무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세계 각지에서 특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 부단히 각종 류형의 국부 전쟁과 무장 충돌을 야기시켰다.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 특히는 미 제국주의가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거나 저들의 주구를 리용하여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피압박 민족과 피압박 국가들에 대하여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는 조건 하에서 민족 해방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 하에서의 민족 전쟁의 온갖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리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력사적으로 분명히 오유이며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구라파적 배외주의와 같은 것이다.》(전집 제 23 권, 96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반 사실은 부르죠아 반동파들이 무력으로 자국 인민들을 탄압하는 조건 하에서 국내 혁명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국내 전쟁도 역시 전쟁이다. 계급 투쟁을 시인하는 사람은 국내 전쟁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바, 국내 전쟁은 온갖 계급 사회에 있어서 계급 투쟁의 자연스러운, 일정한 정세 하에서는 불가피적인 계속이며 발전이며 칩예화이다. 모든 대혁명이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국내 전쟁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것을 망각하는 것은 극단의 기회주의로 떨어지며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전집 제 23 권, 96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력사 상 모든 나라의 대혁명은 거의 다 혁명 전쟁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미국의 독립 전쟁과 남북 전쟁은 하나의 실례로 된다. 불란서의 혁명도 하나의 실례로 된다. 로씨야의 혁명과 중국의 혁명도 물론 하나의 실례로 된다. 월남 혁명, 큐바 혁명, 알제리아 혁명 등등도 모두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역시 실례로 된다.

1871년 맑스는 제 1 국제당 창건 7 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파리 콤뮨의 경험을 총화하면서 계급적 통치와 계급적 억압을 소멸하기 위한 조건을 제기하였다. 그는 《우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여야만 이러한 변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바로 프로레타리아 군대이다. 로동 계급은 반드시 전쟁 마당에서 자신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1938년 모 택동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근거하여 로씨야 혁명과 중국 혁명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기하였다. 지금 이 명제도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공격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중국이 《호전적》이라는 론거이라고 말하고 있다.

존경하는 벗들, 당신들의 이러한 중상과 비방에 대하여 모 택동 동지는 벌써 25 년 전에 반박하였던 것이다.

모 택동 동지는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의 견지에서 보면 군대는 국가 정권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 정권을 탈취하려 하고 또 그것을 보전하려 한다면 강대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전쟁 만능론자〉라고 비웃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혁명 전쟁 만능론자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며 맑스주의적인 것이다.》(모 택동 선집 제 2 권, 868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모 택동 동지가 지적한 이 말이 과연 틀렸단 말인가? 수백 년간의 세계 각국의 부르죠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체 력사적 경험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모 택동 동지의 이 명제를 부인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 이미 총'대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어 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것이 좋은 일이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제 3 차 세계 대전을 방지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자기의 견해를 절대로 은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국 인민의 혁명 전쟁을 충심으로 지지한다. 바로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혁명 전쟁은 《력사가 아는 모든 전쟁 중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하고 정의에 맞는 참으로 위대한 전쟁이다.》(레닌 전집 제 8 권 1 분책, 148~149 페지) 만일 이 점을 가지고 우리를 호전적이라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가 참으로 피압박 인민과 피압박 민족의 편에 서 있으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줄 뿐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종래에도 이렇게 볼쉐위크를 《호전적이다.》라고 욕질하였으며 레닌, 쓰딸린과 같은 그러한 혁명의 수령도 《호전적》이라고 욕하였다. 우리가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욕지거리에 부딪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흐루쑈브와 기타 사람들은 제국주의가 아직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온갖 종류의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무기가 없고, 군대가 없고, 전쟁이 없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전력을 다하여 떠들어 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바로 다름 아닌 카우츠키가 제기하였고 오래 전에 파산된 《초제국주의》 리론과 꼭 같은 것이다. 그들의 목적이 바로 제국주의 하에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인민들로 하여금 민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혁명을 말살하고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전쟁과 혁명적 공민 전쟁을 말살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실지로 도우려는 데 있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핵 우상화와 핵 공갈은 현대 수정주의의 리론적 기초이며 정책적 지침이다

핵 무기의 출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법칙들도 변하였다고 하는 여기에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리론의 본질이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공개 서한에는 《우리 세기의 중엽에 만들어진 로케트-핵 무기는 전쟁에 관한 종전의 개념들을 변경시켰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여 로케트-핵 무기가 이 개념들을 변경시켰단 말인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무기의 출현과 함께 전쟁은 이미 정의적인 것과 부정의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원자탄은 계급적 원칙에 따라 가지 않으며》, 《원자탄은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곳과 근로자들이 있는 곳을 가리지 않고 페허로 만들어 버리며 따라서 한 명의 독점 자본가가 죽을 때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무기의 출현과 함께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은 반드시 혁명을 포기하고 정의의 인민 혁명 전쟁과 민족 해방 전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멸망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어떠한 작은 《국부 전쟁》도 《세계 대전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될 수 있으며》, 《오늘날 임의의 전쟁도 그것이 보통의 전쟁 또는 비핵 전쟁으로 시작되였다 할지라도 파멸적인 로케트-핵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노아의 배인 지구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과 전쟁 위협 앞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만약 제국주의 미치광이들이 세계적인 핵 전쟁을 도발한다면 필연코 전쟁을 산생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의 투쟁 위업이 세계적인 핵 재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사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세계 문화 중심들의 페허 우에서 열핵재에 의하여 오염된 황량한 땅 우에서 공산주의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수 많은 인민들의 육체가 이미 우리의 지구 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라는 문제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데 대하여서는 론의하지 않겠다.》 총적으로 말해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무기가 출현한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 자본주의 국가 내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 피압박 민족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 전부 제거되였으며 지금 세계의 모든 계급적 모순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현 시대의 세계적 모순을 오직 하나의 모순으로 보고 있는바 즉 자기들이 허구날조한 이른바 제국주의와 피압박 계급, 피압박 민족의 공동적인 생존과 전면적인 파멸 간의 모순으로 보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맑스-레닌주의의 선언과 성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머리 속에서부터 완전히 까마득하게 내던지고 말았다.

보라, 《쁘라우다》지는 《만약 머리가 남았다면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가.

이것은 로씨야에서의 혁명 위업과 10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반동들의 총칼에 희생된 모든 혁명가들과 반파쑈 전쟁에서 용감히 쓰러진 모든 전사들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피를 흘린 모든 영웅들과 혁명 위업에 몸을 바친 고금의 모든 렬사들이 마치도 모두 우둔한 사람들이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원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필요야 없지 않는가?

이것은 참말 문'자 그대로의 가장 배신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파렴치한 것은 반역자들의 참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핵 우상화와 핵 공갈의 《리론》의 지도 하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 평화를 수호하는 현대의 모든 력량이 단결하여 가장 광범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핵 소유 렬강인 미국과 쏘련이 서로 협조하여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우리들은 (미국과 쏘련을 말함--편집자 주) 모두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인바 만일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단합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가서 만일 그 어떤 미친 환자가 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면 우리가 다만 손'가락으로 위협만 하여도 그를 충분히 눌러 앉히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원쑤들을 자기의 벗으로 간주하면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다.

자기의 과오를 엄폐하기 위하여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허위와 중상을 꺼리지 않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한 로선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이 각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전쟁과 국내 혁명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마치도 세계적 핵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는 듯이 날조하고 있다.

이것은 괴상 망측한 거짓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항상 사회주의 국가들은 응당 민족 해방 전쟁과 국내 혁명 전쟁을 포함한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왔다.

이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오직 자기의 단호한 혁명 투쟁에 의해서만 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각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전쟁과 국내 혁명 전쟁을 지지함에 있어서 핵 무기를 리용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변함 없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 우세를 달성하며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변함 없이 인정하고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로 하여금 감히 핵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실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핵 무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의 핵 위협을 반대하는 방위 수단으로 될 뿐이라고 변함 없이 간주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핵 무기를 선참 써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 장난질을 해서는 안 되며 핵 공갈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핵 무기 도박을 놀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는 그릇된 실천을 반대하며 또한 핵 무기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반대한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자기 오유에 대하여 자기 비판적으로 검토할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쏘련과 미국의 《이마를

쟁케 하고》 이 두 나라를 핵 전쟁에 끌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저 한다. 아니다. 벗들, 셀새이손을 타산한 당신들의 거짓과 중상을 집어치우라! 중국 공산당은 자기 성명들에서 쏘련과 미국 두 렬강의 《이마를 쟁게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실천 행동에서 이 두 나라의 직접적인 무장 충돌을 방지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함께 조선에서의 미국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와 조선 동지들이 대만 해협에서의 미국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상 사회주의 진영의 수호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필요한 희생의 중하를 자신이 담당하면서도 쏘련은 제 2 선에 남아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오늘 감히 그와 같은 거짓을 날조하고 있다.

과연 여기에 그 어떤 프로레타리아 도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항상 말로써는 핵 무기로써 이러저러한 나라들의 반제 투쟁을 원조할 용의가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은 핵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혁명 과정에서 핵 무기를 사용하여 혁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 그런 필요성도 없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도 민족 해방 전쟁 및 인민 전쟁에서는 많은 경우에 교전 쌍방을 구분하는 명확한 전선이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핵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핵 무기로써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고 쏘련 공산당 지도부에 묻고저 한다.

우리는 또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묻고저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핵 무기로써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하려 하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족 해방 전쟁이나 국내 혁명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핵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혁명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핵 타격을 받게 하려는가? 혹은 제국주의자들이 상용 무기로써 침략 전쟁을 진행하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핵 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인가? 이 경우나 저 경우나를 막론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실지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핵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결코 진심으로 각국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전혀 자기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서 값싼 인기를 획득하기 위해 내용 없는 성명만을 발표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 례하면 까리브 위기시에 그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투기를 하며 남에게 말하지 못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책임하게도 핵 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핵 공갈이 적에 의하여 간파되고 후자가 반공갈로 대응하자마자 그들은 곧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모험주의로부터 투항주의로 굴러 떨어지며 핵 도박에서 빈손을 털게 된다.

우리는 위대한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가 전 세계 평화 수호의 위대한 력량이였으며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핵 우상화와 핵 공갈에 기초한 흐루쑈브의 군사 사상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흐루쑈브의 안중에는 오직 핵 무기만이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현 군사 기술 발전 하에서 공군과 해군은 자기의 종전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무기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교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 전투 과업을 수행하는 군대와 병사들은 더욱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나라의 방위력은 우리에게 무기를 잡은 병사가 얼마나 있으며 얼마 만한 사람들이 병사 외투를 입고 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력은 그 나라가 어떠한 화력과 어떠한 운반 수단을 갖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있다.》

민병과 인민 대중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들은 더구나 론의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흐루쑈브에게는 현대적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민병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의 고기'덩이라는 유명한 금언이 있다.

흐루쑈브의 이 모든 군사 리론은 전쟁과 군대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로부터의 완전한 리탈로 된다. 만일 그러한 그릇된 로선을 따라 간다면 자기의 군대를 와해시킬 뿐이며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무장 해제시킬 뿐이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만일 흐루쑈브의 그릇된 군사 전략 사상을 적용한다면 자신을 아주 위험한 처지에 몰아 넣을 뿐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물론 흐루쑈브는 자기 자신에게 《위대한 평화 투사》와 같은 각종 칭호를 수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며 영웅 훈장들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재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위험하고 경솔하고 무모한 핵 무기 장난을 엄폐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의 핵 공갈 앞에서 굴종하는 자기의 현상을 엄폐하지 못 할 것이다.

투쟁이냐, 투항이냐

세계 평화는 인민들의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구걸로써는 얻을 수 없다. 인민 대중에 의거하고 창에는 창으로 대함으로써만 제국주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평화를 효과적으로 고수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방침 인것이다.

창에는 창으로 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것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중국 인민이 얻은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 개석은 인민에게서 조그마한 권리라도 꼭 빼앗아 내며 조그마한 리익이라도 꼭 얻어 낸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방침은 날카롭게 맞서며 한 치의 땅이라도 꼭 다투는 것이다. 우리는 장 개석의 방법 대로 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장 개석은 언제나 인민에게 전쟁을 억지로 덮씌우려 한다. 그는 왼 손에도 칼을 들고 있고 오른 손에도 칼을 들고 있다. 우리도 그의 방법 대로 칼을 들었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1, 736 페지)

모 택동 동지는 또한 1945년에 당시의 국내 정치 정세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날카롭게 맞서는〉 데는 형세를 보아야 한다. 때로는 담판하러 가지 않는 것이 날카롭게 맞서는 것이고 때로는 담판하러 가는 것 역시 날카롭게 맞서는 것이다…남이 쳐 들어 오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싸우는 것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해방구를 감히 진공하는 반동파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1,786~1,787 페지)

모 택동 동지는 중국 대혁명이 실패하게 된 력사적 교훈에 대하여 총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진 독수는 반혁명이 인민을 진공하는데 대하여 날카롭게 맞서며 한 치의 땅이라도 꼭 다투는 방침을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27년의 몇 달 동안에 인민이 이미 쟁득한 권리를 몽땅 상실하였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1, 739 페지)

창에는 창으로라는 투쟁 방침을 체득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창에는 창으로라는 투쟁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투항주의도 반대하며 모험주의도 반대한다. 이와 같은 정확한 방침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또한 혁명이 승리한 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성과를 보장하여 주었다.

모든 혁명적인 인민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한 이 정확한 투쟁 방침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모두 이 방침을 두려워하며 증오하고 있다.

창에는 창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방침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악의에 찬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줄 뿐이다.

이 로선을 공격하며 중상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그릇된 로선 즉 제국주의 앞에 순종하며 투항하는 로선을 엄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에는 창으로 대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긴장 상태의 조성을 가져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야단이 아닌가?

이와 같은 론리에 의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며 위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침략 당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피압박자들이 반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벗겨 주려는 로골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철두철미 약육 강식의 철학이다.

국제 긴장 상태는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의하여 조성된다. 각국 인민들이 제국주의측으로부터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 그를 반대하여 전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반 사실은 투쟁의 방법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으며 국제 정세의 진정한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양보하는 것만으로써는 진정한 완화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오히려 제국주의 침략을 조장하여 줄 뿐이다.

우리는 항상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쟁취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기어코 침략을 감행하며 긴장 상태를 조성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를 가져 올 뿐일 것이다.

모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긴장 상태가 항상 저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들은 미국에 의하여 조성된 긴장 상태가 미국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들을 가져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전 세계 인민들을 궐기시켜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 독점체들이 만약 자기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면 전 세계 인민들에 의하여 교수대에 오르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1958년 9월 9일 부 《인민 일보》)

1957년 선언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이 반인민적 제국주의의 침략 세력은 자기 정책으로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을 닦으며 자기를 매장할 매장인을 자신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력사적 변증법이다. 제국주의를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리해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당신들이 창에는 창으로라는 투쟁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곧 회담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궤변이다.

우리는 일관하여 그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를 막론하고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자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수차에 걸쳐 국민당과 더불어 회담을 진행하였다. 중국이 해방되기 전야까지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의연 회담을 거부하지 않았다.

1949년 3월 모 택동 동지는 전면적인 평화 회담이나 혹은 국부적인 평화 회담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다 림할 태세가 되여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시끄러움을 꺼리고 안온함을 탐하여 이런 담판을 접수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한 어리벙벙하게 이런 담판을 접수하여서도 안 된다. 우리의 원칙성은 반드시 견정한 것이여야 하며 우리는 또한 원칙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 허용되고 필수적인 령활성도 있어야 한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2,201 페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와 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회담에 대하여 정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정전 담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 택동 동지는 1951년 10월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 문제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벌써 오래 전부터 성명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초 우에서 해결하려는 용의를 가지며 과거처럼 이 담판을 파탄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 둔다면 조선에서의 정전 담판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 할 것이다.》(1951년 10월 24일 부 《인민 일보》)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미제로 하여금 담판에서 조선에서의 정전 협정을 접수하게 하였다.

우리는 1954년의 제네바 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인도지나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는 사업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과도 역시 회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 미 간의 대사급 회담은 이미 8 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라오스 문제에 관한 1961년 제네바 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라오스의 독립과 중립을 존중할 데 관한 제네바 협정의 체결을 촉진시켰다.

그러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제국주의 국가들과 회담하는 것을 허용하고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이 제국주의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것만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사실 상 우리는 쏘련 정부와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진행되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위업에 해롭지 않고 리로운 회담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례컨대 1960년 5월 14일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성과를 달성하건 또는 그 성과가 어떠하건 즉 성과가 크건 작건 간에는 관계없이 정부 수뇌자들의 회의 소집을 지지한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모든 나라 인민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거하여야 한다.》(1960년 5월 15일 부 《인민 일보》)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회담을 지지한다. 그러나 절대로 호루쑈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를 회담에 걸며 회담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회담에 대한 호루쑈브의 이러한 그릇된 태도는 회담 자체에도 불리하다. 호루쑈브가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가 구걸하면 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더 비싼 값을 부르는 것이다. 호루쑈브는 력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큰 회담의 숭배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결과 그는 항상 사랑만 하게 되였으며 여러 번 '웃음'거리

로 되였다. 많은 력사적 사실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항상 투항주의자들에게 그 어떠한 체면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평화를 수호하는 길과 전쟁을 초래하는 길

총괄적으로 말해서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우리와 쏘련 공산당 지도부 간의 의견 상이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혁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데로 전 세계 인민들을 동원하느냐 동원하지 않느냐,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각이한 로선 간의 의견 상이이다.

중국 공산당은 기타 모든 진정한 혁명적인 당들과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부단히 폭로하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의 발전에 의거하며,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의거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의거하며,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국가들의 투쟁에 의거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로선은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이 규정한 각국 공산당들의 공동 로선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인민 대중을 부단히 각성시킴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을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사회주의 진영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 평화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며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부단히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각국 인민들의 혁명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수족을 얽어 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을 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동원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미제의 핵 공갈을 분쇄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파탄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각국 인민들이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는 길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쟁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길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집행하고 있는 로선은 우리의 로선과 완전히 상반되며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 및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 로선과도 상반된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투쟁의 예봉을 세계 평화의 원쑤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에 돌려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핵심 력량을 약화시키며 파괴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공갈로써 사회주의 각국 인민들을 놀래우고 그들이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미제가 사회주의 진영을 고립시키고 각국 인민의 혁명을 탄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공갈로써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을 놀래우고 있으며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미제와 한 짝이 되여 혁명의 《불꽃》을 소멸함으로써 미 제국주의로 하여금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에서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마음 대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놀래우면서 그들이 미국의 통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미제가 이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자기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통일 전선을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세계 평화의 주되는 원쑤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 력량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사실 상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 과업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에 적응하는 로선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조장시켜 전쟁을 초래하는 길이다.

현 세계는 이미 제 2 차 세계 대전 전야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은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 인민의 각오도 대대적으로 제고되였다.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력량도 대대적으로 강화되였다. 쏘련 인민들, 사회주의 각국 인민들, 세계 각국 인민들은 절대로 제국주의의 전쟁 세력과 그들의 앞잡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각국 반동파들의 침략 및 전쟁 책동은 세계 각국 인민들을 교양하며 점차 각성시키고 있다. 사회적 실천은 진리를 검열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된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인식 상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와 반동파들의 반대측면에서 교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개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는 오직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기만을 폭로하며 수정주의의 황당한 리론을 간파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책임을 담당하여 나선다면 제국주의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새 세계 대전의 도발을 분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주 해

① 칼• 카우츠키; 《민족 문제》
② 칼• 카우츠키; 《방어 문제와 사회민주주의》
③ 동상
④ 1912년 헴니쯔에서 진행된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한 가제의 연설 중에서 《사회 민주당 대회들(1910~1913년)의 참고서》 제 2 권 중에서
⑤ 칼• 카우츠키; 《전쟁과 민주주의》 서문
⑥ 1919년 사회주의 인터나쇼날 베로나크 회의에서 채택된 민족 혁명 문제에 대한 결의
⑦ 칼• 카우츠키; 《전쟁 시기의 사회민주당》
⑧ 칼• 카우츠키; 《전쟁과 민주주의》 서문
⑨ 칼• 카우츠키; 《사회 민주주의 교서》
⑩ 1912년 헴니쯔에서 진행된 독일 사회민주당 대회에서 한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연설 중에서 《사회 민주당 대회들(1910~1913년)의 참고서》 제 2 권 참조
⑪ 칼• 카우츠키; 《다시 한 번 군비 철폐에 대하여》
⑫ 칼• 카우츠키; 《방어 문제와 사회 민주주의》
⑬ 동상
⑭ 칼• 카우츠키; 《사회주의자들과 전쟁》

근 로 자 제 23 호 (루계 237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2월 5일　　인 쇄 • 1963년 12월 3일

• ㄱ—330790　　값 40 전

새 책 안내

《맑스 엥겔스 전집》 제 5 권

판형 국판, 예정 페지 700페지

《맑스 엥겔스 전집》 제 5 권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1848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한 저작들과 론설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의 기본 내용을 이루는 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독일에 돌아 온 후 집필하여 1848년 6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기간에 《신라인 신문》에 발표한 론설들이다.

이 책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1848년 혁명 시기에 독일 혁명과 구라파 혁명에서의 정치적 사변들을 력사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분석하였으며 혁명 투쟁의 매 단계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신라인 신문》에 발표된 맑스와 엥겔스의 론설들과 저작들은 1848년 혁명에서의 그들의 전술과 혁명 시기에 발휘한 인민 대중의 풍부한 투쟁 경험을 총괄한 극히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4 호 12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4 호 (238)
1963년 12월 (하)

차 례

경락 계통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일대 혁명이다

최 창 석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발명들은 언제나 과학 발전의 새로운 시기,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었다. 그것은 이것들이 과학의 점진적 발전 과정에서 축적되고 성숙된 미해결 문제들에 해답을 줌으로써 과학이 새로운 단계에로 비약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력사에서 특출한 업적을 쌓아 올린 과학자는 혁명가로 불리여 왔다.

생물학과 의학이 중세기적 종교의 질곡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자연 과학으로 체계화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서도 꼭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력사적 과정은 특출한 과학자들의 이름과 결부된 몇 개의 변혁의 시기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시기는 대체로 과학계에서 론의되던 미해결 문제들이 혁명적으로 해명되고 유기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급격히 심화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 업적으로서 방대한 수의 생물체들을 처음으로 분류하고 그 해부학적 구조를 체계화한 문예 부흥기의 동식물 학자들과 해부 학자들의 활동을 알고 있으며 현미경의 발명과 동식물 세포의 발견에 기초한 쉬반, 쉬타이덴의 세포 학설과 생물계의 발전 분화 과정을 론증한 다윈의 진화론 등을 들 수 있다.

유기체의 생명 활동의 본태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룩된 특출한 업적으로 말하면 하베이에 의한 혈액 순환의 원리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호르몬을 비롯한 체액적 인자의 역할을 증명한 체액설, 고등 신경 활동의 의의를 론증한 신경주의, 핵산의 발견과 폴리펩티드의 합성 등 수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생물학과 의학의 력사에서 불멸의 이름을 남긴 이들, 특출한 과학자들과 그 과학 업적들을 계기로 인류는 유기체의 발생과 성장 과정 및 구조는 물론 생명 현상의 기초에 놓여 있는 물질 대사의 본질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 갈 수 있게 되였으며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활동에서 거대한 진보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과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도 많다.

일련의 질병들의 예방과 치료에서 현존 생물학 리론과 견해들은 거의 무력하거나 아주 무력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유전 현상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

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부닥치고 있는 이 한계선을 뛰여 넘어 서려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러나 누구도 유기체 내에 또 하나의 새로운 해부-조직학적 계통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 만큼 현재까지 도달한 생물학적 지식은 확고 부동한 것으로 간주되였다.

우리 나라의 탁월한 과학자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은 생물학과 의학 발전의 현 계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순들의 해결 방도를 유기체 내 새로운 련계 계통의 실재를 추궁하는 데서 찾았다.

이 연구 집단의 이와 같은 비범한 구상과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것은 동방에서 력사적으로 발전하여 온 동의학, 그 중에서도 경락 학설과 그에 기초한 침구 료법의 특출한 효과에 대한 확신이였다.

이로부터 이들은 다년간에 걸치는 완강하고 인내성 있는 과학적 탐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끝내 세계의 어느 생물학자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유기체 내 새로운 기능적—형태적 체계—경락 계통의 실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위대한 발견은 생물학과 의학계에 미치는 영향과 장래 전망에 있어서 과거의 어느 업적보다도 더 의의가 큰 하나의 혁명적인 사변이다. 엄연한 객관적 실재인 경락 계통을 알지 못 하고 세워진 종전의 일체 리론과 주장들이 모두 재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실천 분야의 모든 활동도 다시 편성되여야 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생물학과 의학 앞에 새로운 발전 전망을 열어주며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실천 활동에 고무적인 희망을 준다.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기능적-형태적 체계로서의 경락 계통의 발견이 세계 생물학과 의학 발전의 현 계단에서 차지하는 력사적 위치는 자못 크다.

＊ ＊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연구 집단이 유기체 내 새로운 해부-조직학적 계통으로서 경락의 실태를 발견하고 그를 세상에 발표한 것은 2 년 전의 일이다. 그후 이들은 연구 사업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더욱 중요한 과학적 성과에 도달하였다.

우리 나라 경락 연구 집단의 연구 성과가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는 우선 유기체 내에 신경, 혈관 계통 이외에 전신을 련결하고 통일적 활동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해부 조직학적 계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고한 과학적인 사실로서 선포한 그것이다.

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의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기본 내용을 간단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락 계통은 경혈 부위에서 찾은 구조물인 봉한 소체와 이를 련결하는 관상 구조물인 봉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한 소체는 피부 및 피부에 가까운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깊은 곳(피하 조직의 심층, 혈관 및 내장 기관의 주변)에도 일정하게 배렬되여 있으며 이 소체들은 전신에 걸쳐서 호상 련결되여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피부의 표면층에 있는 봉한 소체는 쌀알의 절반 만한 란원형의 구조물인데 그 외부층은 활평근으로 되여 있으며 그 내부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세포들은 분비 기능을 하며 외부의 근육층은 분비물을 봉한관으로 내 보내는 역할을 한다.

유기체의 심층에 있는 봉한 소체에는 활평근으로 된 외부층—주 결질은 없고 다만 특수한 세포들이 일정하게 배렬되여 있을 뿐이다. 봉한 소체의 속질에 있는 이 세포들은 핵산을 만들어 낸다고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봉한 소체들은 해부-조직학에서 이미 알려진 그 어떤 구조물들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전혀 새로운 구조물이다.

봉한 소체들을 련결하는 봉한관은 매우 엷은 벽을 가진 가느다란 소관들의 묶음으로 되여 있으며 그 안에는 혈액도 아니고 림파액도 아닌 진득진득하고 반류동성인 봉한액이 흐르고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봉한관이 혈관과 림파관 안에도 달리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리하여 봉한관에는 혈관이나 림파관 안을 달리는 맥관 내 봉한관과 맥관외 봉한관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였다.

피부의 표층에 있는 봉한관은 표층 봉한 소체를 호상 결합시키고 있으며 유기체의 심부에 있는 봉한관(맥관외 및 맥관내 봉한관)은 표층 봉한 소체와 심층 봉한 소체 및 내장 기관들을 련결하면서 전신 각 부위를 련결하는 전일적인 경락 계통을 이룬다.

경락 연구 집단은 봉한 소체나 봉한관에 색소 혹은 표식 원자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락 계통 내에서 봉한액이 순환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봉한액의 순환 속도는 혈액 순환 속도보다 느리며 맥관외 봉한관에서는 더욱 느리다.

맥관 내 봉한관에서의 봉한액의 순환은 혈액이나 림파액의 순환과 같이 심장의 박동력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봉한액이 흘러 가는 방향은 혈액이 흘러 가는 방향과 일치된다.

맥관외 봉한관에서의 봉한액 순환에는 표층 봉한 소체의 활평근의 수축운동이 일정한 역할을 한다.

전기 생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봉한 소체는 그에 특유한 생물 전기적 활성을 가지며 봉한 소체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그것은 봉한관을 따라서 다음 봉한 소체들에 전달된다.

이 밖에 전기 생리학적 실험에 의하여 봉한 소체는 그와 련결된 내장 기관의 활동 상태를 신경을 거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것이 증명되였다.

이번 경락 계통에 관한 연구 성과에서 또한 주목을 끄는 것은 봉한 소체와 봉한관 내에는 핵산 특히 데스옥시리보 핵산이 다량 포함되여 있다는 놀라운 현상이다.

봉한관 내에 들어 있는 데스옥시리보 핵산은 균질성인 봉한액 내에 세포핵과는 관계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 되였다. 이것은 기존 리론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다.

현재까지 도달된 지식은 데스옥시리보 핵산이 세포핵 내에만 있으며 리보 핵산은 세포 형질에만 포함되여 있다는 것을 확고 부동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핵산이 세포 내 단백질의 생합성 과정을 직접 장악하리 만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현 생물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경락 계통에는 어떠한 세포 성분도 안 가진 균질한 봉한액 속에 많은 량의 데스옥시리보 핵산이 포함되여 있으며 그것이 봉한관을 따라서 체내를 류동하고 있는 것이다.

핵산의 특이한 존재 형식은 생물학 앞에 극히 중요한 원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경락 계통의 기능이 핵산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세포 내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말하여 준다. 세포 내 단백질 대사—이것은 생

명체의 존재의 물질적 기초이다.

그러므로 금후 생물학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경락 계통을 통하여 단백질의 세계에 파고 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봉한액 내에서의 데스옥시리보 핵산의 발견은 유전학 분야에서도 종래의 개념에 일대 전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특히 이 발견이 세포핵 내에 그 어떤 불변적인 유전 인자의 존재를 주장한 멘델-모르간-와이스만주의와 같은 반동적인 유전 학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조선의 과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이 사실들이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인가는 실로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온 생물학과 의학에서 이루어진 모든 리론들과 견해들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그 부족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 주는 것이다.

금후 생물학과 의학 부문의 모든 교과서들에는 새로운 장(章) 즉 경락 계통에 관한 부문이 새로 첨가될 것이며 이 부문 학자들은 새로운 안목으로 유기체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유기체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더욱 완전한 것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락 계통의 발견은 유기체의 생명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서 새로운 비약을 의미한다. 그 어떤 기존 학설 하나만을 거의 절대시하는 견해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유기체 활동의 통일성을 새로운 안광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현대 생물학과 의학은 생체 활동의 통일성이 신경 계통이나 또는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체액적 인자들의 작용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절에서 신경 계통을 특히 중요시하는 견해가 일부 나라에서 신경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액적 인자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사조는 주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류행되고 있는 소위 《스테레스 학설》과 같은 반동적인 학설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하여 각이하게 반응하는 한 개의 독특한 흥분 조직인 봉한소체와 그의 전도로인 봉한관 등 경락 계통이 객관적인 실재로 확인된 오늘 그가 노는 역할과 의의를 도외시하고 신경 계통이나 체액적 인자만으로 유기체 활동의 통일을 보장하는 기전을 전면적으로 포괄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락 계통의 발견은 현대 생물학과 의학이 달성한 기존 리론 체계들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족점을 극복하고 유기체 활동의 통일성을 보다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경락 계통의 발견에 의하여 의학과 보건에서의 두 기본 범주—건강과 질병에 관한 모든 견해들도 새로 검토되고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게 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질병에 대한 현존 개념의 제한성을 단적으로 말하여 준다.

현대 생물학은 혈관과 림파관 안에는 혈액과 림파액이 흐르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는 다른 아무러한 구조물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지어 병리학은 혈관이나 림파관 안에 다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 경락 연구 집단은 정상적인 유기체 내에서 혈관과 림파관 안을 봉한관이 합법칙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기존 생물학 지식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락의 정상 상태와 병적 상태에 관한 전면적 해명에 기초

해서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훨씬 확장할 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경락 계통의 발견은 동방에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의학 리론에 확고한 물질적 근거를 부여하였다는데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

동의학 리론 중에서도 경락 학설은 그 핵심을 이루는 기본적인 리론 체계이다. 수천년에 걸친 풍부한 림상 경험은 경락 학설의 정당성을 이미 실증하였다. 특히 최근 년간에 우리 나라에서 시신경 위축을 비롯한 일련의 난치의 질환에 대한 침 료법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이 그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실이 보여 준 바와 같이 현대 생물학과 의학은 경락 리론의 물질적 바탕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였다. 수천 수만의 의사들과 생물학자들이 사람과 동물에서 수술 또는 해부를 하였어도 경락의 실재를 인식하지 못 하였다.

신경주의자들은 침구 료법을 반사 료법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경혈을 각종 감수기, 신경, 혈관 등의 다종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물의 총체라고 리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락 연구 집단의 업적에 의하여 수천년 동안 추상적으로만 생각되여 온 경락이라는 개념은 오늘에 와서는 물질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경락에 대한 종래의 이러저러한 부정확한 리해는 여지 없이 반박되였다.

동의학에서 경락은 더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며 그 어떤 신경, 혈관 림파관의 종합체도 아니다. 그것은 봉한 소체와 봉한관에 의하여 생체의 모든 부위에서 일어 나는 과정들을 특수하게 련결하고 조절하는 새로운 기능-형태학적 계통이다.

이것은 서양 의학만 과학이고 동의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며 동의학의 오랜 보물고 속에서도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의 훌륭한 원천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

경락 계통의 발견이 현대 생물학과 의학 앞에 열어 주고 있는 전망은 매우 광활하다.

그것은 어느 한 국부적 측면에만 관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고 있으며 기초 리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응용과 실천 부문에 이르기까지 생물학과 의학의 전반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경락 계통에 관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생물학과 의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며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할 것인가를 대체로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우선 유기체와 외부 환경과의 통일 및 유기체 내 활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조절 기전이 더욱 전반적으로 연구 해명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궁되여야 한다. 그 하나는 봉한 소체와 신경 조직과의 호상 관계, 신경 계통과 봉한 소체의 기능 상 관련성에 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락 계통과 내분비 계통과의 호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유기체의 통일성을 조절함에 있어서 신경 계통이나 호르몬 및 기타 체액적 인자들의 의의는 매우 중요시되여 왔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경락 계통을 념두에 두고 볼 때 경락 계통과 신경 및 내분비 계통 간의 호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은 금후 생물학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될 것이다.

현재의 소견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봉한 소체에는 수 많은 크롬 친화성 세포와 려포양 구조물이 있으며 이 소체는 그 속에서 생기는 분비물을 봉한관계 내 보내기 위하여 근육 수축 운동을 한다는 사실은 경락 계통과 내분비 계통

간에 밀접한 련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음으로 경락 계통이 유기체와 그의 장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 해명될 것이다.

일정한 부위에 있는 봉한 소체는 그에 해당한 일정한 장기의 기능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것은 경락 연구 집단에 의해서 충분히 론증되였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각종 경혈 부위에 대한 침구 자극이 각종 장기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사업들이 진행되였으나 아직도 침구 치료법에 의한 치유 기전은 해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방향에서 연구 사업이 추진된다면 침구 치료의 기전이 전면적으로 해명될 것이며 더 발전되고 체계화된 침구 치료법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각 봉한 소체의 해부 조직학적 구조가 대체로 밝혀지고 침 자극에 대한 봉한 소체의 특유한 반응(김 세욱 현상)이 알려진 사실은 금후 침구 치료의 현대화를 위한 좋은 전망을 열어 주고 있다.

봉한 소체 내에서 진행되는 물질 대사 과정 특히는 핵산 대사 과정에 대한 연구 사업이 또한 개척되여야 한다.

이 때까지 세포핵 내에만 있다고 인정된 데스옥시리보 핵산이 세포핵이 아닌 봉한액 속에도 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이 핵산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유기체의 물질 대사 특히는 단백 대사의 본태가 더욱 명백히 해명될 것이며 단백질 생합성 과정이 더욱 깊이 밝혀지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봉한관은 유연하고 반투명한 관상 묶음으로 되여 있으며 이것이 혈액이나 림파액 속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혈액 또는 림파액과 봉한액 사이에 확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물리 화학적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봉한액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연구 사업은 생물학과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유전 현상에서 핵산이 노는 역할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명을 해 주리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 경락 계통과 면역 및 생체의 반응성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금후 중요 방향으로 제기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일정한 경혈 부위(즉 봉한 소체)에 예방약을 주입하면 그 면역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례를 들어 이면 경혈 부위에 백일해, 파상풍 등의 예방약을 접종하면 비혈 부위에 접종했을 때보다 항체 산생이 2 배나 높다. 예방약을 주입하지 않고 단순히 침으로 자극만 해도 일정한 범위에서 항체 산생이 높아진다. 이러한 연구 성적은 우리 나라에서 백일해를 비롯한 전염병 치료에 침을 사용하여 특효를 보이고 있는 동의학의 실천 경험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경락 계통과 면역 및 생체의 반응성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관계의 본태가 해명된다면 사람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각종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 방어력을 획득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경락 계통의 발견은 리론 부문에서 이상과 같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기하는 동시에 림상 의학 부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여기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단백 및 핵산 대사와 관계가 있는 질병들과의 투쟁 전망에 대한 문제이다.

현대 의학은 유기체의 정상적인 성장이 장애를 받는 것과 같은 질병 현상은 단백 및 핵산 대사가 왕성해지거나 또는 저하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은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백질과 핵산 대사 기전을 세밀히 연구해 나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질병을 화학 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핵산 대사를 억제하는 억제제가 백혈병을 비롯한 일부 병 치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능성을 암시하여 준다.

또한 전신성 홍반성 랑창과 같은 교원병 때에는 조직에 데스옥시리보 핵산의 침착이 오거나 이 핵산에 대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질병 때에 콜라겐의 합성 장애가 일어 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산 대사에 대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킨다면 각종 질병의 발생, 진전, 치유 및 회복 과정 등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실험 치료학적 연구 사업이 더욱 심화 발전될 것이 예견된다.

각종 약물이 경락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흥미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림상 실천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우리 나라에서 일부 보건 일'군들의 경험에 의하면 같은 약물이라도 경혈을 통한 주입은 비혈 부위를 통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초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물뿐만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자극이 경락 계통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여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방향에 립각한 실험적 및 림상적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각종 질병들의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전혀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인정된다.

경락 계통에 관한 연구 성과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피로를 방지하며 장수를 보장하는 문제 등에서 이 때까지 예측하지 못 한 중요한 해결 방도를 줄 것이며 수의 축산을 비롯한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에서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락 계통의 발견과 관련하여 금후 생물학과 의학이 가지게 될 전망은 이처럼 광활하다. 이 중의 어떤 것들은 상당한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아직 단순한 예측에 불과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질병과의 투쟁, 건강 보호 등 생활상 긴절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투쟁에서 이 때까지 상상하지 못 한 위력한 수단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의존도는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파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화되여 왔다. 현대 생물학과 의학이 이룩하여 놓은 과학적 업적에 의하여 보건 사업은 몇 세기 전과는 대비도 안 되리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 사람들이 경락 계통을 알지 못 함으로써 유기체 활동의 중요한 측면을 리해하지 못하였다면 경락 계통의 실재가 발견된 오늘에 와서는 더 전면적으로 유기체의 활동을 리해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지배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경락 연구 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이 연구 사업을 계속 틀어 쥐고 더 빨리 더 많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 *

오늘 조선 인민은 이렇듯 세계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광활한 길을 열어 준 과학 업적을 바로 우리의 과학자들이 쌓아 올린 데 대하여 무한한 기쁨과 긍지로 대하고 있다.

이 업적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자연 과학의 력사에서 특출한 업적으로 불리우는 발견이나 발명은 언제나 파란 곡절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과학자들의 불요 불굴의 창조적 투쟁 정신의 결과였다.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 한 경락 계통의 객관적 실재를 예측하고 그것을 론증해 들어 간 과정도 새것을 탐구하기 위한 이 과학자들의 초인간적인 투쟁 정신으로 충만되여 있다.

우리 경락 연구 집단이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은 중요한 요인은 우선 과학자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담한 과학적 구상이다.

비범한 과학적 구상력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경락 연구 집단에 망라된 과학자들처럼 그렇게 대담하게 구상을 전개한 실례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자연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20 세기 중엽에 이르러 생물체 내에서 새로운 련계 체계의 존재를 추측한 자연 과학자가 나오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이 연구 집단은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와 같은 대담한 구상을 제기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개시켜 나아갔다.

그런데 천재적인 통찰력은 또한 그것이 발양될 수 있는 일정한 객관적 근거를 가진다.

경락 연구 집단의 경우에 이 첫째 근거는 조선 인민의 유구한 문화 전통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는 동의학 유산이다. 오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더욱 찬란히 과학과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조선 인민의 재능—이것이 천재적인 과학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바탕이다. 수천년의 력사를 통하여 검증되였고 과거에 수많은 탁월한 의학자들을 낳게 한 우리 나라의 동의학, 해방 후 당의 옳은 정책에 의하여 현대 과학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는 동의학—이것이 천재적인 예견을 낳게 한 직접적인 바탕으로 되였다.

이 연구 집단이 비범한 구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조건은 과학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다. 이러한 립장은 선행한 모든 과학 성과와 학설들을 허심히 배우고 그에 의거하되 항상 비판적 안목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당 과학 정책의 기본 원칙의 하나인바 당은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모든 과학자들을 교양 훈련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이 경락 연구 집단으로 하여금 생물학의 현존 기초 리론들의 제한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극복 방도를 대담하게 구상하게 한 조건으로 되였다.

일단 수립된 과학적 구상을 과학적 사실로 론증하는 과정은 힘들고 난관이 많은 과정이다. 이 난관을 뚫고 나아가자면 정확한 연구 방법과 숙련된 실험 수기 등이 있어야 한다.

경락 연구 집단이 일단 세운 구상—경락이 물질적으로 존재하리라고 본 가설을 엄연한 사실로 전변시킬 수 있은 것은 이러한 옳은 연구 방법과도 관련된다. 생물학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연구 방법론은 형태와 기능의 통일의 견지에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분석 종합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형태학적 특징은 생체의 기능을 제약하며 기능 상의 차이는 반드시 형태적 특징으로 표현된다. 이 연구 집단은 유기체의 활동에 대한 조절 기전을 이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통일의 견지에 철저히 서서 고찰하였으며 특히 기능 상 특성의 인식으로부터 그 형태적 기초를 추궁해 들어 가는 독창적인 방법을 관철시켰다.

과학 사업에서 구상에 기초한 가설이 내려지고 옳은 연구 방법론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굴함 없이 뚫고 나아가는 전개력이 없으면 성과는 기대하기 곤난하다. 이 점에서 경락 연구 집단은 동요와 주저, 난관을 모르는 전투적인 집단이였다.

어떤 과학 성과를 막론하고 그것은 난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새

것의 출현은 낡은 것과의 투쟁 속에서만 가능하다.

김 봉한 교수가 처음 경락의 물질적 기반을 예측하고 첫 실험에 착수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경락의 실태 발견에 대한 첫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집단은 어떠한 방향에도 동요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확신하는 바를 실증하기 위해서 꿋꿋이 나아갔다. 그들은 실험에서 제기되는 어떤 난관과 장벽 앞에서도 물러 서지 않았고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으로 인내성 있게 계속 전진해 나아갔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가지고 봉한관 내 봉한액의 순환을 증명하는 실험이 수백 수천 번이나 실패하였지만 락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 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여 끝끝내 표식 원자법으로 봉한액 순환을 론증한 사실은 이들의 투쟁 과정을 잘 말해 주는 실례로 된다.

이들에게 이러한 철석 같은 신념과 투지를 안겨 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깊은 배려이다.

당은 이 연구 집단이 처음으로 연구에 착수했을 때 이 연구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적극 지지하여 주었다. 그 후 전 연구 과정을 통하여 이 연구 집단은 당의 부단한 격려와 두터운 배려 속에서 사업하였다.

연구 집단은 당의 이러한 배려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한 일념으로 열화와 같이 일떠 섰으며 집단의 온 힘을 다 발동하고 집체적 지혜를 모아 연구 사업을 추진시켜 나갔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싹을 키워 준 이러한 힘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과학자들은 그처럼 찬연한 과학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설 수 있었다.

우리 나라 경락 연구 집단이 전인 미답의 길을 개척한 과학 연구 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은 승리의 요인, 힘의 원천은 바로 이상과 같다. 한 마디로 말하여 이들의 연구 사업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높은 당성이며 철저한 맑스-레닌주의 사상이다.

자연 과학도 포함한 모든 과학 연구 사업에서 당성의 원칙과 맑스-레닌주의 원칙은 연구 성과를 좌우하는 궁극적이며 결정적인 담보이다. 과학자들이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며 혁명 위업에 끝까지 헌신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을 때 비로소 이들에게서 대담한 과학적 구상과 정확한 연구 방법, 난관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비상한 전개력이 높이 발양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세계에는 발전된 과학을 자랑하고 높은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 나라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 나라 과학자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 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우리 조선의 청소한 과학자들이 이룩할 수 있은 사상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 생물학과 의학계에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는 반동적 사조와 조류가 있는가 하면 이에 아부하여 입으로는 맑스-레닌주의를 말하면서 실지로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칙을 던져 버리고 제국주의 반동 리론을 그대로 받아 들이려고 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해로운 것들이며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조선의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계속 당성의 원칙,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높이 추켜 들고 온갖 반동적이며 반맑스주의적인 과학 조류들과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경락 계통에 대한 연구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설비 리용률의 제고를 위하여

한 삼 영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1964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의 결론에서 김 일성 동지는 《명년도에 우리가 내세운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우리의 중공업 기지를 앞으로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면서 이미 축성된 중공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그것을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내며 인민 생활을 지금보다 한 계단 더 높이 올려 세우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명년에 우리는 한편으로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축성해 놓은 중공업을 리용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 특히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격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이 전투적인 과업은 무엇보다도 중공업 부문에서 이미 마련하여 놓은 로대를 정비 보강하고 그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중공업을 정비 보강한다는 것은 중공업의 골간에 보조적, 부차적 부문들을 보충하고 중공업의 부문 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현존 설비들과 기술 공정들의 미비한 점들을 보강하여 그의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현존 중공업 기지의 위력을 가장 훌륭히 발휘케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현존 중공업 공장들의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은 바로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 건설 및 운수 등을 확장하며 로력을 절약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국가의 재부를 보다 급속히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는 강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특히 새로운 중공업 기지의 대대적인 확장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현존 기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데 의거하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켜야 할 명년도에 있는 설비를 더 잘 리용하는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명년에 기계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 축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그의 증대 원천을 확대함으로써 중공업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명년에 기계 제작 공업에서 대형 기계들과 광산 기계 및 자동화 기구, 측정 기구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금속 공업에서 강재의 품종과 규격을 확대하고 강관, 철선, 와이야로프 등 2 차 가공 제품의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등의 과업은 주로 현존 기계 설비들을 정비 보강하며 그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방도에 의해서 수행된다. 전력 공업, 화학 공업, 운수 및 림업 등 인민 경제의 기타 부문들에서도 생산

장성의 주요 방도는 있는 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소형 기계 설비들과 원재료 등의 생산을 보장하며 중공업 기업소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들을 정비 보강하여 인민 소비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도 현존 기계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방대한 규모의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잘 관리 운영하며 그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축성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력량을 집중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현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백 개의 기계 공장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야금 공업에서는 120만 톤의 선철, 100만 톤 이상의 강철을 생산하고 있다.

대규모의 발전소들도 많이 복구 건설되였으며 광산, 탄광들도 훨씬 늘어났다.

화학 공업에서도 큰 공장들을 다 복구했고 또 많은 화학 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여 놓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기술 장비도 비할 바 없이 높은 수준에 있으며 따라서 자체 내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였다.

만약 우리 나라에 있는 현존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단 1%만 높인다고 해도 실로 막대한 량의 제품을 더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인바 기계 공업 부문에서 설비 리용률 1%를 제고하면 현존 설비로써 1년간에 1만 대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더 생산할 수 있는 예비가 나온다.

이런 조건에서는 오늘도 계속 경제 토대를 확대하는 데 즉 중공업 토대를 새로 건설하는 데 주되는 력량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미 꾸려진 중공업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있는 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도록 하는 데 력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높이는 과업도, 중공업의 장래 발전을 위한 조건과 준비를 갖추는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 *

대규모적 현대 설비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 및 경제 기관 책임 일'군들이 기업 관리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사업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지도 일'군 자신들이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직접 틀어 쥐고 조직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경험은 지도 일'군들이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사업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부속품 생산으로부터 점검 보수에 이르기까지 이악하게 달라 붙어 사업을 빈틈 없이 짜고 들어 조직한다면 막대한 예비를 찾아 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를 더 받지 않고서도 현존 설비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생산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금년에 성진 제강소 지도 일'군들이 생산 현장에 내려 가 설비 관리 운영에서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줌으로써 설비들의 가동을 정상화하고 생산을 계속 장성시킨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이곳에서는 3 개월 분 예비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일상적인 점검 사업과 예방 보수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강 설비의 리용률은 지난해 1.4 분기의 94.1%로부터 금년 1.4 분기에는 96.8%로 높아졌다.

금속 화학 공업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성, 관리국들에서는 성진 제강소

경험을 본받아 지도 일'군들이 밑에 내려가 구체적 실정을 료해한 데 기초하여 부속품 생산을 선행하고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며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대중과 토의함으로써 금년에 국가로부터 받기로 된 기계 설비들을 받지 않고서도 생산 계획을 넘쳐 실행할 수 있는 막대한 예비를 찾아 내였다.

신창 지구 종합 탄광에서는 성진 제강소의 설비 관리 운영 경험에 의거하여 있는 기대 설비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미설치 기대와 미가동 기대를 모조리 동원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결과 금년도에 국가에서 받기로 되여 있던 광차, 굴착기, 첼꼼베야를 비롯한 새로운 기계 설비를 받지 않고서도 금년 석탄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아 내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들은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혁명 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이 맡겨 준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 기업소의 생산을 더 훌륭히 조직하겠는가를 항상 연구하고 이악하게 달라 붙는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설비 관리 운영을 개선하여 생산을 더 빨리 장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기계 설비들의 리용 정형과 그의 점검 및 계획적 예방 보수 정형을 수시로 청취 토의하고 걸린 문제들에 대한 해당한 해결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기계를 다루는 설비 부문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설비 관리 운영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철저히 침투시키며 당이 이 분야에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그의 집행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장, 기업소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되는 것은 기계 설비들을 제때에 점검 보수하고 일상적으로 잘 정비하는 것, 즉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 및 계획적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계 설비들의 점검 및 보수를 선행시키는 것은 생산 계획 수행에서 하나의 법칙이다.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 보수를 진행함이 없이는 설비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으며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수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거기에 예견된 설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정된 날'자에 반드시 점검 보수하는 엄격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이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우선 설비의 구조상 특성, 사용 년한, 마모 정도, 작업 방식과 작업 조건 등을 충분히 타산하여 매개 대상 별로 되는 보수 경력서를 비치하고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보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수 계획에는 점검,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의 성격과 보수 대상, 보수 순서에 따르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 보수 작업 공정을 밝히며 해당한 일체 자재, 부속품, 공구 및 측정 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작성된 계획에 근거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춘 후에는 제정된 시기에 어김 없이 보수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총국) 및 관리국들은 부속품 생산을 위한 계획화 수준을 높이며 필요한 자재, 설비 문건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기관, 기업소들에서 목전의 생산 일면에만 치중하여 기계를 혹사하는 현상들을 엄격히 근절하며 계획에 예견된 보수를 반드시 집행하도록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전제로 된다는 것을 현실은 잘 보

여 주고 있다.

안주 탄광에서는 설비의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점검 보수 작업을 계획화함으로써 금년 상반년에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여 기계 사고를 41.6%나 감소시키고 설비 리용률은 21.4%를 더 제고할 수 있었으며 11월 21일 현재 석탄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과제를 지표별로 초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부문 기업소들에서 3개월 분 예비 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로 생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 부속품 생산을 3개월 분 선행시키는 것은 기계 설비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여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으로 된다.

물론 수명이 다르고 각이한 규격과 형태들로 이루어진 수백 수천 종의 부속품들을 계획적으로 생산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여 면밀한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한다면 능히 예비 부속품 생산을 과학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울 수 있다.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하며 설비의 점검 보수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공장, 기업소들의 공무 동력 직장이다. 공무 동력 직장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일'군들로 하여금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가능한 한 모든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하도록 하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케 하는 것은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수의 예비 기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장, 기업소가 적당한 수의 예비 기대를 가진다면 수리에 들어 가는 기대를 대신하여 생산을 계속함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으며 보수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함으로써 설비 리용률을 높여 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킬 수 있다.

물론 필요 이상의 예비 기대를 가진다면 오히려 유휴 기대가 생겨 기업소의 총적 생산량을 저하시킬 것이니 만큼 예비 기대의 수는 어디까지나 보수가 항상 순환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생산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강선 제강소와 성천 광산에서는 제강로와 마광기의 일정한 대수를 대담하게 집중적으로 보수하여 예비 기대를 정상적으로 갖추게 한 결과 설비 리용률은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생산도 정상화되였다.

지난 기간 청진 제강소에서는 7대의 련철 회전로 중 한 대를 일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 예비 기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만부하 운전을 계속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경험은 매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많은 설비들을 무질서하고 무리하게 돌리다가 고장이 나면 모두 세워 놓고 보수하는 식으로 사업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수의 예비 기대를 조성하여 관리국에 등록하고 그것을 임의의 시간에도 돌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수 정비하여 놓는 제도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관리국과 공장, 기업소 설비 관리 부서들의 통제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일체 설비들을 정확히 조사 장악하는 동시에 유휴 설비들을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휴 설비들이 오래 동안 사장되지 않게 하며 그것들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일부 책임 일'군들 속에 남아 있는 협애한 기관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기관 본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귀중한 설비들을 사장시키게 되며 따라서 설비들을 자기도 못 쓰고

남들도 쓰지 못하게 한다.

만약 전동기나 압연기 및 연마반 등과 같은 귀중한 기계 설비들을 수년씩 자기 기업소에 사장시키면서 다른 기업소에 이관할 데 대한 상급 기관의 지시에 잘 응하지 않는다면 기계 설비들을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고 하여도 보람이 없게 될 것이다.

특히 기관 본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설비들에서 중요한 부속품들을 뜯어 내여 다른 기계에 맞춰 쓰는 현상을 발로시키게 된다.

만약 귀중한 기계 설비들에서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 부속품들을 뜯어 내여 다른 기계 설비들에 리용한다면 결국 그 기계 설비들은 아무 데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설비 리용률을 저하시키게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에 손실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군들 속에서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곧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막대한 내부 예비를 동원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기관 본위주의를 극복하는 사업은 행정적 방법으로는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심각한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기관 본위주의가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과 사상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협소한 개별적 리해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전 국가적 립장에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로동자들 속에서 자검 자수를 비롯한 군중적인 설비 애호 관리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며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 속에서 기계 설비들을 소중히 여기고 애호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쳔 시기 기계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곧 애국심이요, 그런 사람이 곧 애국자이다.

우리의 기계 설비들은 애국 선렬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혁명의 전취물이며 전체 근로자들의 피땀의 열매이다.

각 기관,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자기의 무기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다룬 것처럼 전체 근로자 대중들로 하여금 기계 설비들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 관리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1961년 2월 10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와 내각 공동 결정에 의하여 이미 조직된 기업소 설비 점검·검열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며 설비 관리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비에 대한 사회적 점검 사업을 조직하며 설비 관리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설비 관리 사업을 개선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의 모든 지도 일'군들로부터 매개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주인된 립장에서 설비 관리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분공 받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설비 점검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생산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는 것은 설비 리용률 제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해야만 설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동일한 설비로써 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기계 설비들을 기술 규정 대로 정확히 리용하여 높은 질을 가진 부속

품을 생산하는 것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케 하며 보수 주기를 연장케 함으로써 결국은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된다.

생산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을 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비 운전공들을 고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설비 운전공들을 고착시켜야만 그들이 자기의 기계 설비에 정통할 수 있으며 표준 조작법을 준수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에 이르는 전체 성원들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 설비에 정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대가 훌륭한 무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룰 줄 알며 고장을 능숙히 퇴치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 기술에 정통할 때에 부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제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군들이 자기가 다루는 설비의 능력과 특성 및 기술적 제 자료들을 충분히 료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에 기계 설비들은 자기의 능력을 가장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장,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군사 지휘관들이 무기에 정통하는 것처럼 기업소의 모든 기계 설비들에 정통하고 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언제나 설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그것이 자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모범적인 사실은 안주 탄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안주 탄광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기업소의 생산조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지도 일'군들 자신이 설비에 정통하여 그것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부에 내려가 일'군들을 기술적으로 지도하며 배워 주고 있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중국) 및 관리국들과 기업소 지도 일'군들이 우로부터 아래로, 기대 옆에까지 내려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기계설비들이 생산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설비가 아무리 잘 정비되고 일'군들이 기술적으로 준비되여 있다고 하더라도 자재, 원료가 제때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설비가 돌아 가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설비 리용률이 낮아질 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설비 리용률이 낮은 일부 공장, 기업소들의 실정은 지도 일'군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심중한 주의를 돌릴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매개 기관, 기업소들은 설비의 실사, 등록, 이관, 인수 및 처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개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일체 설비의 상태들을 정확히 료해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의 합리적인 리용과 취급 관리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적시에 시정시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책임성과 대중들의 자각성을 동원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쓰면서 악전 고투하여 마련하여 놓은 중공업의 튼튼한 토대는 지도 일'군들이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사업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자기의 온갖 지혜와 창의 창발성을 다할 때 참으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대안 체계가 나온 후 지난 2년간의 경험은 일'군들이 지도를 개선하고 대중이 동원된다면 계획 사업, 자재 공급 사업은 물론 설비 리용률 제고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때문에 지도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 관철을 위한 지난 기간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총화 분석하고 그를 앞으로 계속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

허 재 억

금년에 우리 나라 농촌에는 또다시 례년에 없는 대풍이 들었다. 《근위 1급》 칭호를 수여 받은 문덕, 룡천, 북청군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곳에서 작년에 비하여 알곡 수확고 특히 정당 수확고가 훨씬 장성하였으며 농업 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높은 장성을 이룩하였다.

천추 빠른 속도로 발전한 공업에 뒤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단히 장성하여 온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는 특히 최근 년간에 거듭된 혹심한 자연 재해들을 극복하고 매년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년년이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기초하여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우리 당의 꾸준한 교양에 의하여 협동 농민들의 사상 의식 상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 농촌의 면모는 협동화가 금방 끝났던 4~5 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달라졌다.

무엇이 극히 짧은 년간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 농촌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며, 우리 농민들의 헌신적 로력 투쟁이며 특히 전 당과 전체 인민의 주목을 농촌에 돌리고 농촌 문제 해결에 가장 커다란 관심을 집중하여 온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이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와 그에 대한 국가적 지도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로동 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이며, 수백만 농민 대중을 온갖 착취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인도하는 문제이며,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켜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우게 하고 도시의 발전에 농촌을 따라 세우게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혁명에서 농촌 문제의 정확한 해결이 없이는 로동 계급은 광범한 농민 대중의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없고 농민 대중과의 공고한 동맹 하에 낡은 사회를 전복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도 농촌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함이 없이는 로동 계급은 자기 수중에 장악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의 강화도,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농촌 문제는 극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것은 농민의 심한 분산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2중적 성격과 관련되며 농업 생산이 기술적으로 락후하고 자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농촌 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 모든 나라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며 특히 농민이 주민의 압도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극히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던 농촌 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하여 왔다.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단계에

서 우리 당이 실시한 토지 개혁과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 실시한 농업 협동화는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은 토지 개혁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고 농업 생산을 급속히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광범한 농민 대중을 로동 계급의 확고한 동맹자로 되게 하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혁명의 제반 과업들을 성과 있게 실현하였다.

그러나 토지 개혁은 자본주의를 근절시킬 수는 없었으며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농민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다.

당은 농민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농촌 경리의 협동화이라고 한 레닌의 원칙을 창조적으로 실현하여 전후 짧은 년간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농업 협동화를 완성함으로써 우리의 농민들을 자본주의적 착취의 온갖 요소로부터도 영원히 해방시켰으며 전체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로 성과적으로 인도하였다.

농촌에서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면적 승리와 그의 공고화는 농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 로동 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협동화의 완성은 로농 동맹을 사회주의의 기초 우에서 확고 부동한 것으로 전변되게 하였으며 그것을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 도덕적 통일의 튼튼한 기초로 되게 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은 우리 농촌에서 생산력 발전의 광활한 대로를 열어 주고 기술 혁명의 과업을 급속히 진척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농민들을 온갖 착취에서 뿐만 아니라 세기적인 빈궁과 고된 로동, 낡은 의식의 잔재로부터도 해방시킬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마련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농업 협동화는 로동 계급과 농민,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초 우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개척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농촌 문제에서 당이 손을 떼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평지대 농민들이나 산간 지대 농민들이나 다 같이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

(김 일성,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농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로농 동맹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로동 계급의 동맹군으로서의 농민 대중의 물질 문화 수준과 의식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로동 재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며 또한 공업과 농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고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축소시켜야 한다.

이것은 극히 장기간을 요하는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이 과업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또한 농민들 자체에게만 맡겨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농민들 자체가 령세한 소소유자로부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된 지 오래지 않고, 농업에서는 사회화 수준이 한계단 낮은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이며,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공업에 비하여 낮은 조건에서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농촌을 완전히 책임지고 공산주의에료 끝까지 이끌어가야 한다.

레닌은 《…우리가 만일 각종 집단적

농업 기업에 대한 국가적 원조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경영 실시의 지지자도 아닐 것》(전집 제 30 권, 230~231 폐지)이라고 말하였다.

협동적 농민들이 로동 계급의 당의 지도, 전 인민적 소유와 공업의 지원이 없이 공산주의에로 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과거에도 농촌 문제 해결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온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협동화가 끝난 이후 시기에 와서는 협동 경리의 《호주》로서, 그의 운명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농촌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으로의 지도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당은 협동화 운동이 완성되는 차제로 지체함이 없이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힘을 동원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민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과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데 더욱더 중요한 주목을 돌림으로써 그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의식을 청산하는 사업을 촉진시켰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청산리 교시와 그것을 관철시키는 행정에서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는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그에 의하여 협동 경리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공고화되였다.

농민들을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여 온 우리 당의 정책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민들을 착취와 빈궁의 근원에서 해방하는 과업이 실현된 이후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의 농촌 문제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주로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의 로동 계급의 농민에 대한 정치적 령도, 공업의 농업에 대한 지원, 도시의 농촌에 대한 지도는 주로 국가 기구, 국가 기관에 의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농촌에 대한 국가적 지도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 당은 기업적 방법에 의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와 군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전면적 련계 형태를 확립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 특히는 농촌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가일층 풍부화시켰다.

국가가 자기 소유의 기업소들을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인 기업적 지도에 의거하는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창설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농촌 문제를 가장 훌륭히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농촌을 공산주의에로 인도하는 정확한 방도를 명시하였다.

새로운 지도 체계 하에서 국가는 협동적 소유를 다치지 않으면서도 농촌 경리의 계획 작성, 생산 조직, 기술 발전, 자재 보장, 로동 조직, 재정 활동 등 생산 경영의 모든 측면을 국가 소유의 기업소에 대해서와 같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직접 틀어 쥐고 조직하며 구체적으로 지도한다.

이것은 로동 계급과 농민 호상간의 완전한 신임 특히는 로동 계급의 농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지원의 뚜렷한 표현이다.

로동 계급은 농촌에서의 생산, 경영 활동 전반에서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일상적인 생산 활동 과정에서 로동 계급의 물질 기술적, 정치적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였다.

물질적 생산 령역에서의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직접적인 련계의 강화는 로농 동맹을 더욱더 공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가일층의 급속한 발전을 담보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현 시기 농촌 경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인 기술 혁명을 수행하는 데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의 기술적 락후성을 급속히 퇴치하게 하며 농업 생산의 확고하고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협동 경리를 한 계단 더 높은 경리 형태인 국가 경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협동 경리가 가지고 있던 산만성과 자연 발생성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그것들을 더욱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강유력한 경리로 만들었다.

이 새로운 지도 체계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농촌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정확한 지도 체계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농촌을 공산주의에로 이끌어 가는 전망적 견지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길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조직은 협동적 소유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 두 소유 형태의 련계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로 부단히 접근시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하여》)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킴으로써 공업 생산력과 농업 생산력,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의 차이를 더욱 빨리 축소시킬 것이며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속히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더욱더 축소시킬 것이다. 또한 그것은 로농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계급적 처지, 사상 의식 상태를 점점 더 접근시킬 것이다.

이 과정이 촉진되면 될수록 우리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농민들을 공산주의까지 확신성 있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를 창설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농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매우 유리한 방도를 개척하였다.

군을 잘 꾸리고 그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에서 농촌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창조적인 대책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군은 당 정책을 농촌에 침투시키고 그의 집행을 직접 조직 지도하는 정치적 거점이며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생산적 및 소비적 련계를 보장하는 경제적 거점이며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을 실현하는 튼튼한 기지이다.

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련계, 농촌에 대한 당의 지도의 강화는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으로의 지원을 유기적인 통일 속에서 심화시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농촌에 대한 당의 정치적 지도를 농업에 대한 경제 기술적 지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게 하며 농업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문화 혁명의 실현과 더욱 밀접히 결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농촌 문제를 전면적으로 더 잘 풀어 나갈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국가적 지도 형태를 창조하였으며 오늘 그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농촌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 지원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공업의 급속한 발전, 인민 경제 기타 부문에 대한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함이 없이는 농업을 포함한 인민 경제 전체를 현대적인 기술 토대 우에 올려 세울 수 없으며 또한 공업

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우지 않고서는 공업 자체의 급속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농업까지도 현대적 기술로 재조직할 수 있는 대기계제 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 특수적으로는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공업의 발전에 확고히 의거하면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특히 과거로부터 극히 락후한 공업을 물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 하는 보잘 것 없는 농업을 물려 받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첫 시기로부터 대규모적인 공업의 발전을 급속히 촉진시키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농촌 경리의 발전에 주의를 덜 돌리면서 공업의 발전에만 력량을 집중하는 식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는 없었다.

당은 전후 경제 건설에 착수한 첫날부터 공업의 발전을 앞세우면서도 그보다 못지 않게 농촌 경리의 발전에 력량을 돌렸으며 특히 공업이 발전하는 차제로 농촌 경리에 막대한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주도록 하였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기본 로선은 공업과 농업의 이러한 호상 관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후 년간 급속히 진척된 수리화를 비롯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적 토대의 장성과 농업 생산의 부단한 발전은 바로 사회주의적 공업이 농업에 준 거대한 방조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공업이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지 못 하고 자립적인 중공업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지 못 하였던 당시에는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농업이 노는 역할이 매우 컸으며 농업에 주는 공업의 방조도 제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공업의 토대를 축성하는 데도 우리의 농업이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공업 발전에 필요한 로력 원천은 주로 농촌이 담당하였다.

이것은 과거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불가피한 일이였다. 또한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 농촌 경리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절대로 필요한 일이였으며 농민들의 리해 관계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였다.

그러나 공업의 토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조성된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다음의 표는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공업과 농업이 노는 역할의 변동을 보여 주는 하나의 자료이다.

공업과 농업의 비중

	공업 및 농업 총 생산액	그 중	
		공업총생산액	농업총생산액
1946	100	28	72
1949	100	47	53
1953	100	42	58
1956	100	60	40
1960	100	71	29

우의 자료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과거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5개년 계획 기간(1957~1960년)에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급속히 전환되였으며 5 개년 계획의 수행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 생활에서 공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였다.

5 개년 계획 기간에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 경리와 관련된 공업 부문의 발전이 급속히 진척되였다.

례컨대 5 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이 총체적으로 348%로 장성하였는데 농업용 기계류 및 농기구류는 13 배로 장성하였으며 과거에는 없던 뜨락또르, 자동차 공업이 새로 창설되고 급속한 장성을 이룩하였다.

농업에서도 수리화 전기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생산이 급속히 발전하여 식량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농업의 생산 기술적 토대는 총체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특히 기계화는 시작된 데 불과하였다.

공업 자체를 포함한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높은 발전 속도를 계속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계속 추진시키면서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이 요구되였다.

당은 이러한 경제 발전의 제반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5개년 계획 말부터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데 전 당과 전체 인민의 력량을 조직 동원하였다.

전후 복구 시기의 어려운 때로부터 계속 농촌 경리에 막대한 투자를 실시하여 온 우리 당은 그 후 농업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를 더욱 급격히 증대시켰다.

례컨대 농업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는 1956년에 비하여 1960~1962년간에는 년 평균 192.8%에 달하였으며 금년 상반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38%로 장성하였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에서 그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과거 주로 중소 농기계와 수리화, 전기화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주던 공업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와서는 뜨락또로,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들을 농촌 경리에 더욱더 대규모적으로 공급하게 되였다.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기술적 련계는 이제 와서는 최신 기술의 토대 우에서 진행되게 되였으며 주로 농촌 경리의 전면적 기계화에 복무하게 되였다.

농촌 경리에 대한 공업의 지원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 서게 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비약적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수리화가 더욱 확대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척되고 화학화도 크게 발전하였다.

뜨락또르의 대수는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 6배(15 마력으로 환산하여)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뜨락또르에 의한 총 작업 면적은 같은 기간에 약 14.6배로 확대되였다. 금년 상반년 현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1만 7,500대(15 마력 환산)의 뜨락또르가 전야 작업에 참가하였으며 금년 말까지에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 대수는 0.89대에 달할 것이 예견된다.

또한 화학 비료와 농약 특히 살초제의 공급량도 급격히 확대되였는데 화학 비료의 정당 시비량은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 근 2.5 배에 달하였다.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의 급속한 촉진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공고성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농업은 이미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장성》(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하는 높은 발전 단계에 도달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함에 있어서 물질 기술적 지원과 함께 로력적 지원을 배합하는 방침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농촌 로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업이 농업에 기술 수단과 각종 화학 재료들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경감시키고 농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일시에 완성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긴장된 농촌 로력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물질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계화 수준을 높이는 한편 그에 배합하여 로력적 지원을 강화하며 농촌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당은 농촌 로력을 고착시키며 농촌의 청장년들이 필요 이상 도시에 이동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수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하여 농촌에 보내고 제대군인, 초 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에 파견하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로력의 구성을 더욱더 변동시켰다.

이와 함께 당은 매년 영농기에 막대한 공수의 도시 주민들의 농촌 로력 협조를 조직하였다.

례컨대 1957～1960 년간에만도 매년 평균 실공수로 752만 명 이상의 로력 협조를 진행하였으며 공업의 물질 기술적 지원이 결정적으로 강화된 1961～1962 년간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연 1,860만 이상의 도시 주민들을 매년 평균 농촌 로력 협조에 참가시켰다.

공업의 증대되는 물질 기술적 지원에 배합하여 로력적 협조를 강화하는 우리 당의 방침은 영농 사업의 결정적 시기마다 일시에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로력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정상적인 진행을 확고히 보장하며 또한 농촌의 생산 현장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들의 협조를 강화하고 농민들에게 로동 계급의 정치적 영향을 더 잘 줄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대책으로 되였다.

특히 금년에는 매개 공장,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 《이앙 제초 15 일 전투》와 《추수 10일 전투》 기간에 막대한 농촌 로력 협조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력을 절약하여 농촌에 파견하는 농촌 지원 사업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금년 상반년 간에만도 26만 7,000 명 이상의 도시 청장년들이 농촌에 파견되였다.

기술 혁명의 성과에 의거하면서 공업 로력을 절약하여 농촌에 파견하는 사업은 긴장된 농촌 로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농촌 핵심 진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

농촌 로동 행정 사업도 협동 농장 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공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직접 틀어 쥐고 조직하고 지도하는 한편 막대한 로력적 지원을 직접 진행하는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농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당의 립장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와 같이 당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 지원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 인민 경제 전체의 계획적, 균형적인 높은 발전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확신성 있게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균형적 향상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다 같이 급속히 높이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 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축소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고리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에 빈부의 차이를 없애며 농민들을 포함한 전체 인민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할 것을 지향하여 투쟁하며 경제를 발전시킨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착취에서 해방시키고 공업과 농업 생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다 같이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도 물질 문화 생활에서의 낡은 사회의 잔재가 일정한 기간 남아 있게 되고 공업과 농업이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 서는 시기가 각이하며 공업 생산과 농업 생산의 사회화 수준이 다르고 공업 로동과 농업 로동,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의 차이가 남아 있는 제반 사정으로 사람들 간 특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상 차이를 없애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 당은 과거 우리 나라에서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모두 극도로 빈궁하였던 조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첫걸음부터 로동 계급과 농민들의 생활을 다 같이 급속히 향상시키는 데 극히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로동 계급과 농민들이 모두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 하에 있었던 관계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다 같이 극도로 낮았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 생활 상 간

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로동자들에 비하여 농민들이 사회주의의 길에 훨씬 늦게 들어 섰고 공업에 비하여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낮은 조건에서 주민의 압도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로동자들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당은 이러한 사정들로부터 전후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취하는 한편 농민들의 생활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농민들의 생활이 로동자들의 생활에 비하여 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였다.

농민들의 생활을 로동자들의 생활과 균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물론 협동 경리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공고화하고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생산에서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업의 발전에 농업을 따라 세우게 하는 당의 방침이였다.

이와 함께 생산물의 분배, 교환 분야에서 당이 농민들에게 돌린 배려가 역시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당은 수차에 걸쳐 현물세 및 지방 자치세률을 대폭 인하하고 관개 사용료와 농기계 작업료를 낮춤으로써 농민들의 국가 부담을 현저히 덜어 주었으며 막대한 량의 영농 자금과 자재, 종곡을 대여하고 그의 적지 않은 부분의 반환을 면제해 줌으로써 협동 농장들에서의 축적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고 더 많은 생산물을 농민들의 소비에 돌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당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특히 작업반 우대제와 같은 창조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협동 경리 발전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물질적 관심성 원칙을 훌륭히 관철시켰으며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분배 몫이 돌아 가게 보장하였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함께 이러한 당의 방침들이 실현됨으로써 농민들의 개인적 분배 몫은 급속히 장성하였다.

농가 1 호당 분배량

	알곡(저류 제외)		현 금	
	절대량 (Kg)	비률	절대액 (원)	비률
1956	1,616	100	95	100
1960	2,100	130	300	315.8
1961	2,700	167	400	421

이와 함께 당은 수매 사업을 강화하며 농촌 시장 상업을 개선함으로써 농민들의 현물 수입을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촌 지역에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을 증설하고 도시 상업과 같은 체계에 의하여 상품 공급 사업을 원활히 보장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지난 시기 현물세 및 지방 자치세의 대폭적인 감면, 국가 대부금의 면제, 수매 가격의 조절 등으로만도 우리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배려를 받았으며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 올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당은 금년부터는 협동 농장들에 공급되는 수 많은 농기계, 농기구류들과 각종 생산용 자재를 종전보다 3 분의 1이나 눅은 값으로 공급하며 협동 농장들에서 납부하던 부업 수입 소득세와 각종 마류에 대한 현물세를 완전히 철지하며 국가 부담으로 공예 작물의 수매 가격을 평균 37%나 인상하게 하였다. 이것은 금년 1 년간에만도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7,000만 원의 추가적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조치였다.

이와 함께 당은 매년 농민들에게 국가 부담으로 수 많은 문화 주택을 건설하여 주었으며 각종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을 적극 방조하여 줌으로써 농민들의 공동적 생활도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당은 농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특히 과거로부터 생활수준이 매우 뒤떨어졌던 산간 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데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산간 지대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지방 공업과 각종 부업 생산의 발

전을 도모하는 한편 당은 산간 지대 농민들에게 더욱 큰 국가적 혜택을 돌렸으며 그리하여 오늘 산간 지대 인민들도 벌방 부럽지 않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다.

산간 지대 농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은 우리 나라 농민 생활 문제 해결에서 가장 어려운 고리를 우리 당이 성과적으로 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배려가 더욱더 증대됨으로써 이미 우리 나라 전체 농민들은 과거의 빈궁과 몽매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모두가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으며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계속 균형적으로 높아졌다.

지난 1957~1961년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소득은 2 배 이상으로 장성하였는데 농민들의 현물 및 화폐 수입은 1.6 배로 장성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이미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 투자를 더 많이 실시하고 생산에서와 생활에서의 농민들의 부담을 더욱더 경감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보다더 급속히 향상시키며 총체적으로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농업 생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립장에 서서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확고히 인도하고 있는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　　＊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우리 당은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당의 농촌 정책의 정당성은 오늘 인민 경제의 높은 발전 속도에서,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급속한 향상에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 혁명 력량의 반석 같은 통일 단결에서 남김 없이 실증되고 있다.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기저에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당의 원칙적 립장이 놓여 있으며 우리 인민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한 길로 인도하여 갈 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의 원칙이 흐르고 있다.

실로 우리 당의 농촌 정책과 그의 력사적 경험은 사회주의 농촌에 대하여 맑스-레닌주의 당이 어떻게 대하여야 하며 농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어떻게 촉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대답을 주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업 체계의 우월성을 남김 없이 발휘시키는 실천적 모범으로 되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의 정책은 주민의 압도적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성과적으로 인입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에로까지 이끌고 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체 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킬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을 따라 로동계급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농민들 앞에는 더욱 휘황하고 행복한 앞날이 약속되여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

김 영 철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된 때로부터 2 년이 지나 갔다.

새 체계 하에서의 2 년간의 생활은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가 사회주의 협동 경리 운영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는 것을 남김 없이 실증하였다.

새 전투에 들어 서고 있는 오늘 기업적 지도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더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잘 알아야 기업적 지도를 일층 완성할 수 있으며 또 우리 당 령도의 현명성을 심오히 파악할 수 있다.

기업적 지도 방법의 확립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은 국가가 전 인민적 소유의 기업소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협동 농장을 지도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의 발전에서 일대 혁명이다.

농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로동 계급의 국가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하였고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였으며 농민들 속에서 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의식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장기간의 투쟁에서 농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획득한 데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모든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과도기 첫 시기 우리 인민 정권은 대규모적인 사회주의 공업과 령세한 소상품 농민 경리의 서로 다른 두 경제적 기초에 서 있었다.

그러나 농업 협동화의 완성은 농업의 경리 규모를 확대시켰고 그 사회화 수준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공업과 같은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에 올려 세웠다.

그리하여 이제는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이 작용하게 되였으며 경리를 그의 법칙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도하게 되였다.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전 인민적 소유의 기업소를 지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농업 협동 경리를 지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적 지도를 위한 일반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국가가 협동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기계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이 있어야 하며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 간의 두터운 신임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레닌적 로선을 정확하게 관철시킴으로써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대규모적인 기계 공업을 창설하였다.

또한 우리 당은 새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에서 농민들의 신임을 획득하였다.

당은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토지 개혁을 농민 대중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도 자원성의 원칙에 립각하여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히 하면서 점차 그들을 협동 경리에 인도하였다.

우리 당은 농민들의 경제적 관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시키는 데도 항상 큰 관심을 돌려 왔다. 특히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자 당은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면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농민들은 로동 계급이 자기들을 성심 성의로 도와 주는 진정한 벗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믿음직한 령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국가를 전적으로 믿게 되였으며 그에 자기의 모든 생활을 완전히 의탁하게 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농업이 공업과 같은 경제 토대를 가지게 되였고 강력한 중공업이 창설되였으며 두 소유 형태 간에 높은 신임이 형성되여 있는 조건에서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는 현실적인 것으로 되였다.

기업적 지도의 실시는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가능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농업 발전 자체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농촌 기술 혁명이 촉진됨으로써 우리의 농촌 경리는 발전된 수리화 체계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들 및 화학 수단들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기계로 농사를 짓고 약으로 김을 매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게 되였다.

농촌 생활에서 일어 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를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특히 농촌 기술 혁명의 대대적인 전개를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7 개년 계획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당이 농촌 경리에 대한 새로운 기업적 지도 체계를 확립한 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실현한 것이다.

우리 당은 전문적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농민들의 자원적 조직인 협동 농장을 국가가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서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길을 개척하였다.

이것은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데서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경험이다.

종래 사람들은 흔히 두 소유 형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왜냐하면 기업적 방법이란 원래 자기 경리를 자기가 직접 틀어 쥐고 지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같은 류형의 소유 형태라는 것과 사회주의 하에서 로동 계급의 국가는 협동 경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공산주의적 과업에 속하는 이 문제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인민 경제에 대한 지도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는 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 보물고에

또 하나의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러면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는 농촌 생활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는 협동 경리 그 자체가 생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가지게 되는 이러저러한 제한성을 최대한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협동화 운동의 초기 협동 농장은 농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높은 속도로 농업 생산의 확대 재생산이 이룩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해결됨에 따라 협동 농장들은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는 기업체로 전환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 농장은 협동적 소유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경리 운영에서의 산만성을 극복할 수 없었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국가적 지도는 협동 경리를 한 계단 높은 국가 경리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협동 농장들이 가지고 있던 산만성과 자연 발생성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것을 더욱 조직적인 강유력한 경리로 만들었다.

또한 협동 경리는 사회주의 혁명 행정에서 락후한 기술에 기초하였던 개인 농 경리를 련합하여 창설한 기업인 만큼 그의 기계화 수준이 낮으며 협동 농장원들의 사상 의식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국가적 지도는 현대적 기술이 협동 경리에 직접 류입되게 하는 직통로를 열어 놓음으로써 농업의 기술 장비를 더욱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으며 농장원들의 사상 의식을 급속히 개변시키고 있다.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기업적 지도는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과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제고케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로동 계급의 국가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종래 국가는 일반적 지시와 독촉, 통제의 행정적 방법으로 농업을 지도하였으며 생산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늘 국가는 협동 경리의 모든 기업 활동을 직접 틀어 쥐고 조직하는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게 되였으며 농업 생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였다.

기업적 방법으로 국가가 농업을 지도한다는 것은 비유하여 말한다면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간, 도시와 농촌 간, 로동 계급과 농민 간에 두터운 맥을 통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는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인 로농 동맹을 강화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 기능을 제고케 할 것이다.

협동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의 실시는 어떠한 사회 제도든지 일정한 계급의 재정적 지원 밑에서만 발생하며 사회주의 국가가 보통 정도 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제도는 협동 농장 제도라고 한 레닌의 가르침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만약 《창발성》을 높인다는 구실 하에 협동 경리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역할을 감소시킨다면 그것은 협동 경리의 산만성을 조장하고 농촌에 공급되는 기술 수단과 생산 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저애하며 국가 경제 생활 전반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농업 생산에 대한 지도에서의 기업적 방법의 우월성

농업 협동 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이는 사회주의적 두 소유 간의 높

은 신임에 토대하여 국가가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대규모의 협동 농장을 틀어 쥐고 기술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 농장의 모든 기업 활동을 직접 조직하며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협동 농장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기술적 장비가 급격히 강화되였으며 농촌 기술 혁명이 긴급한 당면 과업으로 제기된 농촌 경리의 새로운 조건에 상응하게 위대한 청산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우리의 농업 협동 경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기업적 방법에 의한 국가의 직접적인 생산 기술적 지도에 의거하게 됨으로써 더욱 활기를 띠게 되였으며 생산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 농촌 경리는 지난 두 해 동안 혹심한 자연적 재해가 거듭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풍작을 이룩하였다. 특히 금년에 우리는 농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예비적 총화에 의하면 금년에 모든 도들에서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이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특히 벼의 생산 비중이 현저히 증대되였다.

그 중에서도 평남도에서는 논 면적을 확장하고 정당 수확고를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하여 도적으로 알곡 7만 5,000 톤을 더 생산하였고 근위 1급 칭호를 쟁취한 군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 많은 군들에서 지난해보다 알곡을 훨씬 증수하였다.

우리 나라 굴지의 곡창 지대인 황남도에서는 지난해보다 실로 14만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하였으며 함남도에서도 5만 톤의 벼를 더 증산하였다.

특히 집약화 농법이 광범히 실시되고 선진 영농 방법이 적극 도입됨으로써 농작물의 정당 수확고가 급속히 장성하였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평남도에서 도적으로 논'벼 정당 500 키로그람, 황남도에서 629 키로그람, 함남도에서 590 키로그람, 강원도에서 780 키로그람, 함흥시에서는 시적으로 752 키로그람 더 거둔 것을 비롯하여 모든 도들에서 정당 수확고가 급속히 장성하였다.

또한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급속히 강화되였다.

수리화에서 달성된 성과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기계화에서 작업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화학화가 촉진되였다.

평남도에서만도 순화강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관개 공사와 중 소 규모의 관개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해보다 1만 2,000 정보의 논을 더 확장하였으며 황남도에서도 1만 정보의 논을 더 풀었다. 그리하여 금년에 전국적으로 6만 600 정보의 논을 더 풀었다.

금년에 각지 농촌들에서는 수 많은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선진 농기계들이 공급되고 그 리용률이 높아짐으로써 작업의 기계화 비중이 훨씬 제고되였다. 평남도에서 뜨락또르의 대수는 100 정보당 1.1 대, 황남도에서는 1.3 대에 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농촌 경리가 자연적 재해나 우연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라 부단히 발전하는 인민 경제 부문으로 되였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 달성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 농업 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새 농업 지도 체계의 우월성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이 2 년 동안 경험을 쌓았고 그 역할이 상당히 높아진 결과 오늘에 와서는 협동 농장들에 대한 관리 지도 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 섰다. 특히 영농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도가 강화되여 랭상모 육성, 토양 조사, 삼경 체계 도입, 물 관리, 종자 선택, 시비와 농약 사용 등에서 과거보다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다.》(《농촌 경리에서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그러면 기업적 지도 방법의 우월성은 어데 있는가.

기업적 지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생산 과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데 있다.

농촌 기술 혁명의 급속한 추진에 따라 오늘 농업 생산의 모든 과정—기계 작업은 물론 물 관리, 시비 체계, 육종 및 기타 온갖 공정이 하나의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였다.

이러한 전환은 기계와 설비들을 갖추고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과학적인 시비 체계를 세우며 종자를 개량하는 등 기술적 지도의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장차 기술 혁명이 추진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면 될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종래의 행정적 지도 방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술과 결부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없었다.

기업적 방법에 의한 지도는 기술을 아는 사람이 기술 수단을 가지고 농업 생산을 지도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업적 지도는 복잡한 기술 공정의 체계로 된 생산 과정에 깊이 침투하여 농업 생산을 지도할 수 있게 한다.

생활은 기업적 지도가 기술 공정으로 전환된 농업 생산의 요구에 적응하게 생산 과정에서 걸린 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기업적 지도의 우월성은 농업 생산 지도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시킴으로써 적지 적작 원칙에 립각하여 생산의 합리적인 배치를 보장케 한다는 데 있다.

농업은 일련의 특수성을 가진 물질적 생산 부문이다. 그것은 생산 과정과 자연적 재생산 과정이 일치되여 있는 경리이며 각이한 지대적 조건에서 각이한 특성의 작물을 다루는 경리이다.

그러므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토질, 기후 및 작물 등 농산의 제 요소들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타산에 기초하여 계획을 세우며 생산을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의 농업이 집약화된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이라는 사정은 이것을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행정적 방법에 의한 군 인민 위원회의 지도는 이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이 창설되고 농업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게 됨으로써 해결되게 되였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농업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업적 지도는 일군들을 밑에 침투하게 하며 모든 것을 잘 료해하게 한 기초 우에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배치하게 한다.

최근 많은 협동 농장들에서 그가 처해 있는 자연 경제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생산 배치를 조절한 결과에 큰 성과를 달성

하였다.

또한 기업적 지도의 실시는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의 책임성과 농민 대중의 열성을 비상히 제고시켰다.

새 체계의 창설을 통하여 계획화, 생산 조직 및 그의 집행을 위한 많은 권한이 전문적 국가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에 집중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농업 생산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지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리게 되였다.

이것은 사업에서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할 것은 명백하다.

한편 기업적 지도의 실시는 농민 대중의 열성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기업적 지도의 본질적 특성은 협동적 소유를 그대로 두고 소유는 다침이 없이 두 소유 형태 간의 련계를 강화하여 농업에 대한 국가의 기술 경제적 지도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농민들의 리해 관계를 추호도 침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바라는 문제, 아파하는 문제를 그들의 의사에 맞게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적 지도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농민들의 열성을 훌륭히 결합시킨 우리 당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기업적 지도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지난 2 년간에 우리는 기업적 지도에서 매우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기업적 지도를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감으로써 농촌 경리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기업적 지도, 이것은 새것이며, 자라나는 것이며, 진보적인 것이다. 새것은 그것이 나온 초기에는 의례히 낡은 것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업적 지도 방법도 여기서 벗어 나지 못 하였다.

현재 뿐만 아니라 광활한 앞날을 가지고 있는 기업적 지도 방법의 우월성은 일'군들이 그것을 잘 운영하지 못 하는 데로부터 충분히 발휘되지 못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업적 방법이요, 청산리 방법이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경영 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사업을 하자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책상 머리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관주의적으로 내려 먹이는 낡은 사업 작풍을 대담하게 청산하여야 하며 기술 지도도 더 잘 하여야 한다. 계획도 되는 대로 짜고 기술적 지도도 잘 안 한다면 어떻게 경영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영 위원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다.》(우와 같은 책에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며 기업적 지도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일'군들의 기술과 농민들의 경험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것이다.

금년도 농사를 돌이켜 볼 때 응당 《경영 위원회가 있으면서 왜 콩을 심으면 정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산간 지대에 강냉이를 심어 더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 하게 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수수를 심으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강냉이를 심어서 더 거둘 수 있는 수확을 못 거두게 하는 현상을 발로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일부 군들도 있다. 이

것은 일'군들이 농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적지 적작의 원칙에서 작물을 배치하지 못한 탓이다.

일'군들은 협동 농장들에 내려 가서 어느 포전에 무엇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을 장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생산 계획을 세우며 작물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적 지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협동 농장과 기술 봉사 기관인 국가 기업소 간의 련계를 일층 강화하는 것이다.

협동 농장과 국가 기업소들은 농업 생산의 증가라는 하나의 목적에 의하여 단합되여 있지만 작업이 계절성을 띠며 또 회계가 다르다는 등등의 조건으로 량자 간의 련계가 지난 시기 잘 보장되지 못 하였다.

농장과 직속 기업소 간의 중간에 서 있는 경영 위원회의 조절적인 역할을 일층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영 위원회는 한편에 있어서는 협동 농장들의 수요 즉 어떤 자재와 기계들이 요구되며 무슨 작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장악하고 그것을 선후차를 가려 직속 기업소에 제기해 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농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 례컨대 기계화가 마치 자기들의 일이 아닌 것과 같이 생각하는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적 지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의 담보로 되는 것은 경영 위원회의 내부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2 년간의 생활은 기업적 지도에서의 부족점이 경영 위원회 내부 부서 호상간의 련계가 잘 보장되지 못하며 부서들의 역할을 제고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영 위원회는 기사장의 설계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모든 부서들이 다 그 시기 제기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응당한 기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직능 부서들이 지역 상 분포와 제기되는 과업이 많은 데로부터 오는 복잡성에 사로잡혀 깜빠니야에 몰두하게 하지 말고 그의 자립성을 높여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기본으로 되는 것은 경영 위원회를 조직 기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 경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특히 기술자들로 경영 위원회의 간부 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실무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기업적 지도, 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우리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우리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 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그 운영에서 대안의 기업 관리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농업 관리 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과 전반적 장악

로 주 혁

김 일성 동지는 최근 평남도 당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각급 당 위원회들이 키를 바로 잡고 당 정책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장악 통제할 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였다.

당 정책적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장악한다는 것은 그의 관철을 위한 지도에서 일면성을 극복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부과된 임무와 그의 실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틀어 쥐고 그것을 동시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서의 전반적 장악은 매 시기에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른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은 오늘 모든 당 조직들과 그 지도 일'군들이 이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과 전반적 장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더 한층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 앙양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 *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과 전반적 장악은 호상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심 고리는 결코 고립되여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여의 전반적인 고리들과 밀접히 련관되여 있는 것이다.

중심 고리는 결국 복잡하게 제기되는 수 많은 과업들의 련쇄 가운데서 다른 고리들에 가장 많이 련결되여 있으며 그리고 그 고리를 풀기만 하면 다른 고리들이 쉽게 풀려 나가는 그러한 고리이다.

우리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옳게 파악함이 없이는, 또한 그에 기초하여 사업의 선후차를 잘 가리지 않고서는 제기되는 전반적 문제들을 성과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중심 고리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다른 부차적인 고리들을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모든 고리들도 동시에 정상적으로 장악해 나감으로써 중심 고리에 력량을 더욱 집중하여 그것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중심 고리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그와 련관 속에 있는 다른 고리들을 제때에 풀어 나가야 하며 사업에서 전반적 문제들을 옳게 장악하고 추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례하면 농촌 경리에서 알곡의 수확고를 높임에 있어서 벼 생산을 결정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 생산 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비 농사를 가일층 집약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다만 일면적으로 생각하면서 논풀이와 논'벼 생산의 집약화에만 치중하고 기타 밭 농사, 밭 관개, 밭 면적의 리용률 제고 등 일련의 문제들을 도외시한다면 알곡 수확고도 높일 수 없고 농업 생산의 전반적인 장성도 옳게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놓고 볼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일면적인 지도 방법을 극복하고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에 기초하여 공업을 틀어 쥐면서 동시에 농업을 추켜 세우며,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인민 생활을 돌보는 등 전반적 행정을 빈틈 없이 세심하게 보살필 때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전면적인 앙양을 일으킬 수 있다.

사업에서 중심 고리를 장악하는 원칙에 기초하여 사업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당 위원회들의 기본 사명인 키잡이의 본질적 요구이다.

당 위원회는 해당 단위에서 최고 지도 기관이며 모든 부문 사업의 참모부이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 여부는 당 위원회의 키잡이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

당 위원회가 해당 단위에서 최고 지도 기관이며 참모부라는 것은 당 위원회들이 그 단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사업과 일체 생활에 대하여 완전히 책임지고 조직하며 통일적으로 지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그 어느 부문의 사업도 빠짐 없이 장악하고 제때에 사업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가르쳐 주어야 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틀어 쥐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창성 련석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군 당 위원회가 집체적 지도 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 사업의 모든 전선들, 모든 부문들을 다 장악하고 당 정책을 잘 침투시키고 조직 사업을 잘 하고 간부들이 선두에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키잡이는 결코 어느 한 부문에 치중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단위의 전반적 사업에 대한 방향적 및 집행적 장악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이 해당 단위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문제들을 놓치지 말고 전일적으로 장악 통제하며 그 어느 부문에서도 사업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돌리는 것은 당 위원회의 키잡이의 응당한 요구이다.

이것은 혁명 과업 수행에서 매개 단위에 부과된 임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개 고리들의 호상 련관이 더욱 복잡해질수록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심 고리 원칙에 기초하여 사업 전반을 장악하는 것은 당적 지도의 본질적 요구이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반드시 견지되여야 할 지도 원칙이다.

※ ※

당 정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선 중요한 문제는 실정을 전면적으로 료해하는 것이다.

당 사업, 경제 사업 등 모든 부문의 사업에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심 고리는 물론 약한 고리들을 제때에 발견하여 필요한 부문에 력량을 주동적으로 조절 배치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된다.

실정 료해는 중요하게 사업의 제반 조건과 력량을 옳게 타산하는 것이다. 사업 조건과 력량에 대한 옳은 타산이 없이는 사업에서 선후차를 정확히 가려

고 당면 해결하여야 할 긴요한 문제들을 바로 찾아 낼 수 없다.

복잡하게 엉켜져 있는 과업들 가운데서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를 옳게 찾아 내며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만으로는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 분석,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사업 조건과 력량에 대하여 옳게 타산한 기초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정을 료해하고 사업의 제반 조건과 력량을 옳게 타산하였을 때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도 이여의 모든 고리들을 장악 지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업 방침을 세울 수 있으며 기동성 있게 모든 부문에 력량을 포치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 자체가 부단히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복잡한 혁명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필요하다.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은 매우 복잡한 사업들로 엉켜져 있으며 정황이 변동됨에 따라 사업의 중심 고리도 부단히 변하고 력량 관계에 있어서도 또한 변동이 생긴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속 실정을 료해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중심을 정확히 장악하지 못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업에서 피동에 빠져 그 어느 한 문제도 똑똑히 해결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가령 농촌 경리에서 농번기의 경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해당 시기 구체적인 영농 작업 조건, 로력, 농기구, 역축 등 실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내기와 김매기, 밭관수와 풀 베기 그리고 하곡 준비 사업 등 련'이어 제기되는 과업들을 선후차와 경중을 잘 가리면서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실정을 료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철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 당의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것을 척도로 사업하는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다.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매개 단위, 매개 부문에서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우리의 사업 방향이며 모든 행동의 지침이다.

우리가 당 정책적 요구를 깊이 연구 체득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의 사업들을 세심히 살피며 그것을 척도로 모든 현상을 분석 종합 판단할 때 문제의 본질과 매개 고리들의 구체적 실정을 옳게 파악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당 정책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을 관철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주동적으로 사업을 포치하며 일단 포치한 사업들을 제때에 검토 총화하고 력량을 재포치하는 문제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장악은 당 조직들의 주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에 의하여 보장된다.

당 위원회가 모든 사업들을 주동적으로 포치하고 전개할 때 적은 력량을 가지고도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잘못된 점을 제때에 시정하여 어느 한 고리도 놓치지 않고 목적 의식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는 행정은 당 정책 집행을 위한 력량 포치를 부단히 반복하는 과정이다.

매 시기 제기되는 혁명 과업을 끝까지 관철하고 우리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력량을 정확히 포치하며 이미 포치한 사업을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지체 없이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미 포치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제때에

알아야 하며 중심 고리와 기타 고리들 간에 생긴 새로운 관계를 포착하고 그에 상응하게 력량 포치를 다시 조절해 나가야 한다. 한 번 포치한 사업은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견하지 않던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던 난관이 조성되여 정황이 달라지게 되여 력량 관계를 다시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

사실에 있어서 복잡하고 방대한 혁명 과업들을 모든 부문에서 어김 없이 관철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한두 번의 사업 포치로는 다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반적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려면 이미 포치한 사업을 제때에 총화하고 제때에 추진시켜야 한다.

사업에 대한 총화는 결국 이미 진행한 력량 포치의 결속인 동시에 새로운 력량 포치의 시작으로 된다.

사업을 정확히 총화하지 않고서는 이미 포치한 사업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교훈을 찾아 계속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에로 력량을 재포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개 부문에 존재하는 중심 고리를 장악하고 빈틈 없이 력량을 포치한 다음 한 측면으로는 포치한 사업을 결속하며 다른 측면으로는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찾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력량을 포치해 나가야 한다.

당 조직들이 이렇게 사업을 제때에 총화하고 한 문제 한 문제씩 사업을 결속지어 나간다면 지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모든 부문을 당 정책적 요구에 맞게 정확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당 위원회들의 이러한 조직 지도 사업은 우선 지도 일'군들의 완강한 전개력과 혁명적 사업 기풍을 요구한다.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일'군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달라 붙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많은 경험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군들이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항상 머리를 쓰며 매개 단위 매개 고리에서 무엇이 걸리고 있는가를 부단히 살피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이악하게 달라 붙는 그러한 사업 기풍을 확립하였을 때 해당 당 위원회는 생기 발랄한 전투적 참모부로서 전반 사업을 옳게 장악해 나갈 수 있다.

사업에서 일면적인 지도 방법을 극복하고 중심 고리를 장악하는 원칙과 전반적 장악을 옳게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당 위원회와 그의 지도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정책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모든 부문을 동시에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해당 당 위원회와 그의 지도 일'군들의 지도 능력과 조직 사업에 의존된다.

자기 력량을 정확하게 타산하고 중심 고리를 옳게 쥐며 사업 전반을 장악하는 원칙은 일'군들의 지도에서의 높은 과학성을 요구한다.

과학적인 령도 예술을 소유함이 없이는 복잡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석 판단할 수 없으며 옳은 방침과 방도를 강구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면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없다.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부단히 습득하며 경제 지식을 소유하는 동시에 특히 청산리 지도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산리 방법은 정상적으로 아래에 내려 가서 하부 실정에 대한 전면적인 료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일'군들을 도와 주며 군중을 발동시켜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 방법이다.

그러므로 오직 청산리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 가서 정황을 옳게 분석 판단할 줄 알고 군중에 의거하여 긴절하고 중요한

문제를 찾아 낼 줄 알며 중요한 고리들과 부차적인 고리들을 옳게 가려 내어 빠짐 없이 력량을 포치할 줄 아는 능력 있고 전개력이 강한 일'군으로 될 수 있다.

일'군들이 이렇듯 높은 사업 능력과 혁명적 기풍을 소유하는 것은 당 위원회가 사업 전반을 장악 지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특히 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더욱 절실하다. 왜냐하면 당 위원회 책임 일'군들은 그가 처한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 사업 전반, 그 중에서도 당 위원회의 키잡이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책임 일'군들이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옳게 파악하였는가 못 하였는가, 구체적인 료해와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방침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결심이 확신성 있게 섰는가 못 섰는가에 따라서 사업 포치의 성과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현실은 말로써 강조하고 내용이 없이 지도하는 그러한 현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책임 일'군들은 맑스-레닌주의 원리 학습과 당 정책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항상 당 정책적 견지에서 문제를 분석 판단하고 복잡한 사물 현상 속에서 본질을 찾아 낼 줄 알며 정황에 근거하여 사업 방침을 세우고 력량을 포치할 줄 아는 그러한 사업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초급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높이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방침이 수립되였다 할지라도 초급 단위에서 그것을 정확히 접수하고 능동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수립된 방침이 자기의 생활력을 나타내지 못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고착시키며 당 정책 교양과 당 생활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자각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할 줄 아는 유능한 일'군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더 잘 움직이게 될 것이며 모든 고리가 보다 쉽게 풀려 나가게 될 것이다.

⁂ ⁂

사업에서 중심 고리 원칙에 기초한 전반적 장악은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형식이며 그의 중요한 방도이다.

이것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를 높이 받들고 그의 실행에로 떨쳐 나서고 있으며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모든 부문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키잡이를 옳게 함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 힘 있게 조직 동원하여 당이 제기한 보람찬 이 과업들을 영예롭게 수행할 것이다.

위대한 투쟁과 혁명적 폭풍우의 해

—1963년 국제 정세—

최 무 용

1

1963년의 국제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과 전반적으로 평화,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인민들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은 전례 없이 격렬하여졌으며 인민들의 강력한 타격에 저주로운 식민주의 철쇄는 마디마디 동강이 나고 있다.

제국주의의 통치가 가장 약한 지역인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 력량으로 되고 있다.

금년에 이 세 대륙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더욱더 무장 투쟁으로 급속히 발전 강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무력에 의한 탄압에 매여 달리면서 압박과 착취, 노예살이와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조건에서 소극적 투쟁 방법으로써는 이 나라 인민들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더우기 인민들은 체험을 통하여 식민주의자들의 《선심》이나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써는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진리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들이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기한 것은 생활 발전의 필연적 귀결이다.

인민들은 이 전투적 기치 밑에 손에 무기를 들고 일떠섰으며 무장 대오는 확대되였다.

이미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아세아에서 인민들은 무장 투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 버리고 있다.

미제가 동남 아세아의 전초 기지로 삼고 있는 남부 월남에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미제는 월남에서 구축되면 동남 아세아에서 발 붙일 수 없게 될가 두려워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도발하고 미군 1만 6천여 명을 투입하는 한편 매일 150만 딸라를 써가면서 지어 유독성 화학 물질과 나팜탄까지 사용하여 남부 월남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압살하려고 집요하게 달려 들었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인민들을 더욱 단련시키고 무장 투쟁을 보다 격앙케 하였을 뿐이다. 이미 남부 월남 전 지역의 4분의 3을 해방시킨 인민 무장대는 금년 첫 9개월 간에만도 7만 5천여 명의 미군 및 괴뢰군을 살상 포로하고 200대의 적기를 격추 격상시켰으며 4,750여 개의 《전략촌》을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인민들을 해방시켰다. 18개월 내에 남부 월남을 《평정》하겠다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완전히 파탄되였을 뿐만 아니라 5월부터 불교도를 포함한 전 인민적 반미 구국 투쟁이 고조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 지반은 극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에 당황 망조한 미제는 11월 1일 군사 구데타를 조작하여 군사 정권을 들여 앉힘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으나 그것은 미제의 취약성만을 드러내놓았을 뿐이고 형편은 더욱 곤난한 지경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군사 구데타가 발생한 바로 이튿날 10 여 만 사이공 시민들이 일대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인민 무장대가 전과를 날마다 확대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무기와 딸라의 힘으로도 괴뢰의 교체로써도 그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의 종국적 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동남 아세아에서 총파산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9월 16일 《말레이시아 련방》을 조작하였으나 브루네이와 이 《련방》에 망라된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에서도 민족 해방군은 무기를 굳건히 틀어 쥐고 치렬한 해방 투쟁을 전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서부 이리안의 귀속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오만 민족군도 무장 투쟁으로써 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싸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금년에 무장 투쟁의 중심이 동부, 중부 및 남부 지역으로 이동되였다.

앙골라 인민 무장대는 전국의 13 개 주 중 9 개 주에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1 년간에 포도아 식민주의 군대 1,200 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포도아령 기니아에서도 유격대들은 남부 지역을 통제하고 수림 지대에 강력한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인민들도 무장 투쟁의 단계에 들어 섰다.

큐바 혁명의 승리적인 전진에 고무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에서도 무장 투쟁은 주류를 이루었다.

무장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베네주엘라에서 민족 해방군은 이 나라의 20 개 주 중에서 11 개 주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다. 그들은 금년 12월 1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서만도 도처에서 미국인 석유 기업소 송유관 등을 파괴하였으며 수도 카라카스에 진출하여 치렬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미국 출판물들도 《베네주엘라를 제 2의 큐바로 전변시킬 데 대한 본격적인 혁명이 개시》되였으며 《베네주엘라에 있는 30억 170 만 딸라에 달하는 미국의 재산은 위협에 처해 있다》고 비명을 올리는 데까지 이르렀다.

무장 투쟁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 등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였다.

금년에 혁명의 거세찬 파도가 휩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혁명 력량은 반제 공동 전선에 더욱 굳게 결속되였으며 그의 련대성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혁명적 인민들은 투쟁에서 더욱 단결되여 호상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5월 아디스 아베바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독립 국가 수뇌자 회의는 싸우는 인민들을 무력으로 지원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2월 탄가니카의 모쉬에서 진행된 제 3 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대회, 아세아, 아프리카 기자 대회,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집행 위원회 회의, 제 1 차 신흥 세력 경기 대회, 큐바 옹호 미주 대회,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동 투쟁, 싸우는 월남에 대한 지지 성원 깜빠니야 등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인민들의 련대성과 단결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미제의 기만적인 략탈 수단인 《원조》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이 나라들은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자주, 자립의 길로 거보를 내디디였다.

인도네시아, 쎄일론, 비르마가 미제의 압력과 《원조》 중지 위협을 박차고 석유 공업 분야에서 미국 독점체들을 구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캄보쟈는 미제의 《원조》를 거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알제리아, 아랍 련합 공화국, 기니아, 말리, 가나 등 아프리카의 여러 독립 국가들도 식민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르헨틴도 외국 독점체들과의 석유 계약을 페기하였다.

이것은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망국의 길이며 경제적 자립을 달성함으로써만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각성이 높아 가고 있으며 신식민주의의 마수가 분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민족 해방 투쟁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제국주의 진지를 약화시키고 그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저지 파탄시킴으로써 세계 평화 위업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아부 굴종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보려하지 않으며 무장 투쟁이 세계적인 핵 전쟁의 《불씨》로 될 수 있다고 하는 허무 맹랑한 주장으로써 인민들이 투쟁을 포기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 해방 투쟁은 자체의 법칙에 따라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붕괴 과정을 앞당기면서 더욱 힘 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계속 승리하고 있다.

금년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의 약수적 전횡을 반대하며 생활 처지의 개선과 계급적 해방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도 강화되였다.

실로 지난 1 년간은 《파업의 해》로 특징 지어진다.

파업은 전례 없는 대중적 규모로 확대되였으며 그의 정치적 성격이 더욱 뚜렷해지고 근로자들의 행동 통일이 강화되였다.

일본 로동자들의 춘기, 추기 투쟁과 《한일 회담》 및 미국 원자 잠수함의 기항을 반대하는 10 여 차의 공동 투쟁, 114 일간이나 계속된 후 끝내 승리한 뉴욕 신문 일'군들의 파업, 《드 골 정권 이래 최대의 위기》를 조성시킨 불란서의 탄부들과 각 부문 로동자들의 전국적 총 파업, 이태리의 수백만 로동자들의 계속 부절한 투쟁 등은 그 몇 가지 실례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버밍감에서의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흑인들의 시위를 도화선으로 하여 압박과 착취, 멸시와 천대에 시달려 온 수십만의 흑인들이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에 일떠섰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앙양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파업 투쟁과 혁명적 진출은 자본주의 모순의 필연적 산물이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경제 형편이 악화되고 독점 부르죠아지의 억압과 착취가 더욱 강화되여 로자 간의 모순이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로동 계급의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은 고조되지 않을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변절자들이 아무리 부르죠아지에 대한 환상을 류포시키려 하고 있고 《계급 협조》를 설교하면서 로동 계급의 진출을 억제하려고 하더라도 이 장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들의 배신적 행위는 도처에서 폭로 분쇄되고 있다.

로동 운동 내에서 개량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치렬히 전개된 것은 지난 1 년간의 정세에서의 중요한 변칙이였다. 계급적 해방을 위한 세계 로동 계급의 투쟁은 우경 투항주의적 요소를 분쇄하면서 가일층 명랑하여지고 있으며 이 운동 내에서 맑스-레닌주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의 압박과 착취가 지배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마수가 뻗치고 있는 지구 상의 모든 곳에서 계급 해방과 민족적 독립을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의 격류는 도도히 흐르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 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이다.》(김 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투쟁과 폭풍우 속에서 혁명 력량은 거대한 전진과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의 나락으로 더욱 깊숙히 빠져 들어 갔다.

2

금년에 세계 인민들의 혁명 투쟁이 앙양된 반면에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였다.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 민족 해방 운동의 앙양, 식민지 체계의 급속한 붕괴 과정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를 가일층 심화시켰으며 제국주의 렬강들 간에서의 시장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하였다. 더우기 제국주의 시기에 있어서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발전의 불균등성의 법칙에 의하여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서구라파 렬강들이 그에 맞서서 자기의 지위를 요구하게 된 사정은 세계 제패와 시장 쟁탈을 위한 그들 간의 투쟁을 더욱 격화시킨 요인으로 되였다.

승냥이 법칙이 작용하는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 세력권을 위한 충돌은 경제, 군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공개적인 싸움으로 나타나 그것은 더욱더 치렬해졌다.

《공동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자들의 싸움은 금년 1월 28일 불란서의 완강한 반대에 의하여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이 실패로 돌아 간 브류쎌 회담의 결렬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이것은 서구라파에 대한 침투와 통제를 노리고 있는 미국의 구라파 정책에 가해진 심대한 타격이다.

미제와 《공동 시장》 간에도 관세전으로 표현된 시장 쟁탈전이 첨예하게 벌어졌다. 미제는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괄 관세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으나 《공동 시장》의 반대에 부딪쳤으며 오히려 《공동 시장》이 농산물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닭고기 전쟁》, 《닭알 싸움》까지 벌어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면직물 수출입과 이론 문제 등을 둘러 싼 미 일 간의 갈등도 첨예화되였다.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은 경제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및 정치적 분야에서도 가일층 심각하여졌다.

서구라파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미제의 나토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은 독자적 핵 무력을 주장하는 불란서에 의해 정면 배격 당하였다. 불란서는 서부 독일과 《협조》 조약을 체결하고 《구라파인의 구라파》라는 구호 밑에 구라파에서 미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동남 아세아 일대에서도 미국 세력을 배제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정치적 패권과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암투가 격심하여졌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순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과 함께 제국주의자들을 가일층 약화시키고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멸망의 운명이 가까와 오면 올수록 침략과 전쟁의 길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면서 더욱 횡포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지난 1년간 전면적 핵 전쟁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의 불'길을 더욱 크게 일으키려고 광분하였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새 회계 년도에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만도 제 2 차 세계 대전의 3 개년을 제외한 미국 력사 상 최고 기록인 560억 딸라에 달하였으며 그중 핵 무기 체계를 위하여서만도 150억 딸라가 배당된 사실은 미제가 전쟁 준비 및 도발에 얼마나 혈안이 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특히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피압박 민족들과 피압박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말살하려고 광분하였으며 그들의 식민지 기반이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렸다.

남조선에 원자 및 로케트 무기들을 계속 끌어 들이는 한편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도발 행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 있으며 원자 잠수함과 《에프 105》 형 전투 폭격기들을 끌어 들여 일본을 미국의 핵 전략 체계에 얽어 매며 핵 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는 길에 공공연히 들어 섰다. 남부 월남에서 미제는 침략 전쟁을 더욱 확대하며 라오스에서도 국내 전쟁을 재발하려고 획책하였고 인도 반동과 결탁하여 반중국 깜빠니야를 일층 강화하고 미국-인도 《공동 공중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합동 군사 연습》을 벌려 놓는 등 인도를 자기들의 침략 기지로 전변시키는 데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미제의 침략 책동으로 말미암아 카리브해의 사태는 더욱 긴장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큐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강화하며, 무력 침공을 위하여 미군 《룩수 부대》와 큐바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큐바 령토를 직접 폭격하는 등 도발 행동을 끊임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미주 국가 기구》로 하여금 큐바를 고립시키며 《집단적 제재》를 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가 큐바를 침략하고 큐바 혁명을 말살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로골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군사적 책동과 함께 미제는 《평화 전략》을 추진시키면서 모험적 군사 정책을 엄페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인민들의 혁명성과 투쟁 정신을 거세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의 흉책에 의하여 조작된 부분적 핵 시험 금지에 관한 모쓰크바 조약의 체결은 그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것은 그 어떤 《평화적 공존과 리성의 승리》나 《군비 철폐의 제 일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기만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 조약 체결 후에 감행된 10 여 차에 걸치는 미제의 지하 핵 시험, 서부 독일과 카나다 등에 대한 핵 무기 제공, 나토 핵 무장 계획의 추진 등은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

미제가 아세아와 세계 도처에서 감행한 모든 광란적인 책동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그의 침략적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로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1월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 된 죤손은 케네디의 무모하고 악랄한 침략 정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발광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는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 걸친 동맹을 확립》하며 《미개발 국가들에 평화군을 파견》하며 《남부 월남으로부터 서부 베를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자기의 공약을 견지》하는 등으로 세계 제패 야망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고창하였으며 그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미 국회는 지하 핵 시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근 2천만 딸라를 추가적으로 배정하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 케네디에 대하여서처럼 죤손에 대하여서도 기대를 걸 것을 설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며 인민들을 기만하고 제국주의를 도와 주는 것이다. 정세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제멋 대로 날뛸 수 없도록 수족을 얽어 매고 그들의 침략 및 전쟁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세계 혁명 운동을 앙양시키고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키며 그의 력량을 약화시키고 있는 결정적

요인은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이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인구의 3 분의 1 이상과 지구 륙지의 4 분의 1, 세계 공업 생산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력량은 국제 무대에서 1963년에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면서 더욱더 강화되였다.

사회주의는 오늘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세계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의 견인력과 영향력은 비상히 증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며, 세계 평화의 성새이며, 혁명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며 그 단결을 공고히 하고 위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통일 단결의 강화는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 세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지난 1 년간 제국주의자들과 세계 반동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훼손하며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분렬 와해시키려고 더욱더 발광적으로 책동하였으며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이에 적극 리용하였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굴종하여 우리 시대가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대이며 따라서 투쟁도 혁명도 하지 말아야 하고 살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와 무원칙하게 타협하며 제국주의 국가 통치자들의 《리성》에 의거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을 사회주의 진영에 끌어 들이려 하고 맑스-레닌주의와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는 형제 당과 형제 국가들은 《교조주의》니, 《호전 분자》니 하고 중상 공격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분렬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지어 사회주의 진영에서 몇몇 나라를 떼여 내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듯이 행동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중국 소동에 합류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고립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위험한 행위이며 응당 배격되여야 한다.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은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세계 혁명 발전에 막대한 해독이 끼쳐지고 있다.

정세는 모든 당들과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더 철저히 전개하며 맑스-레닌주의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투쟁 속에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은 장성 발전하고 있으며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맑스-레닌주의의 불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발전하고 있는 혁명 투쟁의 거세찬 격류 속에서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배신적 정체는 날날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 년간의 정세 발전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새것과 낡은 것 간의 격렬한 투쟁에서 사회주의와 진보, 새것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다.

투쟁과 혁명은 인류와 력사를 착취 없고 압박 없는 미래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달리게 할 것이다.

1963년 《근로자》 총 내용

문 헌

필자 호수 페지

편집국 론설

당 건설

정치 및 일반 리론

경제 건설

남조선 및 국제 관계

평론 및 서적 해제

문답 학습

근로자 제 24 호 (루계 238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행 • 1963년 12월 20일 인쇄 • 1963년 12월 17일

ㄱ—330816 값 40 전

《노사까 산조 선집》

판형 국판, 예정 페지 500페지

이 책은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출판부에서 발간한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의장 노사까 산조 동지의 《선집》(전후 편) 중에서 추려서 묶은 것이다.

제 1 부에는 일본의 국내외 정세와 일본 공산당의 정책 관계 론문들, 제 2 부에는 일본 공산당의 당 건설과 관련된 론문들을 수록하였으며 일본 공산당 제 7 차 대회에서 한 정치 보고를 이에 첨가하였다.

이 책은 일본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이 일본 공산당의 령도 하에 미 일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과 이 투쟁에서의 일본 공산당의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 당의 통일 단결과 그 강화 발전을 위한 당 내외에서의 원칙적인 투쟁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이 책은 미 일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일본 공산당과 일본 인민의 투쟁을 연구함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